승인번호
제402003호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신동훈 · 김희진 · 이정민 · 이용해 · 장윤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과 함께
지속가능한 미래사회를 만들어갑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연구보고 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저 자 **신동훈, 김희진, 이정민, 이용해, 장윤선**

연 구 진 연구책임자_신동훈(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공동연구원_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_이정민(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_이용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_장윤선(대구교육대학교 조교수)
연구보조원_김범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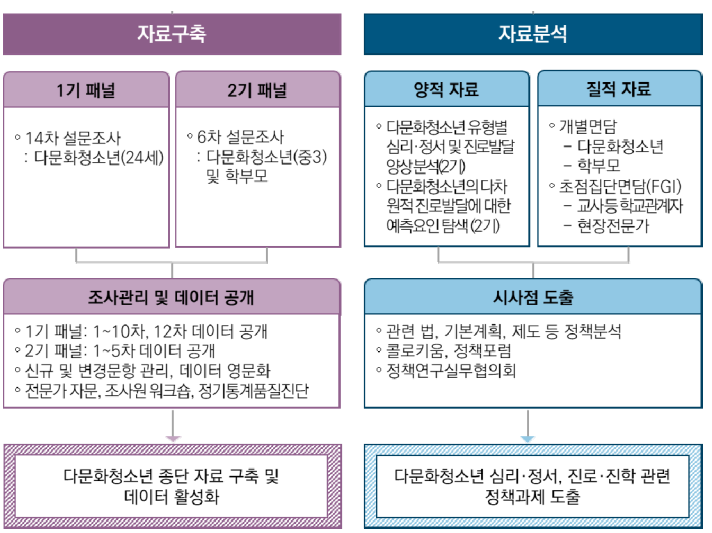
연구요약

■ 연구목적

-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 궤적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생산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인식과 경험을 분석함으로써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추진의 토대를 구축함.
- 패널자료, 심층면담자료, 정책 현황 등을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 정책 고도화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함.
- 2024년도 중점목표는 종단자료 구축(1기 패널 14차년도, 2기 패널 6차년도 추적조사)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진로·진학 관련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임.

■ 연구내용

- 다문화청소년 종단자료 구축 및 데이터 활용의 활성화
-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발달 양상 분석 및 정책방안 모색



■ 연구방법

● 문헌연구
- 다문화청소년 관련 통계, 선행연구, 정책 방향 검토 및 분석

● 전문가 자문
- 설문문항 검토 및 의견조사, 패널 추가 표본 구축 및 대표성 확보 방안 검토, 다문화청소년 관련 현안 및 정책추진 실태 파악 등을 주제로 전문가 자문 실시

● 종단조사
- 1기 패널(2011년 구축, 14차) 추적조사 및 2기 패널(2019년 구축, 6차) 추적조사

● 심층면접조사
- 2기 패널 청소년 및 일부 학부모 대상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 진로·진학, 성장·발달 환경,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 자원 등을 주제로 심층면접 실시
-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사업의 진행내용과 성과,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각각 초점집단면담을 실시

● 패널자료분석(기초 및 심화분석)
- 2기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발달 실태를 다문화청소년 유형과 배경변인 등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분석
- 2기 패널의 1~5차 자료를 머신러닝 기반 랜덤포레스트 방법을 적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 영향요인을 분석

● 기타
-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및 진로발달 이해 제고를 위해 콜로키움(2회)을 실시
- 패널유지 및 데이터 품질 향상 도모를 위해 총 8회(간담회 1회, 조사원 교육 7회)의 조사원 대상 간담회 및 교육 실시
-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4회)를 실시하여 다문화청소년 대상 정책 실태 및 유관 사업 현황을 파악하고 연구 방향성을 논의
-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진로·진학 관련 정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으며,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해 학교 및 가족센터 등을 방문(4회)
-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성과 확산 및 자료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라디오(세종FM)에 출연 및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개최를 지원

■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

●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다변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위한 적절한 대응 전략과 법·제도 개선이 필요함.
-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은 대상을 중심에 둔 맞춤형 지원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의 연계가 필수적이나 이를 위한 추진체계의 인력 구성이나 예산 등에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함.

● 패널자료 분석

- 중도입국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는 다문화청소년 유형 가운데 상대적으로 낮았고, 사회적 고립도와 진로 불안감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음.
-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적 위축 수준을 보였음.
- 대도시 거주, 학교밖 지지체계, 높은 가구 소득은 심리사회 적응에 긍정적임.
-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얼마만큼 관심을 두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지에 따라 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발달 수준에 차이가 드러남.
-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은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에 강한 영향을 받음. 다만, 이는 기초분석에서 외국인가정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던 결과라는 점에서 외국인가정 자녀의 특수성을 드러냄.
- 심리·정서적 상태와 진로발달은 관련성이 높음. 또한, 이중문화 수용태도, 국가정체성,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진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함.

● 심층면접자료 분석

- 다문화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생활에 만족하면서 진로 및 학업에 대한 고민과 탐색을 하는 편이었으나, 일부는 신체화 증상과 낮은 자존감을 경험했음.
- 또래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일부는 괴롭힘이나 고립감을 경험했다고 밝혔음.
- 다문화청소년들이 받았던 지원은 대체로 중학교 이전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부모와의 소통 부족과 진로 정보 탐색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 핵심 정책제언

핵심 정책제언

●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발달”을 비전으로 4가지 원칙(① 보편성과 특수성 고려, ②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 ③ 단계적 접근, ④ 다차원적 지원)을 설정하고 총 5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음.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정책의 비전과 원칙

●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 체계화

- 사업 방향성 재고 및 지역 내 유관기관에서 추진하는 타 사업과의 역할 정립을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전문인력 확대 및 양성시스템 개선과 지침 구체화에 대한 내용을 제안하였음.

핵심 정책제언

● 학생맞춤통합지원 확대

-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정책 및 사업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과 일정수준 이상의 예산 확보를 위해 각 사업의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함.

● 진로 융합 콘텐츠 보급

-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진로지원이 어려운 환경에서 진로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고려해 볼 수 있는 진로 융합 콘텐츠의 내용을 제안함.

● 체계적 부모교육 지원

- 부모교육 체계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플랫폼에 나누어져 있는 부모교육 자료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단계/다문화청소년 유형/언어수준/심리정서 상태/부모의 언어 및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수준 등을 고려해 통합 및 정리할 것을 제안함과 동시에, 이를 어떠한 추진체계와 예산을 활용해 보급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을 제안함.

● 학생정보 관리 방법 개선

-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2개 이름(영문명과 이를 한글화한 이름)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름으로 개인배경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드러내길 희망하는 이름을 추가 등록 및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정보 관리 방법 개선을 제안함.

차 례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4-일반06

제 1부 패널조사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 6
3. 연구추진체계 ····· 9
4. 연구내용 ····· 10
5. 연구방법 ····· 16
6. 보고서 구성 ····· 26

제 2부 자료구축

Ⅱ.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개요 ····· 31
2. 2024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문항 변경 관리 ····· 39

Ⅲ. 패널조사 및 관리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87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 99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 112
4. 원패널 관리 ····· 115
5. 정기통계품질진단 ····· 126

제 3부 자료분석

Ⅳ.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1. 다문화청소년 현황 및 전망 ····· 133
2.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선행연구 ···· 143
3.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 145
4. 요약 및 시사점 ····· 162

Ⅴ. 패널자료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진학 (2기 패널)

1. 분석개요 ····· 167
2. 기초분석 ····· 168
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 탐색 및 비교 ····· 211

Ⅵ. 심층면접(IDI & FGI):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경험 및 지원에 대한 질적 조사

1.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 243
2.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현장실무자 대상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진로설계프로그램과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중심으로 ····· 324
3. 소결 ····· 384

Ⅶ.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 및 진로·진학 준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제언 도출 방법 ····· 399
2.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 401
3. 정책제언(안) ····· 409

참고문헌 ····· 421

부 록 ····· 437

표 목차

표 Ⅰ-1. 2기 패널 청소년용 설문지 주요 조사영역 및 내용 (2019년~2024년)……11
표 Ⅰ-2. 2기 패널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2019년~2024년)……12
표 Ⅰ-3.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영역별 내용……13
표 Ⅰ-4.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및 추진 내용……17
표 Ⅰ-5. 2기 패널 조사 개요……18
표 Ⅰ-6. 1기 패널 조사 개요 ……18
표 Ⅰ-7. 다문화청소년 심층면담(면접) 개요……19
표 Ⅰ-8. 현장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20
표 Ⅰ-9. 콜로키움 개요 ……21
표 Ⅰ-10. 조사원 간담회 및 교육……22
표 Ⅰ-1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23
표 Ⅰ-12. 청소년정책 포럼 개요 및 내용……24
표 Ⅰ-13. 다문화청소년 지원 현장 방문 개요 ……24
표 Ⅰ-14. 외부 매체 출연 개요……25
표 Ⅰ-15. 외부학술대회 지원 개요……26
표 Ⅰ-16.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27
표 Ⅱ-1. 데이터 활용실적……34
표 Ⅱ-2. 주요어 빈도……36
표 Ⅱ-3. 2023년 이후 청소년용 신규문항(안)……39
표 Ⅱ-4. 그릿(신규)……40
표 Ⅱ-5. 학습 및 청소년 활동(신규)……41
표 Ⅱ-6. 가사 참여 및 여가 활동(신규)……42
표 Ⅱ-7. 군복무 여부(수정)……43
표 Ⅱ-8. 군 복무 중 불쾌한 경험 여부(수정)……44
표 Ⅱ-9. 혼인상태(수정)……45
표 Ⅱ-10. 자녀 유무 및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신규)……45
표 Ⅱ-11. 자녀 희망 여부(신규)……46

표 Ⅱ-12. 현재 거주형태(부모님과 동거 여부) 및 경제적 독립 여부 (수정)…… 47
표 Ⅱ-13. 해외이주 고려 여부, 이유, 희망지역(신규)…… 48
표 Ⅱ-14. 가정 생활비 마련방법 및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수정)…… 49
표 Ⅱ-15. 개인 생활비 마련방법 및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수정)…… 50
표 Ⅱ-16.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수정)…… 51
표 Ⅱ-17.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여부(수정)…… 51
표 Ⅱ-18. (대학 재학 중인 경우) 학교명 확인(수정)…… 52
표 Ⅱ-19. (휴학인 경우) 휴학한 이유(신규)…… 53
표 Ⅱ-20. 전공확인(수정)…… 54
표 Ⅱ-21. 대학 진학 준비 여부(신규)…… 55
표 Ⅱ-22. 최근 한 달 내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수정)…… 55
표 Ⅱ-23. 내가 한일 및 직책 또는 직위(오픈문항: 직업분류)(신규)…… 56
표 Ⅱ-24. 종사상 지위(신규)…… 57
표 Ⅱ-25. (임금근로자의 경우) 보수형태, 임금 지급처, 일경험 해당 여부(신규)…… 58
표 Ⅱ-26. 평균 근무시간(총 근무일 수 / 하루 평균 근무 시간)(수정)…… 59
표 Ⅱ-27. 월평균 소득(수정)…… 60
표 Ⅱ-28. 부채 유무(신규)…… 60
표 Ⅱ-29. 업무만족도(수정)…… 61
표 Ⅱ-30. 직무불일치(교육수준/기술수준)(신규)…… 63
표 Ⅱ-31. 전공불일치(신규)…… 64
표 Ⅱ-32. 취·창업 준비여부(수정)…… 64
표 Ⅱ-33. 취업 준비 도움 받은 주체 및 도움 정도(신규)…… 65
표 Ⅱ-34. 취업 준비 직종(신규)…… 66
표 Ⅱ-35. 창업 준비 활동(수정)…… 67
표 Ⅱ-36. 창업 준비 업종(오픈문항)(수정)…… 67
표 Ⅱ-37. 창업 준비 이유(신규)…… 68
표 Ⅱ-38. 교육훈련 제공기관(수정)…… 69
표 Ⅱ-39. 구직 활동 여부(신규)…… 70
표 Ⅱ-40. 현재 생활(신규)…… 72
표 Ⅱ-41. (지난주 주로 한 일이 쉬었음인 경우) 쉬었던 이유(신규)…… 73
표 Ⅱ-42. 건강 상태(신규)…… 73
표 Ⅱ-43.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신규)…… 74
표 Ⅱ-44. 생활만족도(신규)…… 75
표 Ⅱ-45. 여가활동 우선순위 및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신규)…… 76

표 Ⅱ-46. (외출 정도가 많지 않은 경우) 현 상태가 된 계기(신규)····· 77
표 Ⅱ-47. 사회적 고립(신규)····· 79
표 Ⅱ-48. 소속감(신규)····· 80
표 Ⅱ-49. 상황별 차별경험 유무 및 차별 받은 이유(신규)····· 81
표 Ⅱ-50. 정치적 효능감 및 정치적 대표체제에 대한 인식(신규)····· 82
표 Ⅱ-51.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이용 경험(신규)····· 83
표 Ⅲ-1. 1기 패널 지역별 모집단 현황····· 88
표 Ⅲ-2. 1기 패널 지역별 표본 할당 현황····· 89
표 Ⅲ-3. 1기 패널 원패널 대상자 성별 분포(2011년~2023년)····· 90
표 Ⅲ-4. 1기 패널 참여 지역별 분포(2011년, 2023년)····· 91
표 Ⅲ-5.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 (2021~2024년)····· 92
표 Ⅲ-6. 2기 패널 표본설계····· 99
표 Ⅲ-7. 2기 패널 모집단 시도별 분포 현황····· 100
표 Ⅲ-8. 2기 패널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 101
표 Ⅲ-9. 2기 패널 시·도 및 다문화가족 유형별 구축 현황····· 102
표 Ⅲ-10. 2기 패널 다문화가족 유형별 조사 참여가구 현황 (2019년~2023년)····· 103
표 Ⅲ-11. 2기 패널 성별 청소년 참여 현황(2019년~2023년)····· 103
표 Ⅲ-12.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4년)···· 105
표 Ⅲ-13.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4년)···· 109
표 Ⅲ-14. 2019~2023년 패널별 설문조사(TAPI) 소요시간····· 113
표 Ⅲ-15. 연도별 조사대상 및 실사기간, 최종결과 공표일····· 114
표 Ⅲ-16. 조사원 교육 일정····· 115
표 Ⅲ-17. 원패널 관리 방법 및 내용····· 116
표 Ⅲ-18. 최근 3년 간 연구진 생명윤리교육 이수 현황····· 118
표 Ⅲ-19. 실사 현장 참관 일정····· 119
표 Ⅲ-20. 1기 패널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120
표 Ⅲ-21. 1기 패널 청소년 진로별 패널 이탈 현황(2023년)····· 121
표 Ⅲ-22. 1기 패널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전체)····· 121
표 Ⅲ-23. 1기 패널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2023년)····· 123
표 Ⅲ-24. 2기 패널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124
표 Ⅲ-25. 2기 패널 유형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124
표 Ⅲ-26. 2기 패널 패널 이탈 사유(전체)····· 125
표 Ⅳ-1.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22년) ····· 139
표 Ⅳ-2. 외국인주민 자녀 거주 상위 20개 시·군·구 (2011, 2021년, 2022년) ····· 141

표 Ⅳ-3. 「다문화가족지원법」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 145
표 Ⅳ-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황…… 147
표 Ⅳ-5.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조항…… 148
표 Ⅳ-6.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151
표 Ⅳ-7.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 내용…… 152
표 Ⅳ-8. 학생맞춤통합지원 주요영역…… 160
표 Ⅳ-9. 진로설계지원…… 161
표 Ⅴ-1. 다문화청소년 2기 패널 분석 영역…… 169
표 Ⅴ-2. 배경변인별 다문화청소년 빈도…… 173
표 Ⅴ-3. 자아존중감(4점 척도)…… 176
표 Ⅴ-4. 삶의만족도(4점 척도)…… 178
표 Ⅴ-5. 공격성(4점 척도)…… 183
표 Ⅴ-6. 사회적위축(4점 척도)…… 185
표 Ⅴ-7. 우울(4점 척도)…… 186
표 Ⅴ-8. 사회적고립(외로움)(4점 척도)…… 189
표 Ⅴ-9. 문화적응스트레스(4점 척도)…… 192
표 Ⅴ-10. 국가정체성(4점 척도)…… 193
표 Ⅴ-11. 이중문화수용태도(전체)(4점 척도)…… 195
표 Ⅴ-12. 이중문화수용태도(한국문화)(4점 척도)…… 196
표 Ⅴ-13.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4점 척도)…· 197
표 Ⅴ-14.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5점 척도)…… 199
표 Ⅴ-15. 진로태도 결정성(4점 척도)…… 201
표 Ⅴ-16. 진로준비역량(4점 척도)…… 203
표 Ⅴ-17. 상급학교 진학준비도(5점 척도)…… 204
표 Ⅴ-18. 배경변인에 따른 유형 간 차이 비교 …… 208
표 Ⅴ-19.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심리·정서 및 진로발달 차이 분석 결과 요약…… 209
표 Ⅴ-20. 연구대상 특성…… 214
표 Ⅴ-21. 반응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 215
표 Ⅴ-22. 배경 특성 및 다문화 요인 관련 투입변수…… 217
표 Ⅴ-23. 개인 요인 관련 투입변수…… 217
표 Ⅴ-24. 환경 요인 관련 투입변수…… 218
표 Ⅴ-25. 진로 준비 역량 주요 영향요인…… 225
표 Ⅴ-26. 진로태도 결정성 주요 영향요인…… 231
표 Ⅴ-27.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 영향요인 비교……238

표 Ⅴ-28.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의 주요 영향요인 분석 결과 및 시사점 ····· 239
표 Ⅵ-1. 다문화청소년 IDI: 면접조사 참여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구성 ····· 245
표 Ⅵ-2. 다문화청소년 IDI: 면접 참여 청소년 인구학적 특성 ····· 247
표 Ⅵ-3. 다문화청소년 IDI: 면접조사 내용(안) ····· 248
표 Ⅵ-4. 다문화청소년 IDI: 면접조사 일정 및 관련 정보 ····· 251
표 Ⅵ-5. 다문화청소년 IDI: 면접 참여 다문화청소년의 현재 상태 및 장래 희망 정리 ····· 254
표 Ⅵ-6. 다문화청소년 IDI: 개인적 특성_현재생활 ····· 261
표 Ⅵ-7. 다문화청소년 IDI: 개인적 특성_다문화배경 관련 인식 ··· 264
표 Ⅵ-8. 다문화청소년 IDI: 긍정적 심리 변화 경험 요약 (종단자료 분석) ····· 266
표 Ⅵ-9. 다문화청소년 IDI: 개인적 특성_심리정서적 상태 ····· 272
표 Ⅵ-10. 다문화청소년 IDI: 가정생활 ····· 277
표 Ⅵ-11. 다문화청소년 IDI: 다문화 가정생활_언어 사용과 적응 ···· 280
표 Ⅵ-12. 다문화청소년 IDI: 사회적 관계_친구 관계·고립감 ····· 283
표 Ⅵ-13. 다문화청소년 IDI: 사회적 관계_소중한 사람·고민 의논 상대 · 287
표 Ⅵ-14. 다문화청소년 IDI: 학교생활_교사 관계와 성취경험 ····· 289
표 Ⅵ-15. 다문화청소년 IDI: 학교생활_피해 경험, 아쉬운 점 ····· 291
표 Ⅵ-16. 다문화청소년 IDI: 진학·진로_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 ·· 294
표 Ⅵ-17. 다문화청소년 IDI: 진로 구체화 등 변화 요약 (종단자료 분석) ····· 297
표 Ⅵ-18. 다문화청소년 IDI: 진학·진로_진로결정, 미래에 대한 생각/포부 ····· 302
표 Ⅵ-19. 다문화청소년 IDI: 진학·진로_영향을 준 사람·사건 ····· 304
표 Ⅵ-20. 다문화청소년 IDI: 진학·진로_부모의 기대 ····· 306
표 Ⅵ-21. 다문화청소년 IDI: 진학·진로_진로준비 사항과 지원 요구 ···· 313
표 Ⅵ-22. 다문화청소년 IDI: 지역사회 인식과 정책 요구_ 지역사회 경험 ····· 318
표 Ⅵ-23. 다문화청소년 IDI: 지역사회 인식과 정책 요구_ 정책지원 요구 ····· 323
표 Ⅵ-24.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참여 센터 및 참여 방식 ····· 325
표 Ⅵ-25.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주요 내용 ····· 326
표 Ⅵ-26.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참여 센터의 다문화 관련 환경적 특성 ····· 328

표 Ⅵ-27.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프로그램 운영 주요 특성····· 329
표 Ⅵ-28.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청소년 특성····· 340
표 Ⅵ-29.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프로그램 운영 주요 성과와
효과적인 홍보 방법·····345
표 Ⅵ-30.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애로사항···· 352
표 Ⅵ-31.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356
표 Ⅵ-32.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선도학교(다문화청소년 중심)
면접참여자 정보·····358
표 Ⅵ-33.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주요 내용····· 359
표 Ⅵ-34.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참여 학교 다문화관련 배경····· 360
표 Ⅵ-35.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참여 학교 환경 및 다문화청소년
특성·····363
표 Ⅵ-36.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참여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
현황·····369
표 Ⅵ-37.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사업 성과····· 376
표 Ⅵ-38.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애로사항·····380
표 Ⅵ-39.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 383
표 Ⅵ-40. 다문화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387
표 Ⅵ-41. 진로설계프로그램 현장실무자 FGI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 391
표 Ⅵ-42.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 FGI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394
표 Ⅶ-1. 세부 정책 과제····· 411
표 Ⅶ-2.「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내
예산 관련 조항 ·····415

그림 목차

그림 Ⅰ-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 6
그림 Ⅰ-2. 다문화청소년 관련 개념 간 관계 ····· 9
그림 Ⅰ-3.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연구추진체계 ····· 9
그림 Ⅰ-4. 1차 콜로키움 개최 ····· 21
그림 Ⅰ-5. 2차 콜로키움 개최 ····· 21
그림 Ⅰ-6. 조사원 교육 ····· 22
그림 Ⅰ-7. 세종FM 출연 ····· 25
그림 Ⅱ-1. 연도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및 연구주제 ····· 32
그림 Ⅱ-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조사연혁(2011년~) ····· 33
그림 Ⅱ-3.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2017년~2024년) ····· 36
그림 Ⅱ-4. 연도별 주요어 출현 빈도 추이(2017년~2024년) ····· 38
그림 Ⅲ-1. 1기 패널 패널 유지율 ····· 90
그림 Ⅲ-2. 정기통계품질진단 흐름도 ····· 127
그림 Ⅳ-1. 다문화학생 수 및 다문화학생 비율(2016~2023년) ····· 134
그림 Ⅳ-2.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3~2023년) ····· 135
그림 Ⅳ-3.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13~2023년) ····· 136
그림 Ⅳ-4. 학교급 및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21~2023년) ····· 137
그림 Ⅳ-5.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7~2022년) ····· 138
그림 Ⅳ-6.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1, 2022년) ····· 140
그림 Ⅳ-7.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 2012~2022년 ····· 142
그림 Ⅳ-8.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150
그림 Ⅳ-9.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 154
그림 Ⅳ-10.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 155
그림 Ⅳ-11.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 156
그림 Ⅳ-12.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 158
그림 Ⅳ-1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 159
그림 Ⅴ-1. 지역 요인 ····· 171
그림 Ⅴ-2. 부모 요인 ····· 172

그림 Ⅴ-3. 사회경제적 지위 ····· 172
그림 Ⅴ-4. 심리사회 적응(전체) ····· 175
그림 Ⅴ-5. 심리사회 적응: 정서문제(전체) ····· 179
그림 Ⅴ-6. 현재 걱정거리: 학교나 친구 문제 ····· 180
그림 Ⅴ-7. 현재 걱정거리: 가정 형편 및 갈등 ····· 181
그림 Ⅴ-8. 현재 걱정거리: 개인 문제 ····· 181
그림 Ⅴ-9. 현재 걱정거리: 진로 문제 및 불안감 ····· 182
그림 Ⅴ-10. 현재 걱정거리: 공부, 성적문제 ····· 187
그림 Ⅴ-11. 현재 걱정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 ····· 188
그림 Ⅴ-12. 다문화(전체) ····· 191
그림 Ⅴ-13. 진로(전체) ····· 200
그림 Ⅴ-14. 랜덤 포레스트의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예측 오차 변화 ····· 222
그림 Ⅴ-15. 진로 준비 역량 주요 영향요인 ····· 223
그림 Ⅴ-16. 진로 준비 역량 주요 영향요인의 SHAP 의존성 도표 ····· 228
그림 Ⅴ-17. 진로태도 결정성 주요 영향요인의 SHAP 요약 도표 ····· 229
그림 Ⅴ-18. 진로태도 결정성 주요 영향요인의 SHAP 의존성 도표 ····· 234
그림 Ⅵ-1. 다문화청소년 면접조사 현장노트 예시 ····· 252
그림 Ⅷ-1. 제언 도출 과정 ····· 400
그림 Ⅷ-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정책의 비전과 원칙 ····· 409
그림 Ⅷ-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정책 체계 ····· 412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3. 연구추진체계
4. 연구내용
5. 연구방법
6. 보고서 구성

1 서 론[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변동을 주도하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규모는 점차 커지고 있으며, 다양성도 이전보다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6년 행정안전부의 첫 실태조사에서 약 53만 명으로 확인되었던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는 2022년 11월 기준 약 226만 명으로 국내 주민등록인구의 4.4%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규모는 같은 해 기준 대구광역시(2,363,691명)와 충청남도(2,123,037명)에 준하는 수준이다. 총인구수가 2019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상황에서 증가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향후 일상에서 더욱 쉽게 다문화 인구를 만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11.8.).

그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주요국적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일본 등이었는데, 중국국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 45.2%에 달했던 것에 비해 2022년 37.8%로 낮아졌다. 이를 대신해 베트남(10.5%), 태국(9.0%), 미국(7.0%), 우즈베키스탄(3.5%) 등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필리핀과 일본 국적의 외국인주민 수가 다소 줄거나 정체되고 있는 가운데 그 외 국가 출신의 외국인이 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2)].

더욱이 다문화 혼인의 절대적인 건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이는 다문화 인구 내 이러한 변화는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주를 이루었던 다문화청소년 내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미성년 연령대의 외국인주민 자녀수는 꾸준하게

1) 1장은 신동훈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2) 법무부 웹사이트. 체류외국인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에서 2024년 2월 16일 인출.

증가하고 있으나(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11.8.), 최근 다문화 출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어(통계청 보도자료, 2023.11.29.) 향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 이후부터는 미성년 연령대 외국인주민 자녀수의 규모도 축소 또는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조적으로 외국인가정 자녀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현황만 보더라도 2013년 5,044명에서 2023년 40,372명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3]. 더구나 외국국적 동포의 미성년 자녀 체류 불안정 해소 및 교육권 보장을 위한 재외동포(F-4) 자격 부여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숙련가능인력(E-7-4)의 연간 쿼터를 확대하는 것과 같은 정책적 변화는 향후 외국인가정 자녀로 분류되는 다문화청소년이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가정 자녀수의 증가가 전체적인 다문화청소년 규모의 확대를 견인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다문화청소년 규모의 확대와 주요 구성 유형의 변화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2019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기 패널을 새롭게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구축해 운영하고 있는 1기 패널(2011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 포괄하지 못하는 연령대(2019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와 유형범위(국제결혼(국내출생)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괄하는 2기 패널은 2024년 6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성인기 이행과정을 이해하기 위하여 1기 패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추진하였다.

한편,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이나 진로·진학 준비에 관한 자료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축적되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양상을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인 분석은 상대적으로 충분치 않은 실정이다. 예컨대, 과거 은둔으로 다소 협소하게 다루어졌던 청소년 위기군에 대한 논의가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되면서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양상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도 높아졌다. 특정한 여건에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이에 따른 고립 위험이 더욱 크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실태를 이해하기 위한 분석이 요청된다. 또한, 사회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복합성이 커지면서 진로에 대한 접근이 달라졌음에도 이를 다문화청소년에 적용해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의 생산이나 분석 시도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진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5차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비롯해 다양한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적인

3)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에서 2024년 2월 16일 인출.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했다.

정부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존의 지원체계를 개편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도입하고 확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관계부처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하고 다문화 관련 교육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재정립하였다. 또한, 교육부를 중심으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어려움이 단순히 다문화배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취약한 환경이 중첩되면서 나타난 결과이고, 그로 인한 어려움이 대개는 다차원적이라는 점에서 이와 같은 정책적 변화는 다문화청소년에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에서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를 위해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2022년부터 정서·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24년부터는 여기에 더해 사업의 규모도 확대('23년 113개소 → '24년 143개소)하고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정책이 도입되고 본격적으로 추진된 기간이 짧은 까닭에 정책의 방향성과 효과성 등에 대한 파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과 관련해 추진하는 정책 현황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

- 다문화청소년의 성장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 구축하고, 구축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근거기반 정책수립 및 추진의 토대를 마련함.
-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함.

2024년 중점목표

- 다문화청소년 종단자료 구축(1기 패널의 14차 추적조사 및 2기 패널의 6차 추적조사) 및 이용자 친화적 자료관리 및 제공 체계 마련
-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준비 양상 분석
- 다문화청소년 관련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 고도화 방안 도출

* 출처: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2018), p. 6 수정

* 주: 이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은 국내외 출생자 구분 없이 '부모님 중 한 분 이상이 이주의 배경을 지닌 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의미한다.

2. 다문화청소년의 정의

(1) 개념상·실질적 정의

이 연구에서는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을 개념화했다. 즉, 다문화청소년을 청소년 자신 또는 부모 중 한분 이상이 외국에서 국내로 이주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연령대(만9세-24세)인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하되, 특수성이 있는 북한이탈 배경의 청소년은 제외하였다(양계민, 강경균, 2017: 21).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은 [그림 Ⅰ-1]과 같이 유형화된다.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을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해 각각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②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로 명명화 할 수 있다. 국외에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도 국제결혼가정자녀와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하면 각각 ③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와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로 이해할 수 있다.

	한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외국인과 외국인 결혼가정
국내출생	■ ① 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② 국내출생 외국인가정자녀
국외출생	■ ③ 국외출생 국제결혼가정자녀	■ ④ 국외출생 외국인가정자녀

* 출처: 양계민 외(2020: 278) 그림 Ⅸ-1

그림 Ⅰ-1.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구분

다만, 다문화청소년패널 모집단을 최초 구축함에 있어 기초가 된 자료가 '교육기본통계'의 다문화학생 현황인 까닭에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방식의 구분을 따른다(양계민, 강경균, 2017). 다문화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이라 볼 수 있는 다문화학생의 현황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기본통계를 통해 발표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문화학생은 국내출생(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자녀로 구분된다. 이는 본연구에서 개념화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의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나, 부모배경 및 출생지에 따른 개념상의 4개 유형 중 일부를 통합한 것으로 연령 기준과 학생 여부를 제외하면 실질적으로는 동일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기본통계에서는 국제결혼가정자녀를 ① 국내출생과 ③ 국외출생

으로 구분해 각각 순서대로 “국내출생(국제결혼)”, “중도입국”으로 칭하고, 외국인가정자녀의 경우 국내와 국외출생 구분 없이 “외국인”으로 통합해서 처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후 본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해 설명하거나 분석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국제결혼가정(자녀) 또는 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가정(자녀) 또는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 또는 외국인(자녀)” 등과 같은 형태로 제시하였다.

구축 당시 조사 대상자가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이 다문화학생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개념상·실질적 정의상 차이는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같은 연령대 소수의 미등록 이주아동이나 미등교 아동 등은 제외되기 때문에 이는 별도의 자료가 요청된다.

(2) 다문화청소년 관련 개념 간 관계[4)]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용어는 “다문화”와 “청소년”이 결합된 용어로 유사한 개념으로 두 용어가 각각 “이주배경” 또는 “학생/○○자녀”와 같은 대체용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예컨대, 정책적·학술적으로 국내에서 다문화청소년과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용어는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주민자녀,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학생, 이주배경학생 등을 들 수 있다.

“이주배경”은 국내로 이주해 온 다양한 배경(북한이탈, 난민 등)을 포함하는 등 여러 용어 가운데에서도 보다 포괄적으로 “다문화”를 대체하는 용어로 보통 사용된다. 대표적으로 본 연구의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개념적 정의와 일맥상통하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정의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다문화가족의 청소년과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포함한다. “다문화가족자녀”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하는 통계에서 주로 등장하는데, 이는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주민현황조사의 외국인주민자녀 통계를 기반으로 한다. 따라서 용어의 차이는 있지만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주민자녀는 사실상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와 관련된 개념은 다문화청소년(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학생(이주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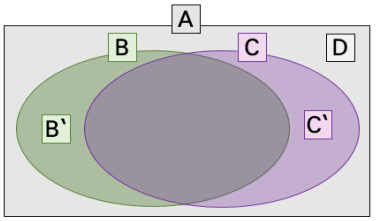
4) 아동이나 청소년 등 연령 기준에 의한 구분까지 고려할 경우 보다 세밀하게 개념화할 수 있으나, 개념적 복잡성을 가중시키는 것을 넘어서는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여기서는 상태적 기준에 따른 관계에 집중하였다. 또한, ‘이주배경’과 ‘다문화’를 완전히 동일시 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몇몇 배경의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유사성이 높고 정책적 용어에 대한 변경 움직임(다문화 → 이주배경)이 있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두 용어가 지칭하는 대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같은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분석을 진행했다.

경학생), 다문화가족 자녀(외국인주민자녀) 정도로 정리할 수 있다. 각 개념 사이의 관계를 도식화하면 [그림 Ⅰ-2]와 같다. 다만, 이는 각 개념에 더해 학생, 자녀, 청소년 등에 연령기준을 부과하지 않은 것이며, 연령기준을 부과할 경우 더욱 복잡한 도식이 그려질 수 있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정의되어 있는 다문화가족의 아동·청소년인 구성원을 의미한다. 이때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 또는 인지 및 귀화에 의해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과 같이 상대적으로 협소하게 정의되어 있는 까닭에 본 연구가 개념상 포괄하는 집단의 일부를 포함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그림 Ⅰ-2]의 A를 다문화청소년으로 생각할 때, C에 해당하는 집단이 다문화가족 자녀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구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는 B'(재학 외국인가정 자녀)과 D(미재학 외국인가정 자녀)이며, 이들은 외국인가정 자녀라고 할 수 있다.

다문화학생(이주배경학생)은 2023년 발표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과 2023년 개정되어 2024년 시행된 「초·중등교육법」의 제28조의2(다문화학생등에 대한 교육 지원)에 정의되었으며,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또는 학생이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면서 학교(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아동 또는 학생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림 Ⅰ-2]의 B가 여기에 해당하는 집단이다. 다만, 학생상태이거나 최소한 입학 예정일 때 다문화학생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C'(외국인가정 자녀를 제외한 미재학 다문화청소년)과 D(미재학 외국인가정 자녀)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교에 재학 중이 아닌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다문화학생의 영역에서 벗어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학생의 영역이 상당 부분 일치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패널조사가 최초 구축된 초등학교 4학년 시기 모집단(다문화청소년)과 표집틀(다문화학생) 간 간극도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두 개념 간 차이는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청소년이 증가함에 따라 커지게 되므로 다문화학생이 포괄하지 못하는 집단에 대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패널조사에서는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학업을 중단하는 청소년의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학업중단청소년용 설문 로직을 별도로 준비해 두었다.



A : 다문화청소년
B : 다문화학생
B` : 재학 외국인가정 자녀
C : 다문화가족 자녀
C` : 외국인가정 자녀를 제외한 미재학 다문화청소년
D : 미재학 외국인가정 자녀

* 출처: 신동훈 외(2023: 21). 그림 Ⅰ-5. 일부 수정

그림 Ⅰ-2. 다문화청소년 관련 개념 간 관계

3. 연구추진체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자료구축과 자료분석으로 구성된 두 개의 축으로 추진된다. 자료구축은 1기 및 2기 패널에 대한 조사를 본조사로 실시하고, 자료 분석은 중학교 2학년 시기 심리·정서와 진로·진학 발달 양상에 중점을 두고 진행하였다.

그림 Ⅰ-3.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연구추진체계

4. 연구내용

(1) 자료구축

○ 2기 패널 추적조사(6차: 중학교 3학년)

이번 2024년 2기 패널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중학교 3학년은 상급학교(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학업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이어지는 시기로 2023년 새롭게 추가한 상급학교 진학 준비 문항을 유지하고, 진로 및 학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릿(Grit) 문항을 추가해 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될 수 있는데, 이는 방과후 생활의 양상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 이를 파악하기 위해 올해는 청소년들의 학습 및 청소년 활동 참여 정도를 묻는 문항과 가사 참여 및 여가 활동을 묻는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또한, 지난 2023년 자료 구축 시 행정자료로 확인한 2022년 자유학기(년)제 실시 현황에서 일부 학교의 경우 행정자료가 누락되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의 관련 정보가 확보되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 따라서 올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보완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행계획서 심의 이후 청소년 및 학부모 대상 설문지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시행하여 신규문항 추가 필요성에 대한 의견과 현재까지 조사된 자료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러한 자료 외에 참고할 만한 설문에 대한 추천 의견 등을 취합하였으며, 전문가 의견과 연구진 논의를 종합해 신규문항 투입 여부 및 구체적인 문항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시계열 유지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일부 문항을 보완하였으나, 기본적인 설문의 틀은 연속성을 위해 유지하였다. 다만, 응답률이 극히 낮은 일부 문항을 삭제하는 방식으로 조사 참여자의 피로도를 낮출 수 있도록 설문을 개선하였다.

표 Ⅰ-1. 2기 패널 청소년용 설문지 주요 조사영역 및 내용(2019년~2024년)

구분		조사항목
대영역	소영역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언어 능력	부모의 외국인 여부,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외국출신 부모나라의 언어 교육,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자신의 한국어 실력, 입국 후 학교 입학 전 한국어 배운 경험 및 장소
	이중문화 경험	국적에 대한 인식,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및 횟수,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개인요인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건강평가, 스트레스, 자존감, 사회적 역량, 삶의 만족도, 현재 걱정거리, 차별경험 피해여부 및 가해자, 차별경험 대처, 차별에 대한 생각, 친한 친구 수, 친한 친구 국적, 인권, 사회적 고립(외로움), **그릿(*)**
	인지	학교성적, 성적에 대한 만족도
	진로	희망교육수준, 희망직업, 학교 마친 후 일하고 싶은 나라,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상담)하는 사람, 진로준비역량,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환경요인	부모	부모의지지(교육적 지원 및 기대),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하루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방과 후 보호자 부재, 가정형편
	친구	친구의 지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학교생활	학교생활,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교사의지지, 학교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지역사회 지지망	학교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중도입국	학교 관련	한국 오기 전 학교 경험, 한국 입학(편입) 학년,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미래 생활	국적취득 희망, 한국 거주 희망
기타	방과후 생활	방과후 활동,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학습 및 청소년 활동(*), 가사 참여 및 여가 활동(*)** 등

* 출처 :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2020: 111-113) 표 IV-24 수정

* 주: (*) 2024년 신규문항

2기 패널 학부모에 대한 설문은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되, 차별받은 경험과 관련한 문항을 다소 간소화하였다. 또한, 자유학기에 대한 인식 수준을 묻는 문항도 일회성으로 물을 수 있는 문항에 가까워 올해는 별도로 묻지 않았다.

표 Ⅰ-2. 2기 패널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2019년~2024년)

구분		조사항목
대영역	소영역	
배경변인	가족특성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 및 관계 만족도, 가정의 월평균 소득, 가정의 주요 소득원, 가정의 경제적 수준(가정형편)
개인요인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장소, 차별 대처,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대상별 피해 경험, **차별 대처(*)** 및 차별 사유, 자아존중감, 전반적 건강 상태,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문화특성	언어능력	모국어, 한국어 학습경험, 한국어 수준
	문화적응	주로 어울리는 사람,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문화적응 스트레스, 문화적응 유형
자녀 양육	자녀교육 및 양육	자녀와 대화시 사용 언어,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한국 오기 전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함께 한 사람,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기간 및 소요 이유, 초등학교 입학 시기 및 입학이 늦어진 사유,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자녀 학교문제, 숙제지도 하는 사람,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선호하는 자녀 교육 방식, 방과후 교육(사교육 경험), 자녀 진로준비활동, **자녀의 자유학년(기)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양육관련 특성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부모효능감
	자녀 진학/진로 및 향후 희망 거주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다문화 지원정책	지원정책 태도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도, 자녀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선호하는 지원 방식

* 출처 : 양계민 외(2020: 113-114) 표 IV-25 수정

* 주: (*) 2024년 일부 수정 또는 삭제문항

○ 1기 패널 추적조사(14차: 24세)

이번 2024년 1기 패널 조사는 본조사로 추진되었다. 청년기에 접어들면서 1기 패널 본조사는 2020년과 2022년 이루어졌다. 성인이행기에 해당하는 만큼 군복무, 대학진학, 대학진학준비, 일 경험,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구직활동, 심리사회 적응, 사회적 가치와 태도, 진로, 정책 및 지원 등의 영역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2024년 조사에서도 이와 같은 영역을 중점적으로 다루되, 비다문화청소년의 성인이행기와 공통점 및 차이점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청년층 대상 설문(「청년삶실태조사」, 「청년사회첫출발실태조사」, 「청년패널조사」,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등) 문항과 경제 및 사회 활동에 대한 간접적인 비교를 염두에 두고 관련한 승인통계(「사회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서 활용하는 문항을 검토하여 기존 문항을 수정·보완하거나 추가 투입하였다.

표 Ⅰ-3.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영역별 내용

조사영역	조사내용
배경변인	혼인상태, 현재 자녀 여부, 향후 자녀를 가질 여부, 현재 거주형태, 해외 이주 고려 여부 및 이유, 가계 생활비 마련방법, 가계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개인 생활비 마련방법, 개인 생활비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주관적 경제수준
군복무 경험	군복무 여부, 군입대 시기. 군 전역 후 계획, 입대 예정 시기, 군복무 마친 시기, 군복무 중 차별경험, 군복무 중 차별 가해자, 군복무 중 다문화 교육 경험
대학진학	최종학교 및 졸업 여부, 대학명, 휴학사유(휴학한 경우), 학부 및 학과(전공)명, 대학 진학 준비 여부(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인 경우), 등록금 마련방법,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대학만족도 4문항, 학업적응 4문항, 사회적응 4문항)
일 경험	일 경험 여부, 현재 하고 있는 일 종류, 종사상 지위, 보수 형태, 평균 근무시간(주당 총 근무일수/하루 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소득, 부채 여부, 총 부채 금액 및 발생 원인, 업무만족도(11개 하위문항으로 구성), 직무 수준, 전공과 일의 관련성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취·창업 준비여부, 취업 준비 활동, 취업 준비 지원 경험, 취업 준비 직종, 창업정보 수집 방법, 창업 준비 업종, 교육훈련 경험, 교육훈련 종류, 교육훈련 받은 기간, 교육훈련 제공기관, 교육훈련 받은 목적,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교육훈련 받지 않은 이유,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 향후 교육훈련 받을 계획
구직활동	구직활동 경험, 구직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유,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노동 의지, 현재 생활, (현재 쉬는 경우) 쉬는 이유
심리.사회 적응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우울, 주관적 건강상태,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여가활동, 외출 빈도, 현재 상태가 된 계기(외출 빈도가 적은 경우), 외로움, 소속감, 차별경험 유무, 차별 후 대응, 다문화청소년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예상정도
사회적 가치와 태도	사회적 가치, 한국사회 인식,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다문화청소년으로서의 사회적 참여 역량
진로	장래희망 유무, (장래희망 있는 경우) 장래희망 직업,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현재 상태(10개 하위문항으로 구성)
정책 및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정책 도움 정도,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필요 한 경우) 필요한 지원, 청년지원정책 이용 경험 여부, 다문화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방식,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장소

* 출처 : 양계민 외(2022: 8-9) 표 I-1 수정

○ 조사관리 및 데이터 공개

통계청 승인통계로 추진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으로 선정되어 상반기 내 품질진단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거쳤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조사체계의 합리성과 엄밀성 등을 검토하고, 데이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이탈률이 높은 유형과 이탈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세분화된 지침을 담은 매뉴얼을 작성하고 이탈 방지 체계를 구축하여 높은 표본 유지율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지난 2023년 자료공개 방식 변경을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반영해 향후 이용자가 조사 데이터를 직접 내려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으며, 새로운 데이터를 공개하는 시점에서 이를 적용하였다. 아울러 승인통계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 후 가능한 수준에서 이용자와의 접점을 늘리기 위해 외부기관(한국사회과학자료원)의 데이터 기탁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자료 이용 활성화는 데이터 영문화 작업을 통해서도 추진한다. 기존 설문을 검토하고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메타자료 등을 영문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데이터 공개 이후 순차적으로 해당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의 이용자의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그동안 데이터 공개 시점은 자료수집 기준 다음 해 결과공표(기초분석보고서 발간)와 그 이듬해 로(raw)데이터 제공으로 이원화되었다. 이는 자료생산 기관의 인력 부족과 1기 및 2기 패널을 모두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 기관 차원의 규정 등 복합적인 상황이 반영된 결과에서 비롯되었다. 이번 2024년에는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해 조사업체의 협조를 바탕으로 데이터 클리닝 속도를 높여 공개시점을 앞당겨 결과공표와 로(raw)데이터 제공 시점을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2) 자료 분석

○ 양적자료(기초분석 및 심화분석: 2기 패널 5차 추적조사)

양적 자료 분석은 2023년에 2기 패널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 추적 자료를 활용하였다. 조사기점 기준으로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중학교 2학년으로 진로탐색기에 해당하며 이들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에 대한 준비나 생각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따라서 이 자료를 통해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 유형별(국제결혼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심리·정서 및 진로발달 양상을 이해하고자 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배경변인과 부모의 자녀 진로에 대한 관심 수준 또는 자녀 간 학교생활에 관한 대화수준을 이해할 수 있는 변수(자유학기제에 대한 인식 수준) 등을 활용해 기초분석을 실시했다.

또한, 진로발달을 다각도로 살펴보고 각각의 영역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방법을 적용한 심화분석을 실시했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예측 요인을 이해하고 관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질적자료(다문화청소년 개별면담, 교사 및 지원기관 담당자 FGI 등)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를 이해하고, 진로·진학과 관련한 준비도 및 어려움 등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2기 패널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은 다문화청소년 유형(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자녀)과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였다. 일부 청소년의 경우 학부모 인터뷰도 병행하여 정보의 질과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가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최근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정책사업의 향후 확산을 고려해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현장의 지원기관 담당자와 교사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여 현재 추진되는 관련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등을 모색하였다.

○ 정책방안 도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진학 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의 토대를 마련할 목적으로 관련한 기존 제도와 정책을 검토하고 개선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정부의 관련 계획과 정책의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지형을 파악하였다. 교육부가 준비 중인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과 여가부에서 추진하는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지원사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기존 정책에 대한 발전방안 및 정책대안 등과 새로운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관련한 현황 및 실태를 다루는 콜로키움, 정책포럼,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등을 추진하였다.

5. 연구방법

1)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선행연구와 정책자료를 수집해 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선행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진로·진학에 관한 학술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함으로써 현상 및 분석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추진했다. 정책자료는 중앙부처에서 수립하는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본계획과 이러한 계획하에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설명자료 등을 종합 및 분석함으로써 제도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발견하고 시사점을 도출할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의 규모를 파악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정책 수립 및 추진이 얼마만큼의 규모와 어느 정도의 속도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했다.

2) 전문가 자문

첫째, 종단조사 설계 및 문항 수정 관련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여 조사의 품질을 높이고자 했다.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론적·경험적 이해가 풍부한 연구자, 현장전문가, 정책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서면자문과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양상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관련 정책을 파악함과 동시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자문영역은 ① 1기 및 2기 패널 설문문항 검토 및 의견조사, ② 1기 패널 추가 표본 구축 또는 대표성 확보 방안 검토, ③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지원 사업 내용 및 다문화밀집지역에서의 지원방안, ④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정책 추진 실태와 정책 고도화 방안 마련 등이다.

표 Ⅰ-4. 전문가 자문회의 개요 및 추진 내용

차수	자문영역	자문진
1차	2024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 및 2기 패널 설문문항 검토 및 의견	• 김○○ 연구위원(부산연구원) • 유○○ 연구위원(경기연구원) • 송○○ 연구교수(한양대학교) • 이○○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 김○○ 교수(단국대학교) • 정○○ 부연구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신○○ 센터장(서울광역청년센터) • 박○○ 연구위원(이민정책연구원) • 윤○○ 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 송○○ 부연구위원(한국교육개발원) • 한○○ 장학관(경기도교육청) • 박○○ 교사(경상북도교육청경주한국어교육센터) • 임○○ 교사(선일중학교) • 유○○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배○○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차	1기 패널 추가 표본 구축 또는 대표성 확보 방안 검토	• 임○○ 사무관(통계청)
3차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지원 사업 내용 및 다문화 밀집지역에서의 지원방안	• 조○ 과장·송○○ 팀장(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시흥다어울림아동센터)
4차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정책 추진 실태와 정책 고도화 방안 마련	• 서○○ 팀장 · 임○○ 팀원(안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한○○ 센터장·이○○ 과장·유○○ 팀원(동대문구 가족센터) • 유○○ 교사(광주 월곡중학교) • 송○○ 교감· 문○○ 지역사회교육전문가 (서울 동성중학교)

3) 종단조사

○ 2기 패널 6차 조사(중학교 3학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패널이 2024년 참여한 조사는 6차 조사에 해당한다. 지난 2019년 및 2020년에 구축된 2,249가구에서 지난 2023년에는 1,825가구가 조사에 참여하여 81.1%의 패널유지율을 보였다. 다만, 외국인가정과 같이 특정 유형의 패널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71.5%)이어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외국인가정 이탈가구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수준이 낮은 응답자를 대상으로 의사소통 등 조사과정 개선 사항과 조사원을 대상으로 현장 사례 등을 수집해 조사 관리 지침에 반영함으로써 이탈 최소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였다.

표 Ⅰ-5. 2기 패널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2019년 현재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표집틀	2019 교육부 교육통계의 전국 초4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표본수	2019년 및 2020년에 구축된 2,249가구(국제결혼(국내출생)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표집방법	기 구축된 패널 가구 중 2023년 조사에 참여한 1,825가구 및 2~5차 조사 미참여 가구 중 재참여가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6차년도 조사 실시
조사방법	가구 방문면접조사
자료수집방법	태블릿을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TAPI)
조사시기	2024년 6월 ~ 10월

○ 1기 패널 14차 조사(24세)

지난 2023년에 유지조사로 진행한 1기 패널의 조사는 이번 2024년에는 본조사로 추진했다. 성인이행기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 교육, 취업준비, 구직활동, 일, 심리정서,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하는 대상이 청년 연령대인 점을 고려해 전문조사원의 방문면접조사로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도록 하였다.

표 Ⅰ-6. 1기 패널 조사 개요

주요 요소	내용
모집단	2011년 기준 전국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표집틀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 다문화가정 학생현황
표본수	2011년 구축된 1,625가구(학생 1,635명)
표집방법	기 구축된 패널 가구 중 2023년 유지조사에 참여한 935가구 및 이전 조사 미참여 가구 중 재참여가 가능한 가구를 대상으로 14차년도 조사 실시
조사방법	전문조사원의 가구 방문면접조사 ※ 온라인 조사(자기기입) 병행
자료수집방법	태블릿을 통한 구조화된 조사표(TAPI) + 인터넷 조사
조사시기	2024년 6월 ~ 10월

4) 질적연구(개별면담 및 초점집단면담)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구체적인 경험은 양적자료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2기 패널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였다.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은 다문화청소년 유형(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자녀)과 거주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또한, 청소년 면담을 진행하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연구진 협의를 거쳐 일부 청소년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로·진학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에 초점을 두어 구성하되, 다문화청소년의 전반적인 성장·발달 환경과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표 Ⅰ-7. 다문화청소년 심층면담(면접) 개요

주요 요소	내 용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2기 패널 중 면담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 및 필요에 따라 현장의 추천을 받은 청소년 중 대상 특성에 따라 고르게 섭외
면담참여자 수	■ 총 15명(다문화청소년 15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다문화청소년 유형(국제결혼(국내출생)가정, 외국인가정, 중도입국가정 자녀)과 거주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에 따라 구분
면담방식	■ 심층면담(IDI: In-depth Interview)
면담 시간 및 횟수	■ 각 60분 내외 1회
면담자료 기록 및 녹취 여부	■ 분석을 위한 면담 녹취 및 자료 전사
면담자	■ NYPI 연구진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정부 정책의 추진 현황 및 발전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진로설계프로그램의 지원기관 담당자와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각각 초점집단면담(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할 면담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의 협조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 중 일부를 추천받아 명단을 구성하였으며, 지역별 안배를 고려해 섭외를 실시하였다. 조사내용으로 정책사업의 진행내용과 성과,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개선을 위한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표 Ⅰ-8. 현장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담(FGI) 개요

주요 요소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면담참여자 섭외과정	■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 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가족센터의 실무자 접촉 및 섭외	■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중 다문화 청소년 중심의 학교담당자 접촉 및 섭외
면담참여자 수	■ 총 5명	■ 총 5명
면담참여자 특성 개요	■ 프로그램 운영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는 팀장급 담당자	■ 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구성원인 담당 교사와 교육복지사
면담방식	■ 초점집단면접(FGI: Focus Group Interview)	
면담 시간 및 횟수	■ 각 60분 내외 1회	
기록 및 녹취 여부	■ 분석을 위한 면담 녹취 및 자료 전사	
면담자	■ NYPI 연구진	

5) 심화분석(2023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 분석)

심화분석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자료를 활용했다. 본격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인 청소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2023년 조사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2기 패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방법을 적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대한 예측 요인을 탐색하였다. 랜덤포레스트 방법은 대량의 변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결정 트리의 예측을 통해 결과를 생성하기에 전통적인 개별 통계 분석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여, 각 변인의 중요도를 측정하여 어떠한 변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에 1~5차년도 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청소년 및 보호자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어떠한 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6) 기타

○ 콜로키움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및 진로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 및 지원 현장에서 쟁점이 되거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내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두 차례 콜로키움을 실시하였다. 이주배경 학생이 밀집되는 학교의 어려움과 현실적인 혁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이주배경 청소년과 관련한 새로운 국면 등을 조망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표 Ⅰ-9. 콜로키움 개요

횟수	주요내용	발표자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차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윤현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연구진, 원내 참석 희망 직원	2024.04.11
2차	이주배경 아동·청소년 현황 및 정책과제	박민정 (이민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진, 원내 참석 희망 직원	2024.06.05

그림 Ⅰ-4. 1차 콜로키움 개최

그림 Ⅰ-5. 2차 콜로키움 개최

○ 조사원 대상 간담회 및 교육

본 연구에서 추진하는 패널조사의 조사방법은 기본적으로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이기 때문에 조사원에 대한 관리는 패널유지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조사업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조사원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다. 조사업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조사원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예컨대, 조사에 참여한 학부모를 통해 조사원 및 조사과정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고, 조사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여 조사과정 상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패널조사 실사에 투입되기 이전, 당해연도 조사의 취지를 비롯해 주요변동 및 중점 사항 등과 조사과정에서 유의할 내용을 주요 주제로 다루는 조사원 교육을 권역별로 실시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데이터 관리 및 조사를 통해 데이터 품질을 제고할 목적으로 조사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표 Ⅰ-10. 조사원 간담회 및 교육

횟수	지역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시기
1회	온라인	2024년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취지와 주요변동 및 중점사항, 유의사항 등을 전달하고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조사원 간담회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2024.06.12
2회	대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실사 추진을 위한 조사원 교육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2024.06.27
3회	수도권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실사 추진을 위한 조사원 교육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2024.07.02
4회	광주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실사 추진을 위한 조사원 교육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2024.07.03
5회	부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실사 추진을 위한 조사원 교육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2024.07.04
6회	강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실사 추진을 위한 조사원 교육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2024.07.04
7회	대구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실사 추진을 위한 조사원 교육	연구진, 조사업체, 조사원	2024.07.05
8회	제주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실사 추진을 위한 조사원 교육	조사업체, 조사원	2024.07.08

그림 Ⅰ-6. 조사원 교육

○ 정책연구실무협의회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에 대한 방향성을 논의할 목적으로 이번 연구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지원 사업과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추진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정책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했다.

표 Ⅰ-11. 정책연구실무협의회 개요

차수	주요내용	참석공무원 부처(과)	개최시기
1차	여성가족부 추진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 및 유관 사업 현황 파악 및 발전방안 논의 등	• 김○○ 과장, 전○○ 전문위원(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 • 송○○ 과장, 전○○ 사무관(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4.04.03
2차	교육부 추진 다문화청소년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유관 사업 추진 현황 및 발전방안 논의	• 박○○ 과장, 박○○ 사무관, 황○○ 사무관, 정○○ 주무관(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2024.05.02
3차	여성가족부 추진 사업 관련 연구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등	• 박○○ 과장(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2024.11.12
4차	교육부 추진 사업 관련 연구 성과 공유 및 발전방안 논의 등	• 조○○ 사무관(교육부 학생맞춤통합지원과)	2024.11.18

○ 포럼 개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 진로·진학과 관련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 정부부처 담당자 등의 발표와 토론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표 Ⅰ-12. 청소년정책 포럼 개요 및 내용

성격	주요내용	참석자 범위	개최일
학술 및 정책 포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연구진, 교육부, 여성가족부, 학계 진로 및 다문화 교육 현장전문가(교사, 장학사, 청소년지원기관 담당자 등)	2024.07.18

구분	참석자 및 내용	포스터
발표	▣ 다문화가족 자녀 진로설계 프로그램 (이진선, 동대문구가족센터 과장)	
	▣ 레인보우스쿨 지역운영 사례 발표 (문정숙, 김해글로벌청소년센터 팀장)	
	▣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사례: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중심으로 (구지혜, 경상북도 도송중학교 교사)	
	▣ 기초학력보장 사업운영 사례: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중심으로 (임미은, 안산 선일중학교 교사)	
	▣ 경기 다문화학생 심리·정서 지원사업 사례 (최한, 아주대학교 교수)	
전체 토론	○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다문화청소년 지원 현장 방문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기관과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방문하여 다문화청소년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현장의 상황을 이해하고, 실무 및 운영담당자와 논의를 통해 사업의 발전적 운영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하였다.

표 Ⅰ-13. 다문화청소년 지원 현장 방문 개요

차수	주요내용	기관/학교	방문 시기
1차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기관 방문 및 지원 현황 파악 및 FGI 내용 자문	경기도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024.05.16
2차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대상 지원 현황 파악 (진로설계 프로그램 포함) 및 FGI 내용 자문	서울 ○○구 가족센터	2024.05.16
3차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에서의 지원 현황 및 다문화학생 현황 및 특성 파악	서울 종로구 ○○ 중학교	2024.06.18
4차	학생맞춤통합지원(다문화청소년 중심) 지원 현황 및 연구 자문	광주 광산구 ○○ 중학교	2024.07.03

○ 외부 매체 출연(세종FM)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과정으로 생산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에 대한 소개와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 증진 차원에서 지역 라디오 방송국과 협업을 실시하였다. 협업을 통해 제작된 음성 및 영상은 각각 라디오와 온라인 콘텐츠로 제작되어 다양한 대상과의 접점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본 연구 및 패널자료에 관심이 있는 대상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표 Ⅰ-14. 외부 매체 출연 개요

차수	주요내용	언론매체	방송 시기
1회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및 2023년 연구결과 소개 (초-중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 다문화청소년정책현황 및 지원 방법 등)	세종FM	2024.07.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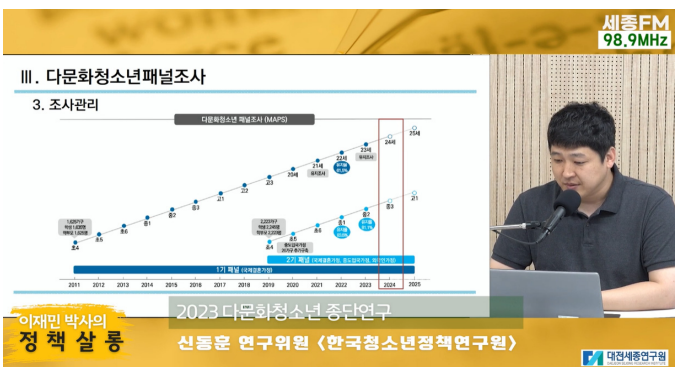


그림 Ⅰ-7. 세종FM 출연

○ 외부학술대회 지원

인구감소와 이주여건 등의 변화로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의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다학제간 논의의 장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한국이민정책학회에서 추진하는 학술대회는 이러한 논의를 생산하고 전달하기에 적합한 방향성을 보이므로 참여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성과 확산 및 자료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연구에서는 인적·물적 지원을 통해 2024년 한국이민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의 주최로 참여하였다.

표 Ⅰ-15. 외부학술대회 지원 개요

성격	주관	주제	개최일
학술 및 정책 포럼	한국이민정책학회, 한국사업인력공단	인구감소 시대, 외국인력 정책의 방향과 과제	2024.12.20 .

구분	세션 구성		포스터
발표	▣ 광역비자 제도	▣ 이민자 사회통합	
	▣ 국외학자 특별참여 세션	▣ 이민자 정착지원과 사회보장	
	▣ 난민과 노동정책	▣ 이민자 체류관리	
	▣ 신진학자 및 대학원생 세션	▣ 이민자 취·창업 정책	
	▣ 외국인력정책	▣ 이민자와 인권	
	▣ 외국인유학생 취·창업 정책	▣ 지역특화비자제도	
	▣ 이민국제협력	▣ 학제간 이민다문화 연구	
	▣ 이민법제정책	▣ 해외 외국인력 정책	

6. 보고서 구성

이 연구는 총 2권의 보고서(총괄보고서, 기초분석보고서)를 발간한다. 총괄보고서는 서론, 자료구축, 자료분석으로 이루어진 총 3부로 구성되어 있다. 제 1부 서론에서는 연구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연구목표, 방법 등에 대해 소개하였고, 제 2부 자료구축에서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추진 현황 및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다루었으며, 마지막 제 3부 자료분석에서는 2023년 2기 패널 조사자료 및 질적자료에 대한 분석결과와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정책방안으로 구성하였다. 기초분석보고서는 2023년 본조사로 추진된 2기 패널 자료에 대한 기초분석보고서로 유자조사로 실시된 1기 패널에 대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① 총괄보고서
② 기초분석보고서: 2기 패널

표 Ⅰ-16. 본 연구의 총괄보고서 구성

부	부별 제목	장별 제목
제 1부	패널조사	Ⅰ. 서론
제 2부	자료구축	Ⅱ.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Ⅲ. 패널조사 및 관리
제 3부	자료분석	Ⅳ. 선행연구 정책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Ⅴ. 패널자료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성장 유형과 진로발달 Ⅵ. 심층면접(IDI & FGI):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경험 및 지원에 대한 질적 조사 Ⅶ.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 및 진로·진학 준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제2장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

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개요
2. 2024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문항 변경 관리

2 조사개요 및 추진경과[5)]

1.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개요

(1) 조사 진행 및 패널관리 경과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2010년 예비조사를 시작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2010~2012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2013~2017년), 그리고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2018년~현재) 등 총 세 단계에 걸쳐 추진되었다. 연차별 중점을 둔 분석 주제는 취약계층과 차이, 비다문화청소년과 차이, 학업, 학교생활, 심리·정서, 사회적응, 문화정체성, 진로의식 및 태도, 진로발달, 지역 간 차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총 두 개의 패널을 운영한다. 두 개의 패널 모두 초등학교 4학년 시기 처음 조사에 참여했는데, 1기는 2011년, 2기는 2019년 구축되었다. 두 패널 간 가장 큰 차이는 참여자의 특성에 있다. 표본 구축 시 제한을 둔 것은 아니었으나 1기 패널은 조사에 참여한 1,625가구(1,635명의 자녀) 모두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의 자녀로만 구성(당시의 다문화청소년 인구구조가 반영된 결과)되었던 것에 비해, 2기 패널은 다문화청소년 내 변화된 인구구조를 고려해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자녀 뿐만 아니라,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자녀도 표본에 포함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최종적으로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 1,719가구, 중도입국가정 149가구(추가구축 26가구 미포함), 외국인가정 355가구로부터 2,245명의 자녀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각각의 조사에 대한 패널유지율은 1차 패널의 경우 제13차(2023년) 조사 기준 57.5%, 2차 패널은 제6차(2023년) 조사 기준 81.1%를 기록해 양호한 편이다. 다만, 1기 패널의 경우 조사 연차가 많이 진행된 탓에 표본 이탈 가구가 상당히 있어 신규 표본 재구축과 같은 대안을 모색할

5) 2장은 신동훈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이정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필요성이 있고, 2기 패널의 경우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에 비해 중도입국가정 및 외국인 가정의 패널 이탈률이 상대적으로 높아 이들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이 요청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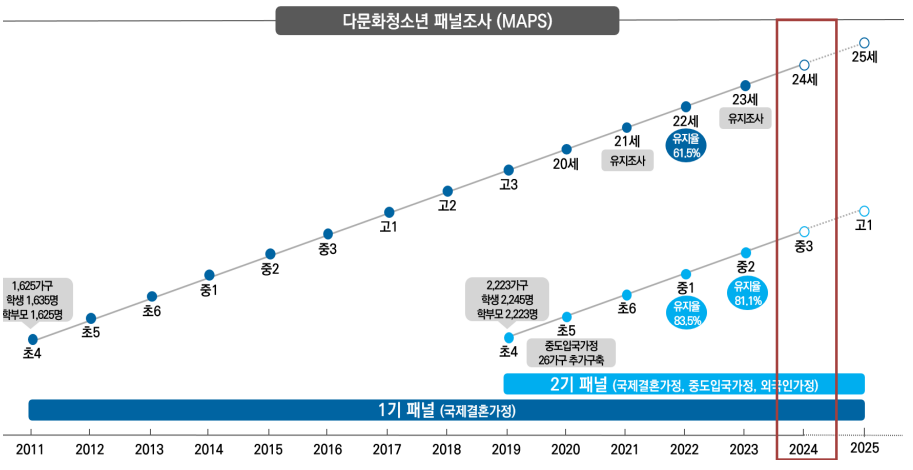
단계	과제명	연도	연차	조사 학년	분석주제	비고
1 단계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2010년	1기 예비	초4	예비조사	
		2011년	1차	초4	취약계층 청소년과 차이	
		2012년	2차	초5	비다문화청소년과 차이	
2 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2013년	3차	초6	학업 및 학교생활	
		2014년	4차	중1	심리·정서, 사회적응, 문제행동	
		2015년	5차	중2	자아정체성, 이중문화정체성	
		2016년	6차	중3	진로의식, 진로태도	
		2017년	7차	고1	총체적 발달	
3 단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년	1기 8차	고2	진로발달현황 및 요구	
			2기 예비	초4	예비조사	
		2019년	1기 9차	고3	심리·사회적응	
			2기 1차	초4	-	
		2020년	1기 10차	대1	전반적 발달	
			2기 2차	초5	1기 패널, 배경변인, 유형별 비교	
		2021년	1기 11차	대2	유지조사	
			2기 3차	초6	지역별 차이, 진로 및 학업관련 영향 요인 분석	
		2022년	1기 12차	대3	후기청소년기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2기 4차	중1	초-중 전환기 발달양상 분석	'24.12 공개
		2023년	1기 13차	대4	유지조사	
			2기 5차	중2	심리정서, 진로진학 발달양상 분석	자료분석 '24.12 공개
		2024년	1기 14차	대졸	성인기 이행 양상	자료수집
			2기 6차	중3	학습관련 심리정서, 방과후생활	

* 출처: 양계민 외(2022: 31) 그림 Ⅱ-2 수정 및 보완

그림 Ⅱ-1. 연도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및 연구주제

지난 2011년 조사 시작부터 2020년(10차 조사)에 이르기까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했던 1기 패널은 2021년부터는 유지조사와 본조사를 번갈아 가며 시행하였는데, 2024년은 본조사로 추진하였다. 이번 2024년 6차 조사(중3)를 실시하는 2기 패널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학교 재학을 전제로 설문문항을 구성하지만, 학교를 중퇴한 사례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학업중단청소년 대상 설문문항도 구성하였다. 이러한 대상의 경우 대부분의 문항을 동일하게 조사하되, 학교와 관련한 문항은 제외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다만, 실질적으로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조사결과를 공표할 수준으로 사례수가 충분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출처: 신동훈 외(2023: 33) 그림 Ⅱ-2 수정

그림 Ⅱ-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조사연혁(2011년~)

현재까지 자료공개는 자료수집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난 자료를 대상으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에 게시된 데이터 신청서를 작성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에 송부하면 이를 검토 후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다만, 이에 대한 편의성 및 자료의 시의성에 한계가 있음이 지적됐다.

따라서 이번 2024년에는 자료공개 방식 및 공개시점을 이용자의 편의에 맞춰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데이터신청서를 접수해 검토 후 이용자에게 직접 송부하는 방식에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에서 일정한 절차 이후 곧바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또한, 기존 자료수집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자료를 공개했던 방식에서 1년가량 공개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조율하였다. 이와 같은 개선을

통해 자료 활용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학술적 논의의 활성화 및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

(2) 학술적 성과(데이터 활용실적)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2020년 이후부터 데이터신청서를 접수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용자에게 전달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아동·청소년·청년 데이터 아카이브(https://www.nypi.re.kr/archive/mps)를 통해 당해연도 연말 공개하는 데이터와 제공방식을 공지하고 있다. 공개된 자료는 학위논문 작성이나 학술대회 발표, 학술논문, 기타 보고서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2017~2024년 8월 기준 총 729편의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데이터의 확산은 2018년 말 1~6차 자료가 공개되면서 본격화되었는데, 최근에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학술지에도 게재되는 실적이 보고되고 있다. 현재(2024년 10월 기준) 제3차 조사자료까지 공개되고 있는 2기 패널의 자료가 보다 누적되어 종단자료의 장점이 부각될 수 있는 시점에는 데이터 활용실적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Ⅱ-1. 데이터 활용실적

(단위: 편)

구분		활용실적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8	전체
학술지	전문 학술지	9	13	49	86	115	99	85	71	527
학위	석사학위	-	-	7	16	17	20	17	18	95
	박사학위	-	-	5	11	6	10	11	8	51
학술대회 발표	MAPS	32	-	-	-	-	-	-	-	32
	기타	1	1	5	2	4	3	2	2	20
기타(타 기관 연구보고서 외)		-	-	1	1	1	1	-	-	4
계		42	14	67	116	143	133	115	99	729

* 출처: 양계민 외(2022: 32) 표 Ⅱ-1 수정

(3) 데이터 활용논문 연구동향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2011년부터 매년 다문화청소년과 그의 어머니와 관련된 개인, 환경,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등의 요인이 수집되었다. 2017년부터는 데이터 공개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외 연구자들은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이들의 성장과 발달, 지원 정책 등을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 수립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국내외 연구자들은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와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고, 최초 공개일부터 2024년 8월까지 학위논문, 국내외 학술지, 연구보고서 등 729편 정도를 발표하였다. 이하에서는 현재까지 연구자들이 국내외에서 발표한 연구논문의 주제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① 분석방법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논문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국내 학술지와 학위논문 총 689편을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2024년 8월 31일 발행 기준으로 학위논문이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연구동향 분석은 논문의 국문초록이 사용되었으며 영문초록만 있는 경우 국문으로 번역하였고, 불용어 및 중복단어, 토큰화 등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분석 파일을 생성하였다. 이때,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다문화청소년 패널 데이터', 'MAPS', 'MCAPS' 등 패널조사와 관련된 단어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텍스트 분석은 파이썬 3.13.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한나눔(Hannanum)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하여 명사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명사의 시각화를 위해 워드 클라우드(word cloud) 분석을 적용하였으며, 주요어(Key words)의 출현 빈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크기를 달리하였다(권혜진, 다그와더르지 아마르자르갈, 김학선, 2022). 워드 클라우드 분석은 1위부터 150위까지 지정하였다.

② 분석결과

2017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다문화청소년'으로 2,813회였으며, 이는 다문화청소년이 이 패널에서 주대상이기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다음으로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학교생활적응', '어머니', '부모', '우울' 등의 순으로 주요어가 등장하였다. 10위권 이내 상위권 주요어로는 '자아존중감'과 '우울', '사회적위축'의 심리·사회 적응 관련 변인이었으며, '학교생활적응'은 2023년에 분석된

결과보다 4단계 상승한 4위로 나타났는데, 이는 학령기 다문화청소년의 주요 삶의 터전인 학교에서 이들이 규칙과 질서, 학습 등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지 혹은 그러한 어려움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는지를 주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들은 다문화청소년의 귀속적 지위와 관련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 등의 변인을 주목하였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은 한국문화와 외국문화의 이질적인 문화를 동시에 경험하게 되면서 심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기에 다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다루었으며, 이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삶을 위한 다문화 정책의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상위권에 등장한 단어 중 '집단'이 566회, '매개효과'가 421회로 나타나 연구자들은 집단의 구분, 변인의 간접 영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연구방법론을 활용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특히, 2024년에는 주요어로 '사회적'이 새롭게 등장했는데, 이는 사회적 역량, 사회적 소속감, 사회적 통합 등과 관련된 단어로 이들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하는데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방안에 관하여 제안하는 연구가 수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II-3. 워드 클라우드 분석 결과

(2017년~2024년)

표 II-2. 주요어 빈도

순위	전년도 분석대비 순위변동	주요어	빈도
1	-	다문화청소년	2,813
2	-	자아존중감	1,006
3	-	문화적응스트레스	940
4	⬆4	학교생활적응	719
5	⬇1	어머니	647
6	⬇1	부모	628
7	-	우울	572
8	⬇2	집단	566
9	⬆1	사회적위축	497
10	-	자녀	482
11	⬇2	성취동기	466
12	⬆3	매개효과	421
13	-	청소년	421
14	-	삶의만족도	394
15	⬆3	이중문화수용태도	378
16	⬆1	다문화가정	363
17	-	진로장벽	319
18	⬆2	다문화	275
19	⬆12	사회적	252
20	⬇1	중학교	240

* 주: 빈도는 20위까지만 제시함

다음은 연도별 주요 단어의 출연빈도를 분석한 결과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개년도를 하나의 분석단위로 포괄하였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는 1년 단위로 설정하였으며, 앞서 워드 클라우드 분석에서 1위 단어인 '다문화청소년'은 제외하고 분석하였다.

2019년 이전 결과에서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던 주요어는 '문화적응스트레스'였다. 그 뒤를 이어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어머니', '청소년', '자녀' 등이 주요어로 등장하였다. 자료가 공개된 초창기에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다문화, 적응에 주목하였으며, 그들의 어머니, 부모의 양육태도와 부모와의 관계 등의 관련성을 통해 다문화가정 지원의 확대를 주장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0년에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많이 등장한 단어로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어머니', '우울', '사회적위축'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연구자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의 문제에 주목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이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침울하고 불안정한 심리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서적 지원과 상담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2021년에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자아존중감'이었으며, 다음으로 '어머니', '우울',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모', '성취동기', '사회적 위축', '집단', '진로장벽' 순이었다. 이전의 연구와 다르게 2021년에는 '진로장벽'이 새롭게 등장하였는데, 학년이 올라가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며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다문화청소년 자신의 진로발달을 지연시키는 방해요인으로 진로장벽에 주목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진로탐색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 진로교육의 제고를 제안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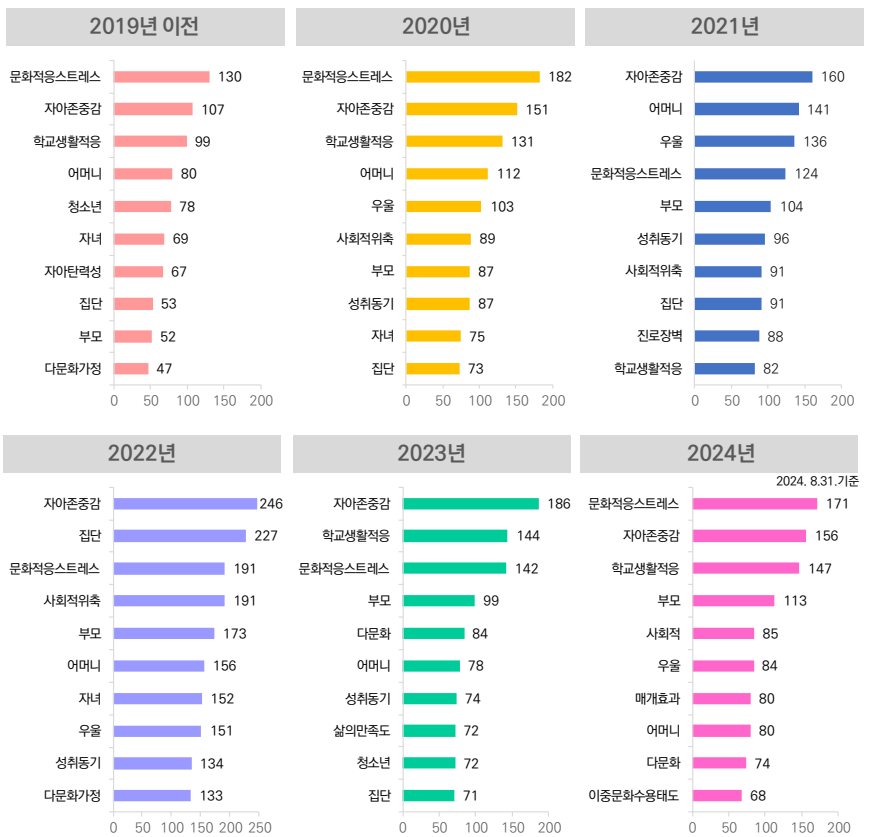
2022년에 가장 높은 출현 빈도를 나타낸 주요어는 '자아존중감'이며, '집단',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적위축', '부모', '어머니'의 순이었다. 특히 2022년에는 '집단'의 단어가 2위로 나타났는데, 패널자료의 특성을 활용하여 잠재계층, 성장혼합모형, 군집분석 등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이질적인 하위집단을 구분하는 연구방법론을 활용한 연구가 다수를 이루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2023년에도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이 출연한 단어였으며, '학교생활적응',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모', '다문화', '어머니', '성취동기', '삶의만족도'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자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삶에 주목하였으며, 종단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이들의 행복이 얼마만큼 달라지는지를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2024년에는 다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자아

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부모', '사회적', '우울'의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많이 등장한 주요어 중 눈에 띄는 단어는 '사회적'이었으며, 연구자들은 사회통합의 관점에서 이들의 사회적 역량, 사회적 소속감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과 지원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종합하면, 연구자들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학교 및 문화적응, 이중문화수용에 따른 어려움 등을 주목하면서 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근거와 시사점 도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자들은 다문화청소년이 사회적 역량이 증대하고 발전하길 희망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통합과 보편적 가치의 확장, 사회적 관심을 환기하는 등의 방식으로 학술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 주: 빈도는 10위까지만 제시함

* 출처: 양계민 외(2022: 36) 그림 Ⅱ-4 수정

그림 Ⅱ-4. 연도별 주요어 출현 빈도 추이(2017년~2024년)

2. 2024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문항 변경 관리

1) 2기 패널 설문 문항 변경 관리

이번 2024년 6차 조사를 실시한 2기 패널은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한다. 이러한 시기적 특성으로 인해 상급학교 진학뿐만 아니라 진로준비, 학습관련 심리정서, 방과후 생활 등을 이해하기 위한 문항과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추가 문항 구성의 필요성이 커졌다. 더구나 조사참여 청소년의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문항을 추가로 편성할 여지가 생겼다. 다만, 패널조사의 특성상 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므로 신규문항의 추가는 매우 제한되는 편이다. 따라서 연구진은 지난 2023년 다양한 신규영역을 조사에 포함하되 일부는 격년으로 조사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에 따른 2024년 추가하는 문항의 영역은 학습관련 심리정서(그릿)와 방과후 생활이다.

표 II-3. 2023년 이후 청소년용 신규문항(안)

구분		문항수	'23년 (중2)	'24년 (중3)	'25년 (고1)	'26년 (고2)	'27년 (고3)	조사 주기	유사영역 존재여부
영역	세부영역								
진로·진학	진로준비역량	12문항	●	·	●	·	●	2년 (홀수해)	○ (진로, 진로결정성)
	상급학교진학준비도	7문항	●	●	●	●	●	상시	X (학교급에 따라 수정)
	자유학기(년)제	1문항	●	●				한시적	X 행정자료 확인
	고교학점제	5문항			●	●	●	고등학교 시기	X
활동	학습 및 청소년 활동	6문항		●	●	●	●	상시	△ (학교급에 따라 일부 수정)
	가사참여 및 여가활동	8문항		●		●		2년 (짝수해)	△
심리·정서	사회적 고립(외로움)	4문항	●	●	●	●	●	상시	○ (심리사회적응, 삶의 만족도)
	그릿	8문항	·	●	·	●	·	2년 (짝수해)	X
기타	비행	1문항	●	●	●	●	●	상시	비행 문항에 온라인 도박 추가
	인권	4문항	●	●	●	●	●	상시	X
총문항수			29	39	39	43	39		

* 출처: 신동훈 외(2023: 40) 표 II-3. 수정

(1) 청소년용 설문지 신규 및 수정 문항 내용

이번 2024년 2기 패널은 중학교 3학년 시기에 해당한다. 중학교 3학년은 상급학교(고등학교) 진학을 준비하면서 학업에 대한 본격적인 고민이 이어지는 시기로 2023년 새롭게 추가한 상급학교 진학 준비 문항을 유지하고, 진로 및 학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심리정서를 파악할 수 있는 그릿(Grit) 문항을 추가했다.

표 II-4. 그릿(신규)

구분	문항
신규문항	29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 출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2018)
[원출처: 김희명, 황매향(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다문화청소년 내 배경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학습이나 진로준비 등의 수준에서 격차가 관찰될 것이라 예측할 수 있으며, 격차의 발생 역시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비롯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방과후 어떠한 생활을 하는지에 따라 그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방과후 주된 활동 내용에 대한 문항을 추가하였다.

이와 관련한 문항은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 1기패널」,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초4패널」 등을 참고해 추가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설문문항을 활용하는지에 따른 장단점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 1기패널」의 문항을 활용할 경우 다문화청소년 패널 간 비교가 용이하나, 이러한 결과가 비다문화청소년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반대로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의 설문문항을 참고해 신규문항을 투입할 경우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문화청소년과의 학습활동 및 여가활동에 대한 비교 가능성이 생기나, 다문화청소년 패널 간 비교는 어렵게

된다. 마지막으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초4패널」은 비다문화청소년과 비교와 정보의 상세함에 장점이 있으나 비교 가능한 패널 간 연차가 있고, 다문화청소년 내 종단적 변화와 관련한 자료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표 II-5. 학습 및 청소년 활동(신규)

구분	문항
신규문항	43 학생은 다음과 같은 **학습 또는 청소년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몇 회하고, 한번 할 때 얼마나 하나요?

항 목	참여 여부		1주일 간 참여횟수	회당 평균 참여시간
	참여	미참여		
(1)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관련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 강의, 방문학습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관련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 강의, 방문학습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3)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교과보충학습,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방과후학교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4) 지역 방과후 프로그램(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5) 청소년센터(수련관, 문화의집, 미디어센터, 직업체험센터 등) 또는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①	②	( )회	( )시간 ( )분
(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 )회	( )시간 ( )분

* 출처: 다문화청소년종단조사 1기 패널(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수정 사용
[원출처: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2010) 수정 사용]

이와 같은 장점 및 단점을 종합하여 전문가 자문 및 연구진 논의 등을 통해 조율한 문항 구성 방안은 기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1기패널의 조사 형태를 유지하되, 세부적인 문항의 내용을 조절하는 형태이다. 기존 문항이 크게 학습활동과 특기적성에 대한 학습, 청소년, 사교육 활동을 교과 또는 유형별로 조사한 까닭에 다소 하위 문항이 많았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연구에서는 학습 및 청소년활동의 경우 주요한 활동 참여 기관 위주로 조사하고, 여가 활동의 경우에는 보다 가볍게 응답할 수 있는 내용 위주로 구성함과 동시에 대략적인 시간 범위로 응답할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표 Ⅱ-6. 가사 참여 및 여가 활동(신규)

구분: 신규문항

문항

44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루에 평균 얼마나 하나요?
※ 과제 또는 학습용으로 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십시오.

항 목	활동 여부		1주일 간 활동일수	하루 평균 활동시간
	했음	안했음		
(1) 집안일 돕기(청소, 빨래, 동생 돌보기 등)	①	②	( )일	( )시간 ( )분
(2)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오프라인)	①	②	( )일	( )시간 ( )분
(3) 운동(개인운동, 단체스포츠 등)	①	②	( )일	( )시간 ( )분
(4) 종교활동	①	②	( )일	( )시간 ( )분

	주중 (월-금요일) 하루 평균	휴일 (토/일요일, 공휴일) 하루 평균
(5) TV 또는 OTT*(넷플릭스, 티빙 등) 시청	( )시간 ( )분	( )시간 ( )분
(6) 온라인게임(PC, 스마트폰 모두 포함)	( )시간 ( )분	( )시간 ( )분
(7)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이용(한국어)	( )시간 ( )분	( )시간 ( )분
(8)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이용(외국출신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언어)	( )시간 ( )분	( )시간 ( )분

* OTT(Over-the-top)는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원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예시: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를 의미합니다.
* SNS(Social Network/Networking Service)는 사용자 간 의사소통,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의미합니다.

* 출처: 한국교육종단연구 2013(남궁지영 외, 2018) 수정 활용
[원출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이규민, 강상진, 노명완, 류제명, 류희찬, 2006) 수정 활용]

(2) 학부모용 설문지 신규 및 수정 문항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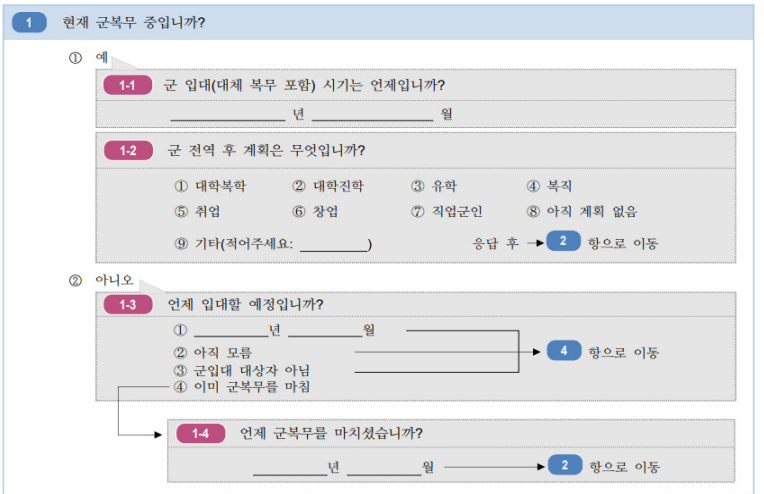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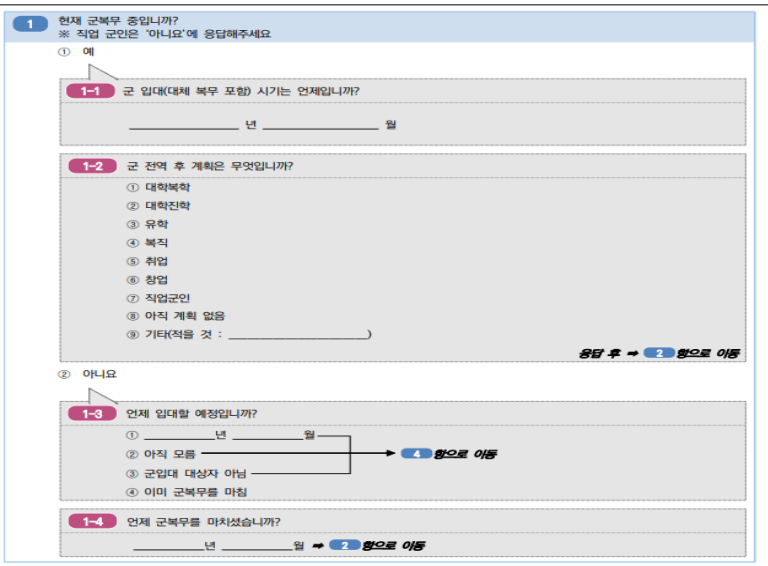
이번 2024년 2기 패널의 학부모 대상 설문지에 신규로 추가한 문항은 없다. 다만, 일회성 문항으로 반복적으로 조사하는 것의 의미가 약하거나, 응답 사례수가 매우 적은 문항의 하위 항목 등은 이번 조사에서 삭제하였다. 구체적으로 2023년 조사에서 일회성으로 포함했던 자유학기(년)제에 대한 인지 정도와 응답 결과에 따라 자녀의 자유학기(년)제 경험 유무 및 시점에 대해 묻는 문항은 조사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지난 2023년 학부모 조사에서는 한국에 살면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고 응답한 경우 순차적으로 차별 받은 정도와 그에 대한 대응 방식을 묻고, 이어서 대응 방식에 대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고 응답한 경우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에 대해 각각 제시된 여러 선택지 가운데 고르도록 구성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과정으로 도움을 요청한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을 응답한 사례가 극히 드물고, 지속적으로 변하는 공공 및 민간 지원 기관의 명칭 등으로 인해 선택지의 구성도 일관되게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해당 문항을 설문에서 제외했다.

2) 1기 패널 설문 문항 변경 관리

(1) 청소년용 설문지 신규 및 수정 문항 내용

표 II-7. 군복무 여부(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수정문항	

* 출처: 연구진 작성.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1기 패널은 2024년이 14차 조사이며 일반적인 상황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4년제 대학교에 진학하여 휴학 없이 4년 간의 학업을 마쳤을 경우 노동시장에 진출할 시기이자 성인기로 이행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조사로 진행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취업·창업을 포함해 성인이행기의 다양한 경험과 인식을 조사하고자 했다. 또한, 1기 패널은 2021년(유지조사)부터 학부모 조사는 시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번 조사에서도 청소년 대상으로만 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항 구성은 지난 2022년(12차 조사)과 2023년(13차 (유지)조사) 진행한 조사에서 포함한 군복무, 대학진학, 일경험, 취업준비, 구직활동, 심리사회적응, 사회적가치와 태도, 진로, 정책 및 지원 등과 관련한 문항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해 활용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연구진이 신규문항을 개발하거나 조사대상의 특성(청년, 다문화)에 부합한 기존 조사를 참고해 조사표를 작성하였다. 여기서는 2022년 또는 2023년과 비교해 수정되었거나 신규로 투입한 문항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군복무 의무를 이행하는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1기 패널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서도 해당내용에 대해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다만, 기존에는 이 문항은 직업적으로 군복무를 하는 경우를 포함할 의도가 아님에도 명확한 지침이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여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지침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표 II-8. 군 복무 중 불쾌한 경험 여부(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2 군 복무 중 다문화가정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2-1 차별행동이나 불쾌한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은 주로 누구였습니까? ① 상관 ② 선임병 ③ 동기 ④ 후임병 ⑤기타(적어주세요:_____) ② 아니오
수정문항	2 군 복무 중 다문화가정자녀라는 이유로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출처: 연구진 작성(2022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기존문항 수정)

다음으로 군복무 중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는지 묻는 문항을 기존문항에서 수정해 활용하였다. 기존에는 “군 복무 중 다문화가정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예' 또는 '아니오'로 하고, '예'로 응답한 경우 차별행동이나 불쾌한 말과 행동을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묻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조사 방식은 의미가 있으나, 문항의 특성상 기존 조사에서 응답률이 매우 낮게 나타나 이번 조사에서는 문항을 간소화해 진행했다.

표 II-9. 혼인상태(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① 미혼 ② 결혼 ③ 동거 ④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수정문항	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결혼하지 않음 ② 배우자 있음 ③ 이혼 또는 사별 ④ 기타 (적어주세요: _____)

* 출처: 연구진 작성.

혼인상태에 대한 문항도 기존 문항을 수정해 활용했다. 문항에 대한 전문가 자문의견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는 선택지를 제외하고, 타조사가 취하고 있는 일반적인 보기의 형태를 따라 수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지침을 추가하였다.

표 II-10. 자녀 유무 및 (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문10) (2021년 6월 1일 기준) 귀하는 자녀가 있으십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② 아니오
신규문항	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명) ② 아니요

* 출처: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자녀 유무나 희망 여부 등은 조사대상자의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새롭게 추가한 문항이다. 통계청 승인통계로 추진되었던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문항을 활용하되, 전체적인 설문문항 수를 고려해 응답결과에 따른 추가 문항은 제외하였다.

표 II-11. 자녀 희망 여부(신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원문항</td><td>문11)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미 자녀가 있으신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지실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 문12로 이동 ② 아니오
문11-1) 위 문11)에서 ②아니오라고 답하신 경우,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없는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이미 계획한 수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② 불임, 난임 등 임신의 어려움 때문에
③ 맞벌이로 인한 자녀 양육의 어려움 때문에
④ 경제적 부담감 때문에
⑤ 출산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때문에
⑥ 자녀가 살아가기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⑦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
⑧ 기타 ( )</td></tr>
<tr><td>신규문항</td><td>6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요</td></tr>
</table>

* 출처: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현재 거주 형태 및 경제적 독립 여부에 대해서 기존에도 관련한 문항이 있었으나, 이 문항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외부 자문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를 고려해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분이라도 같이 살면 동거로 응답해달라는 지침을 추가하였으며, 응답자의 편의를 위해 부모 동거 여부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추가 문항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재구성하였다.

표 II-12. 현재 거주형태(부모님과 동거 여부) 및 경제적 독립 여부(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5 ☞ G-TAPI ▫ 1 에서 ① 에 (현재 군 복무 중) 인 경우, 아래 설명문 출현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 군부대에서 생활하면 ② 비동거에 해당합니다. 단,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제로 출/퇴근하는 경우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즉,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에서 출/퇴근하면 ① 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곳에서 출/퇴근하면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여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는 경우는 ③ 독립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① [동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② [비동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은 채 일시적으로 따로 살고 있다 (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③ [독립]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며, 경제적으로 독립한 상태이다 (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수정문항	7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분이라도 같이 살면 동거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동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② [비동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 7-1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습니까? 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②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결혼, 장성하여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 출처: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췌 및 수정

이번 1기 패널 조사에서는 해외이주 고려 여부와 그 이유에 대해 묻는 문항을 새롭게 추가했다.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문항을 활용하되, 해외이주를 고려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일부 선택지 간 수준을 조정하고 다문화 배경을 지닌 조사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선택지를 재구성하여 제시했다. 또한 해외이주를 고려한 경우 희망 지역에 대해서도 권역으로 구분해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추후 부모님 출신국과의 관련성이 있는지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표 II-13. 해외이주 고려 여부, 이유, 희망지역(신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원문항</td><td>
문14)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교육 및 훈련영역(문15)으로 이동

문14-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1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행복한 삶을 위해서 ④ 더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서
⑤ 취업이 어려워서 ⑥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⑦ 빈부격차가 커서 ⑧ 집값이 너무 비싸서
⑨ 안보가 불안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td></tr>
<tr><td>신규문항</td><td>
8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9 항으로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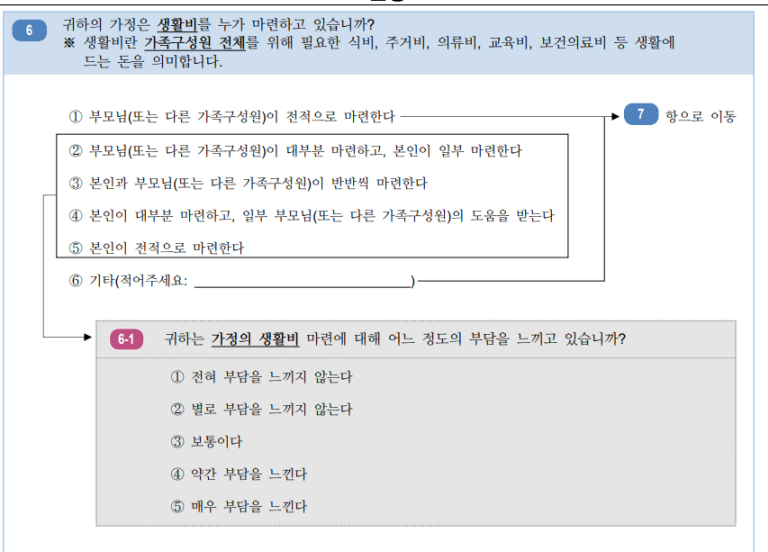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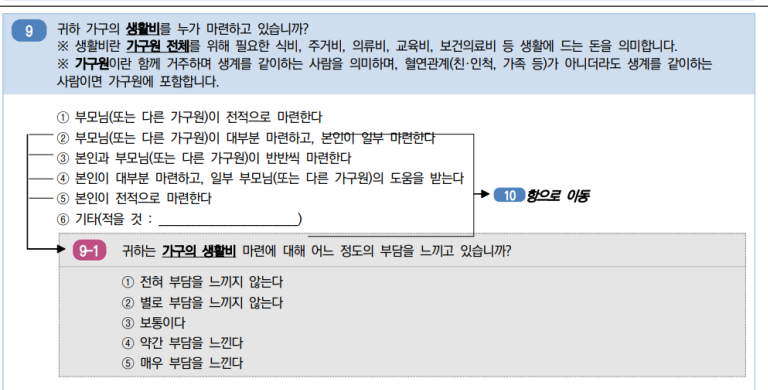
8-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자기계발을 위해서(해외경험, 유학 등)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생계 및 주거비 부담이 커서(생활비, 집값 등)
④ 취업 기회를 확대해 보려고
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⑥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⑦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서
⑧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⑨ 한국보다 더 친숙해서
⑩ 가족 또는 친·인척이 살고 있어서
⑪ 기타(적을 것 : _____)

8-2 희망하는 해외이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북미(미국, 캐나다)
②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③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등)
④ 유럽(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등)
⑤ 러시아·중앙아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⑥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나,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등)
⑦ 중동·북아프리카(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등)
⑧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⑨ 서남아시아(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⑩ 동북아시아(중국, 일본, 대만, 몽골)
⑪ 기타(적을 것 : _____)
</td></tr>
</table>

* 출처: 1)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췌 및 수정
2) 연구진 작성. (선택지는 외교부 국가/지역 구분 기준을 따르되 서남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우 오세아니아 별도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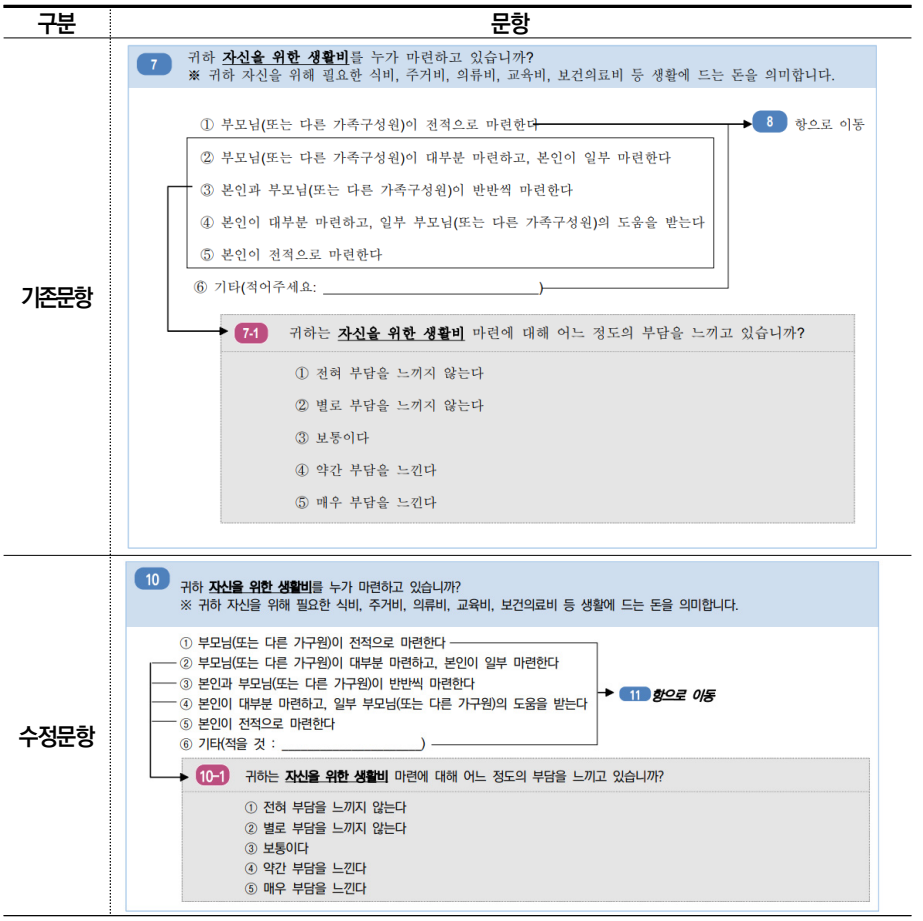
생활비 마련방법 및 부담정도에 관한 문항은 기본적인 내용과 구성의 변화 없이 기존에 사용된 단어(가정)의 모호함을 보완하기 위해 타조사에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단어(가구)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수정되었다. 또한, 이와 연결하여 선택지의 단어 역시 가족구성원에서 가구원으로 변경해 조사하였다.

표 II-14. 가정 생활비 마련방법 및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수정문항	

* 출처: 연구진 작성.

표 II-15. 개인 생활비 마련방법 및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수정)



* 출처: 연구진 작성.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은 지속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문항이다. 다만, 조사대상자의 노동시장 진출로 인해 가구소득이 늘어날 수 있음을 감안하면, 기존에 선택지로 제시된 소득구간의 범위가 다소 협소하므로, 소득구간을 상향해 선택지를 추가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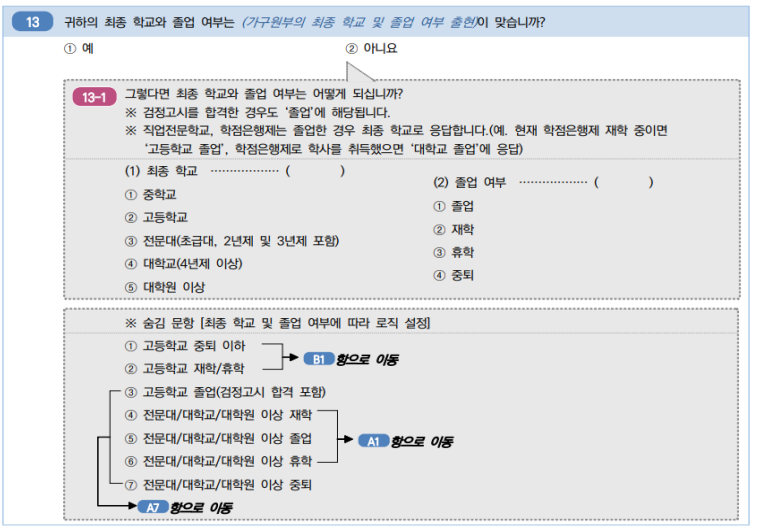
표 II-16.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8 최근 1년간 **귀 댁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기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 이상
수정문항	11 최근 1년간 **귀 댁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기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 출처: 연구진 작성.

표 II-17.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여부(수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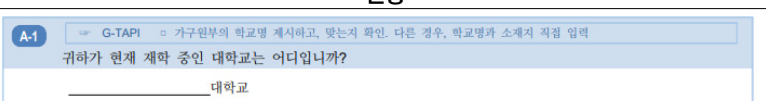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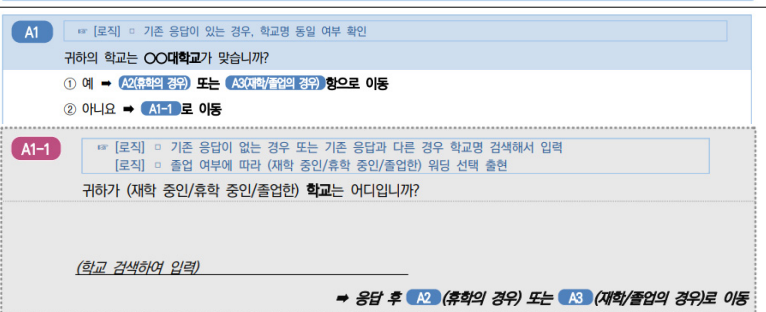
구분	문항
기존문항	10 ☞ G-TAPI ▫ 가구원부의 최종학교가 대학교(4년제 미만) 이상인 경우, 10 에서 ① 자동 저장 후 10-1 로 이동 귀하는 고교 졸업 후 대학교에 진학하였습니까? ① 예 10-1 ☞ G-TAPI ▫ 1 에서 ① 예 (현재 군복무 중) 인 경우, ① 재학 응답 불가 현재 대학교의 학적상태는 무엇입니까? ① 재학 ② 휴학 → A-1 항으로 이동 ③ 자퇴 → A-7 항으로 이동 ④ 졸업 → 10-3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구분	문항
수정문항	

* 출처: 연구진 작성.

지난 본조사(2022년)와 비교해 학적을 묻는 방식은 패널조사의 장점을 살려 응답자의 편의를 고려하고자 상태의 변화를 묻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고등교육기관의 유형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보기 항목을 수정하였다.

표 II-18. (대학 재학 중인 경우) 학교명 확인(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수정문항	

* 출처: 2022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기존문항 수정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경우 학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함으로써 지난 조사 이후 변화를 묻는 방식으로 수정하였다. 학교명이 동일하지 않을 때는 추가 문항을 제시하여 학교명을 입력하도록 하였다.

표 II-19. (휴학인 경우) 휴학한 이유(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A-7 ☞ G-TAPI ▫ 배정문항 10-1에서 ③ 자퇴 인 경우만 응답 대학을 그만 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이 나빠져서 ② 집안 경제사정이 어려워서 ③ 학교수업을 따라가기 어려워서 ④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⑤ 대학에서 제공하는 강의 등이 기대한 것에 못 미쳐서 ⑥ 대학이 인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느껴서 ⑦ 취업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되어 ⑧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신규문항	A2 ☞ [로직] ▫ 현재 '휴학'인 경우만 [로직] ▫ 보기 ⑤ 군 입대는 성별이 남자인 경우만 출현 귀하가 대학을 휴학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경제적인 이유로 ③ 학업 수행(학교 공부)의 어려움 ④ 학교 적응(친구관계, 학교 환경 등)의 어려움 ⑤ 군 입대 ⑥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⑦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⑧ 다른 대학 진학 또는 편입 준비를 위해서 ⑨ 해외 이주 준비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출처: 2022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기존문항 수정((대학 자퇴한 경우) 대학을 그만 둔 이유 수정보완)

고등교육기관의 학적 상태에서 휴학인 사례에 대해서는 그 이유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존 설문(2022년)에서 자퇴한 경우 그 이유를 묻는 문항을 참고하여 보기 항목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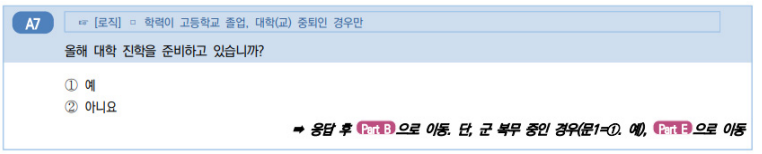
표 II-20. 전공확인(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A-2 귀하의 대학 전공계열은 무엇입니까? ① 교육(교육학, 유아교육, 사범계열 포함) ② 예술 및 인문학(예술, 인문학, 어문학 포함) ③ 사회과학, 언론 및 정보학 ④ 경영, 행정 및 법학 ⑤ 자연과학, 수학 및 통계학 ⑥ 정보통신기술(컴퓨터 공학, 전산학 포함) ⑦ 공학, 제조 및 건설(건축학 포함) ⑧ 농림어업 및 수의학 ⑨ 보건 및 복지(의·약학 및 보육, 복지, 상담학 포함) ⑩ 서비스(체육학 및 관광, 여가, 위생, 경비학 포함) ⑪ 기타(자유전공 등) A-3 ☞ G-TAPI ▫ 기존에 응답한 전공명 제시하고, 맞는지 확인. 다른 경우, 새로 기입 귀하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는 무엇입니까? _____ 예) 경영학과 또는 경영학 전공
수정문항	A3 ☞ [로직] ▫ 기존 응답이 있는 경우, 전공명 동일 여부 확인, 기존 응답이 없는 경우 A3-1로 이동 귀하의 전공은 ○○이 맞습니까? ① 예 ➡ A4로 이동 ② 아니요 A3-1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_____ ➡ 군 복무 중인 경우(문1=①. 예), Part E 으로 이동

* 출처: 연구진 작성.

전공에 대해 묻는 방식에도 일부 수정을 통해 응답자의 편의를 높이고자 했다. 기존에 응답했던 정보에 기반해 전공명 동일 여부를 확인하고 다를 때에만 전공을 기입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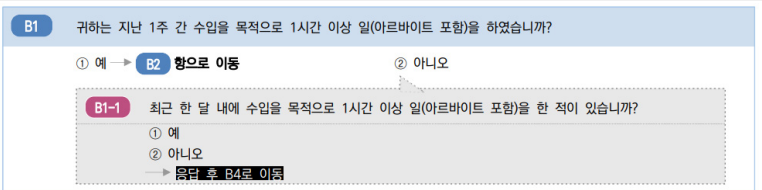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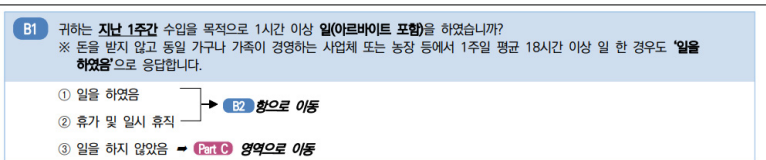
표 II-21. 대학 진학 준비 여부(신규)

구분	문항
신규문항	

* 출처: 연구진 작성.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대학(교) 중퇴인 경우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대학(교) 진학 준비 여부에 대해 간략하게 물어보았다.

표 II-22. 최근 한 달 내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경험(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수정문항	

* 출처: 연구진 작성.

이번 1기 패널조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일 경험에 대한 문항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지침에 근거해 수정하였다. 또한, 응답을 지난 1주 간을 기준으로 설정한 까닭에 휴가 및 일시 휴직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해 보기 항목을 추가했다.

일 경험은 2022년과 2023년 모두 조사되었고 근본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통계청 승인통계로 시행되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관련 내용을 조사할 때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침을 포함하여 보다 명확하게 응답 구분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을 한 경우 기존 설문에서는 고용형태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후 실제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거나(2022년), 직종 구분과 고용형태를 스스로 선택하게 하였다

(2023년). 이번 2024년 조사에서는 2022년조사와 2023년 조사 방식을 혼합 및 수정하여 보다 정확한 직업정보 분류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일을 한 경우 내가 한 일과 직위를 기술하도록 하고, 고용형태는 근로자(상용, 임시, 일용)와 자영업자(고용원이 있는/없는), 무급가족 종사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응답자가 기술한 내용은 추후 전문가에 의해 표준직업분류 체계에 따라 재입력된다.

표 II-23. 내가 한일 및 직책 또는 직위(오픈문항: 직업분류)(신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원문항</td><td>
ca010103~ca010105, ca010302
Ca1-3) 이 일자리(직장)에서 ○○○님은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임금을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말씀해 주세요)
<table>
<tr><td>1</td><td>2</td><td>3</td><td>4</td><td>5</td><td>6</td><td>7</td><td>8</td></tr>
</table>
<table>
<tr><th>항 목</th><th colspan="2">구체적으로 적어 주세요.</th></tr>
<tr><td>1) 주로 하는 일</td><td>시트 디자인</td><td>직업코드</td></tr>
<tr><td>2) 주 사용장비나 도구</td><td colspan="2">컴퓨터, CAD 프로그램</td></tr>
<tr><td>3) 부서명</td><td colspan="2">디자인1팀</td></tr>
<tr><td>4) 직책 또는 직위</td><td colspan="2">대리</td></tr>
</table>
</td></tr>
<tr><td>신규문항</td><td>
B2 지난주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응답 예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세요.
※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 주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1주일 평균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작성해주세요.
〈응답 예〉
<table>
<tr><th>구분</th><th>〈예1〉</th><th>〈예2〉</th><th>〈예3〉</th></tr>
<tr><td>내가 한 일</td><td>생산제품 검사</td><td>미장</td><td>채소류 판매</td></tr>
<tr><td>직책 또는 직위</td><td>생산부 대리</td><td>없음</td><td>판매사원</td></tr>
</table>
내가 한 일 _____
직책 또는 직위 _____
</td></tr>
</table>

* 출처: 이윤지 외(2023) 2023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발췌 및 수정

표 II-24. 종사상 지위(신규)

구분	문항
신규문항	B3 현재 직업(직장)에서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 주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상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임시 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일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또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람 이상의 유급 고용원(직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무급가족 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 **· 임금 근로자(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에 고용되어 일함)** ① 상용근로자 ➡ B4 *로 이동* ② 임시근로자 ➡ B4 *로 이동* ③ 일용근로자 ➡ B4 *로 이동* **·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B7 *로 이동*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B7 *로 이동* ⑥ 무급가족 종사자 ➡ B7 *로 이동*

* 출처: 연구진 작성. (2020 종사상 지위 정의: 윤혜준 외(2019) 발췌, 2022 종사상 지위: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통계청, 2021) 활용)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 참여자의 노동시장 진출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일자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자 했다. 일자리 형태가 다양한 만큼 임금근로자의 경우 보수형태(고정되지 않은 보수 체계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 형태 추가 응답)와 임금 지급처, 그리고 '일경험' 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일자리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동일 연령대 집단과 비교 가능성을 고려해 「2024 청년삶실태조사」의 연구진과 협의하여 해당 문항을 활용했다.

표 Ⅱ-25. (임금근로자의 경우) 보수형태, 임금 지급처, 일경험 해당 여부(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E3-2 이 일자리에서 귀하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수형태는 무엇입니까? ※ 고정된 보수(기본급)과 고정되지 않은 보수(실적급)가 혼재된 경우 주된 임금형태를 기준으로 응답 ① 고정되지 않은 보수(실적급 등) ② 고정된 보수(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 E3-3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계약 형태는 무엇입니까? ※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실질이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응답 ① 근로계약 ② 근로계약 이외(위임·위탁·위촉·도급계약·프리랜서계약 등)) E3-4 귀하는 임금(급여)을 일한 직장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나 용역업체에서 받으셨습니까? ① 직장 (지난주 일한 곳) ②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 E3-5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의 '일 경험'에 해당합니까? ① 인턴 ② 현장실습 ③ 수습기간 ④ 해당 없음
신규문항	B4 현재 귀하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수형태는 무엇입니까? ※ 고정된 보수(기본급)와 고정되지 않은 보수(실적급)가 혼재된 경우 주된 임금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실적급제는 임금이 고정적이지 않고, 생산(서비스)량,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는 형태(업적급, 실적급, 도급제 등)에 해당합니다. ① 고정되지 않은 보수(실적급제 등) ➡ B4-1로 이동 ② 고정된 보수(연봉제, 월급제, 주급제/격주제, 일급제, 시급제 등) ➡ B5로 이동 B4-1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계약 형태는 무엇입니까? ※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응답 ① 근로계약 ② 근로계약 이외(위임·위탁·위촉·도급계약·프리랜서계약 등) B5 귀하는 임금(급여)을 직장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나 용역업체에서 받으셨습니까? ① 직장(지난주 일한 곳) ②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 B6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의 '일 경험'에 해당합니까? ① 인턴 ② 현장실습 ③ 수습기간 ④ 해당 없음

* 출처: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평균 근무시간은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구분 없이 모두 응답하도록 했으며, 총 근무 일 수와 하루 평균 근무시간으로 조사하였다. 지난 2022년 조사 문항을 활용하되, 초과 근무나 휴가 등과 같은 상황에 대한 응답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침을 보완해 제시했다.

표 II-26. 평균 근무시간(총 근무일 수 / 하루 평균 근무 시간)(수정)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기존문항</td><td>B-6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 포함)의 주당 총 근무 일 수와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각각 얼마나 됩니까?
※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table><tr><td>1) 일주일 총 근무 일 수</td><td>일주일에 총 _____일 일함</td></tr><tr><td>2) 하루 평균 근무시간</td><td>하루에 평균 _____시간 일함</td></tr></table></td></tr>
<tr><td>수정문항</td><td>B7 귀하는 일자리(직장)에서 일주일 평균 며칠, 하루 평균 몇 시간씩 근무하고 계십니까?(초과근로일, 초과 근로시간 포함)
※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지난 1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휴가가 있었던 경우 근무를 한 것으로 가정해 응답해 주십시오.
<table><tr><td>1) 일주일 총 근무 일 수</td><td>일주일에 총 _____일 일함</td></tr><tr><td>2) 하루 평균 근무시간</td><td>하루에 평균 _____시간 일함</td></tr></table></td></tr>
</table>

* 출처: 연구진 작성.

월평균 소득도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 모두 응답하도록 했고, 근로소득과 사적이전소득으로 구분하여 응답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했다. 지난 2023년은 유지조사였던 까닭에 구체적인 지침 없이 근로소득과 용돈으로 구분해 월평균 수입을 물어보았으나, 본조사로 추진되는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용돈을 사적이전소득으로 변경하고 보다 상세한 지침을 추가하였다.

표 II-27. 월평균 소득(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B-7 ☞ G-TAPI ▫ 0 응답 불가. 1,000만원 이상 응답한 경우, 재확인 메시지 출현 ▫ 단, B-2에서 ⑤ 무급가족종사자 응답자는 0 응답 가능 귀하가 현재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 포함)의 **월평균 총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 직장에 다니는 분은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자영업자의 경우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월평균 _____만원
수정문항	B8 현재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 0으로 작성) ※ 직장에 다니는 분은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자영업자의 경우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순수익이란 매출액에서 총비용(재료비와 인건비, 세금, 영업비용 등의 전반적인 운영비, 단, 본인의 인건비는 제외하지 않음)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사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 외 가족, 친지, 형제자매 등으로부터 용돈, 생활비, 교통비,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받는 현금 또는 현물로, 일시적인 증여나 상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_____만원 사적이전소득 _____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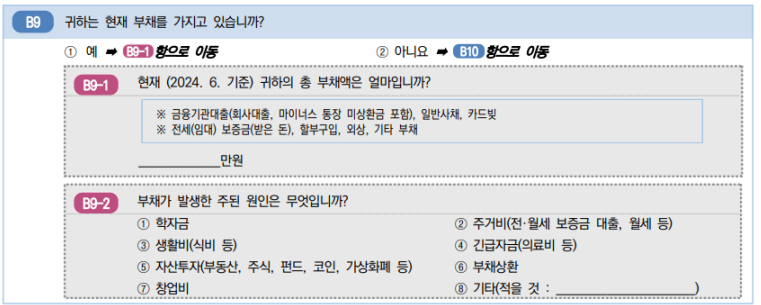
* 출처: 연구진 작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하는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쏠림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부채 여부를 파악하고, 부채가 있다면 부채액이 얼마나 되고 부채가 발생한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이 문항은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관련 문항을 수정·보완해 2023년 유지조사에 포함되었으며, 이번 조사에서도 2023년 유지조사에 포함했던 문항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표 II-28. 부채 유무(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문35) 귀하는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학자금 대출 포함)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문38으로 이동 문35-1) 은행이나 제2금융권, 대부업체 또는 개인에게 채무가 발생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만 선택) ① 학자금 마련 ② 주거비 마련(전·월세자금 대출 등) ③ 생활비 마련(식비, 의료비 등) ④ 창업 자금 마련 ⑤ 기타(적을 것 : _____)

신규문항



* 출처: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췌 및 수정 (23년 유지조사 진행)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만족 수준을 이해하기 위해 2022년 조사에서는 일자리와 관련한 총 9개 영역으로 구분해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번 조사에서는 타조사와의 비교 가능성을 고려해 기존 문항에 일부 하위문항을 추가하였으며, 이를 위해 참고한 조사는 「2023 사회조사」이다.

표 II-29. 업무만족도(수정)

구분 / **문항**

기존문항

B-8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하여 **얼마나 만족하는지** 아래의 항목과 관련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 3) 복리후생 또는 7)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해당없음'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의존계약자, 무급가족종사자 중 해당이 없는 경우만 선택해주세요.

문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해당없음
1) 급여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고용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⑧
4) 근무 내용	①	②	③	④	⑤	
5) 근무시간 및 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6)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7) 직장 내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⑧
8) 개인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9)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참고문항 (2023 사회조사)

60 귀하는 현재 직장의 근로 여건에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세부 항목마다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여 주십시오.

※ 종사상의 지위가 '임금 근로자'인 분만 답하여 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한다	② 약간 만족한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불만족한다	⑤ 매우 불만족한다	⑥ 모르겠다	⑦ 해당 없다
1. 임금(하는 일과 비교하여)							
2. 복리 후생							
3. 근무 환경(안전, 위생 상태 등)							
4. 근로 시간							
5. 하는 일							
6. 장래성							
7. 인사 관리(승진, 배치, 이동)							
8. 인간관계(상하, 동료 간)							
9. 직장내 일 · 가정 양립 문화							
10. 사업체의 직장 내 폭력 (언어폭력, 성희롱 등) 방지 노력							
11. 직장 내 교육 훈련의 기회							
12. 전반적인 일자리 만족도							

수정문항

B10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과 관련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말씀해 주세요.
※ 3) 복리후생 또는 8)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해당없음'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B4-1의 ② 근로계약 이외의 경우만 선택가능합니다.

문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 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해당없음
1) 급여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고용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⑧
4) 근무 내용	①	②	③	④	⑤	
5) 근무시간 및 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6)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7) 장래성	①	②	③	④	⑤	
8) 직장 내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⑧
9) 직장내 일·가정 양립 문화	①	②	③	④	⑤	
10) 개인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1)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 출처: 통계청(2023). 2023 사회조사

표 II-30. 직무불일치(교육수준/기술수준)(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근로복지연구원, 2022)

문38) 귀하는 현재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의 항목에 대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01	02	03	04	05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교육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 E2c05038001	1	2	3	4	5
②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나의 기술수준과 비교하여 수준이 낮다 E2c05038002	1	2	3	4	5
③ 현재 하고 있는 일에서 배운 지식이나 기능은, 다른 직장에 취업할 때 도움이 될 것이다 E2c05038003	1	2	3	4	5

원문항 (2021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9) 현재 직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내용의 직무 수준은

(9-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9-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낮다	② 유사하다	③ 높다

신규문항

B11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에서 수행하는 직무 수준은 어떠합니까?

문항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유사하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②	③	④	⑤

* 출처: 1)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2022). 2022년 산재보험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2023-12-024). 서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참고하여 문항 구성.

개인의 교육 및 기술 수준과 비교해 수행하는 직무의 수준이 어떤지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일자리와 관련한 다양한 조사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1기 패널 조사도 신규문항으로 직무불일치 정도를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고,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와 「2022 산재보험패널조사」의 내용을 참고해 구성했다.

표 II-31. 전공불일치(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문 53 현 직장(일자리)의 업무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하여 어떻습니까? v＊＊b245 기존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 추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 전혀 맞지 않다 (2) 맞지 않다 (3) 그런대로 맞다 (4) 맞는다 (5) 아주 잘 맞다
신규문항	B12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① 나의 전공과 전혀 맞지 않다 ② 나의 전공과 맞지 않다 ③ 나의 전공과 그런대로 맞다 ④ 나의 전공과 맞는다 ⑤ 나의 전공과 아주 잘 맞다

* 출처: 한국고용정보원(2021). 청년패널 2007 1-14차 조사 통합설문지.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기술 또는 교육 수준 외에 전공과 업무내용의 일치 수준도 직무에 대한 만족을 비롯해 급여 등 여러 측면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도 전공-업무내용 일치도를 묻는 문항을 포함하였으며, 「청년패널조사」의 문항을 활용했다.

표 II-32. 취·창업 준비여부(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C-2-1 귀하는 **취업(아르바이트 제외)**을 위해 다음에 제시된 내용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항 / 예 / 아니오 1)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① ② 2) 공무원시험 등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3)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4) 취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① ② 5)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수정문항	C2-1 귀하는 **취업(아르바이트 제외)**을 위해 다음에 제시된 내용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항 / 예 / 아니요 (1)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① ② (2) 공무원시험 등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3)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4) 취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① ② (5) 일경험(현장실습, 인턴 등)을 쌓고 있다 ① ② (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 출처: 연구진 작성.

노동시장 진입과 이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시기임을 감안해 취·창업 준비와 관련한 내용에 대한 조사를 2022년 조사에 이어서 2024년 조사에서도 실시하고자 했다. 취업을 위한 준비의 최근 경향을 반영하고자 기존 문항에 더해 일경험을 쌓고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하위 문항을 포함한 점이 두 조사 간 차이점이다.

취업 준비를 위한 도움을 주로 어디서 받았고, 도움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정책을 개발하거나 정책적 지원의 전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작업을 할 때 유용한 정보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규문항을 포함하였다.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취업 준비 도움 받은 주체 및 도움 정도 문항을 활용하되, 조사 참여자의 응답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편집하였다.

표 II-33. 취업 준비 도움 받은 주체 및 도움 정도(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문28)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해당되는 곳에 모두 응답) 문28-1)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 항	문28) 도움 받은 경험	문28-1) 도움이 되는 정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6)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① 예 ➡ ② 아니오	①	②	③	④	⑤

➡ **문28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오 인 경우는 문28-4로 이동**

문28-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문28에서 '예' 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 (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 (구체적으로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신규문항

C2-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항	도움 받은 경험		도움이 되는 정도				
	예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년센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C2-2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요 인 경우는 C2-3으로 이동

C2-2-1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내용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 C2-2에서 '예'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 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년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 출처: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발췌 및 수정

표 II-34. 취업 준비 직종(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341-1. 그 직업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가장 하고 싶은 것 한 가지를 적되, 결정된 직업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 주십시오. ▣ _____
신규문항	C2-3 귀하가 준비하고 있는 **취업(아르바이트 제외)**은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 취업 희망직업이기 때문에 응답하기에 막연할 수 있지만, 직업세분류 단위까지 분류될 수 있도록 상세히 응답합니다. *보기) 직업명 : 교사 일의 내용 : 초등학생 대상으로 지도하는 일* 직업명 _____ 직무내용 _____ ***C1 에서 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응답자는 ➡ C4 항으로 이동*** ***C1 에서 ③ 둘 다 준비하고 있다 응답자는 ➡ C3-1 항으로 이동***

* 출처: 유한구 외(201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췌 및 수정

취업 준비 직종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은 지난 2022년 1기 패널 조사 당시 조사 참여자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2024년 1기 패널 조사에도 동일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포함하였는데, 보다 정확한 분류를 위해 직업명과 직무내용을 구분해서 작성하도록 문항을 일부 변경했다.

표 II-35. 창업 준비 활동(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C-3-1 귀하는 **창업**을 위해 다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항	예	아니오
1)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①	②
2) 창업교육을 받고 있다	①	②
3)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4) 창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①	②
5)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수정문항

C3-1 귀하는 **창업**을 위해 다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항	예	아니요
(1)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①	②
(2) 창업교육을 받고 있다	①	②
(3)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4) 창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①	②
(5) 창업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	①	②
(6)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 출처: 연구진 작성.

창업 준비 활동 내용에 대한 문항은 2022년 조사틀을 기본으로 하였다. 다만, 기존 문항에는 기술을 배우거나 교육을 받는 내용 외 창업 자금을 모으는 준비 활동이 없어 하위 문항으로 추가해 조사했다.

표 II-36. 창업 준비 업종(오픈문항)(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C-3-4 귀하가 준비하고 있는 **창업**은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_____

수정문항

C3-3 귀하가 준비하고 있는 **창업**은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 취업 희망 창업분야이기 때문에 응답하기에 막연할 수 있지만, 직업세분류 단위까지 분류될 수 있도록 상세히 응답합니다.
보기) 사업체명 : 영어학원 일의 내용 :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침

사업체명 _____

직무내용 _____

* 출처: 연구진 작성.

준비하고 있는 창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사업체명과 직무내용으로 구분해 작성하도록 했다. 이는 2022년 조사 문항을 개선한 형태로 작성이 용이하도록 예시를 함께 제시하였다.

표 II-37. 창업 준비 이유(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자영업(창업) 선택이유 36 자영업(창업)을 하려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1 자영업(창업)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2 직장에 얽매이기 싫어서(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어서) 3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어려워서 4 연령에 구애받지 않아서 5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 6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7 직업적 특성에 의해서(개인과외 등) 8 기타( )
신규문항	C3-4 귀하가 창업을 준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창업(자영업)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② 직장에 얽매이기 싫어서(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어서) ③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어려워서 ④ 연령에 구애받지 않아서 ⑤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 ⑥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⑦ 직업 특성에 의해서(개인과외, 공인중개사 등) ⑧ 가족·친인척 등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을 수 있어서 ⑨ 내 전공이나 기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⑩ 기타(적을 것 : _____)

* 출처: 통계청(2023). 2022 개정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일자리인식실태조사. 세종: 통계청. 발췌 및 수정

창업 의도와 분야 등을 파악하는 것을 넘어서, 이번 조사에서는 창업을 준비하는 이유를 묻고자 「2022 일자리인식실태조사」의 관련 문항을 참고해 신규문항으로 추가했다. 이를 바탕으로 다문화배경을 가진 집단과 타집단과의 창업 준비에 대한 주된 이유를 비교해볼 수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표 II-38. 교육훈련 제공기관(수정)

구분	문항
기존문항	C-4-3 해당 교육훈련을 제공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 교육훈련을 받은 장소가 아닌 해당 교육훈련을 기획·준비한 기관을 응답해 주십시오. 교육훈련 1 ☐ 교육훈련 2 ☐ ① 공공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기능대학 등) ② 민간훈련기관(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시설 등)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교 포함) ④ 사설학원 ⑤ 통신교육기관(방송통신대학교 제외, 인터넷, 전화, 우편, TV 등) ⑥ 잘 모르겠음 ⑦ 기타(적어주세요: _____)
수정문항	C4-3 해당 교육훈련을 제공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 교육훈련을 받은 장소가 아닌 해당 교육훈련을 기획·준비한 기관을 응답해 주십시오. 교육훈련1 ☐ 교육훈련2 ☐ ① 공공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기능대학 등) ② 민간훈련기관(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시설 등)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수업제외) ④ 사설학원 ⑤ 통신교육기관(방송통신대학교 제외, 인터넷, 전화, 우편, TV 등) ⑥ 잘 모르겠음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출처: 연구진 작성(교육훈련기관 유형: 윤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교육훈련 경험과 관련하여 2022년과 2024년 모두 경험 여부와 훈련 내용, 교육제공기관을 묻고 있다. 대부분의 문항은 두 번의 조사에서 동일하게 활용되었다. 다만, 교육훈련을 제공한 기관의 경우 응답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지침을 추가하고, 보기 항목의 일부에 예시를 추가하였다.

표 II-39. 구직 활동 여부(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문57) 귀하는 지난 4주(2021년 5월 4일~5월 31일) 내에 직장(일자리)을 구해 보았습니까? (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① 직장을 구해보았고,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 문61로 이동 ② 직장을 구해보았지만, 지난주에 직장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다 ➡ 문58로 이동 ③ 직장을 구해보지 않았다 ➡ 문59로 이동
원문항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29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1. 구해 보았음 2. 구해 보지 않았음 ➡ (33 번으로) [※ '취업예정자(1개월 이내)'는 '구해 보았음'에 해당함] 33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1. 원하였음 2. 원하지 않았음 ➡ (37 번으로) 35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2.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3. 근처(주변)에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4. 교육, 기술, 경험이 부족해서 5. 나이가 너무 어리거나 많다고 고용주가 생각할 것 같아서 6.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 7. 육아 8. 가사 10. 심신장애 9. 통학 11. 기타( )
원문항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E15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 ① 구해 보았음 ➡ E15-1 항으로 이동 ② 구해 보지 않았음 ➡ E16 항으로 이동 E15-1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 E15-2 항으로 이동 ② 없었음 ➡ E17 항으로 이동 E15-2 직장(일)을 구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_____ 개월 ➡ 응답 후 E18 항으로 이동

신규문항	

* 출처: 1)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 통계청(2023).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3)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 문항을 종합하여 구성

이번 조사는 지난 1주 간 일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구직활동에 관한 문항에 답하도록 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및 경제활동과 관련한 조사인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 청년삶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설문을 구성했다. 각각의 조사는 특성에 따라 문항의 구성이나 선택지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를 종합해 이번 조사에서는 지난 4주 간 직장(일)을 구해보았는지 여부, 일 시작 가능 여부, 구직활동 기간, 직장(일)을 원했는지, 그리고 직장(일)을 원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였다.

표 II-40. 현재 생활(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2023 경제활동 인구조사)	37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1. 육아 2. 가사 3. 정규교육기관 통학 4. 입시학원 통학 5. 취업을 위한 학원 · 기관 통학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6. 취업준비 7. 진학준비 8. 연로 9. 심신장애 10. 군입대 대기 11. 쉬었음 12. 기타( ) ➡ (38 번으로)
원문항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E17 (평소활동상태)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셨습니까? ① 육아 ② 가사 ③ 정규교육기관 통학 ④ 입시학원 통학 ⑤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 (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⑥ 취업 준비 (학원이나 기관 통학하지 않음) ⑦ 진학준비(학원이나 기관 통학하지 않음) ⑧ 질병 등에 따른 요양 ⑨ 군입대 대기 ⑩ 쉬었음 ⑪ 기타( )
신규문항	D2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① 육아 ② 가사 ③ 정규교육기관 통학 ④ 입시학원 통학 ⑤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⑥ 취업 준비(학원이나 기관 통학하지 않음) ⑦ 진학준비(학원이나 기관 통학하지 않음) ⑧ 신체적·심리적 장애에 따른 활동 제약 ⑨ 군입대 대기 ⑩ 쉬었음 ➡ D3 ***항으로 이동*** ⑪ 기타(적을 것 : _____)

* 출처: 1)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통계청, 2023)
2)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관련 문항을 수정 보완

구직 활동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에 따라 직장(일)을 구해보았으나 직장(일)이 주어졌더라도 일을 시작할 수 없었던 사례와 직장(일)을 구해보지 않았고, 나아가 직장(일)을 원하지도 않았던 사례의 경우 지난주 주된 활동에 대해 추가로 조사하였다. 이 문항의 하위 항목 역시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와 「2024 청년삶실태조사」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표 II-41. (지난주 주로 한 일이 쉬었음인 경우) 쉬었던 이유(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5-3. 귀하가 지난주에 쉬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문 항 / 예 / 아니오 (1) 취업을 위해 노력중이나, 원하는 일자리에 계속 취업이 되지 않아서 ① ② (2) 이전에는 일을 하였으나 소진(번아웃) 등으로 잠시 쉬기 위해서 ① ② (3) 직장 휴·폐업, 고용계약 만료 등에 따른 일시적 휴식(구직 예정) ① ② (4) 질병이나 건강상 이유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① ② (5)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 등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① ② (6)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① ② (7)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신규문항	D3 귀하가 지난주에 쉬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취업을 위해 노력중이나, 원하는 일자리에 계속 취업이 되지 않아서 ② 이전에는 일을 하였으나 소진(번아웃) 등으로 잠시 쉬기 위해서 ③ 직장 휴·폐업, 고용계약 만료 등에 따른 일시적 휴식(구직 예정) ④ 질병이나 건강상 이유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⑤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 등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⑥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 출처: 유민상, 김기헌, 신동훈(2023). 청년 쉬었음 심층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에서 실시한 조사문항을 수정보완

최근 특정한 일 없이 쉬고 있는 청년층이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문항을 설문에 포함하였다. 지난주 주로 한 일이 '쉬었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지난 2023년 유민상 외(2023)의 연구에서 조사한 내용을 참고해 문항을 구성하였다.

표 II-42. 건강 상태(신규)

구분	문항
기존문항	E-4 귀하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①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②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③ 건강한 편이다 ④ 매우 건강하다
신규문항	E3 귀하는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 건강한 편이다 / 매우 건강하다 (1) 신체적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2) 정신적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 출처: 연구진 작성

건강상태에 대해서 기존에는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 자신의 건강상태가 어떤지”를 묻는 방식이었다. 이와 비교해 이번 조사에서는 기존 조사의 척도는 유지하되 신체건강과 정신건강 상태를 별도로 구분해 질문하였다.

표 II-43.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신규)

구분: 원문항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

문9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가족, 친척, 친구, 이웃, 직장 동료)이 있으십니까?

문 항		없다	있다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①	②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4)	몸이 아파서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5)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①	②
(6)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①	②
(7)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①	②

원문항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F1 다음 귀하가 도움받을 수 있는 집단과 도움받고 싶은 집단은 어디입니까? 두 집단으로 나누어서 응답해 주십시오.

귀하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받고 싶은 집단(희망)**이 있겠지만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집단(가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두 집단을 나누어서 F1-1 과 F1-2 모두 응답**해 주세요

구분	집단	F1-1 도움 가능 (복수 응답)	F1-2 도움 희망 (1개만 응답)
1)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① 가족(친척)	①	①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②	②
	③ 공공 기관(주민센터, 정부 등)	③	③
	④ 민간 기관(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④	④
	⑤ 어떤 사람/기관도 도움받을 데가 없음	⑤	⑤

신규문항

E4 귀하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상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문 항	없다	있다(복수 응답)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물어볼 수 있는 사람	◎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3) 몸이 아파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4)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갑자기 큰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5)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6)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 출처: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및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관련 문항 수정보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변 사람이 있는지는 사회적 관계망과 사회적 자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지난 2022년에 실시된 1기 패널조사의 경우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유무를 먼저 묻고, '예'라고 응답한 사례에 대해 구체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까닭에 이번 조사에서는 여러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 제시된 유형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문항을 새롭게 구성했다.

표 II-44. 생활만족도(신규)

기존문항

E-6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 중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해당 없음
1) 가족과의 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내가 사는 집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친구들과의 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내가 다니는 학교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⑨⑨
6) 나의 외모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건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나의 건강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나의 미래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나의 자유 시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우리 동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생활에서의 안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신규문항

E5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 중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보통	.....	매우 만족한다
(1) 가족 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친구 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교육수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생활수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생활에서의 안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나의 미래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나의 건강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나의 외모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우리 동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시간적 여유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전반적인 나의 삶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어제의 행복 정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 출처: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헌,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2024년 추가 문항의 경우 2023년 유지조사의 별도 문항 통합

삶의 여러 영역에 대한 만족도는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설문에 포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기존 문항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고 삶 전반에 대한 만족과 어제의 행복 정도를 묻는 문항을 추가한 것이 차이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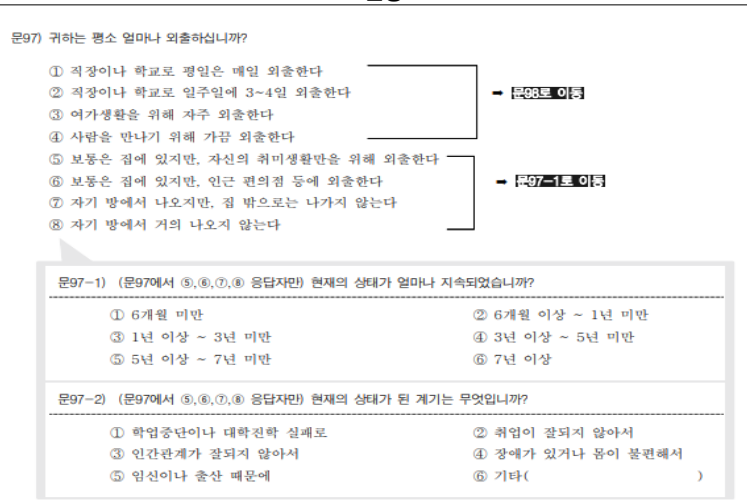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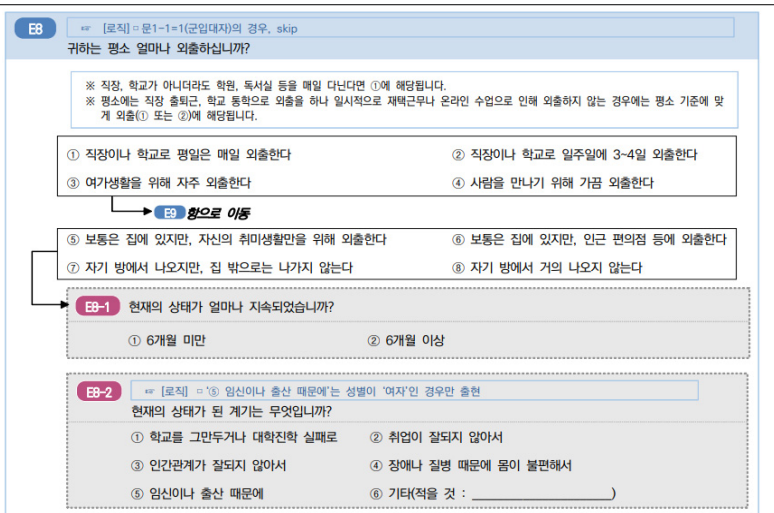
표 II-45. 여가활동 우선순위 및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신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원문항</td><td>
여가 활용
41 귀하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 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주 중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주말(휴일 포함) : 1순위 ☐ 2순위 ☐ 3순위 ☐
1. 동영상 콘텐츠 시청[텔레비전, 유선방송, 아이피티브이(IPTV), 유튜브, 넷플릭스 등]
2.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
3. 문화 예술 활동(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촬영 등)
4. 스포츠 경기 관람
5. 스포츠 활동
6.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
7.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검색 등
8. 취미, 자기 개발 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 취득 공부 등)
9. 휴식(수면, 사우나, 산책 등)
10. 사회 활동(봉사 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
11. 기타( )
41-1 귀하는 주로 누구와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
[주중과 주말(휴일 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주중 : ☐ 주말(휴일 포함) : ☐
1. 가족
2. 친구(연인 포함)
3.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4. 혼자서
5. 직장 동료
6. 기타( )
</td></tr>
<tr><td>신규문항</td><td>
E6 귀하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주중과 주말(휴일 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주 중 : 1순위 ☐ 2순위 ☐ 3순위 ☐
주말(휴일 포함) : 1순위 ☐ 2순위 ☐ 3순위 ☐
①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OTT(넷플릭스, 티빙 등), 유튜브 등] ②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
③ 문화 예술 활동(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④ 스포츠 경기 관람(경기장 방문, 중계방송 시청 등)
⑤ 스포츠 활동 ⑥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
⑦ 게임(PC, 스마트폰 등) ⑧ 취미, 자기개발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취득 공부 등)
⑨ 휴식(수면, 사우나, 산책 등) ⑩ 사회활동(봉사 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
⑪ 기타(적을 것 : _____)
E7 귀하는 주로 누구와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주중과 주말(휴일 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주중 ☐ 주말(휴일 포함) ☐
① 가족 ② 친구(연인 포함)
③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④ 혼자서
⑤ 직장 동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td></tr>
</table>

* 출처: 통계청(2023). 2023 사회조사

다문화청소년이 성인이행기에 어떠한 여가활동을 주로 하고, 여가활동을 누구와 하는지 조사하는 문항은 「2023 사회조사」의 동일한 문항을 활용했다. 추후 조사결과를 유사한 연령집단과 비교함으로써 여가시간 활용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계 양상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표 II-46. (외출 정도가 많지 않은 경우) 현 상태가 된 계기(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신규문항	

* 출처: 2023년 유지조사 동일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사회적 고립과 은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립되어 있거나 고립 위기 상태에 있는 집단의 규모에 대한 추정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취약성이 높을 수 있음을 고려해 이번 조사에서도 관련한 문항을 설문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물리적으로 외부와 얼마만큼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식과 다른 사람들로부터 심리·정서적으로 얼마만큼 고립되어 있는지 묻는 방식을 모두 활용했다. 두 가지 형태의 문항 모두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에서 발췌하고 수정해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물리적 단절을 측정하는 문항은 외출 수준을 묻고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추가적인 질문을 통해 그러한 상태가 된 기간과 계기를 조사한다. 상태의 지속 기간에 대해서 원문항의 경우 7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는 6개월 단위와 2년 단위 등 여러 선택지를 제시하였으나, 여기서는 응답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 미만과 6개월 이상으로만 구분해 제시했다.

심리·정서적 고립상태를 묻는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원문항은 UCLA Loneliness Scale을 국내에서 타당화한 것을 해당 연구진이 일부 수정하고 재구성한 것으로,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문항을 활용할 경우 보다 세밀한 측정이 가능할 수 있으나 응답의 피로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고립감을 측정하기 위한 대안적인 방안으로 다수의 문항을 4개로 간소화해 활용하기도 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간소화한 버전을 설문지에 포함했다. 또한, 직접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고 응답한 사례에 대해서는 그러한 감정을 느낀 기간을 추가로 물었다.

표 II-47. 사회적 고립(신규)

구분

문항

원문항

문100)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시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주변 사람들과 잘 통한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친구들 모임에 속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주위사람들과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7) 나는 더 이상 아무하고도 가깝지 않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스스로 적극적이고 호의적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사람들과 가깝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소외감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11) 나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미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2) 나는 나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3) 나는 내가 원할 때에 함께 있어줄 사람을 찾을 수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4) 나는 나를 정말 이해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5) 나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함께 있지 않고 그저 주위에 있는 것이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6) 나는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17) 나는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18)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신규문항

E9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E9 -(4)에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 E9-1로 이동, 그 외는 ➡ E10로 이동

E9-1 귀하께서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낀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고립 :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 출처: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표 II-48. 소속감(신규)

구분

원문항

문105-1) (문105에서 ② 그렇다 응답자만) 다음 중 귀하는 어느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십니까?
소속감을 느끼시는 집단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① 나의 가족
②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③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④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 (환경활동, 구호활동, 정치활동 모임 등)
⑤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 (직업 기반 협회 또는 조합 등)
⑥ 온라인 커뮤니티(포털 사이트의 커뮤니티, 온라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등)
⑦ 기타(적을 것: _____)

신규문항

E10 귀하는 다음의 집단에 대해 소속되어 있다고 느낍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가족	①	②	③	④	⑤	⑧
(2)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①	②	③	④	⑤	
(4)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환경활동, 구호활동, 정치활동 모임 등)	①	②	③	④	⑤	⑧
(5)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직업 기반 협회 또는 조합 등)	①	②	③	④	⑤	⑧
(6)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온라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⑧
(7) 한국사회	①	②	③	④	⑤	

* 출처: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정·보완

소속감은 스스로 어느 집단에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감정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이 어느 집단에 얼마만큼의 소속감을 느끼는지 파악하는 것은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소속될 기회가 늘어나는 성인 이행기의 청년층에게 소속감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사회·심리적 상태를 대변하는 중요한 지표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의 관련 문항을 참고하여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몇 개의 집단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소속되어 있다고 느끼는지 묻는 방식으로 문항을 구성해 소속감을 조사하였다.

표 Ⅱ-49. 상황별 차별경험 유무 및 차별 받은 이유(신규)

구분	문항
신규문항	E11 귀하는 다음의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문 항	차별 경험 있다	차별 경험 없다	차별 받은 이유(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
(1)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구직과정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2)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3) 길거리나 동네, 식당, 마트 등 일상생활 중에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4)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5) ☞ [로직] 대학(교),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인 경우만 응답 강의시간이나 과제, 팀플 등을 할 때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6) ☞ [로직] B1에서 ① 또는 ②로 선택한 경우만 응답 직장 또는 일터에서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 출처: 연구진 작성.

기존 조사에서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과 관련한 문항은 우선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지 묻는 문항을 통해 차별경험 유무를 조사한 뒤, 이어서 차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차별받은 대상과 무시 정도를 응답한 후,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응답하는 흐름으로 조사되었다. 다만, 차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례 수가 극히 적어 뒤이은 문항의 응답 값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웠다. 또한,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연령대가 올라감에 따라 차별을 경험하는 이유와 상황이 다양해짐을 고려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에서는 차별경험에 대해 조사하는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일상의 여러 상황에서 차별경험 유무를 묻고, 그 이유에 대해 모두 고르도록 하는 방식이며, 이유 중 하나로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을 포함해 다문화배경으로 인한 차별도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표 II-50. 정치적 효능감 및 정치적 대표체제에 대한 인식(신규)

<table>
<tr><th>구분</th><th>문항</th></tr>
<tr><td>원문항
(2021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td><td>
문108) 다음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able>
<tr><th>문 항</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이다</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r><td>원문항
(정세정 외, 2021)</td><td>
※다음은 정치, 사회 참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B1. 아래 항목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able>
<tr><th></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이다</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주는 정당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주는 단체(노조, 직능단체 등)가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r><td>신규문항</td><td>
F4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table>
<tr><th>문항</th><th>전혀 그렇지 않다</th><th>그렇지 않다</th><th>보통이다</th><th>그렇다</th><th>매우 그렇다</th></tr>
<tr><td>(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4)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r><td>(5)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단체가 있다</td><td>①</td><td>②</td><td>③</td><td>④</td><td>⑤</td></tr>
</table>
</td></tr>
</table>

* 출처: 김기헌, 배정희(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및 정세정 외(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발췌

이번 조사가 성인 이행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정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필요성이 커졌다. 선행연구 및 조사 등에서 활용되었던 문항을 활용해 정치적 효능감과 정치적 대표체제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자 했다.

표 II-51.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이용 경험(신규)

구분

원문항

문111) 다음의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중 본인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서비스를 모두 선택 해 주십시오.

문항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1) 심리 ·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인간관계 고민 등)	①	②
(2) 복지 · 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생계급여, 청년수당 등)	①	②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①	②
(4) 취업 · 진로 상담 서비스 (취업준비, 일자리 알선 등)	①	②
(5)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동아리 및 소모임 구성 등)	①	②
(6) 직업 · 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①	②
(7) 건강검진 서비스 (신체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등)	①	②
(8) 주거지원 서비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제공)	①	②
(9) 문화 · 취미 지원 서비스 (독서, 영화, 취미 지원)	①	②
(10) 기타 (자세히 적을 것 :)	①	②

신규문항

H4 다음의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참여 경험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참여한적 있다	참여한적 없다
(1)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불안, 우울, 고민 등)	①	②
(2)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생계급여, 청년수당 등)	①	②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①	②
(4) 취업·진로 지원 서비스 (구직의욕 증진, 진로탐색, 취업준비, 일자리 소개 등)	①	②
(5)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동아리 및 소모임 구성 등)	①	②
(6)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①	②
(7) 건강검진 서비스 (신체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등)	①	②
(8) 주거지원 서비스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제공)	①	②
(9)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 (독서, 영화, 취미 지원)	①	②
(10) 청년공간 제공 서비스 (청년센터, 회의실, 카페 등)	①	②

* 출처: 김기헌, 배정희(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수정·보완

이번 조사에 참여하는 1기 패널의 연령대는 24세에 해당하여 중앙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청년정책의 직접적인 대상자가 되므로, 청년정책 참여 경험 유무에 대한 문항을 포함했다. 지난 2022년 조사에서는 그 당시 추진되던 구체적인 청년정책을 제시하고 각각에 대한 인지 및 이용 여부, 도움 수준 등을 물었으나, 정책의 변화로 인해 문항 변경이 불가피하고 향후에도 비슷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이번 조사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명을 제시하기보다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를 몇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이에 대한 참여 경험 유무를 묻는 방식으로 개선 및 간소화했다.

제3장 패널조사 및 관리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4. 원패널 관리
5. 정기통계품질진단

3 패널조사 및 관리[6]

1. 1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7]

1) 표본설계

(1) 모집단

1기 패널의 모집단은 2011년 당시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이들의 어머니로 해당 학년부터 조사를 실시한 것은 조사 대상자가 개인 발달 등 문항 내용을 이해하고 조사에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당시 패널의 표본 설계 및 구축을 위하여 16개 시·도교육청에 모집단 현황을 요청하였으나 4개 시·도교육청은 2011년 현황자료가 없어서 2010년 자료로 대체하였다. 이를 통해 파악된 전국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의 모집단 현황은 〈표 Ⅲ-1〉과 같다(양계민 외, 2011: 118).

6) 3장은 이용해 전문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7)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양계민 외, 2011: 111-121)의 패널 표본 부분을 요약, 발췌 및 수정함.

표 Ⅲ-1. 1기 패널 지역별 모집단 현황

(단위: 개교, 명(%))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264 (10.4)	510 (11.5)	광주	75 (3.0)	110 (2.5)
인천	119 (4.7)	228 (5.1)	전북	175 (6.9)	318 (7.1)
경기	514 (20.3)	1,006 (22.6)	전남	228 (9.0)	475 (10.7)
부산	114 (4.5)	185 (4.2)	대전	49 (1.9)	64 (1.4)
울산	39 (1.5)	59 (1.3)	충북	118 (4.7)	196 (4.4)
경남	226 (8.9)	351 (7.9)	충남	175 (6.9)	279 (6.3)
대구	80 (3.2)	107 (2.4)	강원	150 (5.9)	234 (5.3)
경북	173 (6.8)	281 (6.3)	제주	38 (1.5)	49 (1.1)
합계				2,537 (100.0)	4,452 (100.0)

* 출처: 양계민 외(2020: 72) 표 Ⅳ-1 발췌

(2) 표본추출

1기 패널의 목표 표본 수는 약 1,600가구였으며, 이는 모집단 기준 약 35.9%에 해당한다. 조사 단위는 다문화청소년이 있는 가구이지만, 모집단에 대한 세부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각 지역의 학교 단위로 층화표집을 실시하였다. 먼저, 16개 시·도를 층화변수로 분류하고 각 시·도별 학생수를 기준으로 목표 표본수인 1,600가구를 구축할 수 있도록 확률비례통계추출법으로 각 학교를 선정하였다. 각 지역별 표본 할당 현황은 〈표 Ⅲ-2〉와 같다.

표본으로 선정된 학교인 경우, 조사 원칙에 따라 재학 중인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전수조사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가 불가능하면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표본을 대체하였다. 다만, 최초 구축 이후 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는 이탈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다른 표본으로 대체하지 않았다(양계민, 강경균, 2017: 73).

표 Ⅲ-2. 1기 패널 지역별 표본 할당 현황

(단위: 개교, 명(%))

지역	학교	학생	지역	학교	학생
서울	100 (10.0)	173 (10.8)	광주	29 (2.9)	39 (2.4)
인천	47 (4.7)	79 (4.9)	전북	67 (6.7)	108 (6.8)
경기	196 (19.6)	362 (22.6)	전남	87 (8.7)	163 (10.2)
부산	56 (5.6)	85 (5.3)	대전	19 (1.9)	24 (1.5)
울산	21 (2.1)	28 (1.8)	충북	45 (4.5)	67 (4.2)
경남	86 (8.6)	125 (7.8)	충남	79 (7.9)	113 (7.1)
대구	31 (3.1)	38 (2.4)	강원	57 (5.7)	83 (5.2)
경북	66 (6.6)	97 (6.1)	제주	14 (1.4)	16 (1.0)
합계				1,000 (100.0)	1,600 (100.0)

* 출처: 양계민 외(2020: 73) 표 Ⅳ-2 발췌

(3) 표본구축 및 패널 유지율

1기 패널은 2011년 목표 표본 수를 초과하여 1,625가구로 구축되었고, 한 가구 내 2명의 다문화청소년이 선정된 사례도 있기에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총 인원수는 총 1,635명이다. 이후로는 패널조사의 특성 상 생애주기에 따라 대상자 변동이 있었다. 지난 2020년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기로 학부모 문항을 대폭 축소하였고, 2021년 유지조사부터는 다문화청소년만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유지조사로 진행된 2023년 조사에 참여한 1기 패널 청소년은 총 942명이며, 가구 수 기준으로는 935가구로 원패널 구축 대비 약 57.5%를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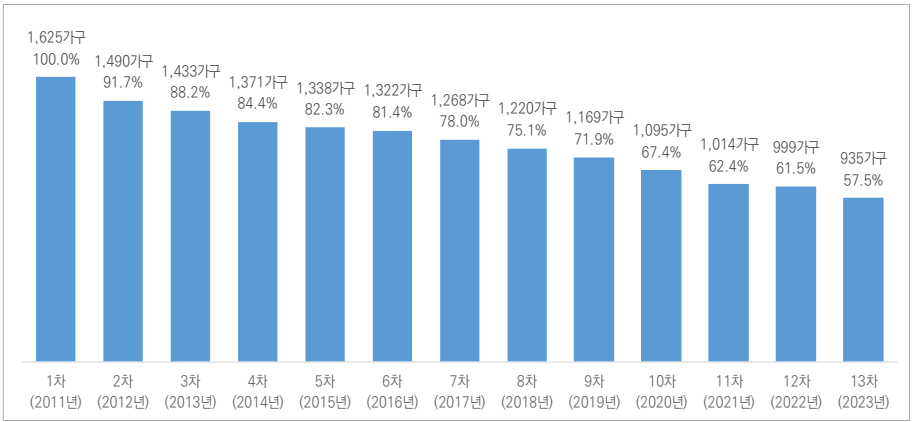


그림 Ⅲ-1. 1기 패널 패널 유지율

패널구축 이후부터 2023년(13차)까지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의 성별 현황은 〈표 Ⅲ-3〉과 같다. 대부분 여자 청소년(50%~52%)이 남자 청소년(47%~49%)보다 참여율이 높은 편이다. 다만, 최초 구축 시 성비와 두드러진 차이는 없는 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Ⅲ-3. 1기 패널 원패널 대상자 성별 분포(2011년~2023년)

(단위: 명(%))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남자	805(49.2)	740(49.3)	706(48.9)	675(48.9)	662(49.1)	655(49.2)
여자	830(50.8)	760(50.7)	737(51.1)	706(51.1)	686(50.9)	677(50.8)
합계	1,635(100.0)	1,500(100.0)	1,443(100.0)	1,381(100.0)	1,348(100.0)	1,332(100.0)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남자	624(48.8)	601(48.9)	575(48.8)	530(48.1)	489(47.8)	481(47.8)	464(49.3)
여자	653(51.2)	628(51.1)	603(51.2)	573(51.9)	533(52.2)	526(52.2)	478(50.7)
합계	1,277(100.0)	1,229(100.0)	1,178(100.0)	1,103(100.0)	1,022(100.0)	1,007(100.0)	942(100.0)

* 출처: 신동훈 외(2023: 60) 표 Ⅲ-3 수정 보완

1기 패널을 구축한 2011년 대비 2023년(13차)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는 〈표 Ⅲ-4〉와 같다. 절대적인 참여자 수가 작았던 지역에서의 참여자 이탈이 일부 더 있는 것으로 보여 추후 적용할 보다 적극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표 Ⅲ-4. 1기 패널 참여 지역별 분포(2011년, 2023년)

(단위: 명(%))

시·도	2011년	2023년	시·도	2011년	2023년
서울	182 (11.1)	95 (10.1)	강원	90 (5.5)	58 (6.2)
부산	74 (4.5)	42 (4.5)	충북	75 (4.6)	44 (4.7)
대구	42 (2.6)	21 (2.2)	충남	117 (7.2)	68 (7.2)
인천	68 (4.2)	44 (4.7)	전북	108 (6.6)	70 (7.4)
광주	42 (2.6)	24 (2.5)	전남	160 (9.8)	120 (12.7)
대전	25 (1.5)	6 (0.6)	경북	102 (6.2)	62 (6.6)
울산	31 (1.9)	14 (1.5)	경남	120 (7.3)	73 (7.7)
경기	384 (23.5)	198 (21.0)	제주	15 (0.9)	3 (0.3)
합계				1,635 (100.0)	942 (100.0)

* 출처: 신동훈 외(2023: 61) 표 Ⅲ-4 수정 보완

2) 조사내용

2011년에 구축한 1기 패널은 이번 2024년 14차시 추적조사로 실시하였다. 초등학교 4학년을 원패널로 구축한 1차부터 9차까지는 대상자의 생애과정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들로 조사를 진행하였고, 고등학교 졸업 시기인 2020년(10차)에는 다양한 진로상황을 고려한 문항들로 구성하였다. 이외 2021년(11차)과 2023년(13차)은 여러 여건 상 유지조사로 진행한 반면, 2022년(12차)에는 유지조사에서 다시 본조사로 전환하여 2020년 조사영역들을 기반으로 학교 졸업 이후의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현황들을 살펴보았다.

올해 2024년(14차) 조사에서는 신규문항으로 경제적 독립 여부와 해외이주 고려 여부, 사회적 고립, 여가활동 문항 등을 추가하였고, 그 외에도 연구진 및 전문가 자문 결과를 바탕으로 문항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활용하거나 삭제하였다. 〈표 Ⅲ-5〉는 최근 4년 간 1기 패널 청소년의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 현황이다. 보다 상세한 신규문항에 대한 설명은 본 보고서의 2장에 제시하였다.

표 Ⅲ-5. 1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21~2024년)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군복무 (남자인 경우만)	군복무 여부	연구진 작성	○	○	○	○
	군입대 시기(혹은 입대 예정 시기)	연구진 작성	○	○	○	○
	군 전역 후 계획	연구진 작성	-	○	-	○
	군복무 마친 시기	연구진 작성	-	○	-	○
	군복무 중 차별경험 및 차별가해자	연구진 작성	-	○	-	-
	군복무 중 불쾌한 경험 여부	연구진 작성	-	-	-	○
	군복무 중 다문화 교육 경험	연구진 작성	-	○	-	○
	(교육 받은 경우) 교육 내용	연구진 작성	-	○	-	-
배경변인	다문화청소년 혼인상태	연구진 작성 및 (24) 2024 청년삶실태조사	-	○	-	○
	자녀 유무/(자녀가 있다면) 자녀 수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	○
	향후 자녀 계획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	○
	현재 거주형태(부모님과 동거 여부)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발췌 및 수정	○	○	○	○
	(비동거 시) 경제적 독립여부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발췌 및 수정	-	-	-	○
	해외이주 고려 여부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	○
	해외이주 고려 이유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발췌 및 수정	-	-	-	○
	희망하는 해외이주 지역	연구진 작성	-	-	-	○
	가정 생활비 마련방법 및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	○	-	○
	개인 생활비 마련방법 및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	○	-	○
	가구 월평균 소득수준	연구진 작성(2020년 조사: 학부모 대상)	-	○	-	○
	주관적 경제수준	연구진 작성(2020년 조사: 학부모 대상)	-	○	-	○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여부	연구진 작성	-	○	-	-
	(진학 한 경우) 대학교 학적 상태	연구진 작성	-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진학하지 않은 경우) 진학하지 않은 이유	연구진 작성	-	○	-	-
	(진학하지 않은 경우) 현재 주로 하는 일	연구진 작성	-	○	-	-
	최종학교급 및 졸업여부 확인	연구진 작성	○	-	○	○
	(최종학교급과 졸업여부가 다른 경우) 최종학교급 및 졸업여부 확인	연구진 작성	○	-	○	○
대학진학	(대학 재학 중인 경우) 학교명 확인	연구진 작성	○	-	○	-
	대학명	연구진 작성	○	○	○	○
	전공계열	연구진 작성(전공계열분류: 박근영 외(2019) 발췌)	-	○	-	○
	전공확인	연구진 작성	○	-	○	-
	학부 및 학과(전공)명	연구진 작성	○	○	○	○
	등록금 마련방법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2018) 발췌 및 수정	-	○	-	○
	등록금 마련에 대한 부담정도	연구진 작성	-	○	-	○
	대학생활 만족도 및 적응(대학만족도, 학업적응, 사회적응)	Baker & Siryk(1984)를 이윤정(1999)이 수정 보완한 대학생활적응도검사를 사용한 이민희(2018) 일부 발췌 및 수정	-	○	-	○
	(대학 자퇴한 경우) 대학을 그만 둔 이유	연구진 작성	-	○	-	○
	휴학 사유	연구진 작성	○	-	○	○
대학진학 준비	대학진학 준비 여부	연구진 작성	○	-	○	○
일 경험	일 경험 여부	연구진 작성	○	○	○	○
	하고 있는 일 개수	연구진 작성	-	○	-	-
	최근 한 달 내 수입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 한 경험	연구진 작성	○	○	○	-
	종사상 지위	연구진 작성(2020 종사상 지위 정의: 윤혜준 외(2019) 발췌, 2022 종사상 지위: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통계청, 2021) 활용)	○	○	○	○
	임금근로자 유형	연구진 작성(통계청 한국종사상지위분류 개정(통계청, 2021) 참조)	-	○	-	-
	일을 하게 된 경로	연구진 작성	-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 종류	연구진 작성	○	○	○	-
	특성화고 전공과 일의 관련성	연구진 작성	-	○	-	-
	직장 소재지	연구진 작성	-	○	-	-
	(임금근로자인 경우) 보수 형태	2024 청년삶실태조사	-	-	-	○
	(고정되지 않는 보수 형태) 계약 형태	2024 청년삶실태조사	-	-	-	○
	임금 지급 주체	2024 청년삶실태조사	-	-	-	○
	현재 일자리가 일 경험 해당 여부	2024 청년삶실태조사	-	-	-	○
	평균 근무시간(총 근무일수/하루 평균 근무시간)	연구진 작성	-	○	-	○
	월평균 소득	연구진 작성	-	○	-	○
	월평균 사전이전소득	연구진 작성	-	-	-	○
	부채 유무	연구진 작성	-	-	○	○
	총 부채 금액	연구진 작성	-	-	○	○
	부채 발생의 주된 원인	연구진 작성	-	-	○	○
	업무만족도	김양분 외(2011) 발췌 및 수정	-	○	-	○
	교육수준 대비 직무 수준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및 2022 산재보험패널조사을 참고하여 문항구성	-	-	-	○
	기술수준 대비 직무 수준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및 2022 산재보험패널조사을 참고하여 문항구성	-	-	-	○
	전공 대비 업무수준	청년패널조사	-	-	-	○
	월평균 수입 및 용돈	연구진 작성	-	-	○	-
취업준비 및 교육훈련	취·창업 준비여부	연구진 작성	-	○	-	○
	취업 준비 활동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
	취업 준비 도움 받은 주체 및 도움 정도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발췌 및 수정	-	-	-	○
	(취업 준비 도움 받은 주체가 있는 경우) 취업 준비 도움 내용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발췌 및 수정	-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취업정보 수집 방법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
	취업 준비 직종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
	취업 준비 직종(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
	창업정보 수집 방법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
	창업 준비 업종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
	창업 준비 업종(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
	창업 준비 이유	2022 일자리인식실태조사 발췌 및 수정	-	-	-	○
	창업 준비 활동	유한구 외(2017) 발췌 및 수정	-	○	-	-
	교육훈련 경험	연구진 작성	-	○	-	○
	교육훈련 종류(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
	교육훈련 받은 기간(오픈문항)	연구진 작성	-	○	-	○
	교육훈련 제공기관	연구진 작성(교육훈련기관 유형: 윤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
	교육훈련 받은 목적	연구진 작성	-	○	-	○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 교육훈련 받지 않은 이유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헌,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
	(교육훈련 받지 않은 경우) 향후 교육훈련 받을 계획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헌,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
구직활동	구직활동 경험	연구진 작성	-	○	-	-
	구직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얻지 못한 이유	연구진 작성	-	○	-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	김양분 외(2011) 발췌 및 수정	-	○	-	-
	노동 의지	연구진 작성	-	○	-	-
	현재 생활	연구진 작성	○	○	○	-
	(현재 쉬는 경우) 쉬는 이유	연구진 작성	○	○	○	-
	구직활동 여부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2024 청년삶실태조사 발췌	-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일을 구해본 경우) 일 시작 가능 여부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2024 청년삶실태조사 발췌	-	-	-	○
	(일 시작이 가능했던 경우) 구직활동 기간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2024 청년삶실태조사 발췌	-	-	-	○
	(일을 구하지 않은 경우) 일을 원했는지 여부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2024 청년삶실태조사 발췌	-	-	-	○
	(일을 원했던 경우) 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2024 청년삶실태조사 발췌 및 수정	-	-	-	○
	(일을 시작할 수 없었거나 일을 원하지 않은 경우) 지난주 주로 한일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2024 청년삶실태조사 발췌 및 수정	-	-	-	○
	(지난주 주로 한일이 쉬었음인 경우) 쉬었던 이유	유민상 외(2023) 수정보완	-	-	-	○
심리.사회 적응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발췌	-	○	-	○
	삶의 만족도	김신영 외(2006)을 인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 (김지경 외, 2010)	-	○	-	-
	우울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1984)을 발췌·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	-	○	-	○
	주관적 건강상태	연구진 작성	-	○	-	-
	(신체적/정신적) 건강상태	백혜정 외(2017)	-	-	○	○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유무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2024년 문항부터)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및 2024 청년삶실태조사 관련 문항 수정보완	-	○	-	○
	(있을 경우) 힘들거나 어려울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2024년 문항부터)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및 2024 청년삶실태조사 관련 문항 수정보완	-	○	-	○
	생활만족도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헌,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
	여가활동	2023 사회조사	-	-	-	○
	주로 여가활동을 함께 하는 사람	2023 사회조사	-	-	-	○
	외출 정도	유민상 외(2022)	-	-	○	○
	(외출 정도가 많지 않은 경우) 현 상태 지속 기간	유민상 외(2022)	-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외출 정도가 많지 않은 경우) 현 상태가 된 계기	유민상 외(2022)	-	-	○	○
	사회적 고립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	○
	(사회적 고립감 있는 경우) 고립된 감정을 느낀 기간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	-	-	○
	소속감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수정보완	-	-	-	○
	차별경험 유무	최윤정 외(2019) 수정 사용	-	○	-	-
	상황별 차별경험 유무와 차별 받은 이유	연구진 작성	-	-	-	○
	(차별경험이 있을 경우) 차별한 대상 및 차별 후 대응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
	(공공기관에 도움 요청 한 경우) 도움 받은 공공기관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
	(민간기관에 도움 요청 한 경우) 도움 받은 민간기관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
	(도움요청하지 않은 경우)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	한준 외(2019) 수정 사용	-	○	-	-
	학창시절 부당한 대우 경험	연구진 작성	-	○	-	-
	(부당한 경험 있을 경우) 부당한 경험의 시기 및 부당한 대우를 한 사람	연구진 작성	-	○	-	-
	다문화청소년에게 발생 가능한 사회적 불이익 정도	연구진 작성	-	○	-	○
	구직과정에서 다문화배경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 받은 경험	연구진 작성	-	○	-	-
	전반적 만족도	정세정 외(2022)	-	-	○	○
	행복감	정세정 외(2022)	-	-	○	-
	평소 여유시간 활동	연구진 작성	-	-	○	-
	해외 출국 계획 여부 및 시기, 사유	연구진 작성	-	-	○	-
사회적 가치와 태도	사회적 가치	한국사회 인식: 김유빈 외(2019)에서 일부 발췌 한국교육 인식: 김형주, 연보라, 유설희(2019)에서 일부 발췌	-	○	-	○
	한국사회 인식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김기헌, 문호영 외, 2021)를 수정한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양계민, 정윤미 외, 2021) 수정 사용	-	○	-	○
	한국사회의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태도	연구진 작성	-	○	-	○
	정치적 효능감 및 정치적 대표체제에 대한 인식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및 정세정 외(2021) 발췌	-	-	-	○

조사영역	조사내용	출처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한국사회에서 다문화가정 자녀로 성장하는 것에 대한 인식	연구진 작성	-	○	-	-
진로	학업 포부수준	연구진 작성	-	○	-	-
	장래희망 유무	연구진 작성	-	○	-	○
	(장래희망 있는 경우) 장래희망 직업	연구진 작성	-	○	-	○
	직업선택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유한구 외(2016) 발췌 및 수정	-	○	-	○
	진로장벽	김은영(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 중 경제적 어려움, 직업정보부족 발췌	-	○	-	○
정책 및 지원	청년지원정책 인지도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2019) 발췌 및 수정	-	○	-	-
	(인지 한 경우) 청년지원정책 이용 경험	김지경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
	(이용 경험 있는 경우) 청년지원정책 도움 정도	김지경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
	(이용 경험이 없는 경우) 청년지원정책 이용하지 않은 이유	김지경 외(2019) 발췌 및 수정	-	○	-	-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대한 태도	연구진 작성	-	○	-	○
	다문화청소년 지원의 도움 정도	연구진 작성	-	○	-	○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초점	연구진 작성	-	○	-	○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이용 경험	2021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 수정보완	-	-	-	○
	다문화 청년을 위한 지원정책 필요성	연구진 작성	-	○	-	○
	(필요 한 경우) 필요한 지원	연구진 작성	-	○	-	○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방식	연구진 작성	-	○	-	○
	다문화 청년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 장소	연구진 작성	-	○	-	○

2. 2기 패널조사 표본설계 및 조사내용[8)]

1) 표본설계

2기 패널은 1기 패널과 같이 2019년 구축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모집단으로 하였다. 표본추출틀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표본 규모는 약 2,100명이다. 표본 설계는 다문화가정 유형과 17개 시·도를 층화변수로 설정하고, 부모 출신국을 고려하여 이루어졌다. 표본추출 방식은 다문화학생 수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을 사용하여 학교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 내 다문화학생을 전수조사한다는 원칙을 준수하였다.

표 Ⅲ-6. 2기 패널 표본설계

분 류	내 용
모집단 및 표본추출틀	■ 목표 모집단 : 전국 다문화가족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조사 모집단 : 2019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중도입국/외국인 가정의 청소년 및 그들의 어머니 ■ 표본추출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2018년 4월 1일 기준)
목표오차 또는 표본규모	■ 표본규모 : 전국 2,100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 ±2.1%p
표본추출방식 (층화, 특성, 분류지표 포함)	■ 명시적 층화 : 다문화가정 유형(국제결혼가정의 국내출생, 중도입국 자녀, 외국인가정 자녀), 17개 시·도 ■ 내재적 층화 : 부모의 출신국가 ■ 표본추출단위 - 1차(psu) : 학교 → 다문화학생 수 기준 확률비례추출 - 2차(ssu) : 학교 내 다문화학생 → 전수조사
표본배정방식	■ 다문화가족 유형별 : 50명 우선할당 후 나머지는 비례배분 ■ 17개 시·도별 : 비례배분
추정식	■ 표본 가중값을 적용하고, 표본설계에 적합한 모수추정법 적용
주요항목별 공표범위	■ 성별, 다문화가족 유형별, 어머니 출신국가별, 어머니 학력별, 가구소득별, 지역 규모별 ■ 조사된 사례수가 작거나 상대표준오차가 큰 경우(25% 이상)에는 유사 인접층을 통합하여 공표하거나 내부 자료만으로 활용할 것이며, 모수추정 후 공표범위는 통계청과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

* 출처: 양계민 외(2019: 124) 표 Ⅵ-7 발췌

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설계보고서(양계민, 2018: 35-5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19: 120-133),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신동훈 외, 2023: 67-79)를 요약, 발췌 및 수정함.

(1) 모집단

모집단은 2019년 당시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 가정이며,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자료를 표본추출틀로 활용하였다. 해당 교육통계자료는 2018년 4월 1일 기준으로 2019년에 공표되었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 가정과 학교를 모집단으로 삼았다(양계민, 2018: 38). 2기 패널의 모집단 시도별 분포 현황은 〈표 Ⅲ-7〉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Ⅲ-7. 2기 패널 모집단 시도별 분포 현황

(단위: 명, 개교)

구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	학생 수	학교 수(구성비,%)
전국	14,163	4,612	902	645	2,069	729	17,134	4,805(100.0)
서울	1,458	447	169	115	543	162	2,170	485(10.1)
부산	684	237	42	33	34	24	760	246(5.1)
대구	477	175	30	28	47	24	554	182(3.8)
인천	710	202	80	52	144	55	934	214(4.5)
광주	372	124	12	11	44	12	428	128(2.7)
대전	325	108	14	13	16	13	355	115(2.4)
울산	390	98	15	13	32	19	437	99(2.1)
세종	82	30	4	4	4	4	90	31(0.6)
경기	2,903	930	306	191	830	241	4,039	999(20.8)
강원	474	214	12	11	10	9	496	217(4.5)
충북	622	203	27	23	61	24	710	210(4.4)
충남	1,046	341	47	36	101	41	1,194	347(7.2)
전북	888	303	22	19	23	17	933	306(6.4)
전남	1,046	331	27	23	21	13	1,094	339(7.1)
경북	1,158	380	23	20	58	26	1,239	389(8.1)
경남	1,301	404	49	35	73	30	1,423	408(8.5)
제주	227	85	23	18	28	15	278	90(1.9)

* 출처: 신동훈 외(2023: 68) 표 Ⅲ-7 발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원출처)
※ 다문화청소년 유형이 중복된 학교가 있어 전체 학교 수와 유형별 학교 수의 합이 일치하지 않음.

(2) 표본추출

표본 추출 방식은 17개 시·도와 다문화가정 유형을 고려하여 표본을 할당하였다. 먼저 변형비례배분을 적용하여 1차 표본을 배분하고, 다문화가족 유형과 지역 표본 결과를 보완해서 각 셀에 최소 3명 이상씩 표집될 수 있도록 추가 할당하였다. 표본 추출 단위는 학교 기준으로 층화임의추출법을 사용하였다. 표본추출 시 각 층 내에서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가 추출될 수 있도록 확률을 높이기 위해 학생 수를 기준으로 확률비례추출법을 통하여 학교를 선정하였다(양계민, 2018: 47).

표 Ⅲ-8. 2기 패널 지역별 표본 할당 결과

구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배분 결과	표본 추가	최종 결과
전국	1,580	20	1,600	147	53	200	273	27	300	2,000	100	2,100
서울	163	0	163	28	3	31	72	1	73	263	4	267
부산	76	0	76	7	3	10	4	2	6	87	5	92
대구	53	0	53	5	3	8	6	2	8	64	5	69
인천	79	0	79	13	3	16	19	2	21	111	5	116
광주	41	0	41	2	3	5	6	2	8	49	5	54
대전	36	0	36	2	3	5	2	2	4	40	5	45
울산	44	0	44	2	3	5	4	2	6	50	5	55
세종	10	15	25	2	2	4	2	1	3	14	18	32
경기	324	0	324	48	6	54	107	0	107	479	6	485
강원	53	0	53	2	3	5	2	1	3	57	4	61
충북	69	0	69	4	3	7	8	2	10	81	5	86
충남	117	0	117	8	3	11	13	2	15	138	5	143
전북	99	0	99	4	3	7	3	2	5	106	5	111
전남	117	0	117	4	3	7	3	2	5	124	5	129
경북	129	0	129	4	3	7	8	1	9	141	4	145
경남	145	0	145	8	3	11	10	1	11	163	4	167
제주	25	5	30	4	3	7	4	2	6	33	10	43

* 출처: 신동훈 외(2023: 69) 표 Ⅲ-8 발췌

(3) 표본구축 및 패널 유지율[9]

2기 패널의 표본 대상자는 총 2,223가구 내 다문화청소년 2,245명이 최종 선정되었다. 총 가구 수와 청소년 수가 불일치한 이유는 한 가구 내 다문화청소년 2명이 원패널로 선정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시·도 및 다문화가족 유형별 원패널 구축 현황은 〈표 Ⅲ-9〉와 같다. 이처럼 모집단 분포와 각 비율에 따라 표집한 결과로 (국내 출생) 국제결혼가정 가구 수가 1,719가구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외국인가정(355가구)과 중도입국가정(149가구) 순으로 구성되었다.

표 Ⅲ-9. 2기 패널 시·도 및 다문화가족 유형별 구축 현황

(단위: 가구, 명)

시·도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전체	
	가구 수	청소년 수	가구 수	청소년 수	가구 수	청소년 수	가구 수	청소년 수
전국	1,719	1,734	149	150	355	361	2,223	2,245
서울	163	164	23	24	76	76	262	264
경기	303	305	44	44	151	156	498	505
인천	80	82	15	15	26	26	121	123
강원	60	60	2	2	2	2	64	64
충북	83	83	4	4	10	11	97	98
대전	41	42	6	6	7	7	54	55
충남	119	121	8	8	24	24	151	153
세종	25	25	1	1	1	1	27	27
대구	80	81	2	2	11	11	93	94
경북	128	128	7	7	6	6	141	141
경남	150	151	14	14	7	7	171	172
부산	79	81	13	13	6	6	98	100
울산	46	47	1	1	6	6	53	54
광주	50	50	3	3	12	12	65	65
전북	102	102	1	1	4	4	107	107
전남	180	182	3	3	2	2	185	187
제주	30	30	2	2	4	4	36	36

* 출처: 신동훈 외(2023: 70) 표 Ⅲ-9 발췌

9) 2기 패널을 구축한 이후 매년 본 조사를 시작하기 전 전화조사로 원패널 대상자의 기본사항을 파악하고 있음. 다만, 2022년 전화조사 중 모집단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이 발견되어 원패널 대상에서 제외하였기에 기존에 발간된 보고서에 제시된 패널 구축 현황의 가구 수와 청소년 수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Ⅲ-10〉는 현재까지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가족 유형별 현황이다. 2019년 패널을 구축할 당시, 중도입국 가정의 목표표본이 200가구였으나 149가구만 표집되었고, 더욱이 2차 조사에도 이탈률이 높아 26가구를 추가로 구축하였다. 5차 조사에서는 56가구가 이탈하여 총 1,819가구(국제결혼가정 1,423가구, 외국인가정 261가구, 중도입국가구 135가구)가 참여하였다.

표 Ⅲ-10. 2기 패널 다문화가족 유형별 조사 참여가구 현황(2019년~2023년)

(단위: 가구)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기존패널	추가구축	계			
국제결혼가정	1,719	1,578	-	1,578	1,528	1,457	1,423
중도입국가정	149	137	26	163	155	147	135
외국인가정	355	312	-	312	296	271	261
합계	2,223	2,027	26	2,053	1,979	1,875	1,819

* 출처: 신동훈 외(2023: 71) 표 Ⅲ-10 발췌 및 수정

2기 다문화청소년의 성별 참여 현황은 〈표 Ⅲ-11〉과 같다. 국제결혼 및 외국인가정의 청소년 성별 비율을 살펴보면 남자(50~51%)과 여자(48~49%)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중도입국가정의 경우 구축 당시에는 남자 청소년이 13.4%p 더 높게 나타났지만, 2차 조사에서 26가구를 추가 구축하여 성별 격차를 줄일 수 있었다.

표 Ⅲ-11. 2기 패널 성별 청소년 참여 현황(2019년~2023년)

(단위: 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국제결혼가정	남자	877(50.6)	820(51.3)	796(51.5)	756(51.1)	745(51.5)
	여자	857(49.4)	777(48.7)	751(48.5)	723(48.9)	703(48.5)
	계	1,734(100.0)	1,597(100.0)	1,547(100.0)	1,479(100.0)	1,448(100.0)
중도입국가정	남자	85(56.7)	87(53.0)	84(53.8)	82(55.4)	74(54.0)
	여자	65(43.3)	77(47.0)	72(46.2)	66(44.6)	63(46.0)
	계	150(100.0)	164(100.0)	156(100.0)	148(100.0)	137(100.0)
외국인가정	남자	181(50.1)	158(50.6)	152(51.4)	134(50.0)	131(50.8)
	여자	180(49.9)	154(49.4)	144(48.6)	134(50.0)	127(49.2)
	계	361(100.0)	312(100.0)	296(100.0)	268(100.0)	258(100.0)
합계	남자	1,143(50.9)	1,065(51.4)	1,032(51.6)	972(51.3)	950(51.5)
	여자	1,102(49.1)	1,008(48.6)	967(48.4)	923(48.7)	893(48.5)
	계	2,245(100.0)	2,073(100.0)	1,999(100.0)	1,895(100.0)	1,843(100.0)

2) 조사내용

구축 당시 설문지는 청소년 설문지 2종과 학부모 설문지 4종으로 개발하였다, 그 후로 청소년의 경우 2차시에 입국 및 입학 전 경험 관련 문항들을 삭제하였고, 3차 조사는 설문 내용을 전년도와 유사하게 구성하되, 응답자 관점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문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였다. 교급 변동 시기에 해당하는 2022년 4차 조사에서는 중학교 진학에 따라 생기는 변화를 고려하여 문항들을 검토하였다. 비행 및 학업중단 위험 요인, 관계, 정서문제,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및 만족도 등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지난 5차시는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 준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전문가 자문회의와 연구진 논의를 거쳐 자유학기(년)제 경험 시기와 기간,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인권 등의 문항을 새롭게 추가하였다. 이번 2024년 6차시 조사에서는 그릿, 방과후 활동 및 여가활동 문항을 새롭게 구성하였다. 최근 6년 간 다문화청소년 설문 조사 영역 및 구성 내용은 〈표 Ⅲ-12〉와 같다.

학부모 설문지도 2019년 패널 구축 당시 외국인 학부모 2종과 한국인 학부모 2종으로 총 4종이었지만, 2차시 부터 추가 확인이 필요없는 문항들을 삭제하고, 외국인 학부모를 하나로 통합하여 총 3종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3차시는 특별히 변경 없이 진행해오다가 4차시에 전문가 자문과 연구진 검토회의로 응답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들을 보완하였다. 5차시에는 자녀가 중학교 2학년임을 감안해 자녀 준비활동 및 자유학기제 여부,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문항들을 추가하였고, 2024년 6차시에는 자녀의 자유학년(기)제, 차별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한 (공공/민간)기관 문항들을 삭제하였다. 최근 6년 간 학부모 설문지의 조사 영역 및 내용은 〈표 Ⅲ-13〉에 정리하였다.

표 Ⅲ-12. 청소년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4년)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6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언어 능력	· 부모의 외국인 여부	MAPS 1기	○	○	○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의 한국어 실력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	○	○
		· 부모와의 의사소통 시 사용 언어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의 언어 교육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언어 실력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	○	○
		· 자신의 한국어 실력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및 MAPS 1기 문항	–	○	–	○	–	○	–	○	–	○	–	○
		· 입국 후, 학교 입학 전 한국어 배운 경험 및 장소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이중 문화 경험	· 국적에 대한 인식	C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및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	○	○
		· 외국 출신 부모 나라 방문여부 및 횟수	MAPS 1기 문항 수정	○	–	○	–	○	–	○	–	○	–	○	–
		· 문화적응스트레스	Hovey & King(1996)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노충래(2000)를 수정한 홍진주(2004)를 수정하여 사용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국가정체성	성한기(2001) 발췌 및 수정	○	○	○	○	○	○	○	○	○	○	○	○
		· 이중문화수용태도	노충래, 홍진주(2006) 발췌 및 수정	○	○	○	○	○	○	○	○	○	○	○	○
	지원정책	· 특별지원 필요성 및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원하는 지원내용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개인 요인	심리사회 적응, 행동 및 건강	· 건강평가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수정	○	○	○	○	○	○	○	○	○	○	○	○
		· 스트레스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	–	–
		· 정서문제(공격성, 사회적 위축, 우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일부 문항 발췌	–	–	–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6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 자존감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	○	○
		· 그릿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	–	–	–	–	–	–	–	–	–	○	○
		· 사회적 역량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	–	–
		· 삶의 만족도	김신영 외(2006)을 인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0(김지경 외, 2010)	○	○	○	○	○	○	○	○	○	○	○	○
		· 현재 걱정거리	유한구 외(2016)에서 발췌 및 수정 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가해자, 차별경험 대처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충래, 고주애, 윤수경, 2018) 수정	○	○	○	○	○	○	○	○	○	○	○	○
		·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친한 친구 수	MAPS 1기	○	○	○	○	○	○	○	○	○	○	○	○
		· 친한 친구 국적	MAPS 1기 및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비행	이경상 외(2003)를 수정·보완한 이경상 외(2011) 및 한국아동·청소년패널 2018(하형석 외, 2018)을 참고하여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	○
		· 사이버비행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사이버비행 가해경험을 수정 사용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사이버비행 중 사이버비방 발췌	–	–	–	–	–	–	○	○	○	○	○	○
		· 인권	김경준 외(2014)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	○
		· 사회적 고립(외로움)	유민상 외(2022)	–	–	–	–	–	–	–	–	○	○	○	○
	인지	· 학교성적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	○	○	○	○	○	○	○	○	○	○	○
		· 성적에 대한 만족도	MAPS 1기	○	○	○	○	○	○	○	○	○	○	○	○
	진로	· 희망교육수준	MAPS 1기	○	○	○	○	○	○	○	○	○	○	○	○
		· 진학하기 희망하는 곳	MAPS 1기 수정(2022년 조사: 학부모 대상)	–	–	–	–	–	–	–	–	○	○	○	○
		· (대학교 이상 교육 희망 시) 원하는 교육 수준	MAPS 1기 수정(2022년 조사: 학부모 대상)	–	–	–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6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 희망직업	MAPS 1기	○	○	○	○	○	○	○	○	○	○	○	○
		· 학교 마친 후 일하고 싶은 나라	연구진 구성	○	○	○	○	○	○	○	○	○	○	○	○
		·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상담)하는 사람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	○	○	○	○	○	○	○	○	○	○	○
		· 진로준비역량	김민경 외(2022)	–	–	–	–	–	–	–	–	○	○	–	–
		·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김양분 외(2015) 수정·보완 및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진로태도 결정성	이기학, 한종철(1997)의 진로태도 중 진로태도 결정성 문항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	○
환경 요인	부모	· 부모의지지(교육적 지원 및 기대)	김순규(2001) 수정	○	○	○	○	○	○	○	○	○	○	○	○
		· 부모의 양육태도	허묘연(2000) 수정 발췌한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김지경 외, 2010, 이경상 외, 2011)	○	○	○	○	○	○	○	○	○	○	○	○
		·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	○	○
		· 하루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수정	○	○	○	○	○	○	○	○	○	○	○	○
		· 방과후 보호자 부재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	○	○	○	○	○	○	○	○	○	○	○
		· 가정형편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친구	· 친구의 지지	한미현(1996) 발췌	○	○	○	○	○	○	○	○	○	○	○	○
		·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이해경, 김혜원(2001) 수정	○	○	○	○	○	○	○	○	○	○	○	○
	학교 생활	· 학교생활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	○	○	○	○	○	○	○	○	○	○	○
		· 학교생활 전체의 어려운 점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학교생활 어려운 점 (친구)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교사의 지지	한미현(1996) 발췌 및 수정	○	○	○	○	○	○	○	○	○	○	○	○
		· 학교 내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지역사회 지지망	· 학교밖에서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6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학업중단 위험요인	· 학업중단 위험요인 생활 및 태도	이자영 외(2010) 문항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	○
		· 학업중단 위험요인 친구 및 선후배 영향	김순규(2001)의 문항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	○
중도입국	학교 관련	· 한국 오기 전 학교 경험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한국 입학(편입) 학년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한국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전 생활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미래 생활	· 국적취득 희망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한국 거주 희망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기타	방과 후 생활	· 방과 후 활동	청소년종합실태조사(백혜정 외, 2017)	○	○	–	–	–	–	–	–	–	–	–	–
		· 방과후 활동 참여여부 및 횟수, 참여시간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방과후 여가활동 여부 및 횟수, 활동시간	남궁지영 외(2018) 수정	–	–	–	–	–	–	–	–	–	–	○	○
	청소년 활동	· 문화생활, 스포츠 관람, 레저시설 이용 등	사회조사표(통계청, 2017) 발췌 및 수정	○	○	–	–	–	–	–	–	–	–	–	–
		·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하형석 외, 2018) 수정·보완하여 사용	–	–	–	–	–	–	○	○	○	○	○	○

* 출처: 신동훈 외(2023: 73-76) 표 Ⅲ-12 발췌 및 수정

표 Ⅲ-13. 학부모용 설문지 조사영역 및 내용 구성(2019~2024년)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6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외국인 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외국인 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외국인 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외국인 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외국인 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외국인 학부모	한국인 학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국내	외국	
배경 변인	가족 특성	· 배우자와의 결혼 상태 및 관계 만족도	MAPS 1기 및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충래 외, 2018) 수정	○	○	○	○	○	○	○	○	○	○	○	○	○	○	○	○	○	○	○
		· 가정의 월평균 소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가정의 주요 소득원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가정의 경제적 수준(가정형편)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개인 요인	심리 사회 적응 및 건강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장소, 차별 대처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노충래 외, 2018) 수정	○	○	–	–	–	–	–	–	–	–	–	–	–	–	–	–	–	–	–
		· 차별 경험 피해여부 및 대상별 피해 경험, 차별 대처 및 차별 사유	김지혜 외(2019) 및 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차별 받았을 때) 도움을 요청한 공공/민간기관	김지혜 외(2019) 및 한준 외(2019) 발췌 및 수정,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자아존중감	Rosenberg(1965) 발췌	○	○	○	○	○	○	○	○	○	○	○	○	○	○	○	○	○	○	○
		· 전반적 건강 상태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걱정거리 의논할 수 있는 사람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문화 특성	언어 능력	· 모국어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어 학습경험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어 수준	OILS(Portes & Rumbaut, 2008) 문항 수정	○	○	–	–	○	–	–	○	–	–	○	–	–	○	–	–	○	–	–	–	–
	문화 적응	· 주로 어울리는 사람	(1-4차)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5차)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한국생활이 모국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	Kim, U. (1988) 수정 및 보완 한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적응 스트레스	이승종(1995) 번안, 이소래(1997)가 수정한 것을 수정 후 사용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문화적응 유형	Barry(2001) 발췌 및 수정 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6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외국인 부모		한국인 부모			외국인	한국인 부모		외국인	한국인 부모		외국인	한국인 부모		외국인	한국인 부모		외국인	한국인 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자녀 양육	자녀 교육 및 양육	· 자녀와 대화 시 사용 언어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의 모국(본국)어 능력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입학 전 주 양육자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한국 오기 전 자녀가 부모님과 떨어져 산 기간 및 그 기간 동안 함께 한 사람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입국 후 초등학교 입학 기간 및 소요 이유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초등학교 입학 시기 및 입학이 늦어진 사유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교육 관련 주 의사결정자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학교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학교문제, 숙제지도 하는 사람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의 학교생활을 위해 하는 활동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선호하는 자녀 교육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방과후 교육(사교육 경험)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0 (김지경 외, 2010) 수정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 진로준비활동	황진구 외(2022) 발췌 및 수정,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의 자유학년(기)제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김양분 외(2015) 수정 및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조사항목	출처	2019 (1차년도)				2020 (2차년도)			2021 (3차년도)			2022 (4차년도)			2023 (5차년도)			2024 (6차년도)		
대영역	소영역			외국인부모		한국인부모		외국인	한국인부모		외국인	한국인부모		외국인	한국인부모		외국인	한국인부모		외국인	한국인부모	
				국내	외국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국내	외국	학부모
	양육 관련 특성	· 자녀 양육 시 어려운 점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노충래 외, 2018)	○	○	○	○	○	○	○	○	○	○	○	○	○	○	○	○	○	○	○
		· 부모효능감	Gibaude-Wallstom & Wandersman (1978)의 문항을 번안 및 수정한 신숙재 (1997)을 수정한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자녀 진학/ 진로 및 향후 희망 거주	· 희망하는 자녀 교육 수준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 희망하는 자녀 거주 방식	연구진 작성	○	○	○	○	○	○	○	○	–	–	○	–	–	○	–	–	○	–	–
		· 자녀가 나중에 갖기 원하는 직업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다문화 지원 정책	지원 정책 태도	· 지원프로그램 제공장소 선호도	MAPS 1기	○	○	○	○	○	○	○	○	○	○	○	○	○	○	○	○	○	○	○	○
		· 자녀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및 도움 정도	김영혜, 김다경(2016)	○	○	○	○	○	○	○	○	○	○	○	○	○	○	○	○	○	○	○	○
		· 선호하는 지원 방식	MAPS 1기 수정	○	○	○	○	○	○	○	○	○	○	○	○	○	○	○	○	○	○	○	○

* 출처: 신동훈 외(2023: 77-79) 표 Ⅲ-13 수정

3. 패널조사 절차 및 방법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본 패널조사의 연구대상은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이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여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연구진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IRB 심의를 신청하였다. 심의 절차는 심의신청서와 함께 연구계획서, 설문지, 조사 설명문, 조사동의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전체 연구진의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을 첨부해야 하고, 추가로 연구책임자는 생명윤리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최초 심의 신청일은 6월 17일이며, 최종 승인일은 6월 27일이다(승인번호 202406-HR-고유-012).

2) 통계청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 및 통계변경승인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3호)로, 조사 과정의 제반 사항들을 통계청과 협의해야만 한다. 조사 시기나 방법, 문항 내용 등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통계청에 변경 승인을 요청하여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행정자료 우선활용 검토를 통하여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과거 통계청 통계데이터기획과의 판단 결과를 근거로 6월 11일 자체 판단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행정자료 활용 불가였다. 그다음 6월 13일에 변경승인을 신청한 뒤 6월 20일에 사회통계심사조정과로부터 최종 권고승인을 통보 받았다. 이는 1기 패널 유지율과도 관련 있지만 여러 여건에 따라 본조사와 유지조사로 변경되는 상황에서 통계조사의 신뢰도, 정확성이 재검토되어야 하며, 패널 유지를 위한 관리와 신규 패널 구축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받았다.

3) 조사절차

조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와 내부 연구진 회의를 진행하여 1차로 설문문항(안)을 구성한다. 그 다음으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함께 통계청 변경 승인 절차에 따라 설문 문항을 최종 확정한다. 설문지가 완성되면 조사 진행을 위한 TAPI(Tablet Assistant Personal Interview)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시에 설문지는 조사

대상자 특성을 감안하여 각국 언어로 번역된 조사표[10]를 제작한다.

TAPI 시스템 구축 이후로는 조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을 참석한 조사원들은 조사대상자들과 일정을 조율하여 사전에 약속된 장소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참고로 1기 패널의 경우는 진로로 인해 당초 거주지역을 이탈한 경우가 다수 발생하여 온라인 웹(Web) 조사 방식을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였다. 각 패널별 설문조사 소요시간[11]은 〈표 Ⅲ-14〉로 정리하였다.

표 Ⅲ-14. 2019~2023년 패널별 설문조사(TAPI) 소요시간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기 패널	2기 패널	1기 패널	2기 패널	2기 패널	1기 패널	2기 패널	2기 패널
청소년	27.3분	22.8분	16.4분	18.2분	19.0분	25.9분	20.5분	21.6분
학부모	28.8분	22.0분	-	21.7분	22.3분	-	19.8분	21.2분

* 출처: 신동훈 외(2023: 81) 표 Ⅲ-14 발췌 및 수정

2기 패널을 구축한 2019년 이후부터는 1기 및 2기 패널 모두 매해 동일한 시기에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2022년도만 1기 패널(4~7월)과 2기 패널(6~10월)을 분리하여 조사하였다. 각 연도별 조사대상, 실사기간, 최종결과 공표일은 〈표 Ⅲ-15〉와 같다. 다만, 2021년과 2023년의 경우 1기 패널은 조사대상자의 진로 현황만 간단히 조사한 유지조사였기에 별도로 기초분석보고서를 공표하지 않았다.

10) 외국출생 청소년의 경우,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일본어로 번역하고, 외국인 학부모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 베트남어, 몽골어, 러시아어, 태국어로 번역하여 설문을 진행함.

11) 1기 패널 1~8차년도 설문조사 소요시간은 2021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양계민 외, 2021: 59) 참조

표 Ⅲ-15. 연도별 조사대상 및 실사기간, 최종결과 공표일

연도	조사대상 기간	조사실사 기간	최초결과공표
2011	과거부터 현재	2011. 8 ~ 2011.11	2011. 12. 31
2012	2011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2. 6 ~ 2012. 8	2012. 12. 31
2013	2012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3. 5 ~ 2013. 7	2013. 12. 31
2014	2013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4. 6 ~ 2014. 8	2014. 12. 31
2015	2014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5. 5 ~ 2015. 8	2015. 12. 31
2016	2015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6. 5 ~ 2016. 7	2016. 12. 31
2017	2016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7. 7 ~ 2017.10	2018. 12. 31
2018	2017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18. 7 ~ 2018.10	2019. 12. 31
2019	2018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1기 패널) 과거부터 현재(2기 패널)	2019. 6 ~ 2019.10	2020. 12. 31
2020	2019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0. 7 ~ 2020.11	2021. 12. 31
2021	2020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1. 6 ~ 2021.10	2022. 12. 31 (2기 패널 결과만 공표)
2022	2021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1기: 2022. 4~2022. 7 2기: 2022. 6~2022. 10	2023. 12. 31
2023	2022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3. 6 ~ 2023.10	2024. 12. 31. (2기 패널 결과만 공표)
2024	2023년 조사 참여 이후부터 현재	2024. 6 ~ 2024.10	2025. 12. 31(예정)

* 출처: 신동훈 외(2023: 82) 표 Ⅲ-15 발췌 및 수정

4) 조사원 관리 및 교육

조사원 전문성은 패널 유지율 관리에 상당히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조사원 관리와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 조사원 선발 시에는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조사 경험이 풍부하고, 가구방문, 가구 패널조사를 경험한 대상자로 한정하였다. 추적조사의 경우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일가구에는 동일 조사원을 배정하여 조사대상자와의 라포 형성을 도모하였다. 만약 조사원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현재 활동 중인 다른 조사원에게 이관하도록 하고, 이관이 어려울 경우에는 앞서서 조사원 자격 기준에 준하는 대상자를 선발하고 교육을 이수한 뒤 현장에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2023년 조사원의 구성을 보면 이전 연도에 참여한 조사원이 총 73명(98.6%)이며, 2023년 기준 조사원 1인당 24.7가구를 담당하였다. 조사원 교육은 각 권역별로 한국갤럽 본사와 각 지역 사무실에서 대면 집체 교육을 실시하였고, 지역별 세부 교육 일시 및 장소는 〈표 Ⅲ-16〉과 같다.

교육 내용은 다문화 패널조사의 개요와 패널 관리, 문항 변경 사항 안내, TAPI 실습, Q&A로 진행하였다. 조사개요에서는 패널 연혁과 함께 조사 목적 등에 대해 설명하고, 패널 관리는 패널 유지 방안과 작년에 발생했던 특이사례에 대해 안내하였다. 설문 문항의 경우 각 문항의 영역 및 변경사항과 함께 세부 작성 지침을 설명한 뒤 TAPI에서 가구원부 작성부터 조사원이 직접 실습하였다.

표 Ⅲ-16. 조사원 교육 일정

지역	일시	장소	교육 참석 조사원 수
대전	2024.06.27.(목) 10:00	한국갤럽 대전지사	12
수도권	2024.07.02.(화) 10:00	한국갤럽 본사	27
광주	2024.07.03.(수) 10:00	한국갤럽 광주지사	12
부산	2024.07.04.(목) 10:00	한국갤럽 부산지사	11
대구	2024.07.05.(금) 10:00	한국갤럽 대구지사	13
강원	2024.07.04.(목) 10:00	강원리서치	5
제주	2024.07.08.(월) 10:00	제주 회의실	1

4. 원패널 관리

1) 원패널 관리 원칙 및 절차

(1) 원패널 관리

올해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1기 패널 14차, 2기 패널 6차 추적조사로 진행하였다. 패널조사 특성 상 동일한 대상을 매해 추적조사를 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원패널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조사에서 활용한 패널 관리 방안은 〈표 Ⅲ-17〉과 같다.

표 Ⅲ-17. 원패널 관리 방법 및 내용

관리 방법	내용
동일 조사원 투입	■ 패널과 조사원의 라포 형성을 위하여 가능한 매년 동일한 조사원이 투입될 수 있도록, 조사원에게 여러 보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지속적으로 연구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함. ■ 조사원 변경 시에 인수인계 프로그램 운영
전화관리	■ 이사 또는 연락처 변경으로 인한 연락 두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사 참여 가구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전화 조사로 기본 정보 업데이트 ■ 전화가 가능한 일시에 접촉, 거부 반응을 줄이기 위해 문자메시지를 활용하여 수신율을 향상하고, 접촉 시간 구조화로 전화관리 조사 진행
연하장 및 명절선물 제공	■ 전년도 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감사인사를 담은 연하장 및 명절 선물 제공을 통해 당해 연도에도 조사 참여를 독려 ■ 각 가구에 담당 조사원의 이름,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며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유지
리플릿 제작 및 배부	■ 조사 신뢰도와 조사의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조사 목적, 주관기관 안내, 전년도 주요 조사결과 요약 등의 내용이 포함된 리플릿 제작 ■ 다양한 국가의 언어로 번역된 리플릿을 가구방문 조사시 제공
답례품 제공	■ 매년 조사 후, 조사 참여 유도와 성실한 응답을 위해 조사 참여 청소년 및 학부모에게 소정의 상품권 지급
홈페이지 운영	■ 조사 홍보와 주요 사항 안내 목적으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전용 홈페이지 운영 (http://maps.gallup.co.kr) ■ 홈페이지 리뉴얼(2020년) 진행 ■ 조사 배경과 목적, 조사 주관기관 및 실사기관, 조사결과 등 수록. 패널조사 당사자가 조사에 관해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접근이 쉽도록 구성
수신자 부담 전화 운영	■ 본조사 관련하여 소통이 원활하도록 수신자 부담 전화(080-336-2580) 운영
연락처 및 접촉 경로 확대	■ 조사 참여 청소년 및 어머니 외 가구 구성원의 연락 정보를 수집하여 다양한 접촉 경로 확보 ■ 휴대전화 메신저(예: 카카오톡)의 사용 빈도가 높아져 관련 정보 수집으로 원활한 접촉 경로 마련
이사가구 추적조사	■ 미리 파악된 이사시기를 고려하여 추가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이사에 따른 패널 이탈을 방지
가구정보 변동시 자발적 통보가구 인센티브 제공	■ 가구 구성원이 사전에 가구정보 변동사항을 알릴 경우, 인센티브 제공과 해당 사항을 포함한 리플릿을 각 가구에 안내함.
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1기 패널)	■ 2024년(14차)은 방문면접조사가 어려운 사례에 한해 제한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온라인 조사 시스템 운영
청소년 연락처 수집 및 거주지 파악 (1기 패널)	■ 1기 패널은 양육자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도록 청소년 연락정보 및 거주지 파악

* 출처: 신동훈 외(2023: 84-85) 발췌 및 수정

(2) 개인정보 관리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를 준수하고자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우선 조사원 교육 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여 조사 진행이나 자료관리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예컨대, 조사도구인 태블릿 PC는 암호를 설정하고, 조사 이후에 개인정보 문서들은 모두 파기하며, 데이터로 만들어진 결과들은 암호화하여 지정된 관리 담당자와 일부 연구진 외에는 접근을 제한한다. TAPI로 수집된 정보들은 정보보안 담당자가 별도로 운영하는 홈페이지와 실사관리시스템에서만 관리하고 있으며, 승인된 USB 외의 저장장치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해당 자료의 접근은 내부망으로 관리되는 클라우드는 승인된 인원만 접근할 수 있다. 자료 공표 시에는 개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일련번호를 무작위로 부여하고, 조사 당시 부여된 일련번호와 마이크로데이터용 일련번호를 각각 다르게 부여하고 있다. 조사 결과 공표에서도 전체 값이나 집단의 평균값으로 제공하고, 특히 특정 정보의 조합으로 대상자가 특정되거나 식별되지 않도록 지역코드 변수는 시도를 권역으로 리코딩하거나 일부 변수들은 비공개 처리한다.

(3) 연구자 생명윤리교육

인간대상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연구의 경우, 연구진 모두가 조사 대상자 보호를 위해 생명윤리교육을 이수해야만 한다. 최근 3년 간 생명윤리교육 이수 현황은 〈표 Ⅲ-18〉과 같다. 연구진 모두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 시행하는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과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교육을 이수하였다.

표 Ⅲ-18. 최근 3년 간 연구진 생명윤리교육 이수 현황

번호	과정명	수료날짜	운영기관	비고
1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2022.01.21.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연구책임자
2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2022.03.18.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3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2023.03.07. 2023.07.18.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4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2023.03.10.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5	연구자가 알아야 할 기관위원회 심의와 과제관리	2024.04.24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6	윤리적 연구 수행을 위한 인간대상연구자 교육	2024.05.07. 2024.05.09. 2024.06.12.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공동연구원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출처: 신동훈 외(2023: 86) 발췌 및 수정

(4) 조사원 모니터링

조사원과 조사대상자 간의 신뢰관계는 조사대상자가 계속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인 역할을 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2023년 조사에 참여한 어머니 중 임의로 376명(본 조사 참여 대상 20.6%)을 선정하여 조사원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조사항목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였는지, 방문 전에 사전 연락을 하였는지, 조사 이후 상품권 수령 여부, 조사원의 자질과 관계, 조사원 만족도, 건의사항 및 문의사항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기간은 2024년 2월 6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3주 간 실시되었으며, 조사 대상자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한 CATI(Computer Assistant Telephone Interview) 전화조사로 참여하였다.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조사 대상자의 99.2%가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고, 거의 대부분 사전 연락(99.7%)을 통하여 진행하였다. 상품권은 모두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조사원과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다고 답하였다. 조사원과의 관계와 만족도는 각각 91.7%, 93.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건의사항으로는 온라인 조사 병행과 답례품 증액 요청이 있었고, 조사결과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정보 제공과 전체 참여 기간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5) 실사 현장 참관 및 업무협의회의

2024년 상반기 정기통계품질진단 중에 개선사항으로 실사 현장 점검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이는 체계적인 실사과정 점검 뿐 아니라 데이터 품질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진과 조사업체 담당자가 함께 실사 현장을 점검하는 것이다. 다만, 비체계적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려해 조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사 과정을 참관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실사 현장 참관 일정은 〈표 Ⅲ-19〉와 같다. 실사 현장 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사안에 따라 면접원 추가 교육이나 다른 우수 면접원으로 대체하는 방안도 있다. 그리고 문제되었던 면접원 담당한 조사의 경우 전량 재검증과 함께 재조사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였다.

실사 현장 참관 이후 조사업체 및 면접원과 협의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올해까지 여섯 차례의 조사가 진행되어 조사대상자와 라포가 형성되었고, 패널 특성 상 반복되는 문항으로 문항 이해도가 높아 설문 진행 속도가 단축되고 있다. 다만 청소년이 입시와 민감한 시기에 진입함에 따라 대상자를 컨택하는 시간이 주로 평일 늦은 저녁이나 주말에 집중해 조사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고 있다. 더욱이 차년도에 교급 변동을 앞둔 시점에서 참여 독려를 위한 경품행사 등을 제안하였다.

표 Ⅲ-19. 실사 현장 참관 일정

일시 및 시간	장소	참석자	
8월 21일 13시	패널주거지 인근 (대전 중구 소재)	5명	다문화청소년 원패널 갤럽조사 담당연구원 1명, 면접원 1명, NYPI 연구진 2명
8월 26일 16시	패널주거지 인근 (서울시 도봉구 소재)	9명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갤럽조사 담당연구원 5명, 면접원 1명, NYPI 연구진 2명
9월 10일 16시 30분	패널주거지 인근 (부산 진구 소재)	6명	다문화청소년 어머니, 갤럽조사 담당연구원 2명, 면접원 1명, NYPI 연구진 2명

2) 이탈패널 분석

(1) 1기 패널

1기 패널은 2023년 13차 추적조사가 완료되었다. 1차부터 13차까지 지역별 전체 이탈률 및 유지율 현황은 〈표 Ⅲ-20〉과 같다. 2023년까지 조사에 참여한 패널 유지율은 57.5%이다. 지역별로 제주 지역이 86.7%로 이탈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는 구축 당시 가구수가 15가구로 타 지역에 비해 조사대상 규모가 작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다음으로는 대전(62.5%), 대구(57.1%), 광주(52.4%) 등의 순으로 이탈율이 높았고, 전남(24.4%)과 강원(34.4%), 전북(35.2%) 지역이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표 Ⅲ-20. 1기 패널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시·도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179	81	11.7	45.3	54.7
부산	74	31	4.5	41.9	58.1
대구	42	24	3.5	57.1	42.9
인천	67	33	4.8	49.3	50.7
광주	42	22	3.2	52.4	47.6
대전	24	15	2.2	62.5	37.5
울산	31	15	2.2	48.4	51.6
경기	383	187	27.1	48.8	51.2
강원	90	31	4.5	34.4	65.6
충북	74	31	4.5	41.9	58.1
충남	117	47	6.8	40.2	59.8
전북	108	38	5.5	35.2	64.8
전남	160	39	5.7	24.4	75.6
경북	101	37	5.4	36.6	63.4
경남	118	46	6.7	39.0	61.0
제주	15	13	1.9	86.7	13.3
합계	1,625	690	100.0	42.5	57.5

2023년 이탈한 1기 패널 청소년의 진로별 이탈 현황은 다음 〈표 Ⅲ-21〉과 같다.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이탈률은 대학생이 50.0%로 가장 높고, 직업별 가구수 대비 이탈률은 무직이 22.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Ⅲ-21. 1기 패널 청소년 진로별 패널 이탈 현황(2023년)

청소년 진로별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청소년 직업별 가구수 대비
대학생	625	64	50.0	10.2
직장인	218	31	24.2	14.2
무직	150	33	25.8	22.0
구분 불가	6	-	-	-
합계	999	128	100.0	12.8

지난 13년 간 패널이 가장 많이 이탈한 사유는 '연락 안 됨'이 42.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학이나 이민 등'(11.7%), '강력 거절'(9.1%) 등의 순으로 이탈률이 높았다.

표 Ⅲ-22. 1기 패널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전체)

구분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불응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함	292	42.3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63	9.1
			바쁘다며 거절	32	4.6
			더 이상 참여하고 싶지 않음	24	3.5
			귀찮고 싫다며 거절	19	2.8
			아빠가 반대함	19	2.8
			약속 후 연락피함/거절	17	2.5
			관리조사 시 이미 거절 의사 밝혔다며 거절	9	1.3
			도움되는지 모르겠고 하기 싫음	6	0.9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연락 피함	6	0.9
			의무아니면 하기 싫음	4	0.6
			혜택도 없고, 시간도 없다며 거절	4	0.6
			약속 피하여 방문하여 설득했으나 강력거절	3	0.4
			개인적인 일 말하는 것 싫음	3	0.4
			찾아오는 것 싫다며 거절	2	0.3
			다문화관련 조사 참여하기 싫음	2	0.3
			어머니가 거절하여 아버님께 협조 구했으나 바쁘고 집안 사정 있다며 거절	1	0.1
			지난 번에도 학교요청으로 겨우 했다고 함	1	0.1

구분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2020년 이전)학생이 하기 싫어함	31	4.5
			군입대	16	2.3
			개인사정으로 거절	15	2.2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11	1.6
			학생의 사정으로 진행 불가(기숙사, 체육부, 소년원 시설 등)	6	0.9
			어머니 가출, 아버지 거절	4	0.6
			가족 간병으로 바쁨	2	0.3
			남편 사망 후 거절	2	0.3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 자녀 이사. 조사 참여 거절	2	0.3
			배 승선 중으로 참여 불가	1	0.1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학생 가출	1	0.1
			어머니 가출 후 타가구원 거절	1	0.1
			어머니 가출, 가구원 거절	1	0.1
			재수해서 바쁨	1	0.1
			전국 체전 출전으로 참여 어려움	1	0.1
			학생이 친엄마에게 감, 친엄마가 조사 거절	1	0.1
불능	해외체류	해외체류	유학, 이민 등	81	11.7
			해외 취업으로 인해 진행 불가	1	0.1
	기타	기타	기타(학생 사망, 친엄마가 한국사람으로 다시 합가 등)	5	0.7
합계				690	100.0

* 출처: 신동훈 외(2023: 81) 표 Ⅲ-22 수정

2023년 조사에서 이탈한 대상자 128가구의 이탈 사유를 살펴보면,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한’ 경우가 87.5%로 가장 많았으며, ‘강력 거절’(10.7%), ‘유학, 이민 등 해외체류’(2.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23. 1기 패널 청소년 패널 이탈 사유(2023년)

구분	이탈 사유			가구 수	%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불응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피함	112	87.5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9	7.0
			약속 후 연락 피함/거절	2	1.6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군 입대	1	0.8
			전국 체전 출전으로 참여가 어려움	1	0.8
불능	해외체류	해외체류	유학, 이민 등	3	2.3
합계				128	100.0

(2) 2기 패널

2기 패널의 최근 5년 간 패널 이탈 현황을 살펴보면 〈표 Ⅲ-24〉와 같다. 2기 패널은 2019년에 구축한 가구 외에 2차년도에 추가 구축한 중도입국가정(26가구)를 포함하여 패널 이탈현황을 살펴보았다. 전체 경기와 서울이 각각 26.2%, 17.0%로 높았는데 이는 타 지역에 비해 가구수가 많기 때문이다. 다만, 서울 지역은 시도별 가구수 대비가 26.4%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시도별 가구수 기준의 경우로는 제주가 30.6%로 가장 높고, 경남과 전남이 각각 10.4%와 8.6%로 낮게 나타났다. 다만 제주 지역은 36가구로 타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기 때문에 1~2가구만 이탈해도 유지율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표 Ⅲ-24. 2기 패널 지역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시·도	전체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이탈률(%)		유지율 (%)
			전체 이탈 가구수 대비	시·도별 가구수 대비	
서울	273	72	17.0	26.4	73.6
부산	98	13	3.1	13.3	86.7
대구	93	25	5.9	26.9	73.1
인천	121	21	5.0	17.4	82.6
광주	65	17	4.0	26.2	73.8
대전	54	10	2.4	18.5	81.5
울산	53	11	2.6	20.8	79.2
세종	27	3	0.7	11.1	88.9
경기	510	111	26.2	21.8	78.2
강원	65	7	1.7	10.8	89.2
충북	96	16	3.8	16.7	83.3
충남	151	27	6.4	17.9	82.1
전북	107	18	4.2	16.8	83.2
전남	185	16	3.8	8.6	91.4
경북	142	28	6.6	19.7	80.3
경남	173	18	4.2	10.4	89.6
제주	36	11	2.6	30.6	69.4
합계	2,249	424	100.0	18.9	81.1

* 주: 1) 원표본은 학생임(즉, 학생이 탈락한 가구는 탈락으로 간주하나, 어머니가 거절하고 학생만 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 가구는 유지로 간주)
2) 시·도는 1차년도 조사 기준임(이사로 인해 시·도가 변경된 경우가 있음)

가구 유형별 2기 패널 이탈 현황은 〈표 Ⅲ-25〉와 같으며, 전체 패널 유지율은 81.1%이다. 가구 유형별로 국제결혼가정이 83.5%로 가장 높고, 중도입국가정(77.7%), 외국인가정(71.5%) 순이다.

표 Ⅲ-25. 2기 패널 유형별 패널 이탈 현황(전체)

가구유형	구축 패널 가구수	이탈 가구수	유지율(%)
국제결혼가정	1,719	284	83.5
중도입국가정	175	39	77.7
외국인가정	355	101	71.5
전체	2,249	424	81.1

* 주: 1) 원표본 대상은 학생임(즉, 학생이 탈락한 가구는 탈락으로 간주하며, 어머니가 거절하고 학생만 조사에 참여한 경우, 해당 가구는 유지로 간주).
2) 시·도 및 가구유형은 1차년도 조사 기준으로 구성(이사나 재혼 등으로 시·도와 가구유형이 변경된 경우 있음)

1~5차 년도까지 2기 패널 이탈 사유는 〈표 Ⅲ-26〉과 같다. '연락이 안 되는' 사유가 29.5%로 가장 많았고, '강력 거절'(18.6%), '바쁘다며 거절'(9.4%)의 순서로 나타났다.

표 Ⅲ-26. 2기 패널 패널 이탈 사유(전체)

이탈 사유				전체	
구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가구수	%
불응	연락 안 됨	연락 안 됨	연락이 안 되거나 전화를 안 받음	125	29.5
	강력거절	조사에 참여하는 것이 귀찮고 싫음	강력 거절	79	18.6
			바쁘다며 거절	40	9.4
			코로나로 인해 조사 거절	25	5.9
			아버지가 거절	20	4.7
			이사 후 주소지 안 알려주고 조사 거절	14	3.3
			약속 계속 미루다가 거절	9	2.1
			약속 후 연락피함/거절/부재	9	2.1
			더 이상 조사에 참여하고 싶지 않음	8	1.9
			도움도 안 되는 것 같고 바빠서 거절	4	0.9
			혜택이 없다며 거절	2	0.5
			조사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거절	2	0.5
			개인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며 거절	2	0.5
			사생활 노출을 이유로 거절	1	0.2
			기분 좋은 조사는 아니므로 거절	1	0.2
			스트레스 받으므로 거절	1	0.2
			전화 비수신이며 방문 시 거절	1	0.2
			학생이 하기 싫어함	14	3.3
		조사에 참여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음	이혼 후 조사 참여 거절	10	2.4
			가정 사정으로 거절	4	0.9
			부모님 이혼, 아버지 거절	4	0.9
			어머니 가출, 연락두절	3	0.7
			아버지 사망, 외부 사람 만나기 싫음	2	0.5
			어머니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2	0.5
			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거절	2	0.5
			부모님 별거, 아버지 거절	1	0.2
			부모님 병간호로 바쁨	1	0.2
			어머니 사망, 학생 거절	1	0.2
불능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유학, 이민 등	28	6.6
	기타	기타	기타(보호시설, 장애진단 등)	9	2.1
합계				424	100.0

* 출처: 신동훈 외(2023: 92) 표 Ⅲ-25 수정

5. 정기통계품질진단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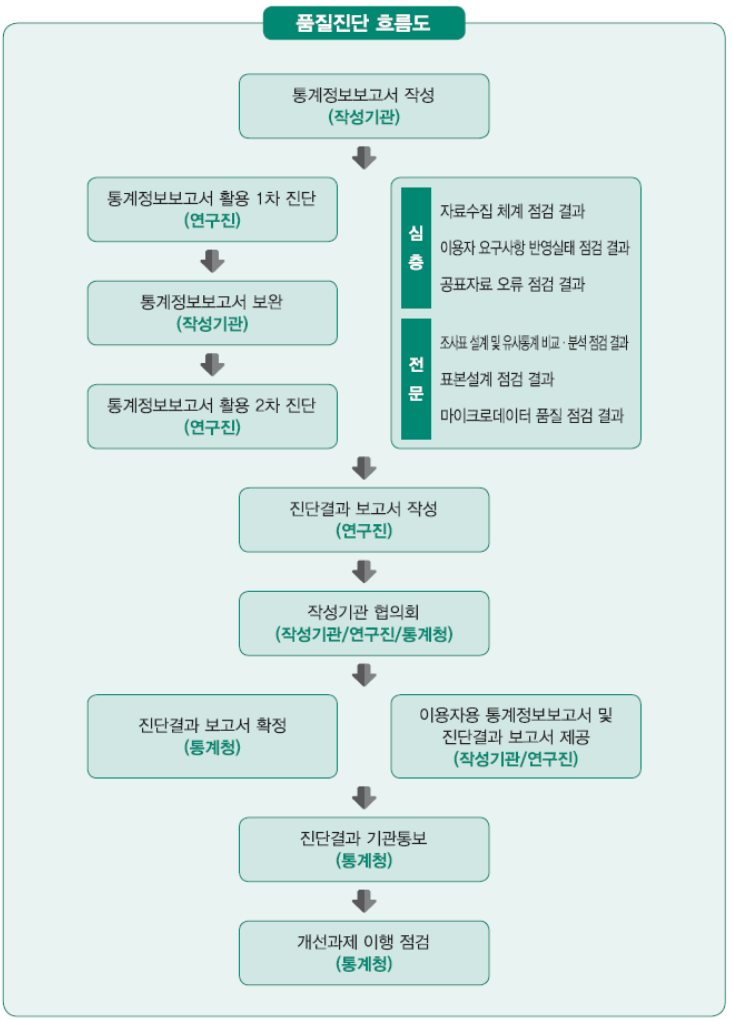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는 2013년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402003호)로 승인받았다. 국가승인통계의 경우 데이터 품질관리를 위하여 매년 자체통계품질진단과 5년 주기로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한다. 이에 본 조사도 매년 승인통계 작성기관 담당자가 직접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였고, 2014년, 2019년에 이어 2024년도 정기통계품질진단 대상과제로 선정되었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에서부터 공표까지 전반의 과정에 대해 품질을 관리하고, 이용자의 요구사항 반영 정도, 세부 작성절차별 체계 점검, 수집자료의 정확성, 통계자료 이용서비스 등을 진단하여 문제점과 원인들을 찾아 품질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통계품질 수준은 관련성. 정확성, 시의성/정시성, 비교성/일관성, 접근성/명확성 5가지 영역에서 점검한다(통계청, 2024: 10-12). 세부 진행절차는 아래 [그림 Ⅲ-1]과 같다.

정기통계품질진단과 관련해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작성기관 담당자 교육(24.01.31)에 참여하였고, 2월 23일까지 마이크로데이터 제출 및 통계정보보고서를 시스템에 1차로 등록하였다. 이후로도 정기통계품질진단 1차 진단 결과에 따른 보완사항 요청에 따라 보고서 수정본과 근거자료를 추가 제출하였다(3월 15일). 3월 18일에 실시된 자료수집 체계 점검은 기 제출한 통계정보보고서와 조사운영관리에 대한 현장점검이다. 품질진단 평가위원(2인)과 조사기획자(본원 연구진, 3인), 조사업체 담당(4인)이 참여하여 자료수집의 정확성을 위해 절차적 오류, 비표본오차 발생 유형과 원인 등을 점검한 뒤 추가 근거자료를 제출하였다(3월 20일, 4월 5일).

이후로는 본 패널자료를 활용한 이용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품질진단 평가단에서 최근 2년 간 패널자료 이용자 대상으로 4월 23일 서울역 부근 회의실에서 FGI를 실시한 뒤 연구진에게 요구사항들을 전달하였다. 연구진들은 제안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통계정보보고서 3차 수정본과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5월 9일). 7월 5일은 진단팀이 개최한 정기통계품질진단 작성기관 협의회에서 통계청 담당 1인, 품질진단위원 2인, 다문화패널 연구진 3인이 참석해 품질진단 결과에 바탕을 둔 개선과제에 대해 논의하였고, 이후 7월 16일 품질진단 결과보고서(안)을 통보받았다. 마지막으로 7월 23일 통계청에서

주관하는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회를 참석하여 마무리되었다. 품질진단에서 도출된 개선과제는 향후 단기 및 중장기 시기에 따라 이행할 예정이며, 확정된 품질진단결과 보고서에서 개인정보 등 민감한 내용들을 삭제한 뒤 8월 20일에 통계정책관리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용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 출처: 통계청 (2024a:16). 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매뉴얼

그림 Ⅲ-2. 정기통계품질진단 흐름도

2) 주요 진단 결과[1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정기통계품질진단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기통계품질진단은 통계작성절차 영역과 품질차원에 따라 평가된다. 각 평점은 5점 척도이며, 항목에 따라 가중치를 적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수 있으며, 정성평가에 따른 추가점수를 부여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전체 평점은 4.9점으로 100점 환산 시 97.6점이었다. 여기에 정성평가 추가점수(2.3점)를 부여받아 최종 99.9점을 받았다.

먼저, 통계작성절차 결과에 따르면 자료수집과 통계처리 및 분석, 통계기반 및 개선은 모두 5점을 받았고, 통계설계와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는 4.8점, 통계작성 기획은 4.5점이다. 통계작성 기획이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담당자 변경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매뉴얼 성격의 업무편람 등의 작성이 미흡하고, 패널조사 표본과 관련된 연혁 내용을 더 명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통계설계에서는 일부 용어 대한 보완이 필요한 것과 표본 이탈 및 마모 패턴에 대한 대안 마련, 마지막으로 최신 척도범주를 사용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다. 다만, 척도 사용과 관련해서는 패널조사 특성 상 시계열 통계결과의 연속성 때문에 한계가 있다. 통계공표, 관리 및 이용자 서비스 항목에서는 KOSIS에 기초통계표를 첨부파일로 공표하고 있으나 조사시점과 공표기준연도가 달라 공표된 기초통계보고서의 일러두기를 함께 공개하면 이용자들에게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마이크로데이터 품질 점검 진행 시 일부 변수 범주 오류와 산출 오류로 통계치를 수정한 이력 때문에 감점되었다.

품질차원별 평가 결과는 비교성/일관성이 5.0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정확성(4.9점), 관련성(4.8점), 접근성/명확성(4.7점), 시의성/정시성(4.5점)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은 시의성/정시성은 작성기준 시점과 결과 공표시점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다만, 패널조사의 특성 상 조사연도 하반기까지 조사가 이뤄지고, 그 다음 해 데이터를 횡단 및 시계열까지 함께 점검해야 하기에 공표 일정을 단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정기품질진단으로 도출된 단기 및 중기 개선과제는 총 4건으로 다음과 같다. 단기 개선과제로는 먼저, KOSIS 공표 기초통계표 보완으로 조사시점과 공표일자 안내, 데이터 다운로드 아카이브 홈페이지 안내 등 일러두기 추가가 있었고, 다음으로 공표자료의 연도

12) 패널보고서 진단결과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통계청, 2024b.12월 공개 예정)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하였음.

별, 주제별 정리하여 이용자들의 활용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중기 개선과제의 경우 통계업무 가이드 초안 작성과 조사 문항 용어 보완 및 체계 구축이다. 통계업무 가이드는 통계업무 전반의 효율성을 개선시키고, 직원 간 인수인계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사용어를 명확히 설명할 경우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고, 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4장 선행연구 및 정책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1. 다문화청소년 현황 및 전망
2.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선행연구
3.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4. 요약 및 시사점

4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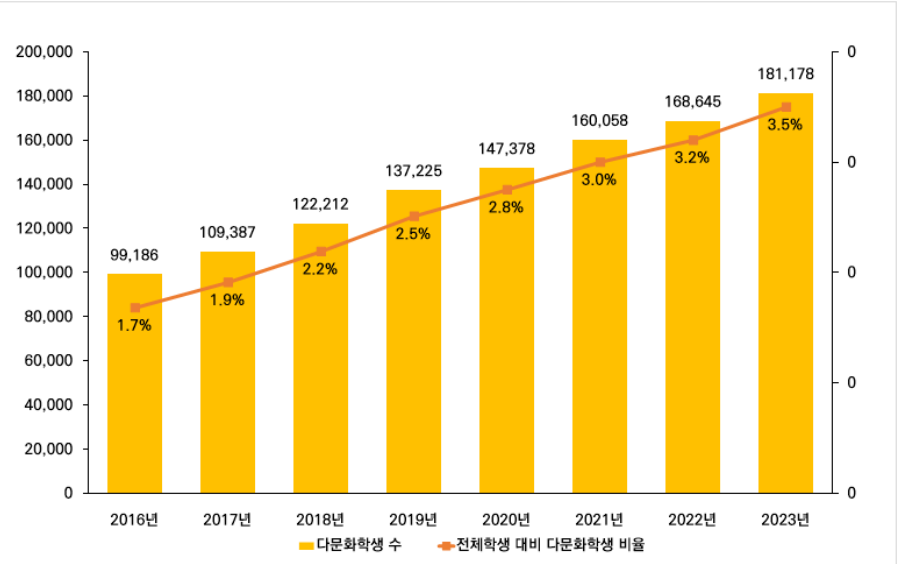
1. 다문화청소년 현황 및 전망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을 가장 포괄적인 방식으로 정의한다. 본인 또는 부모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국외에서 출생한 배경(북한이탈 배경 제외)을 가진 만 9~24세의 사람을 다문화청소년으로 개념화하였다. 이와 관련한 현황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과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다문화학생 통계'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아울러 통계청이 발표하는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를 통해 향후 다문화청소년의 규모가 어떻게 변화할지 추론할 수 있다. 각 자료가 수집하는 대상 범위가 다른 까닭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나, 대략적인 규모 추정을 위한 정보로서는 활용 가치가 충분하다.

(1) 교육부 통계(교육기본통계: 다문화학생 통계)

교육부에서 발표하는 다문화학생 통계는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한 교육기본통계를 토대로 작성되며, 초·중등학교(각종학교 포함)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외국인 가정 자녀로 정의되는 다문화학생의 현황을 제공한다. 다문화학생의 수와 전체 학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매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에 집계된 다문화학생은 181,178명으로 전체 학생 대비 3.5% 수준이었다. 이는 10년 전(2013년, 55,780명, 0.9%)과 비교해 학생 수로는 3배 이상, 비율로는 4배 가까이 증가한 수치로 초·중등학교에서의 다문화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학령인구가 지속해 감소하는 상황과 대비해 증가추세에 있는 다문화학생 수는 향후 다문화학생 비율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더욱 높아질 것임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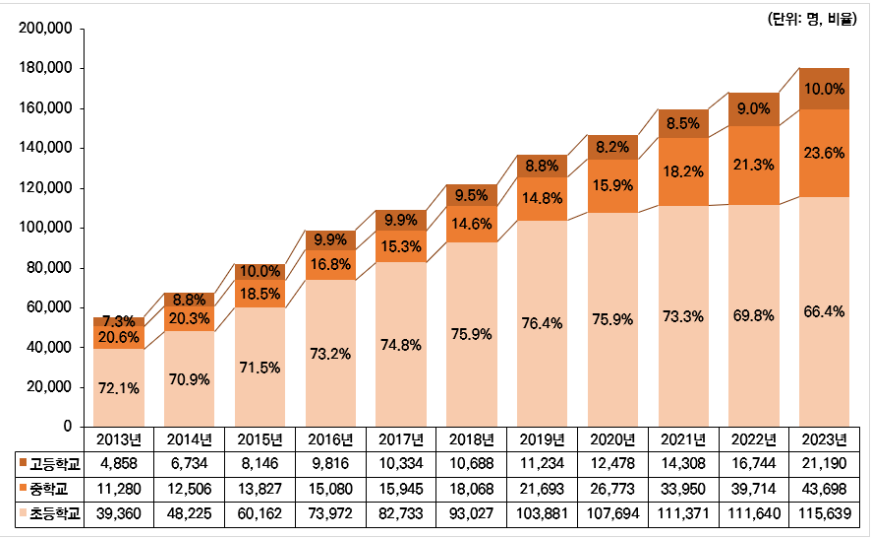
13) 4장은 신동훈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이정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그림 Ⅳ-1. 다문화학생 수 및 다문화학생 비율(2016~2023년)

학교급별(각종학교 제외)로 다문화학생의 분포를 살펴보면, 초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이 115,63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뒤를 이어 중학교에 다니는 다문화학생이 43,698명, 마지막으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다문화학생이 21,190명으로 가장 적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다문화학생 수는 가장 많고,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지만 2019년 이후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고 있다. 대조적으로 중학교 재학 다문화학생은 2018년 이후 그 수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초등학교의 다문화학생 변화 양상을 고려하면 향후 몇 년간은 증가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고등학교의 다문화학생 수는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늘고 있으며 초등 및 중학교의 다문화학생 변화 추이를 감안할 때, 향후 수년 동안은 더욱 가파른 증가폭을 보이리라 예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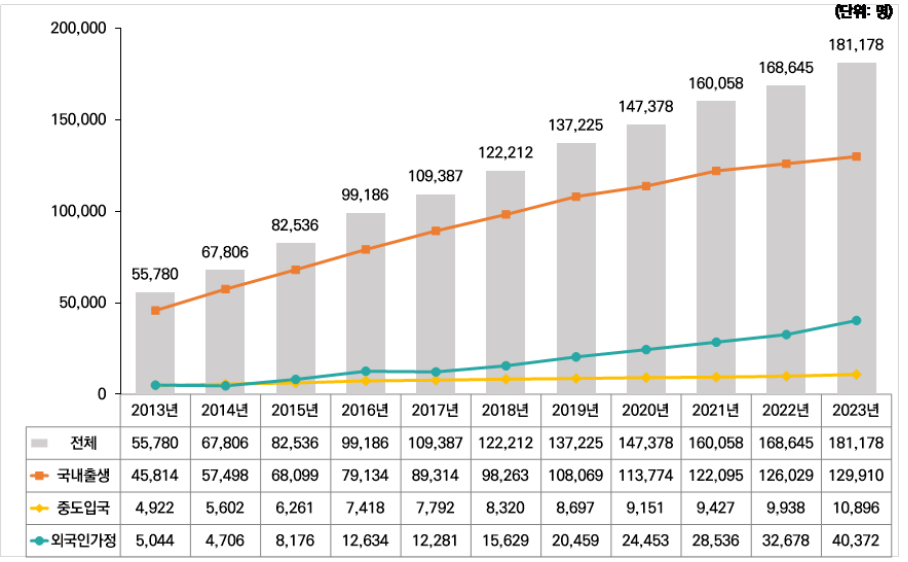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고등학교	4,858	6,734	8,146	9,816	10,334	10,688	11,234	12,478	14,308	16,744	21,190
중학교	11,280	12,506	13,827	15,080	15,945	18,068	21,693	26,773	33,950	39,714	43,698
초등학교	39,360	48,225	60,162	73,972	82,733	93,027	103,881	107,694	111,371	111,640	115,639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그림 Ⅳ-2. 학교급별 다문화학생 현황(2013~2023년)

교육부 통계에서는 다문화학생을 세 가지 유형(국내출생자녀, 중도입국자녀, 외국인가정자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규모를 제공한다. 국내출생자녀는 국제결혼가정자녀 중 국내에서 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다문화학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난 2023년 기준 129,910명이 국내출생자녀였는데, 이는 다문화학생의 71.7%에 해당한다. 중도입국자녀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를 의미하며, 2023년 기준 10,896명으로 다문화학생 가운데 6.0%를 차지해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작다. 마지막으로 외국인가정자녀는 출생지 관계없이 외국인 사이에서 태어났으면 여기에 해당한다. 외국인가정자녀는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유형으로 2023년 40,372명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2013년 기록한 5,044명에서 약 8배 증가한 수치이며, 다문화학생 내 차지하는 비율은 13.3%가 증가해(9.0% → 22.3%) 다문화학생 내 지형변화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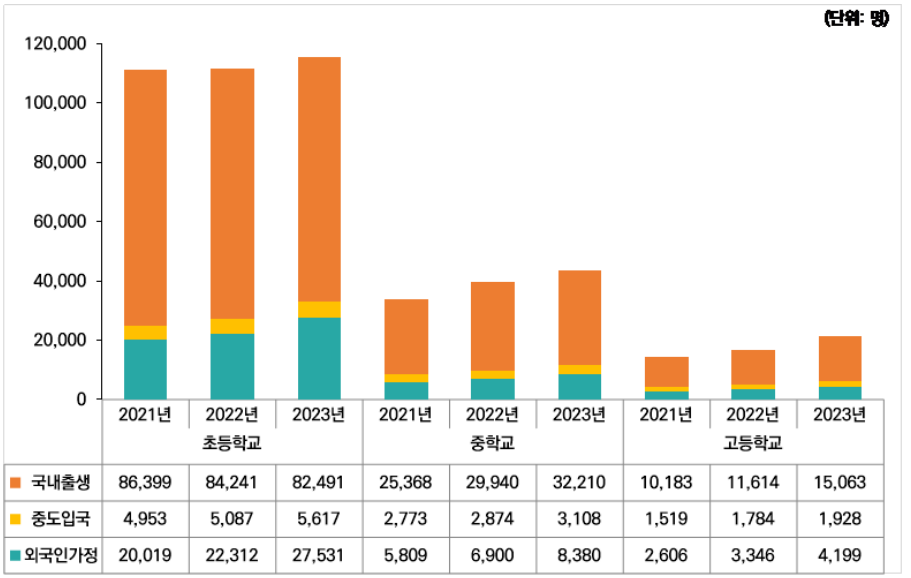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55,780	67,806	82,536	99,186	109,387	122,212	137,225	147,378	160,058	168,645	181,178
국내출생	45,814	57,498	68,099	79,134	89,314	98,263	108,069	113,774	122,095	126,029	129,910
중도입국	4,922	5,602	6,261	7,418	7,792	8,320	8,697	9,151	9,427	9,938	10,896
외국인가정	5,044	4,706	8,176	12,634	12,281	15,629	20,459	24,453	28,536	32,678	40,372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그림 Ⅳ-3.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13~2023년)

유형별 다문화학생의 변화를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외국인가정자녀 수의 증가 양상은 더욱 두드러진다. 국내출생자녀의 경우 초등학교급에 재학 중인 인원이 2021년 이후 감소하고 있는 것과 반대로 외국인가정자녀는 2021년 2만여 명에서 2022년 2만 2천여 명, 2023년 2만 7천여 명으로 그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었다. 초등학교급으로 유입되는 외국인가정자녀가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에서의 학교생활을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담보된다면 한국사회 또는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성장격차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동시에 언어와 문화 등 경험의 이질성이 큰 집단의 유입에 따른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는 시점임을 시사한다.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국내출생	86,399	84,241	82,491	25,368	29,940	32,210	10,183	11,614	15,063
중도입국	4,953	5,087	5,617	2,773	2,874	3,108	1,519	1,784	1,928
외국인가정	20,019	22,312	27,531	5,809	6,900	8,380	2,606	3,346	4,199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https://kess.kedi.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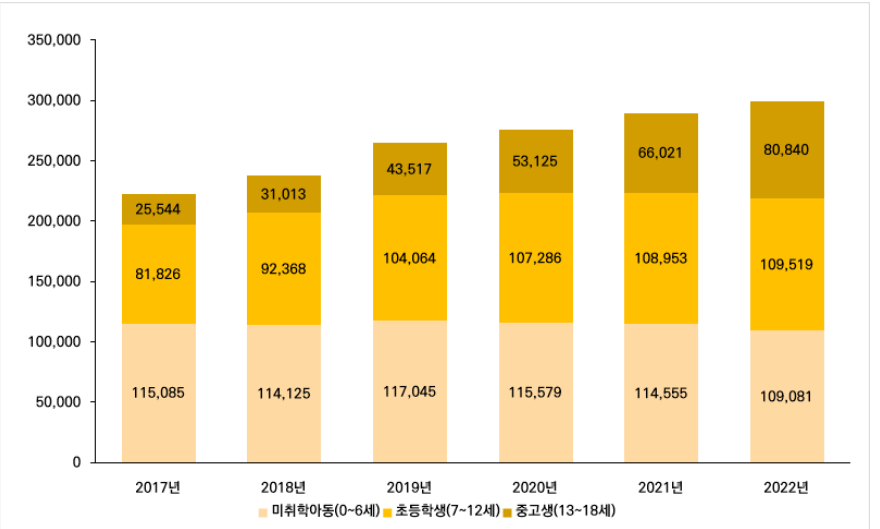
그림 Ⅳ-4. 학교급 및 유형별 다문화학생 현황(2021~2023년)

(2) 행정안전부 통계(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행정안전부가 발표하는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은 외국인주민 자녀(미성년자)에 관한 정보도 포함하고 있다. 교육부 자료가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현황만을 다루는 것과 다르게 미취학아동(0~6세) 및 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학령기 청소년에 관한 현황도 합산해 제공한다. 다만, 외국인주민 자녀를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로 정의하고 있고, 여기에 출생여부 정도만 추가로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가정자녀의 현황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지난 2022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주민 자녀는 총 299,440명이다. 이는 전년 같은 시점 대비 9,911명 증가한 수치이자, 중·고등학교 연령대에 해당하는 자녀가 많아진 영향에서 비롯된 결과이기도 하다. 외국인주민 자녀가 2021년에 비해 만13~18세 연령대에서 14,819명 증가한 것과 비교해 만7~12세 연령대에서는 566명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미취학아동은 오히려 5,474명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주민 자녀 중 미취학아동 수는 2019년 117,045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 출처: 행정안전부(2018-2023).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그림 Ⅳ-5.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7~2022년)

미취학아동 수의 감소는 최근 한국사회의 저출산 추세와 맞닿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수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0세 12,386명, 1세 14,230명, 2세 15,995명 등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연령대의 1만 7천~1만 9천 명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향후 외국인주민 자녀 출생인구가 2022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16~18세 고등학생 연령대 자녀들이 후기청소년기에 접어드는 시점(약 3년 후) 이후부터는 미성년자 외국인주민 자녀의 규모도 축소되는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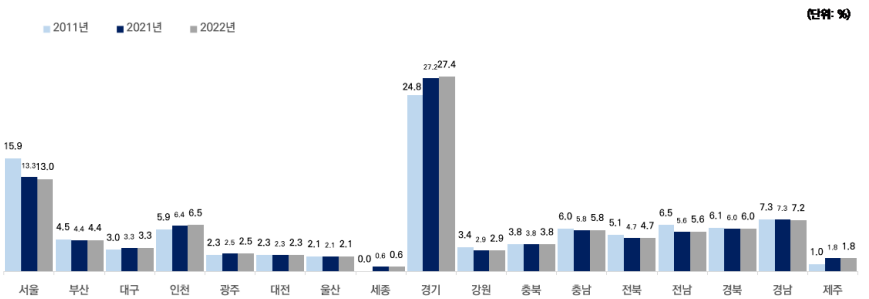
표 Ⅳ-1. 연령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22년)

(단위 : 명)

연령별		합 계		국내 출생		귀화 및 외국 국적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계		299,440		282,077		17,363	
소 계		109,081	36.4%	105,451	37.4%	3,630	20.9%
미취학아동	0세	12,386	4.1%	12,364	4.4%	22	0.1%
	1세	14,230	4.8%	14,138	5.0%	92	0.5%
	2세	15,995	5.3%	15,669	5.6%	326	1.9%
	3세	16,701	5.6%	16,121	5.7%	580	3.3%
	4세	16,115	5.4%	15,399	5.5%	716	4.1%
	5세	16,496	5.5%	15,645	5.5%	851	4.9%
	6세	17,158	5.7%	16,115	5.7%	1,043	6.0%
소 계		109,519	36.6%	102,897	36.5%	6,622	38.1%
초등학생	7세	17,397	5.8%	16,331	5.8%	1,066	6.1%
	8세	17,473	5.8%	16,347	5.8%	1,126	6.5%
	9세	17,592	5.9%	16,503	5.9%	1,089	6.3%
	10세	18,844	6.3%	17,673	6.3%	1,171	6.7%
	11세	19,190	6.4%	18,111	6.4%	1,079	6.2%
	12세	19,023	6.4%	17,932	6.4%	1,091	6.3%
소 계		80,840	27.0%	73,729	26.1%	7,111	41.0%
중고생	13세	18,130	6.1%	16,912	6.0%	1,218	7.0%
	14세	17,617	5.9%	16,222	5.8%	1,395	8.0%
	15세	15,799	5.3%	14,520	5.1%	1,279	7.4%
	16세	11,688	3.9%	10,534	3.7%	1,154	6.6%
	17세	9,509	3.2%	8,437	3.0%	1,072	6.2%
	18세	8,097	2.7%	7,104	2.5%	993	5.7%

* 출처: 행정안전부(2023).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지역별 외국인주민 자녀가 어느 지역에 더 많이 거주하고 있는지 시도단위 분포를 지난 2011년과 2022년, 그리고 2023년을 비교하면, 가장 큰 감소가 있던 지역은 서울(15.9→13.3→13.0)이었고, 가장 큰 증가가 있던 지역은 경기(24.8→27.2→27.4)였다. 이외에 인천(5.9→6.4→6.5)과 전남(6.5→5.6→5.6)에서 일부 변화가 있었으며, 나머지 지역은 새롭게 조사(세종시)되거나 0.5% 이하의 미미한 수준의 변화였다. 서울, 경기, 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거주 외국인주민 자녀는 46.6%(2011년)에서 46.9%(2022년)로 큰 차이가 없었다. 즉, 외국인주민 자녀의 주된 거주 지역의 이동은 주로 수도권 내에서의 변화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행정안전부(2011, 2023)

그림 Ⅳ-6. 시·도별 외국인주민 자녀 현황(2011, 2022년)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인주민 자녀가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시·군·구 단위까지 살펴본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1년에는 외국인주민 자녀 거주지 상위 20개 지역에 포함되었으나 2022년에는 포함되지 않은 지역은 대부분 서울 내(영등포구, 구로구, 관악구, 강서구) 지역이었으며, 이를 대체해 포함된 지역 중 두 군데는 경기(김포)와 인천(서구)에 위치해 있었다. 영등포구(1,987→2,266명)와 관악구(1,485→1,860명)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 수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구로구(1,649→3,005명)에는 여전히 많은 수의 외국인주민 자녀가 거주하고 있지만, 상위 20개 지역에 포함될 수준은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시 내에서는 금천구(1,866명), 은평구(1,939명), 송파구(2,149명) 등 2011년에 비해 외국인주민 자녀가 거주하는 지역이 다변화된 점을 특기할만하다. 한편 충남 천안시는 지난 10년 간 순위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인근의 아산시(1,131→2,931명)에 외국인주민이 다수 유입되고 있어 2022년 기준으로 두 시의 외국인주민 자녀수를 합산할 경우 안산시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상위 20개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자녀는 2011년 전체의 26.5%에서, 2021년 29.8%로 증가했으며, 2022년에는 93,109명으로 전체의 31.1%(전체 299,440명)를 차지했다. 이는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밀집 수준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시사해 관련 대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표 Ⅳ-2. 외국인주민 자녀 거주 상위 20개 시·군·구(2011, 2021년, 2022년)

순위	2011년 (2022년)		2021년		2022년	
	시·군·구	명	시·군·구	명	시·군·구	명
1	경기 안산시	4,358	경기 안산시	6,812	경기 안산시	6,926
2	경기 부천시	2,958	경기 수원시	5,857	경기 수원시	6,090
3	경기 수원시	2,824	경기 화성시	5,795	경기 화성시	6,073
4	경기 성남시	2,524	경기 부천시	5,614	경기 부천시	5,800
5	경남 창원시	2,459	경기 시흥시	5,554	경기 시흥시	5,799
6	경기 고양시	2,010	경남 창원시	4,992	경기 평택시	5,092
7	서울 영등포구	1,987 (2,266)	경기 평택시	4,753	경남 창원시	5,070
8	경기 시흥시	1,962	경기 고양시	4,142	경기 고양시	4,340
9	인천 부평구	1,870	충북 청주시	4,095	경기 용인시	4,271
10	충남 천안시	1,822	경기 용인시	4,071	충북 청주시	4,241
11	서울 구로구	1,649 (3,005)	충남 천안시	3,935	충남 천안시	4,158
12	경기 남양주시	1,649	인천 부평구	3,661	인천 서구	3,986
13	경기 용인시	1,585	경기 성남시	3,640	인천 부평구	3,850
14	경기 화성시	1,561	인천 서구	3,631	경기 성남시	3,754
15	부산 김해시	1,553	제주 제주시	3,600	제주 제주시	3,734
16	경기 평택시	1,524	경기 남양주시	3,446	경기 남양주시	3,572
17	서울 관악구	1,485 (1,860)	경남 김해시	3,384	경남 김해시	3,549
18	인천 남동구	1,474	인천 남동구	3,213	경기 김포시	3,337
19	서울 강서구	1,434 (2,197)	경기 김포시	3,156	인천 남동구	3,284
20	전북 전주시	1,429 (3,014)	광주 광산구	3,020	광주 광산구	3,183
	계	40,117	계	86,371	계	93,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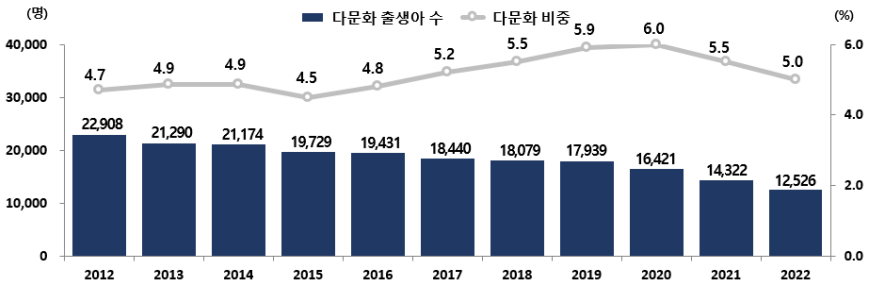
※ 2011년과 2021년, 2022년 모두 상위 20개에 포함된 시·군·구는 음영 처리함.
* 출처: 행정안전부(2011, 2023)

(3) 통계청 통계(인구동향조사: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통계청은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국내 인구변화와 관련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할 목적으로 매월 인구동향을 작성하고 있다. 이 중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는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정의하는 다문화 인구에 대한 현황을 1년 단위로 집계해 발표하는 자료이다. 이 자료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는 없으나, 다문화 출생아 수와 전체 출생 중 다문화 출생아가 차지하는 비중을 파악함으로써 향후 펼쳐질 변화를 전망할 수 있다.

다문화 출생아 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 22,908명에서 2022년 12,526명에 이르기까지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자료에서 저연령대의 미취학아동의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동일하다.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은 2012~2020년 사이 2015년과 2016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상승했으나, 2021년과 2022년 각각 5.5%와 5.0%를 차지했다. 전반적인 저출산의 기조에서도 다문화 인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 수준을 유지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절대적인 다문화 혼인 건수가 감소하고 최근 저출산의 양상도 동시에 보이는 것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할 수 있다(여성가족부, 2022).



*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2023.11.29.).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그림 Ⅳ-7. 다문화 출생아 수 및 전체 출생 중 다문화 비중 추이, 2012~2022년

이와 같은 양상이 지속될 경우 만18세 이하인 다문화 인구(이 자료에서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와 동일)는 향후 2-3년 내 정점에 이른 후 점차 감소해 10년가량 후 부터는 약 25만~30만 명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최근 꾸준하게 증가하는 외국인가정 자녀를 제외한 예상치이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초청할 수 있는 숙련기능인력(E-7-4)의 연간 쿼터가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 방안(K-point E74)에 의해 기존 2,000명에서 35,000명으로 확대된 점이나 광역형 비자의 도입 등을 고려하면 다문화청소년의 규모는 당분간 커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체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에 비해 늘어나는 외국인가정 자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 내 구조변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선행연구

여기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선행연구 중 지난 패널조사부터 포함된 변수(사회적 고립 및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하며, 선행연구와 연구결과의 비교 및 해석은 각각의 장에서 패널자료 및 심층면담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선행연구와 비교하는 방식을 취했다.

(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고립감)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는 이들이 갖는 배경적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자들이 관련한 연구를 수행해 왔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어로 자아존중감,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사회적위축 등이 도출되어 심리정서 분야에 대한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신동훈 외, 202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및 문화적 적응 측면에서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다양한 심리정서 가운데 사회적 고립에 관해서도 이해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적 고립은 개념적으로 외적·내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는데, 외부적으로 사회적 관계가 희소하거나 단절된 특징을 보이며, 내부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과 같은 심리정서를 보일 수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는 점에서 이주배경이 있는 대상의 취약성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문화적 특수성을 지닌 다문화청소년은 규범, 신념, 태도 등과 같이 사회적으로 부여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지체하거나 실패할 수 있는데 이는 부모, 선생님,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뿐만 아니라 스스로에 대한 시선과 태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고립을 유발할 수 있다(유민상 외, 2023). 더군다나 이주배경이라는 귀속적 지위는 사회적 고립의 가능성을 높이는 계기로 작동할 수 있다. 기존 형성된 사회적 관계의 단절과 문화적 차이를 경험하게 되면서 고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주소희, 이경은, 2016). 중도입국가정 또는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이러한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비다문화청소년에 비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사회적 고립은 노인층이 주로 경험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대한 적용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코로나19 등을 거치며 문제의식이 증폭되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졌으며, 이에 대응하는 정책적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관련된

자료의 축적이 미진하고 논의가 아직 초기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적 고립 정책의 잠재적 대상자로서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주목도는 매우 낮은 상황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를 다루면서 사회적 고립에도 주목하여 분석했다.

(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진학(진로발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진학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한 선행연구에서도 '진로장벽'이라는 키워드로 주요하게 연구된 내용이다(신동훈 외, 2023).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진로에 대해 어떠한 태도나 인식수준을 갖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영향요인은 무엇인지 등과 관련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백예은, 정혜원, 2023a; 하여진, 202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한 연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김지연, 이윤희, 2019),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로 진학하는 다문화청소년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도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해 인터뷰를 통해 분석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및 진학 실태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 연구결과에서 주목할만한 것은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보고한 결과이다.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정보 부족은 다문화 배경과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이지만, 다문화청소년들이 보고한 내용은 부모의 정보 부족과 관련이 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러한 특징은 진로에 대한 결정을 오롯이 혼자서 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언어의 한계나 이로 인한 결과로 나타나는 낮은 학업 성취도 등은 자신감의 결여로 이어지기도 한다. 더불어 부모와 청소년 자신의 인적 자원이 부족한 까닭에 정보나 조언을 받을 기회가 제한되어 비현실적인 진로를 설계한다든지, 진로 준비를 위한 행동 및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다문화청소년 내에서도 진로·진학에 대한 의식과 행동 양상은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중도입국가정 자녀가 겪는 특징적인 어려움을 보고한 연구결과(전경숙, 2017)나 중도입국가정 자녀안에서도 진로의식이나 진로준비행동 수준이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오성배, 서덕희, 2012)가 이를 뒷받침한다.

다만, 기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 내 다양성을 고려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김지연, 이윤희, 20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유형과 사회경제적 맥락에 따라 진로·진학 준비역량과 결정 수준 등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3.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

1) 법률 현황

⑴ 다문화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은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인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대표 법률이다. 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및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하여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에서는 이들이 학교생활에 빠른 적응이 가능하도록 교육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함을 의무로 하고 있지만, 그 외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지원, 한국어 및 모국어 교육의 학습지원을 할 수 있다고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

표 Ⅳ-3. 「다문화가족지원법」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4., 2015. 12. 1.〉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3.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2., 2015. 12. 1.〉
④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제목개정 2015. 12. 1.]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24년 5월 17일 인출.

특히, 이 법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가족구성원으로서 다문화청소년이 보육과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심리 정서 및 문화, 학교생활 적응 지원 등에 관한 근거는 마련되지 못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⑵ 광역지방자치단체 「다문화가족 지원」 자치법규(조례)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한 광역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는 지역별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는 2007년 7월 충청남도를 시작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의 순으로 제정되어 시행되었으며, 2023년 3월에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제정하면서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시행하고 있다. 이에 17개의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가 제정되면서 이들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조례를 살펴보면,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에 대해 정의하면서 그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특히 광주광역시와 경기도, 충청북도의 3개 지역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을 별도로 정의하고 있어 다문화청소년을 지원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더불어 이들 조례에서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에 대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에 관하여 보육과 교육을 지원하는 조항이 공통으로 포함되었다. 일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언어발달, 한국어교육, 인성 등의 지원 사업을 시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 지형과 상황이 반영되어 지원의 범위, 시행 계획 수립 등이 의무 조항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강제성이 없는 조항으로 제정된 조례도 있었다. 이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그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었지만,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진로 등에 관한 내용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한계가 있었다.

한편, 서울 외 6개 지역은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 지원이 통합된 조례이지만, 부산 외 9개 지역은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중 광주광역시와 경기도의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동일하게 아동·청소년에 관한 정의와 외국인주민 자녀의 보육과 교육사업에 관한 지원 범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어 이들 법령에 근거한 정책의 지원 대상임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었다.

표 Ⅳ-4.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황

광역 지자체	조례명	최초 제정일	아동·청소년 정의
서울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4.07.17.	-
부산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9.08.05.	-
대구	대구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3.04.10	-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6.12.30.	-
광주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20.09.08.	제2조제3호
대전	대전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2009.04.13.	-
울산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0.07.01.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3.07.30.	-
경기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8.11.05.	제2조제4호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17.05.04.	-
충북	충청북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23.12.29.	제2조제3호
충남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2007.07.30.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23.03.31.	-
전남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2009.01.08.	-
경북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2013.11.11.	-
경남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9.06.11.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2008.04.02.	-

* 출처: 자치법규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4년 5월 17일 인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 다문화청소년에 관한 별도의 지원 규정을 마련한 조례는 5개이며,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의 2개 시지역과 경기도, 전라남도, 경상남도의 3개 도지역이 해당한다. 이들 5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조항에서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었으며, 이는 외국에서 태어나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한 다문화청소년의 한국에서의 적응이 어려움이 많다는 점을 반영한 법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학령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학교생활 적응, 언어능력, 방과후 프로그램의 지원 범위를 설정하여 다문화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었다.

이들 조례 중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제3항에서는 「영유

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과정 운영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4개의 조례와는 다르게 서울특별시의 조례에서는 아동의 보육에 대한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다. 즉, 아동에서부터 차별 없는 보육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의 혹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외에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중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된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와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서는 '학교밖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법적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서 벗어나 있더라도 사회구성원으로서 동등한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이들 다문화청소년을 포용하는 정책의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표 Ⅳ-5.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조항

조례명	조례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조항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의2(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가정 및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원만히 적응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 및 언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2. 중도입국자녀의 사회 · 문화 적응 지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보육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 · 교육 지원 ②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4.3.15]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4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보육·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 2.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3.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4. 학교 밖 아동·청소년의 사회적응 5.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사회·문화적응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③ 시장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 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경기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8조의2(아동·청소년 보육·교육 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2. 취학 전 방문학습 지원 3. 학과 외 또는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신설 2019.1.14.] 4. 학교 밖 아동 · 청소년의 사회적응 지원 [신설 2019.1.14.] 5. 중도입국자녀의 사회·문화 적응 지원 [제3호에서 이동 〈2019.1.14.〉]

조례명	조례 내 다문화청소년 지원 조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육·교육 지원 [제4호에서 이동 〈2019.1.14.〉] [본조신설 2016.12.16.]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2(아동 · 청소년 교육지원)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 ·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4. 8.) 1. 취학 전 학습 지원 (신설 2021. 4. 8.) 2. 가정학습 환경 조성 지원 (신설 2021. 4. 8.)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 · 문화 적응 지원 (신설 2021. 4. 8.)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신설 2021. 4. 8.)
경상남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5조의2(아동·청소년 교육 지원 〈본조신설 2020.5.14.〉)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취학 전 학습 지원 2.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3. 중도입국자녀의 사회 · 문화 적응 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지원

* 출처: 자치법규시스템(https://www.elis.go.kr)에서 2024년 5월 19일 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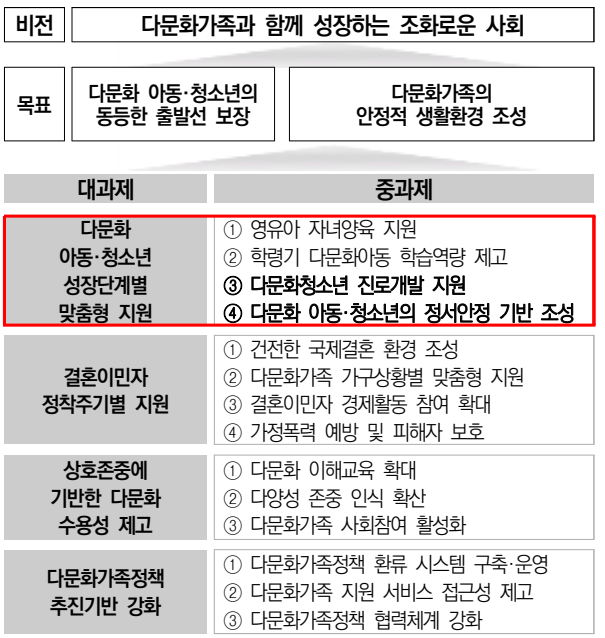
2) 제도 및 정책 현황

그동안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정책은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등에서 다루어져 왔다. 최근 다문화 인구의 증가는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심리정서와 진로 관련 분야의 고도화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을 정책의 대상으로 하지 않았던 정책들 가운데 이들을 위한 정책의 신설을 촉진하였다. 이에 따라 이 항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서·진로 관련 제도 및 정책 현황을 탐색하고자 한다.

(1)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다문화청소년 정책은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정책의 틀 안에서 다문화청소년을 다루어 왔다. 이중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0~2012)」은 2010년 제1차 계획이 최초 수립되었으며, 2011년 「다문화가족지원법」을 개정함으로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5년 주기로 수립되어 2023년 제4차 계획이 발표되었다.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대과제 중 하나로 "다문화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설정하고,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성장 및 발달과 관련한 다양한 측면(양

육, 학습역량, 진로개발, 정서안정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해당 영역의 세부과제의 정책 대상은 다문화유아, 다문화아동, 이주배경청소년, 다문화청소년, 다문화 후기 청소년 등 유아부터 후기 청소년이며, 이들의 성장·발달, 학교적응, 기초학습, 한국어 교육, 진로개발, 이중언어, 심리·정서 안정 등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출처: 관계기관 합동(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그림 Ⅳ-8.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에서는 다문화가족정책의 비전 및 목표와 더불어 지원체계를 제시하고 있으며, 다문화청소년의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하기 위해 영유아 미취학, 초등 취학전후 기초학습기, 중·고등학생 진로탐색기, 후기청소년기의 성장 단계에 따른 전달체계별 주요 정책을 설정하였다. 또한, 중도입국과 귀환 다문화가족자녀의 이주배경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책을 제시하였으며, 이때 전달체계의 주요 부처는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이다.

표 Ⅳ-6.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지원체계

전달체계 / 성장단계	다문화가족 지원체계 양육 및 성장	각 급 학교 및 교육부 지원체계 교육 및 학교적응	청소년 등 기타 지원체계 각종 자원 연계
영유아 미취학	• 양육단계별 부모교육 및 지역 돌봄공동체 강화 • 언어발달 및 생활지도 강화 • 이중언어 친화적 가족환경조성	• 학교 준비 격차 해소를 위한 유치원 단계 지원체계 강화	• 누리과정에 다문화교육 반영
초등 취학전후 기초학습기	• 정보제공, 학부모 교육품앗이 • 가족센터 내 기초학습 지원 강화 • 이중언어 기초교육 • 정체성 확립 및 부모-자녀 관계 증진(자녀성장지원)	• 학교교육 진입 안내 및 지원 • 한국어학급 등 한국어교육 강화 • 학교적응 지원(징검다리과정) • 학습결손 보완(두드림학교)	-
중·고등학생 진로탐색기	• 이중언어 교육·인재DB 연계 • 청소년 진로컨설팅·상담 강화 • 대학생 멘토링 연계	• 진로체험 정보제공(꿈길) 및 진로교육(진로탄탄) • 청소년기 심리상담 강화(학교, 교육지원청 등) • 교원 등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및 다문화 교육 근거 마련 •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 청소년 수련시설 등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강화 • 청소년국제교류 참여 확대 • 다문화청소년 중심 진로체험처 발굴·확대 • 폴리텍 다솜고등학교 운영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를 통한 위기 청소년 지원
후기 청소년기	• 지원 수요 등 조사 • 맞춤형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 폴리텍 전문기술과정 참여 확대 • KOICA·KOTRA 등 기관과 연계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후기청소년 심리상담 지원·연계
이주배경 유형별 맞춤형 지원 추진			
중도입국 자녀	• 법무부 정보연계를 통한 공교육 진입 지원 • 가족센터-학교 간 한국어교육 연계 • 레인보우스쿨을 통한 한국어·사회적응 지원 • 이주배경청소년 통계 구축 추진	귀환 다문화가족 자녀	• 귀환가족·자녀 규모 파악 • 자녀 대상 돌봄, 한국어교육, 한국문화 이해 프로그램 제공

* 출처: 관계기관 합동(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p.10 재인용

주요 과제에서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의 세부과제 중 "1-3. 다문화청소년 진로개발 지원"과 "1-4.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은 다문화청소년의 정서·진로와 관련성이 있었다. "1-3. 다문화청소년 진로개발 지원"은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다각화'와 '다문화청소년 직업 교육 강화'로, "1-4.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정서안정 기반 조성"은 '가족센터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학교 안팎 심리삼당 지원체계 강화',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운영'으로 구분된다. 가족센터와 진로체험센터 등 다문화청소년 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진로컨설팅 프로그램, 진로체험처 발굴·확대, 원격영상 진로멘토링을 제공하여 다문화청소년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가족센터는 청소년 상담사를 주축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 및 진로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2022년 78개소의 가족센터를 시작으로 2023년에는 113개소, 2024년에는 143개소로 확대되어 다문화청소년의 고민 상담과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4.1.16.). 또한, 가족센터에서는 심리 상담과정에서 컨설팅 연계가 필요한 경우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상담센터 등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학교 안팎에서 심리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 2024.1.16.). 이외에도 학교폭력 등 문제 발생 시 다문화 학생의 진술 기회 확보를 위해 다문화 상담사, 통번역사 참여를 지원하고, 학교 등 1차 지원기관에서 폭력 피해 학생 등 다문화 위기 청소년을 발굴한 후 위(Wee)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전문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처럼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은 다문화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서적 안정, 진로 설계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었지만, 주로 학교 내의 정서 및 위기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표 Ⅳ-7.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세부과제 내용

중과제	소과제	세과제	소관기관
1-3. 다문화청소년 진로개발 지원	1-3-1. 다문화청소년 진로·직업 프로그램 확대	①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프로그램 다각화	여가부, 교육부
		② 다문화청소년 직업 교육 강화	고용부
	1-3-2.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 역량강화 및 인재 양성	① 이중언어 교육 및 인재DB 활용 활성화	여가부, 교육부
		② 국제교육 참여를 통한 다문화청소년 글로벌 역량 강화	여가부, 외교부, 산업부
	1-3-3. 다문화 후기 청소년 (만19세 이상) 지원	① 다문화 후기 청소년 지원 수요 등 실태 파악	여가부, 통계청
		② 다문화 후기 청소년 맞춤형 서비스 연계	여가부, 고용부
1-4.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안정 기반 조성	1-4-1.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	① 가족센터 내 다문화 아동·청소년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여가부
		② 학교 안팎 심리상담 지원체계 강화	여가부, 교육부
		③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청소년 안전망) 운영	여가부
	1-4-2. 차별 없는 학교 환경 조성	①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	교육부
		② 다문화 교육 모델 개발	교육부
		③ 학교폭력 예방 및 피해 다문화청소년 지원	여가부, 교육부

* 출처: 관계기관 합동(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⑵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제1차(2008년~2012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5년을 주기로 수립되어 2023년 기준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2023년~2027년)」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지난 15년간 이어온 1~3차 기본계획의 주요 성과와 한계를 진단 한 후 시사점을 기반으로 경제, 안전, 통합, 인권, 협력/인프라에 따른 제4차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구분하였다. 이러한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이민자 수 증가와 구성의 다변화와 산업별 인력부족이라는 문제가 대두되면서 국가의 성장 동력으로 이민정책을 활용하고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이들과 상호교류 할 수 있도록 정책이 설정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의 실현 방안으로 "3-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에 포함된 세부과제는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 지원'이다.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교육부와 법무부에서 이들이 공교육 진입과 학교생활을 조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어 및 한국문화 집중교육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하지만, 여가부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주배경 청소년 상담, 진로설계 지원 등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는 앞서 살펴본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즉,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서 및 진로지원 등 차별화된 지원 정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은 이민 1세대를 중심으로 경제와 지역 발전, 사회통합 등의 주요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즉, 우리사회의 주요 산업에서 활동할 외국인 노동자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의 계획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의 자녀를 주정책 대상자로 보고 있지 않고 있다. 이민 1세대인 외국인 노동자의 자녀들이 성장하여 우리사회의 주요 인재로 성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음 차순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통합의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주대상자로 보고 성장단계별 교육과 보육, 심리정서, 진로 등 다채로운 차원에서 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비전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정책 목표	중점 과제	추진 과제	소관부처
[경제] 이민을 활용한 경제와 지역발전 촉진	① 국익에 도움되는 이민관리 시스템 체계화 ② 우리 경제에 필요한 이민자 유치와 육성 ③ 지역기반의 이민정책 체계 구축 ④ 이민정책과 국가브랜드를 연계한 경제 성장		
[안전] 안전하고 질서있는 이민사회 구현	① 이민질서 위반 대응체계 확립 ② 사회질서와 조화되는 체류환경 조성 ③ 국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국경관리		
[통합]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하는 사회통합	① 객관적지표를 활용한 사회통합정책 체계화 ② 국민과 이민자의 상호 이해·소통 증진 **③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④ 국민과 동포의 유대에 기반한 동반 성장	**Ⅲ-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이민자 역량 배양** **2 이주배경 아동 및 청소년 성장 지원** ① 이주배경 유아 맞춤형 교육 지원 ② 중도입국 자녀 등 대상 학교생활 적응 지원 강화 ③ 학업·진로·이중언어 역량 강화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교육부 교육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인권] 이민자의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실현	① 보편적가치 실현을 위한 이민자 인권보호 강화 ② 여성·아동 등 취약이민자의 사회적 배제 방지 ③ 국제 위상에 부합하는 인도적 의무 이행		
[협력/인프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이민행정 기반 구축	① 국가백년대계 수립을 위한 이민정책 추진체계 구축 ② 이민행정 전문성 및 연구기반 확충 ③ 기술혁신에 기반한 이민행정 고도화 ④ 국제사회와 공동발전을 위한 이민 협력 강화		

* 출처: 법무부(2023).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2023년~2027년)

그림 Ⅳ-9.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⑶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제1차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으로 1993년 최초로 수립된 이후 「청소년기본법」을 근거로 5년 주기로 수립되면서 2023년 제7차 계획이 발표되었다.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대과제 중 하나로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을 설정하고, 위기청소년 복지 지원체계, 청소년 자립 지원,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중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에서 다문화청소년 지원 강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은 「제4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부터 지원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의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에서 학습 및 사회적응 지원, 통계 구축 등 지원

강화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은 앞서 살펴본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다르게 다문화가족 인재 DB 연계, 이주배경 청소년 통계 DB 등을 활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특징을 지녔다. 이러한 이주배경 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은 통계청의 등록센서스를 활용하여 행정자료 연계로 자료가 생산된다면, 이주배경 청소년의 유형별, 지역별, 연령별 현황 등 정확한 통계산출을 통해 이들에 관한 정책을 설정하는 데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비전	국민과 아동이 함께 도약하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선도국가	
목표	청소년 성장기회 제공	안전한 보호 환경 조성

대과제	중과제
1 플랫폼 기반 청소년 활동 활성화	1-1. 청소년 디지털역량 활동 강화 1-2. 청소년 미래역량 제고 1-3. 다양한 체험활동 확대 1-4. 학교안팎 청소년활동 지원 강화
2 데이터 활용 청소년 지원망 구축	2-1. 위기청소년 복지지원체계 강화 2-2. 청소년 자립 지원 강화 **2-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3 청소년 유해환경 차단 및 보호 확대	3-1. 청소년이 안전한 온·오프라인 환경 조성 3-2. 청소년 범죄 예방 및 회복 지원 3-3. 청소년 근로보호 강화
4 청소년의 참여·권리 보장 강화	4-1. 청소년 참여 활동 강화 4-2. 청소년 권익 증진
5 청소년 정책 총괄 조정 강화	5-1. 청소년정책 인프라 개선 5-2. 지역 맞춤형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구축

추진 과제	소관부처
II-3. 청소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1 다문화청소년 지원 강화	
① 다문화가족 청소년 학습 및 사회적응 지원	교육부 여가부
② 이주배경 청소년 종합 통계 구축 지원	교육부, 법무부, 여가부, 통계청, 통일부

* 출처: 관계부처합동(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그림 Ⅳ-10.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

(4)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교육부는 2010년 「제1차 진로교육 5개년 계획」을 시작으로 2023년을 기준하여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을 수립하였다.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서는 사회환경 및 교육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속하여 증가하는 다문화, 탈북, 저소득층, 학교밖 청소년 등 진로취약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진로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진로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에서는 대응 전략으로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지원 역량 강화”을 설정하고,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진로교육을 통해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확대’하고자 하였다. 특히, 소외계층에는 다문화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등 다문화청소년 유형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교육 콘텐츠의 개발과 온·오프라인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의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교육 정책에서 주목할 만할 점은 기존에 진로교육 정책에서 사각지대로 여겨왔던 다문화청소년이 진로교육 정책의 주 대상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수요를 반영한 진로캠프, 진로특강, 진로콘서트, 진로멘토링 등 맞춤형 활동, 학교 진로교육 과정 편성 및 운영 지원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개발역량 강화 정책이 명시되고 있다.

비전	전 국민의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

대응전략	추진과제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	1. 학생 자기주도적 진로개발 1-1. 초등 진로교육 강화 1-2. 진로수업·상담 내실화 1-3. 진로교육 담당자 역량 강화
미래사회 대응 역량 강화	2. 미래 역량을 기르는 진로교육 2-1. 신산업분야 진로교육 강화 2-2. 창업가정신 함양 교육 확대 2-3. 진로교육정보망 통합 및 고도화
지역사회의 진로교육지원 역량 강화	3. 지역사회가 주도하는 진로교육 3-1. 진로체험지원센터 기능 강화 3-2. 지역엔계진로·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3-3.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진로교육 대상을 전생애로 확대	4. 전 생애에 걸친 진로교육 4-1. 국가진로교육센터 기능 강화 4-2. 대학 진로교육 내실화 4-3. 성인 진로 개발 역량 강화 지원

추진 과제
Ⅲ-3. 진로교육 사각지대 해소
1 소외계층 진로교육 지원 확대
① 진로취약계층 학생 대상 진로교육 지원
②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콘텐츠 개발
③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 대상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 출처: 교육부(2023b).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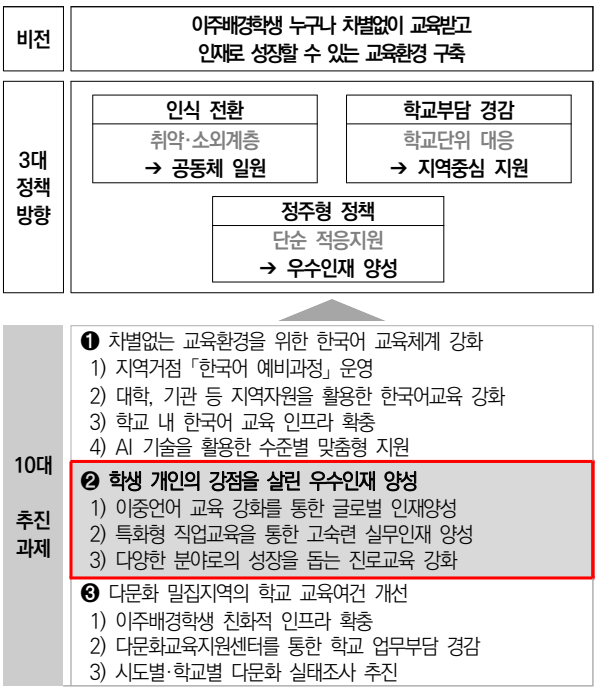
그림 Ⅳ-11.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⑸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교육부에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으로

써,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2023년 최초로 수립·발표하였다. 최근 초중고등학교 학교 현장에는 이주배경을 지닌 학생의 수가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주배경과 무관하게 모든 학생이 함께 공존하여 다양성과 포용성을 증대시켜 사회통합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생산연령인구의 감소에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에 맞는 교육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이 수립되었다. 이를 토대로 최초 수립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주배경학생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고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이라는 비전 아래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취약·소외계층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적응의 지원에서 우수인재로 양성하는 등 이들이 정주·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의 방향 아래 10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에 '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한 한국어 교육체계 강화'와 '학생 개인의 강점을 살린 우수인재 양성', '다문화 밀집지역의 학교 교육여건 개선'을 바탕으로 하위과제를 명시하고 있으며, 한국어 교육체계, 우수인재, 학교 교육여건을 주요 핵심어로 바라보고 있다.

이 중 '우수인재'는 이주배경학생이 정책의 주대상자이며 공동체의 일원으로 한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조 아래 글로벌 인재와 고숙련 실무인재 양성, 진로교육 강화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주배경학생 스스로 진로설계가 가능하도록 진로체험, 진로콘서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을 쌓고 진로역량을 강화하여 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의 다양화를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이주배경학생이 이중언어 강점을 살려 글로벌 우수인재로 성장하도록 우수학생을 선발하고, 이들이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지원과 취업연계, 국제교육 프로그램 연계 등 후속지원을 추진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은 이주배경학생을 취약계층이 아닌 정책의 주대상자이며,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 교육체계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제시된 진로캠프, 진로콘서트 등은 「진로교육활성화 방안」에서 소외계층 대상으로 그 내용이 유사하게 담겨있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만의 차별화된 전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이주배경학생이 주요 인재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진로교육의 내실화된 전략이 요구되며, 다양하고 구체적인 진로교육의 시책이 마련된다면 이주배경학생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해 나가는 데 다채롭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출처: 교육부(2023a).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

그림 Ⅳ-12.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3) 중앙부처 지원 사업

(1) 학생맞춤통합지원

최근 학생수가 감소하는 추세 속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은 증가하고 있고, 개별사업 단위의 분절적인 지원이 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으로 요구되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추진되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 해소'의 국정과제와 관련되며, 경제적 및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기초학력 미달, 학교폭력, 다문화 등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는 학생의 상황에 맞는 통합지원을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향상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둔다(임희숙, 2023; 정필운, 전윤경, 민수빈, 2023).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협력적으로 소통하고, 복합적 어려움에 직면하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한다. 또한, 학생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수행하는데, 필요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하여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지원한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2024.2.15.) 학생맞춤통합지원. https://www.kedi.re.kr/studentsupport/content/124.do에서 2024년 10월 11일 인출

그림 Ⅳ-13.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서는 학생의 위기 및 문제 요인을 개별적인 사안으로 다루지 않으며, 복지 및 경제, 학업·진로, 심리·정서, 다문화·특수교육, 안전 지원의 주요 영역을 통합적으로 진단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에 2023년 제작·배포된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주요영역을 활용하여 학생의 어려움을 지원한 사례를 통해 관찰/발견의뢰, 접수신청, 통합 진단, 지원, 통합점검의 일련의 과정을 소개하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23). 특히, 이 사례집에서는 학생의 위기를 진단한 후 통합지

원이 결정되면 학교에서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언어능력 개선 및 기초학력 향상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교육복지센터에서 주거환경 개선 도움, 지역아동센터에서 석식 제공 및 돌봄 등과 같이 하나의 지원이 아닌 다양한 지원의 영역을 융합적으로 활용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복합 위기에 놓인 학생의 문제 해소를 위해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학교 내외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시범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 중심으로 일부가 운영되고 있어 모든 학생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모든 학생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에 맞는 통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과 시행이 시일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 Ⅳ-8. 학생맞춤통합지원 주요영역

주요영역	관련 사업
복지 지원	•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교육복지안전망 • 가정방문, 지역 연계 지원
경제적 지원	• 교육비 지원(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교육급여 지원(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
학업·진로 지원	• 기초학력지원 • 학업중단 예방(학업중단숙려제) • 대안교육(학교 내 대안교실,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등)
심리·정서 지원	• 위(Wee) 프로젝트를 통한 심리·정서 안정, 치유 및 회복지원
다문화·특수교육	• 다문화가족 학생 및 특수교육 대상자 맞춤형 지원 •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 지원	• 아동학대 예방(미취학·미인정결석)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 학교 성희롱·성폭력 근절 및 예방

*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2023). 학생맞춤통합지원 가이드북-선도학교용-

⑵ 진로설계지원

‘진로설계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의 일환이며,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다채움)’으로 2022년 78개소로 운영이 시작된 이후 2024년 ‘진로설계지원’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2024년 현재 143개소로 확대·운영되고 있는 사업이다. 이 사업

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근거로 진로설계지원, 기초학습지원,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로 구성된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 사업」 중 하나이다. 이는 다문화 아동·청소년 자녀의 가정 문제, 학업 및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의 고민을 상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적응을 위해 진로탐색 및 취업 지원을 목적으로 전국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진로설계지원은 학령기 다문화아동·청소년 자녀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을 포함한 7세~18세가 이에 해당한다. 특히, 이 사업은 학령기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탐색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며,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진로를 고민하고 탐색할 수 있는 다채로운 진로프로그램을 제공으로 사회포용과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진로설계지원은 가정 및 학교생활의 어려움, 진로·취업문제 등의 심리상담을 수행하고, 진로상담과 진로·취업 연계의 과정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이 희망하는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 일부 센터에서는 외부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다양한 진로·직업 체험활동을 제공하며, 이들이 진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다. 다만,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대부분의 센터 인력이 진로 지도 전문가이기보다는 청소년 상담사, 상담복지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진로지도의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고 그들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문화된 진학·진로 지원을 위해서는 진로지도 전문가 중심의 진로설계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표 Ⅳ-9. 진로설계지원

추진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아동·청소년 보육·교육)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대상	• 다문화 아동·청소년(7세~18세) ※ 다문화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 우선 선정 대상: 중도입국자녀, 섬·벽지 지역 거주가정 등
추진연혁	• '22년 운영 시작(78개소) → 운영 확대('23년 113개소, '24년 143개소)
수행주체	• 전국 가족센터
사업 내용	• 전문적인 심리 상담 및 사후관리 • 진로설계 지원(대상자 별 연 4회 이상) • 지역 청소년수련시설, 진로상담센터 등과 연계한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 출처: 여성가족부(2024). 2024년 가족사업안내 (Ⅱ).

4. 요약 및 시사점

이 장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현황과 전망,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에 관련한 선행연구, 관련 법, 제도,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한 내용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본통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현황, 인구동향조사 등 다문화청소년의 현황 파악이 가능한 통계에서는 이들의 숫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외국인주민 자녀가 거주하는 상위 20개 지역이 2011년 전체 약 26%에서 2022년 전체 약 31%로 상승하였는데, 이는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밀집 수준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을 나타낸 결과이다. 특히, 외국인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은 생활 환경에서 적응의 어려움이 비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보다는 낮지만, 상대적으로 교육의 인프라와 자원의 부족으로 학습격차와 소외 우려를 증대시킨다(윤현희 외, 2023). 이에 이들의 학습격차와 정서적 소외를 완화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적 지원과 더불어 심리정서적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다문화아동·청소년의 보육과 교육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는 다문화청소년을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삼고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제10조 3항에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 즉 다문화청소년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과 교육, 언어발달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이 중 5개 지역의 조례에서만 '중도입국아동·청소년의 사회·문화적응'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한국에 입국 후 적응이 어려운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반영한 법적 근거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부 광역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제정·시행된 것과 같이 최근 점차 증가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이 우리사회의 일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심리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법 내 사회·문화 적응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과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에서는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유아부터 청소년기까지 한국어 교육, 기초학습, 학교생활적응, 청소년기 상담 등을 통해 이들이 적응하고 학업 능력을 증진하며 미래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에도 불구하고 한국

어가 서툰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심리정서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소한 상황이다. 특히, 이들은 부모와 함께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언어장벽과 새로운 환경의 적응이라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며, 심리적 위축, 불안 등의 정서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이러한 정서문제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한계로 상담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하다는 점에서 이들의 마음건강을 측정하고 진단하며, 상담이나 치료의 단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국어서비스 확대, 정신건강 및 심리상담 통역, 이중언어 심리상담사 확대 등 추진계획 내에 심리정서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시책이 제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이주배경학생)을 정책의 주대상자로 바라본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에서는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공동체 일원으로 우수 인재로 성장하여 정주·정착하도록 사회통합의 대상으로서 정책의 방향으로 삼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주대상으로 전환됨에도 불구하고 진로교육에서는 여전히 소외·취약계층으로 분류되고 있었다. 또한, 진로교육과 관련하여 제시된 진로캠프, 진로콘서트 등은 「진로교육활성화 방안」에서 저소득층, 탈북,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외계층 대상으로 수요자 맞춤형 활동으로 내용이 담겨있어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만의 차별화된 진로교육의 전략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주요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채로운 진로교육을 통해 이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위기에 놓여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개별적이고 분절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학생 중심으로 통합적 지원을 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어려움은 경제적, 심리·정서적, 학업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통합지원과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지원할 수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문화청소년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학생중심의 맞춤형통합지원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특히,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나타나 지역사회 유관기관으로 연계되더라도 부모의 동의가 없다면 이들을 지원하기 어려운 구조이거나 선도학교나 시범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운영되어 모든 학생이 맞춤형통합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위기를 지닌 모든 청소년이 지원받기 위해서는 관련법 제정을 비롯해 상황에 맞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진로설계지원’은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지원의 여러 사업 중 하나로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자녀를 포함하여 모든 학령기 다문화청소년이 전국 가족센터에서 진로와 관련된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다문화청소년의 생활 전반에 관한 어려움을 상담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탐색과 취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이러한 사업목적 아래 실제 수행기관에서는 청소년 진로지도 가능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청소년상담사, 사회복지사 등이 주로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들의 전문 분야는 주로 개인 및 집단 상담, 복지사례 관리,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으로 진로와 관련이 적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설계를 지원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진로설계지원 사업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업 수행 당사자의 역량이 요구되며 이를 위해 기존 인력 대상으로는 진로지도 역량 함양 교육이 필요하며, 신규 인력은 진로지도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다문화청소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진로설계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제5장 패널자료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진학 (2기 패널)

1. 분석개요
2. 기초분석
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 탐색 및 비교

5 패널자료 분석: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진학(2기 패널)[14]

1. 분석개요

이장에서는 2023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2기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진학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발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분석과 진로·진학 준비 및 결정수준과 관련한 변수를 탐색하기 위한 심화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초분석에서는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심리·정서 및 진로발달 실태를 살펴보았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는 심리사회 적응과 정서문제, 다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진로는 단일 영역이지만 진로태도, 진로결정성, 진학준비도 등 다양한 차원의 발달을 분석하였다. 이때, 배경변인(지역,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을 설정하여 유형 간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부모가 인지한 자유학기(년)제 변인을 통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여 정도, 의사소통 언어 변인을 사용하여 청소년기 다문화청소년과 그들의 부모와의 관계에 따른 심리·정서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심화분석에서는 진로발달과 관련한 진로준비역량과 진로결절성에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다문화청소년과 그의 부모 자료를 동시에 활용하고,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기반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방법을 적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 예측 요인을 탐색하였다. 랜덤포레스트 방법은 대량의 변인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여러 결정 트리의 예측을 통해 결과를 생성하기에 전통적인 개별 통계 분석보다 더 높은 정확도를 보이며, 각 변인의 중요도를 측정하여 어떠한 변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할 수 있다. 이에 1~5차년도 2기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 청소년용 및 보호자용 자료를 모두 사용하여 어떠한 요인이 다문화청소년

14) 5장은 이정민 부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장윤선 조교수(대구교육대학교)가 작성하였음.

의 진로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함으로써 진로발달 양상의 이면을 이해하는 데 주요 자료로 활용하고자 했다.

2. 기초분석

1) 분석개요

이 절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발달 실태 파악을 위한 기초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2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2023년) 중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이 관련된 거주지역, 사회경제적 지위 등 환경요인의 영향이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의 유형에 따라 심리·정서와 진로발달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부모 관련 변인 중 자유학기(년)제의 인지 정도에 따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학업적 관심, 즉 관여도를 간접적으로 확인하여, 이것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나아가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절에서는 종합적으로 부모,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의 요인이 다문화청소년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유형별로 심리·정서와 진로발달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⑴ 분석변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발달 실태 파악을 위해 2023년 수집된 2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자료에서 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문화적응 및 이중문화, 차별경험, 진로요인의 변인 중 심리사회 적응과 정서문제, 다문화, 진로 변인들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우선, 심리·정서에서는 심리사회 적응, 심리사회 적응의 정서문제, 다문화의 3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심리사회 적응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를, 심리사회 적응의 정서문제에서는 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 현재 걱정거리, 사회적고립(외로움) 변인을 사용하였다. 이때, 현재 걱정거리는 학교나 친구 문제(공부/성적, 학교생활, 이성친구, 친구) 4문항, 가정형편 및 갈등(경제적 형편, 부모님 사이의 불화, 아버지와 갈등, 어머니와 갈등, 형제·자매와 갈등), 개인 문제(성격, 외모, 건강), 진로 문제 및 불안감(진학/진로, 미래 불안감,

비자/체류)의 각 항목을 다문화청소년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측정한 문항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문화 영역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스트레스,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의 변인을 사용하였다.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은 외국출신 사람들에 대한 한국 사람들이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다문화청소년의 관점에서 측정한 문항이다.

다음으로 진로에서는 단일 영역으로 진로태도 결정성, 진로준비역량, 상급학교 진학준비도 변인을 사용하였다.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진로에 관하여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진로준비역량은 6개의 하위영역(낙관성, 지속성, 호기심, 유연성, 도전성, 의사소통)이 각 2문항씩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심리·정서 및 진로발달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최종 선정된 14개 변인은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신뢰도(Cronbach's α), 기술통계, t검정, 일원분산분석(ANOVA)을, 사후검증은 Bonferroni 방법을 적용하여 유형간 차이를 검증하였으며, 영역별로 분석에 사용한 변인은 다음과 같다.

표 V-1. 다문화청소년 2기 패널 분석 영역

구분	소영역	조사항목	문항수	신뢰도
심리·정서	심리사회 적응	자아존중감	3	.883
		삶의만족도	3	.842
	심리사회 적응:정서문제	공격성	3	.778
		사회적위축	3	.834
		우울	5	.887
		현재 걱정거리	15	-
		사회적고립(외로움)	4	.855
	다문화	문화적응스트레스	9	.893
		국가정체성	4	.884
		이중문화스트레스	10	.774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2	-
진로		진로태도 결정성	10	.853
		진로준비역량	12	.893
		상급학교 진학준비도	7	.849

⑵ 배경변인

심리·정서 및 진로발달 변인의 비교분석을 위해 사용된 배경변인은 지역규모,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언어, 부모의 자유학기(년)제 인지 여부, 월평균 가구소득, 직능수준이다. 이들 배경변인은 부모, 가정, 지역의 환경요인들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우선, 지역 요인으로 지역규모와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의 유무이다.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 여부에 따라 지역사회 내에서 다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부모 요인은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언어와 자유학기(년)제 인지 여부이다.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언어를 통해 이중언어의 영향을, 자유학기(년)제 인지 여부를 통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정 요인은 월평균 가구소득과 직능수준을 통해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월평균 가구소득은 다문화청소년 가정의 객관적인 소득 수준을 파악하고자 5차년도 조사가 실시된 2023년 소득분위를 활용하였다. 이때, 사용된 기준값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의 전국 2인 이상 가구 소득분위 경계값(2023년 4/4분기 기준)으로 소득 5분위를 산출하였으며, 하위 20%인 1분위부터 상위 20%인 5분위까지 범주화하였다. 소득분위별 경계값은 318만원, 464만원, 627만원, 850만원이며,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가정의 소득이 낮은 수준임을 의미한다(KOSIS 국가통계포털, 2024). 또한, 부모의 객관적인 직업 지위를 파악하기 위해 직능수준을 고려하였다. 직능수준(skill level)은 국제표준직업분류(ISCO)에서 정의한 것으로 정규교육 수준과 더불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특정 업무의 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분류한 체계이다(장주희 외, 2021). 제1직능수준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과업으로 한국표준직업분류에서는 단순 노무 종사자가 해당된다. 제2직능수준은 일정한 의사소통 능력과 정확한 계산 능력이 요구되며 사무, 서비스, 판매,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제3직능수준은 복잡하고 전문적인 업무가 수행 가능한 정도의 지식 및 의사소통 능력, 제4직능수준은 특정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문제해결 능력 등이 요구된다. 특히, 한국표준직업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는 제3직능수준 이거나 제4직능수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장주희 외,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표준직업분류를 직능수준으로 변환하되, 자료의 구조 및 변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직능수준을 통합한 후 총 3개 수준으로 분류하였다.

배경변인별 다문화청소년의 빈도를 산출하였으며, 분석한 결과, 국제결혼가정 1,441명,

중도입국가정 137명, 외국인가정 265명으로 총 1,843명의 다문화청소년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배경변인의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 요인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거주지역을 3개(①대도시, ②중소도시, ③읍·면지역)의 범주로 구분하였다. 특히, 이들이 거주한 지역이 행정구역상 광역시더라도 군지역일 경우(예. 부산광역시 기장군) 읍·면지역에 포함하여 산출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 다문화청소년은 중소도시, 대도시, 읍·면지역 순으로 거주 비율이 높았으며, 중도입국가정에서는 중소도시 52.6%, 대도시 41.6%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비율이 다른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와 더불어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약 5% 내외로 낮았다.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약 10% 더 높았지만, 외국인가정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2.3%,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37.7%로 두 응답 간 차이가 약 25% 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나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상대적으로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잘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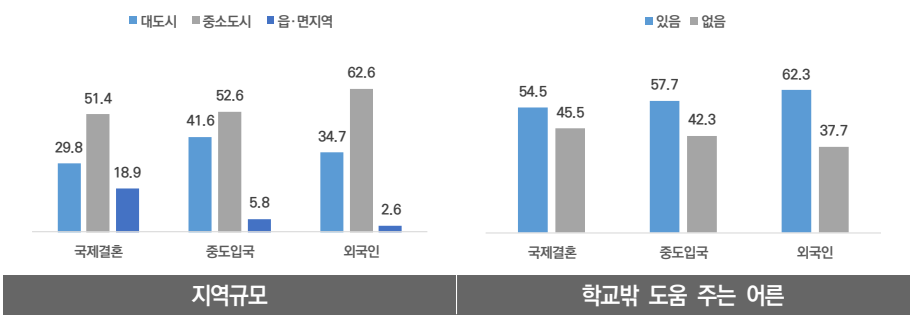


그림 V-1. 지역 요인

다음으로 부모 요인에서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5개의 선택항으로 측정된 문항을 분석의 간명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범주 간 통합하였으며, 3개(①한국어 사용, ②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 반반 사용, ③어머니 나라말 사용)의 범주로 재구분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이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는 한국어,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 반반 사용, 어머니 나라말 사용의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하지만,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 사용 49.8%, 어머니 나라말 사용 25.3%,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 반반 사용 24.5%의 순으로 나타나 어머니 나라말 사용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와 더불어 자유학기(년)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이 제도를 안다고 응답

한 비율은 약 10% 내외였다. 다문화청소년 유형 가운데 중도입국가정 학부모 14.6%는 자유학기(년)제를 안다고 하였는데, 이 비율은 국제결혼가정 10.9%, 외국인가정 10.6%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부모의 학업적 관심이 높은 유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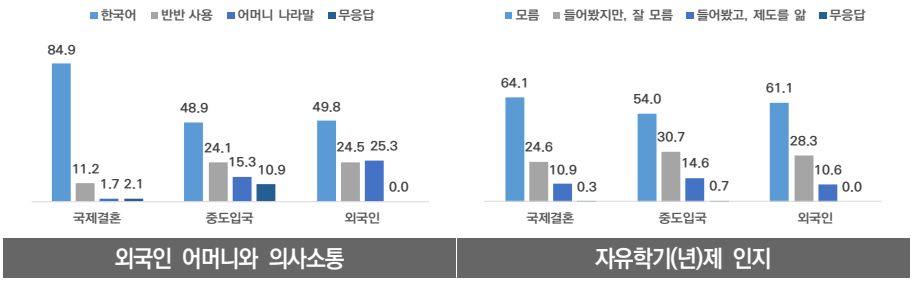


그림 Ⅴ-2. 부모 요인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월평균가구 소득은 하위 20%에 해당하는 1분위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은 49.9%가 1분위로 절반 정도의 가정이 낮은 소득수준에 해당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직능수준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현재 직업 변인을 직능수준의 기준에 따라 각각 변환하였는데, 부모 중 높은 수준의 직능을 가정의 대표 직능수준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직능수준 중 제2직능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는 3~4직능, 1직능 순이었다. 특히, 중도입국가정은 3~4직능이 27.7%로 타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소득분위 3분위 이상의 비율이 30%를 상회하고 있어 사회경제적 지위가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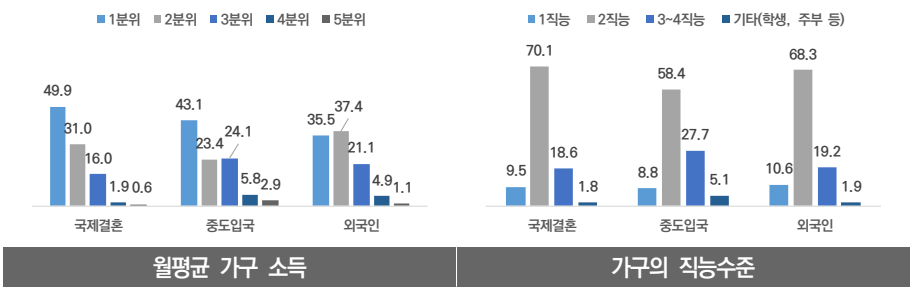


그림 Ⅴ-3. 사회경제적 지위

표 V-2. 배경변인별 다문화청소년 빈도

(단위: 명(%))

구분			합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전체			1,843	(100.0)	1,441	(100.0)	137	(100.0)	265	(100.0)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	578	(31.4)	429	(29.8)	57	(41.6)	92	(34.7)
		중소도시	978	(53.1)	740	(51.4)	72	(52.6)	166	(62.6)
		읍·면지역	287	(15.6)	272	(18.9)	8	(5.8)	7	(2.6)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있음	1,029	(55.8)	785	(54.5)	79	(57.7)	165	(62.3)
		없음	814	(44.2)	656	(45.5)	58	(42.3)	100	(37.7)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	1,422	(77.2)	1,223	(84.9)	67	(48.9)	132	(49.8)
		반반 사용	259	(14.1)	161	(11.2)	33	(24.1)	65	(24.5)
		어머니 나라말	113	(6.1)	25	(1.7)	21	(15.3)	67	(25.3)
		기타	4	(0.2)	2	(0.1)	1	(0.7)	1	(0.4)
		무응답	45	(2.4)	30	(2.1)	15	(10.9)	0	(0.0)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	1,160	(62.9)	924	(64.1)	74	(54.0)	162	(61.1)
		들어봤지만, 잘 모름	472	(25.6)	355	(24.6)	42	(30.7)	75	(28.3)
		들어봤고, 제도를 앎	205	(11.1)	157	(10.9)	20	(14.6)	28	(10.6)
		무응답	6	(0.3)	5	(0.3)	1	(0.7)	0	(0.0)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소득[15]	1분위(하위 20%)	872	(47.3)	719	(49.9)	59	(43.1)	94	(35.5)
		2분위	578	(31.4)	447	(31.0)	32	(23.4)	99	(37.4)
		3분위	319	(17.3)	230	(16.0)	33	(24.1)	56	(21.1)
		4분위	49	(2.7)	28	(1.9)	8	(5.8)	13	(4.9)
		5분위(상위 20%)	15	(0.8)	8	(0.6)	4	(2.9)	3	(1.1)
		모름/무응답	10	(0.5)	9	(0.6)	1	(0.7)	0	(0.0)
	직능수준	1직능	177	(9.6)	137	(9.5)	12	(8.8)	28	(10.6)
		2직능	1,271	(69.0)	1,010	(70.1)	80	(58.4)	181	(68.3)
		3-4직능	357	(19.4)	268	(18.6)	38	(27.7)	51	(19.2)
		기타(학생, 주부 등)	38	(2.1)	26	(1.8)	7	(5.1)	5	(1.9)

15) 월평균 가구소득의 '5분위' 비율은 일부 유형에서 2% 내외의 낮은 비율로 분포하고 있어 본 절에서는 4분위와 5분위를 통합하여 분석하였다.

2)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발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학교 2학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들의 심리·정서는 심리사회 적응과 심리사회 적응의 정서문제, 다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진로발달은 단일 영역이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지역(지역규모,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부모(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자유학기(년)제 인지), 사회경제적 지위(월평균 가구소득, 직능수준)의 배경변인에 따라 영역별 변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⑴ 심리·정서

심리·정서는 심리사회 적응과 정서문제, 다문화로 구분하였다. 심리사회 적응은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를, 정서문제는 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 현재 걱정거리, 사회적고립(외로움)을, 다문화는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스트레스, 한국사회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였으며,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① 심리사회 적응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을 알아보고자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를 분석하였다.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는 각각 3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조사되었으며, 이들 심리사회 적응 변인이 다문화청소년 집단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심리사회 적응을 비교한 결과, 자아존중감에서는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이 각각 3.21점, 중도입국가정 3.17점으로 중도입국가정이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이들 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354, p=.702). 삶의만족도에서는 외국인가정 3.15점, 국제결혼가정 3.12점, 중도입국가정 3.09점 순으로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삶의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655, p=520).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비록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가 다른 두 집단보다 낮았다는 점에서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좀 더 주의를 기울이는 심리사회 적응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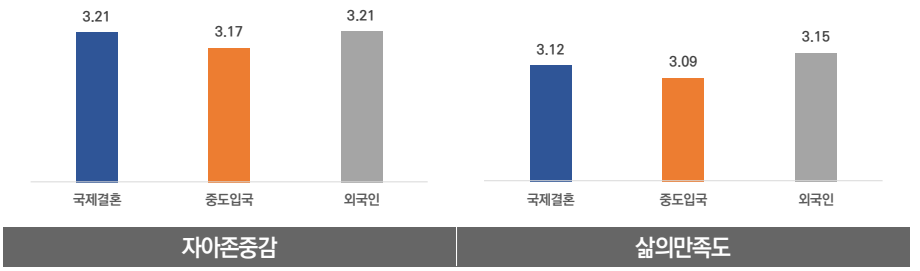


그림 Ⅴ-4. 심리사회 적응(전체)

가. 자아존중감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 요인에서는 지역규모,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중소도시의 거주보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 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학교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다르게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한국어 및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했을 때,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했을 때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를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아존중감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유학기(년)제를 알고 있는 국제결혼과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났지만, 이러한 제도를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한 외국인가정에서 자아존중감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

았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3분위가 1분위보다 자아존중감이 높았으며,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직능수준에 따른 자아존중감의 차이는 가정의 직능수준이 3-4 수준일 때 더 높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Ⅴ-3. 자아존중감(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3.21 (0.56)	-	3.17 (0.60)	-	3.21 (0.62)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3.24 (0.57)	.864	3.29 (0.66)	2.471	3.35 (0.54)	3.533* b<a
		중소도시[b]	3.19 (0.55)		3.10 (0.54)		3.14 (0.65)	
		읍·면지역[c]	3.21 (0.58)		2.92 (0.56)		3.24 (0.46)	
	학교밖 도움	있음	3.27 (0.56)	4.273***	3.24 (0.62)	1.585	3.30 (0.59)	2.967**
		없음	3.14 (0.55)		3.07 (0.57)		3.07 (0.64)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3.21 (0.56)	.257	3.11 (0.60)	.634	3.15 (0.64)	1.289
		반반 사용[b]	3.22 (0.53)		3.16 (0.62)		3.26 (0.53)	
		어머니 나라말[c]	3.13 (0.54)		3.29 (0.63)		3.28 (0.66)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3.21 (0.55)	.992	3.16 (0.63)	1.971	3.16 (0.65)	2.234
		들어봤지만, 잘 모름[b]	3.19 (0.57)		3.08 (0.50)		3.34 (0.57)	
		들어봤고, 제도를 앎[c]	3.26 (0.60)		3.40 (0.66)		3.20 (0.48)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17 (0.55)	3.340* a<c	3.07 (0.63)	1.115	3.15 (0.71)	.974
		2분위[b]	3.23 (0.55)		3.21 (0.68)		3.21 (0.55)	
		3분위[c]	3.29 (0.58)		3.24 (0.40)		3.31 (0.54)	
		4-5분위[d]	3.31 (0.66)		3.36 (0.70)		3.31 (0.63)	
	직능 수준	1직능[a]	3.21 (0.55)	.547	3.11 (0.52)	.045	3.15 (0.60)	.272
		2직능[b]	3.20 (0.56)		3.17 (0.61)		3.20 (0.62)	
		3-4직능[c]	3.24 (0.57)		3.17 (0.63)		3.25 (0.63)	

*p<.05, **p<.01, ***p<.001

나. 삶의만족도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삶의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 지역 요인에서는 지역규모,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부모 요인에서는 자유학기(년)제 인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삶의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의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중소도시와 읍·면지역 거주보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삶의만족도가 더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보다 삶의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에서는 학교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삶의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라 삶의만족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국제결혼과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했을 때,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한국어 및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했을 때 삶의만족도가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삶의만족도에 차이가 있었다. 부모가 자유학기(년)제 제도를 들어봤지만, 잘 모른다고 응답한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이 자유학기(년)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삶의만족도가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삶의만족도가 높았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2분위와 3분위일 때 1분위일 때보다 삶의만족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직능수준에 따른 삶의만족도 차이는 가정의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삶의만족도가 높았지만,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4. 삶의만족도(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3.12 (0.58)	-	3.09 (0.62)	-	3.15 (0.66)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3.13 (0.58)	.360	3.27 (0.68)	5.845** b,c<a	3.27 (0.60)	2.298
		중소도시[b]	3.11 (0.56)		2.98 (0.55)		3.10 (0.69)	
		읍·면지역[c]	3.13 (0.62)		2.67 (0.40)		2.95 (0.49)	
	학교밖 도움	있음	3.19 (0.58)	5.131***	3.15 (0.67)	1.425	3.19 (0.66)	1.151
		없음	3.03 (0.57)		3.00 (0.54)		3.09 (0.67)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3.11 (0.57)	.083	3.10 (0.62)	.099	3.06 (0.72)	2.525
		반반 사용[b]	3.13 (0.64)		3.04 (0.65)		3.25 (0.51)	
		어머니 나라말[c]	3.15 (0.53)		3.10 (0.68)		3.23 (0.66)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3.11 (0.57)	.353	3.09 (0.63)	.399	3.08 (0.68)	3.544* a<b
		들어봤지만, 잘 모름[b]	3.12 (0.59)		3.03 (0.65)		3.32 (0.62)	
		들어봤고, 제도를 앎[c]	3.15 (0.60)		3.18 (0.57)		3.15 (0.60)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06 (0.57)	4.684** a<b,c	2.91 (0.65)	2.923*	3.06 (0.73)	1.785
		2분위[b]	3.16 (0.57)		3.21 (0.61)		3.13 (0.64)	
		3분위[c]	3.18 (0.60)		3.21 (0.53)		3.28 (0.57)	
		4-5분위[d]	3.24 (0.66)		3.28 (0.66)		3.35 (0.67)	
	직능 수준	1직능[a]	3.11 (0.62)	1.373	2.92 (0.70)	.404	3.12 (0.62)	.476
		2직능[b]	3.11 (0.57)		3.09 (0.58)		3.13 (0.67)	
		3-4직능[c]	3.17 (0.60)		3.07 (0.70)		3.23 (0.66)	

*p<.05, **p<.01, ***p<.001

② 심리사회 적응: 정서문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의 정서문제를 알아보고자 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 사회적고립(외로움), 현재 걱정거리를 분석하였다. 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은 각각 3문항, 사회적고립(외로움)은 4문항, 현재 걱정거리는 15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정서문제가 다문화청소년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심리사회 적응의 정서문제를 비교한 결과, 공격성에서는 중도입국가정 1.87점,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각각 1.85점으로 유사한 평균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28, p=.972). 사회적위축에서는

국제결혼가정 2.21점, 외국인가정 2.14점, 중도입국가정 2.13점 순으로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위축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들 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332, p=.264).

우울에서는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이 각각 1.57점, 중도입국가정 1.55점으로 유사한 평균값을 보이고 있었으며, 세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099, p=.906). 사회적고립(외로움)에서는 중도입국가정 1.43점, 국제결혼가정 1.36점, 외국인가정 1.32점 순으로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고립(외로움)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이들 세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602, p=.202).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의 정서문제에서는 공격성, 우울, 사회적고립(외로움)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었지만, 사회적위축은 다문화청소년의 모든 유형에서 2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사회적위축을 나타내고 있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사회성 향상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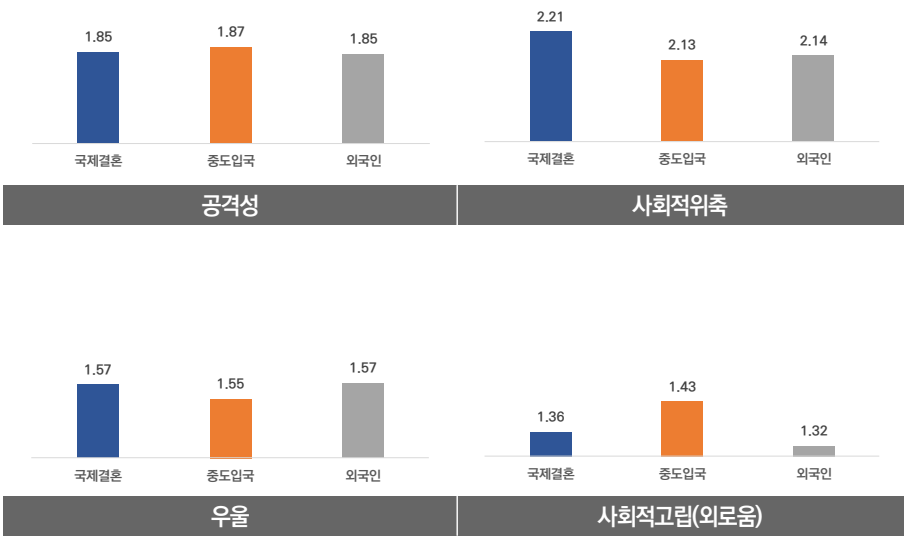


그림 V-5. 심리사회 적응: 정서문제(전체)

다음으로 현재 걱정거리를 살펴보았다. 학교나 친구와 관련한 현재 걱정거리를 비교한 결과, 공부·성적문제는 국제결혼가정이 2.82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도입국가정 2.80점, 외국인가정 2.77점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 집단 간 공부, 성적문제는 차이가 없었다. 이와 더불어 학교생활문제, 친구와의 문제도 세 집단 간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이성친구와의 문제에서는 국제결혼가정 1.73점, 외국인가정 1.64점, 중도입국가정 1.61점의 순으로 유형 간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절대적인 수치로 비교했을 때,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다문화청소년은 현재 학교 및 친구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공부·성적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성친구와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걱정하는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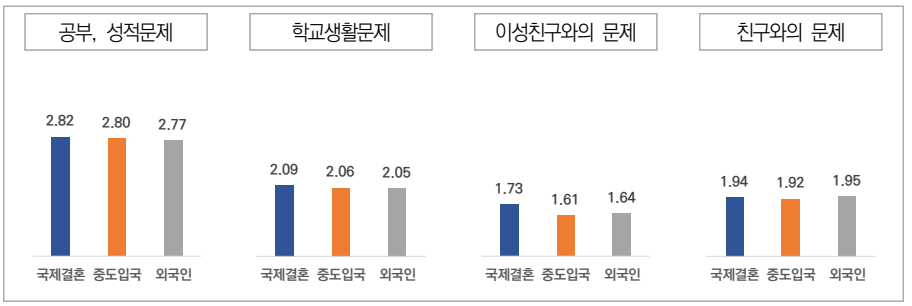


그림 Ⅴ-6. 현재 걱정거리: 학교나 친구 문제

가정 형편 및 갈등에 대한 걱정수준을 비교한 결과,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서 국제결혼가정이 2.1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중도입국가정 2.07점, 외국인가정 2.02점 순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세 집단 간 가정의 경제적 형편에 관한 걱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부모님 사이의 불화에 대한 걱정은 전반적으로 2점 이하의 평균 점수를 보여 높은 수준은 아니었다. 다만, 국제결혼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이 1.87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도입국가정 1.72점, 외국인가정 1.62점 순으로 나타나 세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가정 내 부모님과 더불어 형제·자매와의 갈등에 대해 걱정하는 정도에서도 세 유형 모두에서 2점 이하로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내고 있었는데,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즉, 다문화청소년이 가정 형편 및 갈등에 대해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은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며,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다른 두 유형보다 가정 형편이나 가족 내 갈등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걱정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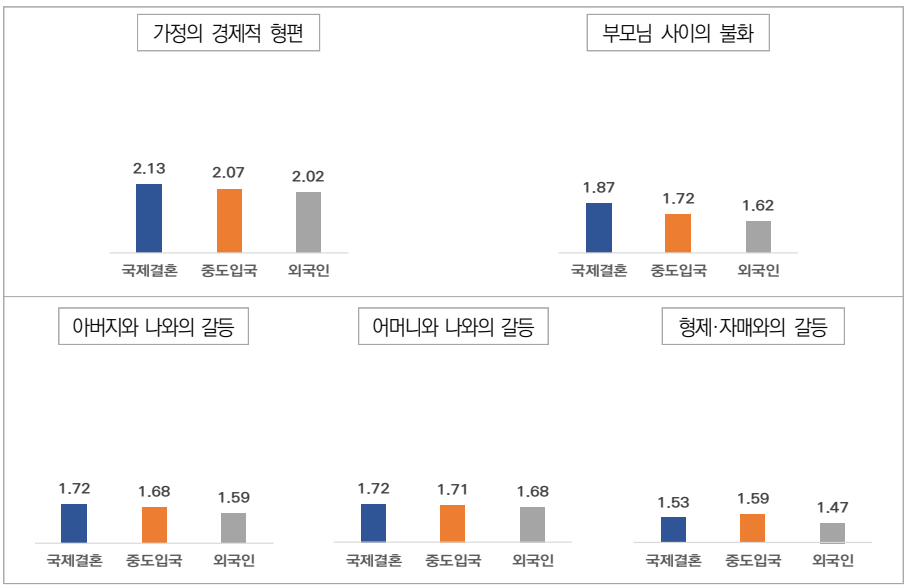


그림 Ⅴ-7. 현재 걱정거리: 가정 형편 및 갈등

개인 문제를 비교한 결과, 모든 항목에서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응답결과가 1.88~1.99점 사이로 2점대 이하의 낮은 평균 점수를 나타냈으며,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차이도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부·성적이나 학교생활, 가정의 경제적 형편과 같은 문제들에 비해 자신의 성격이나 외모, 건강에 대해서는 비교적 걱정하지 않는 편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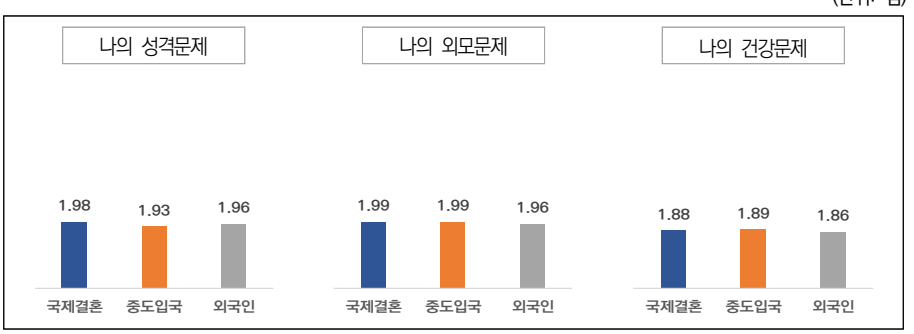


그림 Ⅴ-8. 현재 걱정거리: 개인 문제

진로 문제 및 불안감을 비교한 결과, 진학 및 진로 문제에서 중도입국가정이 2.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제결혼가정 2.63점, 외국인가정 2.58점이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는 중도입국가정이 2.3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제결혼가정 2.26점, 외국인가정 2.20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다른 두 집단의 청소년보다 자신의 진학과 진로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수준이 높았으며, 현재 이에 대해 다른 집단 보다 더 많이 걱정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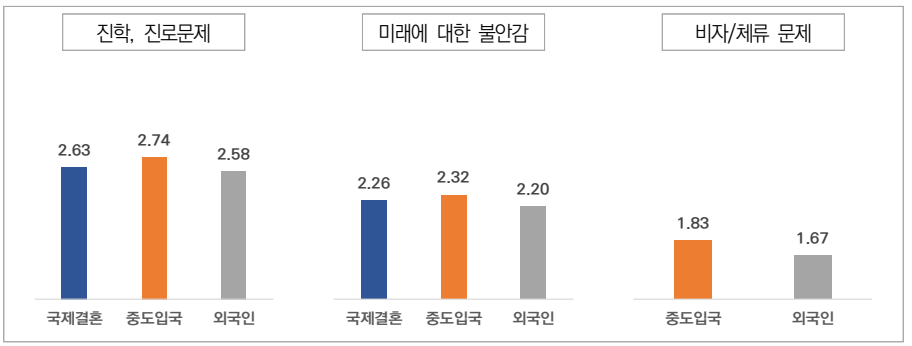


그림 V-9. 현재 걱정거리: 진로 문제 및 불안감

가. 공격성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공격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 요인에서는 지역규모,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에 따라 공격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는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공격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공격성이 더 높았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은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보다 공격성이 높았지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라 공격성이 차이가 있었다. 특히,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했을 때보다 공격성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공격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공격성의 차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V-5. 공격성(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85 (0.70)	-	1.87 (0.59)	-	1.85 (0.67)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1.84 (0.69)	1.932	1.85 (0.61)	.417	1.77 (0.67)	3.170* c<a
		중소도시[b]	1.89 (0.72)		1.90 (0.59)		1.91 (0.67)	
		읍·면지역[c]	1.79 (0.68)		1.71 (0.45)		1.38 (0.49)	
	학교밖 도움	있음	1.87 (0.71)	.873	1.81 (0.57)	-1.402	1.84 (0.62)	-.196
		없음	1.84 (0.70)		1.95 (0.61)		1.86 (0.76)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85 (0.70)	.960	1.82 (0.60)	.869	1.96 (0.66)	
		반반 사용[b]	1.86 (0.71)		1.78 (0.60)		1.77 (0.69)	
		어머니 나라말[c]	2.04 (0.70)		1.98 (0.49)		1.71 (0.66)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1.85 (0.71)	1.870	1.89 (0.56)	.692	1.85 (0.70)	.038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82 (0.71)		1.87 (0.61)		1.86 (0.59)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95 (0.67)		1.72 (0.62)		1.82 (0.76)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87 (0.70)	2.368	1.81 (0.56)	.576	1.82 (0.75)	.917
		2분위[b]	1.80 (0.72)		1.96 (0.57)		1.81 (0.62)	
		3분위[c]	1.93 (0.72)		1.88 (0.63)		1.90 (0.64)	
		4-5분위[d]	1.71 (0.49)		1.75 (0.64)		2.08 (0.64)	
	직능 수준	1직능[a]	1.80 (0.66)	.961	1.53 (0.50)	2.034	1.80 (0.58)	.923
		2직능[b]	1.85 (0.71)		1.88 (0.54)		1.89 (0.68)	
		3-4직능[c]	1.90 (0.72)		1.88 (0.65)		1.76 (0.70)	

*p<.05

나. 사회적위축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위축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 요인에서는 지역규모,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자유학기(년)제 인지에 따라 사회적위축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는 작은 규모의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중소도시나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과 비교하여 사회적으로 더욱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큰 규모의 지역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사회적위축 정도가 더 높았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은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보다 사회적위축이 높았지만,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라 사회적위축이 차이가 있었다. 특히,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했을 때보다 사회적위축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에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 사회적위축이 가장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더불어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위축의 차이가 있었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부모가 자유학기(년)제를 들어보았지만 잘 모른다고 했을 때, 자유학기(년)제를 모른다는 부모보다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위축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처럼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의 의사소통 언어에 따라, 부모의 학업적 관심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 사회적위축이 차이를 보이며, 부모와의 관련성이 그들의 내외적 갈등으로 이어지고 문제행동으로 발현되면서 사회적위축이 나타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내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위축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 우울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에 따라 우울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는 작은 규모의 지역보다 큰 규모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의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을수록 우울의 수준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하여 대화할 때 우울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반면에 국제결혼가정은 외국인가정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보다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하여 대화할 때 우울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울의 차이가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내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우울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청소년이 어머니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심리적으로 동기, 관심, 의욕 등이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으며, 언어 장벽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정신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할 때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쌓이고 심리적 저항의 형성은 상실감과 무기력에 빠질 수 있으며, 이들의 언어적 한계가 심리적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Ⅴ-6. 사회적위축(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21 (0.79)	-	2.13 (0.70)	-	2.14 (0.76)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2.10 (0.80)	10.412*** a,b<c	2.02 (0.62)	1.254	1.98 (0.75)	3.587*
		중소도시[b]	2.21 (0.76)		2.22 (0.74)		2.22 (0.76)	
		읍·면지역[c]	2.38 (0.81)		2.08 (0.79)		2.48 (0.69)	
	학교밖 도움	있음	2.22 (0.76)	.603	2.11 (0.73)	-.375	2.12 (0.73)	-.519
		없음	2.20 (0.82)		2.16 (0.66)		2.17 (0.81)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19 (0.79)	3.045*	2.02 (0.69)	1.204	2.28 (0.75)	4.578* c<a
		반반 사용[b]	2.34 (0.78)		2.09 (0.61)		2.08 (0.70)	
		어머니 나라말[c]	2.37 (0.59)		2.29 (0.79)		1.95 (0.80)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17 (0.80)	3.102* a<b	2.11 (0.74)	.946	2.13 (0.78)	.237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30 (0.76)		2.22 (0.65)		2.19 (0.70)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21 (0.76)		1.97 (0.63)		2.10 (0.83)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24 (0.79)	1.411	2.12 (0.79)	.192	2.12 (0.86)	1.933
		2분위[b]	2.18 (0.82)		2.13 (0.54)		2.11 (0.69)	
		3분위[c]	2.14 (0.74)		2.07 (0.69)		2.12 (0.70)	
		4-5분위[d]	2.33 (0.68)		2.25 (0.68)		2.58 (0.67)	
	직능 수준	1직능[a]	2.20 (0.83)	.018	2.22 (0.59)	.231	2.07 (0.72)	1.199
		2직능[b]	2.21 (0.78)		2.13 (0.69)		2.20 (0.78)	
		3-4직능[c]	2.21 (0.79)		2.07 (0.74)		2.03 (0.70)	

*p<.05, ***p<.001

표 V-7. 우울(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57 (0.58)	-	1.55 (0.52)	-	1.57 (0.60)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1.54 (0.57)	.928	1.44 (0.50)	2.361	1.53 (0.55)	.805
		중소도시[b]	1.59 (0.59)		1.61 (0.52)		1.60 (0.63)	
		읍·면지역[c]	1.57 (0.56)		1.75 (0.63)		1.37 (0.51)	
	학교밖 도움	있음	1.56 (0.56)	-.945	1.48 (0.48)	-1.842	1.53 (0.54)	-1.310
		없음	1.58 (0.60)		1.64 (0.56)		1.64 (0.68)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55 (0.57)	7.378** a<b	1.53 (0.50)	.057	1.69 (0.64)	4.910** b<a
		반반 사용[b]	1.73 (0.63)		1.55 (0.58)		1.44 (0.51)	
		어머니 나라말[c]	1.65 (0.56)		1.50 (0.44)		1.47 (0.57)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1.56 (0.58)	.214	1.54 (0.53)	.128	1.60 (0.65)	.586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59 (0.60)		1.56 (0.54)		1.52 (0.52)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57 (0.56)		1.49 (0.48)		1.52 (0.51)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60 (0.56)	2.236	1.57 (0.59)	.361	1.61 (0.68)	1.081
		2분위[b]	1.52 (0.58)		1.58 (0.53)		1.58 (0.54)	
		3분위[c]	1.59 (0.63)		1.48 (0.37)		1.46 (0.57)	
		4-5분위[d]	1.47 (0.52)		1.45 (0.55)		1.71 (0.51)	
	직능 수준	1직능[a]	1.58 (0.58)	.488	1.48 (0.50)	.189	1.46 (0.56)	1.514
		2직능[b]	1.56 (0.57)		1.57 (0.54)		1.62 (0.62)	
		3-4직능[c]	1.60 (0.61)		1.53 (0.51)		1.49 (0.53)	

**$p<.01$

라. 현재 걱정거리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현재 걱정거리 차이를 살펴보았으며, 분석결과 가운데 여기서는 앞서 다문화청소년이 현재 가장 걱정한다고 응답한 항목 중 공부와 성적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 외 분석결과는 〈부록 8〉에 제시하였다.

공부와 성적문제에 대해서는 지역 요인 중 지역규모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보다 공부와 성적문제에 대한 걱정 수준이 높았다. 특히,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과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그

외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비해 공부와 성적문제를 더 많이 걱정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의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은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보다 공부와 성적문제에서 걱정 수준이 높았으며, 특히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및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공부 및 성적문제에 대한 걱정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내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공부 및 성적문제의 걱정 수준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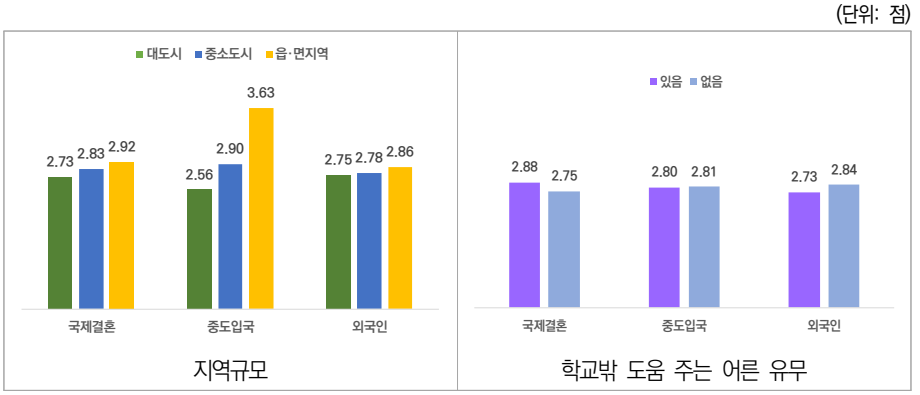


그림 Ⅴ-10. 현재 걱정거리: 공부, 성적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걱정에서는 지역 요인 중 지역규모에서는 읍·면지역이나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걱정 수준이 높았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수준은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중소도시, 대도시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대도시 거주보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와는 다르게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의 도움을 주는 어른의 유무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언어 및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직능수준에 따라 미래의 불안감에 대한 걱정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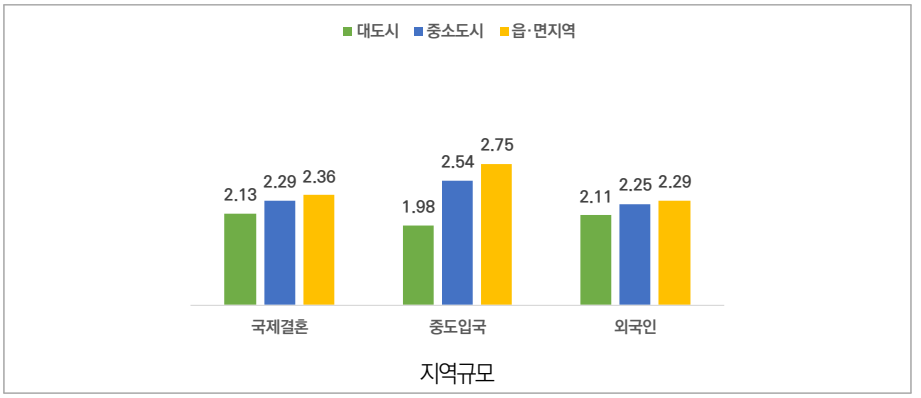


그림 V-11. 현재 걱정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

마. 사회적고립(외로움)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고립(외로움)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 요인에서는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에 따라 사회적고립(외로움)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는 큰 규모의 지역보다 작은 규모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고립(외로움)이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반면에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은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보다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 가능성이 더 컸다. 특히, 외국인가정에서는 이러한 경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즉, 다른 유형의 청소년에 비해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에게는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의 존재가 더욱 일종의 사회적 지지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라 사회적고립(외로움)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한국어로 대화할 때보다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하여 대화할 때 사회적고립(외로움)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상당수가

한국어를 주된 언어로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 나라말로 완전히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아닌, 어머니 나라말을 일정 수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소통 장벽이 있는 상황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나아가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에서의 의사소통 제약이 다른 사회적 관계로 확대돼 스스로를 단절하고 고립시키는 위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므로 다문화가정의 특수성으로 비롯될 수 있는 사회적 고립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관여가 필요하다.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사회적고립(외로움)의 차이가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 내 직능수준이 낮을수록 사회적고립(외로움)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Ⅴ-8. 사회적고립(외로움)(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36 (0.56)	-	1.43 (0.64)	-	1.32 (0.52)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1.36 (0.56)	.385	1.34 (0.62)	1.000	1.29 (0.50)	.388
		중소도시[b]	1.36 (0.57)		1.50 (0.64)		1.34 (0.52)	
		읍·면지역[c]	1.33 (0.52)		1.47 (0.75)		1.32 (0.75)	
	학교밖 도움	있음	1.34 (0.55)	-1.013	1.42 (0.67)	-.169	1.27 (0.47)	-2.000*
		없음	1.37 (0.57)		1.44 (0.61)		1.41 (0.59)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34 (0.54)	3.274* a<b	1.42 (0.61)	.510	1.37 (0.55)	1.050
		반반 사용[b]	1.46 (0.67)		1.39 (0.68)		1.27 (0.41)	
		어머니 나라말[c]	1.36 (0.57)		1.56 (0.70)		1.29 (0.55)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1.36 (0.56)	.052	1.51 (0.72)	2.283	1.35 (0.50)	.606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36 (0.56)		1.39 (0.52)		1.31 (0.57)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35 (0.55)		1.18 (0.45)		1.23 (0.48)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37 (0.55)	1.078	1.59 (0.73)	2.519	1.37 (0.58)	.820
		2분위[b]	1.36 (0.57)		1.29 (0.44)		1.29 (0.47)	
		3분위[c]	1.30 (0.52)		1.30 (0.57)		1.27 (0.45)	
		4-5분위[d]	1.29 (0.60)		1.29 (0.57)		1.44 (0.62)	
	직능 수준	1직능[a]	1.38 (0.60)	.202	1.42 (0.47)	.019	1.31 (0.60)	.033
		2직능[b]	1.36 (0.55)		1.43 (0.63)		1.33 (0.52)	
		3-4직능[c]	1.34 (0.56)		1.45 (0.72)		1.32 (0.51)	

*p<.05

③ 다문화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관련 심리·정서를 알아보고자 문화적응스트레스, 국가정체성, 이중문화수용태도,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을 분석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8문항), 국가정체성(4문항), 이중문화수용태도(10문항: 한국문화 5문항, 외국인 부모님의 나라 문화 5문항)은 4점 척도로,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2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된 문항으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이러한 다문화 관련 심리·정서가 다문화청소년 집단 간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다문화 관련 심리·정서를 비교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외국인가정이 1.39점으로 중도입국가정 1.35점보다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849, p=.396). 국가정체성에서는 국제결혼과 중도입국가정이 각각 2.75점, 외국인가정 2.62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이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더 높았으며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F=.4.525, p<.05). 다음으로 이중문화수용태도에서는 중도입국가정 2.89점, 국제결혼가정 2.87점, 외국인가정 2.86점의 순으로 유사한 평균값을 보였으며, 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12, p=.809).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국제결혼가정 3.47점, 중도입국가정 3.44점, 외국인가정 3.40점 순으로 높은 수준의 평균값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들 세 집단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326, p=.266).

상기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관련 심리·정서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낮은 수준을, 국가정체성 및 이중문화수용태도,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은 높은 수준을 형성하고 있었다. 특히,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가장 높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었으며, 이들은 한국 사람들이 문화적 배경이 다른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지닌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문화를 받아들이고 긍정적으로 다문화를 수용한다고 인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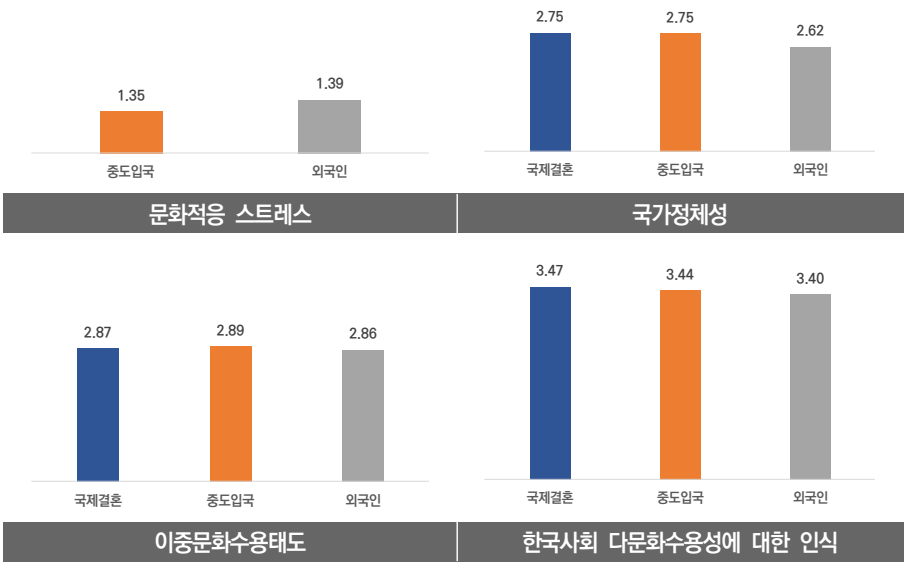


그림 V-12. 다문화(전체)

가. 문화적응스트레스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차이를 살펴보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외국에서 출생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연구에서는 중도입국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이 해당한다. 분석결과, 지역 요인에서 지역규모와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는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에 차이를 보였다. 특히,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집단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더 높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보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및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정 내 직능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른 문화적응스트레스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Ⅴ-9. 문화적응스트레스(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전체			1.35 (0.41)	-	1.39 (0.43)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1.24 (0.32)	3.351* a<b	1.30 (0.42)	2.597
		중소도시[b]	1.43 (0.45)		1.42 (0.44)	
		읍·면지역[c]	1.36 (0.46)		1.67 (0.40)	
	학교밖 도움	있음	1.29 (0.36)	-2.028*	1.34 (0.41)	-1.773
		없음	1.43 (0.45)		1.46 (0.47)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30 (0.42)	.966	1.34 (0.43)	.746
		반반 사용[b]	1.38 (0.40)		1.39 (0.45)	
		어머니 나라말[c]	1.43 (0.44)		1.44 (0.43)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1.38 (0.45)	1.011	1.39 (0.42)	.461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35 (0.35)		1.42 (0.47)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23 (0.33)		1.30 (0.45)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35 (0.38)	.933	1.42 (0.47)	.523
		2분위[b]	1.35 (0.48)		1.36 (0.40)	
		3분위[c]	1.28 (0.36)		1.39 (0.44)	
		4-5분위[d]	1.51 (0.46)		1.24 (0.37)	
	직능 수준	1직능[a]	1.45 (0.65)	.772	1.33 (0.33)	.358
		2직능[b]	1.37 (0.38)		1.41 (0.46)	
		3-4직능[c]	1.30 (0.37)		1.35 (0.39)	

*$p<.05$

나. 국가정체성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 요인에서 지역규모와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 유무에 따라 국가정체성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 가운데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 대도시에 거주하는 집단이

중소도시 거주하는 집단보다 국가정체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이와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보다 국가정체성이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언어와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의 수준이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 국가정체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또한,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정 내 직능수준이 높고 낮음에 따라 국가정체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다.

표 V-10. 국가정체성(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75 (0.68)	-	2.75 (0.72)	-	2.62 (0.72)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2.77 (0.75)	.217	2.63 (0.86)	1.534	2.77 (0.65)	4.231* b<a
		중소도시[b]	2.74 (0.64)		2.85 (0.59)		2.55 (0.75)	
		읍·면지역[c]	2.75 (0.67)		2.75 (0.50)		2.19 (0.33)	
	학교밖 도움	있음	2.82 (0.67)	3.937***	2.88 (0.74)	2.579*	2.74 (0.70)	3.665***
		없음	2.68 (0.68)		2.57 (0.65)		2.41 (0.71)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77 (0.68)	1.906	2.78 (0.80)	.546	2.66 (0.73)	.955
		반반 사용[b]	2.66 (0.66)		2.72 (0.68)		2.65 (0.75)	
		어머니 나라말[c]	2.72 (0.54)		2.59 (0.64)		2.52 (0.66)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75 (0.69)	.158	2.79 (0.68)	1.057	2.59 (0.74)	.307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76 (0.66)		2.77 (0.72)		2.67 (0.65)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78 (0.68)		2.53 (0.85)		2.61 (0.77)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73 (0.64)	.750	2.73 (0.73)	.881	2.56 (0.76)	.303
		2분위[b]	2.78 (0.72)		2.89 (0.75)		2.64 (0.72)	
		3분위[c]	2.79 (0.70)		2.61 (0.67)		2.65 (0.64)	
		4-5분위[d]	2.78 (0.66)		2.83 (0.72)		2.67 (0.77)	
	직능 수준	1직능[a]	2.76 (0.68)	.245	2.83 (0.78)	.512	2.50 (0.83)	.787
		2직능[b]	2.76 (0.66)		2.78 (0.68)		2.66 (0.70)	
		3-4직능[c]	2.73 (0.72)		2.65 (0.79)		2.57 (0.72)	

*p<.05, ***p<.001

다. 이중문화수용태도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 요인에서는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는 큰 규모의 지역에 거주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에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보다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았다. 특히,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학교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을 때 그렇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보다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라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주로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때 보다 한국어 및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했을 때 이중문화수용태도가 유의미하게 높았다.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어머니와 주로 한국말로 대화할 때에 비해, 주로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하는 경우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반면에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았다. 특히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4분위가 가장 높은 이중문화수용태도를 보였다. 가정 내 직능수준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는 그들이 속한 가정,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으며, 가정 내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의 언어를 통해 타문화를 경험하고, 지역사회에서는 관계망을 형성하면서 두 문화를 접하고 교류하면서 이중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형성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표 V-11. 이중문화수용태도(전체)(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87 (0.39)	-	2.89 (0.44)	-	2.86 (0.43)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2.85 (0.41)	2.162	2.89 (0.52)	.528	2.93 (0.39)	1.861
		중소도시[b]	2.87 (0.37)		2.91 (0.38)		2.82 (0.44)	
		읍·면지역[c]	2.91 (0.40)		2.74 (0.30)		2.86 (0.39)	
	학교밖 도움	있음	2.92 (0.38)	5.510***	2.94 (0.47)	1.683	2.95 (0.41)	4.701***
		없음	2.81 (0.38)		2.82 (0.39)		2.71 (0.41)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85 (0.38)	9.662*** a<b	2.86 (0.48)	.475	2.79 (0.40)	4.714* a<c
		반반 사용[b]	2.99 (0.41)		2.95 (0.35)		2.90 (0.50)	
		어머니 나라말[c]	2.93 (0.40)		2.86 (0.50)		2.97 (0.38)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86 (0.39)	1.759	2.87 (0.43)	.361	2.83 (0.41)	1.714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89 (0.39)		2.90 (0.47)		2.94 (0.44)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91 (0.39)		2.97 (0.43)		2.84 (0.45)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84 (0.37)	4.658**	2.86 (0.43)	.818	2.88 (0.42)	.716
		2분위[b]	2.90 (0.41)		2.88 (0.49)		2.81 (0.48)	
		3분위[c]	2.91 (0.39)		2.90 (0.43)		2.91 (0.35)	
		4-5분위[d]	3.00 (0.34)		3.08 (0.42)		2.88 (0.34)	
	직능 수준	1직능[a]	2.83 (0.34)	2.025	2.84 (0.28)	.062	2.86 (0.39)	.069
		2직능[b]	2.87 (0.39)		2.89 (0.44)		2.85 (0.41)	
		3-4직능[c]	2.91 (0.39)		2.89 (0.51)		2.88 (0.49)	

*p<.05, **p<.01, ***p<.001

이중문화수용태도를 한국문화와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로 구분하여 문화수용태도를 확인하였다. 우선, 한국문화수용태도를 분석한 결과 지역 요인에서는 지역규모와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라 한국문화수용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가 작은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보다 한국문화 수용의 태도가 더 높았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보다 한국문화수용태도가 더

높았다.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가 높았는데,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4분위일 때, 한국문화수용태도가 가장 높았다.

표 V-12. 이중문화수용태도(한국문화)(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3.26 (0.46)	-	3.18 (0.54)	-	3.21 (0.50)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3.27 (0.50)	3.096* b⟨c	3.18 (0.66)	.375	3.30 (0.46)	2.383
		중소도시[b]	3.23 (0.45)		3.20 (0.44)		3.16 (0.52)	
		읍·면지역[c]	3.31 (0.44)		3.03 (0.43)		3.23 (0.29)	
	학교밖 도움	있음	3.31 (0.44)	5.256***	3.29 (0.56)	2.893**	3.31 (0.50)	4.080***
		없음	3.19 (0.47)		3.03 (0.47)		3.06 (0.46)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3.26 (0.46)	.774	3.25 (0.55)	1.865	3.26 (0.48)	.941
		반반 사용[b]	3.25 (0.46)		3.13 (0.52)		3.16 (0.51)	
		어머니 나라말[c]	3.14 (0.48)		2.99 (0.59)		3.20 (0.48)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3.26 (0.46)	.260	3.19 (0.55)	1.065	3.19 (0.50)	1.831
		들어봤지만, 잘 모름[b]	3.24 (0.47)		3.24 (0.49)		3.30 (0.45)	
		들어봤고, 제도를 앎[c]	3.27 (0.46)		3.03 (0.60)		3.11 (0.60)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22 (0.44)	3.546*	3.18 (0.47)	.282	3.21 (0.53)	.256
		2분위[b]	3.28 (0.47)		3.24 (0.70)		3.23 (0.50)	
		3분위[c]	3.31 (0.47)		3.12 (0.53)		3.17 (0.46)	
		4-5분위[d]	3.34 (0.47)		3.23 (0.47)		3.28 (0.43)	
	직능 수준	1직능[a]	3.28 (0.44)	.372	3.40 (0.43)	1.036	3.28 (0.44)	.351
		2직능[b]	3.25 (0.46)		3.16 (0.56)		3.21 (0.46)	
		3-4직능[c]	3.27 (0.45)		3.16 (0.55)		3.18 (0.65)	

*p⟨.05, ***p⟨.001

다음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를 분석한 결과, 지역 요인에서는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자유학기년(제) 인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직능수준에 따라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국제결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보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수용태도가 더 높았다. 부모요인에서 외국인 어머니와 소통하는 언어에 따른 이중문화수용태도 차이가 있었는데,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하여 대화하거나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하는 다문화청소년은 대체로 한국말로 대화하는 다문화청소년보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가 더 높았다. 또한, 국제결혼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자유학기(년)제를 들어보았지만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가 자유학기(년)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부모의 자녀보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가 더 높았다. 아울러, 국제결혼가정에서는 가정 내 직능수준이 3~4직능수준인 다문화청소년이 1직능수준 가정의 다문화청소년보다 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수용태도가 높았다.

표 V-13. 이중문화수용태도(외국인 부모님 나라문화)(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49 (0.54)	-	2.60 (0.60)	-	2.51 (0.57)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2.43 (0.57)	2.965	2.59 (0.69)	.269	2.56 (0.53)	.470
		중소도시[b]	2.51 (0.51)		2.61 (0.53)		2.49 (0.60)	
		읍·면지역[c]	2.51 (0.56)		2.45 (0.52)		2.49 (0.60)	
	학교밖 도움	있음	2.53 (0.54)	3.390**	2.59 (0.66)	-.016	2.60 (0.56)	3.322**
		없음	2.43 (0.54)		2.60 (0.51)		2.36 (0.57)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45 (0.53)	23.158*** a<b,c	2.46 (0.64)	3.296*	2.32 (0.54)	16.823*** a<b,c
		반반 사용[b]	2.73 (0.53)		2.76 (0.59)		2.65 (0.62)	
		어머니 나라말[c]	2.71 (0.48)		2.72 (0.48)		2.75 (0.45)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45 (0.52)	4.215* a<b	2.55 (0.51)	3.042	2.47 (0.56)	1.090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54 (0.56)		2.55 (0.73)		2.58 (0.60)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55 (0.57)		2.90 (0.54)		2.56 (0.60)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46 (0.51)	2.526	2.54 (0.61)	1.769	2.55 (0.57)	2.499
		2분위[b]	2.51 (0.58)		2.52 (0.57)		2.40 (0.62)	
		3분위[c]	2.51 (0.55)		2.68 (0.60)		2.65 (0.44)	
		4-5분위[d]	2.67 (0.56)		2.92 (0.56)		2.48 (0.61)	
	직능 수준	1직능[a]	2.39 (0.51)	4.211* a<c	2.28 (0.45)	1.681	2.44 (0.61)	.627
		2직능[b]	2.49 (0.54)		2.62 (0.56)		2.50 (0.55)	
		3-4직능[c]	2.55 (0.54)		2.62 (0.72)		2.58 (0.60)	

*p<.05, **p<.01, ***p<.001

라.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이 바라보는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 요인에서는 지역규모,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부모 요인에서는 자유학기(년)제 인식 따라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중소도시 거주보다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국제결혼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보다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을 높게 인식하였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라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었는데,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하여 대화할 때, 중도입국가정은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할 때, 외국인가정은 한국말로 대화할 때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한국사회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국제결혼가정에서 나타났다. 특히, 부모가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한 집단과 비교하여, 들어봤지만 이 제도를 잘 모른다고 응답한 집단에서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더 긍정적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과 가정 내 직능수준에 따른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은 국제결혼가정에서 그 차이가 두드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V-14.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3.47 (0.73)	-	3.44 (0.74)	-	3.40 (0.67)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3.47 (0.76)	6.023** b<c	3.49 (0.79)	.261	3.42 (0.74)	.120
		중소도시[b]	3.43 (0.71)		3.40 (0.73)		3.38 (0.63)	
		읍·면지역[c]	3.61 (0.72)		3.44 (0.42)		3.43 (0.61)	
	학교밖 도움	있음	3.55 (0.71)	4.500***	3.44 (0.76)	.093	3.43 (0.68)	1.103
		없음	3.38 (0.74)		3.43 (0.72)		3.34 (0.64)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3.47 (0.73)	2.073	3.48 (0.86)	.924	3.47 (0.69)	1.362
		반반 사용[b]	3.58 (0.76)		3.33 (0.61)		3.35 (0.62)	
		어머니 나라말[c]	3.36 (0.76)		3.62 (0.65)		3.32 (0.64)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3.44 (0.71)	3.850* a<b	3.40 (0.80)	.180	3.38 (0.65)	1.023
		들어봤지만, 잘 모름[b]	3.57 (0.75)		3.48 (0.66)		3.48 (0.69)	
		들어봤고, 제도를 앎[c]	3.46 (0.79)		3.48 (0.72)		3.29 (0.73)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49 (0.72)	.349	3.36 (0.77)	.433	3.45 (0.73)	.410
		2분위[b]	3.48 (0.78)		3.52 (0.84)		3.37 (0.68)	
		3분위[c]	3.43 (0.67)		3.45 (0.63)		3.34 (0.59)	
		4-5분위[d]	3.43 (0.77)		3.54 (0.66)		3.44 (0.48)	
	직능 수준	1직능[a]	3.46 (0.76)	.533	3.58 (0.87)	.678	3.46 (0.64)	.792
		2직능[b]	3.46 (0.73)		3.39 (0.75)		3.41 (0.65)	
		3-4직능[c]	3.51 (0.72)		3.54 (0.72)		3.29 (0.74)	

*p<.05, **p<.01, ***p<.001

(2) 진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을 알아보고자 진로태도 결정성, 진로준비역량, 상급학교 진학준비도를 분석하였다. 진로태도 결정성은 10문항, 진로준비역량은 12문항의 4점 척도로,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는 7문항의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조사되었으며, 이들 진로발달 변인이 다문화청소년 간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다문화청소년의 유형 간 진로발달을 비교한 결과, 진로태도결정성은 외국인가정 2.60점, 국제결혼 및 중도입국가정이 각각 2.52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2.361, p=.095). 다음으로 진로준비역량은 외국인가정이 2.9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국제결혼가정 2.90점, 중도입국가정 2.88점이며, 이들 세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705, p=.494). 마지막으로 상급학교 진학준비도는 중도입국가정이 3.1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국제결혼가정 3.07점, 외국인가정 3.04점 순이었으며, 이들 세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1.172, p=.310).

상기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은 진로준비역량과 상급학교 진학준비도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들이 중학교 2학년임을 고려할 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다른 두 유형보다 높은 진로태도 결정성과 진로준비역량을 지녔지만,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는 가장 낮았다. 반면에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상급학교의 진학 준비 수준이 가장 높았지만, 진로결정이나 진로준비역량이 다른 두 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청소년 유형별로 진로결정과 진학준비의 차이가 있어 나타난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차별화된 활동과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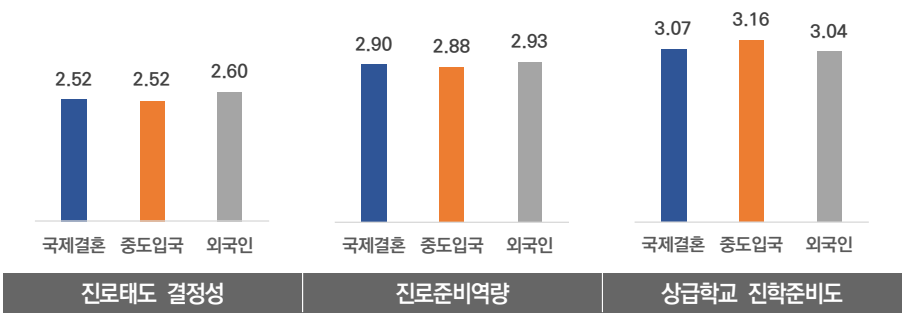


그림 Ⅴ-13. 진로(전체)

① 진로태도 결정성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진로태도 결정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규모에서는 외국인가정을 제외하고 국제결혼, 중도입국가정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이 높았지만, 이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의 유무, 외국인 어머니

와 의사소통 언어, 자유학기(년)제 인지, 월평균 가구소득, 가정 내 직능수준에 따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에도 차이가 없었다.

표 V-15. 진로태도 결정성(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52 (0.56)	-	2.52 (0.58)	-	2.60 (0.56)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2.56 (0.56)	1.129	2.60 (0.66)	.964	2.61 (0.58)	.392
		중소도시[b]	2.51 (0.55)		2.46 (0.53)		2.59 (0.54)	
		읍·면지역[c]	2.50 (0.60)		2.44 (0.40)		2.79 (0.81)	
	학교밖 도움	있음	2.55 (0.57)	1.866	2.48 (0.63)	-.960	2.60 (0.58)	-.222
		없음	2.49 (0.56)		2.57 (0.52)		2.61 (0.53)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51 (0.56)	1.282	2.47 (0.60)	.227	2.60 (0.60)	.811
		반반 사용[b]	2.59 (0.57)		2.55 (0.59)		2.55 (0.53)	
		어머니 나라말[c]	2.55 (0.62)		2.50 (0.58)		2.67 (0.51)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51 (0.55)	1.540	2.45 (0.53)	2.882	2.59 (0.53)	1.053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53 (0.58)		2.69 (0.68)		2.67 (0.60)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60 (0.60)		2.39 (0.51)		2.50 (0.62)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55 (0.55)	1.809	2.55 (0.56)	.267	2.63 (0.57)	.415
		2분위[b]	2.49 (0.57)		2.53 (0.71)		2.62 (0.55)	
		3분위[c]	2.51 (0.61)		2.44 (0.49)		2.53 (0.57)	
		4-5분위[d]	2.67 (0.50)		2.53 (0.67)		2.63 (0.54)	
	직능 수준	1직능[a]	2.55 (0.60)	2.741	2.46 (0.51)	.070	2.78 (0.57)	1.870
		2직능[b]	2.50 (0.55)		2.52 (0.60)		2.57 (0.53)	
		3-4직능[c]	2.59 (0.61)		2.53 (0.62)		2.56 (0.60)	

② 진로준비역량

배경변인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역량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요인에서는 지역규모,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부모 요인에서는 자유학기(년)제 인지 정도에 따라 진로준비역량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는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

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중소도시 거주보다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진로준비역량이 더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차이를 보였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보다 진로준비역량이 더 높았는데, 학교밖에서 도와주는 어른이 있는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도와주는 어른이 없는 다문화청소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진로준비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하는 언어에 따라 국제결혼가정에서는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할 때, 중도입국가정은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하여 대화할 때 진로준비역량이 가장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부모가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자녀의 진로준비역량이 다르게 나타났다. 부모가 자유학기(년)제를 들어봤고, 제도를 안다고 응답한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자유학기(년)제를 모른다고 응답한 부모의 자녀에 비해 진로준비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으로 더 높았다.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정의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준비역량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러한 진로준비역량의 하위요인(낙관성, 지속성, 호기심, 유연성, 도전성, 의사소통)을 배경변인에 따라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부록 8 참조). 그 결과, 학교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진로준비역량의 낙관성, 지속성, 호기심, 유연성, 도전성, 의사소통의 모든 영역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이 학교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을 때 이들의 역량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를 들어봤거나 제도를 알고 있는 경우 모른다는 경우보다 진로준비역량의 낙관성, 지속성, 호기심, 도전성, 의사소통이 높았다.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낙관성과 의사소통에서, 중도입국가정은 도전성에서, 외국인가정은 낙관성, 지속성, 호기심, 도전성이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외에도 지역규모에서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호기심, 유연성, 도전성이 더 높았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V-16. 진로준비역량(4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90 (0.47)	-	2.88 (0.45)	-	2.93 (0.49)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2.91 (0.45)	.652	2.93 (0.53)	.879	3.06 (0.46)	5.251** b<a
		중소도시[b]	2.89 (0.46)		2.85 (0.41)		2.87 (0.49)	
		읍·면지역[c]	2.92 (0.51)		2.75 (0.10)		2.82 (0.47)	
	학교밖 도움	있음	2.97 (0.45)	6.447***	2.94 (0.45)	1.909	3.04 (0.45)	4.829***
		없음	2.82 (0.48)		2.79 (0.45)		2.76 (0.49)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89 (0.46)	.753	2.86 (0.49)	.478	2.93 (0.50)	.001
		반반 사용[b]	2.93 (0.51)		2.92 (0.43)		2.93 (0.42)	
		어머니 나라말[c]	2.96 (0.44)		2.80 (0.49)		2.93 (0.52)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89 (0.46)	3.411* a<c	2.81 (0.51)	2.059	2.84 (0.47)	8.214*** a<b,c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90 (0.48)		2.95 (0.32)		3.08 (0.51)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99 (0.47)		2.99 (0.45)		3.09 (0.43)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89 (0.46)	2.521	2.84 (0.49)	.303	2.91 (0.50)	.414
		2분위[b]	2.90 (0.47)		2.89 (0.51)		2.92 (0.50)	
		3분위[c]	2.93 (0.51)		2.90 (0.32)		2.99 (0.44)	
		4-5분위[d]	3.10 (0.41)		2.97 (0.48)		2.95 (0.52)	
	직능 수준	1직능[a]	2.91 (0.46)	.299	2.83 (0.40)	.133	2.98 (0.39)	2.258
		2직능[b]	2.89 (0.46)		2.89 (0.41)		2.89 (0.48)	
		3-4직능[c]	2.92 (0.50)		2.86 (0.57)		3.04 (0.49)	

*p<.05, **p<.01, ***p<.001

③ 상급학교 진학준비도

배경변인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준비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지역 요인에서는 지역규모,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부모 요인에서는 자유학기(년)제 인지,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는 월평균 가구소득, 직능수준에 따라 상급학교 진학준비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규모에서는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다문화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준비도가 높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다문화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보다 상급학교 진학준비도가 더 높았으며,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부모 요인에서는 외국인어머니와 의사소통을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한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준비도가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부모가 자유학기(년)제를 들어봤거나 제도를 알고 있는 자녀의 경우 모르는 경우보다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준비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하지만, 월평균 가구소득은 국제결혼가정, 가정 내 직능 수준은 외국인가정에서 그 수준이 높을수록 상급학교 진학준비도가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국, 외국인가정은 부모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을 갖을수록 그들의 자녀의 진로 준비나 결정보다는 진학에 주안을 두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 결과이다.

표 V-17. 상급학교 진학준비도(5점 척도)

(단위: 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3.07 (0.79)	-	3.16 (0.75)	-	3.04 (0.81)	-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3.12 (0.76)	3.009*	3.19 (0.82)	1.002	3.03 (0.77)	2.570
		중소도시[b]	3.02 (0.79)		3.10 (0.71)		3.01 (0.83)	
		읍·면지역[c]	3.12 (0.81)		3.48 (0.52)		3.71 (0.65)	
	학교밖 도움	있음	3.20 (0.76)	7.271***	3.24 (0.77)	1.425	3.21 (0.69)	4.181***
		없음	2.91 (0.79)		3.06 (0.71)		2.76 (0.92)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3.06 (0.79)	.938	3.11 (0.79)	.994	3.04 (0.76)	.159
		반반 사용[b]	3.13 (0.80)		3.31 (0.70)		3.07 (0.79)	
		어머니 나라말[c]	2.94 (0.78)		3.04 (0.78)		2.99 (0.92)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98 (0.80)	16.439*** a⟨b,c	3.08 (0.79)	1.112	2.86 (0.80)	11.736*** a⟨b,c
		들어봤지만, 잘 모름[b]	3.19 (0.72)		3.26 (0.72)		3.26 (0.69)	
		들어봤고, 제도를 앎[c]	3.29 (0.77)		3.30 (0.65)		3.47 (0.85)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05 (0.75)	2.622*	3.06 (0.75)	1.382	2.96 (0.93)	1.773
		2분위[b]	3.03 (0.80)		3.12 (0.87)		2.98 (0.76)	
		3분위[c]	3.16 (0.85)		3.38 (0.67)		3.25 (0.71)	
		4-5분위[d]	3.31 (0.79)		3.25 (0.51)		3.12 (0.56)	
	직능 수준	1직능[a]	3.16 (0.74)	2.459	2.79 (0.72)	2.208	3.05 (0.88)	3.304* b⟨c
		2직능[b]	3.04 (0.79)		3.25 (0.66)		2.97 (0.78)	
		3-4직능[c]	3.12 (0.79)		3.10 (0.90)		3.30 (0.82)	

*p⟨.05, **p⟨.01, ***p⟨.001

3) 요약 및 소결

이 절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발달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심리·정서에서는 심리사회 적응, 정서문제, 다문화 영역으로 구분하였고, 진로발달은 단일 영역으로 하여 차이를 분석하였다. 배경변인은 지역(지역규모,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 유무), 부모(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자유학기(년)제 인지), 사회경제적 지위(월평균 가구소득, 직능수준)로 구분하여 다문화청소년 유형의 심리·정서와 진로발달 변인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는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이들은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낯선 환경, 가족과 재결합에 따른 가족 구성원의 변화 등으로 정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양계민, 조혜영, 2012). 이러한 그들의 삶의 배경은 학교생활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력과 학습 능력으로 인해 자신감을 결여시키며, 다양한 상황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삶의만족도를 낮게 한다(고은혜, 배상률, 2017; 김정화, 윤효운, 2024). 이러한 점에서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가족, 이중문화, 언어 등 다양한 환경의 적응과 심리적 발달 상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자신감 향상을 위한 세심한 심리사회 적응의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의 정서문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치를 보였지만, 국제결혼가정은 사회적위축에서, 중도입국가정은 사회적고립(외로움)과 진학 및 진로문제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걱정 수준이 다른 두 유형보다 높았다. 사회적위축은 타인과 상호작용의 어려움으로 집단 내에서 자신을 고립시킬 수 있으며(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특히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인 어머니의 존재, 주변 친구와의 문화적 경험의 차이 등으로 인한 소외감을 느끼며 심리적으로 움츠러드는 사회적위축을 경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 이전 삶과 현재의 삶의 괴리 등으로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삶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가졌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은 학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심리적 불안, 의욕 상실 등을 야기하고, 나아가 정서문제를 초래하게 된다(모상현, 2018).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로 주요하게 경험하는 사회적위축과 외로움, 불안감 등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러한 정서문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 이전부터 가정, 학교,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인 사회관계 프로그램의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은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는데,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다른 유형보다 상급학교 진학준비도의 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진학 정보에서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이 다른 두 유형과 비교하여 진로태도 결정성과 진로준비역량은 높지만, 상급학교 진학준비도가 낮게 나타난 현상은 한국의 입시 체계, 고등학교 유형 및 입학 과정, 고교 교육과정 등에 대한 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특히,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부모는 모국의 교육과정에 익숙한 상황으로 한국에서의 고등학교 입시나 진학에 관한 정보의 접근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외국인가정의 진학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정보의 접근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입시정보 교육, 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 등을 제공함으로써 진학 정보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의 수준은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을수록, 높은 월평균 가구소득일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거주지역의 규모가 이들의 심리사회 적응의 수준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지역의 인프라, 지원기관으로부터의 도움, 고소득의 일자리 등 다양한 사회·경제 시스템 내에 정주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약 60%가 학교밖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이는 다른 두 유형(약 50% 내외)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는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대부분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으며, 글로벌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다문화관련 센터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고 있다. 이러한 자원을 활용하여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지역사회 내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고 한국사회 내에서 사회적 지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어 심리사회 적응에서 자아존중감이 수준이 높게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과 중도입국 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의 학교밖 지지체계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이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형성한 지지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신동훈 외, 2023).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학교밖에서 다양한 사람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상호작용하여 심리사회 적응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지원기관의 전문화 제고와 지원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의 정서문제는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어나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읍·면지역에 거주할

수록 사회적위축이 높게 나타난 경향은 지역 간 불균형에 기인한 현상이 지속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신동훈 외, 2023; Leventhal & Brooks-Gunn, 2000). 이러한 지역 자원의 불균형은 학업 및 진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걱정으로 나타나며, 농산어촌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는 사회적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간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이 어머니와 대화할 때 어떠한 언어로 대화하는지는 심리사회적응의 정서문제와도 관련이 있었다. 국제결혼가정에서는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할 때, 외국인가정에서는 한국어로 대화할 때 이들의 우울, 사회적위축 등 정서문제가 더 높았다. 각 유형별로 정서문제의 차이를 보였지만, 국제결혼가정에서는 한국어만 사용했을 때보다 이중언어를 구사했을 때 우울과 사회적고립(외로움)의 수준이 더 높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특히, 다문화 요소로 긍정적 영향으로 꼽는 것은 이중언어이며, 이중언어가 심리정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박정윤, 박현지, 2020; 오승환, 2019). 하지만, 심리적으로 다양한 변화가 이루지는 청소년기의 이중언어 사용은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상황에서 정서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에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 요인은 학교밖에서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을수록 외국인 어머니와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할수록 그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청소년은 비다문화청소년과 다르게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외국인으로 본국의 언어를 구사하기 때문에 자녀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언어가 노출된다. 이러한 상황은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부모나라문화수용태도를 더 높이게 되는데, 이는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에서 두드러졌다. 이는 이전에 서술된 정서문제와는 배치되는 상황이지만, 포용적이고 수용적인 다문화 인식은 외국인 어머니와 대화 언어가 긍정적인 다문화 인식을 형성하는 데 주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특히 이중언어의 사용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와도 관련이 있지만, 이중언어 교육의 인프라 및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윤현희 외(2023)는 지적하였다. 따라서, 다문화적 요소를 증대시키고, 다문화청소년이 이중언어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외적 자원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은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를 인지할수록, 가정 내 직능수준이 높을수록 진로의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은 부모의 관심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가

자녀의 자유학기(년)제가 무엇인지 어떠한 제도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한 국제결혼 및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그렇지 못한 다문화청소년보다 진로준비역량과 상급학교 진학준비도가 더 높았다. 부모의 관심과 기대는 자녀의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결과(Okubo et al., 2007)처럼 부모가 자유학기(년)제를 인지할수록 자녀의 진로발달과 관련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다문화가정 부모의 약 60%는 자유학기(년)제를 모르고 있었다. 이는 자녀에 대한 무관심과 진로정보의 취약성과도 연결되며, 진로정보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모 대상의 진로정보 제공 방식의 다양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앞서 상술한 내용을 바탕으로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비교 결과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 V-18. 배경변인에 따른 유형 간 차이 비교

구분		지역						부모						사회경제					
		지역규모			학교밖 도움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자유학기(년)제 인지			월평균 가구소득			직능수준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심리적응	자아존중감			+[a]	+		+							+[j]					
	삶의만족도		+[a]		+								+[g]	+[i,j]	+				
정서문제	공격성			+						+[d]									
	사회적위축	+[c]		+				+		+[d]	+[g]								
	우울							+[e]		+[d]									
	현재걱정 공부,성적문제	+[c]	+[c]		+														
	현재걱정 미래 불안감	+[b,c]	+[b]																
	사회적고립(외로움)						−	+[e]											
다문화	문화적응스트레스		+[b]			−													
	국가정체성			+[a]	+	+	+												
	이중문화수용태도				+		+	+[e]		+[f]				+					
	한국문화수용	+[c]			+	+	+							+					
	부모나라문화수용				+		+	+[e,f]	+	+[e,f]	+[g]						+[k]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	+[c]			+						+[g]								
진로	진로태도 결정성																		
	진로준비역량			+[a]	+		+				+[h]		+[g,h]						
	상급학교 진학준비도	+			+		+				+[g,h]		+[g,h]	+					+[k]

* 주: 1) +: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이며, 학교밖 도움 주는 어른은 +: 있음, −: 없음이 높은 값임.
2) a: 대도시, b: 중소도시, c: 읍·면지역, d: 한국어, e: 반반 사용, f: 어머니 나라말, g: 들어봤지만, 잘 모름, h: 들어봤고, 제도를 앎, i: 2분위, j: 3분위, k: 3-4직능은 사후검증 결과에서 높은 값을 의미함.

표 V-19.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심리·정서 및 진로발달 차이 분석 결과 요약

구 분		주요 결과
심리·정서	심리사회 적응	•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는 중도입국가정이 가장 낮고, 사회적위축은 국제결혼가정에서 가장 높음. • 지역규모에 따른 비교에서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외국인가정은 자아존중감이, 중도입국가정은 삶의만족도가 높음. • 학교밖에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국제결혼가정은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가 높았으며, 외국인가정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남. • 부모가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들어는 봤지만, 잘 모른다는 응답의 외국인가정은 삶의만족도가 높음. • 국제결혼가정의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과 삶의만족도가 높아짐.
	심리사회 적응: 정서 문제	•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현재 걱정거리는 공부 및 성적 문제, 가정의 경제적 형편, 진학 및 진로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임. •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보다 진학 및 진로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상대적으로 높음. •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국제결혼가정과 중도입국가정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걱정이 높은 상황임. • 읍·면지역의 소규모 지역에 거주할수록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에서는 사회적 위축이 높게 나타남. •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외국인가정은 사회적고립(외로움)이 높은 양상을 보임. •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외국인가정은 공격성, 사회적위축, 우울의 수준이 높은 상황임. • 외국인 어머니와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을 반반 사용하여 의사소통하는 국제결혼가정은 우울과 사회적고립(외로움)이 높은 양상을 보임.
	다문화	•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 한국사회의 다문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수용한다고 인식함. • 대도시에 거주할수록 외국인가정에서는 국가정체성이, 읍·면지역에 거주할수록 국제결혼가정에서는 한국문화수용태도와 한국사회 다문화수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음. • 중소도시에 거주할수록,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이 없는 중도입국가정의 문화적 응스트레스는 높은 양상을 보임. •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은 국가정체성, 한국문화수용태도가 높음. • 외국인 어머니 나라말로 의사소통하는 외국인가정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으며, 특히 부모나라 문화수용태도가 높은 편임. • 월평균 가구소득이 높은 국제결혼가정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높으며, 특히 한국문화수용태도가 높은 양상을 보임. • 직능수준이 3-4수준으로 높은 국제결혼가정은 부모나라문화수용태도가 높음.

구 분	주요 결과
진로	• 외국인가정은 진로태도 결정성과 진로준비역량이 가장 높지만, 상급학교 진학준비도는 가장 낮음. 반면에 중도입국가정은 진로태도 결정성과 진로준비역량이 가장 낮았지만, 상급학교 진학준비도는 가장 높은 경향을 보임. • 대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가정은 진로준비역량이 높고, 국제결혼가정은 상급학교 진학준비도가 높은 편임. • 학교밖 도움을 주는 어른이 있는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은 높은 진로준비역량과 상급학교 진학준비도를 보이며, 진로준비역량 중 낙관성, 지속성, 호기심, 유연성, 도전성, 의사소통의 수준이 높음. • 부모가 자유학기(년)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의 자녀는 진로준비역량과 상급학교 진학준비도가 높은 수준임. • 부모가 자유학기(년)제를 아는 국제결혼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낙관성과 의사소통이, 중도입국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도전성이,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은 낙관성과 지속성, 호기심, 도전성의 진로준비역량이 높은 양상을 보임. • 가정 내 직능수준이 3-4수준으로 높은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은 상급학교 진학준비도가 높은 상황임.

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 탐색 및 비교

1) 연구배경 및 목적

청소년기에 이루어야 하는 여러 과업 중 하나는 진로 발달 과업이며, 이는 단순히 상급 학교로의 진학과 취업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 경험하게 될 새로운 직업 세계로의 진입과 적응, 직업 간의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한 기초가 된다(인효연, 2020). 더욱이 직업 영역 간 경계가 불분명해지고 산업의 구조가 급변하는 사회에서 자신의 진로를 주체적으로 개발하고 미래 사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청소년기부터 꾸준히 진로 발달에 필요한 역량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이주미, 2021). 다문화청소년에게 있어서도 청소년기의 진로 발달은 중요한 과업 중 하나이며, 이들의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효과적인 진로교육 및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관련된 여러 요인에 대한 탐색과 종합적인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더욱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나라 다문화 지형을 고려할 때, 중도입국청소년 또는 외국인가정의 자녀와 같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교육적·문화적 환경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진로 발달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의 진로 발달은 2023년에 수행된 연구에서도 한차례 살펴본 바가 있다.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신동훈 외, 2023)에서는 진로 발달을 교육포부, 진로태도 결정성, 희망직업, 학업 및 거주 희망 국가 등을 포함하여 정의함에 따라 미래 설계라는 폭넓은 의미에서의 진로 발달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진로 발달 간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도출할 수는 있었으나, 진로 발달과 정체성 간의 관계 분석에 중점을 둠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시사점과 함의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4년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이들이 그동안 가정 및 학교에서 경험한 다양한 활동을 비롯한 개인의 심리·정서적 특성 및 환경적 요인과 진로 발달 간의 관계를 탐색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청소년기 진로 발달에 있어 진로 개발 역량의 중요성은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강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의와 이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연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류재윤과 이윤경(2012)은 진로 개발 역량을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p. 102)"으로 정의하고, 진로설계 측면을 강조하며 자기이해,

직업 세계 이해와 탐색, 의사결정이라는 세 가지 역량으로 구성하였다. 진성희와 성은모(2017)는 진로 개발 역량을 좀 더 확대하여 진로설계, 여가활용, 개척정신 역량을 포함하여 개념화하였다. 김재희(2021)는 최근의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평생직장의 개념이 점차 사라져가고 이직과 전직이 변화무쌍한 시대를 맞이하면서 개개인 스스로 자신의 진로를 개발하고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능력(p.6)"으로 진로 개발 역량을 정의하였다.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 제시하는 진로교육의 영역 및 목표를 반영하여 진로 개발 역량을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및 준비를 하위요인으로 구성하기도 하였다(김재희, 2019, 2020; 박소영, 정혜원, 2021; 인효연, 2020).

한편, 2007년을 시작으로 1년 주기로 시행하는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문찬주 외, 2023)에서는 진로 발달 단계를 고려하여 학교급에 따라 진로 개발 역량을 다르게 정의하였다. 초등학급의 경우, 진로 개발 역량을 자기이해와 사회성,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와 준비도로 구성된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반면, 중학교급의 진로 개발 역량은 크게 진로설계 역량과 진로준비 역량으로 구분하여 진로설계 역량의 하위구인으로 자기이해, 직업이해, 진로탐색, 진로계획을 포함하였고, 진로준비 역량은 낙관성, 지속성, 호기심, 유연성, 도전성, 의사소통을 하위구인으로 구성하였다. 2023년에 수행된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기 패널 5차 조사에서는 중학교 2학년이 조사 대상임을 고려하여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정의한 진로 개발 역량의 하나인 진로 준비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이에 2023년 2기 패널의 5차 조사에서 수집된 진로 준비 역량과 여러 개인 및 환경적 요인 간 관계 탐색을 본 심화 분석의 첫 번째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더불어 청소년기에 지속되는 진로 개발 역량의 또 다른 대리변수인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 탐색을 두 번째 목적으로 하였다. 진로태도 결정성이란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가 무엇인지 확신하고 이를 설정한 정도로 주로 결정과 미결정을 양극단으로 하는 연속선상의 개념으로 설명한다(김민배, 문승태, 2004; 이현민, 정진철, 2021).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태도 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울, 성취동기와 개인적 요인뿐 아니라 부모의 양육태도, 부모와의 관계, 또는 학교에서의 친구 및 교사와의 관계 등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밝혀졌다(김민배, 문승태, 2004; 김윤이, 2022; 백예은, 정혜원, 2023a; 장수빈, 노충래, 2024;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하여진, 2023). 또한, 진로태도 결정성과 진로태도 성숙도 및 진로장벽 인식과 같은 진로 개발 역량과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윤이, 2022; 백예은, 정혜원, 2023a;

하여진, 2023).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관련된 중요한 두 특성인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은 어떤 요인에 의해 영향받는지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이 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의 비교·분석하는 종합적인 접근과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심화 분석에서는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주요 영향요인을 각각 탐색해보고 두 결과를 비교해봄으로써, 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에 영향을 주는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은 어떤 차이가 있고, 중요하게 작용하는 공통요인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이해를 제고하고,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교육 및 지원을 위한 시사점과 교육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23년 5차 조사에 참여한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으로 이들은 조사 당시 중학교 2학년에 해당한다. 2019년에 다문화청소년 2,271명을 대상으로 구축된 2기 패널 가운데 2023년에 실시된 5차 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은 1,843명이었다. 연구대상의 기본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은 대체로 비슷하나 남학생이 51.5%로 여학생(48.5%)에 비해 다소 많았다. 거주지역은 경기도 및 인천의 비율이 28.6%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의 비율이 25.2%로 두 지역이 전체의 절반 수준이었다. 이어서 전라 및 제주권, 충청 및 강원권, 서울 순으로 거주지역의 비율이 낮아졌다. 5차 조사 시점의 가구 유형을 살펴보면, 국제결혼가정이 전체의 78.2%로 가장 높았고, 외국인가정의 비율은 14.4%, 중도입국자녀는 7.4%였다.

표 V-20. 연구대상 특성

(단위: 명, %)

구분		학생 수	비율
성별	남학생	950	51.5
	여학생	893	48.5
거주지역	서울	191	10.4
	경기도 및 인천	527	28.6
	충청 및 강원권	328	17.8
	경상권	465	25.2
	전라 및 제주권	332	18.0
가구 유형*	국제결혼가정	1,441	78.2
	중도입국자녀	137	7.4
	외국인가정	265	14.4

* 주: 가구 유형은 조사 당시 기준임

(2) 분석 자료

전술한 바와 같이 다문화청소년 진로 발달의 영향요인 탐색을 본 심화 분석의 주요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해 2기 패널 5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을 반응변수로 설정하였다. 진로 준비 역량은 낙관성, 지속성, 호기심, 유연성, 도전성, 의사소통 6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은 2개의 문항으로 측정되어 총 12개 문항이 사용되었다(신동훈 외, 2023). 진로태도 결정성은 10개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4=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12개 진로 준비 역량을 측정하는 문항의 평균과 10개 진로태도 결정성을 측정하는 문항의 평균을 산출하여 각 분석의 반응변수로 사용하였다.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 결정성의 평균이 높을수록 각 구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도록 일부 문항은 역코딩 하였다. 두 반응변수의 측정 내용과 신뢰도 및 기술통계는 〈표 V-21〉에 제시하였다.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신뢰도는 .894, .853으로 각 구인의 문항들은 모두 일관적으로 같은 개념을 측정하였음을 확인하였다. 4점 척도로 측정된 두 반응변수의 평균은 진로 준비 역량 2.905, 진로태도 결정성 2.534로 진로 준비 역량 정도가 진로태도

결정성 보다 다소 높았다. 두 반응변수의 분포를 왜도와 첨도를 통해 비교해보면, 모두 정규성 가정을 위배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진로 준비 역량의 왜도는 -0.135로 부적으로 편포된 반면, 진로태도 결정성의 왜도는 0.458로 정적으로 편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첨도 또한 진로 준비 역량은 1.211로 비교적 뾰족한 분포를 보이나 진로 결정성 첨도는 -0.200으로 정규분포보다는 다소 완만하였다. 즉, 진로 준비 역량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비교적 높은 응답이 많았고, 진로태도 결정성을 측정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낮게 응답한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V-21. 반응변수 설명 및 기술통계

변수	측정문항 예시	신뢰도	기술통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진로 준비 역량	• 나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진로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나는 나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 나는 나의 진로목표 달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894	2.905	0.471	-0.135	1.211
진로태도 결정성	•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853	2.534	0.565	0.458	-0.200

* 주: †) 역코딩 문항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1~5차 조사를 통해 수집된 2기 패널 청소년 응답 자료를 모두 사용하였다. 아울러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자녀의 진로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를 선정하여 분석에 함께 사용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에 의해 선정된 분석 변수를 동일하게 사용하여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설명변수는 크게 세 영역인 배경 특성 및 다문화 요인, 개인 요인, 환경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에서 분석에 투입된 변수에 대한 설명은 〈표 V-22〉부터 〈표 V-24〉에 제시하였다.

기본적으로 성별, 거주지 규모와 같은 질적 변수는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 우울과 같이 여러 문항으로 측정된 양적 변수는 평균을

산출하였고, 이때 변수의 값이 클수록 해당 변수의 정도가 강하게 해석될 수 있도록 일부 문항은 역코딩하였다. 어머니가 인식하는 가정형편이나 주관적 성적 수준과 같이 단일 문항으로 측정된 양적 변수는 별도의 자료 변환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였으며, 걱정거리와 같이 성격이 다른 여러 항목으로 측정한 변수 또한 단일 항목에 대한 응답 값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다만, 비행 경험, 체험 활동과 같이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10% 미만으로 매우 낮은 변수는 항목별 경험 여부를 더미변수로 변환한 뒤 모든 항목의 값을 합하여 사용하였다. 예컨대, 비행 경험은 12개 항목에 대해 '전혀 없다(=1)'부터 '1주일에 여러 번(=6)'으로 응답하도록 조사되었는데, '전혀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없다)', 나머지는 '1(=있다)'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로 변환한 뒤, 12개 항목에 대한 더미변수를 모두 더하여 새로운 변수로 생성하였다. 따라서 비행 경험의 범위는 0~12이며, 변수의 점수가 높을수록 비행 경험이 많음을 의미한다.

다문화청소년의 배경 특성 및 다문화 요인 영역에서 성별, 거주지 규모, 가구유형 등 14개 변수가 선정되었는데, 배경 특성 변수는 가장 최근의 정보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반응변수와 같이 5차 조사에 측정된 변수만 사용하였고, 다문화 요인의 변수는 1~5차 조사에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앞서 기술한 기준에 따라 변환 및 새로 생성된 51개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개인 요인은 심리·사회적응 및 건강, 인지 및 진로, 청소년 활동과 관련된 23개 변수가 선정되어, 1~5차 조사에 걸쳐 수집된 자료로 변환 및 재생성된 176개 변수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환경 요인은 부모, 친구, 학교생활, 지역사회와 관련된 변수 20개를 선정하였고, 1~5차 조사에 수집된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일부 변수의 변환 및 계산 등을 거쳐 생성된 164개 변수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결과적으로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 결정성의 영향요인을 탐색하기 위한 각 분석에는 총 391개 변수가 투입되었다.

표 V-22. 배경 특성 및 다문화 요인 관련 투입변수

구분	변수(척도 설명)	조사 차수	변수 수
배경 특성	다문화청소년 성별 (더미변수, 남자[a]/여자)	1차	1
	거주지 규모 (더미변수, 대도시[a]/중소도시/읍면)	5차	2
	아버지/어머니 교육정도 (중졸이하=1, 고졸=1, 2~3년제 대학 졸업=3, 4년제 이상 대학 졸업=4, 대학원 졸업=5)	5차	2
	부모님 결혼 상태 (더미변수, 결혼[a]/이혼/별거 등)	5차	2
	가구 월평균 소득 (만원 단위)	5차	1
	주요 소득원 (더미변수, 아버지[a]/어머니/기타)	5차	2
	어머니가 인식하는 가정형편 (5점 척도)	5차	1
	자녀가 인식하는 가정형편 (5점 척도)	1차	1
다문화 요인	가구유형 (더미변수, 국제결혼가정[a]/중도입국/외국인가정)	5차	2
	국적에 대한 인식 (더미변수, 한국사람[a]/외국사람/한국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사람이기도 하다/잘 모르겠다)	1~5차	15
	한국인 정체성 (4점 척도, 4개 문항 평균)	1~5차	5
	이중문화 수용태도 (4점 척도, 10개 문항 평균)	1~5차	5
	다문화가족 자녀 특별지원 필요성(더미변수, 필요 있다[a]/필요 없다)	4, 5차	2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인식 (5점 척도, 2개 문항)	1~5차	10
투입 변수 수			51

* 주: a) 더미변수 생성 시 참조 집단

표 V-23. 개인 요인 관련 투입변수

구분	변수(척도 설명)	조사 차수	변수 수
심리·사회 적응 및 건강	신체적 건강 평가 (4점 척도)	1~5차	5
	정신적 건강 평가 (4점 척도)	1~5차	5
	스트레스 (4점 척도, 2개 문항 평균)	1~3차	3
	정서문제: 공격성 (4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4, 5차	2
	정서문제: 사회적 위축 (4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4, 5차	2
	정서문제: 우울 (4점 척도, 5개 문항 평균)	4, 5차	2
	자아존중감 (4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1~5차	5
	사회적 역량 (4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1차	1
	삶의 만족도 (4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1~5차	5
	현재 걱정거리 (4점 척도, 공부, 성적 문제 등 14개 항목) ※1차 조사는 13개 항목	1~5차	69

구분	변수(척도 설명)	조사 차수	변수 수
	차별 피해 경험 (더미변수, 있다[a]/없다)	1~5차	5
	비행 경험 (12개 항목에 대한 더미변수 합) ※1차 조사는 11개 항목	4, 5차	2
	사이버 비행 경험 (4개 항목에 대한 더미변수 합)	4, 5차	2
	자신의 인권 존중 정도 (4점 척도, 가정 등 5개 항목)	5차	5
	사회적 고립 (4점 척도, 4개 문항 평균)	5차	1
인지 및 진로	주관적인 성적 수준 (5점 척도)	1~5차	5
	성적에 대한 만족도 (5점 척도)	1~5차	5
	희망 교육 수준 (1~3차: 초등학교=1, 중학교=2, 고등학교=3, 대학교=4, 대학원 이상=5, 4~5차: 중학교=1, 고등학교=2, 대학교=3, 대학원 이상=4)	1~5차	5
	진학을 희망하는 곳 (더미변수, 한국[a]/외국)	5차	1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상담)하는 사람 (4점 척도, 8개 항목) ※ 4, 5차 조사는 9개 항목	1~5차	42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5점 척도, 7개 문항 평균)	5차	1
청소년 활동	문화 및 여가활동 경험 (14개 항목에 대한 더미변수 합)	1차	1
	체험 활동 (9개 항목에 대한 더미변수 합)	4, 5차	2
투입변수 수			176

* 주: a) 더미변수 생성 시 참조 집단

표 V-24. 환경 요인 관련 투입변수

구분	변수(척도 설명)	조사 차수	변수 수
부모	부모의 지지 (4점 척도, 6개 문항 평균)	1~5차	5
	보무의 양육태도: 감독 (4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1~5차	5
	보무의 양육태도: 방임 (4점 척도, 7개 문항 평균)	1~5차	5
	부모님과의 활동 및 대화 (5점 척도, 4개 항목) ※ 1차 조사는 6개 항목	1~5차	22
	하루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 (5점 척도, 2개 항목)	1~5차	10
	방과 후 보호자 부재 (4점 척도)	1~5차	5
	자녀의 진로준비 활동[b] (7개 항목에 대한 더미변수 합)	5차	1
	자녀의 성적향상을 위한 노력 정도[b] (5점 척도, 7개 문항 평균)	1~5차	5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b] (4점 척도)	1~5차	5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b] (5점 척도, 7개 문항 평균)	5차	1
	부모효능감[b] (5점 척도, 9개 문항 평균)	1~5차	5

구분	변수(척도 설명)	조사 차수	변수 수
친구	친구의 지지 (5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1~5차	5
	친한 친구 수 (단위: 명)	1~5차	5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6개 항목에 대한 더미변수 합)	1~5차	5
학교생활	학교 만족도 (4점 척도, 4개 문항 평균)	1~5차	5
	학교생활 어려운 점 (더미변수,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a]/한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점/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 등 6개 항목)	1~5차	25
	학교공부의 어려운 점 (더미변수,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a]/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등 8개 항목)	1~5차	35
	교사의 지지 (5점 척도, 3개 문항 평균)	1~5차	5
	학교 내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더미변수, 있다[a]/없다)	1~5차	5
지역사회	학교밖 도와주는 어른의 존재 (더미변수, 있다[a]/없다)	1~5차	5
총 변인 수			164

* 주: a) 더미변수 생성 시 참조 집단, b) 어머니 대상 조사 문항

(3) 분석 방법

다년간 축적된 패널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통적인 분석 방법에서 요구하는 통계적 가정에서 자유로운 기계학습 기법의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Breiman, 2001)를 적용하였다. 랜덤 포레스트는 무작위적으로 여러 개의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여 이를 종합하는 방식을 통해 모형의 예측력과 안정성을 높이는 기법이다(오미애 외, 2017; 유진은, 2015; 정재현, 2019). 랜덤 포레스트 기법은 분석에 사용하는 독립변수의 수가 많거나 변수 간 상관이 높은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연구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다(김미림, 2019; 김영식 외, 2020; 박소영, 정혜원, 2021; 백예은, 정혜원, 2023a; 박찬흥, 2024; 양계민 외, 2021; 장윤선 외, 2023).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생성하는 의사결정나무의 수와 각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할 때 사용할 설명변수의 수를 설정해야 한다. 본 분석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지원하는 R 프로그램의 randomForest 패키지(Liaw & Wiener, 2018)에서 기본값으로 설정된 조건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투입된 변수의 1/3에 해당하는 130개를 무선적으로 선택하여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는 과정을 500번 반복한 뒤, 그 결과를 종합하였다.

또한, 500개의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는 랜덤 포레스트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최종

적으로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SHAP(Shapley Additive Explanations, Lundberg, Erion, & Lee, 2018; Lundberg et al., 2020) 값을 산출하였다. SHAP 값은 협력 게임이론의 Shapley 값에서 착안하여 예측모형에 투입된 각 설명변수의 평균 기여도를 계산한 것으로, 모든 설명변수의 조합에서 각 설명변수가 모형에 포함됨에 따른 예측값의 변화를 종합하여 산출한다(Patricio, Neves, & Teixeira, 2023). 기본적으로 개인의 반응변수를 예측하는데 모형에 투입된 각 설명변수의 기여도를 의미하는 SHAP 값이 산출되는데 이를 바탕으로 개인의 반응변수가 어떤 설명변수의 조합으로 예측되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Lundberg, Erion, & Lee, 2018). 개인의 전체 설명변수에 대한 SHAP 값은 평균이 0이 되도록 산출되며, 양(음)의 SHAP 값은 반응변수에 대한 설명변수의 기여 방향이 정적(부적)인 것을 의미하고 SHAP 값의 크기는 기여의 정도를 의미한다(Lundberg et al., 2020). 개인 및 설명변수별 산출된 SHAP 값을 종합하면 전체 자료에서 반응변수를 예측하는데 기여도가 높은 설명변수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설명변수에서 산출된 개인 SHAP 값의 절댓값 평균을 비교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Lundberg, Erion, & Lee, 2018).

주요 영향요인을 선정할 때 사용하는 기준으로 합의된 특정 SHAP 값은 아직 없으므로 최적의 통계 모형을 선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모형의 간명성과 해석력을 함께 고려하여 영향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 영향요인을 탐색하는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투입변수의 약 5% (김미림, 2019; 김진희, 김준엽, 2022)에서 10% (박소영, 정혜원, 2021; 백예은, 정혜원, 2023a)에 해당하는 영향요인을 선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분석에서는 여러 영역의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동시에 결과 해석의 유의미성을 높일 수 있도록 SHAP 값이 큰 20개 변수를 주요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다. SHAP 값 산출 및 종합된 결과의 시각화는 R 프로그램의 treeshap 패키지(Komisarczyk et al., 2024)를 활용하였다.

랜덤 포레스트 분석에 앞서 자료에 존재하는 일부 결측값을 대체하였다. 분석 자료의 결측은 특정 시점의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대상의 특성과 측정 문항의 내용에 따라 일부 문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 또는 '잘 모르겠음'으로 응답한 경우가 있을 때 발생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변수 가운데 결측률이 높은 변수는 4차와 5차 조사에서 측정된 현재 걱정거리: 이성친구와의 문제(4차: 30.5%, 5차: 25.7%)였고, 걱정거리 및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하는 사람(형제, 자매)의 결측률도 약 22% 정도로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

으로 높았다. 이들 변수는 대상에 따라 이성친구 또는 형제, 자매, 친척 등이 존재하지 않아 결측이 발생하였으므로 완전 무선적으로 발생한 결측(missing completely at random: MCAR)으로 간주하고 분석에 포함하였다. 그 외 변수의 결측률은 5% 미만으로 결측값 대체로 인한 자료의 왜곡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결측값 대체는 R 프로그램(v.4.3.1)의 randomForest 패키지(Liaw & Wiener, 2018)에서 제공하는 rfImpute 함수를 활용하였다.

3) 연구 결과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종단적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들의 진로 발달에 대한 심화 분석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는 5차 조사에 참여한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1~5차 조사의 응답 자료를 바탕으로 배경 특성, 다문화 요인, 개인 요인, 환경 요인에 해당하는 총 391개 변수를 사용한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실시하였다.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 선정에 앞서 500개의 의사결정나무를 생성하고 이를 종합한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예측오차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림 Ⅴ-1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 모두 의사결정나무의 수가 대략 50개를 넘어가면서 예측오차는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이후 완만하게 감소하다 300개를 넘어가면서는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하에는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선정된 20개 변수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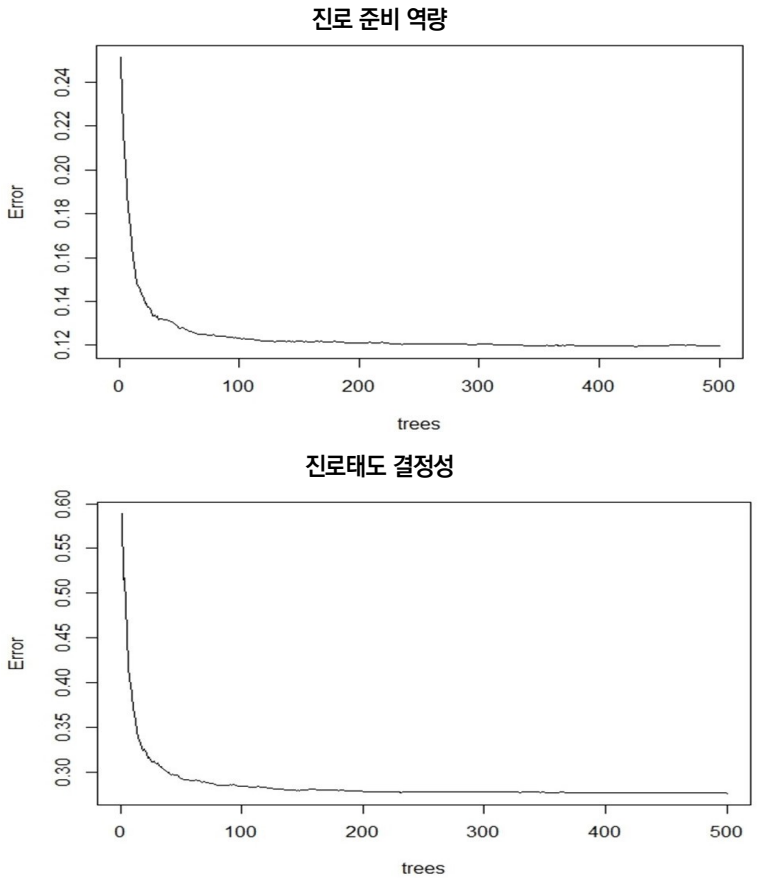


그림 V-14. 랜덤 포레스트의 의사결정나무 수에 따른 예측 오차 변화

(1) 진로 준비 역량의 영향요인

SHAP 값을 기준으로 선정된 진로 준비 역량의 20개 영향요인은 다음과 같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의 모든 설명변수에 대한 SHAP 값 평균은 0이 되도록 산출되었으므로 분석에 투입된 각 설명변수의 개별 SHAP 값 크기만 고려하기 위해 절댓값의 평균을 계산하여 중요도 지수로 사용하였다. [그림 V-15]는 중요도 지수가 큰 변수부터 순차적으로 20개 변수를 제시한 SHAP 요약 도표로, 제시된 SHAP 요약 값이 클수록 진로 준비 역량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변수를 의미한다. 이와 더불어 진로 준비 역량의 주요 영향요인을 영역별로 〈표 V-25〉에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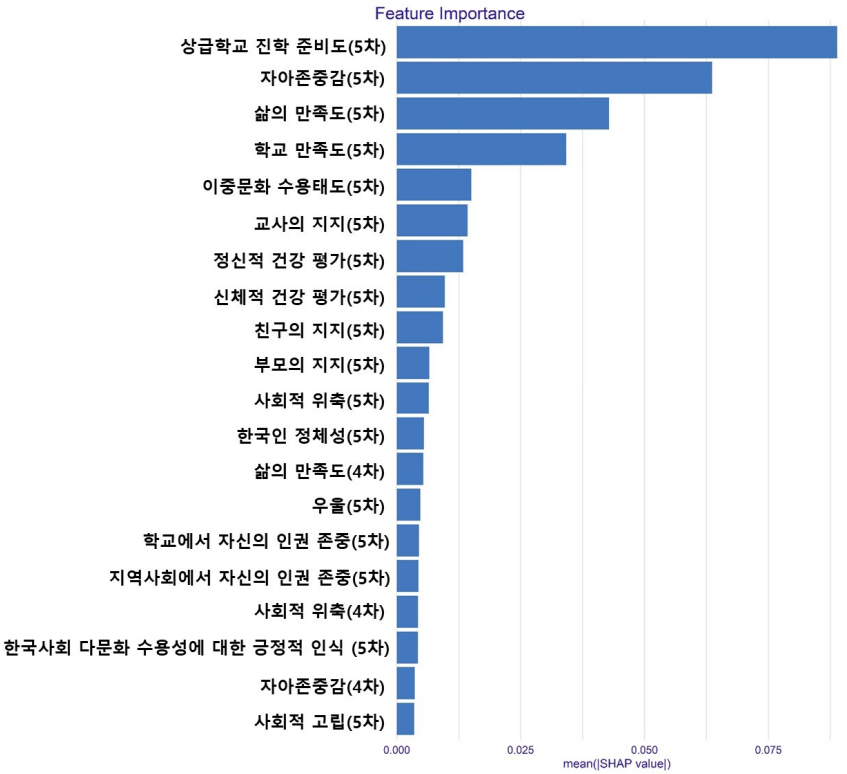


그림 V-15. 진로 준비 역량 주요 영향요인

분석 결과, 중학교 2학년 시기에 측정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에 같은 시기에 측정된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5차 조사에서 측정된 모든 관련 변수를 분석에 투입하였으나,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20개 변수 중에서 17개가 진로 준비 역량과 같은 시기인 5차 조사에 측정된 변수였다. 나머지 3개 영향요인은 모두 중학교 1학년 시기에 해당하는 4차 조사에서 측정된 변수로 초등학교 시기인 1~3차 조사에서 측정된 변수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영향요인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 요인인 심리·사회적응 영역에 해당하는 10개 변수가 포함되어 가장 많았고, 이어서 다문화 요인의 3개 변수가 포함되었다. 그 밖에 개인 요인의 건강 관련 변수 2개와 환경 요인인 학교생활 변수 2개가 포함되었고, 개인 요인인

진로 영역의 변수와 환경 요인인 부모와 친구가 영역의 변수가 각각 1개씩 포함되었다. 그러나 배경 특성 영역과 개인 요인의 학업 및 청소년 활동, 환경 요인인 지역사회 영역의 변수는 진로 준비 역량의 20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가장 많은 변수가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개인의 심리·사회적응 영역의 변수 가운데 5차 조사에 측정된 자아존중감(2위)과 삶의 만족도(3위)는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다음으로 진로 준비 역량을 설명하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차 조사에 측정된 자아존중감(19위)과 삶의 만족도(13위)도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을 설명하는 데 이 두 변수의 기여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같은 영역의 변수인 사회적 위축 역시 5차(11위)와 4차(17위)에 측정된 변수가 함께 20개 영향요인에 포함되어 다른 영역의 변수에 비해 진로 준비 역량에 대한 기여도가 다른 영역의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기적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정적인 심리·사회적응의 변수인 우울(14위)과 사회적 고립(20위)도 진로 준비 역량에 대한 기여도가 비교적 높았고,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지신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 두 변수는 15, 16위로 20개 영향요인 안에 포함되었다.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두 변수(7, 8위)의 진로 준비 역량에 대한 기여도 또한 비교적 높았다. 환경 요인에 포함되는 학교 만족도의 기여도는 4위, 같은 영역의 교사의 지지는 6위로 환경 요인의 변수도 높은 기여도를 보였다. 교사의 지지보다는 기여도 순위가 낮으나 친구의 지지와 부모의 지지도 각각 9위와 10위로 진로 준비 역량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편이었고, 다문화 요인 중에서는 이중문화 수용태도(5위)의 기여도가 비교적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한국인 정체성(12위)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 변수(18위)도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의 20개 영향요인에 포함되었다.

표 V-25. 진로 준비 역량 주요 영향요인

영역		변수	조차 차수	SHAP 요약 값	순위
다문화 요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5차**	**.015**	**5**
		한국사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5차	.004	18
		한국인 정체성	5차	.005	12
개인 요인	건강	신체적 건강 평가	5차	.010	8
		정신적 건강 평가	5차	.013	7
	심리·사회 적응	사회적 고립	5차	.003	20
		사회적 위축	4차	.004	17
		사회적 위축	5차	.006	11
		삶의 만족도	4차	.005	13
		삶의 만족도	**5차**	**.043**	**3**
		우울	5차	.005	14
		자아존중감	**5차**	**.064**	**2**
		자아존중감	4차	.004	19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	5차	.004	16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	5차	.004	15
	진로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5차**	**.089**	**1**
환경 요인	부모	부모의 지지	5차	.007	10
	친구	친구의 지지	5차	.009	9
	학교생활	교사의 지지	5차	.014	6
		학교 만족도	**5차**	**.034**	**4**

* 주: SHAP 요약 값 기준 1~5위 변수는 진하게 처리함

[그림 V-15]와 〈표 V-25〉에 제시된 20개 영향요인이 진로 준비 역량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각 설명변수의 응답 값에 따른 SHAP 값의 분포를 보여주는 SHAP 의존성 도표를 제시하였다. [그림 V-16]은 진로 준비 역량의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20개 설명변수의 응답값(가로축)에 따른 SHAP 값(세로축)의 분포로, 각 설명변수 의존성 도표 위에 표시된 가로줄(붉은색)은 SHAP 값이 0인 지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SHAP 값이 대부분이 양의 값으로 분포되는 지점, 다시 말해 의존성 도표의 가로줄 위에 SHAP 값이 분포하는 설명변수 응답 값은 진로 준비 역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의존성 도표의 가로축 아래에 분포하여 SHAP 값이 음수가 되는 설명변수의 응답 값은 진로 준비 역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기여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SHAP 의존성 도표를 통해 각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와의 관계가 정적인지 부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만약 설명변수의 응답 값이 커질 때 SHAP 값이 양수이고, 응답 값이 작아질 때 SHAP 값은 음수라면 이 설명변수는 반응변수와 정적인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에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의 경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준비 정도에 대한 5점 척도 7개 문항의 평균이 설명변수로 분석에 투입되는데 보통 수준인 3점을 기준으로 SHAP 값이 음수와 양수로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SHAP 값 분포를 통해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가 보통 수준 이상일수록 진로 준비 역량은 높아지고, 준비도가 보통 수준보다 낮을수록 진로 준비 역량은 낮아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 친구의 지지, 한국인 정체성 역시 중간 수준 이상으로 인식하는 경우 각 변수가 진로 준비 역량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이문문화 수용태도, 친구의 지지, 한국인 정체성은 진로 준비 역량의 정적 영향요인에 해당된다.

4점 척도로 측정된 자아존중감의 경우, 그렇다(3점)와 매우 그렇다(4점)의 중간 수준 이상부터 SHAP 값이 양수가 되므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진로 준비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설명변수로는 삶의 만족도, 학교 만족도, 교사의 지지, 부모의 지지로 이들 변수에 대해서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경우에만 진로 준비 역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편, 정신적 및 신체적 건강에 대한 평가와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인권이 존중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를 측정한 변수, 그리고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긍정적이라고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변수는 가장 강한 긍정인 경우만 진로 준비 역량을 설명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강 관련 변수와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정도가 극단의 응답수준일 때 진로 준비 역량과 정적인 관계를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변수에 대한 응답 값이 커질수록 부정적인 상태나 인식을 의미하는 사회적 위축은 응답이 중간 이하일 때 SHAP 값이 양의 값으로 나타나 진로 준비 역량과는 부적인 관계로 나타났다. 5차와 4차 조사에 측정된 변수가 모두 진로 준비 역량의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사회적 위축 두 시점에 측정된 변수와 진로 준비 역량 간의 관계는 유사하였다. 또 다른

부적인 심리·사회적응 변수인 우울과 사회적 고립도 사회적 위축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극단적으로 낮은 응답에서만 SHAP 값이 0보다 컸다. 이를 통해 약한 정도지만 우울감을 느끼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고 인식하는 경우는 진로 준비 역량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이 두 변수의 SHAP 값은 다른 변수들과 비교할 때 매우 작아 진로 준비 역량과의 부적인 관계가 훨씬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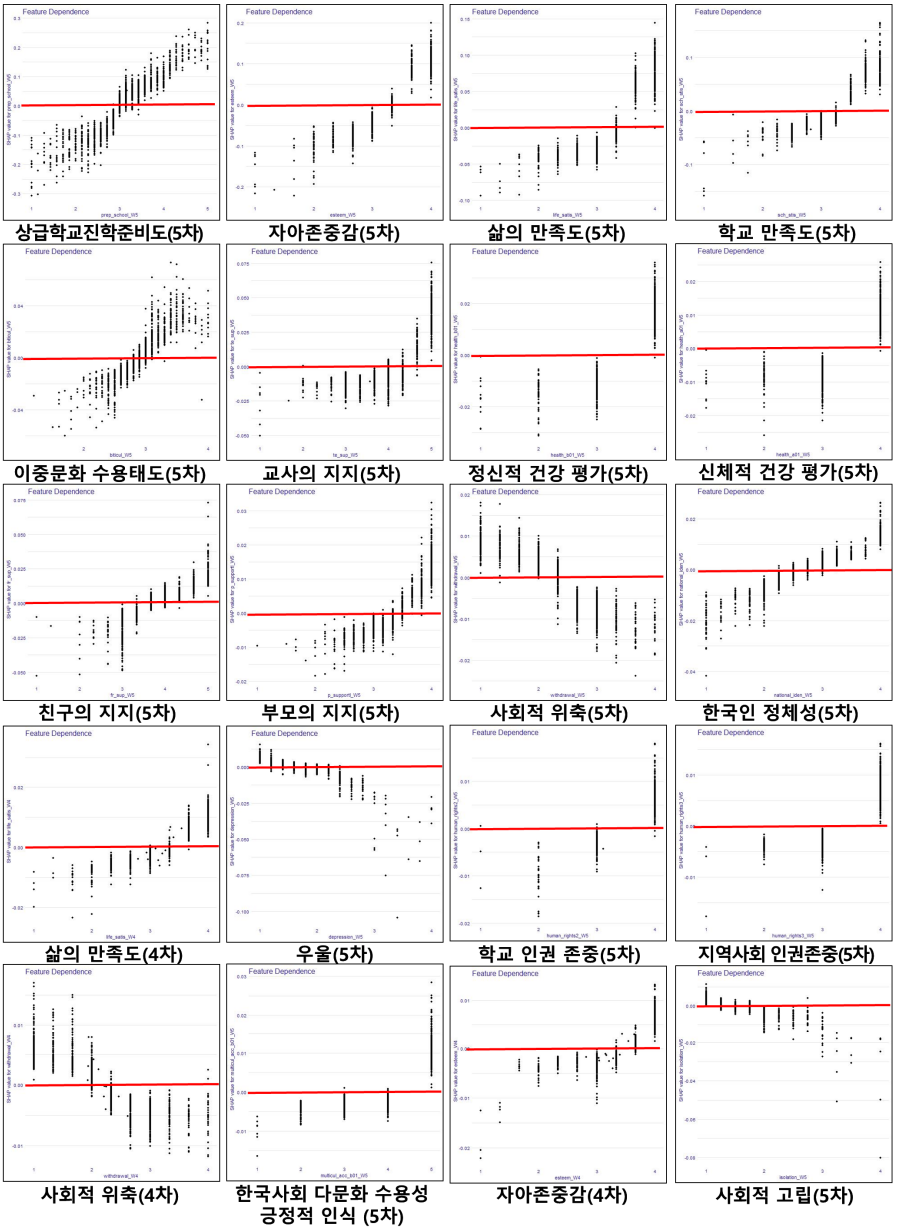


그림 V-16. 진로 준비 역량 주요 영향요인의 SHAP 의존성 도표

(2)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통해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을 도출한 결과는 [그림 V-17]과 〈표 V-26〉에 제시하였다. SHAP 요약 값을 기준으로 진로태도 결정성을 설명하는데 기여도가 가장 높은 변수는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였고, 이어서 진로와 진학 문제에 대한 걱정, 우울 순으로 나타났다. 20개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설명변수들을 살펴보면, 걱정과 우울, 사회적 위축, 스트레스와 같이 부적인 심리·사회 적응과 관련된 변수가 절반이었고, 이들의 순위도 비교적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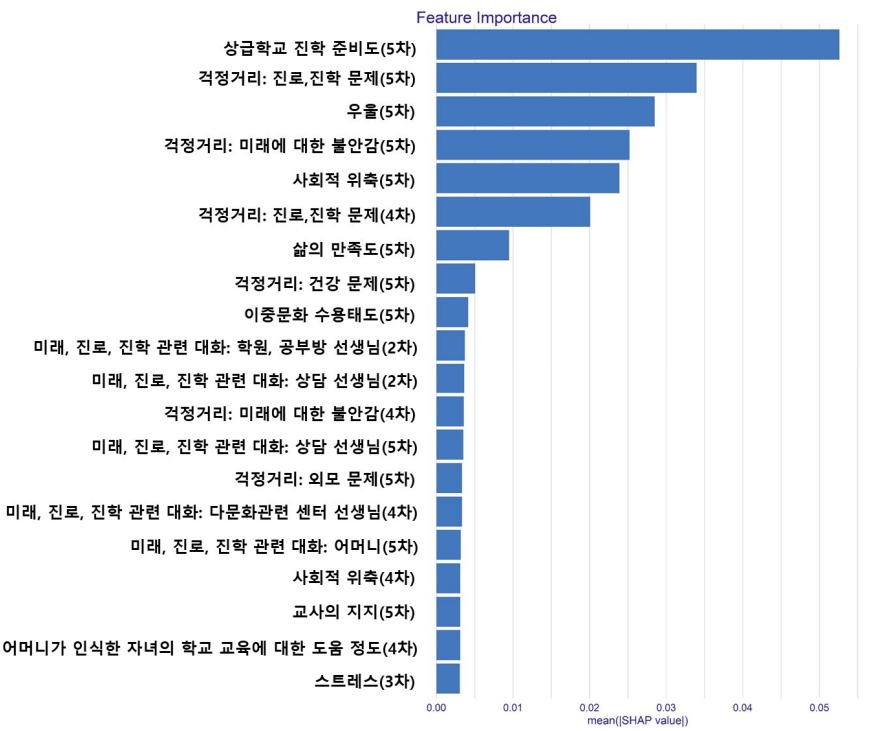


그림 V-17. 진로태도 결정성 주요 영향요인의 SHAP 요약 도표

진로태도 결정성의 주요 영향요인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개인 요인에 해당하는 변수가 총 17개로 가장 많았다.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개인 요인 중에서도 부적인 심리·사회 적응을 의미하는 변수들이 다수 포함되었고, 긍정적인 변수는 5차 조사에 측정된 삶의

만족도(7위)가 유일하였다. 다양한 걱정거리와 관련된 변수가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그중에서도 5차 조사에서 측정된 진로와 진학 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가 2위로 진로태도 결정성을 설명하는 기여도가 높은 변수로 확인되었다. 4차 조사에서 측정된 진로와 진학 문제에 대한 걱정 정도(6위) 또한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그 밖에, 5차 조사(4위)와 4차 조사(12위)에 측정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20개 영향요인에 포함되었고, 5차 조사에 측정된 건강 문제에 대한 걱정(8위)과 외모 문제(14위)에 대한 걱정도 진로태도 결정성을 설명하는데 기여도가 비교적 높았다. 또한, 5차 조사에서 측정된 우울(3위)도 진로태도 결정성을 설명하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개인 요인 중에서 진로와 관련된 설명변수가 다수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는데,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미래,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비롯한 주변의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 및 상담을 하는지에 대한 변수였다. 해당 변수는 다른 변수와 달리 여러 시점에 측정된 변수가 영향요인에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화의 대상과 시기를 살펴보면, 학원 및 공부방 선생님(2차 조사, 10위), 상담 선생님 (2차 조사, 11위; 5차 조사, 13위), 다문화 관련 센터의 선생님(4차 조사, 15위), 어머니(5차 조사, 16위)와의 대화 및 상담 정도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을 설명하는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요인 중에서는 부모영역의 변수인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19위)와 학교환경 영역 변수인 교사의 지지(18위)가 진로태도 결정성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다문화 요인과 관련된 변수 가운데 5차 조사에 측정된 이중문화 수용태도(9위) 하나만 포함되었다. 배경 특성과 개인 요인 영역의 학업 및 청소년 활동, 환경 요인의 친구와 지역사회 관련 변수는 진로태도 결정성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표 V-26. 진로태도 결정성 주요 영향요인

영역		변수	조차 차수	SHAP 요약 값	순위
다문화 요인		이중문화 수용태도	5차	.004	9
개인 요인	심리 사회 적응	스트레스	3차	.003	20
		걱정거리: 건강 문제	5차	.005	8
		걱정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	4차	.004	12
		걱정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	**5차**	**.025**	**4**
		걱정거리: 외모 문제	5차	.003	14
		걱정거리: 진로, 진학 문제	4차	.020	6
		걱정거리: 진로, 진학 문제	**5차**	**.034**	**2**
		사회적 위축	4차	.003	17
		사회적 위축	**5차**	**.024**	**5**
		삶의 만족도	5차	.009	7
		우울	**5차**	**.028**	**3**
	진로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	**5차**	**.053**	**1**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 학원, 공부방 선생님	2차	.004	10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 상담 선생님	2차	.004	11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 다문화관련 센터 선생님	4차	.003	15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 상담 선생님	5차	.004	13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 어머니	5차	.003	16
환경 요인	부모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	4차	.003	19
	학교생활	교사의 지지	5차	.003	18

* 주: SHAP 요약 값 기준 1~5위 변수는 진하게 처리함

진로태도 결정성의 20개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각 설명변수와 진로태도 결정성 간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V-18]과 같이 SHAP 의존성 도표를 확인하였다. 진로태도 결정성 설명에 있어 기여도가 가장 큰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는 5점 척도로 측정되었고, 응답 값이 4점 이상일 때 SHAP 값이 양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가 비교적 높은 수준일 때 진로태도 결정성 수준은 높으나, 4점 미만일 때는 진로태도 결정성이 낮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으로 가장 많이 도출된 걱정거리와 관련된 변수는 대체로 걱정 정도가 강할 때 SHAP 값은 음수로 산출되어 진로태도 결정성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4차와 5차 조사에 측정된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걱정 정도에 대한 변수는 걱정하지 않는다(2점 이하)고 응답한 경우는 SHAP 값은 양의 값으로 분포하고, 걱정한다(3점 이상)고 응답한 경우는 SHAP 값이 음수였다. 따라서 진로 및 진학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은 진로 및 진학에 대해 걱정한다고 응답한 경우보다 높으며, 걱정 정도가 강할수록 진로태도 결정성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차 조사에서 측정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도는 전혀 없다(1점)고 응답한 경우만 SHAP 값이 양수였고, 정도에 상관없이 걱정하고 있다(3점 이상)고 응답한 경우의 SHAP 값은 대부분 음의 값이었다. 이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전혀 없는 경우(1점)만 진로태도 결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며 나머지 응답 값(2~4점)을 갖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보다 높은 수준의 진로태도 결정성을 가짐을 의미한다. 4차 조사에 측정된 미래에 대한 불안감 정도의 경우, 2점 이하일 때의 SHAP 값은 대부분 양수인 반면 3점 이상일 때는 음의 값에 분포하였다. 5차 조사에서 측정된 같은 변수와 비교하면, 미래에 대한 불안 정도와 진로태도 결정성 간의 관계는 부적으로 같으나, 걱정 정도에 따른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건강에 대한 걱정과 외모 문제에 대한 걱정을 측정한 변수의 SHAP 값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경우(1점)만 대체로 양의 값이었으므로, 외모나 건강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은 조금이라도 외모나 건강에 대해 걱정하는 다문화청소년의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리·사회적응의 부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우울은 응답 값이 1인 경우만 SHAP 값이 양수로 나타나 조금이라도 우울감을 가지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5차 조사에서 측정된 사회적 위축은 전반적으로 중간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식하는 경우에 비해서 중간 이하(2점 이하)의 수준으로 인식할 때 진로태도 결정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4차 조사에서 측정된 사회적 위축의 응답이 약 3.5 이상인 경우에는 SHAP 값이 양에서부터 음에 값으로 넓게 분포함에 따라 사회적 위축 정도가 강한 경우는 진로태도 결정성의 기여 방향은 일관되지 않았다. 한편, 다른 부적 심리·사회적응 변수와 달리 3차 조사에서 측정된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을 때(2점 이하) SHAP 값이 음수에 분포하여 오히려 진로태도 결정성을 설명하는데 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3차 조사 당시 스트레스 정도가

높을수록 진로태도 결정성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래와 진로 및 진학에 대해서 주변 사람과의 대화 및 상담 정도와 관련된 변수의 SHAP 의존성 도표를 살펴보면, 대화의 대상 및 측정 시기에 상관없이 모두 대화 정도가 많을 때 진로태도 결정성을 긍정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차 조사 당시 다문화관련 센터의 선생님과 대화를 조금이라도 한다고 응답하였을 때(2점 이상) SHAP 값은 대체로 양의 값에 분포하여 다문화 관련 센터의 선생님과의 대화가 5차 조사에서 측정된 진로태도 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가 별로 없거나 전혀 없다고 응답했을 때의 SHAP 값은 음수이며 다른 변수들에 비해 그 크기가 매우 큰 편이며, 가끔 또는 자주 대화한다고 응답했을 때는 양의 SHAP 값을 가지나 그 크기는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이었다. 이는 어머니와의 대화 정도가 많다고 진로태도 결정성이 많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나, 대화를 거의 하지 않을 경우는 진로태도 결정성이 크게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4차 조사에서 측정된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4점)만 5차 조사에서 측정된 진로태도 결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였고, 그 정도도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대해서 3점 이상일 때 SHAP 값이 양수로 분포하므로 두 변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진로태도 결정성을 설명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된 설명변수의 SHAP 의존성 도표가 특정 응답 값을 기준으로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향이 나타난 것과 달리, 5차 조사에서 측정된 교사의 지지는 3점 미만일 때는 대체로 SHAP 값은 양수이고, 약 3.5에서 4.5점 사이의 응답에서는 SHAP 값이 주로 음의 값을 가졌으나 5점에 가까워질수록 다시 SHAP 값은 주로 양수인 것으로 나타나 진로태도 결정성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정적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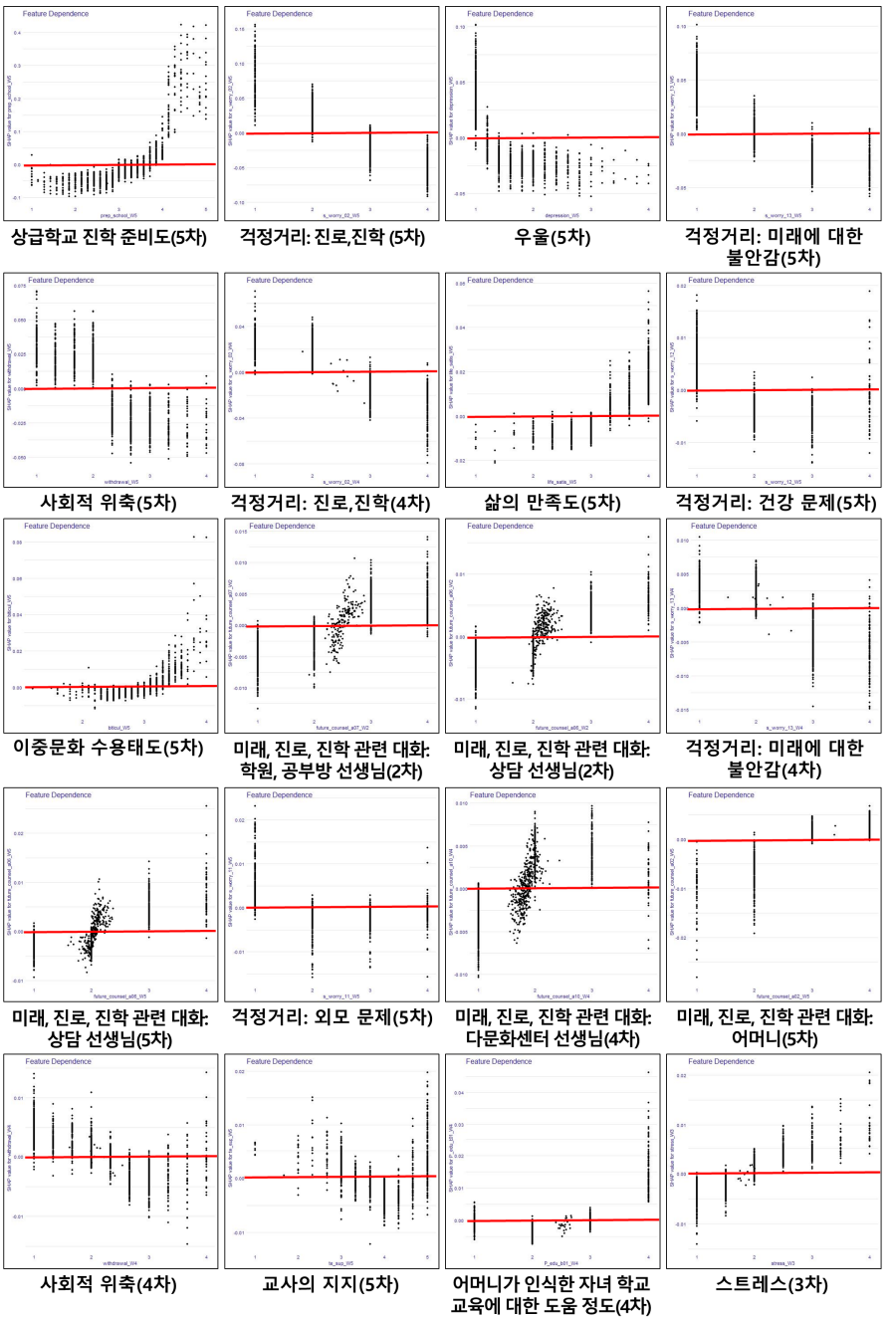


그림 V-18. 진로태도 결정성 주요 영향요인의 SHAP 의존성 도표

3) 요약 및 시사점

본 심화 분석에서는 2기 다문화청소년의 패널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개인 및 환경적 요인의 관계를 탐색하여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심화 분석으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과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시사점과 함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2023년 실시된 5차 조사에서 측정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을 반응변수로 설정하고, 1~5차 조사에서 수집된 391개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랜덤 포레스트 분석과 SHAP 지수를 기반으로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진로발달의 주요 대리변수인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 영향요인을 비교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강한 정적 영향요인으로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가 도출되었다.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는 진로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변수이므로 당연한 결과로 볼 수도 있으며, 선행연구에서도 진로 개발 역량과 진로 준비 행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거나(조영아, 정철영, 2013), 진로 개발 역량은 진로 준비 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류재윤, 이유경, 2012)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수준은 높으나 진로 준비 행동 수준은 낮은 경우도 있으며(진영선, 조아미, 2016), 진로태도 결정성과 진로 준비 행동 간의 부적 상관이 보고되기도 하였다(송지숙, 안귀여루, 2014). 이는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여러 요인 중 일부 관계에 중점을 두어 수행되었기 때문에 다소 상반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분석에서는 가능한 많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랜덤 포레스트 분석을 적용함에 따라 보다 종합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뿐 아니라 진로태도 결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준비 행동을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둘째, 진로 준비 역량의 영향요인으로 다문화 요인을 비롯한, 개인의 심리·사회적응, 진로, 환경 요인인 부모, 친구, 학교생활과 같이 다양한 영역의 변수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으로는 걱정거리나 자신의 미래나 진로와 관련한 대화 및 상담 정도와 관련된 변수가 다수였다. 물론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 교사의 지지 등 일부 변수는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공통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기도 하였

으나, 진로 준비 역량에는 자아존중감,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인식, 학교와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인권이 존중된다고 인지하는 정도, 친구의 지지, 부모의 지지 등 개인 및 환경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로태도 결정성 영향요인의 영역은 다양하지 않았다. 이는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심화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진로태도 결정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반면, 진로 준비 역량을 위해서는 진로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원뿐 아니라 마음 치유나 정서 조절과 같은 심리·정서 지원, 그리고 친구와 교사, 부모 등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진로 준비 역량의 영향요인은 사회적 위축, 우울, 사회적 고립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적 요인이었지만,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 중 부적 요인의 비율도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진로 준비 역량을 위한 지원과 교육의 방향은 긍정 요인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로태도 결정성을 위한 지원과 교육은 부적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의 접근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특히 진로태도 결정성의 주요 부적 요인으로 도출된 미래와 진로 및 진학에 대한 걱정을 낮추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미래와 진로에 대해 다양한 대상과 대화하고 상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진로태도 결정성을 위한 지원 방안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진로 준비 역량에는 우울과 사회적 고립의 영향 정도가 강했고, 진로태도 결정성은 어머니 관련 변수의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그러므로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진로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리·정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한편 어머니가 인식하고 있는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특히 어머니가 매우 강하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하는 경우의 영향 정도가 다른 요인에 비해 매우 컸다. 또한, 미래 및 진로와 관련한 대화나 상담을 어머니와 하지 않는 경우의 진로태도 결정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 및 학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부모 대상 교육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다섯째, 다문화 요인 또한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중문화 수용태도는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을 설명하는 데 기여 정도가 컸고, 한국인 정체성과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도는 진로 준비 역량의 정적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국가 정체성(백예은, 정혜원, 2023a), 다문화 수용성(김윤이, 2022)과 같은 다문화 요인이 진로태도 결정성의 긍정적 요인으로 보고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진로장벽 인식, 이중문화 수용태도, 사회적 위축의 종단적 인과 관계를 분석한 김은혜와 정민아(2024)의 연구에 따르면, 진로장벽 인식이 이중문화 수용태도에는 유의한 부적 지연효과는 존재하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서 진로장벽 인식으로 이어지는 부적 지연효과는 유의하지 않았고, 사회적 위축과 이중문화 수용태도 간 부적인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존재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와 본 심화 분석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하는 긍적적 이중문화 수용태도나 국가 정체성,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등은 진로 발달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다문화적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여러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이 같은 다문화 관련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청소년 개인의 노력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긍정적 경험을 할 수 있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함께 요구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 환경 조성은 다문화교육 정책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의 하나로 물리적 환경 조성, 진로·진학 상담교사를 포함한 전체 교원 역량 강화 및 다문화교육 학습공동체 운영 같은 인식 제고 환경 조성,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포함한 모든 학부모 대상 다문화교육 활성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20).

마지막으로 학업 관련 요인은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 모두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는 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성취동기(김윤이, 2022; 백예은, 정혜원, 2023a), 주관적 학업성취수준(권오영, 양계민, 2024; 인효연, 2020), 학습 동기와 학습 태도(박소영, 정혜원, 2021), 교과효능감, 학습 전략, 학습 동기(백예은, 정혜원, 2023b) 등의 학업 관련 변수가 청소년의 진로 발달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분석에서는 주관적 성적수준, 성적 만족도, 학교 공부의 어려움이 학업 관련 요인으로 분석에 투입되었지만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같이 다소 상반된 결과는 분석에 사용된 변수의 차이로 기인한 것일 수도 있으나,

연구 대상의 차이로 인한 것일 수도 있다. 앞서 제시한 선행연구는 주로 고등학교급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본 분석에서는 중학교 2학년 시기의 진로 준비 역량 및 진로태도 결정성과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사이에 측정된 변수들을 활용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다시 말해 청소년의 발달 단계 또는 학교급에 따라 진로 개발 역량과 관계가 있는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진로지원과 교육의 중점을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에서 초등학교급과 중학교, 고등학교급의 진로 개발 역량의 하위구인에 차별화를 둔 것처럼, 본격적으로 진로와 진학을 준비하기 이전 시점인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기에는 호기심, 도전정신, 유연성과 같이 진로 발달 전반에 관련된 다양한 역량을 기르기 위한 건강, 심리·사회 적응, 또래 관계 형성 등을 진로지원과 교육의 중점을 두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전환되는 시기부터는 학업적 요인을 포함한 실질적인 진로 및 진학 지원에 중점을 두어 진로지원 및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V-27.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 영향요인 비교

구분	정적 영향요인	부적 영향요인
공통	•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5차) • 이중문화 수용태도(5차) • 삶의 만족도(5차) • 교사의 지지(5차)	• 사회적 위축(4, 5차) • 우울(5차)
진로 준비 역량	• 한국 사회 다문화 수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5차) • 한국인 정체성(5차) • 신체적 건강 평가(5차) • 정신적 건강 평가(5차) • 삶의 만족도(4차) • 자아존중감(4, 5차) •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5차) • 학교에서 자신의 인권 존중(5차) • 부모의 지지(5차) • 친구의 지지(5차) • 학교 만족도(5차)	• 사회적 고립(5차)
진로 결정성	•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 학원, 공부방 선생님(2차) •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 상담 선생님(2, 5차)	• 걱정거리: 건강 문제(5차) • 걱정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4, 5차) • 걱정거리: 외모 문제(5차) • 걱정거리: 진로, 진학 문제(4, 5차)

구분	정적 영향요인	부적 영향요인
	•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 다문화 관련 센터 선생님(4차) • 미래, 진로, 진학 관련 대화: 어머니(5차) • 어머니가 인식한 자녀의 학교 교육에 대한 도움 정도(4차) • 스트레스(3차)	

표 V-28.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의 주요 영향요인 분석 결과 및 시사점

주요 결과	시사점
•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강한 정적 영향요인으로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가 도출됨	• 진로 준비 역량뿐 아니라 진로태도 결정성을 높이기 위해 진로와 관련된 구체적인 정보와 실질적인 준비 행동을 지원
• 진로 준비 역량의 영향요인으로 다문화 요인을 비롯한, 개인의 심리·사회적응, 진로, 환경 요인인 부모, 친구, 학교생활과 같이 다양한 영역의 변수가 도출되었으나. 진로태도 결정성 영향요인의 영역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않음	•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 – 진로 준비 역량을 위해서는 진로 정보 제공, 탐색 및 체험, 마음 치유나 정서 조절과 같은 심리·정서 지원, 친구와 교사 및 부모 등 사회적 지지 체계를 강화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에 중점 – 진로태도 결정성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진로를 탐색하고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실질적인 방안에 중점
• 진로 준비 역량의 영향요인은 사회적 위축, 우울, 사회적 고립을 제외한 대부분은 정적 요인이었지만,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 중 부적 요인이 많이 도출됨	• 진로 준비 역량을 위한 지원과 교육의 방향은 긍정 요인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진로태도 결정성을 위한 지원과 교육은 부적 요인을 제거하는 방향의 접근 고려
• 진로 준비 역량에는 우울과 사회적 고립의 영향 정도가 강했고, 진로태도 결정성은 어머니 관련 변수의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큼	• 진로 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심리·정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하고 이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 • 진로태도 결정성 강화를 위해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 및 학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학부모 대상 교육을 활성화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
• 다문화 요인 또한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됨	• 다문화청소년이 자신의 다문화적 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질 여러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의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 필요
• 학업 관련 요인은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 모두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음	• 청소년의 발달 단계 또는 학교급에 따라 진로 개발 역량과 관계가 있는 요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학교급에 따라 진로지원 및 교육의 방향과 중점을 다르게 설정

제6장 심층면접(IDI & FGI):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경험 및 지원에 대한 질적 조사

1.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2.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현장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 (FGI): 진로설계프로그램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중심으로
3. 소결

6 심층면접(IDI & FGI):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경험 및 지원에 대한 질적 조사[16)]

1.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1) 조사개요

(1) 조사목적

본 질적조사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로·진학과 관련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다문화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위해 2기 패널 청소년을 이주배경 유형(국내출생 국제결혼가정,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자녀)별로 구분하여 심층면접조사(In-depth Interview)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문화청소년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가 다문화청소년을 패널로 구축하여 매년 추적조사하며 양적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들의 개별적인 상황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경험을 양적 자료로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심층면접조사는 연구 수행에 있어 양적, 질적 연구방법의 강점을 활용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연구방법(또는 혼합연구방법, mixed methods)(Tashakkori & Teddlie, 2003, 김영천 2013: 546에서 재인용)의 일환으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올해 본 연구의 분석에 활용되는 2기 패널의 양적 자료가 2023년에 수집된 것이지만, 실제 분석은 본 면접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과 거의 동시에 수행된다. 따라서, 본 면접조사는 이 양적 패널조사의 사전 또는 사후 실시를 통해 상호 보완하는 방식이라기보다

16) 6장은 김희진 선임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양적 종단자료 분석과 같은 시기에 다문화청소년을 통한 직접적인 질적자료 수집 및 분석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삼각검증(triangulation)과 유사하게 추진된다. 이는, Denzin(1978)이 정의한 "한 가지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방법론적 삼각검증"으로(methodological triangulation)으로, "각 연구 방법이 경험적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냄에 따라 관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논의(Patton, 2002: 247에서 재인용)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17] 양적 자료 분석 결과와 더불어, 다문화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직접적인 목소리 청취 및 분석을 수행하는 방법론적 삼각검증을 통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로·진학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조사대상

본 심층면접조사의 대상은 양적 종단조사에 참여한 2기 패널로, 현재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어서 고등학교로의 학교급 전환을 앞둔 상태이다. 이 시기는 청소년기 발달단계의 특성상 심리정서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교급 전환과 관련한 미래에 대한 고민과 여러 불확실한 전망 속에서 불안함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다. 즉,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을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유형(일반계고, 특성화고, 특수목적고 등)을 선택해야 하지만, 이주배경이라는 특성상 정보 접근 및 관련 준비에 있어 한계를 가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심리적 불안을 더 크게 경험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가정환경(부모관련 요인), 심리정서적 측면, 학교·학업 적응, 진로관련 변인(진로성숙도, 진로태도준비, 진로장벽 등) 등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할 때(곽은정, 이수경, 2022; 유승희, 2020; 이동욱, 2022; 이영신, 2024; 쩐투꾹, 이윤석, 2022; 채경선, 마미숙, 2015 등), 고등학교로의 전환을 앞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면접조사대상에는 2기 패널 양적 종단조사 참여자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이주배경 유형(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중도입국가정, 외국인가정 자녀)을 모두 포함하며, 거주지역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선정하였다. 다문화청소년으로 통칭하지만, 이들은

17) 한편으로, 올해 양적 자료수집도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질적, 양적 연구 요소가 동시에 수행되는 병렬적 통합설계(parallel mixed designs)로도 볼 수 있으나(Teddie & Tashakkori, 2009), 본 연구가 최초 시작된 2011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설계 당시 본격적인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한 것은 아님에 따라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 생활하고 있음에 따라, 이주배경 유형이 상이한 청소년들로부터 질적자료를 수집하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적인 다양성도 고려하였다. 2023년도 연구에서 이주민 밀집지역과 비밀집지역을 구분하여 면접조사를 실시하면서 이와 관련된 정책을 도출한 바 있어, 올해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여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즉,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외국인주민 자녀)의 비율이 2022년 기준 46.9%로 거의 절반에 가까웠는데(행정안전부, 2023), 다문화가족의 일자리를 포함한 다양한 인프라 차이가 다문화청소년의 성장에도 상이하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거주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올해 면담참여자 선정과정에서 양적 종단조사 참여자와의 일관성과 선행연구들에서 보고하는 이주배경 유형별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 학교생활 등 관련 발달 측면에서의 차이(류방란, 오성배, 2012; 박윤경, 이소연, 2009; 오성배, 2009; 신동훈 외, 2023)를 고려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주배경 유형별로 지역별 면접대상자 수를 배분하였다(표 Ⅵ-1). 다문화청소년의 이주배경 유형 중 국내 출생이 타 유형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음에 따라 국내출생 면접대상자 수를 더 안배하였으며,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수도권에 인구수가 더 많고 다양한 상황이나 환경에 노출될 수 있어 한 명을 더 추가하였다.

표 Ⅵ-1. 다문화청소년 IDI: 면접조사 참여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구성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합계
국내출생	3명	3명	6
중도입국	2명	2명	4
외국인가정	3명 (국내 출생 2명, 국외 출생 1명)	2명 (국내, 국외출생 각 1명)	5
합계	8	7	15

구체적인 면접참여자 섭외는 올해 양적 조사에 참여하는 2기 패널 중 면담참여 의사를 밝힌 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의 면접대상자 구성안에 따라 추진되었다. 일부는 전년도 면접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상황 및 환경의 변화와 그에 따른 인식의 변화

도 종단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지난 2023년도 면접조사에서 한국어 미숙련 사례의 경우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제나 어려움이 상당 부분 언어문제로 귀결되어 더 이상의 심층적인 내용을 탐색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에는 다문화청소년이 우리 사회 청소년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정서적 측면 및 진로·진학과 관련해 보다 깊이 있고 상세하게 청취하기 위해 한국어 소통이 원활한 청소년으로 섭외하였다. 청소년 면담을 진행하면서 추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연구진 협의를 거쳐, 일부 학부모를 대상으로 면접을 실시하였다. 인터뷰 거절과 제한된 연구기간 등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5명을 대상으로 추가 면담이 이루어졌다. 올해 연구에서는 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에 초점이 있음에 따라 학부모를 통해 제시된 정보는 보조적인 수단으로 사용하였으며, 동일 사안에 대한 다른 인식과 이해 등이 관찰되는 경우 보다 상세하게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의 인구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Ⅵ-2〉와 같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제결혼가정 국내출생 청소년 6명, 중도입국 청소년 4명, 외국인가정 청소년 5명으로, 총 15명 중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지역별 구성은 각각 8명과 7명이었다. 이를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8명, 충청권 2명, 전라권 2명, 경상권 3명이었으며, 성별로는 남자청소년이 7명, 여자청소년이 8명이었고 모두 중학교 3학년이었다. 청소년들의 어머니 국적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중국 4명, 필리핀 4명, 베트남 3명, 미국 1명, 카자스흐탄 1명, 일본 1명, 캄보디아 1명 등 비교적 골고루 분포되었다. 학부모 대상 면접은 이미 면접을 마친 청소년들을 통해 수집된 정보에 기반하여 일부 추가된 것으로, 연구에 참여한 학부모 5명의 국적은 베트남 2명, 중국, 필리핀, 일본은 각 1명이었다. 청소년1 사례의 경우 당초 어머니만 면접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정되었으나, 아버지가 동행함에 따라 간간이 어머니의 답변을 부연하였다.

마지막으로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은 총 3명이었다. 전년도에 면접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의 전사자료를 살펴보면서,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로와 관련하여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청소년 5명을 대상으로 섭외를 시도하였으나, 최종적으로 3명만이 올해 면접조사에 참여하는데 동의하였다.

표 Ⅵ-2. 다문화청소년 IDI: 면접 참여 청소년 인구학적 특성

ID*	가명	성별	다문화배경	지역 구분	어머니 출신국	비고**
청1-외국외	임정현	여	외국인가정-국외출생	비수도권	중국	부모 모두 면접 참여
청2-국내	장우진	남	국내출생	비수도권	필리핀	—
청3-중도	정일우	남	중도입국	수도권	필리핀	—
청4-외국내	기현수	남	외국인가정-국내출생	수도권	중국	—
청5-중도	이지현	여	중도입국	비수도권	베트남	—
청6-국내	은영우	남	국내출생	비수도권	중국	—
청7-외국외	이유정	여	외국인가정-국외출생	수도권	미국	—
청8-국내	임수진	여	국내출생	수도권	베트남	'23 면접 참여, 어머니 면접 참여
청9-중도	장경일	남	중도입국	비수도권	필리핀	'23 면접 참여, 어머니 면접 참여
청10-국내	강현준	여	국내출생	비수도권	중국	—
청11-국내	기보현	남	국내출생	수도권	카자흐스탄	—
청12-국내	남희정	남	국내출생	수도권	캄보디아	—
청13-중도	변수정	여	중도입국	수도권	일본	'23 면접 참여, 어머니 면접 참여
청14-외국내	강숙희	여	외국인가정-국내출생	비수도권	베트남	어머니 면접 참여
청15-외국내	류이다	여	외국인가정-국내출생	수도권	필리핀	—

* 주: 청소년ID는 청소년의 일련번호와 다문화배경을 축약해서 구성함(국내: 국내출생, 중도: 중도입국, 외국내: 외국인가정-국내출생, 외국외: 외국인가정-국외출생)

** 전년도 면접 참여 여부 및 부모 면접 참여 정보

(3) 조사내용

면접조사의 내용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로·진학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되,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을 수 밖에 없는 전반적인 성장·발달 환경 및 그 맥락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의 개인적 상황 및 특성, 가정과 학교생활 및 경험들에 대해서는 2023년 면접조사의 틀을 참고하였고, 심리정서적 부분과 진로관련 내용은 더욱 구체화하여 면접 질문을 개발하였다. 특히, 자신에 대한 생각, 심리상태, 정신건강을 포함한 심리정서적 측면을 상세히 파악하기 위해 우울, 불안과 같은 심리적 요소와 고립감 및 위축감 경험과 같은 사회적 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 내용에 추가하였다. 아울러, 심리정서적 측면에 대한 질문 시에는 과거와 다른 변화나 차이가 있는지 여부와 그 이유를 탐색하고자 하였다.

표 Ⅵ-3. 다문화청소년 IDI: 면접조사 내용(안)

영역	면접조사 주요 내용
개인적 상황 (특성)	• 현재 생활에 대한 생각, 만족도 변화 • 신체적 건강 및 변화 • 자신에 대한 생각(국외출생의 경우 입국에 대한 본인의 생각, 동기)
	• 자신의 심리적 측면에 대한 인식(우울, 불안 등) • 정신적 건강 및 변화
가정·부모	• 부모 및 가족구성원과의 관계: 친밀도, 관심정도, 대화시간/주제, 사용언어 등
	• 가정 내에서 보내는 시간 및 활동 유형 • [국외출생] 입국 전/후의 가정환경, 단절 경험
	• 가정생활에서 어려운 점, 혹은 고민 • 부모님 및 가족에게 바라는 점
사회적 관계	• 사회적 관계(또래 관계)에서의 어려움, 고립감, 위축 등
	• 소중한 사람, 고민 의논 상대
학교·학업	• 교사 및 교우와의 관계
	• 학교에 대한 만족도 • 학교생활 중 성취 경험 및 과정 • 학업성적에 대한 평가, 학업에 대한 관심
	• 학교생활에서 어려운 점, 혹은 고민 및 해결과정 • 학교 및 선생님에게 바라는 점, 지원 요구
진로·진학	• 고등학교로의 학교급 전환, 진학에 대한 생각 • 진로결정, 미래에 대한 생각·포부, 영향을 준 사람·사건 등 • 부모의 기대
	• 진로준비(진학 준비 포함): 학교/학교외 준비, 애로사항, 어려움, 지원 요구
지역사회·지원	• 방과 후 (집 이외) 시간을 보내는 장소 및 활동 • 지원기관(청소년센터, 다문화센터, 학원 등) 이용 여부 및 경험, 지원 요구 • 동네 및 이웃에 대한 생각(만족감, 친밀감)
	• 지역사회생활에서 어려운 점 혹은 고민 등

* 출처: 신동훈 외(2023).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pp.300~301 발췌 및 일부 내용 추가·보완

주: 면접대상자 중 2023년에 이어 올해도 면접에 참여한 경우 전년 대비 변화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였음. 어머니 대상 면접에서는 자녀에 대한 위의 조사내용에 기초하여 자녀의 심리정서적 상태와 학교생활, 진로에 초점을 두어 질문하였음.

청소년 발달의 주요 환경인 가정 및 부모에 대한 조사 내용은 2023년과 유사하게 구성하였으며, 올해 면접조사에서 추가되는 내용이 있음에 따라 전체적인 인터뷰 시간을 고려하여 가정에서의 역할, 가정 내 시간 및 활동 유형 등에 대한 질문은 최소화하였다. 청소년기 심리적 측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또래 관계와 관련해서는 고립과 위축감 이외에,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과 고민이 있을 때 누구와 의논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추가하였다.

학교생활 역시 청소년기 중요한 성장·발달 영역이지만, 진로·진학에 대한 내용이 추가됨에 따라 일부 내용을 축소하였고, 작년 조사내용에 포함되었던 초등학교 시기와의 차이, 자유학기(년)제 경험 등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면접대상자와의 관련성이 떨어지는 질문들은 제외시켰다.

진로·진학과 관련해서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시기 특성상 어떤 유형의 학교로 진학할 예정인지,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로를 결정하였는지 등과 미래에 대한 포부, 이러한 생각에 영향을 준 사람·사건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특히, 부모의 기대 수준과 이에 대한 청소년들의 생각도 조사하였다. 그리고 진로를 준비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함으로써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 내용을 도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내 청소년센터 및 가족센터(또는 다문화가족센터)와 같은 지원기관 이용 경험과 지역사회 생활에서의 만족도 및 아쉬운 점, 도움이 필요한 내용과 지원 요구 등을 파악하는 내용으로 질문지를 구성하였다. 또한 사전에 준비한 구체적인 질문 내용 외에도 면접참여자가 관련 이야기를 희망할 때, 편히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이끄는 내용으로 마무리하였다.

연구진 차원에서 작성된 면접지 초안에 대해서는 다문화청소년 분야의 학계 전문가, 관련 정책 연구자, 가족센터 등의 현장 전문가, 다문화청소년 대상 지원 경험이 있는 학교 교사 등 7명의 전문가를 통해 서면 검토 및 자문을 받았다. 이러한 자문 결과가 반영된 수정 면접지는 연구진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학부모 대상 면접지는 자녀에 대한 내용에 초점을 맞춰져 있음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면접지에서 주어 및 일부 서술을 수정하여 그대로 활용하였다(예: ○○가 속마음을 털어놓거나 고민을 의논할 사람이 있나요? ○○이의 진로에 대해서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 이렇게 구성된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면접조사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승인번호: 202406-HR-고유-012)를 거친 후 인터뷰에 활용되었다.

(4) 조사 절차

본 다문화청소년 면접조사를 위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마친 후 본격적인 면접 추진을 위해 먼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 워크숍에는 연구진

과 조사위탁기관의 면접대상 섭외 진행자, 그리고 면접을 함께 진행할 외부 면접원이 참여하였다. 조사위탁기관과는 면접조사 대상자 섭외 및 면접 일정, 조사결과 녹취 및 전달 일정 등에 대해 협의 및 조율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면접에 참여하는 외부면접원들과는 본 조사에 대한 연구진과의 공통된 이해를 위해 면접조사 개요를 공유하였고, 면접조사지를 전체적으로 리뷰하며 예상되는 상황과 이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면접조사는 연구진 포함 총 3인이 진행하였다. 이 중 1인은 전년도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의 면접조사에 면접원으로 참여한 사회복지전공 박사로 본 연구와 면접대상에 대한 이해가 많았다. 이에 워크숍에서 전년도 면접 참여 경험을 공유하면서 올해 면접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였다(인터뷰 환경, 청소년이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나 어휘 공유, 질문방식 재고 등). 또 다른 면접원 1인은 청소년복지전공 석사로 수년간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의 면접조사 경험이 많았는데, 워크숍을 통해 이번 면접조사에 대해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 궁금한 점을 충분히 논의한 후 실제 면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워크숍을 통한 사전 준비 외에도 면접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연구진, 면접원, 조사위탁기관 등 관계자 간 면접 일정과 면접대상자, 담당 면접원 등의 정보를 공유하였고, 면접이 예정된 일정에는 최대한 관계자 간 소통을 원활히 유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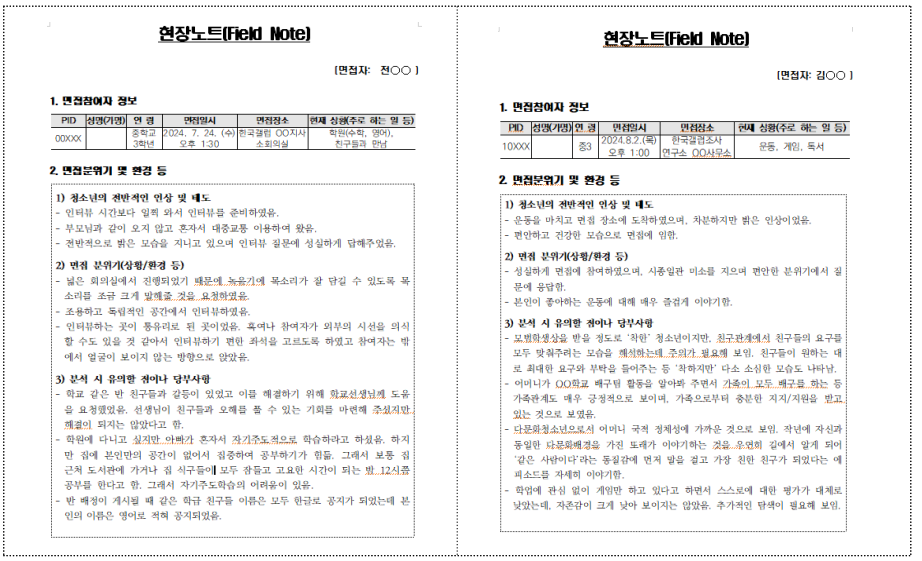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 15명과 학부모 5명에 대한 인터뷰는 면접원 3명이(연구진 1명, 외부면접원 2명) 동일 비중으로 나눠서 진행하였고,[18] 모든 면접은 1:1 심층면접방식(IDI: In-depth interview)으로 실시되었다. 면접 일정은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가 가능한 시간을 우선하여 결정하고 면접원들이 시간을 조율하여 진행하였는데(표 Ⅵ-4), 방학 중임에도 주말을 선호하는 사례가 여럿 있었다. 인터뷰는 각 참여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조사위탁기관(지사) 간담회실이나 회의실 등에서 대면으로 진행되었다. 해당 시간에 면접대상자가 도착하면, 간단한 인사 등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을 갖고 본 면접조사의 목적과 주요 내용, 방법(영상촬영 또는 녹음) 및 절차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쳤다. 아울러, 조사참여 동의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서면 동의를 받은 후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18) 일부 인터뷰에는 연구책임자도 참관하여 인터뷰 진행에 기여하였다(추가 질문, 이후 인터뷰 당시 분위기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 등).

표 Ⅵ-4. 다문화청소년 IDI: 면접조사 일정 및 관련 정보

일시	지역	ID-이주배경 유형	어머니 국가	조사대상자 수
2024. 7. 24(수)	충청권	청1-외국외	중국	청소년 2명
		청2-국내	필리핀	
2024. 7. 26(금)	서울	청3-중도	필리핀	청소년 4명
		청4-외국내	중국	
	전라권	청5-중도	베트남	
		청6-국내	중국	
2024. 7. 27(토)	서울	청7-외국외	미국	청소년 2명
		청8-국내	베트남	
2024. 7. 28(일)	경상권	청9-중도	필리핀	청소년 1명
2024. 7. 29(월)	서울	청10-국내	카자흐스탄	청소년 2명
	서울	청11-국내	서울	
2024. 7. 31(수)	경상권	청12-국내	베트남	청소년 2명
		청13-중도	중국	
2024. 8. 2(금)	서울	청14-외국내	캄보디아	청소년 2명
		청15-외국내	일본	
2024. 8. 28(수)	충청권	청1-외국외-부모	중국	부모 2명
2024. 9. 1(일)	경상권	청9-중도-모	필리핀	어머니 2명
		청14-외국내-모	베트남	
2024. 9. 2(월)	서울	청8-국내-모	일본	어머니 1명
2024. 9. 7(토)	서울	청13-중도-모	베트남	어머니 1명

인터뷰는 사례에 따라 대략 50분에서 1시간 30분정도 진행되었으며, 이후에 해당 면접원은 현장노트(Field note)를 작성하여 분석을 담당하는 연구진에게 전달하였다. 이는 전사자료에 기록될 수 없는 인터뷰 현장에서의 면접참여자의 태도와 면접 분위기, 그리고 이외 비언어적 주요 정보(명료한 대답 대신 소극적으로 고개를 가로젓는 등의 내용)들을 메모한 것으로, 연구자가 전사자료를 이해하고 분석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하였다(예시: 그림 Ⅵ-1). 연구진이 모든 면접대상자를 직접 관찰하며 면접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현장노트는 면접분위기와 진행 상황 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최종적으로 녹화, 녹음된 인터뷰 내용은 녹취되었으며, 해당 전사자료는 분석에 활용되었다.



현장노트(Field Note)

[면접자: 전○○]

1. 면접참여자 정보

PID	성별(기명)	연 령	면접일시	면접장소	현재 신분(주로 하는 일 등)
00XXX		중학교 3학년	2024. 7. 24. (수) 오후 1:30	한국결핍 OO지사 소회의실	학원(수학, 영어), 친구들과 만남

2. 면접분위기 및 환경 등

1)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상 및 태도
- 인터뷰 시간보다 일찍 와서 인터뷰를 준비하였음.
- 부모님과 같이 오지 않고 혼자서 대중교통 이용하여 왔음.
- 전반적으로 밝은 모습을 지니고 있으며 인터뷰 질문에 성실하게 답해주었음.

2) 면접 분위기(상황/환경 등)
- 넓은 회의실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녹음기에 목소리가 잘 담길 수 있도록 목소리를 조금 크게 발해줄 것을 요청하였음.
- 조용하고 독립적인 공간에서 인터뷰하였음.
- 인터뷰하는 곳이 통유리로 된 곳이었음. 혹여나 참여자가 외부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인터뷰하기 편한 좌석을 고르도록 하였고 참여자는 밖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앉았음.

3) 분석 시 유의할 점이나 당부사항
- 학교 같은 반 친구들과 갈등이 있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했었음. 선생님이 친구들과 오해를 풀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지만 해결이 되지는 않았다고 함.
- 학원에 다니고 싶지만 아빠가 혼자서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하라고 하셨음. 하지만 집에 본인만의 공간이 없어서 집중하여 공부하기가 힘듦. 그래서 보통 집 근처 도서관에 가거나 집 식구들이 모두 잠들고 고요한 시간이 되는 밤 12시쯤 공부를 한다고 함. 그래서 자기주도학습의 어려움이 있음.
- 반 배정이 게시될 때 같은 학급 친구들 이름은 모두 한글로 공지가 되었는데 본인의 이름은 영어로 적혀 공지되었음.

현장노트(Field Note)

[면접자: 김○○]

1. 면접참여자 정보

PID	성별(기명)	연 령	면접일시	면접장소	현재 신분(주로 하는 일 등)
10XXX		중3	2024.8.2.(목) 오후 1:00	한국갈업조사 연구소 OO사무소	운동, 게임, 독서

2. 면접분위기 및 환경 등

1) 청소년의 전반적인 인상 및 태도
- 운동을 마치고 면접 장소에 도착하였으며, 차분하지만 밝은 인상이었음.
- 편안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면접에 임함.

2) 면접 분위기(상황/환경 등)
- 성실하게 면접에 참여하였으며, 사풍일관 미소를 지으며 편안한 분위기에서 질문에 응답함.
-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 매우 즐겁게 이야기함.

3) 분석 시 유의할 점이나 당부사항
- 모범학생상을 받을 정도로 '착한' 청소년이지만, 친구관계에서 친구들의 요구를 모두 맞춰주려는 모습을 해석하는데 주의가 필요해 보임. 친구들이 원하는 대로 최대한 요구와 부탁을 들어주는 등 '착하지만' 다소 소심한 모습도 나타남.
- 어머니가 OO학교 배구팀 활동을 알아봐 주면서 가족이 모두 배구를 하는 등 가족관계도 매우 긍정적으로 보이며, 가족으로부터 충분한 지지/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음.
- 다문화청소년으로서 어머니 국적 정체성에 가까운 것으로 보임. 작년에 자신과 동일한 다문화배경을 가진 또래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길에서 알게 되어 '같은 사람이다'라는 동질감에 먼저 말을 걸고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에피소드를 자세히 이야기함.
- 학업에 관심 없이 게임만 하고 있다고 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대체로 낮았는데, 자존감이 크게 낮아 보이지는 않았음. 추가적인 탐색이 필요해 보임.

주: 현장노트 내용은 익명화를 위해 여러 청소년들에 대한 내용을 통합하여 예시로 제시함.

그림 Ⅵ-1. 다문화청소년 면접조사 현장노트 예시

(5) 분석방법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수집된 질적자료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귀납적 자료 분석(Inductive analysis)을 기본으로 수행하되, 비교분석을 통해 면접사례들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한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ative analysis)(Patton, 2002)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개별 사례들의 이야기를 계속 비교하였고, 시간 경과에 따른 변화와 차이, 이주배경 유형과 지역 간 차이 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개방코딩을 진행하였으며, 이후 도출한 의미단위들을 범주화하였고, 이러한 "범주가 연구의 질문과 관련하여 수집된 자료의 특성을 잘 성명하고 있는지" 재확인하는 과정인 범주 확인 작업(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337)을 수행하였다.

이 일련의 과정에서 전사자료에 내포되어 있는 과거와 현재 생각의 차이, 동일 사안에 대한 청소년과 학부모 인식의 차이, 또 이주배경 유형과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 등에 대한 비교와 분류를 반복하면서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차원과 진로·진학과 같은 핵심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단어를 중요하게 사용하는지에

주목하고(은유나 비유 포함), 이를 직접 인용하여 청소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로 표현되는 현재의 인식과 관점을 더욱 조명하고자 하였다. 보조적으로 면접을 실시한 5명 학부모의 전사자료는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면접조사에서 답변한 내용이 다소 불확실하거나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여 교차검증 및 구체적인 정보를 추가하는 차원에서 활용하였다.[19)]

2023년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중 올해 면접에 참여한 사례는 세 명으로 자료수집 간격이 1년에 불과해 양적·질적으로 많은 변화가 관찰되지는 않았다. 이에, 중학교 2학년 시기를 거쳐 현재 고등학교로의 교급 전환기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 및 진로 영역에서의 변화 유무에 주목하고, 해당 영역에서 청소년과 어머니 총 6명의 2023년과 2024년 인터뷰 자료를 비교, 검토하면서 종단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을 담당한 연구자는 과거 취약계층 대상의 연구 경험이 이 질적연구 결과의 분석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분석과정에서 본인이 직접 인터뷰하지 않은 사례의 경우 전사자료를 읽으면서 의문이 들거나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해 보이는 사안들은 현장노트를 참고하였고, 추가적으로 담당 면접자와 인터뷰 참관 연구자의 확인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잘못된 이해와 분석의 오류를 피하고 최대한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면접대상 청소년의 상황과 인터뷰 내용, 특히 일부 청소년과 학부모의 인식의 차이, 종단적 변화 상황 등에 대해서는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전사자료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마지막 과정에서 범주화된 내용과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확인하며 비교하였으며, 자료 분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분석결과(범주화와 결과에 대한 해석 등)에 대해서는 질적연구전문가(외부감사 audit)의 자문을 거쳐 분석을 마무리하였다.

분석 결과를 본격적으로 제시하기에 앞서 먼저 면접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의 현재 상태와 본 연구의 초점인 심리정서적 상태와 장래 희망을 정리하면 〈표 Ⅵ-5〉와 같다. 이후 제시되는 분석결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면접 시점에 방학이 막 시작된 상황이어서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유롭게 방학생활을 즐기거나 다양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였고, 음악 활동이나 게임과 같은 취미/여가 시간을 갖고 있었다. 학업을 위해 사교육에 시간을 할애하는 사례도 상당수 있었다.

19) 전년도 연구에서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동일 비중으로 조사, 분석하였다면, 올해는 청소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의견에 집중하였으며 학부모 인터뷰도 조사대상자인 자녀에 관한 이야기에 초점을 두었다.

표 VI-5. 다문화청소년 IDI: 면접 참여 다문화청소년의 현재 상태 및 장래 희망 정리

ID	가명	성별	다문화배경	특성	어머니 국적	주로 하는 일 (방학기간)	심리정서적 상태	장래희망
청1-외국외	임정현	여	외국인가정-국외출생	비수도권	중국	학원(수학, 영어), 친구들과 시간보냄.	학교폭력 피해(다문화배경 관련)로 힘들었음, 지금은 학원에 다니면서 친구들이 있어 기분은 괜찮은 편임.	비행기 승무원
청2-국내	장우진	남	국내출생	비수도권	필리핀	운동(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공부	초등학교 때는 외로웠지만 중학생인 지금은 친구가 많아 좋음. 행복한 사람으로 생각함.	태권도 선수 국가대표, 기계공학, 경호
청3-중도	정일우	남	중도입국	수도권	필리핀	운동(축구), 다이어트	친구, 가족들과의 관계가 좋아서 행복함, 혼자 게임을 할 때 편안함.	직업군인, 축구선수, 자동차 정비
청4-외국내	기현수	남	외국인가정-국내출생	수도권	중국	학원(수학, 영어, 논술)	초등학교 때 학교폭력을 경험하여 트라우마가 있지만 현재는 편안하고 행복함.	소설가, 웹툰 스토리 작가, 성우
청5-중도	이지현	여	중도입국	비수도권	베트남	자유로운 방학 생활, 도서실	최근 반 안에서 친했던 친구들과의 갈등으로 스트레스가 많음.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교사
청6-국내	은영우	남	국내출생	비수도권	중국	학원(수학, 영어), 선행학습	친구들도 많고 행복하며 딱히 나쁜 건 없음. 공부 스트레스를 빼면 만족함.	학업에 먼저 집중하고 나중에 결정(과거 의사, 한의사, 대기업 생각)
청7-외국외	이유정	여	외국인가정-국외출생	수도권	미국	수학 문제집 풀기, 책 읽기, 취미생활(밴드부 전자기타) 연습, 요리, 사진	작년에는 사이가 좋지 않은 친구로 인해 속상했지만, 지금은 행복하고 친구 관계도 원만함.	요리사, 작가, 사진작가 (기타리스트)
청8-국내	임수진	여	국내출생	수도권	베트남	자유로운 방학생활, 학원(수학)	대체로 참는 성격이고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음. 부모님보다 동생과 대화가 더 편함. 2023년에 학교의 종합심리검사에서 위기 징후를 보여 위센터 개입(10회기 상담)을 받음.	메이크업 아티스트

ID	가명	성별	다문화배경	특성	어머니 국적	주로 하는 일 (방학기간)	심리정서적 상태	장래희망
청9-중도	장경일	남	중도입국	비수도권	필리핀	운동(복싱, 스케이트 보드, 축구, 볼링), 수학학원	긍정적이며 스스로 정신력이 강하다고 생각함.	전기공학, IT분야
청10-국내	강현미	여	국내출생	비수도권	중국	예습, 학원(영어, 수학)	고등학교 준비와 친구 관계로 간혹 불안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안정적이고 편안함. 긍정적이고 가치있는 사람이지만, 자존감은 낮음.	간호사
청11-국내	기보현	남	국내출생	수도권	카자흐스탄	공부(영어), 자유로운 방학 생활(친구들과 놀기), 농구	친구/가족과 다 잘 지내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부분 없이 행복함.	천문학, 물리학, 한국천문연구원 연구자
청12-국내	남희정	남	국내출생	수도권	캄보디아	게임, 친구들과 만남, 운동(배드민턴, 티볼)	친한 친구와 관계 악화로 고민 중, 친구들을 잘 돕고 배려하지만 다소 과해 보이기도 함.	프로그램 개발자, 군인, 회사원, 바텐더
청13-중도	변수정	여	중도입국	수도권	일본	평일 □□여자배구유소년팀 및 태권도, 주말에는 가족과 ○○학교 배구클럽활동	감정 기복이나 부정적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 편임, 정서가 안정돼 보이며, 운동에 집중하고 있어 신체적으로도 건강해 보임.	체대 입학 후 배구지도자 (생활체육지도사)
청14-외국내	강숙희	여	외국인가정-국내출생	비수도권	베트남	지역아동센터, 학원(영어)	친구들과의 갈등, 부모님과의 갈등이 잦아들어 편안한 감정 상태임.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부모님과 대화 안함. 자존감 낮음.	특별히 희망하는 진로는 없음(목공 분야 관심).
청15-외국내	류이다	여	외국인가정-국내출생	수도권	필리핀	학원, 집에서 시간보내기	본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함. 요즘 불안하고 기운이 없는 상태임. 특별한 이유는 모르겠음(아버지가 최근 본국으로 돌아가심).	진로를 고민하는 단계로 인테리어 디자이너, 사회복지사에 관심있음.

2) 분석결과

(1) 개인적 특성

① 현재 생활

가.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

본 연구의 심층면접조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대체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고 있었다. 특히, 방학 중이어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며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학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거나 운동에 집중하기도 하였고, 이 둘을 병행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외에, 소수는 취미생활을 즐기거나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지원 기관을 이용하기도 했으며, 집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응답도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현재 주로 시간을 보내는 일들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청소년 사례별로 정리된 내용은 앞의 표 Ⅵ-5 참조).

- 학업·학원 : 선행학습, 독서실, 온라인 학습, 수학, 영어, 논술 등 교과 학원
- 운　　동 : 축구, 배드민턴, 태권도, 복싱, 스케이트보드, 볼링, 배구, 배드민턴, 농구 등
- 취미생활 : 게임, 독서, 밴드부, 요리, 사진 등
- 기관 이용 : 지역아동센터, 배구 클럽 등
- 기　　타 : 다이어트, 자유로운 방학 생활, 집에서 시간 보내기

가족, 친구와 좋은 관계 유지

면접조사에서 청소년들은 친구와 가족들과 잘 지내서, 또는 방학이 시작되어서 등의 이유로 현재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변하였다. 질문에 대한 이해와 답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만족도를 0점~10점으로 물었는데, 대부분 7점 이상으로 평가함에 따라 대체로 만족하며 잘 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접자: 현재 생활에 대해서 만족도는 어떠신 편이세요?(만족도에 대해서 0-10점 점수를 준다면?)
청소년: 만족해요. 7점 (청1-외국외)
청소년: 만족해서 10점이요 (중략) 그냥 불편하게 여기는 거 없이 만족하는 것 같아요. (청5-중도)
청소년: 다 만족해요. 7점? (청7-외국외)
청소년: 방학을 해서 기분이 좋아요. (청8-국내)
청소년: 9점 정도요. 그냥 안 좋을 이유가 없어서요. (중략) 그냥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가족들과도 잘 지내서 만족하는 거 같아요. (청11-국내)

작년보다 올해 더 만족함

청소년 중에는 전년도에 비해 올해 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응답을 한 사례도 있었는데, 주요 이유는 가족관계 개선, 진로 결정, 친구 관계 발전 및 확대, 학업성적 향상 등이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2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부모님과의 갈등이 별로 없이, 자신의 생애 중 지금을 제일 만족스러워했고, 청소년4는 작년에는 모호했던 진로를 이제 결정하게 되어 고등학교 문제가 해결되었고, 고등학교에서 할 일이 정해져 작년보다 지금의 생활이 나아졌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10은 친구를 더 많이 사귀고 성적이 좋아져서, 청소년13은 학교 친구들과 잘 어울리게 되면서 올해 더 만족하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많이 좋죠. **지금이 작년보다 훨씬 좋죠** (면접자: 왜요?) 일단 작년에는 부모님하고 싸운 적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지금은 별로 없고 올해가 제일 나았어요. 16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일. (청2-국내)

(작년보다) **지금이 더 나아요** (중략) 고등학교가 문제였는데 대충 해결이 되었고 고등학교 가서 할 것도 거의 정해졌어요. (청4-외국내)

올해가 조금 더 좋았어요. 이번 연도 올라오면서 좋은 친구도 더 많이 사귀고 성적도 작년보다 올라서. (청10-국내)

올해가 좀 더 즐거운 거 같아요 (중략) 학교 친구들과 재미있게 잘 어울리고요. 올해가 더 잘 맞아요. (청13-중도)

나. 낮은 생활 만족도와 신체화 증상 경험

작년보다 생활 만족도가 낮음

친구와의 소원해진 관계나 갈등, 학업 스트레스, 가족 문제 등의 이유로 작년보다 올해 만족도가 낮다고 응답한 청소년들도 있었다. 청소년6은 올해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더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년9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7점 수준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친구와의 갈등 때문에 전년도보다 만족도가 낮았다. 청소년9의 어머니는 자녀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를 매우 높은 수준으로 이야기하였고, 그 이유로 학교생활 및 취미생활 등 잘하고 있기 때문으로 언급하였는데, 자녀가 이야기한 친구 관계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청소년15는 한국에서 같이 생활했던 아버지가 본국(필리핀)으로 돌아갔기 때문으로 올해 생활 만족도가 더 낮다고 진술하였다. 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 더 이상의 탐색은 중단된 것으로 확인하였다(현장노트를 통해 확인).

저는 오히려 **전년도가 더 나았어요**. (이유는) 학년이 올라가면 학업이 더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모든 사람이 어차피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속해 있는 거고 (청6-국내)

(만족도가 올해 낮아진 이유가) 친구랑 다퉈서 (청9-중도)
(10점 중에) 10점이요. (이유는) 지금 경일이 생활은 학교 가는 거 좋고 만약에 학교 안 가는 날은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스케이트보드 타고 싶으면 남편이랑 김해 가고 남편이 같이 못 가면 경일이는 혼자 가까운 곳에 가고 있습니다. (청9-중도-모*)

(만족도가) 더 낮아졌어요. (이유는) 원래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다가 **아빠가 필리핀 갔어요.** (청15-외국내)

* 주: 같은 사안(질문)에 대한 어머니 인터뷰 내용(이하 동일)

스트레스로 신체화 증상 경험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다문화청소년은 다양한 운동을 즐기고 있었으며, 특별한 질병 없이 건강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두 명의 여자 청소년은 스트레스로 인한 신체화 증상을 호소하였고, 특히 청소년5는 최근에 친구와의 다툼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복통을 경험한 것을 알게 되었다(관계가 정리된 이후에는 괜찮아졌음). 청소년15도 이전과 달라진 점으로 복통을 언급했는데, 그 이유를 스트레스 때문으로 추정하였다. 청소년들의 타고난 기질과 성향, 그리고 외부적인 영향에 따라 이러한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는데 차이가 있겠지만,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면접자 최근에 스트레스 받아서 배가 아픈 적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청소년 친구랑 싸워서 그때 처음 알았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으면 배가 아프구나**. 그런데 그때 이유가 오해가 있어서 싸우고 (중략) 그때 기간동안 스트레스 받았는데 지금은 걔에 대해서 싸우고 싸워서 감정이 다시 식어서 손절하고 다른 친구랑 다녀서 관계 정리하고 난 후에 괜찮은 것 같아요. (청5-중도)

면접자 이전과 비교해서 변화된 부분이나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청소년 배가 자주 아파요. (중략).
면접자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런 거 같나요?
청소년 그런 거 같아요. (청15-외국내)

다. 자신에 대한 상이한 평가

긍정 평가

다문화청소년들이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그중 일부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으나, 대부분 단답형으로 답했다.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청소년 중 비교적 그 이유를 상세히 설명한 사례를

살펴보면, 청소년6은 자신이 낙천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존감이 높다고 설명하였는데, 한편으로는 끈기가 부족한 점을 들며 자신에 대해 나름의 객관적인 평가를 하였다. 청소년9는 본인의 정신력이 강하고 정서가 안정적이며, 힘들때에도 극복하려고 하며 타인을 도우려고 한다는 점에서 스스로를 가치있는 사람으로 평가했다. 이렇게 청소년6과 9는 자신의 정서적인 측면과 성격, 태도 등에서 긍정적 요소를 찾은 반면, 청소년11은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이유를 학업과 운동 등에서의 성과로 언급하면서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일부 청소년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 낙천적으로 생각하면서도 자존감은 낮다고 평가했는데 쉽게 상처받거나 겉과 속이 다른 모습 등을 그 이유로 언급하였다(청소년8, 10, 14).

면접자 혹시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일단 장점은 아까 말한 것처럼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활동적이**고 이런 사람이고 (중략) **자존감도 높고 제 자신이 항상 뛰어나다**고 생각해요. (청6-국내)

면접자 나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후략)
청소년 나는 가족하고 친구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멘탈이 좋은 사람**이다 (중략) (이유는) 기분이 잘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를 잘 해서 (예를 들면) 약간 힘들어도 스스로 파이팅해서 기운을 끌어 올리고 화나는 게 있으면 잘 참고 (중략)
면접자 내 스스로 가치있는 사람이다. 별로 잘 모르겠다?
청소년 **가치 있는 사람** 같아요. (중략) 힘든 일 있으면 도와주고 공부 못 하는 애들 힘들어 하면 알아서 도와주고 (청9-중도)

면접자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자존감이 높은 편이신지?
청소년 긍정적으로 생각해요. (이유는) 요즘에 성적도 잘 나오는 거 같고 운동도 해서 그런 거 같아요. (청11-국내)

청소년 생각보다 긍정적이에요 (중략) 돈이 없으면 벌면 되지, 성적이 나쁘면 내가 만족하면 되지, 성적은 숫자에 불과하다. (청8-국내)

청소년 긍정적 (중략) (자존감은) 낮아요. (이유는) 약간 좀 **쉽게 상처받는** 거 같아요. (청10-국내)

청소년 긍정적 (중략) (자존감은) 낮다. (이유는) 애들 앞에서는 뭔가 활발한데 속으로는 딱히 그런 게 없고 살짝 낮아서 (청14-외국내)

부정 평가

상술한 것처럼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해 긍정 평가하면서 동시에 일부 단점도 같이 인식하였으나,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 때문에(청소년1), 친구를 제때 위로하지 못해서(청소년12), 또는 잘하는 것이 없다(청소년15)는 이유로 부정 평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특히, 청소년12는 게임에 빠져서 위로가 필요한 친구를 제때 돕지 못했다는 생각에 자신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쓰레기 같다").

청소년1과 청소년12의 사례는 단순히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넘어서 좀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소년12는 평상시 자신에 대해 낮게 평가하였으며, 다른 친구들의 요구를 다 수용하고 조별과제도 자신이 도맡아 했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착하다는 평가(학교로부터 모범상 수상 경험이 있음)를 받는 모든 상황을 다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또래의 과도한 요구도 모두 수용하고 심지어 친구를 제때 돕지 못한 자신을 질책할 뿐 아니라 앞으로도 새로 사귄 친구들에게 계속 배려와 양보를 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통해 1번 청소년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어쩔 수 없는 또래 압력 등의 이유로 양보하며 부당한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닌지 다소 의문이 들었으나 면접과정에서 청소년의 솔직한 내면에 대해 더 이상의 탐색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는 청소년들이 친구들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하면서 스스로에 대한 부정 평가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청소년들의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면접자 그러면 자신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약간 **거절을 잘 못 하는 것** 같아요.
면접자 그게 어려움이 됐던 경험이 있나요?
청소년 네 (면접자: 어떤 거죠?) 그 친구가 물건 빌려 달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을 못 하고 빌려주고 아직도 못 받았어요. (청1-외국외)

면접자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저는 지금 상태로는 쓰레기 같다 (중략) 제 상태는 무조건 게임을 때려치고 (친구에게) 갔어야 했는데 왜 안 갔을까 (중략) **제 자신을 낮게 평가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저를 대부분 착하다고 (후략)
면접자 친구들이 어떤 거를 보고 착하다고 해요?
청소년 **친구가 부탁을 하면 다 받아 주는 식으로, 거절을 안 하는**… (중략) 저에게 자리 양보가 되냐 이러면 비켜 주고 노래방비 반반씩 나눠야 되는데 제가 좀 더 내 주고… (청12-국내)

면접자 자신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부정적인 편이에요 (면접자: 이유가 뭘까요?) 잘하는 게 딱히 없는 거 같아요. (청15-외국내)

표 Ⅵ-6. 다문화청소년 IDI: 개인적 특성_현재생활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생활 전반에 대해 만족	가족, 친구와 좋은 관계 유지	• 전반적으로 만족하며 지냄. • 특별히 안 좋을 이유가 없으며, 가족, 친구들과 잘 지냄.
	작년보다 올해 더 만족함.	• 올해 가족관계가 더 좋아짐. • 친구 관계도 더 좋아져서 올해가 더 만족스러움. • 성적도 오르고 고등학교 진학 문제 등이 해결되어 지금이 더 나음.
낮은 생활 만족도와 신체화 증상 경험	작년보다 생활 만족도가 낮아짐.	•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전년도에 더 만족함. • 친구와 다투면서 올해 낮은 만족도 경험 • 아버지의 귀국(본국)으로 올해 만족도가 낮음.
	스트레스로 신체화 증상 경험	• 친구문제로 스트레스받아서 최근 복통 경험 • (스트레스로) 배가 자주 아픔
자신에 대한 상이한 평가	긍정 평가	• 긍정적, 낙천적이며, 끈기는 부족하지만 자존감이 높고 뛰어남. • 정신력이 강하고 정서가 안정적이며 힘들어도 잘 이겨내고 타인을 도우려 함. • 성적이 잘 나오고 운동도 해서
	부정 평가	• 거절을 잘 못하는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음. • 게임에 빠져 친구를 제때 돕지 못해서 • 잘하는 게 없음.

② 다문화 배경 관련 인식

가. 다문화배경 또래와의 친숙한 관계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 상당수는 주위에 다문화배경의 또래 친구들이 있었다. 청소년2는 다문화배경이라는 환경적 동질성으로 서로 마음이 통한다고 하였고, 청소년7은 '살다 보니' 다문화친구들이 여럿 모였다고 이야기하였다. 청소년13은 중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자신과 같은 이중언어 사용 또래의 말소리를 듣고 '나와 같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여 먼저 다가가게 되었고 가장 친한 친구로 사귀게 되었다. 이 청소년은 자신에게 친숙한 외국어를 사용하는 그 친구에게 '기쁜 마음'으로 말을 걸었다며 당시 상황을 밝게 설명하였는데, 내재되어 있던 자신의 다문화배경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면접에 참여한 여러 명의 청소년이 다문화배경의 친구들이 있다고 보고하였다(청소년3, 4, 14).

면접자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외국에서 오신 것 때문에 친하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마음이 통하죠. 이게 환경적으로 같으니까. **마음이 통한다**고 보면 돼요.
면접자 그런 부분들이 부모님이 다 한국인이거나 외국인이 아닌 친구들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청소년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저는 딱히 별로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같은 사람이고 부모님 국적만 다른 사람이니까 그 사람 제 친구가 언어가 통하면 상관없어요. (청2-국내)

면접자 다국적 배경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네요?
청소년 **살다 보니 모이더라고요.** (중략)
면접자 그런 친구는 몇 명 있어요?
청소년 친한 애들 두 명, 안 친한 애들 두 명 해서 4명 정도요. (청7-외국외)

청소년 한 명은 제가 1학년 때 그 친구가 부모님과 같이 일본어로 얘기하는 거 듣고 어? **나랑 같은 사람이네** 하면서 말을 걸었거든요. (중략)
면접자 왜 그거 때문에 동질감, 친근감을 느낀 거예요?
청소년 네. 친근감? (중략)
면접자 다른 학교에 있다는 친구를 본인이 말을 건 거잖아요. 쉬운 일은 아닌 거 같거든요.(중략)
청소년 지금이라면 안 했을 거 같은데 아직 순수했던 1학년 때라 **기쁜 마음 때문에** 말을 걸었던 거 같아요. (청13-중도)

나. 다문화배경의 장점

자신과 같은 다문화배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를 사귀는 것과는 별개로, 청소년들이 이러한 다문화배경에 대해 갖는 태도는 다소 상반되었다. 바로 위에서 기술한 청소년13은 이중언어로 인한 장점을 포함하여 다문화배경이 더 좋다고 생각하였는데, 어머니 인터뷰에서도 이러한 인식이 확인되었다. 어머니는 청소년13이 자신의 국적에 대해서, 즉 다문화배경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이는 첫째, 둘째 자녀 때와는 다른 태도라고 보고하였다.

면접자 어머님이 일본분이시면서 이중언어도 할 줄 알고 그런 다문화 배경이 어떻게 느껴져요?
청소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면접자 본인이 특별히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청소년 그냥 뭔가 할 게 좀 더 많은 거 같아요. ○○학교도 엄마가 일본인이니까 일본어로 얘기를 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거 같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거? (청13-중도)

어머니 큰애들도 그렇고 그런 성격이 아니거든요. 엄마가 일본사람이라는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막내는 이상하게 그런 식으로 하고 다니더라고요. (청13-중도-모)

다. 다문화배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

연구에 참여한 한 외국출생 외국인가정 청소년은(청1-외국외) 앞서 현재 생활에 만족한

다는 응답과 달리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학급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다른 학생으로 인한 이유가 컸는데, 그 발단은 처음 반 배정 후 학교 전산시스템(출석부)을 통해 본인의 이름이 영어로 기재되면서 외국인가정 청소년임이 노출된 것이었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한 경험이 있었다(욕설을 했다고 모함하거나 발을 밟는 등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행동 등). 지금도 청소년1의 국적에 대한 이야기가 학급에서 나올 때 계속 의식하게 만드는 등 현재 진행형 상황이었다. 면접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괴롭힘에 대해 학교에서의 대응과 상담 등의 심리적 개입에 대해 추가 질문하고자 하였으나, 청소년이 당시의 상황이나 대처 등에 이야기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다만, 이후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여 사과를 받았지만, 해결된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정도로 의견을 피력하였다. 한편으로 이 청소년의 학부모 인터뷰에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으며, 어머니 인터뷰에 동행한 아버지는 자녀가 학교에 잘 적응하며 지내고 있다고 부연하는 등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부재한 상황이었다(또는, 학부모입장에서 이러한 부정적 사건에 대한 언급을 피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

면접자 혹시 후회된 적은 없으세요? 한국으로 온 것에 대해서.
청소년 그냥 친구 관계. 학교생활도 그렇고 해서 그냥 **가끔 후회하기는 해요.** (중략)
면접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 주실 수 있어요?
청소년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저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반이 된 거에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게 다 영어로 뜨는데(학급의 학생 명단, 이름) (중략) **애들은 다 한국인이니까 한글로 뜨는데 제가 외국인이라서 영어로 떠서 1번에 있었어요** (중략) 네가 욕했던 거 선생님한테 말한다고 하고. 욕도 안 했는데 그러고 어쩔 때에는 발을 밟고 지나가고 사과도 안 하고 (청1-외국외)

면접자 정현이의 학교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편이세요?
아버지 잘 지내요.
면접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네.
면접자 학교에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아버지 네. (청1-외국외-부*)

전사자료에서 청소년15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매우 소극적으로 임한 것으로 보였는데, 추후 면접원과 현장노트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청소년은 중요한 질문에 대해 명료하게 답하기보다 고개를 가로젓거나 끄덕이는 등의 행동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15는 학급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당황스러웠으며 외국인으로 다르게 볼 것 같아 의식이 된다고 하였는데(목소리가 작아 녹음, 전사되지 않음에 따라 면접원 노트를 통해 확인), 이러한 소극적 태도와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그냥

싫어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 다른 외국인가정의 청소년은 자신을 '토종 한국인'이지만 외국인으로 정의함에 따라 이중적인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였다(청7-외국인).

> 면접자 학교에서 친구들 앞에서 자기소개 할 때요? 그런 일들이(불편한) 있었나요?
> 청소년 **당황스러웠어요.**
> 면접자 소개를 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 청소년 (고개를 가로저음)
> 면접자 불편하게 여기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 청소년 일단 (이후 들리지 않음)
> 면접자 그냥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런 거 때문에 앞에서 표현하기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 청소년 (고개 끄덕임)
> 면접자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좋아하는 편이세요, 좋아하지 않는 편이라 생각하세요?
> 청소년 좋아하지 않는 편이에요.
> 면접자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 청소년 **그냥 싫어요.** (청15-외국내)
>
> 면접자 나를 설명해 본다면?
> 청소년 **한국에 사는 외국인? 친구들이 토종 외국인이라고** 붙인 게 있거든요. 토종 외국인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청7-외국외)

청소년13과 같이 자신의 다문화배경에 대한 자부심과 긍정적인 평가가 청소년의 성격 등 개인적인 특성이나 다문화 배경을 포함한 가정·환경적인 이유에 따른 차이인지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인 사례에 대비되는 청소년1번 사례의 경우 실제 학교의 대처를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본인이 원치 않는 외국 국적의 노출로 인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15 사례 역시 자신에 대한 부정적 평가와 관련한 심리적 측면의 지원과 함께 자신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불편해하는 상황에 대한 학급 내 분위기와 교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표 Ⅵ-7. 다문화청소년 IDI: 개인적 특성_다문화배경 관련 인식

범주	의미단위
다문화배경 또래와의 친숙한 관계	• 다문화친구와 마음이 통함. • 다문화 배경 친구들이 있음. • 같은 배경의 다문화 또래를 만나 자신과 같은 사람이라는 동질감에 기쁜 감정 경험
다문화 배경의 장점	• 다문화, 이중언어 사용의 장점 때문에 좋음. (다문화 배경을 적극적으로 표현함-모 인터뷰)
다문화 배경에 대한 부정적 평가	• 친구 관계, 학교생활 때문에(폭력 피해)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함. • 다문화배경 때문에 다르게 볼 것 같아 의식됨. • 한국인 토종이지만 결국 스스로를 외국인으로 생각함.

③ 심리정서적 상태

가. 긍정적인 심리상태

행복하고 좋음

앞서 많은 청소년이 자신의 현재 생활에 만족하다고 응답한 것과 같이 다수 청소년은 심리적으로 행복하고 편안하게 느끼고 있었다. 친구 관계가 좋아져서, 또 가족과 같이 있어서, 친구들과 놀러 가거나, 특별한 어려움이 없어서 등 친구와 가족, 여가생활 등으로 "행복"하다고 진술하였다. 청소년6은 가족이 귀찮게 느껴질 때도 있지만 같이 있어서 행복하며, 자신이 과거와 달리 좀 더 성숙해졌다고 느끼고 있었다.

청소년 저는 행복한 사람. 행복하고 평화로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면접자 자존감이라고 하는데 어떤 것 같아요?
청소년 **높다고 보면 되죠.** (청2-국내)

청소년 그냥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행복하고 가족이랑 있으니까. 긍정적이니까 (중략) 옛날에는 철없이 그런 것도 있는데 나이를 먹으니까 그래도 **좀 성숙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6-국내)

면접자 어떤 활동을 할 때 행복하다고 느끼세요?
청소년 친구들이랑 놀러갈 때 (중략) 시내나 영화도 보고 밥도 먹고 (청10-국내)

청소년 크게 부족한 게 없는 거 같아서 너무 행복한 거 같아요. (청11-국내)

면접자 그러면 강숙희 학생은 뭐 할 때 행복감을 느끼세요?
청소년 저는 친구들하고 놀 때 (중략) 그냥 사소하게 동네에서 놀러 다니고 아니면 특별한 날에 친구들이랑 바다나 방 탈출 가는 게 재미있어요. (중략) 행복하고 편안한 것 같아요. (청14-외국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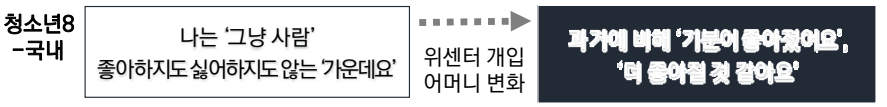
긍정적 심리 변화 경험(종단자료 분석)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은 세 명이었는데, 이들의 어머니도 모두 작년과 올해 면접에 참여하였다. 이에 따라, 이들의 심리적 상태의 변화 유무와 그 내용에 대해 청소년과 어머니의 직접적인 이야기를 통해 종단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작년과 올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8, 9, 13과 그들의 어머니들로부터 수집된 전사자료를 비교, 검토한 결과, 심리상태 및 변화 상황에 대해 요약한 결과는 〈표 Ⅵ-8〉과 같다.

표 Ⅵ-8. 다문화청소년 IDI: 긍정적 심리 변화 경험 요약(종단자료 분석)

ID		2023	⇨	2024
청8-국내	청소년	• 자신에 대해 '그냥 사람이다', 자신을 좋아하는 편인지에 대해 '가운데요'라고 응답함.	긍정 변화 (위센터 상담 개입 이후)	• 자신에 대해서 만족, 더 기분이 좋아짐. 앞으로는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 • 가족, 친구 관계도 괜찮고, 긍정적이 됨.
	어머니	• 작년에 학교 심리검사에서의 '죽고 싶다'는 결과로 연락이 와서 매우 놀람. • 공부도 힘들고 신경 써야 하고, 코로나19로 친구도 많이 못 사귀고 외로워서 그랬다고 파악하고 있음.		• 위센터 10회기 상담 후 청소년이 작년보다 많이 좋아졌음. • 본인도 상담 후 많이 변했고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함.
청9-중도	청소년	• 본인 스스로를 좋아함. 모범심이 있음.	긍정적인 상태 유지	• 긍정적이고,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함
	어머니	• 자녀에 대해 만족하지만, 사춘기가 시작되면서 예민해짐.		• 문제없고 방과 후에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잘하며 친구 사진도 보여줌.
청13-중도	청소년	• 자신에 대해 '쿨할 때는 쿨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아니고'라고 응답 • 스스로를 좋아한다고 답변함.	올해 더욱 긍정적으로 변화	• 올해가 더 즐거움. 학교친구들과 재미있게 잘 어울리고 올해가 더 잘 맞음. • 남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쿨하다고 생각하며 친구가 많아서 인싸라고 생각함.
	어머니	• 특별히 사춘기 없음. 먼저 이야기를 하지는 않지만 물어보면 다 대답함.		• 반항이나 신경질 없음. 작년보다 올해 더 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함.

청소년8은 상대적으로 큰 긍정적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청소년9는 본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높은 자존감 등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청소년13 역시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했으나 올해 조금 더 좋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먼저, 청소년8의 사례를 살펴보면, 이 청소년은 작년에 학교에서 실시한 종합심리검사에서 죽고 싶다고 하였으나 작년과 올해 면접에서 이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어머니 인터뷰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다만 청소년8은 작년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해 무덤덤하고 중립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올해는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으로 생각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어머니를 통해 확인된 바로는 작년 심리검사 이후 위센터에서 청소년8은 9회기의 상담을 받았으며, 마지막 10회기 때는 어머니와 함께 상담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이 과정에서 자신이 먼저 바뀌어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양육방식과 자녀에 대한 기대 등에서 모두 변화를 겪었다고 보고하였다.



2023년 인터뷰(심리적 위기 징후 후 인터뷰) **2024년** 인터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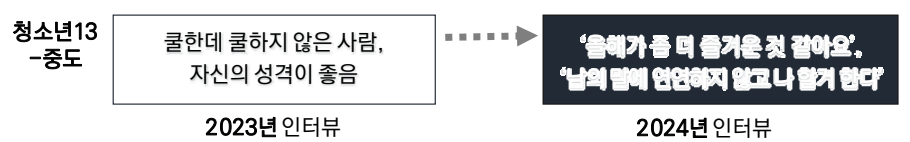
2023	2024
면접자 … 본인 스스로 나는 어떤 사람이다? 청소년 **그냥 사람** (중략) 면접자 수진 학생은 스스로를 좋아하는 편인가요, 싫어하는 편인가요? 청소년 **가운데요.** 면접자 좋아도 하고 싫어도 하고? 아니면 둘 다 아니고? 청소년 그거는 모르겠어요. (청8-국내, 2023)	면접자 작년, 재작년과 비교하면 지금이 더 기분이 좋은 거 같아요? 청소년 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졌어요** (중략) 면접자 앞으로는 어떨 거 같아요? 청소년 **더 좋아질 거 같아요.** (청8-국내, 2024)
어머니 우선 (학교에서) 저에게 연락하는데 1학기 때부터 조사 했는데 **수진이가 죽고 싶다고,** 그거 일하고 있을 때 담임 선생님 전화 왔어요. 조사에 이런 거 나왔는데 어머니 오셔야겠다. (청8-국내-모*, 2023)	면접자 작년에 그 상담으로 수진이도 많이 좋아졌고 어머님의 생각, 양육방식도 많이 바뀐 거네요? 어머니 네. **많이 바뀌었어요.** (중략) 어머니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애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저를 바꿔야 얘가 바뀌지** 엄마가 안 바뀌면 애가 어떻게 바뀔지 어려워요… (청8-국내-모*, 2024)

청소년9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 없이 안정적인 심리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자신감 등은 작년과 올해 전사자료에서 모두 관찰되었으며, 전년도에는 사춘기가 와서 '가끔 욱'한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어머니 인터뷰에서도 작년에는 사춘기가 시작되어 '예민'하다는 단어를 반복 사용하였으나, 올해에는 자녀가 심리적, 정서적으로 모두 문제없으며, 학교와 집에서의 생활도 매우 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인터뷰 **2024년** 인터뷰

2023	2024
면접자 본인 스스로를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청소년 좋아하죠. 면접자 어떤 점에서 본인이 좋다고 생각해요? 청소년 모범심이 좀 있어서요. (청9-중도, 2023)	면접자 나 스스로를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청소년 나는 가족하고 친구하고 노는 걸 좋아하고 **멘탈이 좋은 사람이다.** 면접자 이건 왜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청소년 **기분이 잘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를 잘 해서.** (중략) 긍정적인 것 같아서 (중략) 청소년 (자존감이) **높은 사람** 같아요. (청9-중도, 2024)
면접자 어머님이 보실 때 (경일이는) 아직 사춘기 같은 거는 안 온 거 같아요? 어머니 **사춘기 있어요** (중략) 사춘기 시작하고 가끔씩 집에서 (안들림) 대답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싫어해요. 사춘기를 시작했기 때문에 **가끔씩 예민한데** 그거 싫어요. 저는 대화하고 싶은데.. (청9-중도-모*, 2023)	면접자 (장경일 학생의) 학교, 집 전반적으로 생활의 만족도? 어머니 **10점이요** (중략) 면접자 혹시 장경일 학생이 심리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어머니 네. 없습니다. 만약에 학교 끝나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오늘 학교 어때? 친구들과 뭐 했어? 물어 봐요. **솔직히 얘기를 해 줍니다. 오늘은 괜찮아요.** 오늘 농구했고 점심밥 뭐 먹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청9-중도-모*, 2024)

2023년 인터뷰에서 청소년13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다소 중립적으로 표현하기도 했으나, 2024년에는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더 즐겁고 좋은 상황으로 설명하였다. 또한 타인에게 연연하지 않겠다고 하는 등 심리적으로 좀 더 단단해진 느낌을 갖게 하였다. 어머니는 청소년13이 작년와 올해 모두 사춘기에 따른 정서적인 불안정 상태를 그다지 보이지 않았으며, 작년보다 올해 더 편하게 어머니와 많은 대화를 하는 등 조금 더 긍정적인 모습을 확인시켜 주었다.



2023	2024
면접자 나를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조금 **쿨한데 쿨하지 않은 사람**? 면접자 나 스스로를 좋아하나요, 싫어하나요? 청소년 좋아해요. 성격이나 그런 점이 좋은 거 같아요. (청13-중도, 2023)	면접자 …올해가 더 좋아요? 작년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청소년 **올해가 좀 더 즐거운 거 같아요.** 면접자 왜 그런 거 같아요? 청소년 **학교 친구들과 재미있게 잘 어울리고요. 올해가 더 잘 맞아요 (중략)** 성격자체가 쿨한 것 같아요. **남의 말에 연연하지 않고 그냥 나 할 거 한다.** (청13-중도, 2024)
면접자 사춘기가 왔던가(하는)? 어머니 그런 거는 아직 없는 거 같아요 (중략) 면접자 엄마랑 학교 얘기를 많이 하세요? 어머니 네. (중략) **자기가 먼저 하는 거는 아닌데 물어보면 다 하니까** 저녁 먹을 때나 그럴 때 하는 거 같아요. (청13-중도-모*, 2023)	면접자 중3이면 만 14~15세인데 사춘기잖아요. 어때요? 어머니 일단 운동을 해서 그런지 특별히 반항 같은 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집에 있을 때는 스마트폰만 하고 그래서 나랑 가끔 하지 말라고 하고 그 정도? 특별히 심한 거는 없네요 (중략) 어머니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얘기가) 많은 거 같아요.** (청13-중도-모*, 2024)

작년과 올해 연구에 참여한 3명의 청소년 중 청소년9와 13은 큰 변화 없이 약간의 긍정적 변화를 갖거나 유지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에 비해 청소년8은 어머니와 함께 심리적으로 큰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교의 종합심리검사 결과가 나온 이후의 위센터의 개입 등 청소년의 심리적 위기에 대한 학교 내 체계의 조기 발견 및 대응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조명해 주는 사례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청소년8은 다툼이나 스트레스가 있는 상황에서 주로 혼자 참는 것으로 대응하고 있어(어머니도 인지하고 있음), 보다 지속적인 관심을 필요로 하는 사례이며 지속적인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갈 일이 없어서, 또 교실 밖으로 나가기 싫어서 위클래스를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였는데, 학교에서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나. 불안과 걱정

진로·친구문제로 인한 불안, 무기력

현재 자신의 기분 상태에 대한 질문에서 불안하다거나 무기력을 호소한 다문화청소년들이 있었다. 청소년7은 친구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친구들이 험담할 것에 대해, 또 자신이 주위 사람들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해 불안해하였다. 청소년7은 이렇게 주변인의 시선과 기대를 상당히 의식하는 듯했지만, 인터뷰 당시 시종일관 상당히 밝고 건강한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10은 가끔 친구 관계나 진로문제로 불안할 때가 있지만, 대부분 편안한 상태라고 응답함에 따라 깊이 내재된 불안을 경험하는 사례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소년15의 경우는 앞에서도 자신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인터뷰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매우 작은 소리로 답하는 등 위축된 모습을 보였었는데, 현재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도 불안하고 기운이 없다고 응답하였다. 그 이유 등에 대한 질문에도 정확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고, 많이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현장노트 참조). 그리고 담임교사의 추천으로 학교 상담교사로부터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고 또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는데, 적어도 학교에서는 청소년15의 심리정서상태에 대해 인지하고 개입을 함에 따라 심리정서적 건강을 위한 일차적인 안전망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학교에서의 개입은 청소년의 인터뷰 내용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추후 사례관리 등 더욱 집중적인 개입 필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청소년 저는 **남들이 제 험담을 할까 불안해하는 사람**인데 얘네들만의 단톡방이 있으니까 불안해진 거예요
청소년 5명 이상이 모이면 불안해지기 시작해서요 (중략) 불안감 그런 게 있어서요 (중략) 편한 사람들이면 괜찮은데 저에게 기대를 하는 사람이면 기대에 못 미칠까봐 불안해하는 게 있어요. (청7-외국외)

청소년 한 번씩 불안할 때도 있는데 대부분 편한 것 같아요.
면접자 언제가 불안한 거예요?
청소년 **친구 관계에서나 아니면 진로에 관해서도** (청10-국내)

면접자 요새 기분은 어떠신 편이세요?
청소년 **불안하고 기운이 없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면접자 이유는 모르겠지만 기운이 없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청소년 (고개 끄덕임) (중략)
면접자 알겠습니다. 이런 기분 때문에 상담이라든지 치료 같은 거를 받아 보신 적은 있으세요?
청소년 (고개 끄덕임) (중략) 담임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요. **학교 상담선생님**이요. (청15-외국내)

걱정이 많음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걱정이 많다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한 청소년도 있었다. 청소년5는 자신이 뭘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또 무엇보다 자신이 첫째여서 완벽해야 한다는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 청소년은 뒤에 제시되는 진로준비도 스스로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를 포함하여 첫째라서 무엇이든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였다.

면접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시는 편이라고 생각 하세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지 자존감이 높다고 생각하는지
청소년 **저는 걱정이 많단 말이에요** 뭘 준비하면 혹시 몰라서 하는 게 많아요.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첫째이고 뒤에 동생도 있으니까 완벽히 해 내야 된다**는 게 있어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청5-중도)

다. 친구 문제로 외로움

청소년들은 예년에 비해 학급 내 친구들이 줄어서(청소년9), 또는 같이 게임할 친구가 없어서(청소년12) 외로움을 느낀다고 진술하였다. 청소년8은 작년에 5명이 같이 다니면서 (홀수여서) 혼자 떨어질 때가 있었는데 그때 외로움을 느꼈다고 회고하였다. 올해는 6명으로 짝수가 되면서 나아졌다고 언급하였는데, 사소해 보이는 이러한 지점에서 실제 청소년들이 느끼는 감정과 여파는 예상보다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면접자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그런(혼자라거나 소외된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중략)
청소년 작년에는 친한 애들이 반에 많았는데 지금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청9-중도)

면접자 친구 때문에 영향이 있을 거 같기는 한데 외롭거나 그런 느낌을 가진 적이 있어요?
청소년 외로운 점이 있기는 하죠. 게임을 같이할 친구가 없어요. (청12-국내)

청소년 (외롭고 혼자라는 생각) 작년에는 그런 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데 5명이 다니니까 약간 2명씩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2명씩 하다 보면 **저 혼자 떨어질 때가 있고 걔네들은 친한데 나만 떨어진 느낌?** 지금은 그래도 6명이니까…… (청8-국내)

표 Ⅵ-9. 다문화청소년 IDI: 개인적 특성_심리정서적 상태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긍정적인 심리상태	행복하고 좋음.	• 부족함 없이 행복하고 평화로움. • 친구와 놀러 갈 때, 또 가족이 함께 해서 행복함. • 친구들과 갈등이 줄었고 부모님하고도 좋음.
	긍정적 심리 변화 경험 (2023→2024)	• 어머니 인터뷰를 통해 청소년의 긍정적 심리 변화 확인 2023 ⇨ 2024 죽고 싶은 심리상태 (학교 심리검사 결과) ⇨ 위센터 10회기 상담 후 긍정적 변화(상담 참여 후 어머니 스스로가 먼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게 됨) 사춘기로 다소 예민 ⇨ 문제없으며 방과후 이야기도 잘함. 먼저 이야기하지 않음. ⇨ 반항이나 신경질 없고, 작년보다 올해 더 집에서 이야기를 많이 함.
불안과 걱정	진로·친구 문제로 인한 불안, 무기력	• 남들이 험담할 것 같아서, 또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에 대한 불안감 경험 • 친구 관계와 진로 때문에 간혹 불안함. • 불안하고 기운 없음.
	걱정이 많음.	• 걱정이 많음(완벽해야 한다는 걱정)
친구 문제로 외로움		• 작년보다 친구 수가 줄어서, 게임을 같이할 친구가 없어서 외로움 •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떨어질 때 외로웠음.

(2) 가정생활

① 부모와의 관계

가. 부모와의 잦은 대화

다양한 주제로 원활한 소통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다양한 주제로 부모와 많은 대화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스포츠나 독서 등 취미에서의 공통적인 관심사에 대해, 또 진로 등과 관련해서 원활한 소통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2는 아버지와의 스포츠 관련 대화뿐 아니라 어머니 출신 국가의 역사와 언어, 문화 등에 대해서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청소년9는 일상적인 내용과 함께 진로, 취미생활,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주제로 부모와 대화하고 있었는데, 이를 방증하듯 어머니 인터뷰에서도 친구 관계를 주제로 대화도 많이 하며 친구들 사진을 보여주는 등 어머니와의 유대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청소년9는 아버지와 따로 여행을 다니는 등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청소년7은 다양한

주제로 대화하면서 부모님이 도서 추천도 해주었고, 청소년13은 어머니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같이 운동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관한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고 가족관계가 더욱 좋아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접자 아버지랑은 어떤 내용으로 얘기하세요?
청소년 아빠가 스포츠 좋아하셔서 스포츠에 대한 거 많이 해요. (중략) **어머니는 자기 나라. 자기 나라에 대한 역사나 언어. 문화. 그런 걸 많이 얘기해요.** (청2-국내)

면접자 부모님이랑은 주로 어떤 종류의 대화를 많이 하세요?
청소년 **일상 대화도 하고 많이 이야기해요. 진로도 얘기하고** 취미생활에 관해서 스포츠 경기 결과 (청9-중도)
어머니 어머니가 외국인이라서 가끔 걱정을 해요. 하지만 경일이는 엄마, 나는 괜찮아요. 오늘은 친구들과 같이 놀았는데 어때? 좋아. 사진 볼 때도 있습니다. 아~ 이 친구와 같이 있구나 (중략) 방학 때 아빠랑 처음에는 가족여행 갔는데 지금은 애기(때문에) 힘들어서 못 가니까 **경일이랑 아빠랑 같이 여행 가요.** (청9-중도-모*)

면접자 이야기 듣다 보니까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하는 거 같아요. 주로 어떤 내용으로 대화를 하나요?
청소년 정해진 주제는 없어요. 뭔가, 뭐 봤어? 엄청나대, 이런 거나 박물관 같은 거나 책 추천도 많이 받아요. (청7-외국외)

어머니 (배구를) 같이 하게 되니까 **대화가 많아지고,** 왜냐면 저도 처음으로 시작하니까 애가 다 가르쳐 주잖아요. 대화 많아지고 애들 대회 나가면 따라다니고 하니까요.
면접자 예전에 비해 운동하고 나서 좋아지신 거예요?
어머니 네. 옛날보다 건강하고 화가 나거나 그런 것도 없어지고**요. 그거 때문에도 가족관계도 좋아지게 되고** 그런 거 같아요. (청13-중도-모*)

고민을 제외한 일상 대화

부모님과 일상적인 대화는 나누지만, 학교에서의 문제나 진로와 같은 중요한 이야기, 속상했던 일 등은 공유하지 않는 사례들도 있었다. 청소년1은 학교폭력 피해조차도 부모님에게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은 듯 보였고, 진로에 대한 고민도 부모보다는 친구들과 더 많이 공유하는 편이었다. 그러나 학부모 면접에서 청소년1의 아버지는 자녀의 정확한 속마음은 모르지만, 그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고민이나 걱정 등을 부모와 친척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14의 경우도 부모와는 일상적인 대화만 할 뿐 고민이나 진로와 관련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았으며,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어머니는 자녀와 관계가 좋으며 대화를 많이 하고 고민이 있을 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녀와의 대화정도, 수준에 있어 다소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면접자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 하는 편인가요?**
청소년 **아니오.**
면접자 그건 어머니 아버지 다.
청소년 네
면접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어려움이 있을 때라든지 속상한 일 있을 때 부모님하고 이야기는..
청소년 안 해요. (청1-외국외)

⇔

면접자 정현이와의 관계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좋죠. 정현이 엄마가 친구인데요.
면접자 어머님에게 고민이 있거나 마음속 걱정이 있을 때?
아버지 엄마한테 얘기하고 고모한테 얘기하고요 (중략)
면접자 **대화는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아버지 **네** (중략) **그냥 학교 생활이 어떻다, 친구랑 어떻다 얘기 다 해요.** (청1-외국외-부)

면접자 부모님하고는 보통 어떤 대화 하세요?
청소년 **일상대화.** 대회 같은 거 나가는 거 있으면 대회 나가는 거 얘기하고 친구랑 놀면 친구랑 논다 그 정도 (중략)
면접자 부모님한테 그런 얘기(고민이나 진로 등)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청소년 **딱히 부모님이랑 그런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서** (청14-외국내)

⇔

면접자 집에서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떤 거 같으세요?
어머니 좋아요. (중략) 시간이 있으면 집에서 지내고 장난치고 얘기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중략)
면접자 혹시 강숙희 학생이 **고민거리가 있다고 하면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편이라고 하셨잖아요.**
참석자 **네.** (청14-외국내-모)

이들은 모두 외국인 가정의 청소년들이었는데, 이러한 차이는 청소년들은 부모와의 대화 내용과 깊이 측면에서 답변하고, 학부모는 대화 빈도를 염두에 두었기 때문일 수 있다. 한편으로, 청소년의 성격과 가정 분위기에 따른 영향도 있겠으나, 언어소통 수준 및 문화차이로 인해 부모와 자녀의 이해가 다를 수도 있으며, 이외에 부모와 깊은 대화를 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부모님이 이해해 주지 않아서, 또는 걱정할 것 같아서 등) 추후 탐색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청소년5 역시 일상적인 대화 외에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 고민은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혼자 생각하거나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공유하였다.

면접자 걱정되는 일이나 고민 같은 건 주로 나누지는 않으세요?
청소년 **제가 그냥 별로 말하기 싫어요.** (중략)
면접자 그러면 보통 마음이 힘든 일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혼자서만 해결을 하는 편이신가요? 부모님과 청소년 부모님한테 이런 고민은 말 안하고, **저 혼자하거나 제일 친한 친구한테만** 하는 것 같아요. (청5-중도)

나. 부모의 관심 차이와 갈등

부모의 관심 정도의 차이

청소년들 대다수가 부모님의 관심 정도를 10점 만점에 7~8점 이상으로 응답하였고, 또 부모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드물게 청소년9는 부모님의 관심 정도를 10점 만점으로 생각하였고, 학교, 진로, 취미 등 자신의 생활 전반에 대해 부모님이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어머니 인터뷰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관심도를 보임에 따라 부모의

관심 정도에 대한 부모-자녀 간 이해가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14는 자신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을 8~10점으로 응답하였으나, 어머니는 마음은 10점이지만 실제로는 5~6점 수준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외에도, 다문화청소년들은 부모님이 자신의 일과와 학교생활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면접자 부모님이 나에 대한 관심은 0-10점 중에 몇 점 같으세요?
청소년 10점 같아요 (이유) 관계가 가깝기도 하고 사이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 관심도 많고** (중략) **학교생활도 물어보고 제 진로도 물어보고 제 취미에 대한 것도** 물어봐 주세요. (청9-중도)
어머니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 10점 (중략)
면접자 어떤 거 관심 많으세요?
어머니 **학교생활**, **경일이 하고 싶은 거** (청9-중도-모*)

면접자 부모님이 나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이신 것 같아요?
청소년 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중략) 8점
면접자 어떤 부분에 관심 있다고 느끼세요?
청소년 자주 물어보고 (중략) 그냥 오늘 뭐 했냐고 (청10-국내)

면접자 아버님은 기보현님에 대해서 0~10점 중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10점이요. (이유는) **학교생활도 자주 물어보고 관심도 가지시는 거 같아서요**. (청11-국내)

면접자 부모님이 나에 대한 관심은 0에서 10점까지 하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청소년 8에서 10 (청14-외국내)

면접자 어머니께서 강숙희 학생에게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0~10점까지 점수를 매긴다면?
어머니 마음 안에는 10점이죠. 그런데 실제 주는 거는 5~6점밖에 못 했어요. (청14-외국내-모*)

다른 청소년은 부모의 관심이 전반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지만, 그중에서는 부모 간에 관심의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또 다른 형제에 비해 부모의 관심이 낮은 수준이라고 토로하기도 하였다. 앞에서 부모와 자주 대화하지 않는다고 한 청소년1은 자신에 대한 부모의 관심 정도에 대해 '모르겠다'고 답했으며, 청소년5는 막내인 남동생에 비해 관심을 덜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청소년12는 부모의 관심 정도를 10점 만점 중 1점으로 답하면서, 부모의 관심은 게임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만 있다고 이야기하였고, 청소년15는 아버지가 자신이 하고 싶은 것보다 무엇을 하고 다니는지에만 관심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부모의 관심정도에 대해서는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간, 그리고 부모-자녀 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면접자 그러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갖는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모르겠어요.** (청1-외국외)

면접자 아버님께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7-8점 (중략) (어머니는) **동생들한테 관심이 가 있어요. 남동생만 챙기거든요** (청5-중도)

면접자 부모님의 희정 친구에 대한 관심은 0~10점 중 어느 정도예요?
청소년 **1점이요**. 게임 그만해라 이러고 끝나서, 따로 하시는 말씀은 없으세요. (청12-국내)

면접자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본인에게 갖고 있는 관심이 0~10점 중 몇 점인 거 같으세요?
청소년 아빠는 5? 엄마는 7? (중략) **아빠는 제가 뭘 하고 싶은지는 관심 없는 거 같은데 어디서 뭘 하고 다니는지는 관심이 많아요.** 엄마는 둘 다 관심이 있어요. (청15-외국내)

갈등과 잦은 다툼

앞에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상황 인식에서 부모와 차이가 있었던 청소년1은 부모님과 의견 차이가 크며, 갈등 상황에서 자주 본국으로 보낸다고 해서 힘들다고 전했다. 그러나 학부모 인터뷰에서는 자녀 교육을 이유로 한국에 왔기 때문에 계속 한국에서 생활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청소년1의 학부모는 앞서 자녀와 대화를 자주 한다고 했지만, 실제 자녀의 속마음을 모른다고 하였는데 대화의 빈도뿐 아니라 대화의 깊이와 내용 역시 매우 중요함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는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면접자 집에서 힘든 일이나 고민이 있으세요?
청소년 의견이 너무 안 맞고 제 얘기를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뭐라 하시고 **뭐만 하면 중국으로 보낸다고 해서 조금 그래요**.
면접자 이게 새롭게 생긴 문제인가요?
청소년 아니오. 전부터 말다툼 하면 그렇게 할 거면 중국 가지, 한국에서 뭐 할 거냐고 그러셨어요. (청1-외국외)
(아버지: 계속 여기 있어야 해요. 어차피 딸 때문에 왔으니까요.)

면접자 정현이의 심리적, 정신적 상태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청소년이기 때문에 엄마랑 싸워요.**
면접자 어떤 거 때문에 갈등이 있으세요?
아버지 친구, 공부 다 있어요.
면접자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버지 그거는 안 돼요. **속마음 우리는 몰라요.** (청1-외국외-부*)

청소년5는 가족에게 짜증을 내는 등 어머니, 동생과 갈등이 있음을 진술하였다. 이 청소년은 집에 특별히 힘든 일은 없다고 했지만, 인터뷰 내용 중 맏이로서 잘해야 하고 동생을 챙겨야 하는 부담 외에도, 앞에서 어머니가 남동생만 챙긴다고 이야기한 것에서도

가족 관계 안에서 본인에게 내면화된 어려움은 없는지 탐색이 필요해 보였다. 청소년6은 부모 간 갈등에 대해 토로하였는데, 작은 문제로 더 이상의 다툼이 없기를 희망하였다.

> 면접자 요새 혹시 느끼는 기분은 어떤 기분이나 상태가 주로 있는 것 같으세요?
> 청소년 **짜증을 많이 부린 것 같아요** (중략) 엄마랑 얘기하면 의견 차이도 있고 하는 말이 다 알아먹었는데 계속 반복해서 말해 주시면 잔소리로 들려서 짜증도 부리고 동생하고도 많이 싸우고 (청5-중도)
>
> 면접자 그러면 혹시 가족이나 부모님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아니면 바뀌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지
> 청소년 **엄마랑 아빠랑 가끔 싸워요.** 평소에 안 싸우는데 가끔 싸우는 것도 사소한 것 때문에 싸워서. 사소한 것 때문에 안 싸우면 좋겠어요. (청6-국내)

표 Ⅵ-10. 다문화청소년 IDI: 가정생활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부모와 자주 대화	다양한 주제로 원활한 소통	• 아버지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어머니는 자신의 국가와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주심. • 다양한 주제로 많은 대화를 함. • 함께 운동하며 대화도 많이 하게 됨.
	고민을 제외한 일상 대화	• 청소년은 일상적인 대화를 할 뿐, 어려운 일이나 고민, 진로 등은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음. • 부모 인터뷰에서는 자녀가 다양한 고민을 공유하고 있다고 보고함에 따라 자녀와 인식 차이를 보임.
부모의 관심 차이와 갈등	부모의 관심 정도의 차이	• 부모의 관심 정도에 대해 인식 차이 • 부모 간 자녀에 대한 관심 정도와 내용에 차이가 있음. • 부모의 관심 정도를 모르겠음.
	갈등과 잦은 다툼	• 부모님과 갈등 시 본국 귀환시킨다고 해서 힘듦. • 형제와의 다툼 • 부모님과의 사소한 갈등

② 다문화 가정생활: 언어 사용과 적응

가. 다문화가정의 언어 사용

이주배경 유형에 따른 언어 사용 차이

다문화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주로 한국어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부모님과 대화 시에는 부모님 국적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많았다. 특히 이주배경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어로만 소통하거나 9:1, 또는 8:2의 비중으로 한국어 사용이 훨씬 많았는데, 이 경우 어머니의 국내 거주 기간이 오래되면서 한국어 소통이 거의 문제가 없었다. 외국인가정이거나 중도입국 가정에서는 그보다 한국어 사용 비중이 낮았는데, 상당수의 청소년은 듣기는 가능하지만, 쓰기가 안되거나 대화는 불가능

하였다. 대부분 이중언어를 사용하였으나, 청소년15는 어머니 국적이 필리핀이었는데, 가정에서 한국어, 영어, 필리핀어 순으로 3개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청소년15).

> 제가 말할 때에는 한국어로 말 하면 중국어로 답해서 서로 알아 들어서 제가 쓸 때에는 70:30(청1-외국외)
> 엄마한테 할 때는 영어랑 한국어로 하고 아버지랑은 한국어요. (청3-중도)
> 한국어요 (청4-외국내)
> (어머니랑 얘기할 때는 한국말로만 해요?) 네 (청8-국내)
> 전부 다 한국어요 (청11-국내)
> (어머니는) 가끔 통화하실 때는 캄보디아 말하시고 평소는 한국말 (청12-국내)
> 한국어가 크고 영어, 필리핀어요. (청15-외국내)

이중언어 사용의 장점

다문화청소년 중 청소년9와 13은 이중언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성인이 되었을 때 진로나 직업 선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청소년9는 영어를 잘하는 것으로 친구들 사이에서 알려졌고, 한국어와 영어 2개 국어 사용이 자신의 진로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청소년13은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자신의 다문화배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이중언어 사용을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했다. 또한, 이후 통역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 면접자 2개 국어 하는 게 나중에 내 직업 커리어에 어떻게 영향을 줄 것 같아요?
> 청소년 **확실히 커리어에 좋은 영향 줄 것** 같아요. 소통에 관해서도 그렇고 많은 영어가 관련돼 있고 하니까
> 면접자 …친구들 비교할 때 나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면이 어떤 게 있을까요?
> 청소년 영어 회화 같은 거요. (청9-중도)
>
> 면접자 (이중언어 가능에 대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 청소년 **다른 애들보다는 좋죠** (중략) 청소년 일을 하면 통역 같은 거 (청13-중도)

나. 한국생활 적응

중도입국 후의 적응

중도입국가정의 청소년3은 초등학교 1학년 시기에 한국에 입국하였는데 당시 말하는 것을 어려워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학교에 한국어 수업 지원도 있지만, 현재 본인의 수업 이해 정도는 10점 만점 중 5점 정도로 낮은 평가하였다. 이에 비해

청소년9는 6~7세에 한국에 입국하면서 당시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했지만, 현재 한국어 수업 이해정도는 8점 정도로 다른 또래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2년의 나이 차이가 있으나, 비슷한 시기에 한국에 입국하여 청소년3은 학교에서 지원을 받았고, 청소년9는 어머니 인터뷰 내용에서 다문화센터(다문화가족지원센터, 또는 가족센터)의 한국어 수업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청소년9 사례의 경우, 또 다른 영향 요인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에 입국한 후 다문화센터를 통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한국어를 수강한 것은 한국어 실력 향상뿐 아니라 한국생활 적응에도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이다.

면접자 (한국에) 들어왔을 때 언어적인 거나 문화적인 어려움은 없었어요?
청소년 **말하는 게 어려웠어요.** (중략)
면접자 지금 한국어로 진행하는 수업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지 0~10점 중 어느 정도인 거 같아요?
청소년 **5점.** (청3-중도)

청소년 6살인가 7살 때 한국에 왔어요 (중략) (기억이) 잘 나지는 않죠.
면접자 내가 한국어로 수업을 듣잖아요. 그럴 때 이해할 수 있는 정도가 0에서 10이면 몇 점 정도 같아요?
청소년 **8정도 같아요.**
면접자 다른 친구들은 학교의 수업 이해 정도가 몇 점 같아요?
청소년 **비슷한 것 같아요.** (중략) (청9-중도)

어머니 여기(한국) 오기 전에 걱정했어요. 왜냐면 저는 한국말 절대 몰라요. (중략)
면접자 다문화가족센터는 언제 이용해 보셨어요?
어머니 한국에 도착? 우리 한국 왔을 때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공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일이는 저처럼 한국말을 못하니까 경일이도 신청했고 선생님에게 받았어요. (청9-중도-모*)

한국과 다른 양육 방식

외국인가정의 청소년7은 유아기 시절부터 한국에서 성장했는데, 부모님이 미국방식에 맞춰서 양육하고 있어 다른 또래와 차이가 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청소년은 취침시간과 기상 시간이 매우 이른 것에 대해(초등학교 시절 저녁 7시 반 취침, 아침 5시 기상), 그리고 카페인 섭취에 대한 엄격한 관리를 미국방식에 맞춘 것으로 생각하였고, 한국 친구들과 다른 양육방식으로 생각하였다. 또한 청소년8의 어머니는 모국에서 중학교 3학년 연령대라면 식사준비와 청소 등 집안일을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한국에서는 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자녀에게도 이러한 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었다.

어려움보다는 **미국 스케줄로 적응을 시키려고 하셔서** 좋은 점도 있고 아닌 점도 있거든요. 제 친구들은 초 3학년이면 10시쯤 자고 그러는데 엄청 늦은 거잖아요. 저는 3학년 때 5시에 일어나고 7시 반에 잤어요. 초 4 때까지 5시에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6시, 지금은 10시에 일어나고, 아직도 건드리기는 하세요. 애들 새벽 2시쯤 잘 때 몬스터 마실 때 너는 카페인 마시면 안 된다, 너는 카페인 잘 받는 몸이니까, 9시 30분에 자라. (청7-외국외)

중3도 마찬가지고 피곤하다고 생각을 해요. 베트남 사람은 **그 나이면 밥도 해야되고 청소도 해야되고 설거지도 해야되고, 그런데 여기는 안 하잖아요**. 집안일을 저 혼자 하니까 가끔 잔소리 그런 것도 있어요. (청8-국내-모*)

표 Ⅵ-11. 다문화청소년 IDI: 다문화 가정생활_언어 사용과 적응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다문화 가정의 언어 사용	이주배경 유형에 따른 언어 사용 차이	• 외국인 가정의 경우(일부 중도입국 가정 포함) 한국어 비중이 크지만, 어머니 모국어와 혼용 • 국내출생 다문화가정에서는 주로 한국어 사용
	이중언어 사용의 장점	• 영어 사용이 진로에 도움 될 것으로 생각 • 이중언어 사용이 경쟁력이고 통역 일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국생활 적응	중도입국 후 적응	• 한국 입국 후 말하기가 어려웠음. • 어릴 때 입국 당시는 기억나지 않음, 현재 한국어 실력은 또래 학생과 비슷 (입국 후 다문화센터에서의 한국어 학습 도움)
	한국과 다른 양육방식	• 부모님 나라에서의 양육 방식 고수(외국인 가정) • 모국과는 다른 한국 가정 내 자녀들의 가사 도움 부재 지적

(3) 사회적 관계

① 사회적 관계 양상

가. 청소년들의 다양한 또래 관계 형성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친구 관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다문화배경인 또래들에 대한 동질감, 또는 친숙함으로 친구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여타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또래 관계를 갖고 있었다. 청소년1과 2는 각각 현재와 과거에 또래와 관련한 힘들었던 경험이 있었는데, 청소년1은 대부분 초등학교 때부터의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청소년2는 현재 중학교에서 만난 친구들과 매우 좋은 상태였다. 청소년1은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 잘 이해해 주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는데, 현재 동급생에 의한 다문화배경 노출 및 괴롭힘의 영향으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오랜 기간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들에게 편안함

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청소년2는 초등학교 때 친구가 없어 매우 힘든 시간을 보냈었고, 중학교에 진학한 후 점차 많은 친구를 사귀게 되면서 자존감이 최대치라고 표현할 만큼 최근의 친구들과의 관계를 통해 행복해하는 상태였다. 친구 관계를 유지한 기간이나 학교급과 무관하게 청소년들이 각자의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데 있어 또래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사례들이다.

청소년 몇 명은 초등학교 때 친구. 대부분은 다. 한 명 빼고는 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면접자 그 친구들하고 관계는 좋은 편인가요?
청소년 네 (중략) **생각보다 잘 맞고 얘기도 잘 통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이해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청1-외국외)

청소년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 3년 전에 제가 친구가 거의 없었어요. 말하면서 노는 친구가 없으니까 가족한테 기댔죠. (중략) 중학생 때 올라오니까. 초등학교 때 애들하고 많이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새 출발해서 지금 이 상황이에요 (중략) **친구가 많이 생겨서 지금은 자존감이 맥스**라고 보면 돼요(중략).
면접자 또래에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청소년 맞아요. (청2-국내)

다양한 곳에서 만난 친구들

청소년들은 과거 초등학교 시절과 현재 중학교 시기, 그리고 학원, 지역사회,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다양한 곳에서 친구들을 만났다. 청소년10은 학교, 학원, 학교 주변 동네 등에서 친구들을 두루 만났으며, 방학 중인 현재는 매일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 친구들을 만나고 주말에는 학교 주변 친구들을 만났다. 청소년14는 지역아동센터를 초등학교 시절부터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한 또래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청소년에게는 학교 친구와 또 다른 곳에서의 친구도 있지만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오래된 친구들을 더욱 편하게 여기고 있었다. 청소년기 친밀한 또래 관계의 유무가 미치는 지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시기,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하게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안정적인 사회성을 발달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다양하고 건강한 또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기회, 장소들이 다각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면접자 완전 친한 친구 10명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요. 학교 친구에요. 지역사회에서 아는 친구에요?
청소년 **학교 친구**도 있고 **학원 친구**도 있고 **저희 학교 주변 애들도 있고**.
면접자 (전략) 누구를 더 많이 만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일단 학원을 맨날 가니까 학원 애들을 많이 보고 학교도 개학하면 맨날 가니까 맨날 노니까 주말에는 보통 학교 주변 애들하고도 놀고 (청10-국내)

면접자 여기는 몇 명 정도 친하게 지내요?
청소년 초등학생들하고 중학생 따로 방 쓰는데 중학교 다니는 애들이랑 거의 다 친하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은 안 친해요. (중략)
면접자 지역아동센터 친구가 더 좋아요? 학교 친구가 더 좋아요?
청소년 편한 건 아동센터 친구들이 편하고 그래서 얘기가 잘, 더 잘 맞는 건 학교 친구들 (중략) **지역아동센터 친구들은 오래 봐서 조금 더 편안하고 그런 느낌인데** 학교 친구들은 매해마다 반이 달라지니까 애들이 자주 바뀌어서. 얘기는 애들이 더 편한 것 같아요. (청14-외국내)

나. 혼자라는 고립감, 소외감 경험

같이 다닐 친구들이 없거나 생각이 다를 때 경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혼자 떨어지는 경험을 할 때 외로움, 고립감, 소외감 등을 느꼈다. 청소년 1은 초등학교 시절부터의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현재 학교 친구는 많지 않았다(괴롭힘 등의 이유로 추정). 그마저도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을 때, 이미 학급 내 같이 다니는 친구들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고립감을 느낀다고 토로하였다. 이 부분은 앞서 청소년8이 그동안 5명의 친구와 다닐 때 홀수여서 혼자 떨어져 나올 때 느꼈던 감정과 유사한데, 결국 중학교 시절 '같이 다니는' 단짝 친구의 유무는 이들의 심리사회적 측면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된다.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친구들 사이에서 생각이 다를 때, 즉 서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일치가 되지 않을 때 혼자라고 느낀다는 사례도 있었다(청소년10).

면접자 그러면 혼자라고 느끼거나 고립되었다고 생각이 들 때도 있나요?
청소년 **그냥 학교에서 친한 친구가 학교를 안 왔을 때**. 그 반이 너무 멀어서 쉬는 시간마다 가기도 그래서 급식시간에만 같이 가서 밥 먹고 같이 놀다가 헤어지는데 걔가 없으면 **반에는 같이 다니는 애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같이 다니면 걔네 사이를 흐트러뜨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청1-외국외)

청소년 작년에는 그런 생각(외롭고 혼자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5명이 다니니까 약간 2명씩 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 2명씩 하다 보면 **저 혼자 떨어질 때가 있고 걔네들은 친한데 나만 떨어진 느낌?** 지금은 그래도 6명이니까…
면접자 짝수가 돼서?
청소년 네. (청8-국내)

면접자 그러면 내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혼자라고 느끼거나 소외감을 느끼거나 그런 적 있어요?
청소년 약간 성격이 안 맞을 때 (중략) 얘는 그걸 하고 싶은데 저는 또 다른 걸 하고 싶고 (청10-국내)

집에서 내 편이 없을 때 혼자라고 느낌

일부 청소년들은 코로나 19시기에, 그리고 가족과의 갈등 상황에서 자신의 편이 없다고 생각했고, 혼자 집에 있을 때 고립감을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5는 가족 내에서

두 동생을 잘 챙겨야 하는 맏이라서 완벽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는데, 동생과의 다툼 시 자신만 부모의 질타를 받을 때 가족 내 자기 편이 없다고 생각하며 혼자라고 느꼈다. 또한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가 있어도 부모님에게 말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한 것에서도 이 청소년에게 가정에서의 심리적 지지와 지원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는 부분이다. 청소년 15는 당시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러한 감정을 느꼈는데, 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앞서 무기력 등 부정적 감정을 느낀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이해된다.

면접자 그러면 혹시 혼자라고 느껴지거나 고립되었다고 느껴지는 때 있으신가요?
청소년 지금은 안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코로나 있어서 학교에 자주 안 갔었고 (중략) 학교 갈 때에도 친하게 지낸 친구가 없었고, 집에 있으면서 제가 사춘기라서 예민해서 동생하고 싸우면 다 제가 잘못한 것처럼 **저만 혼내고 그래서 우리 집에는 내 편이 없나,** 그런 생각 했던 것 같아요
면접자 그러면 보통 마음이 힘든 일과 스트레스가 있을 때 혼자서만 해결을 하는 편이신가요?
청소년 부모님한테 말 안 하고 저 혼자 하거나 제일 친한 친구한테만 하는 것 같아요. (청5-중도)

면접자 혼자라고 느껴지시거나 고립되었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있어요?
청소년 가끔이요. (언제?) **집에 혼자 있을 때**요. (중략)
면접자 예전에도 그런 느낌을 느끼신 적이 있나요?
청소년 네.
면접자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그렇군요. (청15-외국내)

표 Ⅵ-12. 다문화청소년 IDI: 사회적 관계_친구 관계·고립감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청소년들의 다양한 또래 관계 형성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친구 관계	• 초등학교 때부터 오래 사귄 친구들이 다 이해해 줌. • 이전과 달리 중학교에 와서 사귄 친구들로 자존감 상승
	다양한 곳에서 만난 친구들	• 학교, 학원, 동네에서 상황에 따라 친구들을 자주 만남. •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이용(복지)시설에서 오랫동안 같이 성장한 편한 친구들
혼자라는 고립감, 소외감 경험	같이 다닐 친구가 없거나 생각이 다를 때 경험	• 친한 친구가 학교에 오지 않으면 반 아이들과 어울리지 못함. • 친구 관계에서 혼자 떨어질 때, 하고 싶은 것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외로움 느낌.
	집에서 내 편이 없을 때 혼자라고 느낌	• 코로나19 시기 친구도 없었지만, 집에서도 내 편이 없다고 느낌. • 집에 혼자 있을 때마다 그렇게 느낌.

② 소중한 사람, 고민 의논 상대

가. 소중한 가족과 친구

소중한 사람은 가족과 친구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으로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질문했을 때, 대부분 가족과 친구를 언급했다. 대부분은 부모님, 언니, 동생 등 가족의 소중함을 바로 이야기하였는데(청소년5, 6, 7, 9, 11, 15), 청소년12, 13, 14는 친구를 소중한 대상으로 응답했다. 청소년12는 앞서 기술했듯이, 친한 친구의 도움 요청에 가지 못해 자신을 쓰레기로 표현하며 상당히 괴로워하였다. 이 청소년은 뒤에서 고민이 있을 때 가족들에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도 했는데, 현재로서는 친구를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면접자 본인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가족**이 제일 소중하죠 (청6-국내)

면접자 희정 친구가 생각을 할 때 소중한 사람이 떠올라요?
청소년 그 힘든 친구요. (청12-국내)

나. 고민 의논 상대인 가족과 선생님

터놓고 이야기하는 가족과 친구

다문화청소년들은 고민이 있을 때 주로 가족과 친구에게 이야기하였다. 청소년6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해 주는 어머니와 의논하고 있으며, 친구들과 고민을 공유하지는 않는다고 하였다. 청소년11은 부모님, 가장 친한 친구와 고민을 공유하였다. 청소년8은 가장 속상한 이야기는 그래도 편한 동생에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인터뷰를 통해 이전과 달리 지금은 필요할 때 나와서 어머니에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14는 지역아동센터에서 함께 성장한 친구들뿐 아니라 그곳에서 만난 선배 언니에게 주로 상담한다고 하였고, 이에 대해서는 어머니 인터뷰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고민 의논 상대는 어머니와 선배 언니). 청소년시기에 고민거리를 털어놓을 수 있는 가까운 상대가 꼭 필요하다고 할 때, 다문화청소년에게 이렇게 가족과 친구, 또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만나게 된 지인들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 주로 하자면 가끔씩 고민 상담은 엄마랑. **엄마가 제일 이해를 해 주니까**. 엄마밖에 의논할 사람이 없기는 해요. (청6-국내)

면접자 혹시 고민은 누구와 주로 이야기를 하는 편이세요?
청소년 아빠 아니면 엄마랑, 그냥 **부모님이랑요. 아니면 엄청 친한 친구랑** 하거나요. (청11-국내)

면접자 내가 이런 거 속상하다 하는 거는 누구랑 해요?
청소년 동생이요 (중략) 동생이 편해요. (청8-국내)

면접자 작년에 상담을 하고 어머니랑 여전히 속이야기, 고민은 어떤가요?
어머니 그전에는 잘 안 하다 **지금은 필요할 때, 완전 필요할 때 나와서 얘기해요.** (청8-국내-모*)

면접자 심리정서적으로 힘들고 고민거리가 있고 답답하고 이럴 때 누구한테 상담을 주로 하는 편이에요?
청소년 **아동센터 다니는 언니 중에 한 명** (청14-외국내)

면접자 강숙희 학생이 고민거리가 있을 때 누구랑 이야기하는 거 같으세요?
어머니 저랑 얘기해요. 집 아니면 아동센터 언니랑 얘기를 해요. (청14-외국내-모*)

의논 상대이면서 도움을 준 담임선생님, 상담선생님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에는 학교에서 괴롭힘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포함해서 같이 의논하고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 학교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를 꼽았다. 청소년1은 담임교사와 상담교사가 자신의 다문화배경 노출로 인한 폭력 피해와 고민을 들어주었다고 하였다. 중학교 2학년 시기 심리적 위기 징후를 보였던 청소년8은 가족, 친구와 갈등이 있을 때 위클래스 상담교사를 자주 만났다고 보고하였다(올해는 가지 않음). 심리적 어려움과 불안이 있었던 청소년15 역시 고민이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이야기하였고, 담임교사가 상담교사를 추천하여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이러한 사례는 학교에서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직접 발견할 수 있는 최일선에 있으면서, 이들이 일차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으로서 담임교사의 역할이 매우 큰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있다. 아울러, 사안의 심각성을 판단하여 이후 상담교사와의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하는 등 더욱 전문적인 개입을 위한 가교역할도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면접자 … 그런 힘든 마음 때문에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 본다든지 지원을 받아 본 적 있으세요?
청소년 **학교 상담실, 상담선생님, 담임선생님**하고도 많이 얘기했어요.
청소년 도움을 받은 건 아니고 제 얘기나 고민을 해서 선생님이 들어 주시고 그랬어요. (청1-외국외)

면접자 고민이나 이런 거 있을 때 의논을 주로 누구랑 해요?
청소년 **친구들이랑 하거나 위클래스 상담**을 하거나요.
면접자 그 상담선생님 몇 번 만난 적 있어요?
청소년 생각보다 많은 거 같은데요.

면접자 주로 어떤 일로 만나요?
청소년 친구들과 싸우거나 엄마랑 싸우고 그랬을 때… (청8-국내)

면접자 고민, 외로움이 있을 때 누구와 이야기를 하는 편이세요?
청소년 **담임선생님이요** (중략)
청소년 담임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요.
면접자 어디를요?
청소년 학교 상담선생님이요.
면접자 그러면 상담선생님에게 상담을 받아 보신 적 있으세요?
청소년 네. (청15-외국내)

다. 소중한 사람을 모르겠음

소중한 사람을 묻는 인터뷰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청소년이 가족과 친구를 말할 때 청소년1과 청소년8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청소년1은 심리적 측면과 부모와의 관계 등에서 학부모 인터뷰 내용과 차이가 있었는데, 청소년1과 학부모 모두 공통적으로 소중한 사람을 모르겠다는 응답을 하였다. 청소년8의 경우는 올해 인터뷰만으로는 별다른 문제 없이 가족,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는 보통의 청소년으로 보임에 따라, 이 청소년이 단적으로 응답한 내용(소중한 사람은 '모르겠어요')을 확대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학교 2학년 시기 학교의 종합심리검사에서 포착된 심리적 위기 징후로(죽고 싶다고 함) 인해, 위센터의 10회기 상담과 어머니의 각성 등 여러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사람을 모르겠다는 다소 우려스러운 응답을 보였다.

면접자 소중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 하세요?
청소년 **모르겠어요.** (청1-외국외)

면접자 그렇군요. 정현이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몰라요**.
면접자 정현이가 고민이 있을 때 터 놓고 의논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버지 **없어요.** (청1-외국외-부*)

면접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은 누구인 거 같아요?
청소년 **모르겠어요.**
면접자 소중한 사람이 딱히 없어요?
청소년 네. (청8-국내)

표 Ⅵ-13. 다문화청소년 IDI: 사회적 관계_소중한 사람·고민 의논 상대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소중한 가족과 친구	소중한 사람은 가족과 친구	• 부모님, 언니, 동생 등 가족이 소중함. • 소중한 대상은 친구
고민 의논 상대인 가족, 선생님	터놓고 이야기하는 가족과 친구	• 속상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가장 잘 이해해 주는 가족 • 지역아동센터의 선배 언니와 터 놓고 이야기함.
	의논 상대가 되어 준 담임·상담교사	• 이야기와 고민을 들어주는 담임, 상담선생님 • 친구, 가족과 갈등 시 위클래스 상담선생님의 도움을 받음.
소중한 사람을 모르겠음.		•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음.

(3) 학교생활

① 교사관계와 성취 경험

가.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학교생활, 그중에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서 청소년들은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하였고, 그 이유에 대해 '착해서'라는 응답이 다수 관찰되었다. 교사와의 관계를 좀 더 상세히 보고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같은 학급 학생으로부터 다문화 배경을 이유로 괴롭힘을 당한 청소년1의 사례에서 담임교사는 청소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었으며 청소년4는 위클래스 선생님에 대해 특별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청소년11은 교사로부터 올림피아드를 추천받아 본인의 진로에 도움을 받았고, 청소년15 사례에서 담임교사는 약을 사다 주며 장학금이나 지원금 등을 알아봐 주는 등 세심하게 챙겨주었다. 학급 내 괴롭힘과 심리적 어려움 등으로 특별한 관심과 도움을 필요로 한 청소년1과 15 사례에서의 교사의 지원, 또 청소년11과 같이 장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천과 도움을 준 담임교사의 역할은 학급 내 교사의 세심한 관심과 개입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학교 선생님과의 관계) 대체적으로는 전부 좋다고 봐요. 모르는 쌤 빼고는 다 좋았어요. (청2-국내)

좋아요 (중략) 그냥 되게 착하세요. (청10-국내)

많이 신경도 써 주시고 제가 반 애들하고 사이 안 좋으면 따로 얘기해서 잘 얘기 들어 주시고 조언도 해주세요. (청1-외국외)

굳이 한 명 꼽는다면 위클래스 쌤들이 착하세요. 굳이 한 명 꼽는다면 그분? (청4-외국내)

좋은 거 같아요 (중략) **학교선생님이 (올림피아드) 추천을** 하셔서 했는데 계속 수업을 듣고 있어요. (청11-국내)

면접자 담임선생님과의 관계는 좋아진, 친하게 지내게 된 계기 같은 게 있었을까요?
청소년 **아팠을 때 약 사다 주신 거? 장학금, 지원금** 같은 거 알아봐 주신 거 (청15-외국내)

나. 학교에서의 성취 경험과 아쉬움

성적, 리더십에 따른 뿌듯함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에서의 성취 경험은 성적이 좋아서, 부반장이어서, 또는 모범상 수상 등에 따른 것으로, 이들에게 자부심을 갖게 해주며 더욱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동력이 된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6은 열심히 공부해서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에 보람과 성취감을 느꼈으며, 청소년11도 노력한 결과로 자랑스럽게 느꼈다. 청소년5는 성적이 잘 나올 때뿐 아니라 모둠활동 등에서 리더십을 갖고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 성취감을 느꼈으며, 또 다른 청소년들은 부반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친구들을 도와줄 수 있어 기분이 좋아졌다고 언급하였다(청소년10, 14). 청소년9는 성적이 오른 것에 더해 모범상을 받은 성취 경험으로('기분이 좋잖아요'), 올해도 모범상을 받으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한편으로 본 면접에서 심리사회적으로 어려움이 관찰된 청소년8과 청소년15는 성적이 높게 나와도, 이로 인한 특별한 성취 경험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그냥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봤는데 내가 **바라던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와서 내가 열심히 한 것에서 보람을 느꼈어요. 결과에서 보람을 느끼고 그때 좀 성취감을 느꼈어요. (청6-국내)
>
> 모둠활동 하면 애들이 말수가 없으면 저도 없는데 말이 없으면 제가 해야 되니까. 어렸을 때부터 소극적인 애들하고 하면 모둠 조장해서 이끌어 나가고 할 때 **잘 따라주면 제가 원하는 대로 잘 되니까 성취감도 있고 숙제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오면 성취감도 있고** (청5-중도)
>
> 반장보다는 책임감이.. 친구들을 도와주는 게 뿌듯했던 것 같고. (기분이) 좋아졌어요. (청14-외국내)
>
> 청소년 성적을 잘 받기도 하고 세계사, 한국사를 잘 알아요. (중략) 모범상 받은 거 (기분이) 좋았어요.
> 면접자 올해는 목표가 있어요?
> 청소년 **모범상 타는 거요.** (청9-중도)

학업성적에서의 아쉬움

청소년들은 낮은 학업성적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으나, 한편으로 본인은 큰 불만이 없지만 부모님은 생각이 다른 것에 대해 언급하였다. 청소년9의 어머니는 자녀의 성적에 대해 청소년 본인보다 더 높게 평가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및 학업성적 체계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으로도 보였으나, 어머니 인터뷰 전반에서 보여진 자녀에 대한 기대와 높은 신뢰에 따른 결과로도 해석된다. 청소년13은 자신의 낮은 성적에 대해 큰 불만이 없지만 어머니는 그렇지 않음을 시사했고, 어머니 역시 인터뷰에서 자녀의 대학 진학을 생각할 때, 현재의 성적을 아쉽게 여기고 있었다. 청소년12는 자신의 학업성적에 대해 불만족하였는데, 낮은 성적 때문에 모범상의 의미도 퇴색한 것으로 생각했고, 성적에 대한 부담을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면접자 학교 성적은 대체로 어느 정도 같아요?
청소년 중상위권, 7.5 (청9-중도)

면접자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서 다행인 건가요? 그렇군요. 성적은 0~10점 중 몇 점 주시겠어요?
어머니 10점이요. 성적도 좋아요. (청9-중도-모*)

면접자 성적에 별로 만족하지 않아요?
청소년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엄마가…… (청13-중도)
어머니 (공부를) 너무 안 하니까 문제인데요. 이래서 대학교 갈 수 있나…… (청13-중도-모*)

청소년 **(모범상) 받아서 뭐하냐 성적이 이 모양인데**
면접자 그래서 어땠어요?
청소년 모범학생이어도 아닌 느낌 (청12-국내)

표 Ⅵ-14. 다문화청소년 IDI: 학교생활_교사 관계와 성취경험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 학교폭력 피해 와중에 선생님과는 좋은 관계 유지 • 대체로 선생님들이 좋음(위클래스 담당 교사 포함). • 담임교사의 세심한 배려와 지원
학교에서의 성취 경험과 아쉬움	성적, 리더십에 따른 뿌듯함.	• 성적 향상으로 기분 좋음. • 자신의 리더십으로 모둠활동에서 좋은 성과를 얻음. • 부반장으로서 친구를 도움
	학업성적에서의 아쉬움	• 학업성적이 좋지 않아서 불만족 • 낮은 성적으로 모범상을 받아도 좋지 않음. • 하위권이지만 큰 불만은 없음.

② 학교에서의 문제, 아쉬운 점

가. 폭력 피해·사건 경험

외국인가정 배경 노출로 인한 폭력 피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재학 중인 학교에는 그 수의 많고 적음에 차이가 있을 뿐 여러 다문화배경의 청소년들이 있었다. 그리고, 다문화청소년으로서 학교에서 어떠한 불편함이나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지에 대한 탐색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다문화배경이 원치 않게 노출되면서 학교폭력 피해의 대상이 되고, 놀림을 받은 심각한 사례들이 있었다. 청소년1은 앞서 다문화배경에 대한 개인적 인식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학교에서의 외국 국적 노출로 인한 괴롭힘으로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한 경험이 있었다. 여기에서 좀 더 구체화하면, 청소년1의 영어 이름 때문에 외국인가정 자녀인 것이 알려진 부분도 있지만(반 배정이 공지될 때, 다른 학급생의 이름은 모두 한글이었으나 본인만 영어로 적혀 공지됨, 현장노트 참조), 이미 이를 알고 있던 작년 동급생이

올해도 같은 반이 되면서 집요하게 괴롭힌 것으로 확인된다. 심지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서도 비난과 욕설, 비웃음을 당했다는 인터뷰 내용은 청소년1이 이로 인한 고통이 상당히 컸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1은 담임교사에게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까지 하였다. 청소년4도 앞의 사례와 유사하게 외국인가정의 자녀로, 출석부에 영어이름이 기재되면서 놀림을 받은 경험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자신뿐 아니라 동일한 상황의 교내 사례를 언급하면서 학생생활기록부와 출석부 등에서 외국인가정 청소년임이 두드러지지 않기를 희망했다.

작년에 같은 반이었던 남자애가 저를 되게 싫어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반이 된 거에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 게 다 영어로 뜨는데 애들은 다 영어가 누군지 모르니까 (중략) 반 애들하고 친해졌었는데 그 때 장난치다가 인대가 늘어났어서 (중략) **제 욕을 하고 비웃고 무슨 말을 하면 가서 걔네들끼리 전하면서 웃고** 그래서 그냥 반에 있기 싫어서 선생님한테도 반에 있는 게 너무 싫다고. **학교도 안 나오고 싶다고 그랬었어요.** (청1-외국외)

출석부에 저 같은 경우 한국 이름이 아니라 영어 이름을 써 놓거든요. 애들이 보고 왜 그러냐 나에게 묻고 **그걸로 놀리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략) 차라리 학생기록부나 출석부를 아예 다 한국어로 바꿔 버려라 말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른 애, 외국인 걔도 출석으로 뭐라 하는 애들이 한두 명 있었고 (청4-외국내)

학교폭력 및 사건에 따른 피해 경험

청소년8은 인터뷰에서 간접적으로 학교에서의 폭력 피해와 도박 사건을 경험한 내용을 보고하였다. 학급의 문제 학생으로 인해 바로 옆에서 다친 일이 있었고, 이에 대해 어머니가 학교에 연락하였으나 이후 대처는 다소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보여 아쉬움을 남겼다. 이외에도, 돈내기 게임과 같은 도박에 연루된 학생들로 재학 중인 학교가 수사를 받았던 일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이러한 문제가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아 보인다. 특히, 앞에서와 같이 부상당한 사건에 대한 학교의 대처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면접자 (학급 학생) 그거 때문에 학교생활에 영향을 줄 정도네요. 혹시 직접적으로 피해 본 게 있었어요?
청소년 저희 반 여자애가 걔한테 뭐라 하니까 의자 같은 거를 바닥에 던졌는데 제 앞에 떨어지고 그게 사물함 앞이었는데 사물함 열다 의자를 쳤는데 **제 다리에 맞아서 사과하라고 했더니 욕하고** (청8-국내)

어머니 저도 그거 때문에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거든요.(중략) 제가 집에 가서 선생님이 얘기 했냐고 그러니까 친구 장난친다고 괜찮다고, 하여튼 모르는데 참으라고 그랬대요.
면접자 친구가 그냥 장난친 거니까 참아라?
어머니 상담할 때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알아보고 다시 전화드린다고 했는데 **전화 안 왔어요.**
면접자 학교에서요?
어머니 네. 그래도 애는 그렇게 얘기하면 넘어가고 너무 그렇게 하면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넘어 가는 거죠.** (청8-국내-모*)

청소년 저희 학교가 이상해요. 학교에서 도박한 애들이 00명이 나왔어요. 저희 반 회장도 하고……
면접자 돈 내기 게임 같은 거? 주변에도 있어요?
청소년 여자애들도 하는 거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중략) **경찰 와서 애들 다 그거 하고**(조사하고) (청8-국내)

나. 학교에서의 아쉬운 점

다문화청소년 차별 금지 교육 부재

위에서 출석부의 영어 이름 기재로 인한 피해를 막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기했던 청소년 4는 다문화청소년 차별 금지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학교 시스템상에서의 외국 국적으로 인한 다문화배경 노출 문제도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 교육 현실에 대한 재검토가 먼저 필요해 보이는 대목이다.

다양한 스포츠 경험 기회 부족

청소년13은 본인이 재학 중인 여자중학교에서의 다양한 예체능 활동 중 악기나 댄스 교습 외에 스포츠와 관련된 종목이 제한적임을 아쉬워했다. 신체적 건강을 도모할 뿐 아니라 사회성 발달에까지 미치는 긍정적 영향을 고려할 때, 청소년들에게 단체운동 종목을 포함한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는 매우 유익하다. 개별 학교에서 모든 활동을 제공하기 어렵다면, 학교 스포츠 클럽활동과 같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외국 국적 애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교육은 받아 본 적 없어요. 그 부분만 어떻게 해 달라 (청4-외국내)

청소년 … 악기나 댄스 같은 게 많단 말이에요. 저는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이 하나도 없으니까…
면접자 다양한 운동이 하고 싶어요?
청소년 네. (청13-중도)

표 Ⅵ-15. 다문화청소년 IDI: 학교생활_피해 경험, 아쉬운 점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폭력 피해·사건 경험	외국인가정 배경 노출로 인한 폭력 피해	• 영어 이름을 이유로 특정 학생집단이 괴롭힘. • 출석부의 영어 이름으로 놀림을 받음, 한글 이름으로 변경 희망
	학교 폭력 및 사건에 따른 피해 경험	• 문제 있는 학급생으로부터 부상 피해, 소극적인 학교의 대처 • 도박문제로 교내 경찰수사
학교에서의 아쉬운 점	다문화청소년 차별 금지 교육 부재	• 외국국적 애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교육은 받아 본 적 없음.
	다양한 스포츠 경험 기회 부족	• 다양한 운동 기회가 없음.

(4) 진학·진로

①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

가. 진학할 고등학교 결정

다양한 진로를 고려한 학교 선택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중 일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폭 넓은 진로를 고려하여 진학할 고등학교를 결정하였다. 청소년6은 향후 진로 선택 기회가 다양해질 수 있다는 어머니의 조언에 따라 진학할 고등학교를 결정하였고, 청소년9는 IT 분야를 염두에 두고 졸업 후 대기업 취업뿐 아니라 대학 진학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고등학교를 선택했다. 청소년9의 경우 작년부터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으며, 어머니 역시 인터뷰에서 자녀의 이러한 생각과 결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14는 학교 선택에 있어 담임교사의 조언과 본인의 적성(목공) 등을 고려했는데, 세 곳의 학교를 방문한 이후 결정하였으며 고등학교 진학 이후에도 계속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들 청소년은 교사로부터 관련 조언도 듣고, 또 부모와도 내용을 충분히 공유하며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진로결정을 위한 적절한 지지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면접자 왜 ○□고 진학을 생각하셨는지.
청소년 (전략) ○□고에서 엄마가 하는 말씀은 공부를 잘 하면 **너가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다양성이 넓어진다**고 해서 ○□고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진로의 길이 더 넓지 않을까 생각해요. (청6-국내)

면접자 (고등학교) 선택하게 된 이유는 뭐예요?
청소년 **도전해 보고 싶었어요** (중략)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청9-중도)
어머니 거기서 공부하면 나중에 졸업할 때 ○○(대기업) 갈 수도 있고 (중략) 왜냐면 다 스킬이기 때문에 지금 경일이는 그 학교 가고 싶대요 (중략) 졸업하면 만약에 대학교 가면 그것도 좋다고 해서 (청9-중도-모*)

면접자 혹시 □□고를 가는 게 나중에 진로 꿈 이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청소년 관련은 없기는 한데 그래도 담임선생님하고 얘기해 봤을 때 취직하는 게 더 좋다고 하셔서 (중략) 제가 하고 싶은 것도 있고 (청14-외국내)

대학 진학을 목표로 고등학교 결정

청소년들은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일반고나 특성화고를 결정하였다. 청소년1은 처음에는 공부에 큰 뜻이 없어 제과제빵 기술 습득을 목표로 특성화고등학교를 우선 고려하였다. 그러나, 부모님 국가를 다녀오면서 비행기 승무원을 꿈꾸게 되었고 관련 대학 진학을 염두에 둔 일반고 진학을 계획하였다. 청소년2와 청소년5도 대학을 목표로 일반고로의 진학을 결정하였다. 청소년7은 본인이 관심있는 요리 전문 특성화고를 희망하였는데, 최

종적으로는 부모님이 재직 중인 대학을 목표로 하였다.

> 꿈이 약간 그렇게 정하지 못했고 공부에도 흥미가 없어서 그냥 가서 제과제빵이 있으니까 그런 거라도 하고 싶어서 특성화고 가려고 했는데 **꿈이 약간 생겨서 일반고 가서 대학교 가는 게 목표에요.** (청1-외국외)
>
> 인문계가 그나마 높기는 한데.. 인문계로 생각하고 있어요. (청2-국내)
>
> 일반고 가고 대학교 가려고 그런 것 같아요. (청5-중도)
>
> ▽○고등학교라고 요리를 전문적으로 알려 주는 특성화고가 있어서 그쪽으로 가고 싶거든요 (중략) 부모님이 ○○대학교 교수세요. 두 분 다 외국인이셔서 (중략) ○○대학교 갈 수 있으면 가고 싶어요. (청7-외국외)

나. 진학 고민 중

진학할 학교 고민

다문화청소년 인터뷰는 여름방학 기간에 수행되었는데, 이제 한 학기 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상당수의 청소년은 진학할 고등학교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었다. 청소년3은 고등학교를 어디로 정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었고, 청소년10은 간호사를 염두에 둔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고등학교까지는 범위를 좁혔으나 내신 성적 때문에 남녀공학과 여자고등학교 중에서 또 고민하고 있었다.

> 고등학교 가는 게 고민이에요.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중략) (고민하는 학교는) **없어요. 어디를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청3-중도)
>
> 일반고에서도 여고를 가야 될지 남녀공학 가야 될지 그것도 모르겠고, 여고가 남녀공학보다 내신 따기가 어렵잖아요. 내신을 따려면 남녀공학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공부에 집중하고 그러려면 여고가 맞다고 (청10-국내)

성적으로 인한 고민

청소년14의 현재 최대 관심사는 고등학교 진학 문제였다. 성적 때문에 특성화고와 인문계고 중에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머니 인터뷰에서도 청소년이 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15는 이번 1학기 기말시험 이후에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시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고등학교 진학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하였다.

> 면접자 요즘에 나는 이게 나의 최대 관심사다 이런 게 있어요?
> 청소년 고등학교 가니까 진로 문제가 제일 (중략) **성적이 애매한데 인문계 갈 성적이 간당간당한데** (청14-외국내)
> 어머니 아마 지금은 고민 많이 갖고 있는 거 같아요. 왜냐면 곧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지도 어느 학교 가야 되는지도 그렇고 집이랑 떨어지는 것도 그렇고… (청14-외국내-모*)
>
> 면접자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영역, 관심사가 있을까요?
> 청소년 진로요. 고등학교 (언제부터?) 기말시험 끝나고요 (중략)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요. (청15-외국내)

다. 진로계획과 무관한 고등학교 선택

청소년들은 진로와 관련된 이유가 아닌 기숙사 입소 등의 문제로 통학 거리가 가까운 학교를 선택하였고(청소년11), 집에서 도보 가능 거리인지 여부를 학교 결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다(청소년13). 또한 본인이 흥미를 느꼈던 분야의 고등학교 진학을 계획했다가 해당 분야에 관심이 줄어든 이후에는 고등학교 진학에 별 관심을 두지 않거나(청소년12), 특별히 하고 싶은 것이 없는 가운데 일반고로 진학하고자 하는 사례도 있었다(청소년15).

면접자 그렇게 (학교를) 결정하게 된 이유를 이야기 해 줄 수 있어요?
청소년 원래 과학고, 특성화고를 보고 있었는데 너무 멀어서 가려면 기숙사를 살아야 해서 **통학할 수 있는 가까운 데**를 가기로 했어요. (청11-국내)

면접자 (전략)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서 앞으로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해 봤어요?
청소년 가장 가까운 곳(일반고)이 좋아서 **일단 걸어서 제일 가까운 데** 가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청13-중도)

청소년 코딩을 했을 때는 □□ △△고였나? 그쪽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냥 생각은 안 하고 있어요.
면접자 다른 관심사를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래도 몇 개월 후면 정해야 되잖아요.
청소년 **관심이 없어서**… XX고를 갈 거 같기는 해요. (청12-국내)

면접자 어떤 유형의 고등학교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청소년 인문계 생각하고 있어요 (이유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요** (청15-외국내)

표 Ⅵ-16. 다문화청소년 IDI: 진학·진로_고등학교 진학에 대한 생각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진학할 고등학교 결정	다양한 진로를 고려한 학교 선택	• 취업, 대학 진학을 포함한 다양한 진로 선택을 위해 고등학교 선택 • 담임교사 추천과 본인의 적성 고려, 진학 후에도 진로 고민 지속 예정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교 결정	• 꿈을 가지고 대학 진학을 목표로 일반고 진학 계획 • 관심 분야 특성화고 진학 후 대학 진학 희망
진학 고민 중	진학할 학교 고민	• 어떤 학교를 가야 할지 모르겠음.
	성적으로 인한 고민	• 성적이 애매해서 진학할 고등학교를 결정하기 어려움. • 성적이 좋지 않아 진학 고민이 큼.
진로계획과 무관한 고등학교 선택		• 도보 등으로 통학이 가능한, 가까운 학교 우선 결정 • 최근 진로 변경을 고려하고 있어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음. • 특별히 하고 싶은게 없어 인문계고 진학 예정

② 진로결정, 미래에 대한 생각/포부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미래 희망 직업들에 대한 질문에서 교직, 연구, 운동, 기술, 군인, 작가, 예술, 미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구체적인 직업들을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들은 다른 또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축구선수, 사진작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승무원, 요리사와 같은 직업에 흥미를 느꼈고, 다문화배경과는 무관하게 자신의 미래를 꿈꾸고 있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희망하면서도, 앞서 고등학교 진학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사례도 있었고 여전히 특별한 생각을 하지 않는 청소년도 있었다. 또 대부분은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살아갈 계획을 갖고 있었고, 일부 청소년은 부모님 국가를 포함하여 외국에서의 진학, 취업을 고려하였다.

- 교사·연구 : 유치원 교사, 천문학 연구자
- 보건·복지 : 간호사, 사회복지사
- 운　　동 : 태권도 선수 국가대표, 축구선수, 운동 코치
- 기술·군인 : 요리사, 자동차 정비, 프로그램 개발자, 직업군인, 경호
- 작　　가 : 소설가, 웹툰 스토리 작가, 작가
- 예술·미용 : 기타리스트, 사진작가, 메이크업 아티스트
- 기　　타 : 비행기 승무원, 회사원, 성우

가. 구체적인 진로계획에서의 차이

구체적인 포부에 따른 진로계획

진로와 학업에 별다른 관심이 없다가 제과제빵 분야의 고등학교를 진학하려던 청소년1은 부모님 국가로 여행을 다녀오면서 비행기 승무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승무원이 되기 위해 학업에 대한 의욕을 가지고 성적을 올리고 있었으며, 유튜브를 통해 승무원 직무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있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에는 승무원 준비를 위한 학원을 다닐 예정으로, 이후에 관련 학과로의 대학 진학도 계획하고 있었다. 청소년5는 평소 동생을 돌본 경험이 많았는데, 최근 외가에서 사촌 동생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진 것을 계기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교사를 미래 직업으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이에 필요한 대학 진학을 위해 일반고로의 진학을 결정하였다.

면접자 … 승무원이 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소년 **고등학생 되면 승무원 학원이 있어서 그 학원도 다닐 생각이고 공부 점수를 조금 더 올리고 있어요** (중략)
　　작년에 한 번에 (중국에) 갔는데 멋있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로 승무원 하는 일 찾아본 것 같아요 (중략)
면접자 그 학원은 고등학생 돼야 갈 수 있어요?
청소년 고등학교 때 시작하는 게 적당하다는 얘기가 많아서 (청1-외국외)

면접자 고등학교 이후에 생각해 놓은 진로가 있어서 일반고 진학하려고 하는 거예요?
청소년 아직 부모님한테는 말 안 했는데 제가 애기들하고 노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 찾아봤는데** (중략) 대학을 가면 유아교육과를 가고 싶다는 생각이 있는데 (청5-중도)

진로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없음

고등학교로의 교급 전환을 한 학기 앞둔 시점에서 청소년들은 진학할 고등학교 유형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 장래 진로에 대한 생각을 시작하게 된다. 그러나 그동안 관심가지고 있던 분야에 대한 흥미가 떨어져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는 상황을 겪으면서 청소년12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군입대와 직업군인, 또는 프로그램 개발자, 바텐더, 회사원 등 여러 직업을 꼽았다. 하지만, 그중 특별히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다. 청소년14는 학교 교사를 통해 특성화고 졸업 후 취업이 용이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일단 그쪽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특별히 장래 어떤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은 없는 상태였다. 이러한 상황은 어머니 인터뷰에서도 드러났는데, 청소년14의 어머니는 자녀의 적성에 맞고 어울리는 직업을 찾을 수 있도록 설명을 듣는 등 진로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청소년12와 14 모두 진로상담을 포함한 구체적인 진로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었는데, 각자의 적성을 찾고 장래 진로를 탐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청소년 고민이 한 개 있기는 한데 진로에 대한 건데 제가 코딩을 시작을 하다가 **점점 하다 흥미를 잃어서 새로운 거를 찾아야 되는데 그거를 못 찾아서요.** (청12-국내)

면접자 특별히 학생이 앞으로 뭐가 되고 싶다 이런 건 있어요?
청소년 **없어요.** (청14-외국내)
면접자 혹시 이거를 하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어머니 숙희가 아마 **지금 어떤 게 좋고 잘 어울리는 지 아직 정리가 안 돼서 지한테 한 번 설명을**, 그거 뭐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지한테 설명해 주고 지가 맞는 걸로 한 번 잡아 주면 좋겠어요. (청14-외국내-모*)

나. 더욱 구체화된 진로계획(2023년→2024년, 종단자료 분석)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주도적인 진로계획

2023년에 이어 올해 인터뷰에도 참여한 청소년8, 9, 13과 어머니들을 통해 수집한 질적 종단자료를 통해, 이들이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비해 올해에는 적성을 고려하여 진로를 모색하거나 진로계획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2023년과 2024년의 진로계획 내용과 변화 등을 정리하면 〈표 Ⅵ-17〉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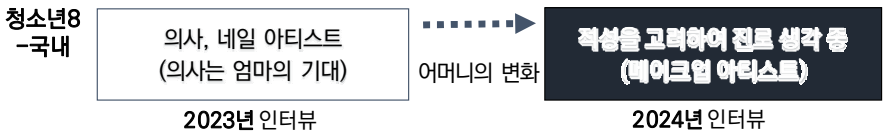
표 Ⅵ-17. 다문화청소년 IDI: 진로 구체화 등 변화 요약(종단자료 분석)

ID		2023	⇨	2024
청8-국내	청소년	•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라는 엄마의 기대가 부담됨.	적성에 맞는 희망 진로로 접근, 어머니의 변화는 진행 중	• 자신의 적성을 고려해서 진로를 생각하고 있고 여러가지 시도 중(메이크업 아티스트)
	어머니	•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음.		• 2023년의 위센터 상담 후 허용적인 방향으로 양육방식 변화 진행 중, 아쉬움이 있어도 자녀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생각하고 있음.
청9-중도	청소년	• 여행 다니면서 글 쓰고 싶음 (어릴 때부터 논술학원 다니며 글 쓰는 직업을 갖고 싶었음).	진로 변경, 부모의 지지와 도움	•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준비하고 있음(IT기술, 전기공학 분야 대기업 취업 고려).
	어머니	• 자녀가 희망하는 진로가 때마다 다르며, 지금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음.		• 자녀가 원하는 진로를 응원하고 지지함. • 부모가 여러 경로를 통해 진로 정보를 확인하면서 자녀의 진로계획 및 준비를 돕고 있음.
청13-중도	청소년	• 태권도와 배구를 하고 있어 막연하게 운동 쪽으로 진로를 생각함.	더욱 확실해지고 구체화된 진로 계획, 부모님의 응원	• 작년에는 애매했지만, 올해는 진로가 확실해짐. 체육학과 진학→생활체육지도사 자격증 취득→운동 코치로 진로계획이 상당히 구체화 됨.
	어머니	• 자녀가 장래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없는 것 같음. 맞는 일을 열심히 하길 희망		•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길을 가라고 독려하면서 부모 모두 자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원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체육대학 진학을 희망함.

2023년에 심리적 위기 징후로 위센터 개입을 받았던 청소년8은 2024년 인터뷰에서 이전에 비해 정서적으로 나아진 모습이 관찰되었으나 진로와 관련한 인식에서의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2023년에 어머니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당시 인터뷰에서 본인도 의사 아니면 네일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고 답변한 바 있었다. 당시 어머니는 인터뷰에서 자녀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였고 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을 계속 강조하였다(동시에 자녀에게는 좋아하는 것을 선택해야지라는 언급도 하였다).[20] 청소년8의 2024년 인터뷰에서 희망 진로로서의 '의사'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적성에 맞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새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의사가 되었으면 한다는 어머니의 기대를 여전히 부담스러워했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전했다. 청소년8의 어머니는 앞서 2023년의 사건과 위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졌고 자녀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로에 대한 생각도 다소 허용적으로 변한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청소년8이 여전히 느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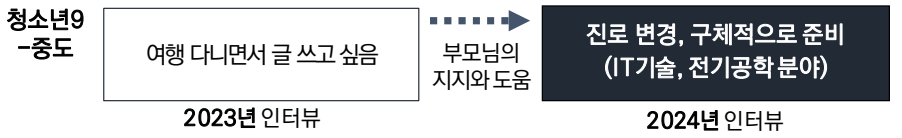
20) 2023년과 2024년 인터뷰에서 청소년8의 어머니가 학업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는 자녀가 의사가 되어야 한다는 목적 외에도, 다문화청소년으로서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하며, 어머니 본인이 학창시절 공부를 잘했으나 대학 진학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도 있었다.

는 부담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생각 전환이 자녀에게 더욱 직접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심리정서적 지원과 진로 지원 역시 필요해 보였다.



2023	2024
면접자 수진 학생은 미래에 뭐가 되고 싶은데요? 청소년 **의사 아니면 네일 아티스트**요. 면접자 의사는 언제부터 꿈꿔 온 장래희망이에요? 청소년 초등학교 때부터요. 면접자 엄마가 공부에 관심이 많으세요? (중략) 청소년 (공부)잘해서 의사되라고. 면접자 혹시 엄마나 아빠가 미래 이거를 하면 좋아, 이거 돼 보지 않겠니? 얘기하신 게 있어요? 청소년 판검사, 의사, 간호사 (청8-국내, 2023)	면접자 그러면 장래 직업? 청소년 **메이크업 아티스트** (부모님은) 무조건 한국에서 의사가 돼라 면접자 부모님이 그런 기대를 하실 때 기분이 어때요? 청소년 부담스러워요 (중략) 면접자 대충 진로 방향을 정했는데 어떤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 있어요? 청소년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하게 해 달라. (청8-국내, 2024)
면접자 어머니는 의사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거고요? 어머니 네, 나중에 뭐되면 좋겠다 하면 의사. **나는 무조건 의사야**. 지가 알아서 내가 노력하는데 안 되면 하지 말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지. 꼭 의사 되는 건 아니고 너가 좋아하는 거 골라야지 (청8-국내-모*, 2023)	면접자 어떻게 성장해서 어떤 어른이 되었으면 하세요? 어머니 **그냥 잘하고 지가 좋은 직업만 가지면 좋겠고, 더 이상 바라는 거는 없어요** 면접자 좋은 직업이… 어머니 지가 고르잖아요. 제가 골라주는 거는 안 되잖아요 지가 좋아하는 거요. (청8-국내-모*, 2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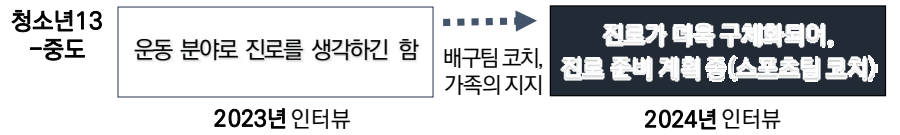
청소년9의 올해 진로계획에 대한 인터뷰 결과, 2023년에 이야기한 것에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9는 2023년 인터뷰에서 장래 직업으로 여행다니면서 글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논술학원을 다녔었고(이사오면서 지금은 중단), 글 쓰는 것을 좋아해서 직업으로 삼고 싶다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중학교 3학년이 된 올해 인터뷰에서는 IT, 전기공학 분야로 이후에 취업과 대학진학까지 염두에 두고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하는 등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다. 청소년9의 어머니는 2023년에는 정확히 자녀의 희망 직업이나 꿈을 알고 있지는 못한 듯 보였으나, 2024년에는 부모 모두 자녀의 진로계획과 준비를 돕기 위해 지원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자녀가 건강한 모습으로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 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2023	2024
면접자 … 장래희망, 미래에 뭐 하고 싶어요? 청소년 **여행 다니면서 글 쓰고 싶어요**. 면접자 유튜브에 나오는 여행 다니는 사람들처럼? 청소년 네 (중략) 면접자 그러면 글 쓰는 거 언제부터 좋아하게 된 거 같아요? 청소년 옛날에(초등학교 3학년) 논술학원 다니면서부터요. (청9-중도, 2023)	면접자 나중에 뭐 하고 싶어요? IT 배워서? 청소년 **전기공학 쪽 (중략) 전기 쪽 일을 배워서** ○○(대기업)이나 이런데 가서 하는 (중략) 면접자 왜 이런 꿈을 갖게 됐을까요? 청소년 관심이 있고 좋아하니까. 면접자 왜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청소년 재미있고 흥미를 느껴서 (청9-중도-2024)
면접자 아드님이 나중에 뭐 하고 싶다고 하나요? 어머니 처음에는 의사 선생님 하고 싶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씩 달라요.** 면접자 달라지고 있어요? 어머니 네. 면접자 지금은 뭐 하고 싶대요? 어머니 **몰라요.** (청9-중도-모*, 2023)	면접자 자녀분이 하고 싶은 거에 초점을 맞춰서 지원을 해 주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머니 … 한국 애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아파서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경일이에게는 **자유**?(중략) 면접자 (어머니 진술 재확인) 아버님께서 정보도 알아보시고 어머님 친구 자녀분이 거기 다니고 있으니까 그 언니에게도 연락을 해서 어떻게 가는지 정보도 얻으시고 (중략) 여러 군데에서 정보를 얻으신 거네요? 어머니 네.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9-중도-모*, 2024)

현재 방학 중 많은 시간을 태권도와 배구를 하며 지내는 청소년13은 2023년 인터뷰에서도 막연하게나마 좋아하는 스포츠 분야로의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다. 올해 면접에서 청소년13는 작년까지는 애매했지만, 이제 진로가 확실해짐에 따라 이를 위한 체육전공으로의 대학진학 계획과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해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에는 배구를 더욱 좋아하게 된 점과 배구클럽팀 코치의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와 조언이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인다. 어머니의 경우 2023년 인터뷰에서는 청소년13이 미래에 대해 아직까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고 보고 있어 실제 청소년의 인터뷰 내용과는 약간의 인식 차이를 나타냈다. 2024년 인터뷰에서는 자녀의 직업이나 대학 전공에 대해 특별한 기대 없이 자녀가 원하는 대로 응원하려고 한다고 했지만, 청소년13의 언니처럼(체육학과 대학생, 관련 자격증 취득한 상태) 청소년13도 체육학과로의 대학 진학을 희망하였다. 그러나, 자녀의 진로에 특별한 기대를 갖기 보다는 자녀가 어릴 때부터 좋아하는 것을

하라고 강조했음을 적극 피력하고 있어, 청소년13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 아낌없이 필요한 지원과 지지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023	2024
면접자 본인의 꿈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소년 **운동을 좋아하고 커서 가르치는 것도** 하고 싶고요. 면접자 구체적으로 생각도 했어요? 청소년 조금? (중략) 면접자 … 내 장래 희망과 연결이 될까요? 청소년 일단 운동 쪽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은 거 같아요. (청13-중도, 2023)	면접자 목표가 체육선생님? 코치? 청소년 (클럽팀) 코치쌤이 나중에 대학교 가서 자격증 따면… 면접자 … 작년에도 이 정도 생각한 거예요? 청소년 **작년에는 애매했어요** (중략) 청소년 그냥 운동만 좋아한다, **딱히 뭐를 할지 몰랐어요. 올해는 좀 정해진 거 같기도 해요.** 면접자 구체적으로? 청소년 네. (청13-중도, 2024)
면접자 수정이가 미래에 뭐가 되고 싶다 엄마에게 얘기한 게 있나요? 어머니 아직까지는 없는 거 같아요 (중략) **생각을 아직까지는 안 하는 거 같고요**…미래까지는 생각하지 못하는 거 같아요… 면접자 수정이가 특별히 무슨 직업을 갖기를 바라는 거는 없고요? 어머니 네. 걔에게 맞는 거를 열심히 하면 좋겠어요. (청13-중도-모*, 2023)	면접자 (수정이의) 어떤 직업, 전공 생각하시는 게 있으세요? 어머니 특별한 그거는 없어요. **애가 원하는 거를 옹호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랑 남편 둘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면접자 이런 쪽을 했으면 좋겠다… 기대하시는 게 있는지? 어머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중략) 자기 책임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로 가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중략) 면접자 언니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어머니 체육학과가면 좋을 거 같아요. (청13-중도-모*, 2024)

자녀를 응원, 지지하는 부모님

2023년과 2024년 인터뷰에 참여한 청소년8, 9, 13의 어머니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자녀의 진로와 관련해서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올해 인터뷰에서 더 이러한 경향을 보였으며, 자녀가 희망하는 직업을 갖는 것 외에 바라는 것이 없다고 하거나 자녀가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찾고 어려움이 없도록 확인하면서 자녀가 좋아하는 길로 가도록 독려하고 있었다. 진로에 대한 자녀의 인식과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으나, 대체로 과도한 기대로 자녀가 진로에 대해 큰 부담을 갖게 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었다.

그냥 잘하고 지가 좋은 직업만 가지면 좋겠고, 더 이상 바라는 거는 없어요. (청8-국내-모*, 2024)

… 한국 애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갑자기 아파서 자기 목숨을 버리잖아요. 경일이에게는 **자유**?(중략) 네. 물어보면 **우리는 항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청9-중도-모*, 2024)

자기가 원하는 대로 (중략) 자기 책임으로 생각해야 하니까 **자기 좋아하는 걸로 가라고 어릴 때부터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청13-중도-모*, 2024)

다. 장래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

한국에서의 진로 계획 중

장래 직업을 가지고 일하면서 살고 싶은 곳, 미래 진로를 정할 나라 등에 대한 질문에서 대부분의 청소년은 한국에서 진로를 계획하고 직업 활동을 할 생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청소년4는 외국인가정의 다문화청소년이었는데, 모국어를 잘하지 못할 뿐 아니라 스스로를 한국인으로 생각하며 성장했다는 인상적인 답변을 하였다. 또 다른 청소년들은 특별한 이유 없이 한국으로 응답하거나, 외국어가 안되고 한국어가 편해서, 한국이 익숙해서 등의 이유를 설명하며 한국에서의 장래 진로를 언급하였다(청소년2, 3, 5, 10, 14).

면접자 부모님이 두 분 다 중국 분이신데 한국의 웹툰 스토리 작가를 꿈꾸는 게 중국에서 활동해 보고 싶다는 생각은 없어요?

청소년 딱히 없어요. **오히려 중국은 안 가고 싶어요. 거기 가서 할 생각은 없어요.**

면접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중국보다 한국이 낫다?

청소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중국말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한국인이라고 생각하고 자랐으니까요.**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한국에서 일할 거 같아요. (청4-외국내)

면접자 그러면 혹시 진로를 생각할 때 한국 외에 어떤 다른 나라에서 이 직업을 실현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 본 적 있나요?

청소년 제가 한국어가 편하니까. 외국에서는 언어가 안 될 것 같아서 한국에서만 (청5-중도)

외국(어머니 나라 포함)에서 진학, 취업 가능

다문화청소년 중 몇몇은 향후 부모님 국가에서의 진학이나 진로를 고려하였다. 청소년6은 어머니 친척 중 외국 기업 취업이나 해당 국가의 명문대 입학 등의 소식을 들으면서 유학을 염두에 두고 언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어머니의 권유가 주된 이유였다. 청소년7은 한국에서의 대학 진학을 고려하고 있지만 진로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아메리칸 드림'을 갖고 모국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고 진술하였다. 청소년15의 경우는 어머니가 자신의 출신국가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권유하였는데, 청소년은 그 이유를 등록금 때문으로 생각하였다. 예외적으로 청소년9는 꼭 한국이나 부모님 출신국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자유롭게 존중받으며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선호하였다.

면접자 그러면 한국이 아닌 다른 곳. 해외 아니면 부모님 출신국에서 진로를 생각한 적도 있으세요?
청소년 저희 엄마가 중국에 있는 사촌분의 아들이 어디 외국 기업에 취업을 했다, ○□대학교 들어갔다고 하니까 저도 중국에서 유학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도 중국어가 배워 놓으면 좋으니까 (중략) **엄마가 말하니까 마음이 혹 해서**. 하면 배우는 것도 많지 않을까. (청6-국내)

면접자 … 부모님 국가에서 진로를 생각하지는 않아요?
청소년 한국에서 대학교까지 다니다가 어쩔 수 없으면 미국을 갈 거 같아요 (중략)
면접자 제2의 기회를 찾아서?
청소년 네. **아메리칸 드림. 잘 안 풀리면 다르게 풀리기는 하겠죠.** (청7-외국외)

면접자 …한국에서 직업을 갖고 싶어요, 아니면 어머니 고향에서 갖고 싶어요. 제3국에서 갖고 싶어요?
청소년 더 잘 돼 있는 나라에서 하고 싶어요. (면접자: 예를 들면) 이 지역에 가서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리스펙해 주는 나라** (청9-중도)

청소년 저는 엄마가 필리핀에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이유는) 등록금이 더… (청15-외국내)

표 Ⅵ-18. 다문화청소년 IDI: 진학·진로_진로결정, 미래에 대한 생각/포부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구체적인 진로계획에서의 차이	구체적인 포부에 따른 진로 계획	• 진학할 고등학교와 희망 직업 준비를 위해 학원, 대학 진학 준비 계획 • 적성을 고려한 직종과 해당 대학 학과 탐색
	진로에 대해 특별한 생각이 없음.	• 그동안의 관심 분야에 흥미가 떨어져서 여러 생각이 많음. • 담임교사의 조언으로 진학할 학교 결정, 특별히 되고 싶은 것은 없음.
더욱 구체화된 진로계획 (2023→2024)	적성과 희망을 고려한 주도적인 진로계획	• 청소년들 스스로 2023년에 비해 적성, 장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진로(직업분야, 직장 등)를 구체적으로 계획 2023: 여러 직종 희망 / 다소 모호한 진로에 대한 생각 / 광범위한 진로분야 고려 ⇨ 2024: 적성을 고려한 희망 직종으로 결정 / 매우 구체적인 분야로 진로 계획 결정 / 구체적인 역할, 직종으로 진로 계획
	자녀를 응원, 지지하는 부모님	• 부모 역시 자신의 생각을 강조하기보다 자녀의 희망 진로를 응원, 지지
장래 진로를 계획하고 있는 국가	한국에서의 진로 계획 중	• 스스로 한국인으로 자랐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진로만 생각함. • 한국이 익숙해서, 또는 외국어를 하지 못해 한국에서의 진로를 계획함.
	외국에서 진학, 취업 가능	• 유학이나 제2외국어 등을 고려해서 어머니 출신국 언어 공부 중 • 대학 이후 친인척이 있는 부모님 나라에 갈 생각도 있음. • 연고 관계없이 존중해주는 국가가 좋음. • 어머니가 출신 국가에서의 대학 진학을 권유함.

③ 영향을 준 사람·사건 등

가. 가족, 지인의 영향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친구, 지인, 그리고 특별한 경험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2는 여러 진로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가까운 친구의 형, 아버지, 그리고 학원의 영향이 관찰되었다. 사람을 경호하는 일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친구의 형이 경호학과 졸업 후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것을 보며 매력을 느꼈기 때문이었고, 공대 분야는 아버지의 영향이었다. 본인이 현재 많은 시간을 쏟고 있고 관심갖고 있는 태권도 선수는 학원의 영향이었으며, 체대에 진학해 유명해지고 싶다고 하였다. 청소년6은 학업에 열심을 보이고 있었는데, 어른들과 친구들의 영향과 함께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이유로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청소년13은 본인도 운동을 좋아하며 재능이 있었다. 또한 배구클럽 코치의 조언도 있었지만, 함께 운동하는 가족의 영향, 특히 체대에 진학한 언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다. 언니와 같은 전공으로 대학에 진학하고, 또 언니가 취득한 체육지도 관련 자격증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었다. 청소년14는 본인이 아직 희망하는 진로는 없었는데, 어머니 인터뷰에서 지역아동센터의 선배 언니와 같이 동물을 치료하는 수의사에 관심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바리스타와 함께). 이 청소년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친구, 선배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진로에 대해서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만난 또래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면접자 공대 아니면 체대 아니면 경호 관련
청소년 네
면접자 경호 관련된 걸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청소년 … 제 **친구의 형**이 대학교를 나왔는데 경호학과 나와서 전문적인 스킬 같은 게 많아서 **거기에서 매력을** 많이 느꼈어요… (중략) 공대 쪽은 **아버지** 쪽. 자동차 산업 그런 데에서 (중략) **체육은 학원 때문에** 그 쪽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체육 학원 가면 체대 가서 유명해지고 싶다는 욕심이 (청2-국내)

면접자 혹시 의학 계열에 관심을 갖게 된 특별한 계기나 영향을 준 사람이 있을까요?
청소년 그냥 **어른들에 의해서**. 의사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좋고 (중략) **친구들도** 많이 가고 싶어하니까 나도 자연스럽게 도전해 보고 싶다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청6-국내)

면접자 어떤 자격증이에요?
청소년 가르치는 자격증이 있어서(생활체육지도사) **언니가 땄는데 저도 따보려고요.** (청13-중도)

면접자 그렇군요. 혹시 강숙희 학생은 나중에 미래 꿈이 뭐래요?
어머니 동물 그거 좋아해요 (중략) 작년에도 그렇고, 왜냐면 **아동센터에서 같이 노는 언니 한 명도 동물 치료하는 쪽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죠? 커피 만드는 거 있잖아요? (청14-외국내)

나. 특별한 경험이 진로에 영향을 줌

과거에 동일한 경험을 했어도 최근에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면서 진로에 영향을 준 사례도 있었다. 기술한 바 있지만, 청소년1은 이전에도 여행을 다니면서 접했을 비행기 승무원이라는 직업이 작년에 더 특별하게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승무원에 대해 유튜브를 찾아보게 되었고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승무원 준비 학원도 다니면서 관련 대학도 진학할 계획을 하게 되었다. 청소년5 역시 과거 동생들을 자주 돌보는 편이었지만 작년에 외가의 훨씬 나이 어린 사촌 동생들과 놀아준 경험이 매우 특별했고 행복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에 기반해서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로 진로를 정하였다. 이 두 청소년은 과거에도 유사한 경험을 했었지만, 중학교 2학년이었던 작년에 더욱 특별하게 생각하게 되었고, 중학교 3학년인 현재 진로에 대해 본격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서 더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와는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청소년15의 희망 진로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와 사회복지사였는데, 그중 사회복지사는 본인이 지원을 받으면서 관심을 갖게 된 것이었다.

면접자 그러면 혹시 승무원이라는 진로를 결정하게 된 계기나 영향을 준 사람이나 일이 있을까요?
청소년 여행을 많이 다니다 보면서 중국하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작년에 한 번에 갔는데 **멋있다 생각을 해서 유튜브로 승무원 하는 일 찾아본 것** 같아요. (청1-외국외)

면접자 그러면 혹시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하게 느껴지세요?
청소년 작년에 베트남 갔다 왔잖아요. 그 때 **사촌동생 놀아줬는데 같이 놀아줬을 때 좋았던 것 같아요.** 사촌동생이 되게 어렸었어요. (중략) 재미있었어요. 그냥 어린 애들 귀여우니까 놀아주고 어리니까 (중략) 제가 애기들하고 노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 찾아봤는데 (청5-중도)

면접자 … 혹시 인테리어 디자이너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나요?
청소년 사회복지사요. (중략) **제가 지원을 받는데 사회복지에 관심이 생겼어요.** (청15-외국내)

표 Ⅵ-19. 다문화청소년 IDI: 진학·진로_영향을 준 사람·사건

범주	의미단위
가족, 지인의 영향	• 멋있어 보이는 친구 형, 지역아동센터의 친한 선배의 영향 • 아버지와 언니 등 가족의 영향으로 진로 계획 •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
특별한 경험이 진로에 영향을 줌.	• 여행 중 승무원을 보며 꿈꾸게 됨. • 어린 사촌들과의 행복한 경험이 장래 유치원 교사 등에 관심을 갖게 함. • 지원을 받으면서 사회복지사에 관심 가짐.

④ 부모의 기대

가. 청소년 본인 희망과는 관계없는 부모의 높은 기대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 중에는 본인의 희망과는 무관한 부모님의 높은 기대로 부담을 느낀 사례들도 관찰되었다. 청소년1은 의사와 교사가 되기 위해 계속 공부하길 바라는 부모님의 기대가 부담스러웠고, 현재 꿈꾸고 있는 승무원 직업에 대해서는 아직 부모님 생각을 모르고 있었다. 학부모 인터뷰에서는 부모 자신들의 생각보다 자녀의 뜻을 존중할 것이라고 진술함에 따라 자녀의 보고와 차이가 있었다. 청소년2는 이력서에 도움이 되는(취업에 유리한) 대학에 진학하길 바라는 어머니가 많이 부담된다고 하였다. 어머니는 청소년2가 생각하는 학교보다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른 곳을 선호했고 결국 심적 부담과 다툼으로 이어졌다. 청소년8의 사례는 앞서 종단분석과 진로관련 내용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의사가 되길 바라는 어머니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했는데, 인터뷰에서 어머니는 자녀가 좋아하는 직업을 가지면 더 이상 바라는 것이 없다고 진술하였다. 청소년1과 청소년8의 사례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부모의 기대를 부담스러워했는데, 학부모 인터뷰에서는 모두 자녀의 생각을 존중할 것으로 이야기함에 따라 상충하는 결과를 보였다.

면접자 부모님은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 **공부를 해서 의사나 교사가 되면 좋겠다고** (중략) 그냥 계속 공부에 흥미도 없고 그렇게 공부를 잘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무조건 공부해라 공부해라 이런 타입이셔서. 너무 기대를 하시는 것 같아요 (중략) **부담되고 짜증나요.** (청1-외국외)
아버지 (진로는) 정현이 마음이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잖아요. **정현이 생각에 따라가는 거죠.** (청1-외국와-부*)

면접자 (부모님이) 어떤 기대를 하고 계세요?
청소년 일단은 **이력서라고 해야되나. 잘 나오는 대학으로 가길 원하고 있어요. 많이 부담이 돼서** (중략) 어머니는 부담돼요 (중략) 제가 고등학교랑 대학교 관한 것부터 어머니한테 말했는데 어머니가 그런데 말고 잘해주는 데로 가라. 보통 그런 데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많이 부담돼서 싸운 적 있어요. (청2-국내)

면접자 … 그러면 부모님은 어떤 일을 희망하세요?
청소년 무조건 한국에서 의사가 돼라. (중략) **부담스러워요.** (청8-국내)
어머니 그냥 잘하고 지가 좋은 직업만 가지면 좋겠고, **더 이상 바라는 거는 없어요.** (청8-국내-모*)

나. 응원, 지지해 주는 부모

자녀에 대한 높은 기대가 아닌, 진로에 대한 계획과 준비를 자녀의 뜻에 맡기고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부모님 사례도 다수 발견되었다. 청소년6은 부모님이 특별한 직업에 대한 기대보다는 열심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라고 응원하며 필요한 학원 지원 등을 해주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9는 자신의 진로계획을 부모님이 지지해주고 있었는데, 알아서 잘할 것이라는 믿음에 더해 어머니도 자녀가 스트레스받지 않도록 하고 싶은 것을 하도록 지지하는 입장이었다. 청소년10의 경우는 청소년이 관심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 어머니가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필요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14의 어머니 인터뷰에서는 자녀가 진로와 관련된 직업체험에서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응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자 … 요즘 부모님과 진로에 관한 대화는 많이 못한다고 했잖아요.
청소년 그냥 **알아서 하라** 이런 느낌 (청4-외국내)

면접자 (진로 계획에 대해) 뭐라고 하세요?
청소년 제가 알아서 하래요(부연: '**알아서 잘 하겠지**').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청9-중도)
어머니 네. **그래서 알아서 해**. 안 돼 이거 해야 돼 이러면 경일이가 스트레스 받을 수 있잖아요…(청9-중도-모*)

면접자 그러면 부모님은 진로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갖고 계세요?
청소년 부모님은 이 직업이 되면 좋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태클은 안 거시고 **너가 열심히 하면 할 수 있는 거. 되고 싶은 거 할 수 있다 응원을 하세요.** (청6-국내)

면접자 간호사 되려면 이런 거 이런 거 지원해 줄게라고 하시거나 지원하고 계신 것. 이런 거 있어요?
청소년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세요.** (청10-국내)

면접자 (진로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과 한 적 있어요?
청소년 네. 한 적 있어요. (중략) 엄마도 좋다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청13-중도)
어머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청13-중도-모*)

면접자 바리스타, 제빵이 강숙희 학생이 하고 싶은 거를 체험할 수 있는 활동이네요?
어머니 (직업 체험활동) 네. 제가 응원할 테니까 지가 좋아하는 거 하려면 **무조건 응원해 줘요.** (청14-외국내-모*)

표 Ⅵ-20. 다문화청소년 IDI: 진학·진로_부모의 기대

범주	의미단위
부모의 지나친 기대	• 의사나 교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부모의 부담스러운 기대 • 이력서 작성에 도움이 되는 대학을 가라는 엄마의 기대→ 심리적 부담→ 갈등 경험 • 포기했음에도 의사가 되라는 기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느껴짐.
응원, 지지해 주는 부모	• '알아서 잘하겠지'하는 느낌 •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응원해 주심. • 특별한 기대 없이 필요한 지원 제공 • 무조건적인 응원, 청소년 자녀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지지

⑤ 진로 준비: 학교/학교외 준비, 어려움, 지원 요구

가. 학교에서의 진로 지원 경험

재밌고 유익했던 진로지원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유형의 진로지원을 받았다. 그 중 진로적성검사에 대해서는 청소년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직업 적성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청소년5, 11), 청소년2는 앉아서 설명을 듣기보다는 직접 체험할 수 있었던 제빵과정을 재미있었던 활동으로 기억하였다. 또 수업시간이나 진로시간에 교사로부터 마이스터고 수업 내용 등 진로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사례도 있었다(청소년9, 15)

면접자 작년에 한 것(직업체험활동) 중에서 기억나는 거 있어요? 좋았던 것.
청소년 좋았던 게 제빵이 제일 재미있었어요. (청2-국내)

면접자 학교에서 이런 수업이나 활동이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네 (중략) 학교 진로 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진로 적성 검사 그**런 걸 했었던 것 같은데 **그거 해서 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서** 그런 설문조사는 재미있는 것 같아요. (청5-중도)

면접자 (진로적성 테스트) 그게 가장 유익하다고 생각이 드셨어요?
청소년 네 (중략) 테스트 결과에서 **어떤 분야가 적성에 맞고 어떤 직업을 하면 좋겠는지** 결과가 나왔던 게 좋았던 거 같아요. (청11-국내)

면접자 마이스터고에 수업 커리큘럼을 본 적 있어요?
청소년 네. 가끔씩 선생님들이 설명해 주셨어요. (청9-중도)

면접자 혹시 이런 진로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얻고 계세요?
청소년 진로시간에 쌤이 알려 주세요. (청15-외국내)

도움이 안 됐고, 기억도 나지 않음

학교에서의 진로 지원에 대해 도움이 되지 않았거나 모르겠다고 답한 사례도 여럿 있었다. 청소년2는 진로상담이나 진로적성검사의 경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지루했지만, 제빵 체험은 직접 활동할 수 있어 재미를 느꼈다고 회고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중학교 시기 청소년에게 직접 체험을 통한 지원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뜻하는 대목으로 생각된다. 청소년4는 전문 직업인들이 학교에 방문하여 강연·강의를 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활동을 경험했는데, 본인이 관심있는 내용이 아니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학교에서의 직업체험과 같은 진로지원에 의무적으로 참여할 뿐, 이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없었다는 보고도 있었다(청소년6). 학교에서의 진로지원과 관련한 이러한 이야기는 다문화청소년뿐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진로지원활동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면접자 진로상담할 때 진로적성검사 하고 했어요?
청소년 했었어요 (중략) **지루했었죠**. 구체적이라서. 신경을 끌 수가 없죠.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니까 (청2-국내)

면접자 어떤 활동을 보통 해요? 올해 받은 거예요?
청소년 되게 예전에 받은 거 같은데 직업 하시는 분들이 와서 해 주시는데 많은 분들이 오시지도 않았고 글 쓰는 주제는 아예 안 오셨고요.
면접자 그래서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청소년 올해 한 번 받고 재작년 1학년에 받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청4-외국내)

면접자 그러면 학교에서 진로 탐색이라든지 진로 상담, 아니면 직업체험 프로그램, 적성 테스트 이런 것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청소년 의무이니까 하기는 하는데. **저도 그냥 조금 쉬는 시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고. 이 직업이 좋은데 이거 나중에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딱히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청6-국내)

면접자 진로 관련 내용을 포함해서 작년, 올해 새롭게 지원을 받고 있는 게 있어요?
청소년 없어요. (청15-외국내)

나. 공적/기관 지원과 사적 지원

공적 진로지원

학교 외의 진로 지원으로 가족센터(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한 입시 지원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청소년5는 아버지가 직접 가족센터의 고등학교 입학설명회에 참가 신청해 주어서 함께 참여했던 경험을 회고하였다. 당시 고등학교 입학(입시) 담당교사를 통해 희망하는 고등학교 지원서 작성과 고등학교 등급제도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는데, 특히 지원서 작성 방법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도 배울 기회가 있었지만 이 설명회를 통해 더 확실히 알 수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번에 **다문화 가족(센터)에서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가서 들어도 아빠가 그냥 일반고 가고 싶어하니까 일반고 해 준다고 했어요 (중략) 그냥 어디 마을회관 같은 데에서 고등학교 입시 관련된 선생님이 오셔서 해 주신 거였는데 (중략) 지망 쓰는 걸 학교에서 해 줬는데 못 알아 들었는데 거기 가서 들으니까 **지원서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제대로 안 것 같아요.** (청5-중도)

부모님을 통한 진로지원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부모들은 자녀의 진로지원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노력하고 있었다. 상술한 청소년5의 가족센터를 통한 고등학교 입시설명회 경험은 아버지가 관심을 갖고 사전 신청한 결과였고, 청소년6은 대학교 영재교육원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어머니가 알아봐 준 덕택이었다(시험을 치르고 참여하게 됨). 청소년7이 진학을 희망하는 대학은 부모님이 재직 중인 국내 유수의 대학교였는데, 부모님의 소개로 청소년이

관심이 있어 하는 학과의 4학년 학생과 인터뷰를 하면서 해당 학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었다. 이 경우는 일반 청소년이 접하기 어려운 채널을 통한 것으로 정보의 질적 수준이 달랐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다. 청소년9의 아버지는 자녀가 IT와 전기분야에 관심을 갖게 된 이후, 엔지니어인 친구를 통해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정보를 자녀에게 전달해 주었다.

청소년 그런데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 것 같아요. **아빠가 신청하셔서…** (청5-중도)

면접자 아까 ○△대학교 영재교육원이라고 했나요?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
청소년 거기는 이제 **엄마가 추천했는데** 시험을 봐서 들어갔어요. (청6-국내)

면접자 이미 학교랑 과도 정한 거네요? (중략) 부모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청소년 지지를 해 주셔서 평소에 (부모님이 재직 중인) □□학과 재학 중인 **4학년 선배님 소개도 시켜 주셔서 짧은 인터뷰를 해 보고 잘 알게 된 거 같아요.** (청7-외국외)

면접자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 누구한테 들었는지 알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에요? (중략)
청소년 아빠 친구 중에도 엔지니어 있어요 (중략) 아빠가 (제가) 관심 있는 거 아니까 **아빠가 그 친구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청9-중도)

다. 혼자서 준비

적극적인 탐색 및 준비

자신이 희망하는 진로와 연관된 일을 혼자서 적극적으로 준비하는 청소년 사례도 관찰되었다. 청소년4는 글 쓰는 것을 좋아해 소설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후 백일장 같은 글쓰기 대회에 모두 참석하려고 계획 중이었다. 청소년4는 학교에서 이러한 글쓰기 대회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직접 찾아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였다. 청소년7은 앞서 부모님의 도움으로 관심있는 대학의 학과 대학생을 만나 진로와 관련된 정보도 얻을 수 있었는데, 본인 스스로도 학교를 통해 홍보, 안내되는 진로 체험활동을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면접자 … 소설도 하고 웹툰 스토리 작가도 하고 싶은데 일반고로 가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청소년 … 일반고 가서 백일장 그런 데 싹 다 돌려 버리려고요.
면접자 특별히 준비하는데 이 부분이 어렵다 하는게 있어요?
청소년 **글쓰기 대회 같은 데는 학교에서 잘 안 해주니까 직접 찾아볼 수밖에 없어서요.** (청4-외국내)

면접자 혹시 전반적인 진로에 관해서 학교에서 활동이나 체험해 본 적 있어요?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베이킹 체험을 했거든요. 맛보기로 해보자 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후략)
면접자 어떻게 가게 되었어요?
청소년 제가 학교 게시판 담당이거든요. 붙이다 재미있어 보여서요. (청7-외국외)

진로 정보 습득 수단

진로와 관련해서 관심있는 대회를 찾아보거나 체험활동을 찾아가는 일부 적극적인 사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청소년은 유튜브나 인터넷, SNS 등을 통해 진로 정보를 찾고 있었다. 이러한 유튜브, SNS는 대체로 보조적인 수단이었지만, 청소년에 따라 진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유일한 출처가 되기도 하였다. 청소년5는 학교에서의 교과 시간이나 책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인터넷이 주요 수단이었다. 다른 청소년들도 유튜브의 정보를 신뢰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유튜브와 인터넷 등에서의 정보가 어느 정도 청소년들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관련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진로·진학 정보를 제공해 주는 방식(플랫폼이나 채널 등)에 청소년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정확한 진로정보를 손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접자 이런 진로 준비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정보는 주로 어떻게 어디에서 얻고 계신 편이세요?
청소년 **유튜브나 인스타에서 보면** (중략) 승무원 조사 했었는데 그때도 인터넷에서 찾고 했어요. (청1-외국외)

청소년 진로시간이 있으면 거기에서도 얻고 중1 때에는 진로 탐색하는 게 많아서 몇 번 도서실 가서 책으로 찾아본 적 있고 요즘에는 책으로 안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청5-중도)

청소년 요즘 **유튜브가 발달했으니까**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올리는 고등학교 정보, 대입 정보. 이런 것 뜨면 혹시 모르니까 눌러는 봐요. (청6-국내)

청소년 학원 많이 다니는 친구들이 얘기를 해줘서 그런 거를 알고 인터넷으로도 찾아 보고요. (청11-국내)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시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구체적인 정보를 찾게 됨에 따라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정확한 진로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주배경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정보에 취약하며, 또 진학·진로 관련 정보는 매우 복잡한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여건에서, 청소년1의 학부모 인터뷰는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로,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은 스스로 진학·진로 관련 정보를 챙겨야 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청소년1은 위에서 유튜브를 통해 정보를 찾고 있다고 하였음). 다문화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검증된, 그리고 접근이 용이한 진로정보 제공 방식에 대한 관심이 더욱 필요한 대목이다.

면접자 입시 정보 같은 것도 필요하잖아요 (중략) 그런 정보나 정현이에게 어떤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 더 유리하고 이런 정보들은 얻고 계실까요?
아버지 **정현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면접자 그러면 정현이가 알아서 챙겨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아버지: 네) 부모님께서는 정현이가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진학하고…
아버지 우리 생각하는 거는 정현이 대학교 필요하고 **우리는 신경 못 써요** (후략) (청1-외국외-부*)

라. 다양한 진로지원 요구

다양한 진로지원 활동 필요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지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체험과 활동 등을 필요로 하였다. 청소년5는 진로, 직업 체험을 위한 수요 조사 후 진로체험활동(키자니아 같은)을 한다면 이후 진로 선택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했고, 한편으로는 본인의 진로와 관련하여 유치원을 직접 방문하여 견학하기를 희망했다. 미래 직업으로 꿈꾸는 승무원이나 메이크업 아티스트와 같은 직업 체험을 직접 해 보거나 견학을 희망하는 청소년들도 있었다(청소년1, 청소년8). 청소년7은 전문가를 통해 매우 구체적인 진로설정, 목표, 그리고 준비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미래 전망을 고려한 AI관련 직업 등에 대한 설명회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청소년15는 진로결정을 위한 진로상담과 희망하는 직업을 얻기 위한 구체적인 안내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진로 조사나 작성 그런 것도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진로 체험도 하면 진로 선택에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중략) 제가 관심이 가는 건 유치원 교사나 어린이집 교사이니까 **그 일을 하고 계시는 분한테 물어보거나** 그러면 좋은데 (중략) 유치원, 어린이집 거기를 **직접 가서 해 본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청5-중도)

유명한 분들이나 전문가분들을 불러서 (중략) **여기를 거쳐서 이런 쪽으로 가야 된다, 목표는 어느 정도 잡아야** 되고 이만큼 벌고 싶으면 저기를 가고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중략) 선생님 같은 직업이나 **앞으로 생겨날 AI 관련 직업**이나 이런 거를 많이 데려왔으면 좋겠어요. (청7-외국외)

면접자 어떤 도움이 있으면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세요?
청소년 **진로상담**? (중략)
면접자 … 본인의 꿈과 목표실현을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청소년 **제가 원하는 직업을 얻기 위해서 방법** 같은 거? (청15-외국내)

진로 정보로부터의 고립 방지

인터뷰 결과, 다문화청소년들은 스스로 진로정보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 유튜브나 인터넷에 많이 의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인터뷰에서는 진로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에서의 어려움과 개선에 대한 요구들이 관찰되었다. 청소년

11은 학원에서 진학에 유리한 여러 실질적인 정보 등을 제공하지만, 학원이 아니라면 이러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아쉬워했다. 청소년13의 어머니는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의 경우 진학정보 수집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올해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13이 셋째 자녀였는데, 첫째와 둘째 자녀 때는 어머니 본인도 진로 정보를 알 수 없었고 자녀들도 친구들을 통해서 필요한 진로 정보를 얻었다고 회고하였다. 아울러 다문화청소년뿐 아니라 학부모가 이러한 정보로부터 '고립'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을 토로하면서, 학교에서 한국인 아버지에게 연락을 하지만(원활한 한국어 소통이 이유로 추정), 정작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어머니에게 중요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14의 어머니도 진로 정보 출처를 잘 모른다고 답변하였는데, 부모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정보 접근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면접자 진로준비 관련해서 부족함 같은 거? 다른 데서 도움을 얻거나 채워졌으면 하는 게 있어요?
청소년 **저는 학원을 안 다녀서 고등학교나 이런 정보가 애들보다 부족한 거 같아서** (중략) 학원 다니는 애들은 선생님들이 어떤 학교는 생기부를 잘 써 주고, 이런 거를 저는 잘 몰라서요. (청11-국내)

면접자 아이들이 정보를 모르는 상태에서 엄마도 본인이 알아보지 않으면 모르는?
어머니 네. 나는 그래도 다른 엄마들과 관계가 있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장 엄마들이나 **다문화 엄마들은 고립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보 자체를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중략) 남편 연락처만 학교에 알려지고 남편에게 연락이 가는데 일하기 바쁜데 … 엄마에게 전달하는 경우가 거의 없게 되고 엄마는 애를 보고 있는데 되게 악순환 같아요. (청13-중도-모*)

면접자 이런 진로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주로 얻으세요?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면접자 어머니는 따로 정보를 얻거나 그런 거는 아니시고요?
어머니 잘 모르겠어요. (청14-외국내-모*)

경제적 지원 필요

연구에 참여한 일부 다문화청소년은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청소년2는 본인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진 장래 직업으로 운동선수를 꼽았는데, 스포츠 장비와 대회 참여 시 비용이 부담된다고 토로하였다. 청소년15는 진로 준비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을 경제적 부분으로 답했는데, 특히 대학 진학을 위한 등록금 등의 학비에 대해 중학생인 지금부터 걱정을 하고 있었다. 같은 맥락에서 이 청소년은 어머니가 본인 출신 국가로의 대학 진학을 권유한 이유를 등록금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면접자 진로하고 관련해서 어떤 도움이나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든지?
청소년 저는 스포츠류이니까 스포츠류에 맞는 장비를 지원해 주면 좋겠어요. 장비가 없다 보면
면접자 대회 나가는 비용은 어떻게 해요?

청소년 참가비가 대체적으로 최소 5만원에서 최대 18만원, 20만원 (중략) 각자 부담이에요 (중략)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죠. (청2-국내)

면접자 혹시 진로에 대해서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어려움이 있으셨던 거는 어떤 건가요?
청소년 돈이요.
면접자 경제적인 부분이요? (중략) 어떤 부분 때문에 돈이라고 얘기하신 건가요?
청소년 대학교 진학할 때… (청15-외국내)

표 Ⅵ-21. 다문화청소년 IDI: 진학·진로_진로준비 사항과 지원 요구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학교에서의 진로 지원 경험	재밌고 유익했던 진로지원	• 재미있었던 체험활동 • 진로적성검사가 도움이 되었음. • 진로교과시간에 제공된 유익한 진학 정보(특성화고 진학, 커리큘럼 정보)
	도움이 안됐고, 기억도 나지 않음.	• 설명만 하고 관심 없어서 지루했음. • 직업인 방문 강의가 있었으나 도움이 되지 않음. • 진로교과 시간은 쉬는 시간이었고,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음. • 새롭게 지원받은 내용은 없음.
공적/기관 지원과 사적 지원	공적 진로지원	• 다문화가족센터의 입시설명회를 통해 도움받음(고등학교 지원서 작성).
	부모님을 통한 진로지원	• 어머니의 안내로 대학교 영재교육원에서 진로컨설팅 경험 • 부모님의 소개로 관심 학과 대학생을 만남(부모님이 해당 대학 교수). • 아버지 친구인 엔지니어를 통해 해당 직종 관련 정보 습득
혼자서 준비	적극적인 탐색 및 준비	• 학교에서 알아봐 주지 않아서(글쓰기 대회) 직접 찾아볼 수밖에 없음. • 관심 있는 체험활동에 직접 신청함.
	진로정보 습득 수단	• 유튜브, 인터넷, SNS를 통해 진로정보 탐색 • 청소년이 스스로 진학정보를 찾아봐야 함.
다양한 진로 지원 요구	다양한 진로지원 활동 필요	• 학업지원이 먼저 필요 • 진로체험활동 요구 • 진로상담과 희망하는 직업 준비, 취업 방법 필요 • 희망하는 직업 종사자, 전문 직업인 초청 강의 등 요구
	진로 정보로부터의 고립 방지	• 학원을 안 다니면 진로정보에서 뒤쳐짐. • 학교에서의 진로진학정보 제공이 더욱 필요 • 이주배경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진학 정보에 '고립'되지 않도록 정보 제공 필요(진로 정보 출처를 모름)
	경제적 지원 필요	• 스포츠 장비 구입, 대회 참가비 등 지원 • 경제적 지원(대학 등록금)

(5) 지역사회 인식과 정책지원 요구

①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

가. 동네에 만족하지만 아쉽기도 함

주변이 친절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하지만, 아쉬움도 있음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현재 지내고 있는 지역, 동네에 만족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청소년5는 사람들이 모두 친절하며 불편하지 않다고 하였고, 청소년15는 살고 있는 동네에 만족하며, 인사하며 지내는 이웃이 좋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청소년9는 대기가 깨끗하고 조용하다는 이유로, 어머니는 대중교통과 편의시설을 이용하기에 편리하다고 하였고 살고 있는 동네에 대해 10점 만점에 9점을 부여하였다.

일부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아쉬운 점을 언급한 사례도 있었다. 청소년6은 초등학교 시절과 달리 중학교에 진학한 이후 동네와 학교에 '불량 학생'이 있어 거부감이 들었으나 이제는 수용, 이해하려고 하고 있었다. 청소년14의 어머니는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출산장려금과 같은 지원금이 다소 낮아 이러한 정부 지원의 지역 간 차이를 아쉬워하였다.

면접자 그러면 혹시 현재 살고 있는 동네나 이웃들 환경에 대해서는 만족하는 편이세요?
청소년 네 (중략) 주위 사람들도 다 친절하시기도 해서 따로 불편하게 느끼는 건 없어요. (청5-중도)
청소년 이웃이 좋아요 (중략) 만나면 인사해요. (청15-외국내)
어머니 그냥 9점? (중략) 우리 동네는 조금 시골이지만 편해요. 버스 안 타고 싶으면 그냥 기차 타도 되고요. 시장 가고 싶으면 바로 시장 있고요. (중략) (아들도) 좋대요. 공기가 너무 좋고 시끄럽지 않아요. (청9-중도-모*)
청소년 여기에 대해서 만족해요 (중략) 중학생 되고 여기 와 보니까 불량학생도 있고 저한테 피해는 없는데 그래도 환경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아무래도 처음 보고 낯서니까 그 때에는 거부감이 드는데 지금은 그런 사람도 있다 이해하려고 그래요. (청6-국내)
어머니 8점? (중략) 다른 구에는 보태주는 거 있고 애 낳으면 축하금 같은 거 높은데 ○□구는 그런 게 많이 없어요. 좀 낮은 느낌이 들어요. (청14-외국내-모*)

친구들과 놀며 시간 보낼 장소 부재, 지역간 차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의 만족 여부와 아쉬운 점에 대한 질문에서 청소년들은 대부분 지역사회 환경에 만족했지만, 친구들과 놀거나 즐길 장소가 없는 것에 대해 여럿이 언급하였다. 보드게임 카페나 방 탈출과 같은 놀거리뿐 아니라 스케이트보드 등 스포츠를 즐기기에는 지역사회에 관련 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2는 거주 지역에 스포츠 활동을 포함하여 친구들과 놀 장소가 없어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고

하였다. 청소년9도 놀 곳이 없고, 청소년이용시설이 있지만 부족하며 이용이 불편함을 언급하였다. 청소년9는 스케이트 보드를 타기 위해 아버지가 다른 지역으로 데려다주어야 했는데, 어머니 인터뷰에서 이에 대한 내용과 함께 청소년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편의시설이 꼭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면접자 지금 살고 있는 동네는 만족해요? 환경 부분에 대해서.
청소년 저희 동네는 너무 환경은 만족하는데 0-10으로 치면 7-8. 6-7. 왜냐하면 **놀 데가 없어요**. 놀 수 있는 곳이 적어요 (중략) 스포츠. 피씨방. 노래방 그런 데가 많이 없다고 생각해서 다른 동네 가서 놀기도 해요 (중략) 청소년 친구들하고 **어디에서 놀지 생각하다가 친구가 생각한 곳이 운동장이라서…** (청2-국내)

면접자 내가 살고 있는 동네는 만족스러운가요? (중략)
청소년 7점 (중략) **놀 곳이 너무 없어서**. 놀려면 □▽이나 ○□로 가야 돼서 (중략)
면접자 청소년센터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학원, 수학학원 외에는 이용해 본 적 없는 거죠?
청소년 … 한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도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중략) **즐길 수 있는 게 부족하고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용하기도 편하지 않고** (청9-중도)

어머니 만약에 경일이 같은 경우 **스케이트보드를 타는데 다른 데로 가야 돼요**. (중략) ▽○(지역)도 가도 되고 아니면 □△(지역) 가도 되고 하지만 만약에 그게 있으면 좋겠다, 경일이 생각이에요.
면접자 지역사회 체육 같은 거, 다문화청소년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편하게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건가요?
어머니 네. 아이들은 항상 시간 있을 때마다 스포츠만 하고 있기때문에 내 생각에는 꼭 필요해요. (청9-중도-모*)

면접자 현재 살고 있는 동네는 0-10점 중에 몇 점 줄 수 있으세요?
청소년 6점 (이유는?) 주변에서 놀 게 없어요 … 먹을 데도 없고 항상 놀면 시내 가서 놀아야 돼서 (청10-국내)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 다수는 아직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나 환경에 대해 특별한 의견이 없었고,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상술한 사례의 청소년들의 거주 지역은 모두 비수도권 지역이었고, 이와 달리 특별히 지역사회 환경 등에 있어서 어려운 점이 없거나 PC방, 보드게임방과 같이 즐길 거리가 많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은 대체로 서울 지역의 청소년들이었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2는 비수도권 지역이 덜 발달하였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를 활동할 곳이 별로 없기 때문으로 생각했다. 특히 본인의 수도권 방문 경험에 기초해 실내 스포츠센터와 같은 곳에서 그 차이를 느낀다고 보고하였다. 이 청소년은 친구들과 놀거나 운동할 때 고민하다 간 곳이 학교 운동장이어서 이러한 차이를 더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 수도권의 경우에는 많이 발전돼 있어요. 그 외 지역은 발달이 조금 덜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면접자 어떤 면에서? 본인 생활이나 본인 관련해서 느낀 적 있어요?
청소년 네. 일단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활동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는 제가 가 봤거든요. 많아요** (중략) 대표적으로 배드민턴. 체육센터 같은 (청2-국내)

나. 다양한 공공시설·기관의 지원

사회복지관에서의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지원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센터, 가족센터와 같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1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매달 한 번씩 사회복지관을 통해 또래들과 함께 진로설명회와 직업체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있었다.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놀이공원과 같은 곳도 방문할 수 있어 만족스러워했다.

> 면접자 학교 외에 다른 장소, 기관에서 이런 진로하고 관련된 어떤 준비나 프로그램 같은 것을 한 적 있나요?
> 청소년 네.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동 **사회복지관에서** 저랑 동갑인 애들 9명 정도 다른 학교 애들 해서 **직업체험도 하고** 그랬었어요 (중략) 그냥 진로에 대해서 배우고 설명을 듣고 또 그냥 원하는 체험을 애들끼리 그 선생님이 **애들이 하고 싶은 체험을 말을 하면 다수결로 정해서** (청1-외국외)

방과후 돌봄시설에서의 긍정적 경험

청소년6은 초등학교 시절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면서 또래 관계를 통해 배려하는 방법을 포함한 대인관계 기술 등을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었다고 회고하였다. 그러나, 중학생이 되면서부터는 학업 등의 이유로 지역아동센터에 다니지 않고 있었다. 청소년14는 현재에도 지역아동센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이곳에서 오랜 기간 같이 성장한 친구들을 가장 편하게 생각했으며 고민이 있을 때 상담해 주는 선배들도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인연이었다. 또 해당 센터에서 진로와 관련된 상담과 장학금과 같은 지원도 받았으며, 센터의 추천으로 인근의 영어학원도 다니고 있었다. 청소년14의 인터뷰에서 지역아동센터는 또래 친구들, 선배들과의 관계, 그리고 영어학원과 같은 지원 등 이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8은 중학교 1학년 때만 해도 자주 방문하던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초등학생을 돕는 봉사 내용) 이제 귀찮고 학원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지 않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런 기관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대신 이용 신청하기도 했다. 청소년8이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 가지 않는 또 다른 이유로 처음에는 그곳에서의 활동이 도움이 되었고 재밌었지만, 친구들이 달라진 탓도 있는 것으로 진술하였다.

(지역아동센터에서의 도움이) 잘 됐죠. **친구들 사이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 같이 하면서 서로 어떻게 해야 **배려를 하는 방법, 인간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내가 존중받을 수 있다**. 이런 것도 알고. 자연스럽게 얻은 것 같아요. (청6-국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도 가끔씩 **(상담)해 주세요.** (중략) **예전에 장학금** 같은 것(도 지원받았었어요)(중략) 아동센터에서 애들이 그쪽에(영어학원에) 많이 다녀서 추천해서 테스트받고 그래서 (청14-외국내)

청소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를) 갔는데 1학년 때 봉사를 하는데 아카데미 애들 저녁까지 주니까 밥 주는 거 도와주고 청소하는 거 봐주는 건데 1학년 때는 엄청 많이 갔는데 2학년 때 한 번 가고 이번에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중략) 친구들이 생기고 재미있기는 했는데 너무 많이 가니까 이제는, **제가 아는 애들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은 좀 가는 게 별로예요** (중략) 귀찮기도 하고 학원 때문에 시간도 안 맞고요. (청8-국내)

어머니 네. 청소년센터 가서 친구들 사귀는 거. 거기 가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후략) (청8-국내-모*)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청소년센터의 지원

앞서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내용에서 청소년9의 어머니는 자녀가 6~7세 시기 한국에 입국한 후 가족센터에서 함께 한국어 수업을 수강한 경험이 있었다. 또 청소년9는 학교수업 진도를 따라가는데 있어 별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다고 함에 따라 이때의 한국어 교습 지원이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가족센터의 프로그램은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금은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청소년11은 가족센터에서의 영화, 뮤지컬과 같은 문화활동 참여 경험이 생소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면접자 다문화가족센터는 언제 이용해 보셨어요?
어머니 한국에 도착? 우리 한국 왔을 때 **다문화센터에서 한국어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경일이는 저처럼 한국말을 못하니까 경일이도 신청을 했고 선생님에게 받았어요.
면접자 중학생 때 다닌 거는 아니네요?
어머니 네.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 동네 다문화가족센터는 프로그램이 초등학생까지만 있기때문에 그래서 경일이는 다문화센터 다니는 거는 없습니다. (청9-중도-모*)

면접자 그러면 혹시 다문화가족센터에서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을 참여하거나 지원을 받는 경우가 있나요?
청소년 진로는 아니고 영화나 뮤지컬은 몇 번 있었던 거 같아요. (중략)
면접자 그런 경험은 어땠어요?
청소년 생소했던 거 같아요. (청11-국내)

이외에도, 초등학교 시절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에서 수영이나 도예 등을 배운 경험이 있었으나 코로나19 시기 해당 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게 되었고, 이후에는 중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진 사례도 있었다(청소년13). 이처럼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초등학교 시절에는 지역사회 내 여러 공공시설과 기관을 이용하며 다양한 체험활동

을 경험하였으며, 아울러 사회적 관계도 형성하였다. 그러나,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학업과 친구 관계 등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공공의 지원에서는 대부분 멀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Ⅵ-22. 다문화청소년 IDI: 지역사회 인식과 정책 요구_지역사회 경험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동네에 만족하지만 아쉽기도 함.	주변이 친절하고 생활하기에 편리하지만, 아쉬움도 있음.	• 전반적으로 만족함, 주변 모두 친절하고 좋음. • 시골이지만 대중교통이나 편의시설이 잘 되어 있음. • 살고 있는 지역, 학교에 '불량학생'이 있어 거부감 • 자치구별 지원금 차이가 있음.
	놀며 시간 보낼 장소 부재, 지역 간 차이	• 놀고 운동할 곳이 없고 수도권과 차이도 많이 남. • 친구들과 놀 장소가 없음, 시설도 부족하고 이용이 불편
다양한 공공시설 · 기관의 지원	사회복지관에서의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지원	•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진로관련 체험활동 경험
	방과후 돌봄시설에서의 긍정적 경험	• 지역아동센터에서 친구, 선배들과 좋은 관계 유지 •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에서의 운동, 취미생활 경험
	다문화가족센터(가족센터), 청소센터의 지원	• 다문화가족센터에서의 한국어학습 지원 도움, 문화 체험 경험 • 청소년수련관에서 수영, 도예 등 배움.

② 정책지원 요구

가. 다양한 지원 필요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 필요

청소년9와 어머니 인터뷰 내용을 통해 가족센터에서의 한국어 지원이 중도입국 가정의 다문화청소년에게 한국어 숙달 및 이후 학교적응에 미친 긍정적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머니 인터뷰에서 청소년9가 중학생이 된 이후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이 없어 더 이상 참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9의 어머니는 청소년들이 바쁜 이유도 있지만, 다문화센터(가족센터)에 스트레스가 많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프로그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으며 참여할 의사를 밝히기도 하였다. 가족센터가 다문화가족과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인 개입이 가능한 기관임을 고려할 때, 초등학생뿐 아니라 중고등학생 시기 다문화청소년에 초점을 둔, 그리고 이들의 참여가 용이한 접근성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면접자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지만 이거는 이야기하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세요?
어머니 **우리 동네 다문화센터에 중학생이나 아니면 고등학생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이들은 너무 바쁘니까 프로그램에 잘 안 나와요. 만약에 프로그램 한두 번 참석할 수 있으면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기 때문에 중학생, 고등학생 프로그램 있으면 꼭 갈 거 같아요** (중략) 네. 상담도 있고요. 경일이나 다른 친구들도 부모님께서 친한 사이도 있지만 가끔씩 다른 말을 못하잖아요. 만약에 상담이 있으면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면접자 상담 프로그램이 있으면 장경일 학생도 그렇지만 어머님도 이용하실 생각이 있으세요?
어머니 네. (청9-중도-모*)

사회적 관계 구축·교류 지원

청소년9의 어머니가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중·고등학생 대상의 가족센터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면, 청소년13의 어머니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다문화배경의 공감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관계를 만들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청소년13은 앞서 본인과 같은 이중언어 사용 학생을 우연히 만나 가장 친한 친구가 된 사례였는데, 같은 맥락에서 청소년13의 어머니는 본인의 자녀들이 다문화배경의 친구들과 어릴 때부터 현재까지 친하게 지내는 것을 지켜보면서 다문화배경의 청소년들이 만나서 교류하는 기회를 얻게 된다면 심리적인 안정도 함께 갖게 될 것으로 생각하였다.

최근에 막내(청소년13)가 가장 친한 친구의 엄마가 일본 사람이잖아요 (중략) 차이가 있다고 느꼈을 때 같은 편이 되는 애가 다문화가정 애가 많은 거 같아요 (중략) 애들은 여기 있어서 어색하다고 느낄 때가 있을 거 같아요. 그럴 때 이해해 주는 친구가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애들을 보면 그런 거 같고요. **다문화가정 애들로 모임 그런 게 있으면**… (청13-중도-모*)

청소년13의 어머니는 다문화청소년들이 비다문화청소년들과는 다른 문화적인 차이를 느끼는 어색한 상황에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해 줌으로써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다문화배경의 청소년들의 모임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당수 다문화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또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다문화배경의 청소년들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한편으로 청소년13 어머니의 이러한 제안은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구조화된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심리정서적 안정뿐 아니라 향후 사회적 관계가 더욱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각적인 지원 요구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인터뷰를 통해 학업지원과 경제적 지원, 그리고 교육, 상담 등을 포함한 복합적인 지원들에 대한 필요들이 파악되었다. 청소년14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지원이 부족함을 지적하면서, 학업 진도를 따라가기 힘들어하는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였다. 청소년10은 다문화배경, 그중에서도 외국에서 이주한 경우 취업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고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으로도 경제적 지원, 특히 학원비 지원을 언급하면서, 도서 구매 및 영화 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기초생활수급, 차상위 대상)를 예시로 들기도 했다. 또 청소년8, 9, 14의 어머니 인터뷰에서는 자녀들을 위한 학습지원, 교육지원에 더해, 면접자가 예시로 든 상담이나 또래 관계 프로그램, 멘토링 등 복합적인 다양한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하였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다문화가정을 지원해 주면 좋을 거 같아요. 저희 가족 같은 경우는 잘하지만 적응을 못하시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면 좋지 않을까 (청4-외국내)

청소년 약간 다문화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이나 다자녀. 그런 가정에 혜택 같은 걸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어(중략) 일단은 다문화가정은 외국에서 왔으니까 직장 찾기가 한국인보다 어렵잖아요. (중략)
면접자 어떤 면에서 돈이 지원되면 좋겠어요?
청소년 약간 학원비 지원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고. 문화휴식카드(문화누리카드)를 주잖아요. 책도 살 수 있고 영화도 볼 수 있고 되게 좋거든요. 앞으로도 약간 그런 카드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청10-국내)

청소년 학교에서 지원을. 다른 학교는 모르겠는데 저희 학교는 다문화에서 지원해 주는 게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면… 다문화 애들이 학업을 못 따라올 수 있잖아요. (청14-외국내)
어머니 숙희를 도와주는… 장학금하고 체험학습? (청14-외국내-모*)

면접자 … 이런 부분에서 지원이 더 필요했다고 느껴지시는 부분이 있었나요?
청소년 경제적인 거? (청15-외국내)

나. 청소년 문화/여가생활 확대

앞서 지역사회 내 아쉬운 점 등에 대한 인터뷰에서 청소년들은 놀 곳이나 운동할 곳이 없다는 점을 언급하였는데, 몇몇 청소년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이나 활동, 지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청소년9는 다른 지역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즐기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본인의 거주지역에서도 이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의 확대를 바라고 있었으며, 이에 더해 풋살장 등도 희망하였다. 청소년13도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 장소

등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많아지길 희망하였는데, 앞서 친구들과 놀 장소가 부족하다는 다른 청소년들의 지적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내용은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한 지원 요구는 아니지만, 이들이 우리 사회 일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간 차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인프라 확대뿐 아니라 단순히 보드게임을 위한 장소 확대가 아닌 청소년들이 편히 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장소와 이에 대한 접근성 확대의 필요성도 시사하고 있다.

면접자 그러면 이런 거 지원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청소년 제 취미 중에 스케이트보드 탄다고 했잖아요. 탈 데가 너무 없어서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중략)
면접자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은 어떤 게 있을까요?
청소년 풋살장이나 더울 때 있으면. 시내 풋살장이나 닌텐도 비슷한 게 있으면 좋겠어요. (청9-중도)

다. 차별 금지 방안 필요

이번 연구에 참여한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1과 4는 학교에서의 출석부, 반 배정 명단 등에 이름이 영어로 기재되면서 다문화배경이 노출되었고, 이를 빌미로 괴롭힘과 놀림을 경험한 사례였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차차 외국인임을 알게 될 수도 있는 일이어서 출석부에 영어로 이름이 기재된 것 자체가 문제의 시작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청소년4가 목소리를 높인 것처럼 학기 초에 다른 학생들이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있는 출석부와 같은 기록이나 자료 들에서는 적어도 비다문화학생과 마찬가지로 한국어로 이름을 기재하거나, 처음부터 청소년들의 개인정보에 학생들이 접근하지 않도록 보안에 더욱 주의하는 등 다문화청소년 입장에서 더욱 섬세하고 배려하는 학교에서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청소년4는 명찰에 한국어로 이름이 기재되도록 교사에게 요청한 경험도 있었다.

면접자 오랜 시간 동안 인터뷰 참여해 주셔서 고마워요. 마지막으로 추가로 말하고 싶다는 게 있어요?
청소년 (출석부에) 애초에 영어이름으로 등록을 할 거면 주민등록증부터 한국이름으로 바꾸든가 아니면 주민등록증은 영어로 해 두는데 차라리 학생기록부나 출석부를 아예 다 한국어로 바꿔 버려라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른 애, **외국인 걔도 출석부로 뭐라 하는 애들이 한두 명 있었고** (중략) 애들이 **자기가 외국국적을 갖고 있다는 거를 밝히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중국이라서 잘 안 꺼내는 편이고 (중략) **애들이 놀려서 화를 낸 적도 있어서** 그것만 좀 개선해 달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면접자 출석부도 학생들이 봐요? 선생님만 보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 애들도 봐요. 못 보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애들이 들춰서 보더라고요 (중략) 처음에는 명찰 안 해 주셔서 중학교 때는 명찰이 나오는 거를 알게 되니까 **혹시 명찰이 나오게 되면 한국이름으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중략)

면접자 그거 외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거 있어요?
청소년 애들에게서 **외국인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차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 (중략) 교육을 해 주거나 국적을 꽁꽁 숨겨 주든가요. 교육을 하거나 숨겨 주거나.
면접자 학교에서 그런 교육 따로 안 해요? (중략)
청소년 … 외국국적 애들을 차별하지 말라는 교육은 받아 본 적 없어요. 그 부분만 어떻게 해 달라. (청4-외국내)

어머니들 인터뷰에서도(청소년8, 청소년9의 어머니) 자녀들이 다문화배경을 이유로 학교에서 집단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게 될 것을 걱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문제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별 금지에 대한 노력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청소년4는 학교에서 이러한 차별금지 교육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 부분의 개선도 필요함을 강조하였다.[21] 이에 대해서는 학교마다의 교육 내용과 학생들의 체감 정도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학교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다문화교육에 대한 교육 당국과 현장의 고민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라. 다문화가정·청소년 대상 정책 홍보

다문화청소년과 어머니 인터뷰를 통해, 홍보 부족을 이유로 다문화가족과 청소년을 위한 정책적인 지원을 제때 제공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청소년7은 현재 많은 정책이 있어도 홍보가 안 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청소년8의 어머니는 자녀를 위한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앞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여러 지원을 제안했던 청소년13의 어머니도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들이 직장생활이나 바쁜 일로 일일이 관련 지원 정책을 찾아볼 수 없어 다양한 지원 혜택을 알지 못하는 사례가 많을 것으로 생각했고, 그래도 학교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 최선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지적 사항들은 다문화가정과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책 개발뿐 아니라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매우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지원정책에 대한 홍보는 학교에서 일차적으로 강조되어야 하지만, 학교에 다니지 않는 청소년과 지역사회 일반의 인식 제고를 위해서도 지역사회와 지자체 차원, 그리고 국가 차원의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수행될 필요가 있다.

21) 청소년9의 어머니는 다문화가정을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할 것을 항상 걱정했지만, 학교 교사와의 소통을 통해, 그리고 학교에서의 다문화관련 교육(세계문화수업) 덕분에 그러한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정책이 많은 거 같기는 한데 홍보를 너무 적게 하는 거 같아서 **홍보만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청7-외국외)

지원 같은 거는, 하여튼 여태까지 지원 같은 거 많이 못 받았어요. **무슨 지원 받는지 모르니까요.** (청8-국내-모*)

직장 엄마들도 그렇고 그런 거 알아서 찾아보고 하는 엄마들은 거의 없잖아요. 바빠서 시간도 없는데요. 그런 것도 그렇고요. 다문화라고 하면 얼마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몇 %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문화 혜택이 있다는 거 자체를 모르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런 것도 어렵고 하니까 **학교 쪽에 정보가 가서** 학교에서 부모나 자식에게 가는 거? 그게 정확하지 않을까요? 학교에서 오는 거는 엄마들도 신경을 쓰니까요. 수련센터에서 알아보거나 다문화센터 갈 시간도 없으니까요. 그리고 거의 **고립되는 엄마들도 있잖아요.** (청13-중도-모*)

표 Ⅵ-23. 다문화청소년 IDI: 지역사회 인식과 정책 요구_정책지원 요구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다양한 지원 필요	중고생 대상 프로그램 필요	• 초등학생만이 아닌 중·고등학생을 위해 가족센터(다문화가족센터)의 프로그램 필요
	사회적 관계 구축교류	• 다문화청소년들의 상호이해 및 교류를 위한 기회 필요
	다양한 지원 요구	• 학업을 포함한 교육 지원, 경제적 지원, 상담, 멘토링, 장학금, 진로체험 활동 등 다양한 지원 요구
청소년 문화/여가생활 등 확대		• 스케이트보드장 등 스포츠시설 확대 • 학원비와 문화생활 지원 • 보드게임, 노래방 등 놀 곳 확대 필요
차별 금지 방안 필요		• 학교 출석부 등에 외국어로 이름을 기재하는 방식 변경 요구 • 차별 금지를 위한 다문화감수성 등 교육 필요
다문화가정·청소년 대상 정책 홍보		•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지원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확대 필요 •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함.

2.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현장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진로설계프로그램과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중심으로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지원 정책인 여성가족부의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과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다문화청소년 중심)의 현장실무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FGI)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운영 현황에 대해 직접적으로 청취하고 향후 발전 방향성 모색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패널조사를 실시하는 기초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나, 한편으로, 정책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청소년 지원과 관련한 현장 상황을 가능한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함이다. 특히 이 정책사업들은 2023년 전후로 시작되어 일부 지역 및 기관에서 시범사업 또는 선도학교 등의 형태로 수행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이 사업들의 확산을 고려할 때 유의미한 함의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1)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 현장실무자 FGI

(1) 조사개요

① 목적 및 조사대상자 참여 과정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면접(이하 FGI)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진로·진학과 관련된 지원 경험을 다각도로 청취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실행되고 있는 진로설계프로그램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정책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를 통해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를 잘 운영하고 있는 센터들의 명단을 받아, 해당 센터의 실무자(팀장급 또는 해당 프로그램 2년 이상 담당자) 총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초점집단면접(FGI)은 인터뷰에 참여한 집단 내 참여자들 간의 상호작용과 역동을 통해 더욱 깊이 있는 내용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을(Stewart & Shamdasani, 2015) 고려하여, FGI를 위한 집단 구성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FGI 참여자는 가능한 지역별로 골고루 안배하되, 이들의 참여도와 원활한 FGI 진행, 또 예측가능한 집단 역동을 염두에 두고 직급과 근무 경험 등을 고려하여 구성원을 섭외하였다. 책임있는 실무자로서 가능한 팀장 수준에서의 다문화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에 기반하여 해당 기관에서의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최종 FGI 참여자는 서울 지역 2명, 경기도 지역 1명, 전라도 지역 1명, 경상도 지역 1명으로 진로설계프로그램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거나 해당 사업의 팀장 또는 대리 직급의 5명으로 구성되었다(표 Ⅵ-24). FGI 참여 센터들이 위치한 지역적 특성은 매우 다양했다. 서울의 A센터는 비교적 다문화가족 수가 적은 자치구에 위치해 있었는데, 이곳은 전체적인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었으며 다문화가족 수는 정체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서울의 B센터는 자치구 내 여러 곳에 있었고 인근 자치구와 인접해 있는 곳은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와 관계없이 지역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이 높았다. C센터는 다문화가정 및 이주민이 많은 도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센터 인근에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어 원활한 연계사업을 위한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D센터는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레인보우스쿨 등을 운영한 경험을 갖고 있었으며, E센터는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 특성상 인구가 집중된 읍면지역으로 순회홍보나 방문 지원을 하고 있었다.

표 Ⅵ-24.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참여 센터 및 참여 방식

번호	지역	구분	직위	센터 구분	지역 특성	FGI 참여 방식*
1	서울	참여자A	대리	○○구 A센터	• 전출, 사망, 이혼 등이 많은 인구감소지역으로 다문화 가구수가 비교적 적은 편	1차 오프라인 간담회 방식
2	서울	참여자B	팀장	□□구 B센터	• 인근 자치구의 다문화가정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1차 오프라인 간담회 방식
3	경기	참여자C	팀장	△△시 C센터	• 지역사회 다문화배경 가정,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많은 지역으로 오랜 기간 다문화가족을 지원해 왔음.	2차 온라인 줌화상 회의 방식
4	전남	참여자D	팀장	◇◇구 D센터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레인보우스쿨 등을 운영한 경험이 있음.	2차 온라인 줌화상 회의 방식
5	경북	참여자E	팀장	▽▽시 E센터	• 인근 공단이 형성되어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도 많음.	1차 오프라인 간담회 방식

주: FGI 참여자들의 이동 여건 및 센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간담회 및 온라인화상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음.

② 조사내용 및 방법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의 현장실무자 FGI 주요 내용은 크게 센터의 지역 및 이용자 특성과 현황, 진로설계프로그램의 운영 현황, 주요 사업성과 및 애로사항, 향후 발전 방향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Ⅵ -25과 같다.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과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이중언어 학습, 심리정서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최근 진로설계프로그램도 운영하기 시작함에 따라, 본 FGI에서는 향후 확산을 위한 함의와 개선점을 찾는 데 초점을 두었다. 연구진이 구성한 조사내용은 해당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우수 평가를 받고 있는 센터의 현장전문가들이 사전 검토하였으며, 최종 확정된 조사내용은 IRB 심의 후 연구에 활용되었다.

본 FGI는 참여자들의 이동 여건 및 센터 내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간담회 형식과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 방식으로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간담회 방식의 대면 FGI는 2024년 9월 11일 오후에 조사위탁기관 회의실에서 개최하였으며, 조사참여와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그리고 영상녹화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은 후 FGI 시작과 동시에 녹취를 시작하였다. 이 FGI에는 A, B, E 센터의 담당자가 참여하였으며 총 두 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온라인 FGI는 C, D 센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였는데, 이들 역시 ZOOM 회의실에 접속하여 조사참여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영상녹화에 대한 사전 동의 후 FGI에 참여하였다. 이 FGI는 2024년 9월 19일에 한 시간 반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종료 후 녹취된 자료는 앞의 오프라인 FGI 전사 자료와 함께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VI-25.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주요 내용

영역	FGI 주요 내용
1) 환경적 특성	- 가족센터 이용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의 현황과 특성 일반
2)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참여 청소년 현황 및 특성(연령대, 다문화가정 배경 등) - 참여 청소년 발굴 또는 선정, 선발 기준 - 운영 방식: 직접 운영/위탁 운영 - 유형·주요 내용: 개인상담, 심리검사, 멘토링, 집단프로그램, 컨설팅, 캠프, 진학설명회 등 - 참여 청소년의 욕구 및 참여도
3) 주요 사업 성과	-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주요 성과 및 요인 - 참여 청소년(가족) 만족도 - 홍보 및 확산 방법
4) 지원 애로사항	-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애로사항 및 한계점
5) 개선 방안	-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개선점, 개선 방안, 향후 발전 방향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은 가족센터의 주요 사업인 다문화가족 및 자녀 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초기에는 '정서안정 및 진로지원(다채움)'으로 시작되었으며, 특히

정서지원을 위한 청소년상담에 초점이 있었다. 이는 사업담당자의 자격 기준이 청소년상담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가 이후 진로지원을 위한 지원 연계와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와 진로지도 관련 자격으로 확대된 것에서도 확인된다(여성가족부, 2022: 361, 여성가족부, 2024: 349). 따라서 이 FGI의 초점이 진로설계프로그램에 있지만, 당초 정서지원과도 연관성이 깊음에 따라 이러한 사업목적과 내용의 변화에 따른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고, 진로설계프로그램 확대 시 염두에 두어야 할 함의도 찾고자 하였다. FGI 참여자들은 각 센터의 팀장급인 책임 있는 실무자 수준으로 대체로 이 프로그램 운영을 둘러싼 전반적인 이해가 깊었는데, 전문 인력 운용에 관해서 다소 상치되는 의견들도 제시하였다(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견해 등). FGI 참여자들의 구체적이고 다양한 의견은 향후 개선 방안 모색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자료의 누락 없이 분석에 활용되었다. 분석을 위해 전사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주요 내용의 영역별로 내용을 분류하였고, 주요 의미단위를 코딩하면서 이를 범주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주요 내용들을 도출하였고, 연구진 간 검토회의를 통해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2) 주요 결과

① 환경적 특성

서울의 A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1,000명 미만으로, 센터를 주로 이용하는 다문화가정의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이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연령대는 초등학생이 가장 많으며, 기초학습 지원사업을 통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유사하게 서울의 B센터 역시 베트남과 중국 국적의 다문화가정의 이용 사례가 많았다. 최근에는 중도입국 자녀가 많아지고 있어 이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지만, 일차적으로 언어소통 문제에 따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다배움, 이중언어 수업과 같은 사업 외에 초등학생 대상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C센터에는 베트남, 중국, 태국,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국적의 다문화가정과 자녀들의 이용이 많았으며 센터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어 활발한 연계사업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D센터는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수업과 정서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인근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통한 의뢰가 많아 사례회의에 참여하며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E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국적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많지만, 중국 국적 가정이 긴밀한 정보 교류를 통해 프로그램 참여(신청)도 매우 높았으나, 현재는 베트남 국적의 이용자도 증가하는 상황이었다. 외국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면서 중도입국 자녀들이 많아 한국어반을 개설, 운영하고 있었다.

표 Ⅵ-26.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참여 센터의 다문화 관련 환경적 특성

번호	지역	구분	센터구분	환경적 특성
1	서울	참여자A	○○구 A센터	• 다문화가족 중 센터의 주 이용자의 국적은 베트남과 중국이나 이외에도 다양한 국적의 이용자들이 있음. • 미취학 아동, 이중언어교실로 초등연령대 아동 이용이 많음.
2	서울	참여자B	□□구 B센터	• 베트남, 중국 배경 다문화가정이 많으며, 최근 중도입국 가정 청소년이 많아지고 있음. 언어소통 문제가 있음. • 다배움이나 이중언어 수업을 제공하고 있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3	경기	참여자C	△△시 C센터	• 베트남, 중국, 태국, 러시아 등 중앙아시아 국적의 다문화가정과 아동·청소년 이용이 많음. • 인근에 청소년수련관과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위치해 있어 연계사업이 원활함.
4	전남	참여자D	◇◇구 D센터	• 중도입국 가정 자녀가 많아 한국어 수업과 정서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음. • 인근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뢰가 많아 사례회의에 참여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5	경북	참여자E	▽▽시 E센터	• 센터를 이용하는 다문화가정 국적은 베트남,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순으로 많음, 중국 국적 가정의 프로그램 참여(신청)도 매우 높으며, 베트남 국적의 이용자도 점차 많아지고 있음. • 주변에 대학교가 많아 유학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외국인 가구 증가에 따른 중도입국 자녀들이 많아 한국어반을 개설 중임.

②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청소년 특성

가. 참여 청소년의 특성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 다수 이용

대부분의 센터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진로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고학년의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A센터는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초기 17~18세 청소년들이 잘 모이지 않아 초등학생 집단과 중·고등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여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중·고등학생 집단에서도 서로

잘 섞이지 못하는 문제로 중도 탈락이 발생함에 따라 현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위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다만, 상담을 통해 진로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경우는 중학생이 많은 편이었다. B센터 역시 중·고등학생들을 진로설계에 바로 참여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를 향후 진로설계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방안으로 계획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는 부모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교육열이 높거나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다문화가정의 경우 초등학교 자녀의 프로그램 참여율이 좋은 편이라고 부연하였다. C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중에는 국내출생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국내출생)와 중도입국/외국인 자녀의 비중이 각 절반 정도였는데 진로설계프로그램에는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 참가자가 가장 많았다(중학생도 일부 참여). D센터의 진로설계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 50% 정도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표 VI-27.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프로그램 운영 주요 특성

번호	지역	구분	센터 구분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및 주요 특성
1	서울	참여자A	○○구 A센터	•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초기에 17~18세 청소년들이 잘 모이지 않아 초등학생 집단과 중·고등학생 집단으로 구분하였음. • 중·고등학생 집단 역시 이질감이 있어 현재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을 통한 중학생 유입도 증가하고 있음.
2	서울	참여자B	□□구 B센터	• 진로설계프로그램 대상을 중·고등학생으로 설정하였으나 중학생부터 바로 참여시키기 어려워 초등학교 6학년부터 목표집단으로 하고 있음. • 인근에 대학이 많아 멘토링. 유학생 연계 등의 사업을 추진함.
3	경기	참여자C	△△시 C센터	• 진로설계프로그램 참여는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국내출생) 50%, 중도입국/외국인 자녀 50% 정도 비중임. • 진로설계프로그램 참여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으나 중학생도 참여하고 있음.
4	전남	참여자D	◇◇구 D센터	• 진로설계프로그램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 50% 정도의 비중으로 참여하고 있음.
5	경북	참여자E	▽▽시 E센터	• 처음에는 어머니와 함께 센터에 방문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으나, 현재는 초등 고학년, 중학생이 많음.

E센터는 현재 진로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한 지 3년 차로, 프로그램 초기에는 매뉴얼, 지침만 있는 상태여서 운영 방법과 대상자 발굴 등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이에 우선 다문화배경 어머니와 함께 센터를 방문한 초등학교 저학년생들로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현재는 이들이 성장하면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고, 중학생도 많아졌다. 전반적으로

진로설계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면서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센터의 기존 이용자 자녀를 중심으로, 또 센터를 이용하는 시간대 등을 고려하여 초등학교 고학년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복합적인 어려움 경험

FGI에 참여한 일부 센터 담당자들은 센터를 방문,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심리·정서·사회적 어려움을 보고하였다. D센터 참여자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정서불안과 같은 심리정서적 문제와 자기 이해 부족, 언어발달 지연과 무기력이 겹치는 등 여러 복합적인 심리·정서·인지적 어려움으로 진로설계프로그램 초기에 애로사항이 있었음을 회고하였다. 또, 지지체계가 부족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으면서 긴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센터 참여자는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위축되어 있으며 상담을 받기 위해 센터를 방문하는 사례 중 부모 및 친구와의 갈등, 대인관계 기술 부족 등의 문제가 많다고 보고하였다.

> **자기 이해도 좀 부족**하고 진로 설계를 저희가 초기에 이런 쪽에 조금 많이 하기가 어려웠던 게 우선은 다문화 쪽 아이들의 경우에는 초기 **언어 발달도 많이 지연**돼 있는 상황이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어떤 이런 상황이고 (중략) 주변에 **지지 자원이나 이런 격려해 주는 이런 자원들도 굉장히 많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중략) 주변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그렇게 많이 받아오지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긴장을 해요.** (D센터 참여자)
>
> (센터에) 오는 친구들 자체가 **위축이 되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략) 청소년들이 상담으로 오는 경우가 **친구 간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 같은 대인관계 기술 습득을 못하는 게 많고요.** (E센터 참여자)

진로에 대한 낮은 인식

센터를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연령대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다수이고 또 복합적인 어려움으로 진로에 대한 생각이 거의 없어 진로설계프로그램의 대상자 발굴이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C센터의 참여자는 다문화청소년 중 장래 하고 싶은 일이나 꿈을 모르는 사례가 많았지만, 한편으로 이는 다른 또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 상황으로 생각하였다. D센터 참여자는 일반적인 비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장래 희망이 다소 허황되어 현실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중도입국사례를 포함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아예 미래 자신의 꿈에 대해 '모른다' 또는 '뭘 해야 할지 모른다'는 응답이 많다고 진술하였다. E센터 참여자는 실제 진로고민이 있어 센터를 방문하는 청소년들이 없었으며, 진로를 구체화한 사례도 거의 없다고 밝혔다. C센터와 D센터 참여자 간에 비다문화청소년의 장래 계획이나 꿈에 대한

의견은 다소 상이했으나, 다문화청소년들의 경우 대체로 진로에 대한 생각이 없거나 구체적인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치되는 내용이다. 한편으로 이는 대부분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C센터 참여자가 보고한 바와 같이 고등학생의 경우 향후 진학이나 대학 미진학 시 취업 방향 등에 대한 고민을 토로했다는 점에서도 확인된다. 즉, 학교급이나 발달단계에 따른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나 고민들을 상세히 파악하고 이에 대처할 필요성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 아이들이 딱 꿈이 뭐예요라고 사실 그건 일반 아이들도 똑같고 다문화가정 아이들도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꿈을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이걸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 여전히 많기 때문에** (C센터 참여자)
>
> 아이들이 정말로 내 진로를 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보통 그냥 보통의 아이들 같은 경우는 허황되고 굉장히 이렇게 격차가 있는 거래도 난 뭐가 될 거야 이런 식의 대답을 할 수 하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중도입국 아이들이나 다문화 쪽의 아이들을 만나서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다 몰라요. 대답이 거의 이래요. 뭘 해야될지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D센터 참여자)
>
> **진로고민이 있어서 찾아 오는 친구는 없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하면 어쨌든 그런 거를 말하면서 자연스럽게 선생님들이 물어 보거든요 (중략) 그런 게 많고 정확하게 어디로 갈 거다 **이렇게 구체화된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E센터 참여자)
>
> 이제 아이들이 좀 가장 원하는 방향은 고등학교 친구들 대부분이었어서 이제 **학교 가는 거나 아니면 대학을 가지 않았을 때 취업 방향 이런 것들에 대한 걸 좀 고민**을 많이 토로했던 것 같고 (C센터 참여자)

나. 진로설계프로그램 참여 경로

타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 참여 유도

진로설계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중에는 처음부터 진로에 대한 관심이나 기초학습 지원을 받으면서 해당 프로그램에 유입된 사례도 있었으나, 대체로 심리정서문제로 인한 상담과정에서 연계된 사례들이 많았다. 즉,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진로설계프로그램 참여자를 발굴한 것인데, A센터에서는 심리정서적 문제로 개인상담을 받은 청소년이 이후 진로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며, 반대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가 이후 정서지원으로 연계되는 등 순환식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고하였다. C센터의 경우도 개인상담을 통한 정서적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이후 진로 컨설팅 등을 진행하였고, D센터에서는 진로설계프로그램 담당자가 심리정서지원도 병행하고 있어 청소년 개인의 상황에 따라 초기상담 이후 심리정서 치료를 진행하고, 동시에 진로에 관심이 있는 경우 진로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다. 이외에, 기초학습 지원이나 교육부 지원 등을

통해 진로설계프로그램으로 연계되기도 하였다(A, E센터).

> **정서 쪽 문제로 들어와서 연결이 되거나** (중략) 상담 같은 경우도 중·고등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연계된 아이들에 한 해 진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을 하셨기 때문에 (중략) **그 친구들이 진로에도 들어오고 한편으로는 정서로 들어왔던 친구들이 진로로 들어오는 식으로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A센터 참여자)
>
>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개인 상담을 먼저 시작해서** 우선 이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면 미술 치료를 하기도 하고 개인 상담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도 아이들의 정서적인 안정이 기본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먼저 초점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제 진로 설계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 방학 때는 **일대일 진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C센터 참여자)
>
> 그래서 진로 설계 담당을 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심리정서 사업까지 동시에 하고있는 상황이어서 (중략) 이제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은 **심리정서적으로 치료를 받게 하고** 그것과 동시에 진로에도 이제 관심이 있거나 이러면 **동시에 같이 진로설계프로그램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D센터 참여자)
>
> 한 50%가 초등학생 연령인데 **기초학습 지원사업을 같이 운영**하면서 늘어난 거 같아요 (중략) **교육비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구에 숨어 있던 가족분들이 많이 오시기는 하셨어요. (A센터 참여자)
>
> **기초학습지원**에 온 친구들을 담당자가 이 프로그램에 연계를 해 주고 (E센터 참여자)
>
> (다른 프로그램의) 기존 대상자들이 큰 거예요. 커서 이 사업을 이용하지는 못하지만 여기로 넘어 올 수 있다거나, **중복되지 않게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B센터 참여자)

한편으로 B센터의 경우 최대한 프로그램 참여자를 중복시키지 않으려 했는데, 이처럼 가능한 많은 청소년이 다양한 지원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중복 지원을 피할 수도 있겠으나 각 센터의 환경적 특성이나 운영 방침, 여건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특히 후술할 내용과 같이 진로설계프로그램이 애초 정서지원에 수반되는 성격을 지녔다는 점에서, 정서지원에서 진로설계프로그램 참여로 연결되는 부분은 이해가 가능하다.

자발적 참여

진로설계프로그램이 점차 진행되면서, SNS를 통한 홍보와 순회 교육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례들도 관찰되었다. D센터에서는 SNS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요청한 청소년들이 있었으며, E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선착순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지만, 읍면지역과 같이 센터에 자주 방문하기 어려운 원거리 지역의 겨우 순회 교육과 홍보를 통해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 **SNS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요청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D센터 참여자)

저희는 일단 발굴하고 선정, 선발하는 게 어려우니까 **선착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서 하고 있고, 지역 특성상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센터에 오기 어려우실 경우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쪽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이상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때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보통 모집을 하고요. (E센터 참여자)

다. 외부기관과의 연계 운영 및 현황

연계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FGI에 참여한 가족센터들은 진로설계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의 각종 사업과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연계를 통해 지원하고 있었다. 연계 상황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는데, 연계를 하면서도 진로설계프로그램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청소년들의 상황과 변화 등을 살펴보는 사례도 있었다. 연계를 통한 지원은 필수는 아니지만 가족센터들은 가능한 연계하려고 노력하였으며(B센터 참여자),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참여를 더 독려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C센터 참여자). 한편으로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어 보였다(D센터 참여자).

연계가 필수는 아니에요. (중략) 권장도 아닌데 지역센터들이 연계를 많이 하려고 해요. (B센터 참여자)

그래서 외부 프로그램도 계속 연계하려고 하는 이유가 센터에서 하는 건 사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새로운 프로그램도 아이들 좀 참여해보게 하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오는 것 같고요. (C센터 참여자)

(사회자: 지금 진로 설계의 일환으로 하는 것 중에는 혹시 직접 운영하시려고 하는 게 있으실까요?) 엄두가 안 납니다. (D센터 참여자)

이러한 연계를 통한 사업 진행 시 C센터는 진로설계프로그램 담당자가 직접 캠프에 참여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효과성을 검토하였다. D센터는 앞서 진로설계프로그램의 직접 운영에 대해 어려움을 이야기했지만, 외부 사업과의 연계 시 함께 참여하여 참여 청소년들의 변화 과정을 관찰하고 만족도 등을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음을 밝혔다.

연계 받아서 갔다 온 경우에도 저희가 그냥 다 맡기고 알아서 해주세요가 아니라 조금 상담을 진행해 주는 캠프가 있었어요 (중략) **저희 진로설계 청소년 상담 선생님이 또 같이 가서 상담도 같이 다 하고 그러면 조금 아예 맡기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개입해서 아이들에게 정말 효과성이 있는지 그런 걸 보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요.** (C센터 참여자)

(외부기관 연계) 그런 집단 컨설팅하는 장면들을 **우리 선생님들이 옆에서 관찰하고 아이들의 변화 과정을 지켜보고** 이러면서 진행을 했었는데 (중략) 아이들이 **어떤 변화를 갖고 있는지 물론 만족도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다 높았고 좋았는데 (D센터 참여자)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대체로 학교와의 연계는 진로설계프로그램을 위한 것이기 보다 다문화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학교 쪽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센터에서는 진로설계프로그램 도입 시 연계를 고려하여 학교에 홍보를 진행하였는데, 이후 학교에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사례 발생 시 청소년 상담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학교 방문 상담과 집단상담을 진행하였고, 언어 문제가 있는 경우 센터의 통역사를 파견하여 상담 지원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D센터 역시 다문화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요청이 대부분으로, 진로설계프로그램 등 진로와 관련된 학교의 의뢰는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센터 참여자는 학교 교사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경우 발굴이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이제 홍보를 진행했던 게 있어서 그 이후로 매년 이제 학교에서 본인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가 별도로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선생님이 직접 나가서 **아이들 상담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아이들이 그룹으로 할 수 있으면** 첫 해에는 저희가 원외 프로그램 같은 것도 진행을 했었고 (C센터 참여자)

통역사가 학교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에는 저희 **통역사도 같이 나가서 아이들 상담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센터 참여자)

다문화 아이들이 학교에서 눈에 띄는 아이들이 아니잖아요. **이제 문제를 일으켰을 때만 어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눈에 띄어서 저희한테 의뢰가 되기는 하는데** (중략) 선생님들이 관심을 가져줘서 이 아이가 좀 이렇게 **진로 쪽에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의뢰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D센터 참여자)

나의 **진로에 있어서** 고민이 되고 뭔가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아이들을 지금 발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학교 선생님들 개개인이 조금은 어떤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면 되게 어렵거든요.** (D센터 참여자)

학교와의 연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C센터에서는 진로설계프로그램과는 관계없이 학교의 교육복지사와 위클래스 담당교사 등과 연계되어, 주로 상담을 포함한

복지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D센터 역시 진로설계프로그램과는 무관하지만, 지역 내 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하였고 적극적으로 학교의 연계 요청에 대응하면서 학교에서 의뢰된 청소년 사례들을 지원하고 있었다. 뒤에서 다루게 될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지역 연계사업에 가족센터가 같이 참여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점은 또 다른 차원에서 의미있는 내용으로 보인다.

보통은 **학교 사회복지사나 위클래스**에 직접 오시는 것 같고 담임 선생님도 이제 그런 위클래스나 학교 사회복지사에 문의를 하셔서 그분들이 저희한테 연락오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C센터 참여자)

청소년 관련해서 학교에서의 의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이제 사례 회의를 하다 보면 각종 지금 **학교 맞춤형 통합 서비스**에 (중략) 학교에서 문제 학생들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례회의를 개최를 하면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문화뿐만이 아니라 이제 취약계층의 아이들의 경우에도 저희 센터가 주도적으로 좀 참여해서 어떤 해결 방식들을 찾아가는 그런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 센터에서 많이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센터 참여자)

지역사회 기관, 민간단체와의 연계

진로설계프로그램은 학교보다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이나 민간 기업, 단체들과의 연계를 통해 운영되는 경우가 많았다. 청소년 관련 기관과 도서관, 진로직업체험센터, □□과학재단 등과 같이, 보다 전문적인 기관들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거나 연계하였으며(A, B, C센터), 지역 은행을 통해 진로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캠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청소년을 추천하여 높은 만족도를 얻기도 하였다(D센터). 이외에도, 지역사회 자원의 일환으로 인근 교육대학과 연계하여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또 행정복지센터나 지자체의 사업과 연계하기도 하였다(E센터).

청소년 시설에 가서 하는 거를 선호해서 ○○동 **청소년문화센터** 이런 게 생겨서 말씀드리면 언제든 오셔라, 열어 드리겠다 하셔서 애들에게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들이 이런 것도 있다는 거를 동아리를 하면서 공간 소개하는 것도 좋더라고요 (중략) **도서관 이용** 방법도 배우고 (A센터 참여자)

이런 프로그램을 할 때도 저희 센터만 하려고 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이 무엇인지 찾으려고 해서 베이킹을 할 때는 **진로직업체험센터** 거기랑 같이 했었고 지금 AI는 □□**과학재단**이랑 해서 거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서 저희 거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B센터 참여자)

이제 기본적으로 센터 내에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청소년 기관들이랑도 좀 연계해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청소년수련관이랑 진로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멘토링을 연결하기도 하고** (C센터 참여자)

△△**은행**에서 프로그램을 좀 크게 진행을 하는 게 있어서 어 3박 4일인가 굉장히 좀 프로그램이 굉장히 알차고 (중략) **진로 내용**을 담고 있어서, 저희가 그 아이들을 좀 추천을 해서 (D센터 참여자)

바로 옆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의** 지방자치사업을 연계를 해서 6주밖에 안 되기는 하지만 관리하는 친구들이 **요리에 대한 다양한 직업군을 배우고 체험**하는 활동에 중점을 맞췄고요 (중략) 지금 현재 4~5개 **대학교랑 연계**를 하고 있어요. (E센터 참여자)

라. 청소년 및 부모 대상의 다양한 지원 제공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으로 시작

진로설계프로그램의 초점이 초기에는 정서지원에 있었기 때문에 청소년상담사가 주로 프로그램을 담당했던 만큼 FGI 참여자들은 청소년 대상의 심리정서지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B센터 참여자는 초기상담 이후 더욱 전문적인 상담을 위해 연계를 하거나 사례관리팀과의 협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C센터 역시 심리검사나 개인상담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미술치료를 제공하거나 진로설계프로그램으로 연계하였는데, 정서지원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운영하고 있었다. D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동기 부족을 고려하여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 필요에 따라 정서지원과 진로설계프로그램을 제공하였다. 이들 센터는 모두 센터 내 여러 분야의 담당자들이 참여하는 사례회의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에게 다양한 차원의 문제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각 분야에서 필요한 지원들을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이 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초기상담**은 다 하게끔 해요. 그리고 초기상담으로 관찰을 하고… (중략) 상담을 진행했으면 좋겠다고 보이는 친구들은 센터 내에 **전문 상담사분들이 계시니까 그쪽으로 연계**를 한다거나 관찰을 해 줬으면 하면 **사례관리**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거나 이렇게 하고 (B센터 참여자)

센터 자체에 사례관리팀도 있고 여러 상담팀도 있다 보니까 (중략) 저희도 기본적으로는 **개인 상담을 먼저 시작해서** 우선 이 아이들이 정말 정서적으로 안정이 필요한 상황이면 미술 치료를 하기도 하고 (중략) 진로설계 쪽 관련해서는 저희가 우선 방학 때는 **일대일 진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중략) 저희도 아까 ○○센터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하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정서 지원 쪽이 더 먼저 좀 포커스가 잡혀서 운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C센터 참여자)

우리 **상담 진로 담당 선생님이 만나서 이 아이가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정서적으로 필요하면 정서 먼저 하게 하고 동시에 같이 필요한 아이들은 진로 설계와 관련된 전반적인 심리검사를 통해서 이 아이가 필요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중략) 진로 설계 쪽에 프로그램을 하게 한다든가 학습 코칭을 받게한다든가 이런식으로 나누어서 저희는 진행을 했었어요. (D센터 참여자)

센터 사례회의를 하다 보면 (중략) 그 아이의 특성이 이제 보이기 때문에 센터장님이랑 같이 앉아서 이렇게 센터장님은 저희 파트에서 진로 청소년 파트에도 참여하시고 다른 파트에서도 이렇게 참여를 하시니까 거기 안에서 공동의 **어떤 다차원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면 서로 정보를 주시면서 (중략) 유기적으로 얘기 나누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D센터 참여자)

다양한 활동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FGI에 참여한 센터들은 진로설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로컨설팅, 동아리, 진로 멘토링 등을 지원했다. 진로컨설팅은 일대일, 또는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글쓰기 동아리, 창업동아리 등을 구성하여 운영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외부 전문가를 통해 일대일 진로(진학)컨설팅을 진행하면서 진로 방향성 탐색을 돕기도 하고(C센터),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개별/집단으로 진로컨설팅을 진행하였으며(D센터), 글쓰기 동아리, 진로, 창업 동아리 등을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제공하였다(A, B, C센터)

일대일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 섭외를 해서 그런 학교 진학이나 이런 관련된 컨설팅을 아이들 당 6회씩 잡아서 진행을 했었고요 (중략) (꿈을) 모르는 친구들이 아직 여전히 많기 때문에 그런 조금 방향을 찾아가는 거 그런 쪽으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서 컨설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C센터 참여자)

올해는 10회기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아이들을 집단 컨설팅을 해줬는데 이 경우에는 **외부 심리센터에 저희가 진로와 관련된 전문 기관에 연계를 해서** 그 기관에서 저희 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집단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센터에 와서 하고 개인 컨설팅의 경우에는 아이들에 있는 곳으로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센터에서 진행을 좀 해 주셨어요. (D센터 참여자)

초등 고학년들이 성숙할 수 있는 부분에서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창업동아리** 같은 모임으로, 초창기에는 탐색도 하고 진로집단을 통해서 이해도 하고 진로체험도 하고 진로 동아리 모임도 하고 창업 동아리처럼 해서 운영을 하는 것들이 외국의 프로그램이 많이 있더라고요. (A센터 참여자)

저희가 지금 동아리 활동 2개를 하고 있는데 각각 13명씩 두 집단이 돌아가고 있고 (B센터 참여자)

현재는 진로 약간 동아리 느낌으로 현재 신문 기자님들이 그 동아리를 형성하셔가지고 이제 애들이 글 쓰고 나중에 논술이나 이런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쪽 방향으로 동아리 하나를 운영하고 있고 (C센터 참여자)

진로멘토링 운영과 관련해서 B, C, E센터 참여자들은 보다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였다. B센터는 인근 대학교의 학생들, 특히 유학생과 연계하여 멘토링 프로그램은 계획하였고, C센터는 인근 청소년기관과 진로체험지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해 멘토링을 운영하였고,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을 통한 멘토링 사업도 진행하였다. C센터는 다문화배경의 대학생 멘토를 통해 멘티 청소년과의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높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그러나, 올해는 해당 멘토를 찾기 어려워 진로 멘토링을 지원하지 않게 되었으며, 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E센터에서는 시범적으로 추진한 멘토링 사업의 일환인 캠프를 통해 멘토-멘티의 정서적 유대가 깊어진 것을 확인한 후, 향후 프로그램의 방향성을 진로멘토링으로 설정하였다.

저희도 대학교가 많다 보니까 학교 대학생들 대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유학생과 연계를 해서 의사소통을 하면서 멘토링**을 할 수 있게 한다거나 이런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B센터 참여자)

센터 내에 프로그램도 같이 이제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지만 지역에 있는 여러 청소년 기관들이랑도 좀 연계해서 좀 활발하게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청소년 수련관이랑 진로지원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멘토링을 연결**하기도 하고 (중략) 저희가 이 사업 1~2년 차 때 했던 것 중 하나가 **진로 멘토링**이었는데 이제 진로 멘토링을 했을 때 저희가 멘토들을 그냥 일반 대학생을 한 게 아니라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 중에 대학생이 된 친구들을 뽑아서 다문화 가족 자녀들 1대 1로 멘토링을 연결해 주는 사업을 2년 동안 했었습니다 (중략) 그 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보통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그 멘티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가 **멘토들 찾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서** 올해 포기를 했었거든요. (C센터 참여자)

올해는 5월부터 시작하는 멘토링 사업을 시범케이스로 운영하고 있고 (중략) 캠프를 통해서 멘토와 정서적 유대가 깊어지니까 그 이후에는 멘토링을 적게 한 친구들도 활발하게 하고 있어서 처음에 매뉴얼 내려왔을 때부터 진로설계는 멘토링을 중점으로 잡고 가자 (E센터 참여자)

이러한 진로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 A센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단계적 프로그램 운영을 시도하였고, B센터는 직접 청소년 대상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A센터의 일회성이 아닌, 캠프 및 체험 등을 포함한 다양한 내용의 진로설계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장기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B센터는 청소년들이 희망하는 제빵, 건축동아리 등을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 향후 프로그램 확산과 관련한 함의를 시사하고 있다. 특히, C센터에서는 진로설계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프로그램 내용과 참여 청소년들에 대한 DB 구축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이 장기적으로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효과적인 진로지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작년부터 □□□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단회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진로 준비 집단**으로 하고 컨셉이 진로에 대한 탐색을 충분히 시킨 다음 상담도 하고 캠프도 가고 체험도 하나씩 하면서 **성숙집단**이라고 해서 다시 모아서 진로에 대해서 찾아가는 식에 대해서 효과가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A센터 참여자)

프로그램도 단순한 체험성이 아니라 저희는 **연초에 FGI를 해서 남자10명, 여자10명 이렇게 해서 어떤 거를 하고 싶어 하는지를 물었는데** (중략) 여자애들은 손으로 하는 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서 베이킹하고 건축 관련 동아리를 운영을 하다가 (B센터 참여자)

지금 하다가 좀 그만두긴 했지만, 아이들 **DB 구축(을 통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받았고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런 걸 좀 해보려고 저도 하고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상담만이 아니라 진로 설계 쪽도 점점 이렇게 좀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도 지금 자체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C센터 참여자)

부모와 가족 대상의 지원 병행

FGI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지원뿐 아니라 이들의 부모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관련 학부모 모임과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A센터에서는 진로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부모교육과 입학설명회,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는데, 특히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아동기 발달, 느린 학습자 등과 관련한 특별 강연과 부모교육을 진행하였다고 보고하였다. B센터에서는 다문화청소년 부모를 대상으로 진학 설명회 등을 진행할 때 부모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이나 부모로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다.

> 부모 참여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강조를 하는 편이어서 부모교육을 별도로 열고 말씀하신 대로 정보가 부족하시고 관심이 많이 떨어지시니까 **입학설명회, 컨설팅 위주로 해서** (중략) **진로에 대한 관심,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략) 저희도 특별 강연처럼 교수님, 저자분들 모셔서 하면 그때 많이 오셔서 아동기 관련된 거 계속 질문하시고 그렇게 해결을 하고요. 느린 학습자에 관심이 있으셔서 저희도 트렌드 맞춰 찾아가자고 하는데 부모교육 관련해서는 가족센터에 해 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A센터 참여자)
>
> 부모님들은 확실히 진학설명회라든가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데 (중략) 사실 저희 이민자분들은 (자녀가) 중1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에게 뭘 시켜줘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어요. 진학 설명회를 한다고 해도 (중략) 오히려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거나 부모가 챙겨 줘야 할 게 뭐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많이 해 드렸던 거 같아요. (B센터 참여자)

A센터는 특히 부모 교육과 부모 학습 코칭을 포함하여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시기까지의 성장·발달단계를 고려한 생애주기교육을 운영하였으며, 기초학습지원을 받는 자녀의 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자조모임도 구성하였다. C센터 역시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학부모 모임을 구성하고 캠프에도 연계, 참여하도록 하고 있었다. C센터 참여자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가족의 성장과 학부모(어머니)의 자녀 양육방식 등에서의 변화를 꾀하고자 한다고 부연하였다.

> 초등 입학 전 **부모교육** 엄청 돌리고 **부모학습 코칭**도 돌리고 (중략), 다문화 가족 대상으로만 별도로 **생애주기 교육**을 돌리고 있거든요. 초등 입학 전, 중학생, 고등학생 상반기, 하반기 하고 있어서 대상자 타겟으로 해야 돼요 (중략) 올해는 기초학습 들어오는 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 자조모임**을 하고 있어요. (A센터 참여자)
>
> 부모님 대상으로 **학부모 모임** 같은 것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아이들도 센터를 이용하면서 정서적 안정도 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학부모 모임도 하고... 저희가 **캠프** 연계받아서 캠프도 가고 이런 식으로 (중략) 부모 상담이나 이런 것들도 부모 모임도 진행을 하면서 **가족이 전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서 (C센터 참여자)

이제 아이들도 엄마가 그냥 혼내기만 하고 답답했던 것들 상담하게 되면 엄마는 이래요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엄마가 좀 변화하면 아이들도 같이 변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쪽으로 많이 만족을 얘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C센터 참여자)

표 VI-28.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프로그램 운영 및 다문화청소년 특성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참여 청소년의 특성	초등학교 고학년 연령대 다수 이용		• 초등 고학년 중심 운영, 상담을 통한 중학생 유입 증가 • 초등학교 6학년부터 목표집단으로 하고 있음. • 초등학교 고학년이 가장 많으나 중학생도 참여하고 있음. •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각 50% 정도 비중을 가지고 프로그램 참여 •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이 많음
	복합적인 어려움 경험		• 자기 이해 부족, 언어 발달 지연, 정서 불안정, 지지체계 부족, 긴장이 많음. • 위축되어 있으며 대인관계 기술 부족
	진로에 대한 낮은 인식		• 꿈에 대해 모르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많음. • 고등학생의 경우 진학, 취업 방향 고민 • 꿈이 뭔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름. • 진로 고민, 진로가 구체회된 사례 없음.
진로설계 프로그램 참여 경로	타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 참여 유도		• 정서지원 진로프로그램과 상호연결 • 기초학습 지원이나 교육부 지원을 통해 유입 • 개인상담을 통한 정서 안정 후 진로컨설팅 진행 • 심리정서 치료와 진로설계프로그램 동시 진행
	자발적 참여		• SNS 홍보 통해 자발 참여 • 순회 교육 시 홍보를 통해 부모와 참여, 선착순
외부기관과의 연계 운영 및 현황	연계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	연계 운영 현황	• 필수는 아니지만 연계를 많이 하려고 함. • 청소년 참여 독려를 위한 연계 • 직접 운영에 대한 부담도 있음.
		연계 시 모니터링 병행	• 진로설계 담당자가 외부 상담, 캠프 등 모니터링 수행 • 외부 연계사업에 담당자가 참여하여 청소년의 상태 및 변화 모니터링
	학교 연계를 통한 지원	학교연계 방식 및 내용	• 학교 방문상담 및 집단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학교와의 유기적 연계 유도 • 통역사가 함께 학교를 방문하여 상담 진행 • 위기청소년에 대한 위센터 연계 지원 • 다문화청소년 문제 발생 시 학교에서 의뢰 요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 진로설계 영역으로 의뢰, 연계가 거의 없음.
		학맞통, 복지 사업 연계	• 학교 교육복지사, 위클래스와 연계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연계, 통합사례회의 참석
	지역사회 기관, 민간 단체와의 연계		• 청소년문화센터, 도서관과 연계 • 진로직업체험센터, 한국창의과학재단, 청소년수련관 등 연계 • 청소년수련관, 진로지원체험센터 통해 멘토링 연계 • 민간 은행의 진로관련 프로그램 참여 •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직업체험활동, 인근 대학들과 연계 멘토링
청소년 및 부모 대상의 다양한 지원 내용	청소년 심리정서 지원으로 시작		• 초기상담 후 전문 상담 의뢰 및 사례관리 제공 • 개인상담으로 시작해서 필요 시 진로 컨설팅 진행 (정서에 초점) • 청소년과 대화 진행 정서지원→진로설계프로그램 연결 • 복합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사례는 사례회의 진행 후 필요한 지원 제공
	다양한 활동을 통한 프로그램 운영		• 장기적 단계별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 대상 수요조사 후 직업체험 제공 • 다양한 형태의 진로 컨설팅 • 글쓰기 동아리, 창업동아리 등 동아리 구성, 활동 지원 • 진로 멘토링 초점, 다문화가족 자녀 대학생과의 멘토링 제공 • DB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진로지원 고려
	부모와 가족 대상의 지원 병행		• 부모 대상 입학설명회, 컨설팅, 특별 강연 지원 • 진학설명회에서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등에 대한 내용 제공 • 부모학습 코칭, 학부모 자조 모임 지원

③ 주요 사업성과와 효과적인 홍보 방법

가. 긍정효과 및 만족도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 변화

FGI를 통해 진로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A센터 참여자는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5점 만점에 4~4.5점 수준), 캠프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선호한 청소년 사례도 보고하였다. D센터의 진로설계프로그램은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고 학습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FGI참여자는 이에 대한 만족도가 긍정적이었다고 회고하였다. E센터에서는 진로와 관련된 집단상담 시 사전-사후 평가를 통해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한 것을 확인하였다.

> 정서 쪽으로 상담을 하면서 그거를 점검해 주고, 어떻게 보면 맞춤형처럼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진로 프로그램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업성과에 대해서 청소년들의 만족도 부분은 대체로 5점에서 4~4.5점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 주로 놀고 즐기고 하는 캠프에 대한 만족이 높기는 해요. (중략) **만족도 자체는 지속적으로 오는 애들은 또 하고 싶어 하고 지속적인 거** 같아요. (A센터 참여자)
>
> 정말 아이들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라든가 이런 만족해 하는 부분들, 학습에 있어서의 어떤 자기들이 뭔가 깨우쳐가는 거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D센터 참여자)
>
> 집단상담을 할 때는 진로에 대해서 말 그대로 진로 상담이니까 진로 이런 쪽에 강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진로결정을 했냐, 관심군이 생겼냐 비교를 했을 때 **프로그램 전보다 후가 나아지고 애들이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경험했을 때** 연속성이 생기거든요. (E센터 참여자)

진로에 대한 고민 시작, 관심 증가

FGI 결과, 진로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이를 통해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고 고민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B센터 참여자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고민하기 시작했고, 또 관심 있는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구체화했다는 점을 긍정적 성과로 보고하였다. D센터 참여자 역시 청소년들이 막연한 상태에서도 진로와 관련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시작했다는 점을 진로설계프로그램의 성과로 꼽았다. 또한, 무기력 상태의 청소년에게 진로에 대한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청소년이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점도 의미있는 성과임을 강조하였다.

> 대학에 가고 싶어졌다거나 좀 더 진로 내용이 많은 프로그램이 되면 좋겠다고 하거나 자기가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지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진로 자체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는 게 중요한 거 같고요 (중략) 본인들이 집에 누워서 핸드폰 하느니 여기 오는 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자발적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B센터 참여자)
>
> 아이들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막연한 상황에서 아주 작은 동기 하나 그건데 그래도 뭔가가 **내가 뭔가를 좀 해야되는 게 아니야?라는 이런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제공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큰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 정말 무기력했던 아이가 이렇게 혼란의 경험을 **고민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 이것도 하나의 성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D센터 참여자)

부수적 긍정 효과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설계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얻게된 부수적인 성과도 있었다. B센터 참여자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된 캠프를 통해 청소년들의 욕구와 특성을 파악하면서 다른 프로그램 기획에 참고할 수 있었다. 특히,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가족 외에 의미있는 지지체계가 있음을 알게 해주었다는 점에 의의를 두었다. E센터 참여자는 처음에는 위축되어 표현도 하지 못했던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부모에게 부모 교육 참여를 제안하는 등 점차 의사표현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저희도 성과라고 하면 일단 기관 차원에서 이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을 격주로 본다거나 캠프를 갔다 오면 어쨌든 하루 종일 관찰하는 시간들이 나오다 보니까 **아이들에 대한 욕구 파악**이나 아니면 이런 특성의 친구들이 많구나, 그러면 이 친구들로 뭘 하면 좋겠다는 거를 좀 더 생각하게 되고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반영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거까지 도움이 되는 거 같고요. (B센터 참여자)
>
> 이런 프로그램들은 다 차치하고 무슨 일이 났어, 엄마에게 말을 못해도 선생님에게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아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에 이런 기관, 어른들이 있다는 거를 인지를 시켜 주고 **지지하는 체계가 가족 말고도 더 있다**는 거를 알려 주려는 것도 있거든요. (B센터 참여자)
>
> 오는 친구들 자체가 위축이 되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상담이나 집단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초등 고학년이 훨씬 더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본인 의사가 불분명해요 (중략) 부모교육에 가 봐 하면서 **표현을 하는 친구들이 늘고있는 추세예요.** 그런 거를 봤을 때는 그래도 우리 애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센터 참여자)

나. 다양한 방식의 홍보

SNS 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

청소년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접근성이 용이함에 따라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의 홍보 및 대상자 발굴을 위해 센터에서도 SNS를 이용하고 있었다. D센터 참여자는 최근 SNS를 통해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홍보하면서 청소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진로설계프로그램과 상담 지원에까지 연결이 가능했다고 보고하였다.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SNS를 활용한 홍보 방식의 긍정적 효과를 보여주었다.

> 근데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 **SNS 홍보**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좀 이렇게 요청한 친구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6명 정도를 올해는 좀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중략) 다른 혜택에서 좀 이렇게 안 되거나 진로 쪽으로 조금 더 어떤 도움을 받고 싶어한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또 흡수를 해서 이 아이들을 **개별 컨설팅이나 상담까지 연결**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D센터 참여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순회 교육 및 홍보

가족센터가 도심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 또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특정 읍면 지역 등에 집중되어 있을 때, 센터에서 직접 해당 지역의 행정복지센터 등을 방문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동시에 실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E센터 참여자는 지역 특성상 읍면 거주 대상자가 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찾아가는 순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때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거리의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센터를 자주 방문하기 어려움에 따라 순회 교육 및 홍보는 대상자 모집, 발굴에 있어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방식으로 보인다.

> 저희는 일단 발굴하고 선정, 선발하는 게 어려우니까 선착순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계해서 하고 있고 **지역 특성상 읍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센터에 오기 어려우실 경우 찾아 가는 순회 교육을 하거든요. 그럴 때 홍보를 많이 합니다**. 그쪽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생 이상이 많이 살고 있어서 그때 읍면지역 거주자들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보통 모집을 하고요. (E센터 참여자)

지역사회 교육체계를 활용한 홍보

FGI에 참여한 센터들은 대체로 학교와 교육청, 지역 내 여러 협의체를 통해 사업 홍보를 하고 있었다. A센터는 지역사회 내 각종 교육협의체에 모두 속해 있으면서 가족센터 사업을 홍보하고 있었으며, 특히 진로관련해서는 중·고등학교 협의체에서 관심을 보이는 입시 설명회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B센터 역시 지역사회 교육복지협의체(現, 교육복지안전망)에 참여하면서 홍보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해당 자치구에 6개 권역 협의체가 있어 센터 사업을 홍보하고 프로그램 대상자를 연계받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로부터 직접 방문하여 사업 홍보를 해줄 수 있는지 요청을 받기도 하였다.

> 저희도 **교육협의체** 14군데 다 들어가 있고요. 모든 가족센터 사업을 홍보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하는 대상의 중고등학교 협의체를 가 보면 그분들은 상담 관련된 거나 학교 규정에 관련된 거를 더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진로라든지 취업에 대한 것들은 연중에 세워 놓고 진행하시는 경우가 많으셔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보다는 안에 있는 진로 컨설팅이라든지 컨설팅 말고 취업, 진학 관련된 입시설명회 같은 거를 열면 관심있어 하세요 (중략) 학교에 문서를 통해 다 뿌리거든요. (A센터 참여자)
>
> 발굴을 하려고 할 때 지역 내 **교육복지 협의체**가 잘 되어 있어서 거기서 연계를 하는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는 6개 권역 협의체가 있고 모든 권역을 다 갈 수 있게 해서 참여를 해서 센터 사업을 홍보를 하고 대상자를 연계 받으려고 하고 있고요 (중략) 학교 선생님이 **학교에 찾아 와서 직접 홍보를 해 줄 수 있냐**고 말씀을 하신 적도 있으세요. (B센터 참여자)
>
> 저희가 이 사업 처음 생겼을 때부터 학교랑 좀 연계를 많이 필요로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길 때부터

홍보를 진행했던 게 있어서 (C센터 참여자)

학교 위클래스나 그다음에 학교 복지사 선생님들의 협의회가 있거나 이럴 때 (중략) 사업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아이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저희들에게 좀 연락을 주십사 이렇게 해서 홍보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D센터 참여자)

협의체 그런 거는 없는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계속 홍보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현저히 적고요. 위기 고등학생이 들어오는 경우 저희가 위센터와 연계를 하거든요 (중략) 유관기관이 너무 부러운데 저희는… (E센터 참여자)

C센터의 경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학교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있으며, 또 진로설계 프로그램을 청소년 상담사가 진행함에 따라 학교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였다. D센터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도 하지만, 학교 위클래스와 교육복지사와의 협의체를 통해 사업 안내와 홍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C센터와 마찬가지로 D센터 역시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와 달리 학교를 통한 진로 관련 연계는 사실상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순회 교육 및 홍보를 주로 하고 있는 E센터에서는 학교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하지만 위센터를 통한 위기청소년 연계만 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표 Ⅵ-29.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프로그램 운영 주요 성과와 효과적인 홍보 방법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긍정 효과 및 만족도	청소년들의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 변화	• 싱담과 맞춤형 진로 프로그램 등에 만족(캠프 만족도가 특히 높음) • 변화되는 모습이 관찰됨, 만족도도 높음. • 진로상담 프로그램 사후검사가 긍정적 결과를 보임.
	진로에 대한 고민 시작, 관심 증가	• 진로에 대한 고민 시작과 관심 증가 • 동기가 생김, 진로탐색 기회를 통해 고민하기 시작
	부수적 긍정 효과	•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다른 프로그램 기획에 반영 • 가족 외 지지체계가 있음을 인식하게 함. • 위축되었던 청소년들이 점차 표현하게 됨.
다양한 방식의 홍보	SNS 홍보를 통한 참여 유도	• SNS 홍보를 통한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로 컨설팅, 상담 지원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순회 교육 및 홍보	• 원거리, 읍면지역의 경우 순회 교육 시 홍보를 병행하여 대상자 모집
	지역사회 교육체계를 활용한 홍보	• 교육복지협의체, 지역사회 내 관련 협의체를 통해 사업 홍보(대상자 연계) • 학교 대상 직접 홍보 • 학교와 교육복지사와의 협의체 통해 홍보 실시

④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애로사항

가. 사업 초점 변화(정서지원→진로설계)에 따른 운영 애로사항과 대응

사업운영 및 전문 인력 활용에서의 혼선

진로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들은 사업 초기에 정서지원에 초점을 두게 되어 담당자를 청소년상담사로 채용하여 상담에 집중하였다. 그러나, 이후 진로설계 부분이 강화됨에 따라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A센터 참여자는 정서지원을 위해 청소년상담사를 담당자로 하여 프로그램을 시작했지만 이후 진로설계로 초점이 옮겨가면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계사업 등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더해지는 복잡한 상황에 대해 진술하였다. 이후 진로설계프로그램의 자원 연계를 위해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면서 업무를 분리, 진행했지만, A센터 참여자는 여전히 매뉴얼상에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해당 직무의 연속성에 영향을 끼쳤는데, E센터 참여자는 이후 진로설계프로그램의 비중이 더 커진 것에 대해 청소년상담사의 불만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이직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 진로는 22년부터 섞여 있었어요. 22년이 정서가 크고 진로가 조금이었다면 23, 24년도부터는 정서가 조금이고 진로가 주가 되는 걸로 바뀌었어요. (중략) 22년도에는 정서에 대한 부분을, 채용을 청소년 상담사 가지신 분들로 했잖아요. 지속적으로 정서 관련된 거를 하다가 진로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상담사인데 역할은 사회복지사의 역할도 플러스가 된 상황에서** (중략) 성과를 내셔야 하는 게 있어서 포지션이 뭘까에 대한 고민도 많으셨고 (중략) 이게 **명확한 매뉴얼상의 뭔가가 없다 보니까 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설계는 다른 게 무엇인가가 가장 고민, 화두가 되는 거 같아요.** (A센터 참여자)
>
> 저희는 일단 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 팀 안에 보직을 맡으신 분이 계셨는데 **해마다 바뀌셨어요**. 청소년상담사들은 말씀하신 대로 상담을 하러 오셨는데 **상담 비중보다 진로 프로그램을 돌리는 비중이 더 크니까 불만이 클 수밖에 없어요.** (중략) 애들이 한 번 오면 좋으면 계속 오는데 그거를 하는 담당자, 실무진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입사를 했을 텐데 상담하는 자격을 갖고 이런 거를 하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E센터 참여자).

담당자 역할 불일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한계

상술한 바와 같이, 진로설계프로그램 담당자의 초기 자격 기준이 청소년상담사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주로 정서지원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진로설계프로그램의 특성상 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연계 등에 대한 필요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불일치로 결국 현장에서는 여러 문제를 경험하게 되었다. A센터 참여자는 프로그램 개발이 상담사의 본래 역할이 아님에 따라 센터의 과거 진로관련 프로그램으로 겨우 사업을 운영한 것으로 회상하였다.

B센터는 청소년상담사인 담당자에게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과 관련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C센터 참여자는 청소년상담사가 진로설계프로그램을 담당하면서 어쩔 수 없이 상담에 초점이 맞춰지게 도미에 따라, 진로설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게 되는 상황을 토로하였다. 진로설계프로그램 개발 및 자원 연계를 어떤 전문가가 담당해야 하는지에 대해 FGI에 참여한 다수 센터는 사회복지사가 더 역할에 부합하다고 하였으나, 청소년상담사가 더 역할에 맞다고 생각하는 센터도 있어 5개 센터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았다. 현장에서의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더욱 분명한 자격 기준과 역할에 대한 상세 매뉴얼 및 안내가 필요해 보인다.

> 프로그램 개발하는 역할을 주로 하셨던 분이 아니신데 상담사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아니라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진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습하듯이 쫓아가는 상황**이 되어 버리더라고요. (A센터 참여자)
>
> 상담사에 대한 마인드가 조금 더 강하세요.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실무역량이 굉장히 뛰어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중략) 그래서 이런 사업 자체의 가닥을 뭘로 하고 싶은 지 자체에 대해서 **분명한 정비라든가 그거에 맞춘 자격기준이라든가 안내라든가** (B센터 참여자)
>
> 센터 자체에서는 청소년 상담사가 하는 거다 보니까 **상담에 포커스가 많이 가고 이제 진로 쪽을 가는 거는 아직 저희도 고민이 많이 되는 부분이라서.** 어떤 방향으로 갈지 (C센터 참여자)
>
> 청소년 상담사인데 매뉴얼상 진로 프로그램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담을 하지 말라는 소리냐. 비중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럴 거면 실무진 입장에서는 이렇게 확대가 될 거면 청소년 상담사보다 사회복지사가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않나 (E센터 참여자)
>
> 그냥 단순히 이렇게 연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의 어떤 니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것에 맞는 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이 조금 더 잘할 수 있고 (D센터 참여자)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상술한 문제로 인해 FGI에 참여한 센터들은 여러 방법을 활용하여 진로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A센터에서는 결국 직원을 더 채용하여, 상담사는 정서지원을, 그리고 새로 채용한 직원은 진로설계프로그램과 자원 연계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분리, 지원하는 방식으로 결정하였다. B센터에서는 상담과 진로설계프로그램을 병행하기 어려움에 따라 초기상담을 진행한 후 필요 시 전문 상담사에게 연계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으며, E센터에서는 그동안 팀장이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 업무를 함께 담당하다가 새로 직원을 채용하게 되었다.

기존에 상담을 주로 하셨던 **청소년 상담사 선생님은 정서적인 부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고, 직원을 한 명 더 뽑아서 진로 프로그램적인 부분, 네트워크적인 연계 부분**을 좀 더 가야 될 거 같다고 해서 분리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중략) (심리정서와 진로)를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분리를 해 보자 해서 이번 상반기 지나고 나서 채용을 결정을 해서 나눠 사업을 진행했어요. (A센터 참여자)

작년에는 저희도 진로설계프로그램 더하기 상담으로 같이 내려 오니까 다 같이 하려니 어렵더라고요.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 게 **초기상담 후에 전문 상담사에게 연계를 하는 걸로** (B센터 참여자)

저도 팀장이기는 한데 이 선생님이 하는 부분의 **절반은 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략) 저희는 채용을 했어요. (E센터 참여자)

나. 대상자 모집 및 발굴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음

진로설계프로그램의 대상자 모집과 관련해서 FGI 참여자들은 다문화청소년들뿐 아니라 주요 연계기관인 학교에서도 진로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다고 보고하였다. D센터 참여자는 다른 청소년들은 현실과 거리가 있는 응답을 하더라도 진로에 대한 생각이 있는 것에 비해, 다문화청소년들은 진로에 대해 뭘 해야 할지 아예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E센터 역시 다문화청소년들의 진로가 구체화된 사례가 거의 없었다고 언급하였다. A센터 참여자는 학교에서도 입시설명회가 아닌 동일 대상의 장기적인 프로그램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표했으며, D센터 참여자도 청소년의 문제 상황이 아닐 경우 진로와 관련한 학교의 요청이 거의 없었다고 회고하였다. 결국 학교를 통한 진로설계프로그램의 대상자 발굴은 기대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 중도입국 아이들이나 그다음에 다문화 쪽의 아이들을 만나서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어라고 물어보면 다 몰라요. 대답이 거의 이래요.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D센터 참여자)

그런 게 많고 정확하게 어디로 갈 거다 이렇게 구체화된 친구들은 별로 없어요. E센터 참여자)

진로 컨설팅이라든지 컨설팅 말고 취업, 진학 관련된 입시설명회 같은 거를 열면 관심있어 하세요. 하지만 동일집단을 갖고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관심 없어 하세요. (A센터 참여자)

학교를 통해서 사실 진로와 관련해서는 학교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D센터 참여자)

대상자 특성에 따른 발굴의 어려움

진로설계프로그램의 대상자 발굴에 있어, 또 다른 어려움으로 대두된 내용은 한국어로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A센터 참여자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청소년들이 프로그램 집단에 늘 있었다고 회상하였고, B센터와 C센터 참여자 역시 중도입

국 청소년인 경우 언어소통 문제로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다. 한편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할 다문화청소년을 찾기 힘든 근본적인 이유로 다문화청소년이 누구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청소년이 스스로 밝히지 않으면 학교에서도 다문화청소년 여부를 알 수 없으며, 학부모상담이나 학교폭력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가 되어서야 다문화 배경임을 알 수 있는 상황이어서(B, D, E센터)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설계프로그램의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들 데리고 프로그램 할 때도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애들도 집단을 모으면 2~3명씩 나오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혼자 동떨어지는 친구도 생기는 거 같아요. (A센터 참여자)

중도입국 자녀가 조금씩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싶은데 언어소통이 너무 안 돼서 대학생 멘토를 붙여서 하려고는 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B센터 참여자)

중도입국이나 외국인은 기본적으로 한국어가 안 돼서 그 베이스가 안 돼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C센터 참여자)

(교사들) 본인들도 자기 학교에 다문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극히 드물고 학부모 상담 때라든가 학교폭력 배경을 봤더니 다문화가정이었다는 케이스가 많다고 해 주셨고 (B센터 참여자)

학교 선생님들도 요즘은 아이들이 어떤 아이가 다문화 배경인지를 잘 모르겠다 사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D센터 참여자)

저희도 학교 선생님들 얘기처럼 본인들이 안 밝히면 모른다. 센터를 이용하는 친구들은 어느 정도 가정환경이 입증이 되면 연락을 해 보는데 엄마들이 들어오고 중도입국 자녀들이 많아지면서 본인이 부모 손을 통해서라도 안 오면 모르거든요. (E센터 참여자)

다.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공간의 문제

타 기관사업과의 중복 및 전문성 고민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서 FGI 참여자들은 학교를 포함한 다른 기관과의 사업 중복에 대한 고민도 토로하였다. B센터 참여자는 학교에서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고 있고 또 진로컨설팅에 더 전문적인 기관들이 있는 상황에서 센터에서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많은 고민이 있었음을 진술했다. E센터 참여자 역시 학교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같은 기관에서 진로탐색 및 진로설계와 같은 프로그램을 더 다양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유사한 고충을 토로하였다. A센터 참여자는 현재의 진로설계프로그램과 기존의 진로관련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에 대한 의문과 함께, 프로그램 내용이 중도입국 및 외국인 자녀에게 적합한지에 대한 고민과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어려움도 이야기하였다.

저희는 아까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학교에서도 진로체험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잘 돌아가고** 모집이 용이하고 학교에서도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그러면 애들은 **왜 우리에게 와야 될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중략) **진로컨설팅을 해 주는 진학센터**가 저희는 따로 있거든요. (B센터 참여자)

센터 내에서도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자녀성장, 미래설계 부분에서도 애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러니까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양한데 성격들이 비슷하니까 고충이 있었던 거 같아요. (E센터 참여자)

다문화청소년만을 위해 투입을 해야 하는 걸까, **기존의 진로 상담과 설계가 뭐가 다른 거지?** 이런 고민이 같이 오는 거 같아요. (A센터 참여자)

중도입국자녀, 외국인 입국 자녀들, 한국어가 안 되는 자녀들이 들어왔을 때 진로설계에 대해서, 다 한국식으로 맞춰져 있거든요. 어디를 가든 다 비슷한 포맷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적절한 부분이라는 거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이들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고요. (A센터 참여자)

운영시간, 접근성 문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시간과 접근성은 또 다른 어려움으로 대두되었다. 프로그램의 주 대상자인 청소년들의 하교 시간과 학원을 마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평일 낮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었으며(A센터), 결국 저녁시간이나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 근무자가 필요한 상황이었다(C, D센터). 읍면 거주 청소년들의 경우 센터 접근성이 더 떨어짐에 따라 전문 상담사를 파견하여 일부 문제를 해소하고 있지만(E), 그래도 센터를 방문하려면 저녁 시간이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어려움은 피하기 어렵다.

중고생들은 하교시간이 늦고, 학원시간이 있어 **평일에 사업을 못해요.** (A센터 참여자)

청소년들이 여기 센터 오는 시간 때문에 저희는 어쩔 수 없이 **화토 근무자를 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토요일도 항상 그래서 풀로 열려져 있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아이들을 오게끔 노력은 하고 있는데 (C센터 참여자)

늘 **저녁 끝나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주말에 뭔가를 해야 되거나** 이러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또 우리 담당 선생님한테 그런 것까지 다 하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D센터 참여자)

저희도 일단 아이들이 **자발성이 낮아요**. 저희가 ○○시이기는 하지만 다문화가정이 많고 □□에 거주하고 있지만 사실 저희랑 □□이 멀어서 □□에도 관할하는 기관이 있거든요. 아이들이 이쪽에 접근성이 떨어지니까 저희 자체도 따로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 상담사를 파견을 해요. **그러면 그나마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 저희도 고민이었던 게 읍면 애들이 학교를 마치고 저희 센터에 오는 거 자체가 저희 퇴근 시간과 맞물리니까**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 우려를 하다가 작년부터 그렇게 마련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E센터 참여자)

인력 충원, 운영 공간의 문제

초기 진로설계프로그램 담당자의 자격기준과 실제 업무의 불일치로 이직이 자주 발생한 것에 대해 앞서 기술한 바 있다. 그러나, C센터 참여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채용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매우 적음에 따라 신규 채용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다. D센터 참여자는 청소년상담사의 역량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였고, 가족센터 근무 경력이 청소년상담사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아, 근속이 가능할지에 대해 우려하였다.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공간 부족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되었다. A센터 참여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을 보고하였다. 구체적으로, 센터 내부적인 운영 공간의 부족을 외부 공간 대여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했지만, 비용적인 문제와 청소년 이용시설의 주말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B센터 참여자는 지역사회 연계가 센터 내 공간의 제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힘든 공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기도 하다고 토로하였다.

> 사실 여기로 저희가 채용을 올려도 서류 자체도 사실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두세 명 이 정도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고 다른 데도 그래서 많이 못 봅는 (C센터 참여자)
>
> 청소년 상담사들이 그냥 행정 일하고 프로그램만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끝나는 게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정작 이 선생님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중략) (청소년상담사) 1급을 할 때 이 가족센터에서 근무를 하면 나중에 이게 다시 다 증명을 해야되고 이런 게 있어요. 정말로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우리 가족센터에서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가 조금 걱정됩니다. (D센터 참여자)
>
> 또 하나는 운영공간이 없습니다. (중략) 애들이 이용하기 편한 공간확보가 안 되니까 외부 공간이라고 해서 우리에게 장기간 대여를 해 주는 기관은 없어요. 돈을 내더라도 비용이 비싸고 청소년 이용시설들이 주말에 열지 않는 곳도 많아요. 이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A센터 참여자)
>
> 지역사회 연계를 활발하게 하는 거는 자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업체험센터의 주방을 빌려서 베이킹을 하는 거고요. (B센터 참여자)

표 Ⅵ-30.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애로사항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사업초점 변화 (정서지원→ 진로설계)에 따른 운영 애로사항과 대응	사업 운영 및 전문 인력 활용에서의 혼선	• 처음에는 정서에 초점이 있었으나 이후 진로설계가 추가되면서 혼선 발생 • 상담보다 진로 비중이 커지면서 청소년상담사의 혼란과 잦은 이직 발생
	담당자 역할 불일치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한계	• 프로그램 개발이 상담사 본래 역할이 아님에 따라 과거 프로그램 답습 • 프로그램 기획과 운영을 위한 충분한 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움. • 상담에 초점이 맞춰짐에 따라 진로설계에 대해 고민 •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적절한 전문 인력에 대한 이견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 모색	• 신규 직원 채용을 통해 상담사는 정서 지원, 신규 직원은 프로그램과 연계 담당으로 분리 진행 • 초기 상담 후에 전문 상담사 연계 • 팀장의 프로그램 업무 지원 이후 결국 신규 채용
대상자 모집 및 발굴의 어려움	진로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음.	• 센터의 진로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무관심,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도 거의 없음. • 꿈에 대해 모르겠다는 청소년들이 많음. • 진로가 구체화된 사례가 별로 없음.
	대상자 특성에 따른 발굴의 어려움	• 중도입국 청소년의 경우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음. • 눈에 띄지 않아 대상자 파악이 어려움.
프로그램과 인력·공간의 문제	타 기관 사업과의 중복 및 전문성 고민	• 기존 진로상담과 큰 차이를 찾을 수 없음. • 기존 프로그램과 비슷한 포맷으로 운영, 새로 개발하기에는 어려움. • 지역사회에 진로와 관련된 더 전문적인 기관들이 있음. • 센터 내 사업 중복,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와도 사업 중복
	운영시간, 접근성 문제	• 청소년들의 시간을 고려할 때 평일 낮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 • 저녁시간이나 주말 근무로 어려움 발생 • 접근성 문제 해결위해 상담사 파견
	인력 충원, 운영 공간의 문제	• 운영 공간 부족, 비용, 주말 청소년 이용시설 미운영에 따른 어려움 • 공간 부족으로 지역사회 연계 불가피 • 담당자(청소년상담사) 채용의 어려움 • 상담사 전문성 활용 필요

⑤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가. 향후 사업 방향성 재고 필요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재고

FGI 참여자들은 진로설계프로그램을 포함한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거의 모든 프로그램

에서 다문화청소년만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 한계를 지적하였다. 또한, 향후 프로그램 진행 방향성과 관련하여 현재의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의 분리 지원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A센터 참여자는 비다문화청소년은 제외하고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 등을 우려하면서, 이렇게 분리하여 프로그램을 제공, 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여기에는 프로그램 대상자 발굴을 위한 홍보에서부터 지역사회 기관 연계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부분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B센터 참여자는 국내출생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스스로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상황에서 프로그램 참여 대상을 다문화가정 자녀로 한정하는 것이 오히려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 것으로 설명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이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또래와 '다르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의 대응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 B센터 참여자는 프로그램 방향성이 다문화, 비다문화청소년들의 통합, 성장을 기대하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FGI 참여자들이 언급한 비다문화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는 실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와 다문화청소년에만 집중된 예산이 오히려 차별일 수 있다는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프로그램이 지향하는 최종 목표와 현재의 프로그램 진행 방향성이 부합하는지에 대해 재고의 여지가 필요해 보인다.

> 비다문화 학생 부모님이 신청하셔서 **왜 우리는 안 되냐 하는 것들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홍보가 나갈 때도 외부적으로는 다문화 학생이라고 나가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 낙인이 싫어서** ○○○자녀라고 하거든요. (비다문화가정이) 신청을 하실 때 왜 안 되냐 하실 때 저희도 할 말이 많지는 않아요. **분리해서 계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하면 어떤 방향성을 가질지가 고민스럽고** 홍보에 어려움은 있어요 (중략) 학교라든지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센터라든지 뚫어 보려고 (중략) 꼭 다문화 학생만 해야 하는 거냐, 일정 부분을 섞어야 된다는 거에 그다지 긍정적이지는 않으신 거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진행이 어려운 거 같고요. (A센터 참여자)
>
> 아이들은 본인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말 잘하고 한국사람이고 별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업상 다문화 자녀라고 하니까 **다문화 자녀가 되는 벽이 하나 생겨 버리는 거예요.** (B센터 참여자)
>
> 지금은 실적 상 개선이 되어서 한국친구가 올 수는 있지만 실적에는 카운팅을 할 수 없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통합을 해서 아이들이 같이 성장하는 거를 바라는 게 최종 지향점인 건지** (중략) 4~5학년이면 내가 **이 친구와 다르네, 그런 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반응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거를 캐치했을 때 어떻게 해 줘야 하는 건지 (B센터 참여자)
>
> 요즘 예산이 다문화청소년을 타겟으로 해서 많이 내려오는데 **차별 아니냐**는 얘기를 다른 데서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는 거는 아니에요. (B센터 참여자)

사업 목표 및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명료화 필요

진로설계프로그램이 정서지원을 중심으로 시작된 후 진로에 대한 내용이 이후 강조되면

서 목표가 많아지게 되었고 결국 이를 현장에서 소화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B센터 참여자는 많은 목표 설정에 따른 담당자 자격 기준에 대한 고민이 있으며, 최종 목표를 명료화하고 이에 따른 담당 전문 인력의 자격조건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명한 목표하에서 이에 부합하는 교육 등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 이 **사업의 목적 자체가 조금, 너무 많은 거를 바라는** 목적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진로설계 영역과 학교생활, 일상생활, 정서적 지지와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 2개를 포괄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업의 담당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 고민**인 거예요. (B센터 참여자)
>
> 어떤 목적으로 가고 싶은지 최종 목표가 뭔지 거기에 관련된 **인력의 자격조건, 교육이 따라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B센터 참여자)

나.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침 개선

전문 인력 양성·배치 시스템 개선

A센터 참여자는 진로설계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및 학교와의 연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매뉴얼만을 참고하여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그리고 진로설계프로그램을 위한 진로분야 전문가의 필요성과 함께, 더욱 전문적인 지식 배양 및 전문가 양성 후 현장에 배치하는 등의 시스템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을 제안하였다. B센터 참여자 역시 사업의 분명한 목표에 기반한 담당 인력의 숙련도와 역량 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D센터의 참여자는 가족센터에 종사하는 청소년상담사들의 역량 강화 및 자기개발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FGI 참여 센터 중에는 사업 초기에 청소년상담사 1인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시작하였다가 이후 사회복지사 등을 신규 채용하면서 정서지원과 진로설계(프로그램 기획 및 자원 연계) 업무를 분리하여 진행하는 곳도 있었는데, D센터의 참여자는 이러한 인력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이에 대해 명확하게 지정해 줄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 지역사회 전문가가 되는데도 많은 시간이 들잖아요. **진로는 다른 분야거든요.** 전문가가 성장을 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오래 남아 계셔야 **지역에 연계도 되고 학교에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늘 기간들이 짧으신 분들이 많으시고 무슨 일을 하는 건지 고민이 많이 되시고 와서 **그냥 매뉴얼 하나를 두고 진로 프로그램을 만들라고 하니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올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중략)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중략)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갖추고

익히고 나서 다룰 수 있는 시스템이었으면 좋겠다 (A센터 참여자)

목적, 목표에 대해서 어떤 건지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담당하는 인력의 숙련도나 역량 강화가 아직은 더 필요한 단계인 거고 (B센터 참여자)

(청소년상담사들이) 행정적인 일에 소진되고 자기 개발을 좀 더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안 만들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선생님들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에도 좀 한계가 있고 자꾸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것에 대한 안정화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조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D센터 참여자)

(연구진: 한쪽은 사회복지, 한쪽은 상담사 이렇게 2명을 기본으로 채용하다면?) 예 그러면 너무 좋죠. 근데 정작 센터가 워낙에 사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인력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정해서** 주지 않으면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서 (D센터 참여자)

사업 운영방법 등 지침 구체화 필요

진로설계프로그램에서 지역사회 내·외의 자원 연계는 핵심 요소로, 실제 이 부분이 포함되지 않으면 센터 자체만으로 내실화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어렵다. 이를 위해 C센터 참여자는 현재 많은 센터에서 청소년상담사들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내 기관과의 연계 방법을 매뉴얼화하거나 이에 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앞서 인력배치 기준을 지정해 줬으면 한다는 D센터 참여자의 이야기를 연결하면, 전문 인력 활용 및 사업 연계 등에 대한 지침이 더욱 구체화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우선 그냥 청소년 센터랑 연계해서 해라 하기보다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그런 **매뉴얼이나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교육도 그렇고 저희가 청소년 상담사가 그냥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또 외부 연계를 해야되는 또 센터마다 상황이 있고 해서 그런 걸 **조금 발전시켜야 되는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C센터 참여자)

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앞서 FGI 참여자들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육관련 협의체를 통해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성과가 많지 않아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음을 호소하였다. B센터 참여자는 센터 자체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대한 안내를 위해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고 있지만 이러한 지역사회 내 홍보 효과에 의문을 표했다. 이는 앞에서 D센터 참여자가 지적한 것과 같이, 학교에서는 가족센터의 진로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B센터 참여자는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와 산하기관

이면서 가족센터들을 총괄하고 있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의 공적 체계를 통한 홍보가 실제 사업의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다. E센터에서는 주요 대상자가 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방문 순회교육 및 홍보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상자 발굴 및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따라, E센터 참여자는 새로운 사업 도입이나 확대 시 홍보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홍보 방법이 더욱 모색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 지역사회에 홍보를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는 얘기를 해요. **정부 차원에서 해 주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일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 학교와 연계가 잘 되는 거라고 하면 그 부분은 지역에서 우리도 많이 두드리지만 **여가부라든가 진흥원이라든가** 공권력이 있는 곳에서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저희도 교육청으로 공문을 되게 많이 보내요. (중략) 확인도 잘 안 되는 거다 보니까 지역에서 자체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을 도와 주시면 사업이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B센터 참여자)
>
> 모집을 하고 홍보를 하는 방법이 읍면에 가서 하니까, 홍보나 이런 게 비슷한 사업을 할 거면 확대가 될 거 같으면 **모집이라도 해 줄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면 좋겠어요**. (E센터 참여자)

표 Ⅵ-31. 진로설계프로그램 FGI: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향후 사업 방향성 재고 필요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지원 재고	• 다문화청소년과 비다문화청소년 간 분리 고착-통합 저해 등 우려, 향후 방향성 고민 • 다문화청소년 한정 지원에 따른 장벽 • 프로그램 내 다문화, 비다문화청소년 통합 여부 등 최종 지향점에 대한 고민 • 다문화청소년 한정 예산 집중에 따른 차별 논란
	사업 목표 및 전문 인력의 자격기준 명료화 필요	• 사업 목표가 너무 많아 사업담당자의 자격과 역할에 혼선 발생, 최종 목표와 자격기준 명료화 필요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침 개선	전문 인력 양성·배치 시스템 개선	• 지역사회와 진로 분야 전문가로서 담당자 양성 필요 • 분명한 목표에 따른 담당 인력 역량 강화 • 청소년상담사들의 안정적인 근속을 위한 제도 개선 • 인력배치의 명확한 지침 희망
	사업 운영방법 등 지침 구체화 필요	• 지역사회 내 기관 연계 방법 등에 대한 상세 매뉴얼화와 관련 교육 필요
정부 차원의 적극적 홍보 필요		• 대상자 모집 및 연계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 홍보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대상자 모집 및 홍보 방안 필요

2)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다문화청소년 중심) 현장실무자 FGI

(1) 조사개요

① 목적 및 조사대상자 참여 과정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있어서의 다른 한 축인 교육부에서 최근 시작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다문화청소년 지원 경험이 있는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초점집단면접조사(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학교 내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최근 정책사업의 진행 내용과 성과,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을 살펴봄으로써 정책 개선에의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본 집단면접조사를 위해 교육부로부터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초점을 둔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중 사업성과 및 확산, 개선방안 도출에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학교를 추천받았다. 다만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사업이 최근에 시작되었고, 또 해당 사업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심리·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표방하고 있어,[22]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하는 학교들이 많지 않았으나, 가능한 지역별로 안배하여 학교를 선정하였다. 아울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총괄 부장, 관련된 교내 다문화학생 담당인 교과 교사, 교내 복지 지원을 담당하며 해당 사업을 실제 수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 학교사회복지사) 등 지원사업 체계의 여러 관계자를 섭외함으로써 다양한 역할의 참여자로부터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였다.

최종 FGI 참여자는 서울 지역 1명, 강원도 지역 1명, 전라도(광주) 지역 1명, 경상도 지역 2명으로 진로상담교사, 외국어교과 담당교사, 일반 교사, 학교사회복지사 등 5명으로 집단이 구성되었다(표 VI-32). FGI에 참여한 학교들은 해당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환경에 차이가 컸으며, 이에 따라 학교 분위기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A중학교는 서울 외곽지역의 재개발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로 학교 규모가 축소되는 상황이었고, 참여자A는 진로상담교사이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었다. 참여자B의 학교는 강원도 내 도시 외곽에 있었으며 전교생 500명 내외의 중간 규모로, 참여자B는 교과를 담당하는 부장 교사이지만 학생맞춤

22) 출처: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 https://www.kedi.re.kr/studentsupport/content/124.do 에서 2024.09.14. 인출.

통합지원사업을 총괄하고 있었다. C중학교는 광주광역시 내 인근 산업단지가 있는 다소 낙후된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FGI 참여자는 오랜 기간 교육복지사로 근속하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다. 참여자D의 학교는 경상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 도시에 위치한 전교생 800여명 수준의 규모가 큰 학교였다. 이 학교의 FGI참여자는 외국어 교과담당 교사로 D학교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담당자 중 한 명이었다. E중학교는 경상북도 내 중간 규모 급 도시에서 주변 아파트단지 내 위치한 학교로 전교생이 700명 내외였다. 이 학교의 교육복지사인 참여자E는 작년에 이 학교로 옮기게 되면서 E중학교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이 매우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표 Ⅵ-32.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선도학교(다문화청소년 중심) 면접참여자 정보

번호	지역	구분	직위(보직 등)	학교	지역 특성 및 학교 규모
1	서울	참여자A	진로상담교사 (진로상담복지부장)	A중학교	• 서울특별시 외곽 ○○구 재개발 지역으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작은 규모의 학교
2	강원	참여자B	교사 (학생안전부장)	B중학교	• 강원도 내 □□시 외곽에 위치 • 전교생 500명 내외 중간 규모의 학교
3	광주	참여자C	교육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C중학교	• 광주광역시 ◇◇구 다소 낙후된 지역(인근 산업단지 소재) • 전교생 500명 내외 중간 규모의 학교
4	경남	참여자D	교사 (외국어 교과담당)	D중학교	• 경상남도 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공단지역 △△시 위치 • 전교생 800명 내외의 큰 규모의 학교
5	경북	참여자E	교육복지사 (지역사회교육전문가)	E중학교	• 경상북도 ▽▽시에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소재 • 전교생 700명 내외의 큰 규모의 학교

② 조사내용 및 방법

FGI 내용은 표 Ⅵ-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이 실제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요 사업성과와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다문화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지원이 필요한 교내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상황의 다문화청소년에게 매우 유의미한 지원사업이다. 이에 향후 사업의 확산을 고려하여 학생맞춤통합지원 성과와 그 요인, 그리고 지원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통해 전반적인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조사내용 초안은 연구진이 개발하고 이후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를 방문하여 자문을 받아 보완하였다. 확정된 최종안은 IRB심의 후 FGI에 사용하였다.

본 FGI가 전국 각지에 위치한 학교들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함에 따라 원활한 참여와 진행을 위해 ZOOM을 활용한 온라인 화상방식으로 진행하였다. FGI는 여름방학 시작 전인 2024년 7월 2일 오후에 실시하였으며, 연구진은 조사위탁기관의 간담회실에서, FGI 참여자는 각자의 사무실 등에서 ZOOM 회의에 참여하였다. 조사참여 및 개인정보활용과 영상녹화에 대한 사전 동의를 득한 후 총 1시간 30여 분간 FGI를 진행하였으며, 종료 후 녹화된 자료는 이후 녹취 과정을 거쳐 분석에 활용되었다.

표 Ⅵ-33.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주요 내용

영역	주요 내용
1) 환경적 특성	- 학교의 지역/환경적 특성 - 다문화청소년 재학 현황 및 특성
2) 지원 정책 현황	-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 참여 및 추진 경과 - 다문화청소년 대상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 현황(정책 및 프로그램) - 청소년과 가족 대상 지원내역 - 직접 또는 위탁 운영, 지역사회 연계 내용 - 지원 청소년 선정 기준 또는 발굴 방법
3) 주요 사업 성과	- 주요성과 및 요인 - 참여 청소년(가족) 만족도 - 홍보 및 확산 방법
4) 지원 애로사항	- 지원 시 문제점 및 한계
5) 개선 방안	-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기대와 현실 - 기존 지원정책과의 유사점 및 차이점 - 정책적 한계 및 발전·개선 방안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로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으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심리정서적 어려움뿐 아니라 학습부진, 경제적 어려움과 학대, 학교폭력 등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학생 대상의 "통합"지원에 주안점을 둔 사업이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 관련 지원을 염두에 두되, 해당 사업이 최근 교육부에서 시작한 정책사업임에 따라, 향후 확산을 고려하여 지원 성공사례와 그 요인, 개선방안 등에 방점을 두고, FGI참여자들로부터 수렴된 정보와 의견들은 연결,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앞서 살펴본 가족센터에서의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설계프로그램과 같은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와 협력이 가능한 지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앞의 진로설계프로그램 담당자 FGI 분석과 마찬가지로 FGI 전사 자료를 읽으면

서 영역별로 내용을 구분한 뒤, 각 영역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 차례 읽으며 자료를 코딩하고 의미단위들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범주화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결과를 분석하였다. 도출된 의미단위와 범주 등에 대해서는 연구진 간 상호검토를 통해 그 타당성을 점검하였다.

(2) 주요 결과

① FGI 참여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다문화청소년 특성

FGI 참여자들을 통해 파악된, 다문화청소년 중심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다문화관련 환경과 배경, 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에 대해 정리하면 〈표 Ⅵ-34〉와 같다. 학교별로 두드러진 내용은, 재개발 및 낙후 지역에서의 경제적 어려움, 인근 산업단지, 공장 지역으로 인한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일부 학교의 경우 중복 해당되기도 하였다.

표 Ⅵ-34.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참여 학교 다문화관련 배경

번호	지역	구분	학교	다문화 배경 및 다문화청소년 특성
1	서울	참여자A	A중학교	• 재개발 지역이어서 타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많으며, 학생 수는 적지만 다문화학생은 10% 초반의 분포를 보임. • 부모의 국적이 주로 중국 또는 베트남으로, 이집트나 파키스탄 부모들의 자녀도 입학하였음. 전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음. • 학생 수가 적어 학교로부터의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음.
2	강원	참여자B	B중학교	• 다문화 학생 비율이 10%에 미치지는 않음. 부모들의 국적이 베트남, 중국, 캄보디아, 일본, 필리핀, 카자흐스탄 등 다양함. • 도시외곽지역으로 교육열이 낮은 분위기이며, 다문화학생뿐 아니라 전체적인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족함. • 다문화청소년들은 모두 의사소통이 잘 되고 있으며 학습 수준은 낮아도 어려움을 경험하는 사례는 많지 않음.
3	광주	참여자C	C중학교	• 다문화 학생 수 비율이 2019년에 비해 약 3배 급증함. •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과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 배경 학생이 전체 약 70%에 달함. • 다문화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으며, 자존감과 지기표현력 등도 낮음. 심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측면이 모두 취약한 학생들이 많음. 사교육보다는 학교교육에 의지하는 경향 • 인근 산업단지의 영향으로 일시체류 신분의 학부모들이 많으며, 이들의 자녀인 다문화 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번호	지역	구분	학교	다문화 배경 및 다문화청소년 특성
4	경남	참여자D	D중학교	• 다문화 학생 비율은 5~10% 정도로 대부분은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사례도 있음. • 한국어를 잘하는 학생들의 경우 소통에는 문제가 없지만 학업 수준은 낮은 편임. • 중국,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부모의 국적이 다양함.
5	경북	참여자E	E중학교	• 교내 전체 다문화 학생 비율이 5% 미만으로 학교 규모를 고려하더라도 그 수가 많지는 않음. • 다문화학생들의 어머니는 결혼이주 여성이 대부분으로 베트남과 중국 국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일부 가정환경 및 심리정서적으로 심각한 상황에서 학교부적응 등 복합적인 문제를 지닌 다문화학생 사례가 관찰됨.

가. 재개발, 낙후 지역 특성

A중학교가 위치한 곳은 재재발 지역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학교 규모가 점차 축소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다문화학생의 비중은 10%를 넘었는데, 전반적으로 가정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으로 보고되었다. C중학교는 저소득층이 많았고, 학교 주변이 낙후되어 있어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놀이 공간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 주변이 이제 재개발 이런 것들로 좀 어수선하고 하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좀 아이들 **형편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A학교 참여자)
>
> **저소득층**이 많다 보니까 사교육보다는 오로지 그냥 학교 교육에만 의지하는 경향이 많죠 (중략) **낙후**되다 보니까 지역이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그런 **문화시설이나 놀이 공간이 부족**하고요. (C학교 참여자)

C중학교의 참여자는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청소년들의 기초학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진술하였다. 시 외곽 지역에 위치한 B중학교에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교육열과 함께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 외곽지역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육열이 낮고 또 기초학력이 부족**한 친구들이... 그런데 여기 다문화 학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학생들 수준이 그런 학교고요. (B학교 참여자)
>
> 다문화학생들 **전반적으로 다 기초학력이 낮고요. 자존감도 낮고 자기표현 능력이 낮고요**. 그다음에 **심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중첩**된 애들이 많아서..(C학교 참여자)

나. 인근 산업단지의 일시체류자 유입 증가

FGI에 참여한 C, D 중학교의 경우 공통적으로 인근에 산업단지 및 공업지대가 있었다. C중학교에서는 일시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노동자 학부모들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가정환경의 다문화학생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분위기였으며 자녀와 부모 모두 한국어로의 소통이 어려운 사례들이 많았다. C학교 참여자는 다문화학생과의 한국어 소통이 불가능하여 통역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기도 하였고, 학부모의 한국어 수준은 더 심각한 상황이어서 가정 방문 시 이중 언어 강사와 동행하기도 하였다. D학교의 다문화청소년들은 대부분 한국어를 잘 구사하였으나 역시 일부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해 지원방안을 찾기 어려운 상황도 관찰되었다.

한국어 의사소통이 굉장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담임하고나 저하고도 소통을 할 때 통역 어플을 사용하는 경우가 좀 있고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생들보다 더 한국어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정 방문을 가면 이중 언어 강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려고 할 정도입니다. (중략) 이쪽 지역이 산업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체류 신분의 다문화 학생들이 꾸준히 많고요.** (C학교 참여자)

올해 저희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한국어 자체를 못해가지고**....이 학생은 이제 한국어를 아예 못하고 **부모님도 한국어를 아예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 학생을 도와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D학교 참여자)

다. 복합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FGI 참여자들을 통해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사례도 보고되었다. C학교 참여자는 청소년들의 부족한 기초학력, 낮은 자존감과 자기표현능력 부족과 같은 심리적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다중적인 문제를 지닌 청소년들이 많아 개별 사례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E학교 참여자는 결혼 이주 여성인 어머니의 문제로 청소년이 따로 지내는 등 가정환경 상의 문제뿐 아니라 초등학교 6학년 시기에 자해를 경험하고 학교를 자주 결석하는 청소년 사례를 보고하였다. 다문화청소년을 둘러싼 이러한 심각하고 복합적인 문제 사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 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네 학생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기초학력이 낮고요. 자존감도 낮고 자기 표현 능력이 낮고요. 그다음에 심리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중첩된 애들이 많아서 맞춤형 돌봄이 많이 필요**합니다. (C학교 참여자)

엄마는 전혀 만나지 않고 있고 이제 만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약간 **자해를 하면서** 발굴이 돼서..(중략) 간신히 이제 유예를 면한 그런 시점인데 현재도 **결석을 굉장히 또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D학교 참여자)

표 Ⅵ-35.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참여 학교 환경 및 다문화청소년 특성

범주	의미단위
재개발, 낙후 지역 특성	• 재개발로 어수선한 분위기이며, 경제적 수준이 높지 않음. • 외곽지역으로 교육열이 낮고 기초학력 부족 • 저소득층이 많고 낙후되어 있어 문화/놀이 인프라 부족 • 기초학력 수준도 낮음.
인근 산업단지의 일시체류자 유입 증가	• 일시체류자 신분의 외국인 자녀 증가에 따라 한국어 소통이 힘든 학생 다수 • 일부 학생과 학부모와는 한국어 소통 불가
복합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 낮은 기초학력과 자존감, 자기표현 능력 부족 등 심리적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 다문화배경 부모의 가정 문제로 자해 경험, 잦은 학교 결석 등 복합적 문제 사례

②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 현황

가. 2023년 하반기 도입 후 위기청소년(다문화청소년 포함) 지원

FGI에 참여한 대부분의 학교는 2023년 9월부터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로서 해당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 도입 단계에서 교장 등 학교관리자들의 사업 취지에 대한 설명이나 교육부 주관 연수과정 등을 통해 기존의 저소득계층 학생 중심의 교육복지 지원과는 달리 이 사업을 다양한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A, D학교 참여자). 또한, 이 과정에서 지원 대상 청소년 발굴을 위한 담임교사들의 협조 중요성도 파악되었다(C학교 참여자).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은 심리정서적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에 포함되기도 하며, 학업중단위기 등 특별한 상황에 있을 때, 지원받고 있었다.

> 좀 더 대상이 확대되어서 어떤 특정 경제적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만이 중심이 된 그런 지원에서 **다양한 위기 학생들을 좀 더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어서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A학교 참여자)
>
> 학맞통(이하 "학생맞춤통합사업" 의미)을 작년부터 시작했습니다. 9월부터 시작했는데 8월에 교육부 주관 연수를 갔다 온 후로 저희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파악하기에 **담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학교 참여자)
>
> 작년 9월부터 교장 선생님께서 학맞통을 가지고 오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갑자기 교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힘든 학생 있으면은 알려만 달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D학교 참여자)

학맞통 사업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 지원을 하다가 그중에 다문화 학생인 경우가 있는 케이스들이어서요. 저희가 ○○○프로그램을 또 운영하다 보면 그렇게 선생님들이 **좀 심리적 어려움을 겪어서 이렇게 아이들을 데려가는 케이스에 다문화 학생들이 종종 껴 있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고 있고요.** (B학교 참여자)

어머님하고 (한국어) 소통이 전혀 안 돼서 남학생이 되게 방황을 많이 하고 있는 친구고 이제 3학년인데 졸업이 이제 올해만 잘 다니면 되는데 학교를 계속 안 나오려고 하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 막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시다가 (중략) (B학교 참여자)

나.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제공

FGI 참여자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지원 사례로, 방과후 돌봄, 생필품 지원, 체육 관련 학원비 지원, 의료지원, 반찬 및 학용품 지원, 사제동행과 같은 교사와의 상담 지원 등을 보고하였다. A학교에서는 방과후 시간과 학원 등원 전까지의 시간, 또는 저녁 시간까지 학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방과후 프로그램과 간식 등을 지원하였다. B학교에서는 어머니와 소통이 되지 않아 방황하며 학교 출석을 잘 하지 않는 다문화청소년에게 상담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고 희망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도록 하였다.

저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이제 집에 빨리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도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학원에 가야 하는데 시간이 좀 이렇게 비어서 **어디 마땅히 있다가 갈 곳이 없는 그런 아이들이 편안하게 학교에서 시간을 좀 보내고 또 관리도 받으면서 있다가** 귀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중략) 시험 기간 앞두고는 한 열흘에서 2주 동안은 7시 반까지 좀 더 시간을 늘려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렇게 길게 운영할 때는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간식을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A학교 참여자)

그 친구가 어머님이 ○○○(국적) 분이신데 **어머님하고 소통이 전혀 안 돼서 남학생이 되게 방황을 많이 하고** (중략)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서 선생님들이 상담을 하시다가 (중략) (청소년이) **복싱을 한번 배워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복싱을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B학교 참여자)

C학교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일환으로 생필품과 체험학습비, 체육학원비 제공, 의료지원 등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곳에 지원할 수 있었다. D학교 참여자는 반찬 지원과 생필품 및 학용품 꾸러미 등의 지원이 교육복지사를 통해 가능했는데, 교육복지사가 없다면 담당교사가 이러한 부분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그 학생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식자재 마트 (중략) **생필품**만 해준 게 아니라 **체험학습비 체육비 의료 지원 학원비**도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학맞통의 장점은 어느 선이 없이 일정한 규정이 없이 이렇게 예산을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학교 참여자)

반찬 가게도 알아봐 주시고, 저희 학교는 그래도 **복지사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필품 꾸러미라든지 학용품**

꾸러미라든지 이런 거를 마트에 가가지고 이제 주문해 가지고 배달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다른 학교 같으면 이거를 담당 교사가 해야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D학교 참여자)

다. 지원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전달 방식

담임교사/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FGI 참여자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학생 발굴에 있어 담임교사 역할의 중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하였다. 사업 도입 초기에는 각 담임교사에게 지원 대상 학생 발굴을 요청하면서도 교사들의 협조 정도에 대한 우려도 있었지만(B학교), 그만큼 사업관계자들은 학생의 상황을 가장 가까이에서 파악할 수 있는 담임교사들의 협조가 필수적임을 인지하고 있었다(C학교). 각 학급에서 지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교내 회의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함에 따라, 담임교사는 최일선에서 학생의 필요와 지원요청을 대면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다. E학교에서는 중간관리자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리더십 덕분에 교사 및 교육복지사들의 책임감이 강화되었고, 결국 지원 대상 학생 발굴에 긍정적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음에 각 학급 선생님들께 학생 발굴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지만 요청을 드리면서도 **이게 잘 운영이 될까라는 염려를 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도 역시나 담임 선생님들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결국은 **담임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B학교 참여자)

8월에 교육부 연수를 갔다 온 후로 저희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파악하기에 **담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학교 참여자)

(전략) **선생님들의 추천이 있어야지** 이제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 (D학교 참여자)

부장님께서 (중략) 복지 마인드가 훌륭하고 제가 보니까 또 리더십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선도학교 때문에 □○부장을 교장 선생님께서 조금 맡기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중략) 부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당연히 해야 돼라고, 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임하다 보니까 학생 발굴도 잘 되고 있고** (E학교 참여자)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은 학교 시스템을 통해서도 쉽지 않으며, 다만 각 학급 단위에서 담임교사들의 조사를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23] 그리고 이렇게 파악된 다문화청소년들은 다른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먼저 담임교사의 추천 후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이 가능했다.

23) FGI 실시 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방문한(2024.06.19.) 학교에서도 확인된 내용으로, 학교의 교육복지사는 다문화학생으로 파악되지 않은 청소년들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저희 학맞통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의 추천이 있어야지 이제 그 회의를 거쳐 가지고 저희가 도와주고 있고 (D학교 참여자)

정기 회의를 통한 서비스 전달

본격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2023년도 하반기에 시작되면서 지원 대상 청소년의 발굴 및 추천, 지원 결정을 위한 일련의 지원 서비스 전달 과정이 체계적인 형태로 잡혀가고 있었다. C학교에서는 사업예산 규모를 고려하여 매주 사례회의, 또는 매월 2회 사례회의를 진행하였고 지원 필요성에 따른 대응책과 추진 체계를 준비하여 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교내 교육복지사업과 병행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D학교에서는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거의 매주 관련 회의를 개최하였는데, 한 달 중 첫째 주와 셋째 주 회의에서는 각 학년부에서 지원 대상 청소년을 추천하였으며,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이렇게 추천받은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및 개입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렇게 진행되는 지원 대상 추천과 지원방법 결정을 위한 체계적인 정기 회의는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누락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지원을 제공받는데 기여한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가 **대응책과 추진 체계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학맞통 사업과 **교육복지 사업의 병행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C학교 참여자)

교감 선생님께서도 이제 조금 체계적으로 가자 우리가 선도학교이기 때문에 (중략)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의를 매달 그러니까 거의 매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 달 중에서 **1, 3주는 학년부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학생들을 2, 4주에 (사례) 회의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얘기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학교 참여자)

라.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민관(民官) 연계 지원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자원 연계

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지원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추진 배경 중 하나이다(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2023).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또는 지원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지역사회 내 자원, 시설, 기관과의

연계는 매우 필수적인 지원방법이다.

FGI에 참여한 학교담당자들 역시 지역사회 지원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또는 전국 규모의 민간 단체와의 자원 연계를 통해 다문화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상황의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C학교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좋지 않은 청소년에게 지역사회 내 행정복지센터와 지역보장협의체 등을 통해 긴급 생계 지원이나 신입생 준비물 등을 지원하였고, D학교에서는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연계를 통해 가정상황을 파악하여 지원 대상을 발굴, 지원하고 있었다. E학교에서는 다문화가정이면서 교육복지 지원사업 대상인 청소년을 ○○교육청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해 상담 연계하였고, 지역 내 종교기관과 가족센터(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생활비 지원과 가전제품 교체, 병원비 지원 등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사회 내 연계를 통한 지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다기보다, 기존의 복지서비스 차원의 학교 내 교육복지사의 자원 연계의 성격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 갑자기 아버지가 좀 사망을 하셨거나 그래서 생계가 어렵다 그러면 **긴급 생계 지원비**로 해서 구청에 있어요. 구청에다 지원 요청하고 일반적으로 수급자들을 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 연계를 하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 있는 지역보장협의체에도 예산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요청을 해가지고 고등학교 들어가는 **신입생들 준비물** 같은 거 해서 (C학교 참여자)
>
> 학생 집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이제 복지사 선생님께서 **지역 복지관을 연계해가지고** (중략) 3명 정도 저희 발굴해가지고 복지관과 연계해가지고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D학교 참여자)
>
> 다문화 학생 자체가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에 또 대상 학생이기도 하고 이러는데, 이 학생은 건강이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교육청**에 지역사회 안전망 그쪽으로 통해서 **상담**도 **연계가 되고,** 그러면서 또 다른 지역 기관, 절에서 어려운 학생 돕고 싶다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매월 20만 원씩 생활비 지원도 해주고, 또 다문화 직원 가족센터 거기에서 냉장고도 또 교체를 해주고 (중략) 병원비 지원 같은 것도 이렇게 해주고 (E학교 참여자)

민간 복지단체 연계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학교를 포함한 교육체계 외에 다양한 민간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 사례도 다수 보고되었다. C학교에서는 여러 민간 복지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장학금 지원뿐 아니라 학부모 치료, 다문화청소년 문화체험비,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 다문화학생 가정의 어머니 대상 심리치료비 등의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학원비를 지원하였는데, D학교와 E학교에서는 이를 통해 학원비를 제공하고 있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을 통한 이러한 지원

은 교육부와의 업무협약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가 필요한 자원 연계를 신청할 때, 해당 재단에서 학생별 맞춤형 보육·교육·의료·주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24] 향후에는 민간재단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뿐 아니라 유사한 성격의 여러 민간복지재단, 기업의 복지재단, 학교사회복지사협회 등과의 자원 연계를 통해서도 지원하고 있었다.

> 그 학원비를 무조건 학맞통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지원**해 가지고 민간재단에서 25만 원씩 4명 해가지고 천만 원을 더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부모 회상 치료**에도 (중략) ○○복지재단(기업체 운영)에서 연체된 아파트 관리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C학교 참여자)
>
>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있는데 **학원비**도 그쪽에다 의뢰를 하고요. 또 이제 장학금도 사회복지 민간 기관에서 지원하는 데가 있거든요. (C학교 참여자)
>
> 초록우산에서 교육부와 이렇게 조인을 해가지고 학생 선정해서 보내면 거기서 이제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학원비** 지원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몇몇 학생들은 학원을 그 돈으로 (D학교 참여자)
>
> 그리고 또 △△나눔재단, 학교사회복지사협회를 통해서 △△나눔재단에서 함께 **장보기 활동** 이거는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또 지원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략) 우리 학교에서는 학원비는 초록우산이나 또 □네이버스 이렇게 연계를 해서 그 **학원비를 지원받도록** 했고요. (E학교 참여자)

이러한 지역사회 내 자원 연계뿐 아니라 다양한 민간 기관 및 기업복지재단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은 교내 교육복지사를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이를 통해 청소년의 중요 발달 환경인 가족과 거주환경까지 고려한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C학교 참여자의 지적처럼 학생맞춤통합지원 및 교육복지 사업만으로는 필요한 지원을 모두 제공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외부 자원과의 연계가 병행될 때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그래서 이거랑(외부 자원 연계) **병행해서 하기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단독으로 학맞통 사업이나 교육복지 사업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역자원 연계가 필요하고요. (C학교 참여자)

그러나, 이는 여러 학교 내부 및 환경적 요인으로 학교 내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인 교육복지사가 없는 경우 다양한 자원을 발굴, 연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 교사가 이러한 역할까지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학교마다 지원의 내용과 범위 등에서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 상술한 교육부 차원에서의 외부 민간 복지재단과의 업무협약을

24) 연합뉴스 (2024.06.24.). 교육부·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학생맞춤 통합지원' 업무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4116500530에서 2024.09.18. 인출

통한 자원 연계의 경우 이러한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중앙뿐 아니라 지역 교육청 차원에서의 더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표 Ⅵ-36.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참여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정책 현황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2023년 하반기 도입 후 위기청소년(다문화청소년 포함) 지원		• 다양한 위기 학생들을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식 •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중 다문화 학생 포함 • 교육부 연수 후 담임교사의 협조 중요성 파악
필요한 다양한 지원 제공		• 방과후 돌봄 강화 • 이주배경 어머니와의 소통 불가로 방황하는 청소년 상담 후 희망 스포츠 지원 • 생필품 지원, 체험학습비, 학원비, 의료지원 • 교육복지사를 통한 반찬 지원, 생필품 및 학용품 지원
지원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전달 방식	담임교사/관리자 역할의 중요성	• 사업 초기 담임교사의 지원 대상 발굴 협조 우려 • 담임교사 협조 필수 • 학교 중간관리자의 적극성과 리더십으로 교사 및 복지사 책임성 강화
	정기 회의를 통한 서비스 전달	• 사업 예산 규모에 따라 매주/격주 사례회의 진행 • 체계적인 지원 : 첫 주와 셋째 주는 지원 대상 청소년 추천, 둘째 주와 넷째 주는 지원 및 개입 방법 논의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민관(民官) 연계 지원	지역사회 내 관계기관 자원 연계	• 행정복지센터, 지역보장협의체 등을 통한 긴급 생계 지원과 신입생 준비물 지원 • 교육복지사를 통한 지역사회복지관과의 연계 지원 • 지역사회 안전망을 통한 상담 연계, 지역 내 종교기관과 가족센터 연계를 통한 생활비 지원
	민간 복지단체 연계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 여러 민간복지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장학금, 학부모 치료비, 청소년 문화체험비 등 지원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등 다양한 민간재단과의 연계를 통해 학원비 지원 • 외부자원과의 연계가 병행됨에 따른 시너지 효과(학생맞춤통합지원과 교육복지 단독으로는 미흡)

③ 주요 사업성과

가. 청소년과 관계자 모두에게 끼친 긍정적 영향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 변화, 맞춤형 지원 현실화

FGI 참가자들이 여러 지원 사례에 대해 보고하였으나, 앞에서 기술한 B학교에서의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상담을 통한 희망 스포츠 활동 지원은 그중 눈에 띄는 학생맞춤통합

지원을 통한 긍정적 변화 사례이다. B학교의 해당 청소년은 운동을 계속 배우기 위해서는 그동안 소홀히 했던 학교 출석이 중요함을 인지하게 되었고, 이후 개선된 모습으로 학교 생활을 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청소년은 이전에 비해 학교에 더 잘 적응하는 긍정적 성과(학교 출석 및 시험 응시)를 보였는데, B학교 참여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유연한 예산 사용을 통해 가능했다고 보고하며, 이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도 하였다.

(복싱)지원을 해줬는데 한 달 다니고 저한테 와서 자기 학교 잘 다녀야 복싱 계속 다닐 수 있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당연하지 여기는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곳이라고 했더니 **학교도 이전에 안 나왔는데 오전에라도 나와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바뀌고 1회 고사 때는 시험을 안 봤었는데 **그 2회 고사 때는 와서 시험을 봤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렇게 **좀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되게 감사하고** (B학교 참여자)

이러한 지원 대상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 변화에 따른 성과뿐 아니라, FGI참여자들은 사례관리 등을 통한 구체적인 맞춤형 지원이 현실적으로 가능했음을 강조하였다. C학교 참여자는 사례관리비라는 예산 사용 범위 안에 식자재 마트를 통한 생필품 지원뿐 아니라 체험학습비, 의료지원, 학원비 등 학생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큰 장점으로 진술하였다. E학교 역시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필요한 경우 연계하여 상담을 받게 하거나, 직접 상담을 위한 비용에 예산을 활용하기도 하였다. 나아가 SNS에서 인신공격성 발언을 듣고 있는 학생의 가정을 방문하여 위생용품 등을 지원하는 등 청소년이 처한 상황에 맞춘 구체적이고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었다.

생필품만 해준 게 아니라 체험학습비, 체육비, 의료지원, 학원비도 저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렇게 예산을 **학생이 필요로 하는 곳에 쓸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C학교 참여자)

우리도 **생필품 지원**이 있는데 (중략) 이제 **연계해서 상담 지원을 받게 하기도 하고, 우리가 직접 상담비를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케이스는 정말 냄새 나는 아이들을 대놓고 말은 못하고 인스타 익명 질문방으로 해서 보여주는데 보니까 완전히 인신공격성 발언이 엄청 많더라고요 (중략). **가정 방문을 해서 어떤 위생용품 지원도 해주었고 또 속옷이나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게 되었고 (E학교 참여자)

교사 등 관계자에게 끼친 긍정 영향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청소년 외에 교사 등 학교 관계자들에게 끼친 긍정적인 영향도 적지 않았다. D학교 참여자는 그동안 수업에만 초점을 두었던 교사들이 학생을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생겼으며, 학생에게 문제가 없는지 관찰하는 과정에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학생 역시 이러한 관심에 부응하여 학교생활을 더욱 충실히 하게 된 점을 긍정적인

성과로 진술하였다. C학교 참여자는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교육복지사로서 지원 대상 청소년의 가정을 방문하고 사례관리하면서 큰 보람과 유능감을 가지게 되었고, 나아가 교육복지사의 긍정적인 역할을 더욱 체감케 했다는 점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특히,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교육복지사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사업으로 부연하였다.

> 긍정적인 측면은 이제 **교사가 학생을 보는 관점이 조금 달라진 거** 예전에는 그냥 수업만 하고, 내가 담임으로서 이 학생은 문제만 없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 **학생을 좀 더 자세하게 관찰하는, 학생한테 좀 더 관심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중략) 학생들도 이제 선생님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학교생활을 조금 더 열심히** 하는 면도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D학교 참여자)
>
> 그것을 통해서 **큰 보람**을 얻고 또 **교육복지사에 대한 그런 유능감**도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또 그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학맞통 사업이 교육복지사로서 **가정 방문하고 사례관리**하고 하는데 **본연의 소임과 책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사업**이다. 그리고 학부모나 교사 교직원들에게 교육복지 사업과 이제 학맞통사업도 교육복지 관련 사업이죠. 이런 교육복지 관련 사업과 교육복지사에 대한 **긍정적인 존재감을 체감케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C학교 참여자)

타당한, 시의적절한 개입과 지원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학교 교직원과 교육복지사 등 전문 인력 간 협력을 통해 학생 사례별로 문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 큰 장점을 갖고 있다. 즉 이 사업에서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교육복지사의 각 관점에 따른 주관적 개입이 아닌, 함께 중지를 모아 더욱 타당하고 적절한 문제 진단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C학교 참여자는 담임교사와 교육복지사 등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통합적으로 접근하면서 개별 인력의 단독 판단과 개입에 따른 주관적 오류나 편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지원 방법이 체계적으로 준비됨에 따라 필요시 시의적절하게 즉시 개입하여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도 함께 조명해 주었다.

> 정확한 개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고요. 또 하나는 교육복지사나 담임, 상담사의 **개인적인 단독 개입을 해갖고 올 수 있는 주관적인 오류나 편견에서부터 탈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중략)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가 회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각 전문가들에 대한 생각과 학생을 대함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이나 현상들을 말을 하기 때문에 (C학교 참여자)
>
> 또 시급성이나 즉시성이 요구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책과 추진 체계가 준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개입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고요. (C학교 참여자)

나. 다양한 인적 요소 및 지원체계 성공 요인

책임있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성과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학교관리자의 리더십이 특히 강조되었다. 즉, 학교장과 같은 교내 최고 관리자의 리더십이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성공적인 운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학교 참여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학교장의 추진 의지와 리더십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교직원들의 협력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였다. E학교 참여자는 개별 학생 대상의 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업무 부담으로 학교 관계자의 반대가 있었지만, 학교장의 주도로 선도학교로 지정,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이후 관심이 높은 중간관리자를 통해 사업이 충실히 운영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이 중간관리자의 리더십이 교직원, 특히 지원 대상자 발굴의 일선에 있는 담임교사들의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덧붙였다.

> 학교장이 이 학맞통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직원들이 이걸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장님 연수가 필요**하고요. (C학교 참여자)
>
> 이거 하면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완강하게 먼저 전임 교육복지사 선생님이 거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교장 선생님이 밀어붙여서 이렇게 선도학교로 지정이 됐는데** (중략) 작년에 왔을 때 그랬는데 **정말 자기 책임을 충실히 다 하면서 리더십 있게** 학교 선생님들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E학교 참여자)
>
> 총대매고 있는 **부장님의 어떤 리더십이** 저는 굉장한 큰 건으로 여겨지거든요. 또 다른 지역에서 듣는데 아직까지도 왜 이 복지를 교사들이 해야 돼 이렇게 하는 학교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아직까지도 듣고 있거든요. (중략) **우리 학교 같은 경우에는 리더십이 출중하니까 밑에 다른 교사들이 담임 선생님들이 정말 필요해 이러면서 이제 잘 따라오고** (E학교 참여자)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여 독려, 학교 분위기 조성

교내 여러 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성공의 전제가 됨에 따라 FGI에서는 학교 교직원들의 협조, 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심층 이해,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 독려, 학교 분위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C학교 참여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첫 연수에 참여하면서 담임교사의 협조가 매우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지했다. 이를 위해 교직원 대상의 워크숍 및 설명회를 통해 교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과정을 거치면서, 교사들의 협조와 적극적인 지원 대상 학생 발굴이 가능했음을 보고하였다. 특히, 학기 초 학년별 담임교사들과의 회의에서 학생맞춤통합사

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 발굴에 책임을 느껴야 함을 강조하면서 교직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와 실제 대상자 발굴을 독려하였다. D학교에서도 학교관리자들의 연수경험 후 교직원들에게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이해와 지원 대상 학생에 대한 추천을 독려하였다.

E학교에서는 교장과 담당 부장의 리더십을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교내 신규 교사들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협조하게 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나아가 잦은 회의 개최를 통해 학급별 지원 상황을 공유하면서 지원 대상 발굴을 서로 북돋는 상황이 되었고, 학부모에게도 연락하여 지원을 받도록 독려하는 등 결과적으로 더욱 많은 학생이 지원받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저희는 제일 처음에 파악하기에 담임들의 협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부에서 한 연수를 우리 **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워크숍**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많은 담임들의 호응을 얻고요 (중략) 또 바뀐 교직원들과 전 교직원들이 합쳐가지고 이 **학맞통 사업에 대한 사업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발굴해 주시고 지금 열심히 했고요. (C학교 참여자)
>
> 학기 초에 제가 각 학년별로 담임들과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교육복지 사업하고 학맞통 사업을 같이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전 교직원은 긴급복지 신고 의무자이다 (중략) 법적으로 그래서 이걸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금방 이해를 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C학교 참여자)
>
> 교사들도 이 학맞통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저희는 따로 교감 선생님들께서도 연수를 하셨고 저도 선생님들께 이러이러한 게 바로 **학맞통이니까 서슴없이 어려운 학생 있으면 추천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D학교 참여자)
>
> (○○○ 부장의) 복지 마인드가 아주 나름 훌륭하고 제가 보니까 또 리더십도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중략) 이제 강력하게 추진을 하니까. 또 마침 신규 선생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저렇게 다 해야되는구나 이러면서 하나둘 따라오다 보니까 전체 교직원들의 협조가 엄청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기 회의**도 매달 하고 작년에는 **수시 회의**도 이제 매달 거의 몇 번 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 학생 발굴은 담임 선생님들께서 **저반에서 하니까 우리 반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중략)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해서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좀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E학교 참여자)

교내 다체계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지원

이러한 담임교사 등 교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결국 다양한 관점을 가진 관계자들이 지원 대상자 발굴과 개입, 그리고 문제해결과정까지 적극적으로 관여하게 되면서 다체계를 통한 통합적이면서도 또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B학교 참여자는 그동안 일반 교사로서 학생 대상 복지는 교내 분리된 영역으로 생각해 왔으나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관여하게 되면서 복지대상자로서의 학생들에게 관심을 두게 되었음을 진술

하였다. 그리고 지금은 해당 사업의 관계자로서 다른 교사, 교육복지사, 상담교사와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여러 관계자와 다양한 각도로 문제에 개입할 수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C학교 참여자 역시 교육복지사와 보건교사, 상담교사, 담임교사 및 부장교사 등이 학생 개별 사례에 대해 각자의 관점에 기반하여 통합적으로 접근하게 되었으며, E학교 참여자도 교육복지사나 담당 교원의 단독적인 판단과 개입이 아닌 여러 교직원과의 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통합지원이 가능했다고 보고하였다. 유사한 맥락에서 D학교 참여자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서 지원 대상이 필요로 하는 일상적이면서 구체적인 지원은 담당 교사와 교육복지사가 존재하기에 가능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 이 사업이 좋은 게 다른 일반 교사 선생님들도 복지 정책이나 이런 거는 분리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다가 학맞통이 뭔가 유연하게 아이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아이들 사례가 생기면 저한테 먼저 문의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아이도 지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중략) 제가 복지 선생님이나 상담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희 정책 중에 이런 게 있어서 그 친구는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시고 하다 보니까 한 아이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각도로 바라볼 수 있어서 (B학교 참여자)
>
> 교육복지사, 보건교사, 그리고 상담사, 담임, 부장 이런 이 사람들을 **각각의 위치에서 한 학생에 대한 다각적인 사정으로 학생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C학교 참여자)
>
> 이 A라는 학생을 이제 복지사나 복지부장 혼자 **단독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중략) 이제 지켜보는 **많은 선생님들이 의견을 다 주시니까** 그렇게 통합적으로 정말 말 그대로 통합지원이 가능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E학교 참여자)
>
> 저희 학교는 그래도 **복지 선생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필품 꾸러미라든지 학용품 꾸러미라든지 이런 거를 마트에서 주문해 가지고 배달을 할 수 있는 거지, 솔직히 다른 학교 같으면 **담당 교사가 해야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D학교 참여자)

지원 방식에서의 체계성, 효율성 및 유연성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수행되는 정기, 수시 사례회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C학교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교직원 대상 워크숍, 설명회, 학기 초 학년별 회의 외에도 예산에 따른 사업규모에 따라 매주 또는 매월 2회 사례회의를 하면서 지원 대상자를 발굴, 지원하고 있었다. D학교에서도 앞서 기술한 것처럼, 선도학교로의 체계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지원 대상 추천 및 지원방법 결정을 위한 정기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들이 누락되지 않고 시의적절하게 지원을 받도록 하였다. E학교 역시 매달 정기회의뿐 아니라 수시 회의를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었다.

정기적으로 저희가 사례회의를 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한 학기에 5천만 원이라는 사업이 너무 컸기 때문에 **매주 사례회의**를 했는데, 올해는 1년에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매월 2회를 정기적으로 사례회의를 합니다.** (C학교 참여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의를 매달 그러니까 거의 매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한 달 중에서 1, 3주는 학년부에서 회의를 하고 거기서 학생들을 추천을 하고, 그 추천된 학생들을 2, 4주에 (사례)회의에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얘기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D학교 참여자)

그리고 **정기 회의**도 매달 하고 작년에는 **수시 회의도 매달 거의 몇 번 하다시피** 이렇게 하다 보니까. (E학교 참여자)

교내 다른 지원정책과의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한 병행을 통한 시너지 효과 역시 유의미한 성공 요인으로 보인다. B학교는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사업을 추진하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C학교와 D학교에서는 교내 교육복지사업과의 병행으로 지원 대상 청소년들에게 더 많은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서의 예산 사용 범위가 다소 유연함에 따라 지원 대상을 더욱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도울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B학교 참여자는 예산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어 담임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지원 대상을 발굴할 수 있었다고 생각했다. 또한, C학교에서는 다른 지원 정책이나 관련 기관에서는 지원 자체가 불가능했던 외국인 가정의 다문화청소년에게도 학생맞춤통합사업을 통해 일부 지원이 가능했음을 보고하였다.

저희는 이 학맞통 말고도 다문화 교육 정책학교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으로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학맞통에서도 이렇게 발굴이 돼서 지원하고 있는 다문화 학생이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B학교 참여자)

또 하나는 학맞통 사업과 교육복지 사업의 병행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많은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C학교 참여자)

(교육복지와 학맞통 사업을) 함께 묶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D학교 참여자)

1학기를 운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학맞통이 되게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중략)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나 이럴 때 이렇게 본인이 쓰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 예산 쓰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발굴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중략) 참 이게 **유연성이 있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B학교 참여자)

체류자 신분이다 보니까 국적이 한국 국적이 아니에요. 부모나 자녀나 다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이 미술에 특기 적성이 있어가지고 그걸 개발해 주기 위해서 학원비를 필요로 했는데 한국장학재단이나

○○에 있는 사회복지 지원기관이나 어느 단체에도 한국 국적이 아니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맞통 사업비에서 일부를 지원을 해줬고요. 최근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학맞통 사업을 대상으로 해서 **그 학생들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C학교 참여자)

표 Ⅵ-37.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사업 성과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청소년과 관계자 모두에 끼친 긍정적 영향	다문화청소년의 긍정적 변화, 맞춤형 지원 현실화	• 어머니와의 소통 부재, 학교부적응 다문화청소년 대상 희망스포츠 지원으로 학교생활에서의 긍정적 변화 관찰 •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지원 가능
	교사 등 관계자에게 끼친 긍정 영향	• 교육복지사의 역량 및 효능감 증대 • 담임교사의 학생에 대한 관심 증가와 학생 태도의 변화
	타당한, 시의적절한 개입과 지원	• 정확한, 타당한 개입 및 지원 제공 • 시의성있는 즉각 지원 가능
다양한 인적요소 및 지원체계 성공요인	책임있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	• 학교 최고관리자의 리더십과 적극성 • 리더십을 따르는 교사들
	사업에 대한 이해와 교직원 참여 독려를 통한 학교 분위기 조성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 대한 교직원 대상 워크숍과 사업 설명회 개최 • 학년별 담임교사들과의 회의 • 교감 연수 및 학맞통 사업을 위한 학생 추천 독려 • 교장과 담당부장교사 등의 리더십을 통해 신규 교사들도 자연스럽게 협조하는 분위기 조성: 지원 대상자 발굴 독려, 학부모에게 연락
	교내 다체계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지원	•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을 통해 대상자 발굴에 관심갖게 되면서 교사-교육복지사/상담교사 가교 역할 • 교육복지사, 상담교사, 담임/부장교사 각자의 관점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접근 • 담당교사와 교육복지사가 있어 세심하고 구체적인 지원 가능 • 단독 판단/개입이 아닌 교직원 회의를 통한 다양한 의견수렴 및 통합지원
	지원 방식에서의 체계성, 효율성 및 유연성	• 유연한 예산 사용 • 정기/수시 사례회의 등을 통한 체계적 접근 • 교육복지사업, 다문화교육정책학교 등 기존 사업과의 효율적인 병행

④ 지원 애로사항 및 문제점

가. 학부모 문제로 지원 대상 발굴의 어려움

학생맞춤통합지원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자 발굴에 있어 학부모의 한국어 소통 능력 부족에 따른 문제는 다문화 배경의 학생에만 국한된 애로사항으로 더욱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방증하듯 FGI에서도 다문화배경의 학생뿐 아니라 학부모와의 소통 문제로 다문화청소년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학교 참여자는 학부모들의 한국어가 자녀들보다 미숙한 상황이어서 가정 방문 시 이중 언어 강사와 동행해야만 하는 상황을 보고하였고, D학교 참여자 역시 학부모가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었다. 일시 체류자 신분의 외국인가정의 경우 이렇게 학생과 학부모 모두 의사소통 문제로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 학부모들은 오히려 학생들보다 **한국어를 못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가정 방문을 가면 이중 언어 강사하고 같이 동행해서 가려고 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문화 중에도 체류자 신분의 학생들이 좀 있는 편입니다. (C학교 참여자)
>
> 학생은 한국어를 아예 못하고 **부모님도 한국어를 아예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제 이 학생을 도와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D학교 참여자)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아 청소년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보고되었다. A학교 참여자는 사업 운영에서의 어려움 중 하나로, 지원 대상자가 발굴이 되어도 학부모의 미동의로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에 안타까움을 토로하였고, E학교 참여자 역시 담임교사가 학부모에게 지원 내용을 설명하여도 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음을 진술하였다. 이는 다문화청소년 학부모와의 한국어 의사소통 문제와는 별개로, 지원 정책에 대한 학부모대상의 효과적인 설명과 안내를 위한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D학교 참여자는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추천을 위해 입학식이나 학부모 공개 수업 시 QR코드를 통해 지원제도를 홍보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이 학부모 사정을 고려한 다양한 설명, 설득 방법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 진행하면서 약간 어려움이 있다는 건 이 학생맞춤통합지원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아이, 정말 이 사업에서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 싶은 아이들이 발굴이 되었을 때 여러 가지 **학부모 동의라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여의치 않아서** 정말 지원이 들어가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도 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중략) (부모의 거절로 지원을 못받는 것에 대해) 그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A학교 참여자)

학부모님들한테 연락을 해서 담임 선생님이 연락을 해서 이러 이러한 제도가 있는데 좀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이러면은 **거부하는 부모님도 있었습니다.** (E학교 참여자)

그리고 이 추천은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입학식이라든지 또 공개 수업 날**에 학부모님들 오셨을 때 학생 주위 어려운 학생들이 있으면 추천해달라 했고 그래서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QR 코드**를 올려가지고 (D학교 참여자)

나. 예산사용 기준의 모호함, 예산 부족

FGI 참여자들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장점 중 하나로 다른 유사 사업에 비해 비교적 유연한 예산 활용을 꼽았지만, 한편으로 여전히 예산 사용 기준이 모호하고 또 예산 사용에 있어 제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 따라 학원비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아예 지원이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예체능만 가능한 경우 등 다소 차이가 있었고(B, D학교), 다양한 방식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또한 예산집행 시 교내 행정실의 협조가 매우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사용 기준이 매우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예산 활용이 매우 힘든 사례도 있었다(E학교). 이에 대한 유연한 기준 마련과 학교관리자의 확실한 조정을 통해, 행정실의 협조 미흡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위축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마지막으로, 작년 하반기보다 올해 예산이 절반으로 감액된 문제와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지원 예산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있었다(D학교).

저희도 그 학원비가 지원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를 처음에 듣고 그래서 여쭤보니까 또 예체능 쪽은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이 사업에서 **관리하시는 분들, 이제 진행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사실 학원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교사들이 사례회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교사를 좀 신뢰한다면 저희가 무분별하게 지원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학원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좀 더 유연하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B학교 참여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맞통 돈으로 학원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학원비를 지원을 안 해주고 있거든요. (중략) 솔직히 이 학맞통 돈으로 **학원비라든지 좀 더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D학교 참여자)

이 사업을 하면서 제일 문제점은 행정실과의 어떤 뭐랄까 행정실에서 힘들게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사사건건 아주 원리 원칙대로 몇 조 몇 항까지 들이대면서 (중략) 같은 지역 내에 있는데도 **행정실의 어떤 유연한 대처에 의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못 해 줄 수도 있다** 이제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E학교 참여자)

(예산이) 큰 돈이면 큰 돈이고 작은 돈이면 작은 돈인데, 이 돈을 큰 학교에서 1년 동안 운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워낙 학생들한테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일부분만 좀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부분의 지원이 그 학생한테 **도움이 될런지는 이제 미지수이고** (D학교 참여자)

다. 업무 과중 우려

학생맞춤통합사업의 발굴-진단-지원-종결/사후관리의 전 과정에는 보통 담임교사, 학교관리자, 교육복지사, 상담교사들이 관여하게 된다. 다문화청소년의 경우 학교 다문화담당 교사도 포함되며, 교육청 및 지역사회 관계기관의 관계자들까지 많은 전문 인력이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나 가장 일선에서 지원 대상 학생을 발굴하고 지원이 완료되기까지 담임교사와 지원을 조율·조정하거나 직접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교육복지사의 업무 과중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업무 부담이 충분히 예측되면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도입 시 일부 관계자들은 사업 추진을 부담스러워하였는데, 실제로 이러한 업무 과중은 현재 진행형으로 파악되었다.

B학교 참여자는 진정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 더 신경 쓰고 개입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을 가장 힘든 점으로 꼽았으며, D학교 참여자는 지원과 관련한 피드백에 대해 담임교사들이 부담을 갖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C, E학교 사례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도입 당시부터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 과중에 대한 담당자의 부담이 잘 확인된다.

업무가 과해진다는 게 지금 가장 큰 힘든 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커지면은 업무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사업이더라고요. 그냥 빨리 돈 쓰고 말자 하면은 또 그럴 수도 있는데, 사례를 듣다 보면 갑자기 더 막 마음이 막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또 더 개입하게 되고 더 신경 쓰게 되고 하다 보니까 (B학교 참여자)

이 학맞통 신청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굉장히 많고** (C학교 참여자)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과물이 나와야 되고 어떤 변화를 이제 이루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피드백을 달라고 그 **피드백에 대한 걸 선생님들께서 조금 부담스러워하시더라고요.** (D학교 참여자)

먼저 있던 복지사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 이거 하면(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도입) **너무 힘들어서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완강하게 (E학교 참여자)

표 Ⅵ-38.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애로사항

범주	의미단위
학부모 문제로 지원 대상 발굴의 어려움	• 학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 • 자녀 지원에 대한 학부모의 미동의 문제
예산사용 기준의 모호함, 예산 부족	• 예산 사용 기준이 모호함 • 예산이 크지 않아 도움이 될지 미지수 • 예산 사용에서의 과도한 제약
업무 과중 우려	• 진정성 있게 사업을 수행하려면 업무가 과중해짐. • 지원 결과 피드백에 대한 교사의 부담 • 교육복지사의 업무 과중

⑤ 개선 방안 및 향후 발전 방안

가. 유연한 예산 활용을 통한 다양한 지원 지속 필요

FGI에서 학생맞춤통합지원이 기존의 교육복지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예산 사용에 있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교육복지사업과 달리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에서는 더 허용적으로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B학교 참여자는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사들이 지원이 필요해 보이는 청소년을 더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다고 하였고, C학교 참여자는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학부모에게까지 지원이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유연한 예산 활용은 향후 반드시 지속되어야 할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장점으로 판단된다.

> 선생님들께서 상담을 하실 때나 이럴 때 본인이 쓰실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있다는 걸 알다 보니까 그 예산 쓰시면서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발굴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가장 가까이에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 저희한테 문의하시기에는 **유연성이 있어서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B학교 참여자)
>
> 교육복지하고 차이점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육복지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많이 허용적이기 때문에 가장 좋았고요. 또 학생 학부모가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애들을 방임한 상태였는데** 본인이 의지가 이제 생기더라고요. 제가 가정 방문을 가고하니까 저도 우울증에 탈피해서 애를 잘 돌보고 싶다 해서 그 부모 심리 치료비까지 저희가 이 학맞통에서 지원을 해줘서 저는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좋다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C학교 참여자)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학부모 및 교내 관계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면서 지속적으로 사업이 확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E학교 참여자는 학부모도 학생맞

춤통합지원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지원 신청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필요시 가정 방문과 학생 상담 등을 통해 욕구를 파악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또 외부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하면서 담임교사뿐 아니라 학교관리자의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회고하였다.

> 대다수 학부모들이 좋다고 하시면서 신청서를 내주시고 또 **가정 방문과 학생 상담**을 통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하고, 또 **외부 기관과도 이제 연계**를 해서 하니까 (중략) 학맞통 사업을 다른 **담임 선생님들도 좋아하시고** (중략)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 학맞통 사업을 보니까 너무 좋다라고 하시면서 **만족해 하는 상황**이고 (E학교 참여자)

나.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 요건

사업의 안정적 운영

FGI에서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여러 장점과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의견들이 제시됨과 동시에 향후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우려할 만한 내용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E학교 참여자는 현재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운영은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 향후 해당 선도학교에서 제외될 경우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하였고, C학교 참여자는 이 사업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관리자급의 책임자와 교육복지사의 전보 발령 등에 따른 사업의 연속성 단절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는 선도학교 지정을 통한 사업 운영 방식의 개선과 관리자 및 담당자 전보발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 개선점은 뭐랄까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선도학교에서 탈락이 되고 지원하다가 안 하게 되면은 **지원받던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런 염려를**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E학교 참여자)
>
>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내년이면 **다른 학교로 이동**이 있는데 이 학맞통이 초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초기에 이렇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교장 선생님도 내년도에 **전보 발령이 있거든요.** (C학교 참여자)

교내 관계자 대상 교육 및 연수의 중요성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FGI의 여러 학교 참여자들은 설명회 개최나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교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에 대해 상세히 안내하고 또 지원 대상자 발굴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FGI 참여자들은 이에 더해 학생맞

춤통합지원사업의 적극 추진을 위한 학교관리자 연수의 강화와 상담교사 등 사업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충실한 이해를 돕는 교육 및 연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잦은 연수가 때로는 과중한 업무의 일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25] 적어도 전보 발령을 받은 학교 관리자와 신규 담당자들을 위한 교육·연수는 의무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 학교장이 이 학맞통 사업에 대한 추진 의지와 리더십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교직원들이 이걸 협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런 학교장님 그런 연수가 필요**하고요. (중략) 또 상담사와 교육복지사, 학맞통 담당자, 교장은 필수로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그런 연수에 꼭 의무 참석으로 (C학교 참여자)

인적, 물적 지원 확대, 차등 지원 등 고려

향후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개선방안으로 안정적인 재원 담보와 전문 인력 배치, 예산 증액 필요성 등의 의견이 수렴되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꼭 확대가 필요한 의미있는 정책사업이지만 여기에는 교육복지사 배치와 안정적인 재원이 전제되어야 하며(C학교 참여자), 학교 규모에 따른 예산 증액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D학교 참여자). 또한 학교 현실과 학교 구성원의 사업 추진 의지에 따른 사업비 증감 필요성도 제시되었는데(C학교 참여자), 이는 학교 규모가 크지 않고 따라서 사업 대상이 많지 않은 학교를 고려할 때 재고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즉, 학교가 위치한 지역 특성과 지원 대상 청소년의 특성, 특히 다문화청소년의 구성비와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한 예산 지원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 이 학맞통 사업은 **모든 학교에 반드시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와 동시에 **교육복지사도 함께 배치가 되어야지, 저와 같이 이렇게 지역자원 연계와 같이 병행해서** 해야지 학부모나 학생들이 체감하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부족합니다. 예산이 너무 적어요. (중략) **안정적인 재원이 지속적인 담보가 되어야 해요.** 이렇게 갑자기 변동이 있어 버리면 일선 학교의 실무자들은 굉장히 혼선이 있습니다. (C학교 참여자)
>
> 모든 학생들이 필요한 만큼 다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이 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중략) **그렇게 큰 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충분히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이 어느 정도 조금 더 편성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D학교 참여자)
>
> 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정말 아낌없이 많이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죠. 근데 아직은 다문화 학생이라서 특별히 더 지원을 받거나 그런 경우는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보살펴야 하는 그런 아이들은 아직은 없었어요. (A학교 참여자)

25)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를 위해 FGI전 실시한 학교 방문에서(2024.06.19.) 기존 연수를 통해 사업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반복되는 교육이나 연수는 오히려 업무에 지장을 줄 수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보다 실효성있는 교육·연수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학맞통 사업비를 다른 학교에서 굉장히 너무 많다고 해서 부담스러워했다라는 거예요 (중략) (학맞통 사업 예산에 대해) **학교 현실과 또 학교 구성원의 사업 추진 의지에 따라서 사업비 증감을 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C학교 참여자)

표 Ⅵ-39. 학생맞춤통합지원 FGI: 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

범주	하위범주	의미단위
유연한 예산 활용을 통한 다양한 지원 지속 필요		• 가장 큰 장점은 예산 사용의 유연성으로, 지원 대상자 발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침. • 학부모 및 교내 관계자들의 높은 만족도
향후 안정적인 사업 운영 필요 요건	사업의 안정적 운영	• 관리자 및 담당자의 잦은 전보발령 문제 대응 필요 • 향후 선도학교 제외 시 지원받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염려
	교내 관계자 대상 교육 및 연수의 중요성	• 학교관리자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및 관계자 교육 참석 의무화
	인적, 물적 지원 확대, 차등 지원 등 고려	• 확산을 위해서는 교육복지사와 안정적 재원 필요 • 학맞통 사업비를 부담스러워 하는 사례도 있어 상황을 고려한 사업비 증감 필요 • 규모가 큰 학교에서는 학맞통 사업예산이 크지 않음, 충분한 지원을 위해 예산 확대 필요

3. 소결

1)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1) 조사 및 분석 개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개별 심층면접조사(IDI)는 청소년들이 직접 전달하는 이야기를 통해 다문화청소년들의 경험을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고등학교로의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학 및 진로계획, 진로준비와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두되, 다문화청소년으로서 이들의 가정 및 학교생활과 사회적 관계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는 이주배경 유형과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안배한 2기 패널의 청소년 15명과 일부 추가 인터뷰가 필요해 보이는 사례를 중심으로 어머니 5명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들로부터 수집된 질적자료와 현장노트가 분석에 활용되었으며, 2023년과 2024년의 면접에 모두 참여한 청소년 3명과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전사자료도 전달받아 종단분석에 참고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은 청소년 시기 또래와 마찬가지의 긍정적 결과를 보이기도 했고, 또 다문화청소년으로서 주목할 만한 경험에 대한 내용을 드러낸 사례들도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문제에 한정하여 자료를 보지 않고 이들의 생활 모습과 인식, 경험, 변화양상 전반에 모두 관심을 기울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이주배경 유형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경험의 차이, 또 일부 학부모 인터뷰를 통해 드러난 청소년을 둘러싼 개인과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도 주목하였다.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전사자료에 포함된 해당 내용의 앞뒤 맥락을 반복하여 검토하면서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와 그 의미에 최대한 집중하고자 하였다.

(2) 분석결과 요약 및 함의

주요 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만족한 생활을 하고 있었다. 가족과 친구, 학업이 중요한 삶의 영역이었는데, 특히 다음 연도에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으로서 진학 및 진로 준비 등에 대해서 본격적인 고민과 탐색을 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문화청소년들은 대체로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잘 지내고 있었으나, 일부는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거나 낮은 자존감을 보고하였다. 또한 같은 다문화배경을 가진 다문화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사귀고, 이중

언어 사용을 포함한 다문화배경을 장점으로 여기는 사례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도 관찰되어 심리적 지원과 건강 증진 차원의 개입이 필요해 보였다.

심리적으로 안정적인 사례가 대부분이었지만, 2023년 전사자료와 어머니 인터뷰와의 교차검증 결과, 2023년에 심리적 위기 징후를 보인 청소년 사례의 경우 위센터 개입을 거쳐 2024년 현재에는 안정적이고 개선된 상태를 보였고, 어머니도 태도 변화를 약속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위기 징후를 보이는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발굴과 전문적인 개입의 중요성을 매우 잘 보여주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대체로 다방면에서 여러 친구들을 만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으나, 한편으로 이들의 심리적 불안정을 초래하는 주요 원인은 사회적 관계였다. 친구의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며 시종일관 배려하는 다소 일방적인 또래 관계도 관찰되었으며, 고립감을 느낀 사례들이 경우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이해와 기술 습득이 필요해 보였다. 고민 의논 상대로는 가족과 친구 이외에 학교 담임 및 상담교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었다. 학교 현장에서 특히 또래와의 관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을 발견할 수 있는 최일선에서의 담임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조명되었다.

가족, 특히 부모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대화도 자주 하였으나 정작 학교폭력 피해나 진로와 같이 부모와 공유할 필요가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소통이 없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이 경우 부모-자녀 간 상반된 이해도 관찰되고 있어, 부모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도 요구되었다. 대부분 가정에서도 한국어를 사용하였으며, 일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모두 가능한 완벽한 이중언어 사례는 적었다. 일부 이중언어 사용에 능숙한 청소년들은 이를 장점으로 여기고 있었다. 중도입국 직후 가족센터에서의 한국어 수업과정을 거쳐 학교생활에 잘 적응한 사례도 있어, 이러한 지원기관 역할의 중요성이 재확인되었다.

다문화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다양한 역할의 교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폭력 피해나 진로, 경제적 차원에서 도움을 받은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즉 출석부에 영어 이름으로 기재된 외국인가정 청소년이라는 이유 때문에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하는 사례들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더욱 시급해 보였다. 구체적으로 학교 분위기 및 학교시스템 상에서의 개선, 다문화교육 등을 통한 차별 금지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문화배경의 노출을 원하지 않을 수 있는 청소년 입장에서의 세심한 배려와

주의, 그리고 민감성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 중에는 진학할 고등학교와 이후 진로까지 결정하고 준비를 시작한 사례도 있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학교를 선택하거나 진로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청소년들도 있었다. 한편으로, 진학할 고등학교 결정하였으나 이후에 계속 고민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관찰되었다. 즉, 고등학교 진학을 한 학기 앞둔 시점에서 일반고등학교와 특성화고등학교 중 진학할 학교의 가닥을 잡았다고 해도 이후 취업, 대학 진학, 전공 등에 대한 고민을 위한 시간을 더욱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진로를 계획한 청소년들은 가족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로를 준비하고자 했으나, 다소 즉흥적이고 제한된 시각을 갖고 진로에 대해 별 다른 생각이 없는 사례들도 있었다. 특히 종단자료 분석에서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 등에 있어 가족, 부모의 영향력은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진로에 대해 무관심한 청소년들의 경우 적극적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관심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부모 역시 자녀의 진로에 대한 과도한 기대 대신 자녀의 적성을 고려하여 지지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공유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아울러 외국인 가정이어서 또는 여러 사정으로 혼자서 진로를 준비해야 하는 다문화청소년들을 지원할 필요성과 함께 진로정보를 탐색하는데 있어 유튜브, 인터넷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신뢰할 만한 진로정보에 대한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의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성도 나타났다(플랫폼이나 채널 다변화, 지원기관의 역할 제고 등). 자녀를 위한 진로 정보에 소외될 수 있는 다문화배경 학부모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언어장벽이나 특정 앱 사용 등에 따른 기술장벽 등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지점이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등을 통해 심리·사회적 지원과 학습·진로지원, 문화체험 등을 경험하면서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지원 경험들은 학교 외 지역사회 내 지원의 역할과 그 필요성을 잘 드러내 주는 사례들이었다. 특히,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가족센터의 경우 중·고등학생 대상 프로그램, 다문화청소년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과 학부모 대상의 지원에 대한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 다문화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과 운동, 여가를 보낼 곳이 부족하다고 아쉬워했고, 수도권 지역과의 차이도 지적함에 따라 이러한 활동 및 여가를 위한 인프라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

대상의 다양한 정책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지역사회-지자체-국가 차원의 더욱 적극적인 홍보 필요성도 요구되었다.

면접조사의 주요 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정리하면 〈표 Ⅵ-40〉와 같다.

표 Ⅵ-40. 다문화청소년 심층면접조사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구분		결과요약	정책적 함의
개인	건강	• 연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남. 또한, 가족관계, 친구문제, 진로·학업에 대한 고민 등을 이유로 작년보다 만족 정도가 더 높거나 낮게 응답함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인 다문화청소년들의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가족, 친구, 진로·학업인 것으로 파악됨. •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로에 대한 고민때문에 작년이 더 좋았다거나, 이제 진로를 결정한 뒤여서 올해가 더 좋다고 응답함. •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건강한 편이었으나 일부는 스트레스로 인한 복부 통증 등 신체화 증상을 경험하는 사례도 확인되었음.	•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시기에는 본격적인 진로 지원을 위한 개입이 시작될 필요가 있음. • 심리적 요인에 따른 신체화 증상 예방 차원의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안 제공 필요
	자신에 대한 생각	• 다문화청소년 대부분은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었으나, 일부는 자존감이 낮다고 응답하였음. • 거절을 하지 못해서,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제때 돕지 못해서, 잘하는 것이 없어서 등의 이유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자신에 대해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성격으로 이야기하는 사례도 관찰됨.	• 청소년들의 심리적 건강과 자아존중감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기회 제공 필요
	다문화 배경	• 같은 상황인 다문화배경인 친구들을 잘 사귀었는데, 특히 같은 국적의 어머니를 둔 또래를 만났을 때 '같은 사람'이어서 기뻤다는 청소년의 사례는 같은 문화적 배경을 공유함에 따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이유가 컸던 것으로 보임. 이 청소년은 다문화 배경을 자랑스러워했으며, 이중언어 사용을 큰 장점으로 생각하였음. • 자신을 설명하기 어려워하며, 불안, 무기력 등 부정적 정서와 다문화라는 이유로 다르게 인식될 것을 우려하는 사례도 관찰됨.	• 자신의 다문화배경에 대한 청소년들의 반응과 태도가 상이함에 따라, 그 기저의 가족환경과 개인심리적 요인 파악 필요 • 다문화청소년의 정체성과 심리정서적 연결 부분에 대한 학교의 면밀한 관찰, 개입 필요
심리사회	심리적 측면	• 다문화청소년들은 친구들과 놀러가거나, 가족과 어머니 국가로의 여행, 취미생활 등을 이유로 전반적으로 행복하다고 응답하였음. 과거와 달리 친구가 많아져서, 또는 학교에서의 따돌림문제를 극복한 사례들은 긍정적 변화가 확인되었음. • 2023년도 전사자료와의 종단분석 및 어머니 인터뷰 내용과의 교차검증 결과, 작년 학교에서의 종합심리검사에서 심리적 위기징후를 보인 청소년 사례는 학교에서의 조기 발굴과 위센터 개입을 통해 청소년과 어머니 모두 긍정적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기대가 컸던 어머니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 중이었음. • 타인의 험담을 두려워하거나, 친구 관계와 진로 때문에 불안함을 느끼거나 무기력한 사례도 있었으며, 외로움을 경험한 주된 이유는 친구가 없거나 친구 수 감소였음.	• 심리적 문제, 또래와의 사회적 관계, 정신건강 측면은 모두 밀접하게 연결되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이 큼. 이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위해 다양한 루트를 통한 교육 제공 필요 • 심리적 위기청소년에 대한 조기 발굴 및 전문적인 개입 역할의 중요성 조명 필요 • 청소년 정신건강을 모니터링하고 신속 개입과 사례관리를 포함한 시스템(학생맞춤통합지원과 같은) 적극 활용 요망

구분		결과요약	정책적 함의
	사회적 관계	•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또래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이들의 행복과 불행을 가르는 절대적 잣대는 친구 유무, 친구의 적고 많음이었음. 한편으로 친구들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배려하며 '착한' 모습으로 일관하는 청소년의 태도 역시 친구 관계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시사하고 있음. • 학교, 학원뿐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와 같은 다양한 곳에서의 친구 관계 형성은 안정적인 사회성 발달에 기여할 수 있음. • 사람이 모인 곳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불안해하거나, 친구와의 관계 악화에 따른 관계 단절에 대한 두려움으로 자신을 폄훼하고, 혼자라는 고립감을 느낀 청소년들도 관찰되었음. • 주요 고민 의논 상대는 담임/상담교사, 가족, 자매, 지역아동센터의 지인 등이었으며, 대체로 소중한 사람으로 가족을 언급하였으나, 모르겠다는 답변도 있었음. 최일선에서의 지원 대상 청소년 발굴과 지원 연계에서의 담임교사의 역할이 두드러짐.	• 또래 관계는 청소년들의 행복도를 좌우함에 따라 친구 관계에 대한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의 관심이 더욱 필요함. • 과도한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기보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를 위한 기술 습득 필요, 학교와 가족센터 등에서의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참여 기회 확대 • 다양한 친구 관계 형성에서의 공적 지지체계 활용 필요 • 지원이 필요한 다문화청소년 발굴 및 지원 연계에서의 담임교사 역할 중요
가족	부모와의 대화, 부모의 관심정도	• 다양한 주제로 부모님과 대화를 자주하고 있었으나, 일상적인 대화만 할 뿐 정말 고민이 되는 힘든 일이나 스트레스, 학교폭력 피해나 진로와 관련된 진지한 내용은 공유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음. 또한 외국인가정의 경우 부모-자녀 관계에서 상반된 인식도 관찰됨. • 부모의 관심에 대해 다문화청소년들은 대체로 7점 이상으로(10점 만점) 높게 평가하였으나, 지나친 관심이나 다른 형제에 비해 낮은 관심, 또는 관심이 없다는 진술도 있었음.	• 청소년기 자녀의 고민이나 문제 등을 관찰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부모의 관심이 더욱 필요 • 고민, 친구 관계, 진로와 같은 중요한 내용에 대해 자녀와의 대화를 독려할 뿐 아니라 대화 기술 등의 습득을 위한 부모대상 교육 필요
	이중언어 사용/ 중도입국 경험	• 가정에서 한국어 사용 비중이 높았으나 어머니의 한국어 사용 수준에 따라 이중언어 사용에 차이가 컸고(어머니가 한국어에 능숙한 경우 한국어만 사용), 듣기만 가능한 사례도 있었음. • 중도입국 후 한국사회 적응을 걱정했으나 가족센터에서의 한국어 학습을 통해 도움받은 사례도 있었음.	• 가족센터의 한국어 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 홍보와 안내 필요
학교	학교 생활 만족도	• 담임·상담교사, 위클래스 교사 등과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였고, 폭력 피해 시, 또 진로 및 경제적 차원에서 지원받음. • 성적이 오르거나 반장 역할, 모범상 수상 등의 성취 경험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으나, 일부 높은 성적에도 성취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음.	• 다문화를 이유로 한 차별과 폭력 피해 학생 발굴을 위해 학교 관계자 노력이 더욱 요구됨. • 학급분위기와 또래 관계 등에 대한 교사 민감성 제고 필요
	학교 생활에서의 어려움	• 청소년은 다문화배경을 이유로 따돌림을 받아 고통을 겪었지만, 부모는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인터뷰하는 등 차이가 관찰됨. • 외국인가정 청소년 중 원하지 않음에도 학교 전산시스템(출석부 포함)이나 반 배정 시 학급 학생 명단에 이름이 영어로 게시되는 등 외국 국적이 노출되어 학교폭력 피해나 놀림을 경험하였음.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변경을 제안하기도 함. •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학교의 지원이 없다고 생각하여 다양한 지원을 요구하였음.	• 다문화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모의 관찰 및 문제 파악을 위해 교육/안내 필요 • 학교폭력피해 예방을 위한 다문화감수성 교육 강화, 출석부 등에서의 개인정보 보안 강화, 눈에 띄는 영어표기 대신 한국어 표기 등 섬세한 방안 마련
진로·진학	고등학교 진학	• 대학 진학이나 취업 등의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일반고와 특성화고 진학을 결정하기도 하였으나, 여전히 진학할 고등학교를 고민 중인 사례도 있었음.	• 본격적인 진로결정 시기에 다문화청소년의 적성과 희망, 미래사회 전망 등을 고려한 진로지

구분		결과요약	정책적 함의
		• 근거리, 하고 싶은 것이 없어서 등의 단순한 이유로 학교를 결정하기도 함.	원 필요
	진로결정	• 희망하는 직업이 매우 다양했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올해 더욱 구체적으로 진로를 계획하기도 함. 그러나 되고 싶은 것이 없거나 모르겠는 사례도 존재함. • 한국인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또 한국어가 편하고 한국이 익숙해서 한국에서 진로를 계획함. 어머니 나라에서의 진로를 계획하는 사례는 소수였음. • 부모가 의사와 같은 전문직을 희망하는 경우 청소년들은 부담스러워하며 불안해했음. 한편, 부모의 특별한 기대는 없지만, 청소년 스스로 알아서 진로를 알아보고 준비해야 하는 사례도 있었고, 특히, 외국인가정에서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었음.	• 다문화청소년의 다양한 직업에의 도전, 준비하는 과정,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더욱 적극적으로 진로를 계획,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 • 부모의 과도한 기대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 필요, 외국인 가정의 경우 자녀의 진로에 대한 개입이 극히 제한적임에 따라 학교, 지역사회의 특별한 관심, 지원이 요구됨
	진로준비	• 진로적성검사, 교과시간을 통한 정보 제공, 체험활동 등 학교에서의 다양한 진로지원이 도움이 되었으나, 관심이 없고 흥미가 떨어지는 내용은 기억을 잘 하지 못했고 도움이 안됐다고 평가하였음. • 2023년~2024년에 수집된 종단자료 분석결과, 관련 전문직의 조언이나 가족의 지지/응원의 영향으로 이전에 비해 진로가 더욱 구체화된 사례도 나타남. • 학교 외에 영재교육원, 다문화가족 입시설명회와 같은 기관을 통해 진로를 준비하기도 했고, 일부 부모는 사적 채널을 통해 전문 직업인이나 관심 전공 대학생을 만나게 해주었음. 그러나, 대체로 혼자서 준비하거나 인터넷, 유튜브 등을 통해 진로정보를 알아보고 있어 부모의 지원 정도에 차이가 많음. • 진로체험활동, 멘토링, 전문 직업인 대면·강의, 경제적 지원(대학 등록금), 진로상담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있었으며, 특히 다문화청소년 어머니는 자녀의 진로관련 정보에 소외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음.	• 청소년들의 수요 파악에 기반한 효과적인 진로체험, 진로준비 기회 제공, 전문 직업인과의 만남과 멘토링 등 지원 내실화 • 혼자서 진로를 준비하는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더욱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개입 필요 • 진로정보 탐색을 위한 유튜브와 인터넷 정보에 대한 의존을 줄이기 위해 검증된 진로정보에 대한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접근성 제고 필요(플랫폼· 채널 다변화, 지원기관 역할 제고 등)(언어 및 앱 사용 등이 장벽이 되지 않도록 유의)
지역사회	지역사회 기관	•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지역사회복지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족센터) 등을 통해 대인관계기술 습득, 사회적 관계 형성, 학습지원, 진로지원, 문화체험 등을 경험함. • 가족센터는 저연령대(초등학생) 학생 지원에 초점이 있어 연령문제로 지원받지 못한 사례도 있었고,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관계 구축 및 교류 지원 필요성도 제안됨. • 학업, 경제적 지원(학원비, 장학금 등), 상담, 멘토링, 직업체험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요구가 나타남.	• 중·고등학생 대상 가족센터 프로그램 필요 • 다문화청소년 상호이해 및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 필요 • 전문적인 지원이 가능한 가족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대상의 진로지원, 학습지원, 사회성 발달 지원 제공 필요
	아쉬운 점	•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사회에는 대체로 만족하였으나,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과 스포츠, 여가를 즐길 곳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다수 제시됨. 수도권과의 스포츠 시설 인프라 차이가 지적되기도 하였음. • 다문화가족과 청소년 대상의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해 더욱 홍보가 필요함.	• 다양한 스포츠/여가관련 인프라와 이에 대한 접근성 확대(학생스포츠클럽활동 등을 통한) • 다문화가족, 청소년 대상 정책 홍보 강화(학교-지역사회-지자체-국가 차원)

2)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현장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1)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 현장실무자 FGI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의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대면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에 대한 지원 경험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의 진로설계프로그램 운영에서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를 위해,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있어 현장 경험이 많은 책임급 담당자 5명에 대해 지역별로 안배하여 집단을 구성하였으며, 센터 여건과 이동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오프라인 간담회 및 온라인 줌회의 방식으로 두 차례에 걸쳐 FGI를 진행하였다.

FGI 분석결과, 가족센터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용자가 많았으며 외국인가정이나 중도입국 사례의 경우 한국어 소통의 문제로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 이용 청소년들은 심리·정서·인지 영역에서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많지 않아 연령대와 학교급,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기획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우선 센터 내 다른 프로그램 이용 청소년을 진로설계프로그램에 유입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으며, 이외 SNS나 순회 교육/홍보를 통해 이용자를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와의 연계는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상황에 집중되어 있어, 진로설계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제고될 필요가 있었다.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다문화청소년 사례가 많음에 따라 정서지원과 진로지원을 모두 제공할 때, 사례관리형의 단계별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센터도 있었다. 한편, 성과가 있음에도 다문화배경의 멘토 발굴이 어려워 사업이 중단된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시 재추진, 활성화하도록 제반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또한 FGI 참여자가 제안한 진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하여 필요시 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의미있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에 대한 수요 파악의 필요성과 아울러 진로설계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와 교육청, 그리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협의체를 활용한 홍보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무엇보다 사업의 초점이 정서지원에서 진로설계로 변경되면서 전문 인력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청소년에 대한 정서지원과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 기준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로지원을 수행하는 여러 기관과의 차별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는데, 가족

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한, 즉 다문화청소년들이 경험할 수 있는 진로설계에서의 어려움에 초점을 둔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기획이 요구되었다.

향후 사업 방향성과 관련하여 사업 목표와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를 계속 다문화청소년으로만 한정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합의가 필요해 보였으며, 이에 따른 사업매뉴얼이 명료화될 필요가 있었다. 또한 진로설계프로그램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전문 인력 활용을 위한 인력배치 및 기관 연계 방식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대상자 발굴과 사업 안내를 위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1. 진로설계프로그램 현장실무자 FGI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구분		결과 요약	정책적 함의
환경적 특성		• FGI 참여 센터들은 대도시, 인근 읍면지역에 인접한 중소도시 등 다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외국인가정이나 중도입국 청소년의 센터 이용이 증가함에 따라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많음.	•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로설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기 어려움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개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프로그램 운영·다문화 청소년 특성	청소년의 특성	• 진로설계프로그램 참여 청소년의 연령은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이 다수 • 다문화청소년 중 심리·정서·사회·인지적 문제 등을 복합적으로 경험하는 사례가 많음. • 다문화청소년 중 낮은 연령대는 진로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으나 고등학생의 경우 진학 및 취업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을 갖고 있었음.	• 프로그램 참여 연령대와 학교급, 발달단계를 고려한 진로설계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필요 •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다양한 방안 강구 필요
	프로그램 참여 청소년 발굴	• 정서지원, 기초학습 지원 등 센터 내 다른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진로설계 프로그램으로 유입 • 프로그램 간 상호 연결하여 대상자 발굴 • SNS, 순회 교육/홍보를 통한 자발적 참여 유도	• 프로그램 중복 이용의 경우 각 센터의 환경적 특성이나 운영 방침, 여건 등에 따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외부 기관과의 연계	• 연계 상황은 센터마다 상이하였는데, 인근 유관기관 연계 외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기도 함. • 외부 민간 기관과의 연계 시(사업위탁 시) 담당자가 직접 참여하여 청소년의 변화를 모니터링함. • 학교 연계는 진로관련이 아닌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상황에 대한 요청이 대부분임. • 청소년기관, 진로체험지원센터, 민간재단/은행, 지자체, 대학 등과 연계한 다양한 연계 사업 운영	• 센터 위치/주변 환경의 인프라 상황 등에 따라 충분한 연계가 어려운 경우 중앙/지자체 차원의 자원연결 필요 • 외부 위탁 프로그램 운영 시 담당자의 참여 및 모니터링에 대한 지침 필요 • 학교에서의 진로설계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청과 학교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청소년 및 부모 대상의 다양한 지원	• 초기상담 후 필요시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 제공,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경우 사례회의를 통해 다양한 지원 제공 • 진로컨설팅, 창업동아리, 진로멘토링 등 다양한 진로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제공 • 진로멘토링 제공 시 다문화가족배경의 대학생 멘토의 경우 깊은 공감대 형성 등 긍정적 효과가 많으나 해당 멘토를 찾기 어려워 추가 사업 포기	• 생애주기를 고려한 청소년의 발달단계별 진로설계프로그램과 청소년의 정서지원 후 진로지원이나 복합적인 어려움 경험 등에 따른 사례관리형의 단계별 프로그램 기획, 제공 필요 • 진로멘토링 등을 위해 다문화가족배경의 멘토를 발굴하고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모색

구분		결과 요약	정책적 함의
		• 장기적으로 단계별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거나 수요조사를 통해 희망하는 직업체험 제공, 진로 관련 DB구축 시도 • 부모와 가족을 대상으로 입학설명회, 컨설팅, 특별 강연, 부모코칭, 학부모 자조모임 등 지원	필요 • 진로/직업체험 관련 청소년 대상 수요 조사 확대,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을 추적, 필요한 개입을 하기 위한 DB구축 등 검토 필요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주요 성과	진로설계 프로그램의 긍정 효과 및 만족도	• 다문화청소년의 프로그램 참여 후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변화 관찰 • 진로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었으며 관심 증가 • 청소년들의 욕구 파악을 통해 다른 프로그램 기획에도 반영, 가족 외 지지체계 인식,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부수적 긍정 효과	• 자신의 진로에 대해 생각하고 고민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 더욱 구체적인 진로탐색 기회 필요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방법 활용	• SNS 홍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순회 교육·홍보 • 학교, 교육청, 교육복지협의체 등 지역사회 교육체계를 활용한 홍보	• 청소년 및 가족 대상 직접 홍보 강화 • 교육체계 대상 홍보 시 진로 프로그램의 장점/성과에 대한 적극 홍보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 애로사항	사업 초점 변화에 따른 어려움	• 정서지원→진로설계로의 초점 변화로 전문 인력 활용에 혼선, 잦은 이직 발생 • 담당자의 전문성과 역할과의 불일치로 프로그램 운영 한계(과거 프로그램 답습, 프로그램 기획/운영 한계, 상담에만 초점) • 결국 신규 채용을 통한 분리 진행	• 진로설계프로그램 기획/운영, 자원연계 등을 위한 담당자 기준과 역할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인 매뉴얼 필요 • 담당 인력 신규 채용 필요를 위한 예산 확보 및 관련 교육 진행 필요
	대상자 모집/특성 차이에 따른 어려움	• 다문화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생각이 많지 않았으며, 학교 역시 문제청소년에 대한 의뢰 외에 진로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았음. • 중도입국인 경우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큼. • 눈에 띄지 않아 대상자 파악이 어려움.	• 가족센터의 진로설계프로그램에 대한 학교의 관심 유도 필요 • 대상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단계별 프로그램 기획
	프로그램 운영과 인력, 공간의 문제	• 진로에 관해 더 전문적인 학교/진로지원기관과의 사업 중복과 프로그램 적절성에 대한 고민 • 평일 저녁과 주말 등 프로그램 운영시간에 따른 어려움 • 인력 충원 및 운영공간의 문제	• 다문화청소년 대상 진로설계프로그램으로서의 차별화, 프로그램 내실화 필요 • 청소년상담사의 가족센터에서의 역할 및 경력 산정 방식 등 개선 필요 • 지역사회 공간 이용 방안 모색 필요
진로설계 프로그램 향후 개선 방안	향후 사업 방향성 재고 필요	• 다문화청소년 한정 프로그램 지원이 오히려 낙인이나 장벽을 만들게 되며, 최종 지향점에 대한 고민 필요 • 최종사업 목표와 이에 따른 사업 내용에 필요한 전문 인력 자격기준 등 명료화	• 다문화청소년 한정 지원에 따른 분리 고착 및 통합 저해를 고려한 향후 방향성 고민과 합의 필요 • 사업목표 및 인력 자격 기준 등 명료화 (사업목표에서 정서/진로지원이 동일 비중이라면 체계적 지원방법과 일련의 사업 내용, 인력구성, 예산에 모두 반영)
	전문 인력 양성시스템 개선과 지침 구체화	•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양성도 중요(역량강화) • 이직 방지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의 안정적 근속에 관심 필요 • 인력 배치의 명확한 지정 희망 • 기관 연계방법 등 상세 매뉴얼 및 교육 필요	• 진로설계프로그램 전문가로서의 전문 인력 양성 시스템 강화 • 전문 인력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가족센터 경력 산정 관련) • 인력배치/연계방법 등 상세 지침 필요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	• 학교와 교육체계 대상 홍보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대상자 모집 및 연계를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중요	• 여성가족부 및 건강가정진흥원 차원의 교육체계 및 지자체 대상의 적극적인 사업 안내 및 홍보 필요

(2)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다문화청소년 중심) 현장실무자 FGI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진행 현황과 성과, 운영에서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 방향과 개선점 등의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다문화청소년 중심 선도학교의 담당자 5명을 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학생맞춤통합지원은 다양한 학교 관계자가 참여하여 협업하는 체계임에 따라 교내 교과 교사, 사업을 구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 등 다양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관계자들을 섭외하여 각 상황에서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FGI 참여 학교가 전국 각지에 위치함에 따라 원활한 참여를 위해 온라인 화상으로 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FGI 분석결과, 재개발, 낙후/외곽 지역에 위치한 학교의 경우 전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과 기초학력 부진,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많았으며, 인근 산업단지가 있는 학교에서는 한국어 소통이 어려운 외국인자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2023년 하반기를 시작으로 현재 생필품, 학용품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 충족을 위한 지원과 함께, 상담을 통해 개별 욕구를 파악하고 있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대상자 발굴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는데, 사업 관계자들과의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사각지대에 있거나 지원에 누락되는 지원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었다. 지역사회 연계의 일환으로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관, 가족센터, 민간복지재단 등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가족을 지원하고 있었다.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 시작된 지 오래되지 않은 시점임에도 가정 및 심리적 문제, 학교부적응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이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개입이 적시에,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대응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사업예산을 유연하게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했는데, 여전히 존재하는 예산 사용 기준의 모호함과 제약 등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아울러 학교관리자의 리더십과 책임감, 관계자 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독려 등이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는데, 이러한 학교관리자의 리더십 강화와 사업성과 공유,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보상 체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원에서의 애로사항으로는 학부모의 한국어 소통에서의 어려움과 자녀를 지원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문제가 대두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는 담당교사와 자원 발굴 및 연계, 지원에서의 교육복지사의 업무과중 및 이로 인한 소진 예방에도 관심이 요구되며, 관련하여 담당업무 분산 및 인력 추가 배치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유연한 예산 사용을 통해 지원 대상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었고 또 대상 학생과 일부 학부모 지원을 통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에 따라 향후 더욱 확대가 필요한 사업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선도학교 지정과 예산 확대(학교 여건에 다른 차등 지원), 학교 관계자 대상의 사업 이해도 향상 등을 위한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42. 학생맞춤통합지원 담당자 FGI 주요 결과 및 정책적 함의

구분		결과요약	정책적 함의
환경적 특성		• 재개발, 낙후/외곽 지역 소재 학교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 낮은 기초학력 수준, 심리사회적 어려움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음. • 인근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일시체류자신분의 외국인자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경우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 모두 거의 한국어 소통이 되지 않음.	• 지역,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필요 •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사례가 많음으로 사업이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음.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현황	지원사업 도입과 내용	•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되어 다양한 위기 청소년(다문화청소년 포함) 지원 시작 • 생필품이나 학용품 등 구체적인 필요 충족을 위한 지원뿐 아니라 위기 징후를 보인 다문화청소년 상담을 통해 개별 욕구 파악 후 희망하는 지원 제공	• 학생맞춤통합지원이 최근 도입됨에 따라 향후 사업성과를 적극적으로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표출되지 않아도 지원이 필요한 다양한 상황/배경의 지원 대상 발굴 노력 필요
	지원 대상 발굴 방식 개선과 전달 체계 정비	• 지원 대상 청소년 발굴에서의 담임교사의 역할 중요 • 정기적인 사례회의 개최를 통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	• 일차적인 지원 대상 발굴에서의 담임교사 역량 강화 필요 • 체계적인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사례 누락 예방
	지역사회 자원 동원 및 민관(民官) 연계를 통한 지원	•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 안전망, 가족센터 등을 통한 긴급 생계 등 지원 • 민간복지단체와의 연계, 지원을 통한 시너지 효과 • 외부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일부 학부모(심리) 치료비 등 지원	•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주요 발달 환경인 가족지원을 위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자원·지원 적극 발굴 및 연계 필요(예, 가족센터에서 다문화청소년 정서지원+진로설계 연계 가능) • 자원 발굴 및 연계에서의 교육복지사의 역할과 업무부담 고려 필요(확대 배치 등)
주요 사업 성과	청소년과 관계자, 지원방식에서의 긍정적	• 복합적 어려움(결혼이주 어머니와의 소통 부재, 심리적 어려움, 학교생활 부적응 등)을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대상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긍정적 변화(학교적응) 유도	• 학생맞춤통합지원은 여러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청소년들에게 통합적 관점에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에 더욱 관심 필요

구분		결과요약	정책적 함의
	영향	•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담임교사의 관심과 교육복지사의 역량 및 효능감 증대 • 타당하고 시의적절한 개입 가능	• 희망하는 지원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발굴 및 대응체계 정비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다양한 인적요소 및 지원방식에서의 성공요인	• 책임있는 학교관리자의 리더십 • 학교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참여 독려, 학교 분위기 조성 • 교내 다체계 간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한 통합지원 • 정기/수시 사례회의 등 지원방식에서의 체계성, 효율적인 기존 사업과의 병행 추진, 유연한 예산 사용 등	• 교장, 담임교사, 교육복지사, 상담교사 등 모든 관계자들의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적극적인 개입 방안 모색: 학생맞춤통합지원에 대한 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성과 공유 및 다양한 방식의 관계자 보상체계 등 마련 • 체계적 접근 노력, 예산사용 범위 확대 필요
지원에서의 애로사항, 어려움		• 학부모의 한국어 소통능력 부족과 자녀지원에 대한 학부모 미동의 문제로 대상자 발굴이 어려움. • 일부 예산 사용 기준의 모호함과 과도한 제약, 예산 부족 • 최대한 지원하는 과정에서의 담당교사, 교육복지사의 업무과중 문제	• 학부모와의 소통 강화, 학부모 여건을 고려한 다양한 홍보방안 필요(D학교 예시: 입학식, 학부모 공개 수업 시 QR코드 통해 지원제도 홍보) • 예산 사용 범위 확대 및 명시 필요(행정실 등 예산 집행부서 협조 필요) • 주요 담당자 업무 분담 및 적절한 인력 배치
개선 방안 및 향후 발전 방안		• 유연한 예산 사용을 통한 지원 대상 적극 발굴 • 학생 및 일부 학부모/가족(우울증 치료)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이 가능함에 따라 학부모 및 교내 관계자들이 높은 만족도 시사 • 향후 안정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 운영을 위한 사업 지속 필요 • 교내 관계자 교육 및 연수 중요 • 예산 규모가 크지 않지만, 학교 상황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장점인 유연한 예산 사용의 범위 지속 확대 • 청소년, 학부모, 교내 관계자들의 높은 만족도에 따라 안정적인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유지 및 확대 필요 • 관리자 및 담당자 전보발령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마련 • 학교관계자 대상 지속적인 교육 필요 • 예산 증액 필요(학교 특성, 관계자 이해, 사업 추진 의지 등에 따른 사업비 차등 지원 고려)

제7장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 및 진로·진학 준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 제언 도출 방법
2.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3. 정책제언(안)

7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안정 및 진로·진학 준비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26)]

1. 제언 도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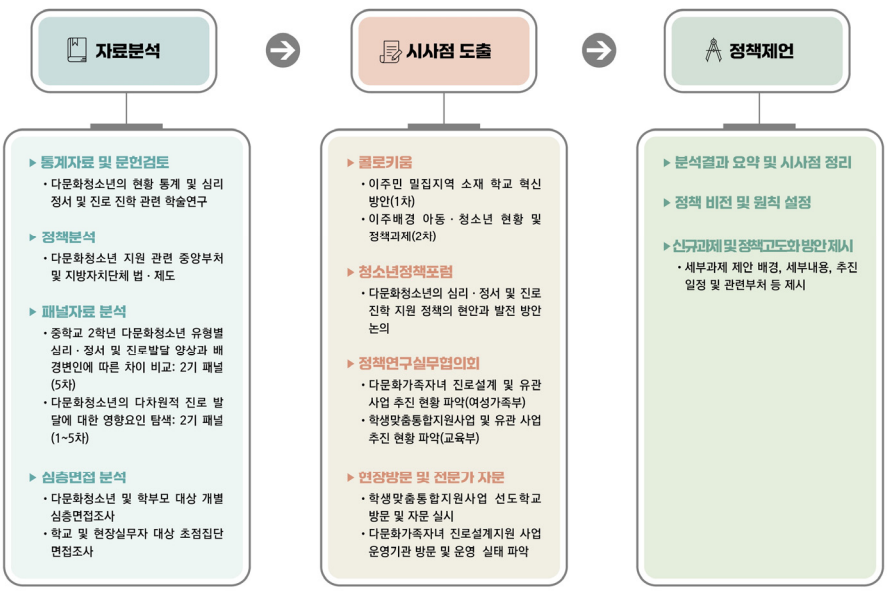
다문화청소년이 겪는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진로·진학 준비 경험을 이해하고 원활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 마련 과정은 자료분석-시사점도출-정책제언으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의 현황을 이해할 수 있는 통계자료와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을 다루는 학술연구와 법·제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또한, 지난 2023년 조사된 2기 패널 자료를 심리정서와 진로진학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고, 다문화청소년, 학부모, 교사, 지원기관 담당자 등에 대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정책고도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패널자료에 대한 분석은 ①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 유형별(국제결혼 국내출생, 중도입국, 외국인 가정) 심리·정서 및 진로발달 양상과 배경변인에 따른 차이 비교: 2기 패널(5차), ② 다문화청소년의 다차원적 진로 발달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2기 패널(1~5차) 등으로 이루어졌다. 질적연구는 ① 다문화청소년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개별심층면접조사(심리·정서 상태에 대한 영향요인 파악, 진로·진학 준비 경험 등)와 ② 학교 및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조사(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 및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지원사업에 대한 운영 경험, 성과, 발전방안 등)로 추진되었다.

정책적 함의와 시사점은 학계, 현장, 정부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의 논의를 통해 구축되는 인식의 틀과 자료분석 결과 간 지속적인 비교와 조정의 과정을 거쳐 도출되었다. 이때 이번 연구에서 추진한 전문가와의 논의 과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콜로키움(2회)을 개최하여 학계의 다문화청소년 전문가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다문화학생

26) 7장은 신동훈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작성하였음.

밀집 학교의 어려움 및 현실적인 혁신 방안과 법·제도의 변화로 인해 예상되는 다문화청소년과 관련한 새로운 국면을 조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했다. 다음으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과 관련한 정책사업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연구 방향성 논의 및 현장 밀착형 정책 개발을 위해 교육부 및 여성가족부와 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 실시하였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발전방안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현장 및 학계 전문가 등의 발표와 토론 등으로 구성된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사업의 운영 및 추진 실태를 파악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각각의 사업을 운영하는 현장을 방문하였다.



* 출처: 저자작성

그림 Ⅶ-1. 제언 도출 과정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리된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측면에서의 원활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의 원칙을 설정하였다. 또한, 정책 원칙에 따라 현재 운영되는 정책의 고도화 방안과 새롭게 고려해 볼 만한 정책을 세부과제로 제안하였다. 각각의 세부과제에서는 해당 과제 제안에 대한 배경과 세부내용,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등을 함께 제시하였다.

2. 분석결과 요약 및 시사점

1) 선행연구 및 정책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다문화청소년의 현황과 전망,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에 관련한 선행연구, 법, 제도, 정책 현황을 살펴본 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당분간 증가세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인구가 특정 지역에 밀집되는 현상은 다문화청소년이 밀집된 학교의 증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다문화밀집학교는 교육 환경에 있어서의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이주배경 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 수립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유형이나 상태에 관계 없이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기존 법·제도 등의 한계로 발생하는 정책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한다. 다만, 여전히 지원 내용의 다양성이 떨어지는 점, 예컨대 대상의 특성에 따른 심리·정서나 진로·진학 지원이 부족한 것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외국인가정 자녀나 학생 신분이 아닌 다문화청소년과 같은 대상을 위한 차별성 있는 정책과 정책적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셋째, 교육부의 「학생맞춤통합지원」이나 여성가족부의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진로설계지원」과 같이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정책의 방향성은 대상을 중심에 둔 맞춤형 지원에 있으며, 이에 따른 자원의 연계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한 추진 체계에 인력 구성이나 예산 등의 한계가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2) 자료 분석 주요 결과 및 시사점

이번 연구에서 자료 분석은 크게 두 가지 방향(양적자료에 대한 분석과 질적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추진됐다. 양적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기초분석과 심화분석으로 구분되며, 이 가운데 기초분석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발달 현황을 이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문화청소년 유형 및 개인을 둘러싼 여러 영역의 변수에 따른 발달 양상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심화분석은 랜덤 포레스트 분석과 SHAP 지수를 기반으로 다문화청소년의 다차원적 진로발달에 대한 영향요인을 탐색하였다.

질적자료를 활용한 분석은 청소년과 학부모에 대한 개별면담 자료와 다문화청소년 대상 사업 기관 담당자 또는 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초점집단면접 자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토대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시기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학·진로계획 및 진로준비 상황을 파악하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적 지원의 성과와 발전 방안에 대해 도출하고자 했다.

(1)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발달 현황 분석: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기 5차년도 자료를 활용해 이들의 심리·정서와 진로발달 실태를 파악하였다. 세부적으로 심리·정서는 심리사회 적응, 정서문제, 다문화 영역으로 구분하고, 진로발달은 단일 영역으로 하여 다문화청소년 유형과 배경변인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수준과 관련한 지표는 대체로 높은 수준이었다. 다만, 다문화청소년 유형 가운데에서는 중도입국가정 자녀의 심리사회 적응 수준이 국제결혼과 외국인가정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외국에서 성장하다가 중도에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경험하는 낯선 환경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비롯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어 수준과 이로 인한 학업에 대한 어려움의 가중이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다문화청소년의 정서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고립, 진로 및 미래 불안감 등에서 다문화청소년 유형 간 차이가 있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사회적 위축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중도입국가정 자녀는 사회적 고립감과 진로 문제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된다.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때 다양한 측면에서의 성장과 발달이 저해될 수 있으므로,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해 해소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은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외국인가정 자녀는 다른 유형보다 상급학교 진학준비도의 수준이 낮게 형성되어 있는 반면, 진로태도 결정성과 진로준비역량은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외국인가정 자녀가 한국의 입시체계, 고등학교 유형 및 입학 과정, 고교 교육과정 등과 같은 진학 정보의 습득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으나, 진로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의 수준은 상대적으로 발달된 단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를 통한 정보 전달이 제한된 상황을 진학 정보의 불균형을 초래한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으며, 외국인가정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입시정보 교육이나 부모 대상 진학 설명회 등을 제공하는 것은 진학 정보의 취약성 개선을 위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넷째,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 적응 수준은 대도시 거주, 학교밖 지지체계의 존재, 높은 가구 소득에 따라 높은 경향이 있다. 대조적으로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청소년은 사회적 위축 수준이 높았다. 또한, 지역 자원의 불균형은 학업 및 진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의 걱정으로 나타나는데, 농산어촌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가정에서 그 현상이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과 지역내 자원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드러낸다.

다섯째, 청소년과 부모 사이의 대화가 어떠한 언어로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정서적 상태에 차이가 있었다. 국제결혼가정에서는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말로 대화할 때, 외국인가정에서는 한국어로 대화할 때 이들의 우울, 사회적위축 등 정서문제가 더 많았다. 다문화청소년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면 어머니와 대화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는 대화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다. 즉, 국제결혼가정 자녀가 친숙한 언어는 한국어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들이 어머니와 대화할 때 이중언어로 소통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 소통의 원활함을 제한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일 수 있다. 외국인가정 자녀는 한국에서의 거주기간에 따라 한국어 수준에 많은 차이가 난다. 특히,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인가정 다문화청소년 가운데 어머니 나라말은 거의 하지 못해서 주로 한국어로 소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외국인가정의 학부모는 모두 외국출신이기 때문에 한국어로 하는 의사소통의 깊이가 깊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 따라서 청소년-부모 대화의 주된 사용 언어에 따른 정서 상태의 차이는 이러한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어머니와 대화를 어머니 나라말로 하는 경우 부모나라문화에 대해서는 더욱 수용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자녀 간 대화가 이중언어 또는 외국어를 통해 깊이 있는 소통의 수준으로 이루어질 때 다방면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다문화청소년은 부모가 자유학기(년)제를 인지하고 있는 경우와 가정내 직업의 직능수준이 높은 경우 진로 발달 단계도 높은 경향이 있었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이 부모의 관심과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관련 있음을 드러낸다. 다만, 이 연구에서 다문화가정 부모의 약 60%가 자유학기(년)제를 모른다고 응답했던 것은 주목해야 할 지점

이다. 따라서, 진로정보의 취약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를 대상으로도 적절한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그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2) 다문화청소년의 다차원적 진로 발달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2기 패널

심화분석에서는 2기 다문화청소년의 패널조사 자료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이들의 다차원적 진로 발달에 대한 주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및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난 2023년 실시된 5차 조사에서 측정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을 반응변수로 설정하고, 1~5차 조사에서 수집된 391개 설명변수를 투입하여 랜덤 포레스트 분석과 SHAP 지수를 기반으로 영향요인을 도출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에 대해 상급학교 진학 준비도가 강한 정적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상급학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질적인 준비 행동이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진로발달에도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에 대해 삶의 만족도와 사회적 위축, 교사의 지지 등과 같이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있었으나, 다수의 서로 다른 영향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진로 준비 역량은 여러 영역의 다양한 변수가 도출된 반면,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으로는 걱정거리, 자신의 미래나 진로와 관련한 대화 및 상담과 관련한 변수가 다수였다. 더구나 진로 준비 역량의 영향요인은 몇몇 변수(사회적 위축, 우울, 사회적 고립 등)를 제외한 대부분이 정적 요인이었지만, 진로태도 결정성의 영향요인 중 부적 요인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과 전략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셋째, 진로 준비 역량에는 우울과 사회적 고립의 영향 정도가 강했다. 이는 심리·정서적 상태가 진로 발달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보여주며, 다차원적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와 달리 진로결정성은 어머니 관련 변수의 영향 정도가 상대적으로 컸다. 어머니가 스스로 자녀의 학교 교육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생각할 때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결정성이 특히 높았고, 미래 및 진로와 관련한 대화나 상담을 어머니와 하지 않는 경우의 진로태도 결정성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는 다문화청소년의 어머니가 자녀의 진로 및 학업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소통할 때 자녀가 본인의 진로에 대한 방향성을 명확하

게 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과이다.

넷째, 다문화 요인 또한 진로 역량의 다차원적 발달의 주요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청소년이 인지하는 긍적적 이중문화 수용태도나 국가정체성, 한국사회의 다문화 수용성 등은 진로 발달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음이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발달이 다문화청소년 개인의 노력으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닌,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주체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임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학업 관련 요인은 진로 준비 역량과 진로태도 결정성 모두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지 않았다. 이는 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한 선행연구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로 보이지만, 연구 대상에 따른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청소년의 발달 단계 또는 학교급에 따라 진로 개발 역량과 관계가 있는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진로지원과 교육의 중점을 학교급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3) 심층면담 주요 결과 및 시사점

(1) 다문화청소년 대상 심층면접조사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조사(IDI)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는 중학교 3학년 시기의 다문화청소년의 목소리를 통해 이들의 심리정서적 측면과 진학·진로계획 및 진로준비와 관련한 경험을 더욱 깊이 있게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다문화청소년 유형과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섭외한 15명의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과 이들의 학부모 일부를 포함한 대상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했다. 지난 2023년과 이번 2024년에 모두 면접에 참여한 청소년 3명과 어머니들에 대해서는 전년도 전사자료를 활용해 종단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전사자료에 포함된 해당 내용의 앞뒤 맥락을 반복하여 검토하면서 생활 모습과 인식, 경험, 변화양상 전반에 관심을 두었고, 다문화청소년 유형이나 거주지역에 따른 경험의 차이, 또 일부 학부모 인터뷰를 통한 청소년을 둘러싼 개인과 상황에 대한 인식의 차이 등에도 주목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다문화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진로 및 학업에 대해 본격적인 고민과 탐색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일부는 신체화 증상이나 낮은 자존감을 경험하기도 했다.

이중언어 사용이나 다문화배경이 같은 또래를 더욱 친근하게 여겨 친구 관계를 맺는 등 다문화배경이 장점으로 작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에 대해 설명하기 어려워하거나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례도 관찰되기도 했다. 스스로 부정적인 정서를 갖지 않더라도, 다문화청소년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괴롭힘이나 놀림을 당한 사례들도 발견된 점은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시기 청소년에게 또래 관계가 중요하듯, 또래 관계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었다. 현재의 기분과 상태 또는 작년 보다 좋아진 점 등에 대한 이유로 친구 수의 많고 적음이나 친구 관계의 좋고 나쁨을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 한편, 고립감을 느끼거나,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 설정이 다소 일방적인 것으로 보이는 사례도 관찰되었다. 건강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이해와 기술 습득이 필요해 보이는 지점이다.

가족과는 대체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학교폭력이나 진로와 같은 문제는 부모와 공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더구나 부모가 자녀의 상황에 대해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사례도 발견되었는데, 이는 부모-자녀 간 소통의 중요성과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지원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다문화청소년들은 성장과정에서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 학교 등으로부터 언어, 심리·사회적 지원과 학습·진로지원, 문화체험 등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받았고, 그러한 지원에 대한 만족도도 높았다. 다만, 지역사회기관을 통한 지원이나 활동은 대체로 중학교 진학 이전에 집중되었던 것으로 보이며, 다문화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과 운동, 여가를 보낼 곳이 부족한 것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다.

진로 준비와 관련해서, 일부 청소년의 경우 가족과 주변의 도움을 통해 진로에 대해 준비하고 구체화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소 즉흥적이고 제한된 시각으로 진로에 대해 접근하는 사례나 진로정보 탐색도 유튜브나 인터넷 등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의 선택에 대해 응원과 지지의 목소리를 냈지만, 그 이상의 구체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례는 드물었고, 오히려 막연한 기대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즉, 자녀의 진로·진학 준비 수준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못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였으며, 한국어 수준이나 문화 차이와 같은 다문화적 요소가 여기에 일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였다. 청소년들도 스스로에 대한 객관화 수준이 낮은 경우가 관찰되었는데, 자기 객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상태가 이러한 결과에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였다.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지역아동센터, 가족센터 등)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었으며, 추가적으로 다문화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전문적 개입이 가능한 가족센터 등에서의 중고생 대상 및 다문화청소년 상호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제시되었다. 이외에 다양한 여가와 스포츠 활동을 위한 장소 및 시설 부족, 특히 수도권 지역과의 차이도 지적됨에 따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2) 다문화청소년 지원 정책 현장실무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조사(FGI)

다문화청소년 진로설계프로그램의 현장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FGI는 현장에서 대면하는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에 대한 지원 경험을 직접 청취하고 현장에서의 진로설계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가족센터는 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용자가 많았으며 외국인가정이나 중도입국 사례의 경우 한국어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센터 이용 청소년들은 심리·정서·인지 영역의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며 진로에 대한 생각도 많지 않아, 연령대와 학교급, 발달단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이 기획될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둘째, 진로설계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은 대체로 센터 내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유입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센터 특성에 따라 SNS나 순회교육/홍보를 통한 이용자 발굴도 이루어졌다. 일부 학교로부터 연계가 있던 사례는 진로설계지원 사업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었다기보다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상황에 대한 지원요청이 계기가 된 것으로 가족센터-학교 간 연계에 대한 학교의 인식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한다.

셋째, 진로설계지원사업 운영의 어려운 점은 대체로 인력의 확보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다. 사업의 초점이 기존 정서지원에서 올해 진로설계로 바뀌면서 운영인력이 갖추어야 할 전문성의 영역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는데, 현장에서는 변화로 인한 혼란의 여파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추후 청소년에 대한 정서지원과 자원연계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담당자 기준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는 다문화배경이 있는 멘토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워 멘토링을 활용한 진로설계 지원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기도 했다.

넷째, 본 사업과 타기관에서 추진하는 유사 사업과 차별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향후 사업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와 사업 목표와 프로그램 지원 대상자를 다문화청소년에 한정할 것인지 등에 대한 장기적인 고민과 합의가 필요해 보였다. 학교에서 제공되는 지원의 규모나 학교가 가족센터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 등을 고려하여, 가족센터의 전문성을 활용한 진로설계지원 사업으로 거듭날 필요성이 있다. 예컨대, 다문화청소년 유형 가운데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대상을 위한 내용이 포함된 맞춤형·단계적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제공하는 방식에 초점을 둘 수 있을 것이다.

(3) 학생맞춤통합지원 선도학교(다문화청소년 중심) 현장실무자 FGI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추진 현황과 운영성과, 운영 상 제한점 및 발전 방안 등과 관련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선도학교 가운데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포착된 총 5개 학교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FGI 집단을 구성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의 대상자 발굴은 많은 경우 상담을 통한 개별 욕구 파악을 기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임교사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학교관리자의 리더십과 책임감, 관계자 간 사업에 대한 이해와 참여 독려 등도 중요한 성공 요인이었다. 한편,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기관과의 협업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상황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인원의 업무가 과중하게 지워질 가능성이 있었다. 인적자원의 이와 같은 중요성은 학교관리자의 리더십 강화 및 사업성과 공유, 관계자들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보상 체계도 마련될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둘째, 사업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가정 및 심리적 문제, 학교부적응 등 복합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등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다. 물론, 적시성 있는 개입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능하는 대응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효과성 있는 지원을 위한 전제조건이었다. 또한, 예산 사용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함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예산 사용 기준의 모호함과 제약 등은 개선이 필요해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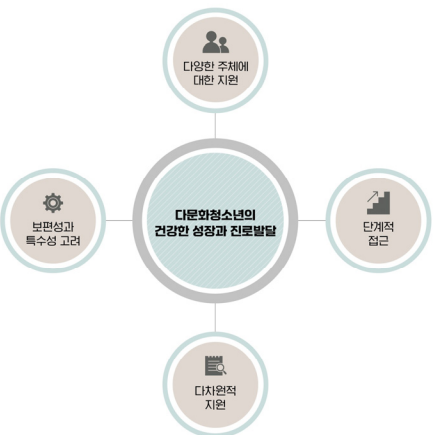
셋째, 학생맞춤통합지원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청소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와 원활하지 않은 소통문제와 자녀 지원에 대한 미동의 문제가 일부 학교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별도의 예산이 주어지는 현행과 같은 방식이 유지되지 않거나 유지되더라도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적시성 높은

지원이 가능했던 장점이 희석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아울러, 원활한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담당교사와 교육복지사의 업무과중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한 소진 예방에도 관심이 요구되며, 담당업무 분산 및 인력 추가 배치 등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3. 정책제언(안)

1) 정책방향(비전과 원칙)

이번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어려움과 진로·진학 준비에서의 제한점은 여러 차원에서 복합적인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으나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들이 개별적인 현상을 피상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어 정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접근은 일시적으로 상황을 타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결국 유사한 문제가 재차 발생하거나 다른 현상으로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발달"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정책고도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Ⅶ-2.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관련 정책의 비전과 원칙

이러한 비전의 달성을 위해 1 지원대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2 다양한 주체에 대한 3 다차원적 지원을 4 단계적 접근에 따라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지원대상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하는 원칙은, 다문화청소년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다. 각 정책이 근거하는 법률 상의 정의에 따라 다문화청소년 가운데에서도 외국인가정 자녀는 정책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많다. 정책의 대상에 아예 포함이 안되거나, 포함되더라도 지원대상자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되기도 한다. 또한, 같은 출신국의 이주민이 상대적으로 많아 집단을 형성한 경우 정책적 지원에 대한 파악과 활용에 장점이 있어 소수의 대상에게 고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다문화청소년 내에서도 거주기간이나 환경 등에 따라 특수한 어려움을 겪는 대상이 있고, 그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은 다문화청소년을 이해하고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점이다. 특히, 한국어나 사회적 발달 수준은 그 자체로 적응에 어려움으로 작용할뿐만 아니라 지속해서 성장과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통합된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방식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의 특수성에 기반해 정책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의 원칙이다. 자료분석을 통해 도출할 수 있었던 다문화청소년이 경험하는 어려움은 본인을 둘러싼 여러 체계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또래로부터 물리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사례, 다문화를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스스로 위축되어 타인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례,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해 부모나 학교로부터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등은 개인에 집중된 지원 방식이 유효하게 기능하지 못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친구, 부모, 교사, 이웃 등 다양한 주체를 대상으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차원적 지원의 원칙은 심리정서와 진로발달 등은 상호 밀접한 영향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기인한다. 즉,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의 이면에는 다른 문제가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을 의미하며, 이때 피상적인 접근에 기반한 해결방식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동시에 여러 문제가 드러나 각각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정책 간 연계가 바탕이 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중복과 사각지대는 지원의 효율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정서와 진로·진학과 관련한 세부과제를 설계함에 있어 다차원적 지원의 원칙을 고려한다는

것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된다는 의미를 내포할 뿐만 아니라, 체계적 지원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넷째, 단계적 접근 원칙이다. 다문화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책적 지원은 각자가 처한 심리정서적 상태나 진로 발달 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최근 도입되어 추진되고 있는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과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사업은 학생의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추구하고 있어 단계적 접근이 가능한 구조이다. 다만,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 학생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보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여할 인원을 모집하는 사례가 발견되는 것은 우려가 되는 지점이다. 운영기관의 상황에 맞춰 프로그램을 구성하더라도 그것이 기관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에 의해 체계성이 바탕이 되어 이루어진 것이라면 긍정적이라 평가할 수 있겠으나, 그때그때의 수요에 따라 맥락 없이 일회성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된다면 그 한계는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단계적 접근 원칙은 운영기관 또는 정부부처에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향하는 바와 그 지향점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의 여러 단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이나 정책이 단계적으로 설계되고 지원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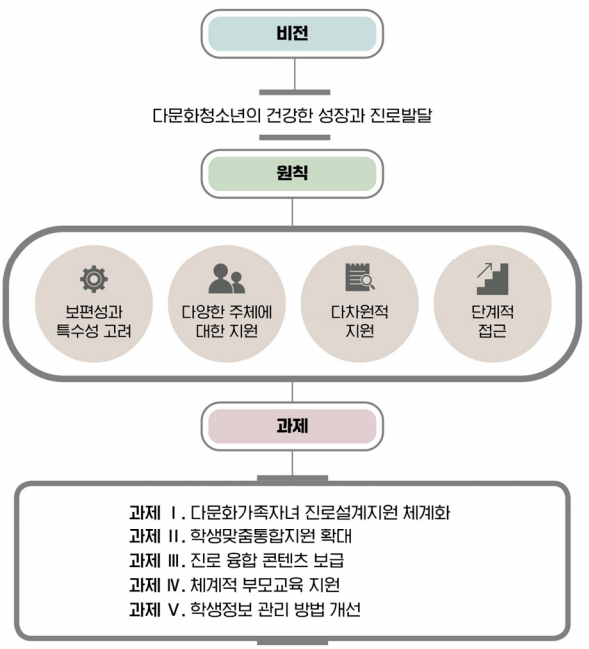
2) 세부과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발달"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4가지 원칙(보편성과 특수성 고려,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 다차원적 지원, 단계적 접근)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세부과제를 제시하였다.

표 Ⅶ-1. 세부 정책 과제

정책과제명	도출근거					추진일정	추진방식
	패널자료 분석		면담자료 분석		정책 분석	단기 /중기 /장기	개선 /활용 /신규
	기초	심화	IDI	FGI			
과제 Ⅰ.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 체계화	◎	◎		◎	◎	단·중기	개선
과제 Ⅱ. 학생맞춤통합지원 확대	◎		◎	◎	◎	단·중기	개선
과제 Ⅲ. 진로 융합 콘텐츠 보급			◎		◎	단기	신규 및 개선
과제 Ⅳ. 체계적 부모교육 지원	◎	◎	◎	◎		단·중기	활용
과제 Ⅴ. 학생정보 관리 방법 개선			◎			단기	개선

각 세부과제는 추진 방식에 따라 개선, 신규, 활용으로 구분된다. 이번 연구에서 초점을 맞춘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과제Ⅰ)과 학생맞춤통합지원(과제Ⅱ)에 대해서는 개선 방향 또는 중점사항 등을 제시하였고, 행정시스템 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학생정보 관리 방법 개선(과제Ⅴ)으로 제시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발달 지원을 위한 융합 콘텐츠 개발의 필요성을 새로운 정책(과제Ⅲ)으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정책이나 자료 등을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는 내용도 세부과제(과제Ⅳ)로 설정하였다. 세부과제를 포함한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정책 체계는 아래와 같다.



* 출처: 저자 작성

그림 Ⅶ-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정책 체계

과제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 체계화(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가족자녀의 진로설계지원과 관련해 가족센터의 명확한 역할 및 지원 방향성 설정 필요* – **(한정적 지원대상)** 다문화청소년에 한정하는 형태의 지원이 오히려 낙인이나 장벽을 만들기도 함(예산 집중에 대한 차별 논란 포함). 현재도 비다문화청소년의 참여는 가능하지만 성과산출에는 포함되지 않는 구조로, 운영기관의 입장에서 지원의 의미가 크지 않음. – **(획일적 성과산출)** 다문화청소년 유형 가운데 지원의 난이도가 더 높은 대상과 상대적으로 지원이 용이한 대상 간 사업결과 보고에 있어 차이를 드러낼 여지가 많지 않아, 기관 여건에 따라서는 지원이 용이한 대상에 집중해 사업이 추진될 우려가 있음. – **(전문성 및 차별성)** 학교를 비롯해 다른 진로지원기관과의 차별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학교를 통해 연계되는 지원 사례는 학교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임. • *사업 내용 및 목표에 부합하는 전담인력을 채용하고 운영하기 위한 기준 및 예산 수립 필요* – **(전문성과 업무 불일치)** 기존에 주로 채용된 청소년상담사 역할과 전담인력이 주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 내용 사이의 불일치로 진로프로그램 운영에서의 한계(과거 프로그램 답습, 프로그램 기획/운영 한계, 상담에만 초점). 2024년 기준 운영인력은 지원규모에 따라 센터당 1명 또는 2명 수준이나, 대부분의 경우 1명의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자격기준은 이번 2024년 확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상담사가 전담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로 보임. – **(인력부족)** 청소년상담사와 사회복지사의 전문 영역이 다르므로, 상담을 통한 욕구 파악(정서지원 포함)과 진로설계 지원(자원연계 포함)이 병행되어야 하는 본 사업의 특성상 각각의 자격을 갖춘 인력을 배치함이 바람직함. – **(불안정적 고용기반)** 지역에 따라서는 채용 자체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채용된 인력이 진로설계프로그램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약함. • *학교와 교육기관 대상 홍보 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대상자 모집 및 연계를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중요*
세부내용	• *사업 방향성 재고* – **1안) 학교 진로교육의 사전준비 단계로서의 역할:** 학교에서 추진하는 진로·진학 프로그램을 소화하기 힘든 청소년들(예: 진로·진학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수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전준비 단계 수준의 지원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예: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을 갖게 되는)으로 회복시키는 데 집중 – **2안) 한국어와 진로설계 지원을 융합한 활동/프로그램 제공:** 언어의 한계로 본격적인 진로지도가 어려운 다문화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차원적인 영역의 콘텐츠를 융합해 제공함으로써 복합적인 상승효과 기대 – **3안) 다문화청소년 성장 로드맵의 일환으로 추진:** 각 센터가 다문화청소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 내용을 종합해 특성화된 다문화청소년 성장 로드맵을 설계하고, 여기에 기반해 지원 대상자의 상태 및 성장단계에 따라 체계적 지원. 진로설계지원 예산은 성장 로드맵을 실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유연하게 사용하도록 허용. • *전문인력 확대 및 양성시스템 개선과 지침 구체화* – **(전문인력 확대 예산배정)** 한 센터에 청소년상담사와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모두 배치될 수 있도록 전문인력에 대한 예산을 확대하거나, 대안적으로 다문화가족자녀 기초학습지원도 수행하는 센터의 경우 전담인력 추가를 위한 예산을 우선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이를 통해, 센터 내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인력의 배경을 상담, 복지, 교육 등으로 고르게 구성해 복합적이고 다차원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음.

	- **(안정적 고용기반 마련)** 전담인력의 안정적 직무수행을 위한 제도 개선(가족센터 경력 산정 관련) 및 이직 방지를 위한 청소년상담사의 안정적 근속 방안 마련 • *여성가족부 및 건강가정진흥원 차원의 교육체계 및 지자체 대상의 적극적인 사업안내 및 홍보 실시*

기타사항	• 사업 방향성 재고를 위한 운영기관 의견수렴 과정 및 추진방향에 따라 관계부처 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전문인력 확대에 따른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간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한 지침 마련 및 워크숍 등 개최 필요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추진 일정**			**주관부처**	**개선/활용/신규**
	단기('25~'26)	**중기('27-'29)**	**장기('30-'34)**		
	▶	▶		여성가족부	개선

과제 II	학생맞춤통합지원 확대(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다문화청소년 지원 방식의 패러다임 변화*

- **(맞춤형 정책 필요성 증가)** 지역, 환경적 특성을 고려한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복합적 지원 필요성 증가)** 복합적인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일차원적인 접근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다문화청소년 사례가 많음.

• *안정적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 및 예산 운영 방식 마련 필요*

- **(사업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현재는 시범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 중심으로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사업의 안착에 대한 우려가 있음.
- **(유연한 예산구조 장점 유지)** 학생맞춤통합지원 사업 운영을 위해 현재는 별도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어 유연한 예산 사용이 가능한 구조이나, 향후 별도의 예산이 주어지는 현행과 같은 방식이 유지되지 않거나 유지되더라도 일정 규모에 미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유연하게 사용함으로써 적시성 높은 지원이 가능했던 장점이 희석될 수 있음.

• *개인 수준을 넘어선 통합적 관심과 노력 필요*

- **(학교구성원 내 인식 및 협조)** 사업의 취지에 맞는 조기개입과 자원 연계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인식이 학교구성원 내에서 갖춰져야 함.
- **(지원 대상 특성에 따른 어려움)**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와 소통에 한계가 있는 경우, 지원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함.
- **(타부처 사업과 연계 필요성)** 교육부 외 부처에서 추진되는 정책 및 사업과 연계의 중요성이 크지만, 개인 또는 학교차원의 노력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세부내용

• *학생맞춤통합지원 제도적 기반 구축*

- **(법적근거 마련)** 현재 시범교육(지원)청 및 선도학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음. 사업 종료 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2024년 10월 25일 기준 계류중인 관련한 4개 법안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타당성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요청됨.
- **(예산확보 방식의 명확화)** 학생맞춤형통합지원을 위해서는 유연한 예산운용이 필수적이나, 계류중인 법안의 경우 기존 사업 간 관계나 조정 등에 대해서는 재량규정으로 두고 있어 한계가 있으며, 예산 확보나 활용 등에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음. 대안적으로 1) 학생을 위해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마련을 위해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각 사업의 예산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해 활용하는 방식, 2) 사업 내용이나 예산구분 없이 기존 사업들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음.

표 Ⅶ-2.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대표발의)」 내 예산 관련 조항

제11조(학생맞춤통합지원 등)

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지원대상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학생의 필요에 맞춰 제공·관리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 어려움, 심리적·정서적 어려움, 아동학대 등으로 인하여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이 현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학생(이하 이 조에서 "위기학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위기학생의 동의를 거쳐 학생맞춤통합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 위기학생이 다른 학생의 학습·심리·진로·안전 등을 현저하게 위협하고 있어 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기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⑥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Q4R0P9P0O5P1N3N5V8U1U6S6T6R4) 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 • *체계적인 협력체계 구축* - **(지역사회 다문화청소년 성장 로드맵 구축)** 타 부처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별 청소년 성장 로드맵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정립하도록 함(예: 학교-학생에 대한 실질적 지원 / 가족센터-부모와 소통). - **(사업운영의 조직화)** 일부 담당자의 역량에 온전히 기대지 않고 사업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관계자들의 인식 전환과 학교 내외부 자원 연계 관련해 광역과 정부차원에서 대응

기타사항	• 효과적인 예산 운영을 위해서는 기존 사업의 정리 또는 조정이 필요 • 중복된 대상자 및 지원내용에 대한 부처간 역할 구분 필요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추진 일정**			**주관부처**	**개선/활용/신규**
	단기('25~'26)	**중기('27-'29)**	**장기('30-'34)**		
	▶	▶		교육부	개선

과제 III	진로 융합 콘텐츠 보급(신규 및 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진로교육 우수사례 보급 및 확산 필요* – **(진로교육의 지역별 편차)**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은 법(「초·중등교육법」, 「진로교육법」)과 정책(「이주배경 인재양성 지원방안」)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으나, 중앙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사업과 온·오프라인 진로상담 서비스 제공 사업을 제외하면, 대부분 교육청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큰 편임. – **(기 개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보급·확산 제한)** 2023년 개발된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진로교육 프로그램 「모두의진로」는 진로 준비 역량 과 다문화에 대한 인식 함양에 도움을 주는 연계 프로그램으로 개발되었으나, 예산 편성이 제한적인 까닭에 현장에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확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학교를 통한 진로 지원 경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 다문화청소년 IDI 결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의 다양한 진로 지원 경험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았음. • *진로 지원 내용과 방식의 다양화 필요* – **(피상적 진로탐색 경향)** 진로에 대한 준비를 공적기관 또는 부모님의 사적 지원으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으나, 스스로 유튜브나 SNS 등을 통해 찾아보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음. – **(비판적 정보탐색 필요성 증대)**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 역량이 진로 준비 및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함. – **(맞춤형 지원에 대한 요구)** 본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진학, 적성, 체험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본인의 관심과 다른)직업인 방문이나 직업에 대한 설명 위주의 활동은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음. – **(다문화적 특성에 따른 지원 활성화)** 한국어 수준이 낮거나 체류자격을 고려해야 하는 다문화청소년과 같이 특수한 욕구가 있는 대상을 위한 진로교육 지원 활성화 필요.
세부내용	• *진로교육 방향성의 재설계* – **(다면적 진로교육 프로그램 보급 및 확산)** 기 개발된 프로그램 가운데 진로 융합 콘텐츠라 할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모두의진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현장에 보급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단면적 진로교육의 한계 극복. – **(진로X디지털문해교육 콘텐츠 개발)**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고, 생생한 정보는 어디에서 들을 수 있는지, 그러한 정보가 정확한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등을 안내하고 실습하는 내용으로 진로 융합(진로X디지털문해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찾아가는 진로교육)** 진로교육 편차해소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진로교육 추진 • *특별한 수요가 있는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교육 내용 및 방식 개발* – **(한국어X진로교육 콘텐츠 개발)** 한국어 수준이 낮은 대상을 위해 한국어 교육에 진로 역량 개발 관련 내용을 가미한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체류자격에 따른 진로교육 실시)** 체류자격을 고려해야 하는 유형의 다문화청소년이 희망하는 진로 경로에 따라 비자발급의 요건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여줄 수 있는 반응형 콘텐츠 개발
기타사항	• 개발된 자료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수단 다양화 고려 •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연수과정 운영 • 자료 개발 시 적용 대상 및 환경(예를 들면, 다문화와 비다문화학생이 통합된 환경에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한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함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추진 일정			주관부처	개선/활용/신규
	단기('25~'26)	중기('27-'29)	장기('30-'34)		
	▶			교육부	신규 및 개선

과제 Ⅳ	체계적 부모교육 지원(활용)

제안배경 및 필요성	• *부모요인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진로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외국출신 부모의 제한점)**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과 낮은 수준의 한국어 능력, 구체적이지 못하고 깊이가 얕은 소통 수준 등으로 인해 자녀의 상태에 대해 객관적이지 못한 인식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자녀의 긍정적인 정서 함양과 진로발달에 제한적으로 기여 – **(체계적인 다문화가정 부모교육 필요성)** 부모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지난 2023년 연구에서도 제기한 바 있음. 부모교육을 가능케 하는 자료는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음. 다만, 지원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면 단계적인 접근을 통해 다차원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보다 체계성을 갖추어 부모교육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보다 근본적이고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모교육* – **(부모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기대)** 개별심층면담을 통해 확인한 부모의 변화 사례는 체계적인 부모교육이 이루어졌을 때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매우 클 수 있음을 시사. 예컨대, 그동안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와 요구는 한 번의 부모 상담을 통해 큰 변화를 가져왔음.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애를 바꾼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무조건 저를 바꿔야 얘가 바뀌지** 엄마가 안 바뀌면 애가 어떻게 바뀔지 어려워요…"(청8-국내-모*, 2024) – **(부모교육의 긍정적 효과의 연쇄 작용)** 자녀의 심리적 문제 발생과 일련의 개입 과정 역시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나, 학부모는 자녀에 대해 더욱 이해하게 되었고 양육방식과 태도의 변화를 보였으며 자녀 역시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음.
세부내용	• *다문화청소년 부모교육 체계화* – **(기 개발 자료 분석 및 정리)** 학부모온누리, 중앙다문화교육센터,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및 다문화가족지원포털 등 다양한 플랫폼에 나누어져 있는 부모교육 자료의 통합 및 정리 → 자녀의 발달단계/다문화청소년 유형/언어수준/심리정서 상태/부모의 언어 및 교육체계에 대한 이해 수준 등을 고려한 교육과정 개발 – **(부모교육 및 가족상담의 적극적 활용)**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상황을 고려한 부모교육 심화과정과 이에 연계한 개인, 가족상담 및 치료적 개입 추진 – **(부처간 사업 연계)**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의 예산 일부를 활용해 센터 내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하되, 강사진 섭외는 학교를 포함한 지역 내 교육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소화
기타사항	• 징검다리 과정이나 진로연계학기 등을 활용하는 방안 고려. • 부모교육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연구 필요. • 부모교육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주말에 교육을 실시하거나 현장으로 찾아가는 방식을 활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음.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추진 일정			주관부처	개선/활용/신규
	단기('25~'26)	중기('27-'29)	장기('30-'34)		
	▶	▶		여성가족부	활용

과제 Ⅴ	학생정보 관리 방법 개선(개선)

제안배경 및 필요성

- *학교 시스템 상 한계로 인한 외국출신배경 노출*
  - **(원치 않은 배경 노출)** 자신의 배경을 밝히고 싶지 않아도 학교 시스템 상 여러 경로로 외국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됨. 스스로 자신의 외국인가정 배경이 노출되길 원하지 않았음에도 다른 학생들과 다르게 학교 시스템상 이름이 영어로 나타나는 까닭에 외국출신 배경이 노출되어, 학기 초반 괴롭힘을 받고 친구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었음.

"외국인이다 보니까 그런게 다 영어로 뜨는데 … 반편성을 하면 그걸 사이트 같은 데에 들어가서 이름이랑 그걸 치면 1반에는 누가 있고 1번부터 몇 번까지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뜨는데 **애들은 다 한국인이니까 한글로 뜨는데 제가 외국인이라서 영어로 떠서 1번에 있었어요"** (청소년1-외국외)	" … 차라리 학생기록부나 출석부를 아예 다 한국어로 바꿔 버려라 말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다른 애, **외국인 걔도 출석부로 뭐라 하는 애들이 한두 명 있었고** … 애들이 **자기가 외국국적을 갖고 있다는 거를 밝히기 싫을 수도 있거든요… 애들이 놀려서 화를 낸 적도 있어서"** (청소년4-외국내)

- *다문화청소년 유형에 따라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에 차이가 있음.*
  - **(상대적으로 높은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의 집단 괴롭힘 노출 비율)** 다문화청소년이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하는 비율은 지난 10여 년 전에 비하면 많이 개선된 편이지만, 중도입국 및 외국인가정 자녀는 여전히 따돌림, 집적거림, 무시, 신체폭력, 거짓소문 등의 괴롭힘에 노출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음(신동훈 외, 2023).
-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세부내용

- *시스템 개선*
  - **(학생정보 관리 방법 개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상 2개 이름을 등록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이름으로 개인배경이 드러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드러내길 희망하는 이름을 추가 등록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학생정보 관리 방법을 개선.
  - **(이름 기재 방식 개선)** 외국인가정 자녀의 경우에도 눈에 띄는 영어 기재보다는 한국어로 기재 필요
- *변경 시 해당 시스템 활용 활성화*
  - **(활용방안 연수자료 보급)** 변경된 시스템 및 관리 방안에 대해 자료 제작 및 보급
  - **(당사자 안내)** 다문화학생과 면담 시 관련 내용 안내

기타사항

- 시스템 개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규 등록하는 이름과 본명과의 관계가 행정시스템 안에서 설정되어야 하고, 사안에 따라 출력할 이름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어야 하며, 교사의 세심한 관리가 요청됨.
-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해 연계되는 정보시스템에서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고려
- 법제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 일정이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됨.

추진일정 및 관련부처	추진 일정			주관부처	개선/활용/신규
	단기('25~'26)	중기('27-'29)	장기('30-'34)		
	▶			교육부	개선

참고문헌

참고문헌

고은혜, 배상률 (2017). 부모와의 별거경험이 중도입국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입국 후 가족환경에 대한 인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4**(4), 211-232.

곽은정, 이수경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에 따른 잠재집단분류 및 계층별 영향요인과 집단별 진로결정성 차이.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71-99.

관계기관합동 (2023).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관계부처합동 (2023). **제7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교육부 (2023a).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

교육부 (2023b).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2023~2027).**

교육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중앙다문화교육센터 (2020).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 가이드라인: 초중등** (PM2020-17). 서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센터 내부자료.**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2023). **학생맞춤통합지원가이드북 -선도학교용-. 수탁연구자료 CRM 2023-6.**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4). **2024 청년 삶 실태조사**. 내부자료

권오영, 양계민 (2024).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 변화유형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21**(1), 259-279.

권혜진, 다그와더르지 아마르자르갈, 김학선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강신념모델(Health Belief Model) 이론의 국내와 국외 연구동향 비교분석 - 코로나 19 발생기간을 중심으로 -. **산업혁신연구, 38**(2), 89-104.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2022). **2022년 산재보험패널조사 이용자 안내서(2023-12-024).** 서울: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

김경준, 김희진 (2014).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Ⅵ: 2014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통계** (연구보고 14-R14-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 정신진담검사 실시 요강.** 서울: 중앙적성연구소.

김기헌, 문호영, 황세영, 유민상, 김균희, 이용해 (2021). **2020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021-06). 서울: 여성가족부.

김기헌, 배정희 (2021). **2021년 청년사회·경제 실태조사: 기초분석보고서** (연구보고 21-R19-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미림 (2019).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한 교사효능감 관련 요인 탐색: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연구, 36**(2), 19-47.

김민경, 권효원, 문찬주, 박나실, 방혜진, 황승록 (2022).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2)** (수탁사업 2022-01-01).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민배, 문승태 (2004). 대학생의 진로결정 수준과 개인의 내·외적 변인과의 관계. **진로교육연구, 17**(1), 92-105.

김순규 (2001). **청소년의 학업중퇴 결정요인-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신영, 임지연, 김상욱, 박승호, 유성렬, 최지영, 이가영 (2006). **한국 청소년발달 지표조사Ⅰ: 결과부분 측정지표 검증** (연구보고 06-R02).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김양분, 남궁지영, 박경호, 김미숙, 김위정 (2015). **한국교육종단연구(KELS) 2013(Ⅲ): 조사개요 보고서** (연구보고 RR 2013-25).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김양분, 임현정, 신혜숙, 남궁지영, 양수경, 이병식, 임후남, 최정윤 (2011). **한국교육종단연구 2005 Ⅶ** (연구보고 RR2011-21). 서울: 한국교육개발연구원.

김영식, 이호준, 김훈호 (2020).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사교육비 지출 예측 모형 탐색. **교육재정경제연구, 29**(4), 235-257.

김영천 (2013). **질적연구방법론 Ⅱ: Methods.**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김영혜, 김다경 (2016). **경기도 다문화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정책보고서 2016-30). 경기: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김유빈, 이지은, 신선옥, 정현상, 권익성 (2019). **한국노동패널 1~21차년도 조사자료: 통합설문지**. 세종: 한국노동연구원.

김윤이 (202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진로 태도 성숙,

진로 장벽 인식 예측모형 탐색. **진로교육연구, 35**(4), 29-58.
김은영 (2001). **한국 대학생 진로탐색장애검사(KCBI)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은혜, 정민아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 이중문화수용태도, 사회적 위축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6**(1), 51-75.
김재희 (2019).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학교 진로교육활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과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다문화교육연구, 12**(1), 111-146.
김재희 (2020). 중학생과 부모 간 희망직업 및 희망교육수준 불일치가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5), 89-117.
김재희 (2021). 중·고등학생의 온라인 진로활동과 진로개발역량 및 자기주도학습의 관계. **취업진로연구, 11**(1), 1-30.
김정화, 윤효운 (2024). 베트남 중도입국 청소년의 자기표현을 위한 미술치료 질적 사례연구. **임상미술심리연구, 14**(2), 133-158.
김지경, 백혜정, 임희진, 이계오 (2010).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I** (연구보고 10-R01).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경, 변금선,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2019).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청년정책 개선방안** (연구보고 19-R0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지연, 이윤희 (2019). 다문화청소년 진로발달 연구 동향과 과제: 학회지 논문을 중심으로(2009-2019.6).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9), 1205-1230.
김지혜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115-124.
김진희, 김준엽 (2022). 랜덤 포레스트 회귀 기반의 교사-학생관계 영향요인 탐색과 SHAP을 활용한 해석. **교육평가연구, 35**(3), 409-437.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교육논총, 35**(3), 63-74.
남궁지영, 김혜자, 박경호, 송승원, 김양분, 이규민 (2018). **2018 한국교육종단연구 한국교육종단연구2013(VI): 조사개요보고서** (기술보고 TR 2018-137). 진천: 한국교육개발원.
노충래 (2000). 로즌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척도를 활용함 교포 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노충래, 고주애, 윤수경 (2018). **국내 난민아동 한국사회 적응 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1). 서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노충래, 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연구: 서울경기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류방란, 오성배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교육 기회와 적응 실태. **다문화교육연구, 5**(1), 29-50.

류재윤, 이유경 (2012).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진로개발역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9**(4), 99-116.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문화포럼, 54.** 67-93.

문찬주, 김민경, 최광성, 황승록, 방혜진, 김민석 (2023). **초·중등 진로교육 현황조사(2023)** (수탁사업 2023-05-01). 세종: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근영, 오지연, 장윤정, 이정환, 김은미, 설가인, 이상민, 이윤정 (2019). **2019 학과(전공) 분류 자료집** (통계자료 SM2019-09).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박소영, 정혜원 (2021).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예측변수 탐색. **열린교육연구, 29**(1), 239-265.

박윤경, 이소연 (2009).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생활 실태에 대한 조사 연구 : 집단 간 차이와 집단 내 다양성. **시민교육연구, 41**(1), 41-71.

박정윤, 박현지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157-181.

박찬흥 (2024).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예측 요인 분석. **교원교육, 40**(1), 177-195.

백예은, 정혜원 (2023a).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주요 설명 변인 탐색: 랜덤 포레스트와 SHAP을 적용하여. **교육학연구, 61**(2), 135-161.

백예은, 정혜원 (2023b). 혼합효과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한 청소년기 진로성숙도 발달 예측 변인 탐색: SHAP을 활용한 해석을 중심으로. **교육평가연구, 36**(3), 473-798.

백혜정, 임희진, 김현철, 유성렬 (2017).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연구보고 2017-10). 서울: 여성가족부.

법무부 (2023).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안)(2023년~2027년)**.

성한기 (2001). 한국판 사회정체화 척도의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5**(3), 33-48.

송지숙, 안귀여루 (2014). 고등학생의 부정적 정서상태 및 자아개념이 진로의사결정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효과. **청소년학연구, 21**(9), 279-302.

신동훈, 이정민, 홍명기, 이용해, 임선아, 김지혜 (2023). **2023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3-일반08).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신숙재 (1997).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부모효능감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계민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신규패널설계보고서** (연구보고 18-R14-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강경균 (2017).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V: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7-R1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김승경, 박주희 (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Ⅱ** (연구보고 11-R07).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신현옥, 박주희 (2014).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Ⅱ: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4-R16).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이정민, 정윤미, 엄진섭, 장윤선, 전경숙 (2022). **2022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19).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9-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9-R15).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2020). **2020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0-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장윤선, 정윤미, 한지형 (2021). **2021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21-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양계민, 조혜영 (2012). 중도입국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관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9**(11), 195-224.

양계민, 황진구, 연보라, 정윤미 (2018).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8-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여성가족부 (2022). **2021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2024). **2024년 가족사업안내(Ⅱ)**. 서울: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오미애, 최현수, 김수현, 장준혁, 진재현, 천미경 (2017). **기계학습(Machine Learning) 기반 사회보장 빅데이터 분석 및 예측모형 연구** (연구보고서 2017-46).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성배 (2009). 외국인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의 교육 실태와 문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20**(3), 305-334.

오성배, 서덕희 (2012). 중도입국 청소년의 진로의식,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원 실태 탐색. **중등교육연구, 60**(2), 517-552.

오승환 (2016).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지역사회복지학, 56**, 1-27.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유민상, 김기헌, 신동훈 (2023). **청년 쉬었음 심층분석 및 정책방향 연구.**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서고운, 신동훈, 이지연(2023). **아동·청소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대응 방안 연구** (연구보고23-수시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연구보고 21-R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민상, 신동훈, 신영규, 박미희 (2022).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조사** (연구보고 22-일반07).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유승희 (2020).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5), 229-254.

유진은 (2015). 랜덤 포레스트: 의사결정나무의 대안으로서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 **교육평가연구, 28**(2), 427-448.

유한구, 류지영, 민숙원, 신동준, 이은혜, 이의규, 정태화 (2017).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II.** 세종: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윤현희, 김경애, 김나영, 이동엽, 이정우, 이희현, 이재창, 홍미영 (2023). **이주민 밀집지역 소재 학교 혁신 방안** (연구보고 RR 2023-1).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윤혜준, 송창용, 황성수, 민숙원, 백원영, 이은혜, 이지은, 금예진, 김혜정, 박라인, 손희전, 융종혁, 김영식 (2019).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II(2019)** (기본사업 2019-09). 세종: 한

국직업능력개발원.
이경상, 김진호, 오해섭, 김희진 (2003).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I -조사개요보고서-** (연구보고 03-R15).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이경상, 백혜정, 이종원, 김지영 (2011).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1-R10).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규민, 강상진, 노명완, 류제명, 류희찬 (2006). **국가수준의 종단적 교육조사 연구를 위한 성취도 검사 및 척도개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기학, 한종철 (1997). 진로태도 측정도구의 타당화를 위한 도구. **진로교육연구, 8**, 219-255.
이동욱 (2022).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진로 장벽의 영향요인: Smart PLS-SEM 접근을 이용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9), 631-643
이민희 (2018). 대학생의 부모애착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봉주, 민원홍, 김정은 (2014). 청소년기 사회적 위축 문제의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발달-맥락주의적 관점을 적용한 탐색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8), 317-346.
이소래 (1997). **남한이주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종 (1995). **문화이입과정 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승현, 강지현, 이원상 (2015). **청소년 사이버폭력의 유형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서울: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이아라, 이주영, 손보영 (2018).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진로장벽에 대한 질적연구. **청소년학연구, 25**(11), 35-64.
이영신 (2024).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준비성 영향요인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42**(1), 105-129.
이윤정 (1999). **지방출신 서울유학생의 대학생활적응과 진로계획.**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윤지, 임예직, 이지우, 조신영, 변민수, 김호진, 최종철 (2023). **2023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자영, 강석영, 김한주, 이유영, 양은주 (2010). 학업중단 위기청소년이 지각한 학업중단의 위험 및 보호요인 탐색: 개념도 연구법의 활용. **청소년상담연구, 18**(2), 225-241.

이주미 (2021). 사회인지 진로자기관리모형에 기반한 청소년의 학습경험, 진로결정자기효능감, 결과기대, 진로설계역량 간 구조적 관계. **진로교육연구, 34**(1), 73-96.

이해경, 김혜원 (2001). 초등학생들의 집단괴롭힘 가해행동과 피해행동에 대한 사회적, 심리적 예측변인들: 학년과 성별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5**(1), 117-138.

이현민, 정진철 (2021). 대학생 진로결정 검사도구 개발. **진로교육연구, 34**(1), 175-203.

인효연 (2020). 중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예측요인. **상담학연구, 21**(2), 35-58.

임희숙. (2024). 제주형 학생맞춤통합지원 정책 다차원 분석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6), 703-722.

장수빈, 노충래 (202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부모의 방임에 따른 진로결정성의 변화궤적. **학교사회복지, 65**, 1-25.

장윤선, 임소현, 이윤희, 김은영 (2023). 학부모의 자녀교육 기대 관련 요인 탐색: KELS 2005, 2013 코호트 비교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4**(2), 371-392.

장주희, 박천수, 이윤진, 한상근, 박상근 (2021).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 1차 연구.** 대전: 통계청.

전경숙 (2017).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진로준비와 정착계획에 관한 탐색적 연구. **GRI 연구논총, 19**(1), 441-473.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6**(10), 259-290.

정세정, 김기태, 류진아, 김태완, 강예은, 이영수, 이관후 (2021). **사회배제 대응을 위한 새로운 복지국가 체제 개발** (연구보고서 2021-06).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세정, 류진아, 강예은, 김성아, 함선유, 김동진, 임덕영, 신영규, 김문길, 이혜정, 김기태, 김태완, 이원진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정책보고서 2022-109). 세종: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재현 (2019). 머신러닝을 활용한 정책설계: 출산 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재정포럼, 279**, 12-35.

정필운, 전윤경, 민수빈 (2023).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CRR 2023-04). 충북: 한국교육개발원.

조영아, 정철영 (2013). 고등학생의 진로개발역량과 진로준비행동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5**(4), 53-77.

주소희, 이경은 (2016). 다문화가정의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연구.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9**(1), 91-111.

진성희, 성은모 (2017). 청소년 진로개발역량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진로교육연구, 30**(1), 67-90.

진영선, 조아미 (2016). 잠재계층분석을 이용한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23**(3), 315-339.

쩐투꾹, 이윤석 (2022).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관한 연구 : 학교급에 따른 차이 비교. **지역사회학, 23**(2), 151-180.

채경선, 마미숙 (2015). 가족기능과 고등학생의 진로성숙도와의 관계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4**(2), 31-54.

최윤정, 김이선, 선보영, 동제연, 정해숙, 양계민, 이은아, 황정미 (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연구보고 2019-01). 서울: 여성가족부.

통계청 (2021). **한국종사상지위분류 해설서.**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3). **2022 개정 지역통계 표준매뉴얼 일자리인식실태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3). **2023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4a). **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매뉴얼**. 대전: 통계청.

통계청 (2024b).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24년 정기통계품질진단 결과보고서.** 대전: 통계청.

하여진 (2023). 다문화 고등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성의 종단적 상호관계: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6**(3), 67-84.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2018).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Ⅸ: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8-R13).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2021). **청년패널 2007 1-14차 조사 통합설문지.**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한미현 (1996). **아동의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 지각과 행동문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한준, 이희길, 정병은, 김대훈, 김월화 (2019).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개발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홍진주 (2004).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황광훈, 조민수, 박정아 (2018). **청년패널2007 11차(2017) 조사기초분석보고서** (기본사업 2018-107). 충북: 한국고용정보원.

황진구, 전현정, 이용해 (2022). **202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22-일반02).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Barry, D. T. (2001). Development of a new scale for measuring acculturation: The East Asian Acculturation Measure (EAAM). *Journal of Immigrant Health, 3*(4), 193-197.

Baker, R. W. and B. Siryk. (1984). Measurity adjustment to colle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1*(2), 179-189.

Breiman, L. (2001). Random forests. *Machine Learning, 45*(1), 5-32.

Denzin, N. K. (1978). **Triangulation: A Case for Methodological Evaluation and Combination.** Sociological Methods, 339-357.

Gibaud-Wallston, J., & Wandersmann, L. P. (1978). *Development and utility of the Parenting Sense of Competence Scale*. John F. Kennedy center for research on education and human development.

Hovey, J. D., & King, C. A. (1996).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immigrant and second-generation Latino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5*(9), 1183-1192.

Kim, U. (1988). *Acculturation of korean immigrants to Canada: Psychological, demographic, and behavioral profiles of emigrating Koreans, non-emigrating Koreans, and Korean-Canadians*. Unpublished Ph.D. dissertatin, Queen's University, Kingston, Canada.

Komisarczyk, K., Kozminski, P., Maksymiuk, S., Kapsner, L. A., Spytek, M., Krzyninski, M., & Biecek, P. (2024). *treeshap: Compute SHAP values for your tree-based models using 'TreeSHAP algorithm*. R package(version 0.3.1).

Leventhal, T., & Brooks-Gunn, J. (2000). The neighborhoods they live in: the effects of neighborhood residence on child and adolescent outcomes. *Psych ological bulletin, 126*(2), 309-337.

Liaw, A., & Wiener, M. (2018). *RandomForest: Breiman and Culter's random forests for classification and regression*. R package(version 4.6-14).

Lundberg, S. M., Erion, G. G., & Lee, S. -I. (2018). Consistent individualized feature attribution for tree ensembles. *arXiv preprint arXiv:1802.03888*.

Lundberg, S. M., Erion, G., Chen, H., DeGrave, A., Prutkin, J. M., Nair, B., Katz, R., Himmerlfrab, J., Bansal, N. & Lee, S. -I. (2020). From local explorati ons to global understanding with explainable AI for trees. *Nature Machine Intelligence, 2*, 56-67.

Okubo, Y., Yeh, C. J., Lin, P. Y., Fujita, K., & Shea, J. M. Y. (2007). The career decision-making process of Chinese American youth.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5*(4), 440-449.

Patricio, C., Neves, J. C., & Teixeira, L. F. (2023). Explainable deep learning methods in medical image classification: A survey. *ACM Computing Surveys, 56*(4), 1-41.

Patton, M. Q. (2002). *Qualitative research & evaluation method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 Inc.

Portes, A., & Rumbaut, R. G. (2008). *Children of immigrants longitudinal study* (CILS), 1991-2006. Ann Arbor, MI: 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Stewart, D. W., & Shamdasani, P. N. (2015). FOCUS GROUPS : Theory And Practice. Sage Publications. 강종구, 김영표, 정광조, 최종근 역(2018). **포커스 그룹**

연구 방법론: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Tashakkori, A., & Teddlie, C. (2003).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Thousand Oaks: Sage.

Teddie, C., & Tashakkori, A. (2009). Foundations of mixed methods research: integrating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in the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Sage Publications. 강현석, 김경식, 박창언, 백상수, 조영남, 주동범, 황윤세 역 (2015). **통합방법 연구의 기초: 사회·행동과학에서 양적 접근과 질적 접근의 통합.** 파주: 아카데미 프레스.

[인터넷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 (2024). **가구당 월평균 분위경계값 적자가구비율** (2인 이상, 가구기준).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9V040&conn_path=I3에서 2024년 9월 12일 인출.

법무부 웹사이트. **체류외국인 출입국통계**. https://www.moj.go.kr/moj/2412/subview.do에서 2024년 2월 16일 인출.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24.1.16.). **2024년 다문화 아동·청소년 지원 강화한다**. https://www.mogef.go.kr/nw/rpd/nw_rpd_s001d.do?mid=news405&bbtSn=7/09764에서 2024년 2월 15일 인출.

연합뉴스 (2024.06.24.). **교육부·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학생맞춤 통합지원' 업무협약.** https://www.yna.co.kr/view/AKR20240624116500530에서 2024년 9월 18일 인출.

의안정보시스템. **학생맞춤통합지원법안(백승아의원 등 16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I2Q4R0P9P0O5P1N3N5V8U1U6S6T6R4에서 2024년 10월 25일 인출.

통계청 보도자료 (2023.11.29.). **2022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20100&bid=204&act=view&list_no=428278&tag=&nPage=1&ref_bid=203,204,205,206,207에서 2024년 2월 16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학생맞춤통합지원 홈페이지. https://www.kedi.re.kr/studentsupport/content/124.do에서 2024년 09월 14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2024.2.15.) **학생맞춤통합지원.** https://www.kedi.re.kr/student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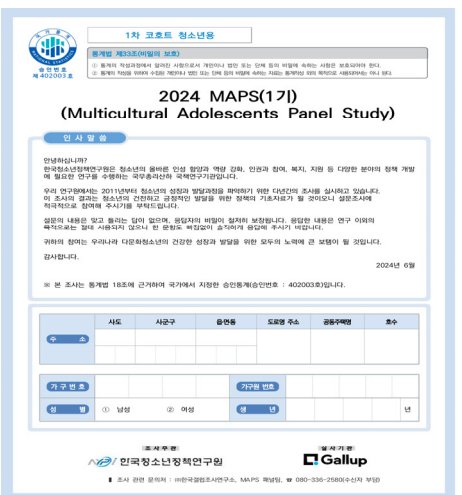
port/content/124.do에서 2024년 10월 11일 인출.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4년 2월 16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1).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2&nttId=35413에서 2024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8). **2017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66841에서 2024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19). **201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73857에서 2024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0781에서 2024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1). **2020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88648에서 2024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2). **2021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jsessionid=LELMvFbsWDR0AzGx8DdB3ezU.node20?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96092에서 2024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2023). **2022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4&nttId=104797에서 2024년 2월 15일 인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3.11.8.). **국내 거주 외국인주민 수 226만 명, 총인구 대비 4.4%, 최대규모 기록**.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4789에서 2024년 2월 16일 인출.

[법령자료]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https://www.law.go.kr/법령/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2024년 5월 17일 인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시스템. **다문화가족지원조례.** https://www.elis.go.kr에서 2024년 5월 17일 인출.

부록

부 록

1. 1기 패널 청소년 설문지



1차 코호트 청소년용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승인번호 제402003호

2024 MAPS(1기)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역량 강화, 인권과 참여, 복지,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011년부터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기 위한 다년간의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의 건전하고 균형적인 발달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비밀이 철저히 보장됩니다.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참여는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모두의 노력에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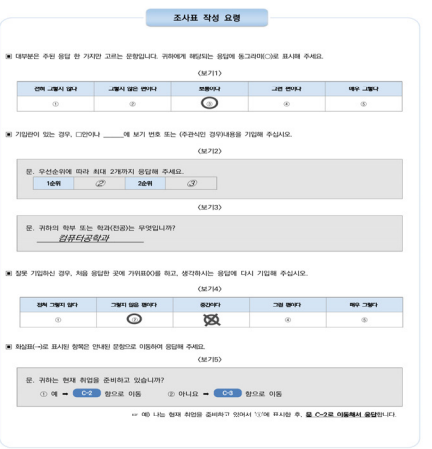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명	호수
주 소						

가구번호		가구원 번호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생 년	년

조사주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설문기관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③

〈보기3〉

문. 귀하의 학부 또는 학과(전공)는 무엇입니까?

컴퓨터공학과

▣ 질문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정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보기5〉

문. 귀하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① 예 → C-2 항으로 이동 ② 아니요 → C-3 항으로 이동

☞ ①) 나는 현재 취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C-2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사전 질문 군복무 ☞ G-1A의 ① 남자인 경우만

1 현재 군복무 중입니까?
※ 직업 군인은 '아니요'에 응답해주세요
① 예

1-1 군 입대(재복무 포함) 시기는 언제입니까?
_____ 년 _____ 월

1-2 군 전역 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① 대학복학
② 대학진학
③ 유학
④ 복직
⑤ 취업
⑥ 창업
⑦ 직업군인
⑧ 아직 계획 없음
⑨ 기타(적을 것 : _____)
응답 후 ➡ C-3 항으로 이동

② 아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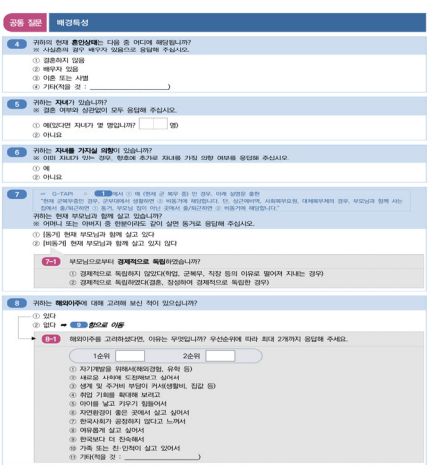
1-3 언제 입대할 예정입니까?
① _____년 _____월
② 아직 모름 ➡ C-3 항으로 이동
③ 군입대 대상자 아님
④ 이미 군복무를 마침

1-4 언제 군복무를 마치셨습니까?
_____년 _____월 ➡ C-3 항으로 이동

2 ☞ G-1A의 ① ➡ B-1에서 ① 예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B-2에서 ④ 이미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응답
군 복무 중 다문화가정자녀라는 이유로 불쾌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3 ☞ G-1A의 ① ➡ B-1에서 ① 예 (현재 군 복무 중이거나 B-2에서 ④ 이미 군 복무를 마친 경우 응답
군 복무 중 다문화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2024 MAPS I 3



공통 질문 배경특성

4 귀하의 현재 혼인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 사실혼의 경우 배우자 있음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결혼하지 않음
② 배우자 있음
③ 이혼 또는 사별
④ 기타(적을 것 : _____)

5 귀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있다면 자녀가 몇 명입니까? _____명)
② 아니요

6 귀하는 자녀를 가지실 의향이 있습니까?
※ 이미 자녀가 있는 경우, 향후에 추가로 자녀를 가질 의향 여부를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
② 아니요

7 ☞ G-1A의 ① ➡ B-1에서 ① 예 (현재 군 복무 중) 인 경우, 아래 상황은 출현
"현재 군복무중인 경우, 군부대에서 생활하면 ☞ 비동거에 해당합니다. 단,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제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에서 휴가/외근하면 ☞ 동거, 부모님 집이 아니고 군에서 휴가/외근하면 ☞ 비동거에 해당합니다."
귀하는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까?
※ 어머니 또는 아버지 중 한분이라도 같이 살면 동거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동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② [비동거] 현재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

7-1 부모님으로부터 경제적으로 독립하였습니까?
①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않았다(학업, 군복무, 직장 등의 이유로 떨어져 지내는 경우)
② 경제적으로 독립하였다(취업, 창업에의 경제적으로 독립한 경우)

8 귀하는 해외이주에 대해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② 없다 ➡ C-3 항으로 이동

8-1 해외이주를 고려하셨다면,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_____ 2순위 _____
① 자기계발을 위해(세계여행, 유학 등)
② 새로운 사회에 도전해보고 싶어서
③ 생계 및 주거비 부담이 커서(생활비, 집값 등)
④ 취업 기회를 확대해 보려고
⑤ 아이를 낳고 키우기 힘들어서
⑥ 자연환경이 좋은 곳에서 살고 싶어서
⑦ 한국사회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서
⑧ 여유롭게 살고 싶어서
⑨ 한국보다 더 친숙해서
⑩ 가족 또는 친·인척이 살고 있어서
⑪ 기타(적을 것 : _____)

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8-2 희망하는 해외이주 지역은 어디입니까?

① 북미(미국, 캐나다)
② 중남미(아르헨티나, 브라질, 멕시코 등)
③ 오세아니아(호주, 뉴질랜드 등)
④ 유럽(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 스웨덴 등)
⑤ 러시아 공화국(러시아(모스크바/상트), 카자흐스탄 등)
⑥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나,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등)
⑦ 중동·북아프리카(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이집트, 이스라엘 등)
⑧ 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⑨ 서남아시아(인도, 네팔, 스리랑카 등)
⑩ 동북아시아(중국, 일본, 대만, 몽골)
⑪ 기타(적을 것 : _____)

9 ☞ [로직] ☆ **7** 에서 긍로 응답 후 **7-1** 에서 긍로 응답한 경우, 본 문항에 대해 ①, ②, ③ 중 하나로 응답 시 확인

귀하 가구의 **생활비**를 누가 마련하고 있습니까?
※ 생활비란 **가구원 전체**를 위해 필요한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 생활에 드는 돈을 의미합니다.
※ **가구원**이란 함께 가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할머은계(친 인척, 가족 등)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면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① 부모님(또는 다른 가구원)이 전적으로 마련한다
② 부모님(또는 다른 가구원)이 대부분 마련하고, 본인이 일부 마련한다
③ 본인과 부모님(또는 다른 가구원)이 반반씩 마련한다
④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일부 부모님(또는 다른 가구원)의 도움을 받는다 ▸ **10** 항으로 이동
⑤ 본인이 전적으로 마련한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9-1 귀하는 **가구의 생활비** 마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담을 느낀다
⑤ 매우 부담을 느낀다

10 ☞ [로직] ☆ **9-1** 에서 '① 전혀적으로 도움하였다'인 경우 skip

귀하 **자신을 위한 생활비**를 누가 마련하고 있습니까?
※ 귀하 자신을 위해 필요한 식비, 주거비, 의류비, 교육비, 보건의료비 등 생활에 드는 돈을 의미합니다.

① 부모님(또는 다른 가구원)이 전적으로 마련한다
② 부모님(또는 다른 가구원)이 대부분 마련하고, 본인이 일부 마련한다
③ 본인과 부모님(또는 다른 가구원)이 반반씩 마련한다
④ 본인이 대부분 마련하고, 일부 부모님(또는 다른 가구원)의 도움을 받는다 ▸ **11** 항으로 이동
⑤ 본인이 전적으로 마련한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10-1 귀하는 **자신을 위한 생활비** 마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담을 느낀다
⑤ 매우 부담을 느낀다

11 최근 1년간 **귀 댁의 월평균 소득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기준

① 100만원 미만
② 100-200만원 미만
③ 200-300만원 미만
④ 300-400만원 미만
⑤ 400-500만원 미만
⑥ 500-600만원 미만
⑦ 600-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12 **귀 댁의 경제적 형편**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 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산다

13 귀하의 최종 학교와 졸업 여부는 *(가구원부의 최종 학교 및 졸업 여부 응답)*이 맞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3-1 그렇다면 최종 학교와 졸업 여부는 어떻게 되십니까?
※ 검정고시를 합격한 경우도 '졸업'에 해당합니다.
※ 직업전문학교, 학점은행제는 졸업한 경우 최종 학교로 응답합니다.(예, 현재 학점은행제 재학 중이면 '고등학교 졸업', 학점은행제로 학사를 취득했으면 '대학교 졸업'에 응답)

(1) 최종 학교 ····· ( )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전문대(초급대, 2년제 및 3년제 포함)
④ 대학교(4년제 이상)
⑤ 대학원 이상

(2) 졸업 여부 ····· ( )
① 졸업
② 재학
③ 휴학
④ 중퇴

※ 숭짐 문항 [최종 학교 및 졸업 여부]에 따라 로직 설정

① 고등학교 중퇴 이하
② 고등학교 재학/휴학 ▸ **B1** 항으로 이동
③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합격 포함)
④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이상 재학
⑤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이상 졸업 ▸ **A1** 항으로 이동
⑥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이상 휴학
⑦ 전문대/대학교/대학원 이상 중퇴
▸ **A1** 항으로 이동

Part A 대학진학

A1 ☞ [로직] ☆ 기존 응답이 없는 경우, 학교명 동일 여부 확인

귀하의 학교는 ○○**대학교**가 맞습니까?

① 예 ➡ A5(재학생 경우) 또는 A6(휴학생일 경우) 항으로 이동
② 아니요 ➡ **A1-1**로 이동

A1-1 ☞ [로직] ☆ 기존 응답이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응답과 다른 경우 학교명 검색해서 입력
[로직] ☆ 휴학 여부에 따라 (재학 중인/휴학 중인/졸업한) 워딩 선택 출현

귀하가 (재학 중인/휴학 중인/졸업한) **학교**는 어디입니까?

(학교 검색하여 입력) _____

➡ *응답 후* **A2** *(휴학의 경우) 또는* **A3** *(재학/졸업의 경우)로 이동*

A2 ☞ [로직] ☆ 현재 '휴학'인 경우만
[로직] ☆ 보기 ⑩ 선 택(는 설명이 넘자인 경우만 출현

귀하가 대학을 **휴학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건강상의 이유로
② 경제적인 이유로
③ 학업 수행(학교 공부)의 어려움
④ 학교 적응(친구관계, 학교 환경 등)의 어려움
⑤ 군 입대
⑥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⑦ 사회 경험을 쌓기 위해서
⑧ 다른 대학 진학 또는 편입 준비를 위해서
⑨ 해외 이주 준비
⑩ 기타(적을 것 : _____)

A3 ☞ [로직] ☆ 기존 응답이 있는 경우, 전공명 동일 여부 확인, 기존 응답이 없는 경우 **A3-1**로 이동

귀하의 전공은 ○○이 맞습니까?

① 예 ➡ **A4**로 이동
② 아니요

A3-1 귀하의 **전공**은 무엇입니까?

_____

➡ *군 복무 중인 경우(문1=①, 예),* **Part B** *으로 이동*

A4 ☞ [로직] ☆ 학력이 대학(고),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인 경우만

귀하는 2024학년도 1학기 등록금을 어떻게 마련하였습니까?
※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등록금을 마련한 경우, 주된 방법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 **휴학생**인 경우는 **휴학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부모의 도움
② 형제, 자매의 도움
③ 조부모 또는 친척의 도움
④ 스스로 벌어서 마련함
⑤ 장학금
⑥ 본인이나 부모님이 학자금 또는 개인대출을 통해 마련함
⑦ 본인 직장의 지원
⑧ 기타(적을 것 : _____)

A5 ☞ [로직] ☆ 학력이 대학(고), 대학원 재학인 경우만

귀하는 등록금 마련에 대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까?

①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② 별로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부담을 느낀다
⑤ 매우 부담을 느낀다

A6 ☞ [로직] ☆ 학력이 대학(고) 재학 또는 휴학인 경우만

다음은 귀하의 대학생활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현재 상태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 **휴학생**인 경우는 **휴학 직전 학기**를 기준으로 응답해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대학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이 학교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최근에 대학교육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학생활에 적응이 힘들어 휴학이나 자퇴에 대해 많이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대학에서의 학업성적에 만족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학과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를 충분히 잘 해낼 능력이 없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최근에 학습의욕이 없고 공부를 하려해도 집중이 잘 안 된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대학에 들어와서 속을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사귀었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과모임, 동아리활동, 동문회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최근에 대학생활에서 외롭다고 느낄 때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대학에서 뚜렷한 인간관계을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응답 후 ➡ **Part B** *으로 이동*

A7 ☞ [로직] ☆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대학(고) 중퇴인 경우만

올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 *응답 후* **Part B** *으로 이동. 단, 군 복무 중인 경우(문1=①, 예),* **Part B** *으로 이동*

Part B 일 경험

B1 ⇐ [G-TAPE] ☆ B1=1 에서 ① 예 (현재 구분자 값) 인 경우, skip

귀하는 **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아르바이트 포함)**을 하였습니까?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1주일 평균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일을 하였음**'으로 응답합니다.

① 일을 하였음 ➡ B2 *항으로 이동*
② 휴가 및 일시 휴직 ➡ B2 *항으로 이동*
③ 일을 하지 않았음 ➡ Part C *장으로 이동*

B2 ⇐ [표지] ☆ 부록 직종 구분 표 제시

지난주에 직장/사업체에서 무슨 일을 하였습니까?
※ 응답 예를 참고하여 응답해 주세요.
※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 주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돈을 받지 않고 동일 가구나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1주일 평균 18시간 이상 일 한 경우도 아래는 일을 하였는지 작성해주세요.

(응답 예)

구분	〈예1〉	〈예2〉	〈예3〉
내가 한 일	*생산제품 검사*	*미장*	*제조품 판매*
직책 또는 직위	*생산부 대리*	*없음*	*판매사원*

내가 한 일 _____

직책 또는 직위 _____

B3 현재 직업(직장)에서 지위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됩니까?
※ 여러 가지 일을 한 경우, 주된 일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상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
임시 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이거나,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더라도 1년을 근무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일용 근로자
: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매일매일 고용되어 일당제 또는 일한 만큼 보수를 받는 근로자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한 사업 작성에 상시 고용원(직원)을 두고 사업을 경영하는 사람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자기 혼자 또는 무급가족종사자와 함께 자기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을 말함
무급가족 종사자
: 일정한 보수 없이 가족이 경영하는 사업체 또는 농장 등에서 종사하는 사람

· 임금 근로자(다른 이가 소유한 사업체 고용되어 일함)
① 상용근로자 ➡ B4 *로 이동*
② 임시근로자 ➡ B4 *로 이동*
③ 일용근로자 ➡ B4 *로 이동*

· 비임금 근로자(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B5 *로 이동*
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 B7 *로 이동*
⑥ 무급가족 종사자 ➡ B7 *로 이동*

B4 현재 귀하에게 적용되고 있는 **보수형태**는 무엇입니까?
※ 고정된 보수(기본급)와 고정되지 않은 보수(실적급)가 혼재된 경우 주된 임금형태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실적급제는 임금이 고정적이지 않고, 생산(서비스)량, 실적 등에 따라 산정하는 형태(업적급, 실적급, 도급제 등)에 해당합니다.

① 고정되지 않은 보수(실적급제 등) ➡ B4-1 *로 이동*
② 고정된 보수(연봉제, 월급제, 주급제/격주제, 일급제, 시급제 등) ➡ B6 *로 이동*

B4-1 지난주의 직장(일)에서의 **계약 형태**는 무엇입니까?
※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인지 아닌지 구분하여 응답

① 근로계약
② 근로계약 이외(위임·위탁·위촉·도급계약·프리랜서계약 등)

B5 귀하는 임금(급여)을 직장에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파견업체나 용역업체에서 받으셨습니까?

① 직장(지난주 일한 곳)
② 파견업체 또는 용역업체

B6 귀하의 현재 일자리는 다음의 '일 경험'에 해당합니까?

① 인턴
② 현장실습
③ 수습기간
④ 해당 없음

B7 귀하는 일자리(직장)에서 **일주일 평균 며칠, 하루 평균 몇 시간**씩 근무하고 계십니까?(초과근무일, 초과 근로시간 포함)
※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지난 1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휴가가 있었던 경우 근무를 한 것으로 가정해 응답해 주십시오.

1) 일주일 총 근무 일 수	일주일에 총 _____일 일함
2) 하루 평균 근무시간	하루에 평균 _____시간 일함

B8 ⇐ [표지] ☆ B1=① & B3=⑤ 인 경우 근로소득이 0보다 커야 함

현재 귀하의 **월평균 수입**은 얼마입니까?(아래에 해당하는 수입이 없는 경우 0으로 작성)
※ 직장에 대신 받은 세금을 제외한 **실 수령액**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 자영업자의 경우는 제반 비용을 제외한 순수이익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순수이익만 매출액에서 종비용(재료비와 인건비, 세금, 영업비용 등의 전반적인 운영비. 단, 본인의 인건비는 제외하지 않음)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두 개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하여 응답해 주십시오.
※ **사적이전소득**은 근로소득 외 가족, 친지, 정책지원 등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교통비, 양육비 등의 명목으로 주기적으로 받는 현금 또는 현물로, 일시적인 증여나 상속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_____만원　　사적이전소득 _____만원

B9 귀하는 현재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까?

① 예 ➡ B9-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요 ➡ B10 *항으로 이동*

B9-1 현재 (2024. 6. 기준) 귀하의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 통장 마심한금 포함),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일대) 보증금(받은 돈), 할부구입, 외상, 기타 부채

_____만원

B9-2 부채가 발생한 **주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① 학자금　② 주거비(전·월세 보증금 대출, 월세 등)
③ 생활비(식비 등)　④ 긴급지금(의료비 등)
⑤ 자산투자(부동산, 주식, 펀드, 코인, 가상화폐 등)　⑥ 부채상환
⑦ 창업비　⑧ 기타(적을 것 : _____)

B10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아르바이트 포함)에 대하여 아래의 항목과 관련하여 **만족하는 정도**를 알려줘 주세요.
※ 3) 복리후생 또는 8)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 '해당없음'은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B4-1의 ② 근로계약 이외의 경우만 선택가능합니다.

문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별로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해당없음
1) 급여수준	①	②	③	④	⑤	
2) 고용 안정성	①	②	③	④	⑤	
3) 복리후생	①	②	③	④	⑤	⑥
4) 근무 내용	①	②	③	④	⑤	
5) 근무시간 및 업무량	①	②	③	④	⑤	
6) 근무환경	①	②	③	④	⑤	
7) 장래성	①	②	③	④	⑤	
8) 직장 내 인간관계	①	②	③	④	⑤	⑥
9) 직장과 일·가정 양립 문화	①	②	③	④	⑤	
10) 개인의 발전 가능성	①	②	③	④	⑤	
11)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B11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에서 수행하는 **직무 수준**은 어떠합니까?

문항	매우 낮다	낮은 편이다	유사하다	높은 편이다	매우 높다
1) 나의 교육수준보다	①	②	③	④	⑤
2) 나의 기술수준보다	①	②	③	④	⑤

B12 ⇐ [표지] ☆ 문1)의 (1)에서 대학교(4년제 미만/4년제 이상) 또는 대학원 이상, 졸업, 재학, 휴학 중인 경우만 응답
귀하가 현재 주로 하고 있는 일의 업무내용이 **자신의 전공**과 비교해 어떻습니까?

① 나의 전공과 전혀 맞지 않다　② 나의 전공과 맞지 않다
③ 나의 전공과 그런대로 맞다　④ 나의 전공과 맞는다
⑤ 나의 전공과 아주 잘 맞다

Part C 취·창업준비 및 교육훈련

여기서 말하는 '취업' 이란 상용 근로직에 한합니다. 즉, 고용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해진 계약기간 없이 본인이 원하면 계속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의미합니다.

C1 ⇐ [G-TAPE] ☆ C1=1 에서 ① 예 (현재 구분자 값) 인 경우, skip
귀하는 현재 **취업(아르바이트 제외) 또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 취업 또는 창업준비는 특정 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시험을 준비하거나, 취·창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들의 활동을 포함합니다.

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②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 ➡ C1-1 *항으로 이동*
③ 둘 다 준비하고 있다
④ 둘 다 준비하지 않는다 ➡ C1 *항으로 이동*

C2-1 귀하는 **취업(아르바이트 제외)**을 위해 다음에 제시된 내용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항	예	아니요
(1)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①	②
(2) 공무원시험 등 취업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3)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4) 취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①	②
(5) 일경험(현장실습, 인턴 등)을 찾고 있다	①	②
(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C2-2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어디로부터 도움을 받았습니까? 도움을 받았다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문항	도움 받은 경험		도움이 되는 정도			
	예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년센터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C2-3에서 도움 받은 경험이 모두 ② 아니요 인 경우는 C2-3으로 이동

C2-2-1 귀하는 취업 준비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은 주체로부터 **주로 어떤 내용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한 가지만 선택)
※ C2-3에서 '예'라고 응답한 항목만 선택하여 응답)

문 항	정보 제공	교육/훈련	상담	일자리 알선	금전적 지원	기타(구체적으로)
(1) 학교(상담교사, 교사, 지도교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2) 공공기관(고용센터, 청년센터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3) 사설기관(사설학원, 인터넷취업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4) 부모님이나 친인척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5) 친구, 선후배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_____

C2-3 귀하가 준비하고 있는 **취업(아르바이트 제외)**은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 취업 희망/직업이기 때문에 응답하기에 막연할 수 있지만, 직업세분류 단위까지 분류될 수 있도록 상세히 응답합니다.
보기) 직업명 : 공사 / 일의 내용 : 초중등생 대상으로 지도하는 일

직업명 _____

직무내용 _____

C1 에서 ① 취업을 준비하고 있다 응답자는 ➡ C4 항으로 이동
C1 에서 ③ 둘 다 준비하고 있다 응답자는 ➡ C3-1 항으로 이동

C3-1 귀하는 **창업**을 위해 다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문항	예	아니요
(1) 특정 기술을 배우고 있다	①	②
(2) 창업교육을 받고 있다	①	②
(3) 자격증 취득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①	②
(4) 창업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①	②
(5) 창업을 위한 자금을 모으고 있다	①	②
(6)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C3-2 귀하는 **창업**에 관한 정보를 주로 어디에서 얻고 있습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공공창업교육센터의 교육
② 민간 컨설팅회사(프랜차이즈)의 교육
③ 자격증 취득과정
④ 부모 또는 가족
⑤ 친구 또는 지인
⑥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앱, SNS 등 온라인 매체
⑦ 창업박람회
⑧ 창업동아리
⑨ 창업관련 서적
⑩ 기타(적을 것 : _____)

C3-3 귀하가 준비하고 있는 **창업**은 어떤 일인지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세요.

◈ 취업 희망 창업분야이기 때문에 응답하기에 막연할 수 있지만, 직업세분류 단위까지 분류될 수 있도록 상세히 응답합니다.
보기) 사업체명 : 영어학원 / 일의 내용 :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를 가르침

사업체명 _____

직무내용 _____

C3-4 귀하가 **창업**을 준비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창업(자영업) 하고 싶은 업종이 있어서
② 직장에 얽매이기 싫어서(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싶어서)
③ 원하는 일자리에 취업이 어려워서
④ 연령에 구애받지 않아서
⑤ 일과 가정을 병행하기 위해서
⑥ 일한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어서
⑦ 직업 특성에 의해서(개인고객, 공인증개사 등)
⑧ 가족·친인척 등의 사업에 참여하거나 물려받을 수 있어서
⑨ 내 전공이나 기술,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하려고
⑩ 기타(적을 것 : _____)

C4 귀하는 전문기술 습득 및 전공분야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특정한 분야의 교육훈련을 **1개월 이상** 받은 적이 있거나 현재 받고 있습니까?
※ 졸업한 고등학교나 현재 재학 중인 대학교(대)에서 **수업**으로 **제공**받은 것은 제외합니다.

① 예 ② 아니요 ➡ C4-3 항으로 이동

C4-1 현재 받고 있거나 받은 적이 있는 교육훈련은 무엇입니까?
※ 현재 받고 있지 않으나 과거에 받은 적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에 받은 교육훈련을 기준으로 응답해 주세요.
※ 현재 2개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경우, 본인에게 중요한 정도를 기준으로 2개만 응답해 주십시오.

교육훈련 1 : _____
예)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육훈련 2 : _____
예) 바리스타 교육

C4-2 해당 교육훈련을 받은 기간은 총 몇 주 정도입니까?

교육훈련 1 : 총 _____주
교육훈련 2 : 총 _____주

C4-3 해당 교육훈련을 **제공한 기관**은 어디입니까?
※ 교육훈련을 받은 장소가 아닌 해당 교육훈련을 기획·준비한 기관을 응답해 주십시오.

교육훈련1 [ ] 교육훈련2 [ ]

① 공공훈련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기능대학 등)
② 민간훈련기관(훈련법인, 고용노동부 지정사설 등)
③ 대학 또는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교 포함, 수업제외)
④ 사설학원
⑤ 통신교육기관(방송통신대학교 제외, 인터넷, 전화, 우편, TV 등)
⑥ 잘 모르겠음
⑦ 기타(적을 것 : _____)

C4-4 교육훈련을 받은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취창업을 위해
② 더 나은 직무수행을 위해
③ 경력개발을 위해
④ 자격증 취득을 위해
⑤ 체류자격 유지·변경을 위해
⑥ 기타(적을 것 : _____)

응답 후 ➡ D1 또는 E 항으로 이동

C4-5 ☞ G-TAPI ☞ C4에서 ② 아니요 응답자만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교육훈련에 대해 알지 못했다
② 취업을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훈련이 없었다
③ 훈련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④ 교육훈련에 대해 듣기만 했을 뿐 실제 참석해 볼 생각을 하지 못했다
⑤ 국적 또는 체류자격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니라서 받지 못했다
⑥ 시간이 없어서 받지 못했다
⑦ 비용이 많이 들어서 받지 못했다
⑧ 기타(적을 것 : _____)

C4-6 ☞ G-TAPI ☞ C4에서 ② 아니요 응답자만
향후 교육훈련을 받을 계획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D1(지난 1주간 수입을 목적으로 일 경험)에서 ③ 일을 하지 않았음으로 응답한 경우 ➡ Part D 영역으로 이동
그 외 ➡ Part E 영역으로 이동

Part D 구직활동

☞ G-TAPI ☞ D1에서 ③으로 응답한 경우만 제시
☞ 현재 구직무 응답(+1)인 경우, skip
☞ 현재 취·창업 준비 중(C1=①, ②, ③인 경우, D2까지 응답 후 Part E 이동

D1 귀하는 **지난 4주 내에** 직장(일)을 구해 보았습니까?(창업준비도 포함됩니다.)

① 구해 보았음

D1-1 지난주에 직장(일)이 주어졌다면 일을 시작하실 수 있었습니까?

① 있었음 ➡ D1-1-1 항으로 이동

D1-1-1 직장(일)을 구하기 위하여 구직활동을 얼마동안 계속 해왔습니까?
※ 구직활동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0으로 응답해주세요.

(_____)개월

➡ 응답 후 Part E 로 이동

② 없었음 ➡ D2 항으로 이동

② 구해 보지 않았음

D1-2 지난주에 직장(일)을 원하였습니까?

① 원하였음 ➡ D1-2-1 항으로 이동

D1-2-1 지난 4주내에 **직장(일)을 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전공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②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③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④ 단순히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 포기함
⑤ 가능, 학력, 능력이 부족하여
⑥ 취업을 위해 준비 중이어서
⑦ 육아 또는 가사 때문에
⑧ 건강상 이유로
⑨ 당분간 쉬고 싶어서
⑩ 기타(적을 것 : _____)

② 원하지 않았음 ➡ D2 항으로 이동

D2 ☞ G-TAPI ☞ C4에서 ② 아니요 인 경우, ③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응답 불가
☞ 상병이 아닌인 경우, ⑤ 군입대를 준비하고 있어 응답 불가
☞ D에서 ② 아니요(아님)인 인 경우, ⑪ 육아 응답 불가

귀하는 지난주에 **주로** 무엇을 하였습니까?

① 육아
② 가사
③ 정규교육기관 통학
④ 입시학원 통학
⑤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고시학원, 직업훈련기관 등)
⑥ 취업 준비(학원이나 기관 통학하지 않음)
⑦ 진학준비(학원이나 기관 통학하지 않음)
⑧ 신체적·심리적 장애에 따른 활동 제약
⑨ 군입대 대기
⑩ 쉬었음 ➡ Y3 항으로 이동
⑪ 기타(적을 것 : _____)

D3 ☞ [문직] ▷ D2에서 ⑨ 이외응에 응답한 경우만 제시

귀하가 지난주에 **쉬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취업을 위해 노력중이나, 원하는 일자리에 계속 취업이 되지 않아서
② 이전에는 일을 하였으나 소진(번아웃) 등으로 잠시 쉬기 위해서
③ 직장 휴·폐업, 고용계약 만료 등에 따른 일시적 휴식(구직 예정)
④ 질병이나 건강상 이유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⑤ 여행이나 문화예술, 취미활동 등 시간적 여유를 즐기기 위해서
⑥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⑦ 기타(적을 것 : _____)

Part E 심리·사회적응(공통)

E1 다음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품성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E2 다음은 귀하의 **기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걱정이 많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잘 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어떤 일이 잘못 되었을 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을 자주 한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외롭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정말가 최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E3 귀하는 현재 **건강 상태**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항 목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건강한 편이다	매우 건강하다
(1) 신체적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2) 정신적 건강 상태	①	②	③	④

E4 귀하는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상의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문 항	없다	있다(복수 응답)
(1) 취업이나 진로에 관한 조언이나 정보를 얻어볼 수 있는 사람	⑥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2) 나에게 필요한 주거/금융/법률 관련 정보를 얻어볼 수 있는 사람	⑥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3) 몸이 아픈 집안일을 부탁해야 하는 경우, 집안일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⑥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4) 내가 돈이 필요할 때 갚지기 곤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	⑥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5) 낙심하거나 우울할 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	⑥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6) 내가 갑자기 연락 두절되었을 때, 나의 안부(생사)를 확인해줄 수 있는 사람	⑥	① 가족(친척) ② 지인(친구, 이웃, 직장 동료 등) ③ 기관종사자(청년센터, 주민센터, 종교, 사회복지단체 등)

E5 다음의 문항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각 문항별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0점)부터 '매우 만족한다'(10점) 중에서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1) 가족 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2) 친구 관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3) 교육수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4) 생활수준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5) 생활에서의 안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6) 내 삶에서 선택의 자유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7) 나의 미래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8) 나의 건강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9) 나의 외모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0) 우리 동네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1) 시간적 여유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전반적인 나의 삶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어제의 행복 정도	⓪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E6 귀하는 여가 시간에 무엇을 하십니까?(주중과 주말(휴일 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주 중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주말(휴일 포함) :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동영상 콘텐츠 시청(TV, OTT(넷플릭스, 티빙 등), 유튜브 등)
② 문화 예술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전시회 등)
③ 문화 예술 활동(독서 토론, 미술 활동, 악기 연주, 사진 촬영 등)
④ 스포츠 경기 관람(경기장 방문, 중계방송 시청 등)
⑤ 스포츠 활동
⑥ 관광(국내외 여행, 캠핑 등)
⑦ 게임(PC, 스마트폰 등)
⑧ 취미, 자기개발활동(요리, 독서, 기술·자격증취득 공부 등)
⑨ 휴식(수면, 사우나, 산책 등)
⑩ 사회활동(봉사 활동, 종교 활동, 사교 활동 등)
⑪ 기타(적을 것 : _____)

E7 귀하는 수로 두구와 여가 활동을 하십니까?(주중과 주말(휴일 포함)로 구분하여 답하여 주십시오.)

주중 [ ] 주말(휴일 포함) [ ]

① 가족
② 친구(연인 포함)
③ 동호회(종교 단체 등 포함) 구성원
④ 혼자서
⑤ 직장 동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E8 ☞ [문직 = 문1~1+1인 인다자]의 경우, skip

귀하는 평소 얼마나 외출하십니까?

※ 직장, 학교가 아니라도 학원, 특서실 등을 매일 다닌다면 그에 해당합니다.
※ 평소에는 직장 출퇴근, 학교 등학으로 외출을 하나 일시적으로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으로 외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소 기준에 맞게 적용(1) 또는 (2)에 해당합니다.

① 직장이나 학교로 매일은 매일 외출한다
② 직장이나 학교로 일주일에 3-4일 외출한다
③ 여가생활을 위해 자주 외출한다
④ 사람을 만나기 위해 가끔 외출한다

→ **E9 참으로 이동**

⑤ 보통은 집에 있지만, 자신의 취미생활만을 위해 외출한다
⑥ 보통은 집에 있지만, 안근 편이점 등에 외출한다
⑦ 자기 방에서 나오지만, 집 밖으로는 나가지 않는다
⑧ 자기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다

E8-1 현재의 상태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E8-2 ☞ [문직 = ①,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는 선택이 '여자'인 경우만 출현

현재의 상태가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① 학교를 그만두거나 대학진학 실패로
② 취업이 잘되지 않아서
③ 인간관계가 잘되지 않아서
④ 장애나 질병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⑤ 임신이나 출산 때문에
⑥ 기타(적을 것 : _____)

E9 다음 문항을 읽고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응답해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E9 ~4)에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 E9-1로 이동, 그 외는 ➡ E10로 이동

E9-1 귀하께서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는 감정을 느끼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 고립 :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E10 귀하는 다음의 집단에 대해 소속되어 있다고 느낍니까?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가족	①	②	③	④	⑤	⑧
(2) 출신 학교나 동창 모임	①	②	③	④	⑤	
(3) 출신 지역이나 지역 모임	①	②	③	④	⑤	
(4) 여가활동 및 사회활동 모임(환경활동, 구호활동, 정치활동 모임 등)	①	②	③	④	⑤	⑧
(5) 소속 직장이나 직업 모임(직업 기반 협회 또는 조합 등)	①	②	③	④	⑤	⑧
(6) 온라인 커뮤니티(밴드, 온라인 카페, 인터넷 사이트 등)	①	②	③	④	⑤	⑧
(7) 한국사회	①	②	③	④	⑤	

E11 귀하는 다음의 상황에서 **지난 1년 동안** 다른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거나 무시당한 경험이 있었습니까?

문 항	차별 경험 있다	차별 경험 없다	차별 받은 이유(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
(1) 취업이나 아르바이트 등 구직과정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2) 공공기관 또는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3) 길거리나 동네, 식당, 마트 등 일상생활 중에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4)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5) ☞ [로직] 대학(교), 대학원 재학 또는 휴학인 경우만 응답 강의시간이나 과제, 팀플 등을 할 때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6) ☞ [로직] E10에서 ① 또는 ②로 선택한 경우만 응답 직장 또는 일터에서	①	②	① 교육수준 ② 성별 ③ 부모님 또는 나의 출신국 ④ 외모 ⑤ 장애 ⑥ 성정체성 ⑦ 경제력 ⑧ 기타(_____)

E11-1 ☞ [로직] 차별 경험이 한 개 옌에라도 있는 경우만 응답
차별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②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③ 인터넷, SNS 등에 글을 올렸다
④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⑦ 기타(적을 것 : _____)

E12 귀하는 향후 사회진출과정(예: 취업 등)에서 **다문화가정의 자녀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①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매우 낮다
②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낮은 편이다
③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④ 차별 또는 불이익 가능성이 매우 높다

Part F 사회적 가치와 태도(공동)

F1 귀하는 다음 사항들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문항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매우 동의한다
(1) 우리사회는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열심히 일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사회는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경제 · 사회적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5) 대학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한국 사회에서 교육을 어디까지 받았는지(학력)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7) 한국 사회에서 어느 학교를 나왔는지(학벌)는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F2 다음은 한국 사회에 관한 질문입니다. 각 문항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회는 대체로 공정한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2) 한국 사회는 인권을 존중하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3) 한국 사회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4)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이다	①	②	③	④

F3 귀하는 한국 사회가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긍정적이다	긍정적인 편이다	긍정도 부정도 아니다	부정적인 편이다	매우 부정적이다
①	②	③	④	⑤

F4 귀하는 다음에 제시된 각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가치관이나 신념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선거나 캠페인 참여 등을 통해 정치현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정당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의 이익과 의견을 대변해 주는 단체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Part G 진로

G1 장래 희망 직업을 정하였습니까?
※ 현재 직업이 있는 경우, '① 예(정하였음)'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예(정하였음)
② 아니요(정하지 않았음) ☞ G1-1 **참으로 이동**

G1-1 **장래 희망 직업**이 있다면 한 가지만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으며, 직업을 바꿀 계획이 없다면, 현재 직업을 응답해 주십시오.
※ 현재 직업이 있으며, 직업을 바꿀 계획이 있다면, 바꾸기를 희망하는 직업을 응답해 주십시오.
_____

G2 귀하가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를 **순서대로 2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나의 소질이나 적성에 맞는 것
② 지속적인 고용이 보장되는 것
③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것
④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것
⑤ 사회적 명망이 좋은 것
⑥ 높은 임금이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것
⑦ 자신의 발전 가능성이 큰 것
⑧ 여가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많은 것
⑨ 창의성 및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것
⑩ 기타(적을 것 : _____)

G3 귀하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얻는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2)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여러 가지 직업분야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	①	②	③	④
(4) 내가 잘 할 수 있는 직업분야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5)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교육 등에 대한 자료 얻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6) 내가 원하는 진로와 목표의 성취를 위해 필요한 경제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①	②	③	④
(7) 돈을 빨리, 많이 벌어서 가정 형편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①	②	③	④
(8)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것은 돈이 없기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9) 경제적 문제로 인해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앞으로의 진로선택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Part H 정책 및 지원

H1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제공한 **각종 지원**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③ 약간 도움이 되었다
④ 매우 도움이 되었다
⑤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H2 귀하는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 H3 **참으로 이동**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필요한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다

H3 ☞ [로직] ~문H2=1(전혀 필요하지 않다)의 경우, skip
귀하는 우리 사회가 앞으로 **다문화청소년을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때 다음 중 어떤 지원에 가장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3가지만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학습지원
② 현금지원(장학금, 후원금 등)
③ 심리상담, 심리치유지원
④ 특기적성교육 지원
⑤ 진로교육 및 진로상담
⑥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및 인식개선 교육
⑦ 한국어교육
⑧ 이중언어교육
⑨ 기타(적을 것 : _____)

H4 다음의 **청년 대상 정책 서비스 참여 경험**을 각각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참여한적 있다	참여한적 없다
(1) 심리·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불안, 우울, 고민 등)	①	②
(2) 복지·생활 관련 상담 및 지원 서비스 (생계급여, 청년수당 등)	①	②
(3) 대인관계, 사회성 증진 서비스 (인간관계 개선 훈련 등)	①	②
(4) 취업·진로 지원 서비스 (구직의욕 증진, 진로탐색, 취업준비, 일자리 소개 등)	①	②
(5) 청년 공동체 교류지원 서비스 (동아리 및 소모임 구성 등)	①	②
(6) 직업·훈련 교육 서비스 (기술교육, 직업교육 등)	①	②
(7) 건강검진 서비스 (신체건강검진, 정신건강검진 등)	①	②
(8) 주거지원 서비스 (편의개 지냄 수 있는 독립된 공간 제공)	①	②
(9) 문화·취미 지원 서비스 (독서, 영화, 취미 지원)	①	②
(10) 청년공간 제공 서비스 (청년센터, 희의실, 키페 등)	①	②

H6 귀하는 **다문화 청년(고등학교 졸업 이후)을 위한 별도의 지원정책**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③ 필요한 편이다
④ 매우 필요하다

H6-1 다음 중 **다문화 청년(고등학교 졸업 이후)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지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2개만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① 진로상담
② 취업, 창업에 대한 정보
③ 취업 또는 창업을 위한 기술교육
④ 취업소개
⑤ 심리상담, 심리적응지원
⑥ 학습지원
⑦ 현금지원(장학금, 후원금 등)
⑧ 기타(적을 것 : _____)

H6 **다문화 청년(고등학교 졸업 이후)**을 위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떤 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일반적인 청년지원방식에 통합하여 다문화 청년에 대한 구분없이 지원하는 방식
② 다문화 청년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식
③ 일반적인 청년지원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다문화 청년의 특성을 반영하는 방식

H7 **다문화 청년(고등학교 졸업 이후)**을 위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어디에서 제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현: 가족센터)
② 대학교
③ 청년센터*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⑤ 평생학습센터**
⑥ 기타(적을 것 : _____)

*청년센터 : 청년복지센터, 청년활동공간 등 청년을 전담으로 지원하는 센터로 모든 지역에 있는 것은 아님

**평생학습센터 :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학습 공간

Part I 다음은 귀하의 조사환경에 대한 내용입니다.

I1 귀하의 연락처로 연락이 안 될 경우, 어디로 연락이 가능할까요? 모두 응답해 주세요.

① 본인 이메일이나 SNS 계정(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② 가족이나 친구, 지인 등 다른 사람 연락처 ➡ **I2** *참으로 이동*
③ 기타(적을 것 : _____) → **조사 후 기록표** *참으로 이동*
④ 없음

I2 ☞ G-TAPI ▫ 기존 응답이 있는 경우, 선택 시 자동 입력되어 있게-(수정 가능) ▫ I-1에서 ① 응답한 경우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 또는 SNS 계정을 말씀해 주세요.

① 이메일 : _____@_____
② 카카오톡(ID : _____)
③ 인스타그램(ID : _____)
④ 라인(ID : _____)
⑤ 기타(종류 : _____ / ID : _____)

I3 ☞ G-TAPI ▫ 기존 응답이 있는 경우, 선택 시 자동 입력되어 있게-(수정 가능) ▫ I-1에서 ② 응답한 경우

연락이 가능한 분과 연락처를 말씀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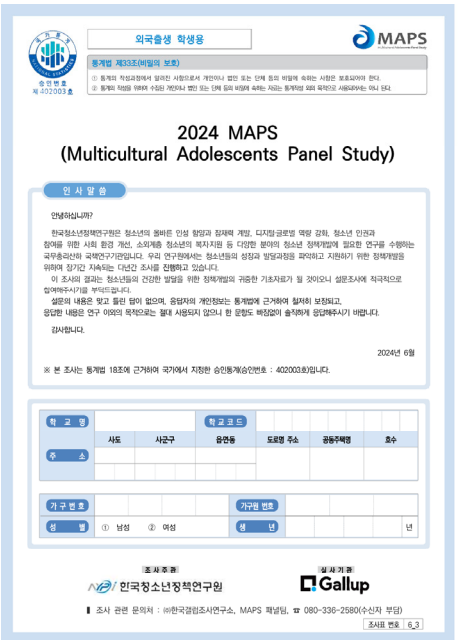
(1) 성명	_____ □ 거절
(2) 본인과의 관계	① 어머니
	② 아버지
	③ 형제/자매
	④ 친구/지인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 연락처	_____ - _____ -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_____) - (_____) - (_____)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_____)
	조사 일시	2024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조사 진행 시, 방해 요인이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답례품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향후 패널 참여 의사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2. 2기 패널 설문지(외국출생 청소년용)



외국출생 학생용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승인 번호 제 402003 호

2024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참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안전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호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학 교 명		학 교 코 드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명	호수
주 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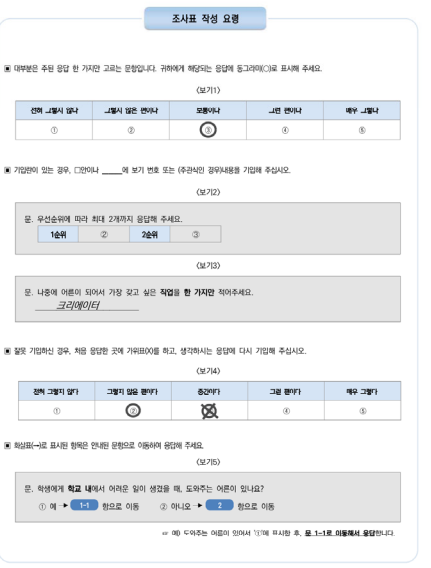
가 구 번 호		가구원 번호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생 년	년

조 사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 사 기 관 : Gallup

▌조사 관련 문의처 : (재)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6_3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③

〈보기3〉

문.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크리에이터

▣ 잘못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보기5〉

문.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①번 도와주는 어른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1 학생의 부모님 중 어느 분이 **외국출신**이신가요?
※ 부모님의 **출생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두 분 모두 외국 출신
④ 두 분 모두 한국 출신

2 ☞ G-TAPI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4. 두 분 모두 한국 출신'인 경우, 2 항 skip)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1) 아버지 skip

학생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계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1 ☞ G-TAPI ○ 1 항 1, 아버지 또는 2, 두 분 모두 외국 출신인 경우만 질문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skip

학생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한국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어와 아버지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	아버지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	아버지 나라 말만 사용한다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3-2 ☞ G-TAPI ○ 1 항 2, 어머니 또는 3, 두 분 모두 외국 출신인 경우만 질문

학생은 **어머니와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한국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	어머니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	어머니 나라 말만 사용한다	기타 (적어주세요 :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4 ☞ G-TAPI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4. 두 분 모두 한국 출신'인 경우, 4 항 skip)
○ 1 항에서 1, 아버지 이고, 어머니 출신상태가 '사별'인 경우, skip

학생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께서는 **(아버지/어머니/부모님)은 나라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시나요?

①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②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③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④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나에게 직접 가르치신다
⑤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5 ☞ G-TAPI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 출신 부모님에 대해 질문. 단, '4. 두 분 모두 한국 출신'인 경우, 작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

학생은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의 말**을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구분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아버지 나라의 말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나라의 말	①	②	③	④	⑤

6 학생은 **한국어**를 얼마나 잘한다고 생각하나요?

구분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2) 쓰기	①	②	③	④	⑤
(3) 읽기	①	②	③	④	⑤
(4) 듣기	①	②	③	④	⑤

7 ☞ G-TAPI ○ '결국'은 가구원부의 학생의 출생 시 국가 출력

학생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한국사람
② 본국사람
③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본국사람이기도 하다
④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8 ☞ G-TAPI ○ 학생의 현재 국적이 '한국'이 아닌 경우만 질문

학생은 앞으로 **한국 국적**을 받기를 원하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9 학생은 앞으로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나요?

① 예
② 아니오
③ 잘 모르겠다 → **10 항으로 이동**

9-1 ⇐ G-TAPI ☆ '한국은 가구원부의 학생의 출생 시 국가 출현'

한국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요?

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② 한국의 학교공부가 어려워서
③ 한국에서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서
④ 본국이 그리워서
⑤ 본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살면 더 잘 살 것 같아서
⑥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⑦ 차별 받을 거 같아서
⑧ 기타(적을 것 : _____)

10 ⇐ G-TAPI ☆ (3) 설명문의 '내가 태어난 나라'에 학생의 출생 시 국가 출현

학생은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나요?
※ 친한 친구란 **한국에 있는 친구 중** 함께 자주 놀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구분	친한 친구 수
총 친한 친구 수	_____명
(1) 한국에서 태어난 친구	_____명
(2) 나와 같은 나라에서 태어난 친구	_____명
(3)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친구 ※ 다른 나라란 '한국'이나 '내가 태어나 나온'가 아니 나라를 말합니다	_____명
(4) 어느 나라에서 태어났는지 잘 모르는 친구	_____명

11 학생의 **친구들**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구들은 나의 점에 자세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2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13 학생의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하는 점
②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
③ 학교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점
④ 학교 규칙을 지키는 일
⑤ 선생님과의 관계
⑥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4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② 나의 말끝이나 생김새 등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③ 친한 친구가 없는 것
④ 나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
⑤ 내가 한국어를 잘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⑥ 다른 아이들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것
⑦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의사소통 : 대화하면서 말뜻을 서로 이해하는 것

15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세 가지** 이내로 답해주세요.
※ 어려운 점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인 경우, 1순위 혹은 2순위까지만 응답하셔도 됩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② 내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이 어렵다
③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④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⑤ 책(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⑥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⑦ 공부에 흥미가 없다
⑧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 학생의 **지난 학기(2024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17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18 학생의 **담임선생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르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날 적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9 **지난 학기(2024년 1학기) 동안** 다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자주 있었습니까?

항 목	한 번도 없었다	한 달에 1-2번 있었다	한 주에 1-2번 있었다	거의 매일 있었다
(1)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2)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장난/놀이나 놀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5) 나에 대해 거짓소문을 퍼뜨리거나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6)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원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20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21 항으로 이동**

20-1 (학교 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담임선생님
② 교과 선생님
③ 한국어 학급 선생님
④ (모국어를 할 수 있는) 다문화 언어 선생님
⑤ 보건 선생님
⑥ 상담 혹은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
⑦ 다문화 담당 선생님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란?
-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마음이 슬프거나 속상하다고 느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를 따돌리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
- 잘못서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욕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말할 수 있는 사람 등

21 학생에게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 가족이나 학교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동거가족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 **22 항으로 이동**

21-1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② 지역 기관 선생님
(예 : 다문화관련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지역마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③ 이웃 어른들
④ 멘토*
⑤ 종교단체에서 만나는 사람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멘토** : 고등학생, 대학생, 지역의 어른 등 청기적으로 만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대화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2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나요?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 **23 항으로 이동**

22-1 학생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나요?

① 한국 ② 외국 ▶ **23 항으로 이동**

22-2 학생이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나요?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3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24 ※ G-TAP1 ☆ '본국은 가구원부의 학생의 출생 시 국가 출천

학생은 나중에 커서 학교를 다 마친 후에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나요?

① 한국
② 본국
③ 제3국(한국도 아니고 내가 태어난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④ 아직 잘 모르겠다

25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보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5) 주위 사람들다니 서로 생각이 달라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①	②	③	④
(6) 졸업 후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①	②	③	④
(7)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실한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8) 나중에 바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9)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이 거이 안다	①	②	③	④
(10)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26 다음은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학생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교내외 활동(예술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독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전학을 갈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7 ※ G-TAP1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이면, (1) 아버지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 21-1 에서 1) 직업,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만 응답한 경우, (7) 직업,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해당 없음' 응답 불가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등)
다음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 하나요?

항 목	전혀 대화 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 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해당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 형제 자매	①	②	③	④	⑤
(4) 친척 친지	①	②	③	④	⑤
(5) 학교 선생님(담임, 교과 선생님)	①	②	③	④	-
(6) 상담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7)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8) 친구	①	②	③	④	⑤
(9) 다문화관련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등 선생님	①	②	③	④	⑤
(10)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①	②	③	④	⑤

28 학생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9 학생의 평소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2) 나는 걱정이건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0 학생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가치있는 사람 : 쓸모있고 중요한 사람
* 성품 :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31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해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참한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32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떠지기나 않는다	①	②	③	④
(2) 법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3)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4)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6)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7) 기운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프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9)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에 관심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11)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33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고립 : 다른 사람과 어울리며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33-1 ((4)번 문항에서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34 ※ G-TAP1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이면, (5), (6)은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 (15) 비자/체류 문제의 경우, 학생 본재 국적이 '한국'이면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학생이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매우 걱정한다	해당 없음
(1) 공부, 성적 문제	①	②	③	④	-
(2) 학교 생활 문제	①	②	③	④	-
(3) 진학, 진로 문제*	①	②	③	④	-
(4) 가정의 경제적 형편	①	②	③	④	-
(5) 부모님 사이의 갈등(부부싸움 등)	①	②	③	④	⑤
(6) 아버지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어머니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8) 형제자매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이성친구와의 문제	①	②	③	④	⑤
(10) 친구와의 문제	①	②	③	④	-
(11) 나의 성격 문제	①	②	③	①	-
(12) 나의 외모 문제	①	②	③	④	-
(13) 나의 건강 문제(신체적, 정신적)	①	②	③	④	-
(14) 미래에 대한 불안감	①	②	③	④	-
(15) 비자/체류 문제	①	②	③	④	⑤

* 진학, 진로 문제 : 앞으로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일을 할지 등과 관련된 문제
* 갈등: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툼

35 ☞ G-TAPI ○ 1 함께서 응답한 외국 출신 부모님에 따라 위집 출전
○ 1 함께서 4, 두 분 모두 한국 출신인 경우, 자녀 조사 시 응답한 외국 출신 부모님에 대해 질문

학생의 평소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다른 사람이(어머니/어머님/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갖고 놀림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2) (아버지/어머니/부모님)가 다른 나라 사람이라서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	①	②	③	④
(3) 한국에 사는 것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4) 한국어를 잘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5) 주변에서 한국 사람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①	②	③	④
(6) 나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가 외국인이라서 무시를 당한다	①	②	③	④
(7) 나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가 외국인이라고 친구들이 따돌린다	①	②	③	④
(8) 우리 동네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도왔게 군다	①	②	③	④
(9)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식구를 도왔게 군다	①	②	③	④

* 문화 : 문화에는 음식, 옷, 음악, 영화 등이 포함합니다.

36 한국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한국을 창피하면 나가 창피한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3)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①	②	③	④
(4)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에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37 ☞ 조사원 ○ 모국은 학생이 출생한 나라를 말함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모국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모국에 가서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모국에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모국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38 학생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 또는 본인이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39 항으로 이동**

38-1 **누구에게** 차별을 받았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학교의 다른 학생들
② 학교선생님
③ 학원이나 과외선생님
④ 친척들
⑤ 동네 사람들
⑥ 편의점, 식당, PC방 등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⑦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8-2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후 주로** 어떻게 하였나요?

① 그냥 참았다
②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렸다
③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
④ 지역 기관 선생님에게 알렸다
(예 : 다문화관련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⑤ 차별행동이나 무시한 사람에게 직접 따졌다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9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인권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응답해주세요.
※ 인권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항 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	①	②	③	④
(4) 한국사회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40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41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영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돈건, 장소 등)을 잘 제공해주신다	①	②	③	④

42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방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내 꿈이나, 오 이룰 등이 깨닫히도록 항상 신경써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참견을 하시거나 혼내는 일이 없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43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함께 하였나요?

항 목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1)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여가활동(스포츠, 취미, 오락 등 여유시간에 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저녁식사	①	②	③	④	⑤

44 ☞ G-TAPI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이면, (1) 아버지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학생은 부모님과 **하루에** 얼마나 함께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냅니까?
※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대화를 하거나 놀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등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항 목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45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돌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지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 정도나 되나요?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46 학생은 다음과 같은 **학습 또는 청소년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몇 회하고, 한번 할 때 얼마나 하나요?

항 목	참여 여부		1주일 간 참여횟수	회당 평균 참여시간
	참여	미참여		
(1) 교과(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관련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 강의, 방문학습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관련 사교육(학원, 과외, 온라인 강의, 방문학습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3)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교과보충학습,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방과후학교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4) 지역 방과후 프로그램(방과후아카데미, 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5) 청소년테마수련관, 문화의집, 미디어센터, 직업체험센터 등) 또는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①	②	( )회	( )시간 ( )분
(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 )회	( )시간 ( )분

47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루에 평균 얼마나 하나요?
※ 과제 또는 학습용으로 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중점해주십시오.

항 목	활동 여부		1주일 간 활동일수	하루 평균 활동시간
	했음	안했음		
(1) 집안일 돕기(청소, 빨래, 동생 돌보기 등)	①	②	( )일	( )시간 ( )분
(2)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모프라인)	①	②	( )일	( )시간 ( )분
(3) 운동(개인운동, 단체스포츠 등)	①	②	( )일	( )시간 ( )분
(4) 종교활동	①	②	( )일	( )시간 ( )분

	주중 (월~금요일) 하루 평균	휴일 (토/일요일, 공휴일) 하루 평균
(5) TV 또는 OTT*(넷플릭스, 티빙 등) 시청	( )시간 ( )분	( )시간 ( )분
(6) 온라인게임(PC, 스마트폰 모두 포함)	( )시간 ( )분	( )시간 ( )분
(7)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이용(한국어)	( )시간 ( )분	( )시간 ( )분
(8)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이용(외국출신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언어)	( )시간 ( )분	( )시간 ( )분

* OTT(Over-the-top)는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미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원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예시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를 의미합니다.
* SNS(Social Network/Networking Service)는 사용자 간 의사소통,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블로그 등)을 의미합니다.

48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참여 경험이 없더나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청소년 체험활동 : 자신의 특기나 적성 계발 또는 취미·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항 목	지난 1년간 참여 횟수				(참여한 적 있는 경우) 만족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과학/정보 관련 활동(강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 등반, 야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자원봉사활동(멘은 돕기, 자선 구호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건강/보건 관련 활동(신체단련, 안전 응급처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자기전성개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9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숲, 담배, 머리, 옷, 화장 등을 규제하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2)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행동(숲, 담배, 머리, 옷, 화장 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4) 빨리 돈을 벌고 싶다	①	②	③	④
(5) 부모와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6) 집에 들어가기 싫다	①	②	③	④

항 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7) 내 친구 중 자퇴를 한 친구가 있다	①	②
(8) 내 친구 중 학교가기 싫고 놀지고 하는 친구가 있다	①	②

50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특별한 이유없이 혼종 감석을 한다	①	②
(2)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담배를 한다	①	②
(3)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술을 마신다	①	②
(4)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5)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경찰서에 불려간 적이 있다	①	②
(6) 내 친구 또는 가까운 선후배는 가출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51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 번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가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학교를 무단으로 빠져온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빼 등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폭력 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패싸움을 해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온라인상에서 돈내기 게임이나 도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2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 번
(1) 누군가에게 욕이나 협박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누군가에 대한 욕이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저작권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3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특별지원 :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을 말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54** 항으로 이동

53-1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까?
①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줘야만 좋겠다
②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 해주어도 상관없다

54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길 원합니까? 원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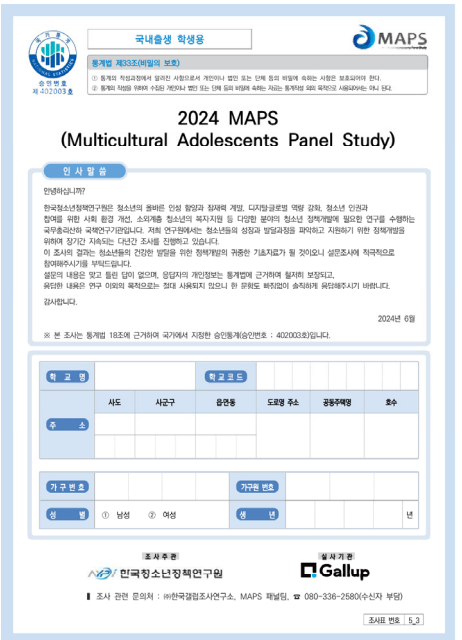
① 현금 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② 학습 지원(교과목 지도 등)
③ 진로관련 프로그램(진로상담, 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④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⑤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⑥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_____) - (_____) - (_____) ② 핸드폰 ③ 직장
	키, 몸무게	① 키 : _____cm ② 몸무게 : _____kg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장소 : _____)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_____)
	조사 일시	2024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조사 진행 시, 정해 요인이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3. 2기 코호트 설문지(국내출생 청소년용)



국내출생 학생용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승인 번호 제 402003 호

2024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창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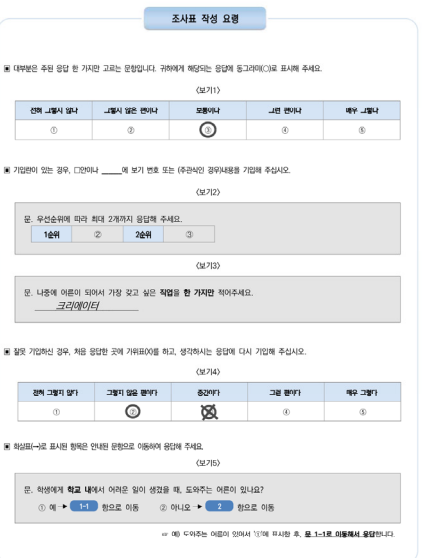
학 교 명		학 교 코 드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명	호수
가 구 번 호			가구원 번호			
성 별	① 남성 ② 여성		생 년			년

조 사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 사 기 관 : Gallup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5_3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③

〈보기3〉

문.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크리에이터

▣ 잘못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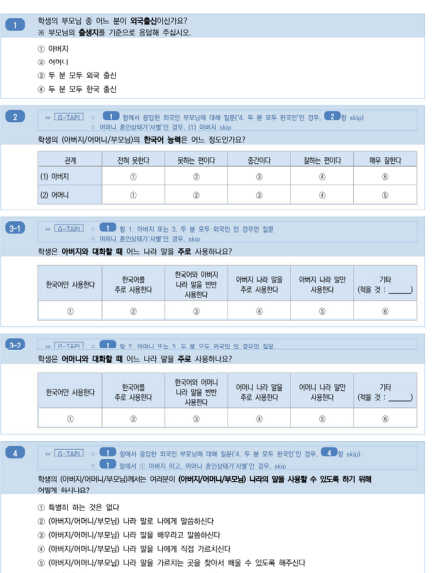
〈보기5〉

문.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예) 도와주는 어른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학생의 부모님 중 어느 분이 **외국출신**이신가요?
※ 부모님의 **출생지**를 기준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두 분 모두 외국 출신
④ 두 분 모두 한국 출신

2 ☞ G-TAPI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2 항 skip)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1) 아버지 skip

학생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의 **한국어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관계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3-1 ☞ G-TAPI ▫ 1 항 1. 아버지 또는 3. 두 분 모두 외국인 인 경우만 질문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skip

학생은 **아버지와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한국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어와 아버지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	아버지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	아버지 나라 말만 사용한다	기타 (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3-2 ☞ G-TAPI ▫ 1 항 2. 어머니 또는 3. 두 분 모두 외국인 인 경우만 질문

학생은 **어머니와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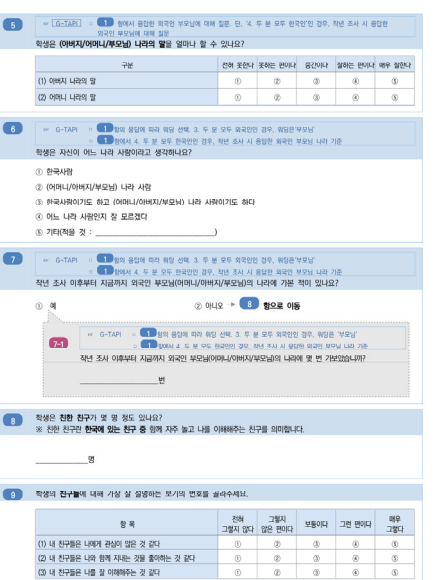
한국어만 사용한다	한국어를 주로 사용한다	한국어와 어머니 나라 말을 반반 사용한다	어머니 나라 말을 주로 사용한다	어머니 나라 말만 사용한다	기타 (적을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4 ☞ G-TAPI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4 항 skip)
▫ 1 항에서 ① 아버지 이고,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skip

학생의 (아버지/어머니/부모님)께서는 어려분이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의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하나요?

① 특별히 하는 것은 없다
②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로 나에게 말씀하신다
③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배우라고 말씀하신다
④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나에게 직접 가르치신다
⑤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말을 가르치는 곳을 찾아서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2024 MAPS | 3



5 ☞ G-TAPI ▫ 1 항에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 단,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작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에 대해 질문

학생은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의 말**을 얼마나 할 수 있나요?

구분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아버지 나라의 말	①	②	③	④	⑤
(2) 어머니 나라의 말	①	②	③	④	⑤

6 ☞ G-TAPI ▫ 1 항의 응답에 따라 워딩 선택. 3. 두 분 모두 외국인인 경우, 워딩은 '부모님'
▫ 1 항에서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작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 나라 기준

학생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① 한국사람
② (어머니/아버지/부모님) 나라 사람
③ 한국사람이기도 하고 (어머니/아버지/부모님) 나라 사람이기도 하다
④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7 ☞ G-TAPI ▫ 1 항의 응답에 따라 워딩 선택. 3. 두 분 모두 외국인인 경우, 워딩은 '부모님'
▫ 1 항에서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작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 나라 기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부모님(어머니/아버지/부모님)의 나라에 가본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8 항으로 이동

7-1 ☞ G-TAPI ▫ 1 항의 응답에 따라 워딩 선택. 3. 두 분 모두 외국인인 경우, 워딩은 '부모님'
▫ 1 항에서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작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인 부모님 나라 기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외국인 부모님(어머니/아버지/부모님)의 나라에 몇 번 가보았습니까?

_____번

8 학생은 **친한 친구**가 몇 명 정도 있나요?
※ 친한 친구란 **한국에 있는 친구 중** 함께 자주 놀고 나를 이해해주는 친구를 의미합니다.

_____명

9 학생의 **친구들**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내 친구들은 나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내 친구들은 나를 잘 이해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 학생의 **현재 학교생활**은 어떤가요? 다음 문항을 읽고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4) 나는 우리 학교 친구들이 좋다	①	②	③	④

11 학생의 **학교생활 전체**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 학교 공부를 잘 따라가지 못하는 점
② 학교 친구들과 잘 사귀지 못하는 점
③ 학교 규칙을 지키는 일
④ 선생님과의 관계
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12 학생이 **학교에서 친구들과 생활**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나를 무시하는 것
② 나의 얼굴이나 생김새 등 외모를 가지고 놀리는 것
③ 친한 친구가 없는 것
④ 나를 다른 아이들과 다르게 대하는 것
⑤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13 학생이 **학교 공부**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요?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세 가지** 이내로 답해주세요.
※ 어려운 점이 한 가지 혹은 두 가지만 전무, 1순위 혹은 2순위까지만 응답하셔도 됩니다.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공부할 내용이 어려울 때 물어볼 사람이 없다
② 내 생각을 글로 쓰는 것이 어렵다
③ 선생님께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④ 수업시간에 나의 의견을 말하는 것이 어렵다
⑤ 책(교과서)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어렵다
⑥ 숙제나 과제를 하는 것이 어렵다
⑦ 공부에 흥미가 없다
⑧ 특별히 어려운 점이 없다
⑨ 기타(적을 것 : _____)

14 학생의 **지난 학기(2024년 1학기)** 전 과목 성적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못한다
② 못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15 학생은 **자신의 성적**에 대해 얼마나 만족합니까?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16 학생의 **담임선생님**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2) 우리 담임선생님은 내가 어떠거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날 걱정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3) 우리 담임선생님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⑤

17 **지난 학기(2024년 1학기) 동안** 다른 학생들과의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일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항 목	한 번도 없었다	한 달에 1~2번 있었다	한 주에 1~2번 있었다	거의 매일 있었다
(1) 다른 학생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2) 다른 학생들로부터 욕을 듣거나 심한 장난/괴롭나 놀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3) 다른 학생들이 나를 고의로 어떤 일에 끼워주지 않거나 완전히 무시했다	①	②	③	④
(4) 다른 학생들로부터 맞거나 발로 차이거나 위협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5) 나에 대해 거짓소문을 퍼뜨려서 다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하게 되었다	①	②	③	④
(6) 다른 학생들로부터 신체적 특징이나 외모에 대해 원한 욕설을 듣거나 놀림을 당했다	①	②	③	④

18 학생에게 **학교 내**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19** **항으로 이동**

19-1 (학교 내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담임선생님
② 교과 선생님
③ 한국어 학급 선생님
④ 다문화 언어 선생님
⑤ 보건 선생님
⑥ 상담 혹은 학교사회복지사 선생님
⑦ 다문화 멘토 선생님
⑧ 기타(적을 것 : _____)

※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도와주는 어른이란?**
- 고민이 있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마음이 슬프거나 속상하다고 느낄 때 의논할 수 있는 사람
-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를 따돌리거나 때리거나 물건을 빼앗을 때 그러한 사실을 알릴 수 있는 사람
- 집에서 누군가가 나를 때리거나 욕해서 마음이 상했을 때 알릴 수 있는 사람 등

19 학생에게 **학교 밖**에서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숙제를 해야 할 때, 가족이나 학교선생님 외에 **도와주는 어른**이 있나요? (동거가족 제외)

① 예 ② 아니오 ▸ **20** **항으로 이동**

19-1 (학교 밖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는 어른**은 누구인가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② 지역 기관 선생님
(예 : 다문화관련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③ 이웃 어른들
④ 멘토
⑤ 종교단체에서 만나는 사람
⑥ 기타(적을 것 : _____)

※ **멘토** : 고등학생, 대학생, 지역의 어른 등 청기적으로 만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대화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20 학생은 **학교를 어디까지** 다니기를 원하나요?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 **21** **항으로 이동**

20-1 학생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나요?

① 한국 ② 외국 ▸ **21** **항으로 이동**

20-2 학생이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나요?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을 것 : _____)

21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가장 갖고 싶은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22 ↩ [조사원] ▸ **1** 항에서 4. 두 분 모두 한국인인 경우,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는 자녀 조사 시 응답한 하나만 부모님 나라 기준

학생은 나중에 커서 학교를 다 마친 후에 **어느 나라에서** 일하고 싶나요?

① 한국
②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
③ 제3국(한국도 아니고 외국출신 부모님 나라도 아닌 다른 나라)
④ 아직 잘 모르겠다

23 다음은 학생의 **진로**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장래에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이미 정해놓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하고 싶은 일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이미 진로가 결정되어 있어 진로선택을 하는데 별로 고민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4) 앞으로 되고자 하는 모습에 대해 자주 생각해본긴 하지만, 실제로 어떤 직업을 가져야겠다고 구체적으로 생각해본 적이 없다	①	②	③	④
(5) 주위 사람이나 사로 내리어 보내서 어떤 직로를 선택해야 할지 혼라스럽다	①	②	③	④
(6) 종인 혼 친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무엇을 할지 막막하다	①	②	③	④
(7) 자신의 진로에 대해 확신이 결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①	②	③	④
(8) 나중에 바꿀지 모르겠지만 일단 하고 싶은 일을 결정해 놓았다	①	②	③	④
(9) 무엇을 해야 할지 확실하게 결정한 것이 없다	①	②	③	④
(10)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힘들다	①	②	③	④

24 다음은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학생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분야,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교교석점에서 우것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교내외 활동(예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독서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전학을 갈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25 ⇨ G-TAPI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이면, (1) 아버지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19-1 해당 '① 학력, 공부법,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없다'와 '③, ⑦ 학력, 공부법,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해당 없음' 응답 묻기

학생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은지, 어떤 학교에 진학할 것인지 등) 다음 사람들과 얼마나 **자주 대화(또는 상담)** 하나요?

항 목	전혀 대화 하지 않는다	별로 대화 하지 않는다	가끔 대화한다	자주 대화한다	해당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⑨
(3) 형제·자매	①	②	③	④	⑨
(4) 친척 친지	①	②	③	④	⑨
(5) 학교 선생님 (담임, 교과 선생님)	①	②	③	④	-
(6) 상담 선생님	①	②	③	④	⑨
(7) 학원, 공부방, 학습지 및 과외 선생님	①	②	③	④	⑨
(8) 친구	①	②	③	④	⑨
(9) 대모학관련 센터, 금교절청소년센터 등 선생님	①	②	③	④	⑨
(10) 기타(적절 것 : _____)	①	②	③	④	⑨

26 학생의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신체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정신적으로 건강하다	①	②	③	④

27 학생의 평소 생활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는 게 즐겁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적정기리가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내 삶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8 학생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 가치있는 사람 : 쓰모있고 중요한 사람
* 성품 :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29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회복에서 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집만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꾸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30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면 끼지가나 엄빈다	①	②	③	④
(2) 별 것 아닌 일로 싸우곤 한다	①	②	③	④
(3) 하루 종일 화가 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4) 주위에 사람들이 많으면 어색하다	①	②	③	④
(5) 다른 사람들에게 내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6)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싫어한다	①	②	③	④
(7) 기분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8)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	①	②	③	④
(9)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	①	②	③	④
(10) 모든 일에 즐십과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11) 모든 일이 힘들다	①	②	③	④

31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얼마나 자주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지 응답해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드물게 그렇다	가끔 그렇다	항상 그렇다
(1) 나는 친구관계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2) 나는 혼자라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외로움을 느낀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 고립 : 다른 사람과 어울리어 사귀지 않거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태

31-1 ((4)번 문항에서 ②, ③, ④를 선택한 경우)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고 느낀다'라는 감정을 느끼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 1년 미만
③ 1년 이상 2년 미만
④ 2년 이상 3년 미만
⑤ 3년 이상

32 ⇨ G-TAPI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이면, (5), (6)은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 (15) 비자/체류 문제의 경우, 학생 본인 국적이 '한국'이면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학생이 다음 항목에 대해 **얼마나 걱정하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	별로 걱정하지 않는다	약간 걱정한다	매우 걱정한다	해당 없음
(1) 공부, 성적 문제	①	②	③	④	-
(2) 학교 생활 문제	①	②	③	④	-
(3) 진학, 진로 문제*	①	②	③	④	-
(4) 가정의 경제적 형편	①	②	③	④	-
(5) 부모님 사이의 불화(부부싸움 등)	①	②	③	④	⑨
(6) 아버지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7) 어머니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8) 형제자매와 나와의 갈등*	①	②	③	④	⑨
(9) 이성친구와의 문제	①	②	③	④	⑨
(10) 친구와의 문제	①	②	③	④	-
(11) 나의 성격 문제	①	②	③	④	-
(12) 나의 외모 문제	①	②	③	④	-
(13) 나의 건강 문제(신체적, 정신적)	①	②	③	④	-
(14) 이혼에 대한 불안감	①	②	③	④	-
(15) 비자/체류 문제	①	②	③	④	⑨

* 진학, 진로 문제 : 앞으로 어떤 학교에 진학하고 어떤 일을 할지 등과 관련된 문제
* 갈등 : 개인이나 집단 사이에 마음이 맞지 않아 다툼

33 한국에 대한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누군가 한국을 칭찬하면 내가 칭찬받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갖는지에 관심이 많다	①	②	③	④
(3) 한국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다	①	②	③	④
(4) 누군가 한국에 대해 나쁘게 이야기하면 내게 욕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상한다	①	②	③	④

34 ⇨ 조사표 ☆ 1 항에서 4, 5 번 모두 한국 출신인 경우, 적년 조사 시 응답한 외국 출신 부모님에 대해 질문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자신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한국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2)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음악, 영화, 음식, 옷 등)를 즐기는 편이다	①	②	③	④
(3) 나는 부모님이 외국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4) 나는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앞으로 계속 한국에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6) 나는 앞으로 외국인 부모님 나라에 가서 살고 싶다	①	②	③	④
(7) 나는 한국의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①	②	③	④
(8)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로 가서 대학이나 회사에 다니고 싶다	①	②	③	④
(9) 나는 외국인 부모님 나라의 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10) 나는 한국문화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35 ☞ [G-TAP] ○ **1** 항에서 4, 5 본 모두 한국 출신인 경우 **35**번 스킵

학생은 작년 조사 이후부터 지금까지 일상생활 속에서 **부모님이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 받았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① 예 ② 아니오 ▶ **36 항으로 이동**

35-1 **누구에게** 차별을 받았나요? **모두** 골라주세요.

① 학교의 다른 학생들
② 학교선생님
③ 학원이나 과외선생님
④ 친척들
⑤ 동네 사람들
⑥ 편의점, 식당, PC방 등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
⑦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⑧ 기타(적을 것 : _____)

35-2 차별이나 무시를 당한 후 **주로** 어떻게 하였나요?

① 그냥 참았다
② 부모님이나 가족에게 알렸다
③ 학교 선생님께게 알렸다
④ 지역 기관 선생님에게 알렸다
(예 : 다문화관련 센터, 글로벌청소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 수련관, 사회복지관, 청소년상담센터 등)
⑤ 차별행동이나 무시한 사람에게 직접 따졌다
⑥ 기타(적을 것 : _____)

36 가정, 학교, 사회 등에서 나의 안전이 얼마나 존중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하는 번호에 응답해주세요.
※ 안전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항 목	전혀 존중받지 못한다	존중받지 못하는 편이다	존중받는 편이다	매우 존중 받는다
(1) 가정	①	②	③	④
(2) 학교	①	②	③	④
(3) 지역사회	①	②	③	④
(4) 한국사회 전체	①	②	③	④
(5)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	①	②	③	④

37 학생의 생각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에게 친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 출신 사람들을 출신국가에 따라 다르게 대한다	①	②	③	④	⑤

38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얼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보호자)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해주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움말을 많이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하는 것들(물건, 정소 등)을 잘 제공해주신다	①	②	③	④

39 학생의 **부모님(보호자)**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밖과 후에 어디에 가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보호자)은 내 몸이나, 옷, 이불 등이 깨끗하도록 항상 신경쓰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외출할 경우 언제 들어올지 알고 계신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보호자)은 나보다 바깥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보호자)은 나에 대해 관심이 없으셔서 힘든일 하시거나 참으시는 일이 없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이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필요로 할 때 곁에 없으시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보호자)은 내가 아플 때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40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부모님과 다음과 같은 활동을 얼마나 함께 하였나요?

항 목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1)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3) 여가활동(스포츠, 취미, 오락 등 여유시간에 하는 활동)	①	②	③	④	⑤
(4) 저녁식사	①	②	③	④	⑤

41 ☞ [G-TAP] ○ 어머니 혼인상태가 '사별'이면, (1) 아버지 '해당 없음'만 응답 가능

부모님과 **하루에** 얼마나 함께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냅니까?
※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대화를 하거나 놀거나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는 등 부모님과 학생이 함께 하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항 목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30분 이상 ~ 1시간 미만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⑥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⑥

42 **평일 방과 후에** 부모님이나 동봐 주는 어른 없이 집에 혼자 혹은 형제나 자매끼리만 있는 경우가 **일주일에** 며칠 정도나 되나요?

① 거의 없다 ② 1~2일 정도 ③ 3~4일 정도 ④ 거의 매일

43 학생은 다음과 같은 **학습 또는 청소년활동**을 일주일에 평균 몇 회하고, 한번 할 때 얼마나 하나요?

항 목	참여 여부		1주일 간 참여횟수	회당 평균 참여시간
	참여	미참여		
(1)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 관련 시교육(학원, 과외, 온라인 강의, 방문학습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관련 시교육(학원, 과외, 온라인 강의, 방문학습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3) 학교 방과후 프로그램(교과보충학습, 한국어교육, 이중언어교육, 방과후학교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4) 지역 방과후 프로그램(청소년수련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①	②	( )회	( )시간 ( )분
(5) 청소년센터(수련관, 문화의집, 마다센터, 직업체험센터 등) 또는 복지관 등의 프로그램	①	②	( )회	( )시간 ( )분
(6) 기타(적을 것 : _____)	①	②	( )회	( )시간 ( )분

44 학생은 다음과 같은 **일 또는 여가 활동**을 하루에 평균 얼마나 하나요?
※ 과제 또는 학습용으로 하는 시간은 제외하고 응답해주십시오.

항 목	활동 여부		1주일 간 활동일수	하루 평균 활동시간
	했음	안했음		
(1) 집안일 돕기(청소, 빨래, 동생 돌보기 등)	①	②	( )일	( )시간 ( )분
(2) 친구들과 시간 보내기(오프라인)	①	②	( )일	( )시간 ( )분
(3) 운동(개인운동, 단체스포츠 등)	①	②	( )일	( )시간 ( )분
(4) 종교활동	①	②	( )일	( )시간 ( )분

	주중 (월~금요일) 하루 평균	휴일 (토/일요일, 공휴일) 하루 평균
(5) TV 또는 OTT*(넷플릭스, 티빙 등) 시청	( )시간 ( )분	( )시간 ( )분
(6) 온라인게임(PC, 스마트폰 모두 포함)	( )시간 ( )분	( )시간 ( )분
(7)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그 등) 이용(한곳에)	( )시간 ( )분	( )시간 ( )분
(8) SNS**(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그 등) 이용(자곡출신 아버지/어머니/부모님 나라 언어)	( )시간 ( )분	( )시간 ( )분

* OTT(Over-the-top)는 영화, TV 방영 프로그램 등의 무디어 콘텐츠를 인터넷을 통해 사용자가 원할 때 제공하는 서비스(예시: 넷플릭스, 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등)를 의미합니다.
* SNS(Social Network/Networking Service)는 사용자 간 의사소통, 정보 공유, 인맥 확대 등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강화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밴드그 등)을 의미합니다.

45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청소년 체험활동**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참여한 적이 있다면 **총 참여 횟수**는 얼마나 됩니까? **참여 경험이 얼마나 만족스러웠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 청소년 체험활동 : 자신의 특기나 적성 계발 또는 취미·여가생활을 즐기기 위하여 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항 목	지난 1년간 참여 횟수				(참여한 적 있는 경우) 만족도			
	없다	1~2회	3~4회	5회 이상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1) 문화/예술 관련 활동 (공연 감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2) 과학/정보 관련 활동 (과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3) 모험/개척 관련 활동 (탐사·등반, 야영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 자원봉사활동 (일손 돕기, 자선 구호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5) 직업/진로 관련 활동 (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6) 국제 교류 활동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7) 건강/보건 관련 활동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8) 자기인성개발 관련 활동 (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 (생태·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②	③	④	①	②	③	④

46 다음은 학생의 **평소 생활과 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평소 자신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학교에서 숲, 담배, 머리, 옷, 화장 등을 규제하는 것이 싫다	①	②	③	④
(2) 학교를 그만두면 자유롭게 행동(숲, 담배, 머리, 옷, 화장 등) 할 수 있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3) 가능한 빨리 사회에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①	②	③	④
(4) 벌과 돈을 벌고 싶다	①	②	③	④
(5) 부모와 자주 싸운다	①	②	③	④
(6) 집에 들어가기 싫다	①	②	③	④

항 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7) 내 친구 중 자퇴를 한 친구가 있다	①	②
(8) 내 친구 중 학교가지 않고 놀지고 하는 친구가 있다	①	②

47 다음은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관한 질문입니다.
학생의 친구 및 선후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특별한 이유없이 종종 결석을 한다	①	②
(2)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담배를 핀다	①	②
(3)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술을 마신다	①	②
(4)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학교에서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①	②
(5)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경찰서에 불려간 적이 있다	①	②
(6) 내 친구 또는 기까운 선후배는 가출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48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 번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가출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학교를 무단으로 빠먹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6) 남의 돈이나 물건을 속력 훔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7)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8)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빼 앗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9) 폭력 써클(집단)에 가입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0) 폭력을 휘 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1) 성관계를 해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12) 온라인상에서 돈내기 게임이나 도박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9 학생은 **지난 1년 동안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인터넷) 상에서 다음과 같은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전혀 없다	있다				
		1년에 1~2번	한 달에 1번	한 달에 2~3번	1주일에 1번	1주일에 여러 번
(1) 누군가에게 욕이나 협한 말을 직접 보낸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2) 누군가에 대한 욕이나 나쁜 소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3) 누군가를 괴롭힐 목적으로 자기얼굴을 올려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4) 사이버 상에서 누군가를 집중공격을 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50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 특별지원 : 다문화가족만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을 말합니다.

① 예 ② 아니오 → 51 항으로 이동

50-1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도 지원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①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줘야만 옳겠다
② 다문화가족 자녀임이 드러나게 특별지원 해주어도 상관없다

51 앞으로 **다문화가족 자녀를 위한 지원**을 해준다면 어떤 것들을 해주길 원합니까? 원하는 것을 **모두** 골라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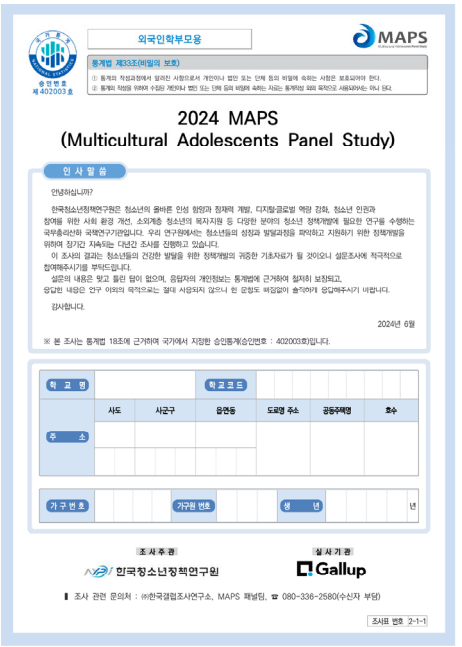
① 현금 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② 학습 지원(교과목 지도 등)
③ 진로관련 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④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⑤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⑥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⑦ 기타(적을 것 : _____)

설문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쓰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_____) - (_____) - (_____)
	키, 몸무게	① 키 : _____cm ② 몸무게 : _____kg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장소 : _____)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_____)
	조사 일시	2024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조사 진행 시, 방해 요인이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4. 2기 코호트 설문지(외국인학부모용)



외국인학부모용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승인 번호 제 402003 호

2024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부출연기관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학 교 명 | 학 교 코 드

주 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도로명 주소 | 공동주택명 |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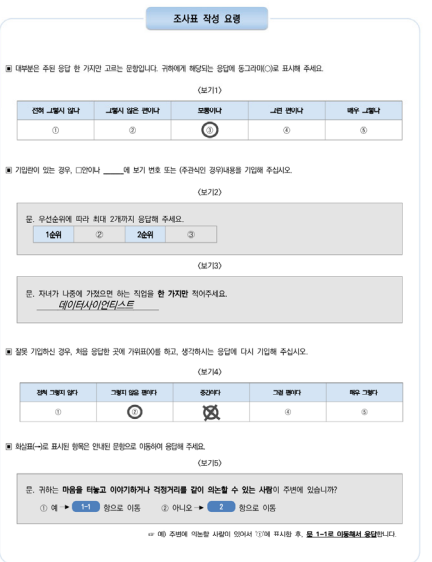
가 구 번 호 | 가구원 번호 | 생 년 | 년

조 사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 사 기 관 :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2-1-1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③

〈보기3〉

문.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 잘못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정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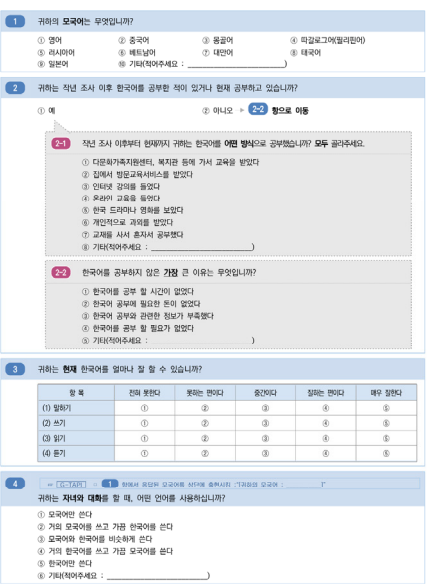
〈보기5〉

문.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①에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귀하의 **모국어**는 무엇입니까?

① 영어 ② 중국어 ③ 몽골어 ④ 따갈로그어(필리핀어)
⑤ 러시아어 ⑥ 베트남어 ⑦ 태국어
⑧ 일본어 ⑨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귀하는 작년 조사 이후 한국어를 공부한 적이 있거나 현재 공부하고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2 항으로 이동

2-1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귀하는 한국어를 **어떤 방식**으로 공부했습니까? **모두** 골라주세요.

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에 가서 교육을 받았다
② 집에서 방문교육서비스를 받았다
③ 인터넷 강의를 들었다
④ 오라이 교육을 들었다
⑤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았다
⑥ 개인적으로 과외를 받았다
⑦ 교재를 사서 혼자서 공부했다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2 한국어를 공부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한국어를 공부 할 시간이 없었다
② 한국어 공부에 필요한 돈이 없었다
③ 한국어 공부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했다
④ 한국어를 공부 할 필요가 없었다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3 귀하는 **현재** 한국어를 얼마나 잘 할 수 있습니까?

항 목	전혀 못한다	못하는 편이다	중간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한다
(1) 말하기	①	②	③	④	⑤
(2) 쓰기	①	②	③	④	⑤
(3) 읽기	①	②	③	④	⑤
(4) 듣기	①	②	③	④	⑤

4 ↩ G-TAPI ○ 1 항에서 응답한 모국어를 상단에 출현시킴 "귀하의 모국어 : _____!"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① 모국어만 쓴다
② 거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
③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
④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모국어를 쓴다
⑤ 한국어만 쓴다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024 MAPS | 3

5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안 된다
② 잘 안 되는 편이다
③ 잘 되는 편이다
④ 매우 잘 된다

※ 의사소통: 대화하면서 말뜻을 서로 이해하는 것

6 ↩ G-TAPI ○ 1 항에서 응답한 모국어를 상단에 출현시킴 "귀하의 모국어 : _____!"

귀하의 자녀는 귀하의 모국어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① 전혀 못한다
② 잘 못하는 편이다

6-1 ↩ G-TAPI ○ 1 항에서 응답한 모국어를 상단에 출현시킴 "귀하의 모국어 : _____!"

귀하의 자녀가 귀하의 모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가장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나의 모국어를 하는 것이 큰 이득이 없어서 가르치지 않았다
② 나의 모국어를 배우기보다는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여 가르치지 않았다
③ 나는 가르치려고 했으나 자녀가 원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았다
④ 나는 가르치려고 했으나 가족들이 원하지 않아서 가르치지 않았다
⑤ 나는 가르치려고 했으나 시간이나 여유가 없어서 가르치지 못했다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③ 어느 정도 한다
④ 잘하는 편이다
⑤ 매우 잘한다
▶ 7 항으로 이동

7 귀하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8 귀하는 귀하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④ 많은 도움을 준다

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9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지역의 전문센터나 기관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0 귀하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조사자 : 1~3번과 4~7번의 척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응답자에게 이 부분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G-TAPI : "4번부터는 척도가 다르게 적용되오니, 척도를 다시 한 번 잘읽은 후 귀하에게 적합한 보기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별로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하였다	자주 하였다	매우 자주 하였다
(1)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학원에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과외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시험이 임박한 형소보다 더 공부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7)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친다*	①	②	③	④	⑤

* 야단을 치다 : 혼내다, 꾸짖다

11 귀하는 **지난 1년간**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담임교사 면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 설명회 참석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 교육 참석	①	②	③	④	⑤
(4) 그 외 학교행사 참석(체육대회, 발표회, 학교축제 등)	①	②	③	④	⑤

* 담임교사 면담 :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담임교사를 만나는 것
* 학교교육 설명회 : 학교 교육과정이나 계획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
* 학부모 교육 :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정 주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교육(학교교사, 외부간사, 전문가를 통해 진행되는 교육이 모두 포함됨)

12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활동이 조사에 참여하는 자녀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참여 또는 경험여부		(참여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진로 검사 특강 및 강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관련 체험처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모둑 또는 외국 출신 학부모로 구성된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한국 학부모 주도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① 학교
② 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③ 지역의 다문화 관련 센터(예: 다문화 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 전문 센터)
④ 학원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4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 **15 항으로 이동**

14-1 귀하는 자녀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한국 ② 외국 ▸ **15 항으로 이동**

14-2 귀하의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5 ※ G-TAPI : 조사 대상 자녀의 현재 국적이 외국 또는 '국적 없음'인 경우만 질문

귀하의 **자녀**를 **한국에서 계속 거주**하게 할 생각이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5-2 항으로 이동** ③ 아직 잘 모르겠다 ▸ **16 항으로 이동**

15-1 한국에서 **어떤 형태**로 거주하게 할 생각입니까?

① 한국국적을 취득하게 할 예정이다(귀화, 입양 등)
② 한국영주권을 신청할 예정이다
③ 한국국적이나 한국영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한국에 거주하게 할 예정이다
④ 아직 모르겠다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5-2 (앞 **15** 에서 ② 아니오인 경우만)**언제까지** 한국에서 살게 할 예정입니까?

① 조만간 돌아갈 예정이다
②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 예정이다
③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 예정이다
④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 예정이다
⑤ 아직 모르겠다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6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17 귀하의 **자녀**는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의 **자녀가 받았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 : 학교나 다른 기관(청소년단체, 종교단체)으로부터 무료 또는 소액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 목	17-1 지원받은 적		17-2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도움 정도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안 된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이 된다	매우 도움이 된다
(1) 자녀 한국어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이중언어교육(한국어+부모 모국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과목 학습지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링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무료 방문학습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특기적성 교육(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체험(한국역사, 한국역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견학 및 체험활동(놀이공원,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캠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현안지원(장학금, 추천권, 학원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진로*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멘토링 프로그램 : 고등학생, 대학생, 지역의 어른이 자녀를 짝지어주거나 만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대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 캠프 : 단체로 1박 이상의 야외활동을 하는 것(ex 진로 캠프만 경우 (14)번에 응답)
* 진로 :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

18 다음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의 교내외 활동(예체능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특사활동 등) 참여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는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
② 일반 한국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방식
③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되, 일정시간만 별도의 반에서 공부하는 방식
④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력 인정을 해주는 방식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0 귀하의 자녀는 **지난 1년** 동안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교육비로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정도를 아래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20-1 참여 여부		20-2 월 평균 비용	20-3 비용 부담 정도			
	예	아니오		심히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 되지 않는 편이다	부담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된다
(1)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 사교육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①	②	만원	①	②	③	④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관련 사교육*	①	②	만원	①	②	③	④

* 사교육 :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교육

21 귀하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따지 못하는 것
②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③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④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⑤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⑥ 학교 선생님과의 소통이 어려운 것
⑦ 경제적으로 이려워서 송보이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
⑧ 자녀가 의료보험이 없어서 병원 치료가 어려운 것
⑨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⑩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
⑪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것
⑫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⑬ 어려운 점이 없다

22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아이가 질문했을 때, 스스로 질문은 잘을 개념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 유능한 :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는 능력

23 귀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4 항으로 이동**

23-1 귀 댁 자녀에게 특별지원은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②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지원해도 상관없다

24 귀하는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 상존서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은 적**이 있습니까?
[면접원 : '이주민은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으로 설명]

① 예 ② 아니오 ▶ **25 항으로 이동**

24-1 귀하가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아래의 각 대상으로부터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는지 해당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문항	심한 차별을 받았다	약간 차별을 받았다	별로 차별을 받지 않았다	전혀 차별을 받지 않았다	해당 없음
(1) (일터의)고용주* 또는 직장동료	①	②	③	④	⑧
(2) 동네 사람	①	②	③	④	
(3) 길거리의 모르는 사람	①	②	③	④	
(4) 복지시설 종사자	①	②	③	④	⑧
(5) 일반 공무원*	①	②	③	④	⑧
(6) 의료인(의사, 간호사 등)	①	②	③	④	
(7) 서비스업 사업자 및 종사자	①	②	③	④	
(8) 다른 한국인 가족	①	②	③	④	⑧
(9) 기타(적어주세요: _____)	①	②	③	④	⑧

* 고용주 : 일반한 대가를 주고 다른 사람을 부리는 사람(예, 사장 등)
* 일반 공무원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주민센터, 출입국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사람)

24-2 귀하는 차별받았을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① 가해자/사람, 기관)에게 시정*을 요구하였다
②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였다
③ 인터넷, SNS 등에 글을 올렸다
④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였다
⑤ 민간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
⑥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24-2-1 귀하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어서
②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③ 신고절차가 복잡하거나 시간이 오래 걸려서
④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려울 것 같아서
⑤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⑥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⑦ 어떻게 대응해야할 지 몰라서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시정 : 잘못된 것을 바로잡음
* 시민사회단체 : 시민적인 주장이나 요구를 개진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결사체체, 인권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주여성연합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등)

24-3 귀하가 차별을 받은 **가장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외국 출신이라서
② 한국어가 미숙하여서
③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5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6 항으로 이동**

25-1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_____명

26 귀하께서 평소 자주 어울리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가족은 제외하고 응답해 주세요.

모국 출신 사람들	모국을 제외한 외국 출신 사람들	한국 사람들
_____ (명)	_____ (명)	_____ (명)

* 자주 어울리는 사람이 없는 경우 0으로 써주세요.

27 귀하가 한국에서 생활하는 데 있어 **모국의 문화와 달라서 어려운 점**이 얼마나 있습니까?

① 전혀 없다
② 별로 없는 편이다
③ 어느 정도 있다
④ 약간 많은 편이다
⑤ 매우 많다

28 다음은 한국에서 귀하가 **생활하시면서 느끼는 일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항목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사회생활에서 한국 사람들과 다른 대우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한국 사람들은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편견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힘들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고향을 떠나 낯선 환경에서 생활하는 게 슬프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가 태어난 곳과 사람들이 그립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외국출신자들을 무시하는 것에 화가 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다는 이유 때문에 위축*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내가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가 낮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 위축 : 자신감이 없고 기를 펴지 못하는 상태
* 사회적 지위: 사회생활을 하는 개인의 재산, 직업, 출신, 인종, 성별 등에 따라 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

29 다음은 귀하의 **한국생활**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평소 귀하의 느낌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과 더 잘 어울린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에게 나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더 쉽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모국사람들보다 한국사람들과 사귀는 것이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한국인 친구와 모국인 친구가 모두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한국사람들과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귀중히 여긴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한국사람이든 모국사람이든 누구와 함께 있어도 매우 편안하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모국사람들이 많은 모임에 가는 것을 더 좋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한국사람들보다 모국사람들이 나를 더 동등*하게 대해준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한국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보다 모국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더 편하다	①	②	③	④	⑤
(10) 나는 한국인이나 모국인 누구도 나를 이해하시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11) 나는 때때로 한국사람이나 모국사람이나 모두 나를 밀어붙이지 않는다고 느낀다	①	②	③	④	⑤
(12) 나는 종종 한국사람들이나 모국사람들 모두 나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동등 :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는 것

30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며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해어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 가치있는 사람 : 쓸모있고 중이한 사람

31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32 ☞ G-TAPI ☆ 가구원부에서 응답한 혼인상태가 그대로 보임. 수정 불가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동거

→ **33** 항으로 이동

32-1 **배우자(사실혼 포함)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별거 : 부부나 한쪽만 사구가 따로 떨어져 사는 상태
* 사별 : 배우자가 죽어서 이별한 상태
* 동거 :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사는 상태

33 귀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실제 수령액(십수원액)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만원

34 ☞ G-TAPI ☆ 혼인상태가'사별'인 경우, ① 남편 응답 불가

귀 댁의 **주요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남편
② 나
③ 시부모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주요 소득원 : 주로 돈을 버는 사람

35 현재 귀 댁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걸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산다

A **연중**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기중(9월~7월)
② 여름방학(8월)
③ 2학기중(9월~11월)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⑤ 특별히 없다

B **주중(월~금)**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C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D ☞ G-TAPI ☆ 가구원부에서 응답한 혼인상태가'사별/이혼/별거'인 경우, (1) 남편 나오지 않음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저희가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구분	면접 가능 여부		성함	관계	연락처
	가능	불가능			
(1) 남편	①	②	_____	남편	(____)-(____)-(____)
(2) 조사대상 자녀	①	②	_____	조사대상 자녀	(____)-(____)-(____)
(3) 조사대상 자녀를 제외한 다른 자녀	①	②	_____	(____)번째 자녀	(____)-(____)-(____)
(4) 남편과 자녀 외 다른 가구원	①	②	_____	(_____)	(____)-(____)-(____)
☞ G-TAPI ☆ (1)-(4) 항목이 모두 '불가능'인 경우만 출현 (5) 가구원 외(친구, 동료, 지인 등)	①	②	_____	(_____)	(____)-(____)-(____)

E 귀하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 ID를 알려해 주십시오.
*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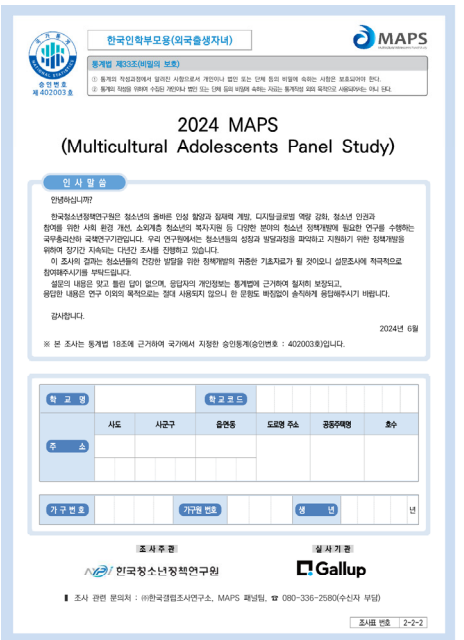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1) 이메일 주소	□ _____@_____	□
(2) 카카오톡(Kakaotalk)	□ ID(_____)	□
(3) 라인(LINE)	□ ID(_____)	□
(4)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ID(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_____) - (_____) - (_____)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장소 : _____)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_____)
	조사 일시	2024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조사 진행 시, 참여 요인이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답례품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이사 계획 여부	① 있음(계획 시기 : _____년 _____월) ② 없음
	향후 패널 참여 의사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5. 2기 패널 설문지(외국출생 한국인학부모용)



한국인학부모용(외국출생자녀)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승인번호 제402003호

2024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정책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학 교 명		학 교 코 드				
주 소	시도	시군구	읍면동	도로명 주소	공동주택명	호수
가 구 번 호		가구원 번호		생 년		년

조 사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 사 기 관 :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2-2-2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③

〈보기3〉

문.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 잘못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보기5〉

문.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예) 주변에 이눔할 사람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1 ☞ G-TAPI : 자녀의 출생 시 국가를 확인에 보이죠 :"자녀의 모국 : _____"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① 자녀의 모국어만 쓴다
② 거의 자녀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
③ 자녀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
④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자녀의 모국어를 쓴다
⑤ 한국어만 쓴다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귀하는 자녀와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안 된다
② 잘 안 되는 편이다
③ 잘 되는 편이다
④ 매우 잘 된다

3 귀하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 귀하는 귀하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④ 많은 도움을 준다

5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자녀가 직접해야 함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6 귀하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조사팁 : 1~3번과 4~7번의 척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응답자에게 이 부분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G-TAPI : "네번부터는 척도가 다르게 적용되오니, 척도를 다시 한 번 읽으신 후 귀하에게 적당한 보기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별로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하였다	자주 하였다	매우 자주 하였다
(1)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학원에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과외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시험이 있으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7)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친다*	①	②	③	④	⑤

* 야단을 친다 : 혼낸다, 꾸짖다

7 귀하는 **지난 1년간**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담임교사 면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 설명회 참석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 교육 참석	①	②	③	④	⑤
(4) 그 외 학교행사 참석(체육대회, 발표회, 학교축제 등)	①	②	③	④	⑤

* 담임교사 면담 :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담임교사를 만나는 것
* 학교교육 설명회 : 학교 교육과정이나 계획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
* 학부모 교육 :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정주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교육 (학교교사, 외부강사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교육이 모두 포함됨)

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활동이 조사에 참여하는 자녀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참여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면	(참여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관련 책/잡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외국 출신 학부모로 구성된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한국 학부모 주도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① 학교
② 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③ 지역의 다문화 관련 센터(예: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 전문 센터)
④ 학원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0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10-1 귀하는 자녀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한국 ② 외국

10-2 귀하의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1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12 귀하의 자녀는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의 **자녀가 받았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 : 학교나 다른 기관(청소년단체, 종교단체)으로부터 무료 또는 소액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 목	12-1 지원 받은 적		12-2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도움 정도				
	있다	없다	전혀 도움 안 된다	별로 도움 안 된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1) 자녀 한국어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이중언어교육(한국어+부모 모국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과목 학습지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링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무료 방문학습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특기적성 교육(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체험(한국역사, 한국역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견학 및 체험활동(송이공원,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캠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상담지원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한간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진로*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멘토링 프로그램 : 고등학생, 대학생, 지역의 어른이 자녀를 정기적으로 만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대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 캠프 : 단체로 1박 이상의 야외활동을 하는 것 (※ 진로 캠프만 경우 (14)번에 응답
* 진로 : 일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

13 다음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정보(받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의 교내외 활동(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독서활동 등) 참여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는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
② 일반 한국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방식
③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되, 일정시간만 별도의 반에서 공부하는 방식
④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력 인정을 해주는 방식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5 귀하의 자녀는 **자난 1년** 동안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교육비로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정도를 아래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15-1 참여 여부		15-2 월 평균 비용	15-3 비용 부담 정도			
	예	아니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부담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된다
(1)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 사교육 (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①	②	____만원	①	②	③	④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 관련 사교육	①	②	____만원	①	②	③	④

* 사교육 :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교육

16 귀하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
②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③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④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⑤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
⑦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⑧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
⑨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것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⑪ 어려운 점이 없다

17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범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아이가 칭찬받을 때 스스로 칭찬한 점을 깨닫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9** 항으로 이동

18-1 귀 댁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②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지원해도 상관없다

19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0** 항으로 이동

19-1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_____명

20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2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
② 이혼 ▸ **23** 항으로 이동
③ 별거*
④ 사별*
⑤ 동거*

22-1 **배우자(사실혼 포함)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별거 : 부부나 한쪽은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사는 상태
* 사별 : 배우자가 죽어서 이별한 상태
* 동거 :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한집에서 사는 상태

23 귀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만원

24 ↩ Q-7 A2N ☞ 혼인상태가 '사별'인 경우, ① 남편 응답 불가

귀 댁의 **주요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남편 ② 나
③ 시부모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주요 소득원 : 주로 돈을 버는 사람

25 현재 귀 댁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산다

A **연중**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기중(6월~7월) ② 여름방학(8월)
③ 2학기중(9월~11월)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⑤ 특별히 없다

B **주중(월~금)**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C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D ☞ G-TAPI ☜ 가구원부에서 응답한 혼인상태가 '사별/이혼/별거'인 경우, (1) 남편 나오지 않음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저희가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구분	연락 가능 여부		성함	관계	연락처
	가능	불가능			
(1) 남편	①	②		남편	(__)-(____)-(____)
(2) 조사대상 자녀	①	②		조사대상 자녀	(__)-(____)-(____)
(3) 조사대상 자녀를 제외한 다른 자녀	①	②		(__)번째 자녀	(__)-(____)-(____)
(4) 남편과 자녀 외 다른 가구원	①	②		(_____)	(__)-(____)-(____)
☞ G-TAPI ☜ (1)-(4) 항목이 모두 '불가능'인 경우만 출현 (5) 가구원 외(친구, 동료, 지인 등)	①	②		(_____)	(__)-(____)-(____)

E 귀하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 ID를 알려해 주십시오.
*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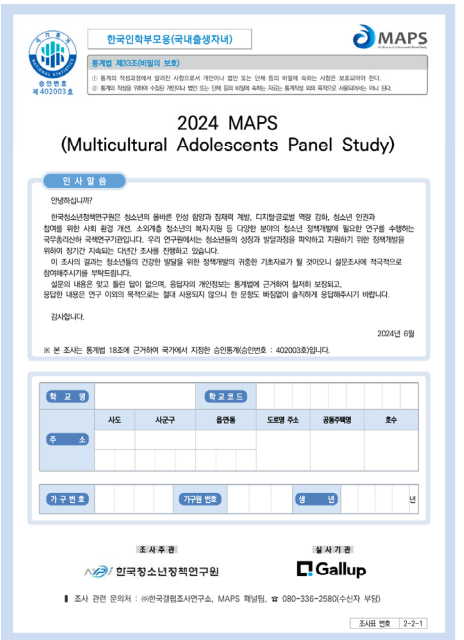
구분	있음	없음
(1) 이메일 주소	□ _____@_____	□
(2) 카카오톡(Kakaotalk)	□ ID(_____)	□
(3) 라인(LINE)	□ ID(_____)	□
(4)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ID(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 ) - ( ) - ( )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장소 :)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조사 일시	2024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조사 진행 시, 참여 요인이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답례품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이사 계획 여부	① 있음(계획 시기 : _____년 _____월) ② 없음
	향후 패널 참여 의사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6. 2기 패널 설문지(국내출생 한국인학부모용)



한국인학부모용(국내출생자녀)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승인번호 제402003호

2024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정책적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학 교 명 | 학 교 코 드

주 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도로명 주소 | 공동주택명 | 호수

가 구 번 호 | 가구원 번호 | 생 년 | 년

조 사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 사 기 관 : Gallup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2-2-1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③

(보기3)

문.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 잘못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X)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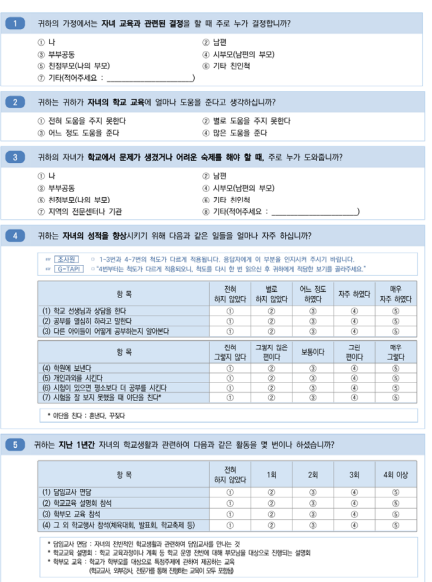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보기5)

문.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예)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1 귀하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정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귀하는 귀하가 **자녀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④ 많은 도움을 준다

3 귀하의 자녀가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① 나 ② 남편
③ 부부공동 ④ 시부모(남편의 부모)
⑤ 친척부모(나의 부모) ⑥ 기타 친인척
⑦ 지역의 전문센터나 기관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 귀하는 **자녀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조사원 : ① 1-2번과 4-7번의 척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응답자에게 이 부분을 인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G-1자문 : ② "4번부터는 척도가 다르게 적용되오니, 척도를 다시 한 번 읽으신 후 귀하에게 적합한 보기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별로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하였다	자주 하였다	매우 자주 하였다
(1)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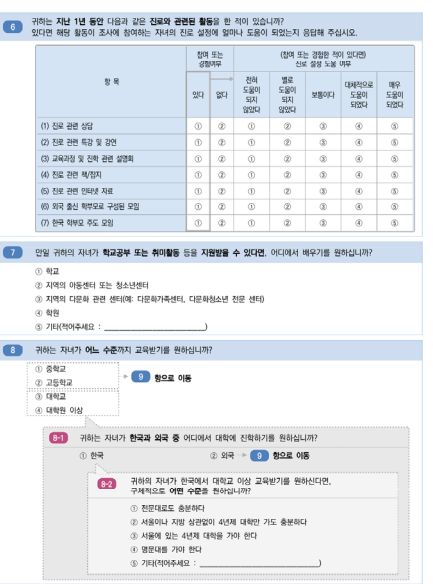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학원에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과외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시험이 있으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7)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친다*	①	②	③	④	⑤

* 야단을 친다 : 혼내다, 꾸짖다

5 귀하는 **자녀 1년간**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담임교사 면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 설명회 참석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 교육 참석	①	②	③	④	⑤
(4) 그 외 학교행사 참석(체육대회, 발표회, 학교축제 등)	①	②	③	④	⑤

* 담임교사 면담 :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담임교사를 만나는 것
* 학교교육 설명회 : 학교 교육과정이나 계획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
* 학부모 교육 :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정주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교육
(학교교사, 외부강사,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교육이 모두 포함됨)



6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활동이 조사에 참여하는 자녀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참여 또는 경험 여부		(참여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관련 체/견학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외국 출신 학부모로 구성된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한국 학부모 주도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만일 귀하의 자녀가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① 학교
② 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③ 지역의 다문화 관련 센터(예: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 전문 센터)
④ 학원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8 귀하는 자녀가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 9 항으로 이동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8-1 귀하는 자녀가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한국 ② 외국 ▸ 9 항으로 이동

8-2 귀하의 자녀가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9 자녀가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10 귀하의 자녀는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귀하의 **자녀가 받았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 : 학교나 다른 기관(청소년단체, 종교단체)으로부터 무료 또는 소액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 목	10-1 지원받은 적 있다	10-1 지원받은 적 없다	10-2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 됐다	별로 도움 안 됐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 됐다	매우 도움 됐다
(1) 자녀 한국어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자녀 이중언어교육(한국어+부모 모국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과목 학습지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링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무료 방문학습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특기적성 교육(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체험(한국역사, 한국역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견학 및 체험활동(놀이공원, 동물원, 아쿠아리움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캠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학습지원상담(학습, 후원금, 학업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꿈적 지원(적, 학원등 등 꿈등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진로*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멘토링 프로그램 : 고등학생, 대학생, 자격이 어른이 자녀를 장기적으로 만나 공부를 가르치주거나 진로와 관련된 대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 캠프 : 단체로 1박 이상의 야외활동을 하는 것(ex: 진로 캠프인 경우 (시)면에 참임)
* 진로 : 일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

11 다음은 **자녀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클릭하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자녀가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시킴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자녀의 진학과 관련하여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자녀의 교육이 입학사정관제, 정시위주, 특기적성, 특성화중 한 전략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자녀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자녀를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2 귀하는 자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
② 일반 한국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방식
③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되, 일정시간만 별도의 반에서 공부하는 방식
④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력 인정을 해주는 방식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3 귀하의 자녀는 **지난 1년** 동안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사교육비로 월 정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정도를 아래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13-1 참여 여부 예	13-1 참여 여부 아니오	13-2 월 평균 비용	13-3 비용 부담 정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 되지 않는 편이다	부담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된다
(1)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 사교육(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①	②	___만원	①	②	③	④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관련 사교육*	①	②	___만원	①	②	③	④

* 사교육 :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교육

14 귀하가 자녀를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____ 2순위 ____ 3순위 ____

① 자녀가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
② 자녀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③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④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⑤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
⑦ 자녀의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⑧ 자녀와의 대화가 부족한 것
⑨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자녀와의 갈등이 있는 것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⑪ 어려운 점이 없다

15 다음은 귀하가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부모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한 점을 깨닫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부모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부모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6 귀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7 항으로 이동**

16-1 귀 댁 자녀에게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했으면 좋겠다
②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지원해도 상관없다

17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8 항으로 이동**

17-1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_____명

18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0 귀하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동거

→ **21 항으로 이동**

20-1 **배우자(사실혼 포함)와의 사이**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 별거 : 부부나 한집만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사는 상태
* 사별 : 배우자가 죽어서 이별한 상태
* 동거 : 무무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함께서 사는 상태

21 귀 댁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만원

22 ☞ [G-TAP] ○ 출산상태가 '사별'인 경우, ① 남편 응답 불가

귀 댁의 **주요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남편
② 나
③ 시부모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주요 소득원 : 주로 돈을 버는 사람

23 현재 귀 댁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산다

A **연중**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기중(9월~7월)
② 여름방학(8월)
③ 2학기중(9월~11월)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⑤ 특별히 없다

B **주중(월~금)**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C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에 자녀와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D ☞ [G-TAP] ☆ 가구원부에서 응답한 혼인상태가 사별/이혼/별거인 경우, (1) 남편 나오지 않음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자녀가 귀하의 남편이나 자녀,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구분	연락 가능 여부		성함	관계	연락처
	가능	불가능			
(1) 남편	①	②	_____	남편	(___)-(___)-(___)
(2) 조사대상 자녀	①	②	_____	조사대상 자녀	(___)-(___)-(___)
(3) 조사대상 자녀를 제외한 다른 자녀	①	②	_____	(___)번째 자녀	(___)-(___)-(___)
(4) 남편과 자녀 외 다른 가구원	①	②	_____	(_____)	(___)-(___)-(___)
☞ [G-TAP] ☆ (1)-(4) 항목이 모두 '불가능'인 경우만 응답 (5) 가구원 외(친구, 동료, 지인 등)	①	②	_____	(_____)	(___)-(___)-(___)

E 귀하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 ID를 알려해 주십시오.
*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있음	없음
(1) 이메일 주소	□ _____@_____	□
(2) 카카오톡(Kakaotalk)	□ ID(_____)	□
(3) 라인(LINE)	□ ID(_____)	□
(4)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ID(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_____) - (_____) - (_____)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장소 : _____)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_____)
	조사 일시	2024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답례품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이사 계획 여부	① 있음(계획 시기 : _____년 _____월) ② 없음
	향후 패널 참여 의사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7. 2기 패널 설문지(대체양육자용)

대체양육자용

MAPS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승인 번호 제 402003 호

2024 MAPS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인 사 말 씀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의 올바른 인성 함양과 잠재력 계발, 디지털글로벌 역량 강화, 청소년 인권과 참여를 위한 사회 환경 개선, 소외계층 청소년의 복지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청소년 정책개발에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는 국무총리산하 국책연구기관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과정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위하여 장기간 지속되는 다년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정책개발의 귀중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오니 설문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설문의 내용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며, 응답자의 개인정보는 통계법에 근거하여 철저히 보장되고,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응답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6월

※ 본 조사는 통계법 18조에 근거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승인통계(승인번호 : 402003호)입니다.

학 교 명 | 학교코드

주 소 | 시도 | 시군구 | 읍면동 | 도로명 주소 | 공동주택명 | 호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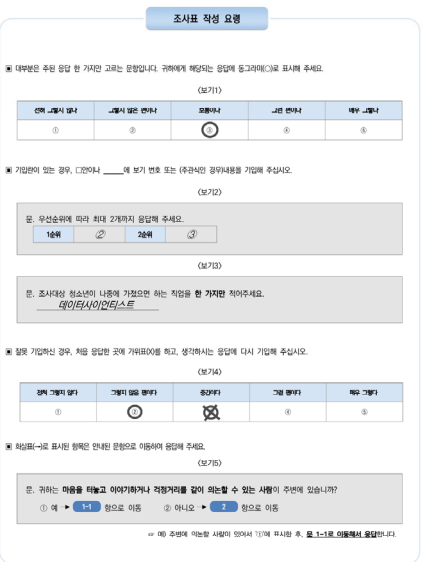
가 구 번 호 | 가구원 번호 | 생 년 년

조 사 주 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실 사 기 관 : Gallup

▮ 조사 관련 문의처 : ㈜한국갤럽조사연구소, MAPS 패널팀, ☎ 080-336-2580(수신자 부담)

조사표 번호 2-5-1



조사표 작성 요령

▣ 대부분은 주된 응답 한 가지만 고르는 문항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응답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주세요.

(보기1)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 기입란이 있는 경우, □안이나 _____에 보기 번호 또는 (주관식인 경우)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2)

문.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 2개까지 응답해 주세요.

1순위	②	2순위	③

(보기3)

문. 조사대상 청소년이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데이터사이언티스트

▣ 잘못 기입하신 경우, 처음 응답한 곳에 가위표(✕)를 하고, 생각하시는 응답에 다시 기입해 주십시오.

(보기4)

정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①	②	✕	④	⑤

▣ 화살표(→)로 표시된 항목은 안내된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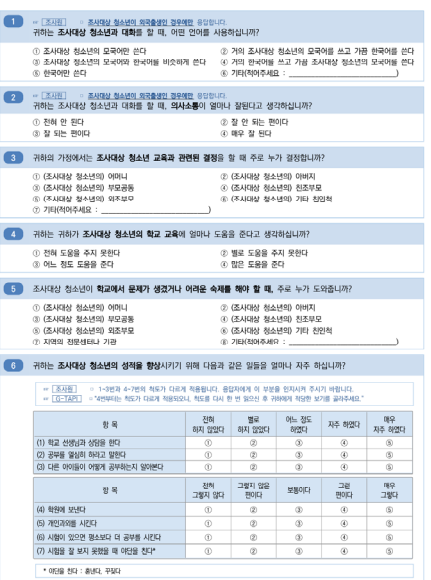
(보기5)

문.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 1-1 항으로 이동 ② 아니오 ▶ 2 항으로 이동

☞ ①번 주변에 의논할 사람이 있어서 '①'에 표시한 후, **문 1-1로 이동해서 응답**합니다.

2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 [조사원] ☞ 조사대상 청소년의 외국출생인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과 대화**를 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① 조사대상 청소년의 모국어만 쓴다 ② 거의 조사대상 청소년의 모국어를 쓰고 가끔 한국어를 쓴다
③ 조사대상 청소년의 모국어와 한국어를 비슷하게 쓴다 ④ 거의 한국어를 쓰고 가끔 조사대상 청소년의 모국어를 쓴다
⑤ 한국어만 쓴다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2 ☞ [조사원] ☞ 조사대상 청소년의 외국출생인 경우에만 응답합니다.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과 대화를 할 때, **의사소통**이 얼마나 잘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안 된다 ② 잘 안 되는 편이다
③ 잘 되는 편이다 ④ 매우 잘 된다

3 귀하의 가정에서는 **조사대상 청소년 교육과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주로 누가 결정합니까?
① (조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 ② (조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
③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공동 ④ (조사대상 청소년의) 친조부모
⑤ (조사대상 청소년의) 외조부모 ⑥ (조사대상 청소년의) 기타 친인척
⑦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4 귀하는 귀하가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 교육**에 얼마나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② 별로 도움을 주지 못한다
③ 어느 정도 도움을 준다 ④ 많은 도움을 준다

5 조사대상 청소년이 **학교에서 문제가 생겼거나 어려운 숙제를 해야 할 때**, 주로 누가 도와줍니까?
① (조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 ② (조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
③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공동 ④ (조사대상 청소년의) 친조부모
⑤ (조사대상 청소년의) 외조부모 ⑥ (조사대상 청소년의) 기타 친인척
⑦ 지역의 전문센터나 기관 ⑧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6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 [조사원] ☞ 1-3번과 4-7번의 척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응답자에게 이 부분을 반드시 주시기 바랍니다.
☞ [CATI] ☞ "4번부터는 척도가 다르게 적용되오니, 척도를 다시 한 번 읽으신 후 귀하에게 적당한 보기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별로 하지 않았다	어느 정도 하였다	자주 하였다	매우 자주 하였다
(1) 학교 선생님과 상담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말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다른 아이들이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4) 학원에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5) 개인과외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6) 시험이 있으면 평소보다 더 공부를 시킨다	①	②	③	④	⑤
(7) 시험을 잘 보지 못했을 때 야단을 친다*	①	②	③	④	⑤

* 야단을 친다 : 혼낸다, 꾸짖다

7 귀하는 **지난 1년간**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항 목	전혀 하지 않았다	1회	2회	3회	4회 이상
(1) 담임교사 면담	①	②	③	④	⑤
(2) 학교교육 설명회 참석	①	②	③	④	⑤
(3) 학부모 교육 참석	①	②	③	④	⑤
(4) 그 외 학교행사 참석(체육대회, 발표회, 학교축제 등)	①	②	③	④	⑤

* 담임교사 면담 : 자녀의 전반적인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담임교사를 만나는 것
* 학교교육 설명회 : 학교 교육과정이나 제도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부모님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설명회
* 학부모 교육 : 학교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정주제에 관하여 제공하는 교육(학교에서, 온라인 등 장소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

8 귀하는 **지난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진로와 관련된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활동이 조사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진로 설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응답해 주십시오.

항 목	참여 또는 경험여부		(참여 또는 경험한 적이 있다면) 진로 설정 도움 여부				
	있다	없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대체적으로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1) 진로 관련 상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진로 관련 특강 및 강연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육과정 및 진학 관련 설명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진로 관련 책/잡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진로 관련 인터넷 자료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외부 출신 학부모로 구성된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한국 학부모 주도 모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만일 조사대상 청소년이 **학교공부 또는 취미활동**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면**, 어디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까?
① 학교 ② 지역의 아동센터 또는 청소년센터
③ 지역의 다문화 관련 센터(예: 다문화가족센터, 다문화청소년 전문 센터) ④ 학원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0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이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중학교 ② 고등학교 ③ 대학교 ④ 대학원 이상

▶ 11 항으로 이동

10-1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이 **한국과 외국 중** 어디에서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십니까?
① 한국 ② 외국 ▶ 11 항으로 이동

10-2 조사대상 청소년이 한국에서 대학교 이상 교육받기를 원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수준**을 원하십니까?
① 전문대로도 충분하다
② 서울이나 지방 상관없이 4년제 대학만 가도 충분하다
③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을 가야 한다
④ 명문대를 가야 한다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1 조사대상 청소년이 나중에 가졌으면 하는 직업을 **한 가지만** 적어주세요.

_____

12 조사대상 청소년은 작년 조사 이후부터 현재까지 다음의 서비스를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조사대상 청소년이 받았던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지원 : 학교나 다른 기관(청소년단체, 종교단체)으로부터 무료 또는 소액을 지불하고 도움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항 목	12-1 지원받은 적 있다	12-1 지원받은 적 없다	12-2 (지원받은 적이 있다면) 도움 정도: 전혀 도움 안 된다	별로 도움 안 된다	보통이다	약간 도움 된다	매우 도움 된다
(1) 한국어교육	①	②	①	②	③	④	⑤
(2) 이중언어교육(한국어+부모 모국어)	①	②	①	②	③	④	⑤
(3) 교과목 학습지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4) 멘토링 프로그램*	①	②	①	②	③	④	⑤
(5) 무료 튜터학습지	①	②	①	②	③	④	⑤
(6) 특기적성 교육(음악, 미술, 체육, 무용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7) 문화체험(한국역사, 한국역사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8) 문화공연관람(뮤지컬, 연극, 영화, 음악회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9) 언어 및 세계탐험(영어캠프, 중국연수, 유럽연수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0) 캠프*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1) 심리적응 프로그램(상담, 심리치료, 집단상담, 대인관계향상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2) 현금지원(장학금, 후원금, 학원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3) 물적 지원(책, 학용품 등 물품 지원)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4) 진로*프로그램(진로상담, 진로체험활동, 진로 캠프 등)	①	②	①	②	③	④	⑤
(15)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①	②	①	②	③	④	⑤

* 멘토링 프로그램 : 고등학생, 대학생, 지역의 어른이 자녀를 양가감으로 만나 공부를 가르쳐주거나 진로와 관련한 대화 등의 활동을 하는 것
* 캠프 : 단체로 1박 이상의 야외활동을 하는 것 (예. 친친 캠프의 경우 (1박)한에 참여)
* 진로 : 일으로 어떻게 공부할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것

13 다음은 조사대상 청소년의 고등학교 진학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조사대상 청소년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 유형(일반고, 특목고, 특성화고, 자율고 등)을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조사대상 청소년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성적(또는 자격)이 필요한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3) 조사대상 청소년이 가고 싶어하는 고등학교의 특성화된 프로그램 정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고등학교 유형별로 교육내용의 차이를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고교학점제가 무엇인지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조사대상 청소년의 진학과 관련해 정보를 수집한다	①	②	③	④	⑤
(7) 조사대상 청소년의 교내외 활동(체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 학생회, 독서활동 등) 참여에 도움을 준다	①	②	③	④	⑤
(8) 조사대상 청소년의 교육과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거나 조사대상 청소년을 전학시킬 의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14 귀하는 조사대상 청소년이 **어떤 방식**으로 교육받기를 원하십니까?

①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
② 일반 한국학교에서 별도의 반을 구성하는 방식
③ 일반 한국학교에서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되, 일정시간만 별도의 반에서 공부하는 방식
④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학력 인정을 해주는 방식
⑤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15 조사대상 청소년은 **지난 1년** 동안 시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시교육비로 월 평균 얼마나 지출하셨는지, 비용이 얼마나 부담되었는지 정도를 아래에 표시해 주세요.

항 목	15-1 참여 여부: 예	15-1 참여 여부: 아니오	15-2 월 평균 비용	15-3 비용 부담 정도: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 편이다	부담되는 편이다	매우 부담된다
(1) 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관련 시교육(학원, 과외, 인터넷 강의 등)	①	②	_____만원	①	②	③	④
(2) 특기적성(음악, 미술, 체육, 컴퓨터 등)관련 시교육*	①	②	_____만원	①	②	③	④

* 시교육 : 학교 밖에서 개인적으로 비용을 들여서 하는 교육

16 귀하가 조사대상 청소년을 키우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입니까? 가장 어려운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주세요.

1순위 [ ] 2순위 [ ] 3순위 [ ]

① 조사대상 청소년이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목이나 학교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것
② 조사대상 청소년의 학교 숙제나 준비물을 잘 챙겨주지 못하는 것
③ 다른 학부모와 대화하거나 정보를 얻기 어려운 것
④ 학교 행사나 학부모 모임에 참여하기 어려운 것
⑤ 내가 바쁘거나 아플 때 조사대상 청소년을 돌봐줄 사람을 찾기 어려운 것
⑥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충분히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
⑦ 조사대상 청소년이 학업, 진학, 진로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
⑧ 조사대상 청소년과의 대화가 부족한 것
⑨ 게임,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조사대상 청소년과의 갈등이 있는 것
⑩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⑪ 어려운 점이 없다

17 다음은 귀하가 조사대상 청소년을 키우는 데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귀하에게 해당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내 행동이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내가 원하는 만큼 자라고 생각 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내 아이가 무엇을 힘들어 하는지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양육자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내 아이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내 아이가 잘못했을 때, 스스로 잘못한 점을 깨닫을 수 있도록 잘 설명한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양육자의 역할을 잘한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양육자 역할에 별로 흥미가 없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좋은 양육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방법을 잘 알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18 귀하는 다문화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19** 항으로 이동

19-1 조사대상 청소년에게 특별지원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게 지원해주면 좋겠다
② 다문화청소년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지원해도 상관없다

19 귀하는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거나 걱정거리를 같이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 **20** 항으로 이동

19-1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_____명

20 다음은 귀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보기의 번호를 골라주세요.

항 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중간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 나는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3) 나는 대체적으로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나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①	②	③	④	⑤
(6) 나는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7)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나는 가끔 나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든다	①	②	③	④	⑤
(9) 나는 때때로 내가 좋은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귀하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① 매우 나쁘다 ② 나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좋은 편이다
⑤ 매우 좋다

22 조사대상 청소년의 부모의 현재 결혼 상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① 결혼 ② 이혼
③ 별거* ④ 사별*
⑤ 동거*

* 별거 : 부부나 한쪽은 식구가 따로 떨어져 사는 상태
* 사별 : 배우자가 죽어서 이별한 상태
* 동거 : 부부가 아닌 남녀가 부부 관계를 가지며 함께해서 사는 상태

23 조사대상 청소년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얼마나 되십니까?
※ 실제 수령액(실수령액) 기준으로 기입해 주십시오.

_____만원

24 조사대상 청소년 가정의 **주요 소득원**은 누구입니까?

① (조사대상 청소년의) 아버지 ② (조사대상 청소년의) 어머니
③ (조사대상 청소년의) 친조부모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주요 소득원 : 주로 돈을 버는 사람

25 조사대상 청소년 가정의 **가정 형편**은 어떻습니까?

① 아주 어렵다 ② 어려운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잘사는 편이다
⑤ 아주 잘 산다

A **연중** 조사대상 청소년과 함께 조사를 진행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언제입니까?

① 1학기중(3월~7월) ② 여름방학(8월)
③ 2학기중(9월~11월) ④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⑤ 특별히 없다

B **주중(월~금)**에 조사대상 청소년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C **주말(토, 일) 또는 공휴일에** 조사대상 청소년과 함께 조사를 진행한다면, 어느 시간이 **가장** 좋으십니까?

① 오전(12시 이전) 시간대
② 이른 오후(12시 이후~3시 이전) 시간대
③ 늦은 오후(3시 이후~6시 이전) 시간대
④ 저녁(6시 이후~9시 이전) 시간대
⑤ 늦은 저녁(9시 이후) 시간대
⑥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⑦ 특별히 없다
⑧ 모름(그 때 그 때 다름)

D 귀하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저희가 조사대상 청소년, 혹은 다른 가구원에게 연락을 해도 괜찮으십니까?

구분	연락 가능 여부		성함	관계	연락처
	가능	불가능			
(1) 조사대상 청소년	①	②		조사대상 청소년	(___)-(____)-(____)
(2) 조사대상 청소년의 형제, 자매	①	②		조사대상 청소년의 (_____)	(___)-(____)-(____)
(3) 그 외 다른 가구원	①	②		(_____)	(___)-(____)-(____)
☞ G-TAPS ※ 다수 형제이 있는 '보기힘'인 경우만 응한 (4) 가구원 외친구, 동료, 지인 등)	①	②		(_____)	(___)-(____)-(____)

E 귀하의 이메일 또는 모바일 메신저 ID를 알려줘 주십시오.
* 사용하지 않으시는 경우, '없음'에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구분	있음	없음
(1) 이메일 주소	□ _____@_____	□
(2) 카카오톡(Kakaotalk)	□ ID(_____)	□
(3) 라인(LINE)	□ ID(_____)	□
(4)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 ID(_____)	□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조사 후 기록표

응답자 정보	성명	
	연락처	① 집 ② 핸드폰 ③ 직장 (_____) - (_____) - (_____)
조사 환경	조사 도구	① TAPI ② PAPI
	조사 방식	① 조사원 면접식 ② 응답자 자기기입식
	조사 장소	① 가정 내 ② 가정 외(장소 :)
	타인 동석 여부	① 혼자 ② 다른 사람과 함께(누구 :)
	조사 일시	2024년 (_____)월 (_____)일 (_____)시 (_____)분 부터 (_____)시 (_____)분 까지 총 (_____)분간 응답
	기타 사항	* 조사 진행 시, 참해 요인이 있었다면 적어 주세요.
조사 후기	응답 성실도	① 매우 불성실 ② 약간 불성실 ③ 보통 ④ 약간 성실 ⑤ 매우 성실
	설문 이해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응답 협조도	① 매우 낮음 ② 약간 낮음 ③ 보통 ④ 약간 높음 ⑤ 매우 높음
	답례품 만족도	① 매우 불만족 ② 약간 불만족 ③ 보통 ④ 약간 만족 ⑤ 매우 만족
	이사 계획 여부	① 있음(계획 시기 : _____년 _____월) ② 없음
	향후 패널 참여 의사	① 있음 ② 없음 ③ 기타(적어주세요 : _____)
	기타 사항	* 가구 특이 사항, 조사 관련 개선사항 등이 있으시면 적어 주세요.

8. 2기 패널 다문화청소년 유형별 비교 분석 결과

부록 Ⅷ-1. 현재 걱정거리: 공부, 성적문제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82 (0.89)		2.80 (0.85)		2.77 (0.93)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2.73 (0.92)	3.781* a<c	2.56 (0.91)	7.176** a<c	2.75 (0.91)	.066
		중소도시[b]	2.83 (0.85)		2.90 (0.75)		2.78 (0.95)	
		읍·면지역[c]	2.92 (0.94)		3.63 (0.52)		2.86 (0.90)	
	학교밖 도움	있음	2.88 (0.89)	2.686**	2.80 (0.88)	-.088	2.73 (0.98)	-.933
		없음	2.75 (0.88)		2.81 (0.80)		2.84 (0.85)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80 (0.89)	1.333	2.91 (0.85)	1.612	2.77 (0.97)	.194
		반반 사용[b]	2.93 (0.91)		2.61 (0.93)		2.83 (0.89)	
		어머니 나라말[c]	2.84 (0.80)		2.67 (0.80)		2.73 (0.91)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81 (0.89)	.814	2.82 (0.90)	.686	2.82 (0.87)	.540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81 (0.91)		2.69 (0.87)		2.69 (1.04)	
		들어봤고, 제도를 앎	2.90 (0.84)		2.95 (0.60)		2.71 (1.01)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79 (0.92)	.755	2.76 (0.90)	.234	2.88 (0.84)	1.239
		2분위[b]	2.86 (0.86)		2.78 (0.87)		2.74 (0.96)	
		3분위[c]	2.82 (0.88)		2.91 (0.80)		2.61 (1.06)	
		4-5분위[d]	2.69 (0.82)		2.75 (0.75)		2.94 (0.77)	
	직능 수준	1직능[a]	2.78 (0.86)	.722	3.08 (0.90)	1.315	2.79 (0.83)	.608
		2직능[b]	2.81 (0.88)		2.73 (0.91)		2.74 (0.95)	
		3~4직능[c]	2.88 (0.92)		2.92 (0.71)		2.90 (0.90)	

*p<.05, **p<.01

부록 Ⅷ-2. 현재 걱정거리: 학교생활문제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09 (0.85)		2.06 (0.88)		2.05 (0.87)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1.98 (0.85)	5.538* a<b	1.77 (0.87)	9.285*** a,b<c a<b	1.86 (0.86)	3.462* a<b
		중소도시[b]	2.15 (0.84)		2.18 (0.81)		2.15 (0.86)	
		읍·면지역[c]	2.08 (0.85)		3.00 (0.76)		2.14 (0.90)	
	학교밖 도움	있음	2.09 (0.86)	.184	1.96 (0.84)	-1.501	2.01 (0.90)	-1.037
		없음	2.08 (0.83)		2.19 (0.93)		2.12 (0.81)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07 (0.84)	1.467	1.97 (0.83)	.464	2.05 (0.87)	.126
		반반 사용[b]	2.16 (0.91)		2.15 (1.03)		2.00 (0.83)	
		어머니 나라말[c]	2.28 (0.79)		2.05 (0.80)		2.07 (0.88)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2.05 (0.85)	2.973	2.03 (0.92)	.144	2.07 (0.82)	.771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16 (0.83)		2.12 (0.89)		2.08 (0.97)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15 (0.88)		2.05 (0.76)		1.86 (0.85)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09 (0.83)	.060	2.17 (1.00)	.885	2.14 (0.87)	.576
		2분위[b]	2.09 (0.87)		1.88 (0.75)		2.01 (0.87)	
		3분위[c]	2.09 (0.84)		2.09 (0.84)		1.96 (0.85)	
		4-5분위[d]	2.03 (0.91)		1.92 (0.67)		2.06 (0.85)	
	직능 수준	1직능[a]	2.08 (0.87)	.643	2.42 (1.08)	1.116	2.00 (0.77)	.117
		2직능[b]	2.10 (0.84)		2.01 (0.77)		2.06 (0.87)	
		3~4직능[c]	2.04 (0.87)		2.11 (1.03)		2.10 (0.90)	

*p<.05, ***p<.001

부록 Ⅷ-3. 현재 걱정거리: 이성친구와의 문제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73 (0.84)		1.61 (0.78)		1.64 (0.82)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1.66 (0.86)	1.867	1.39 (0.70)	3.911* a<b	1.62 (0.78)	.117
		중소도시[b]	1.77 (0.84)		1.79 (0.81)		1.64 (0.85)	
		읍·면지역[c]	1.70 (0.79)		1.80 (0.84)		1.80 (0.84)	
	학교밖 도움	있음	1.73 (0.85)	.079	1.53 (0.75)	-1.346	1.70 (0.83)	1.479
		없음	1.72 (0.82)		1.73 (0.82)		1.52 (0.81)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70 (0.81)	2.045	1.55 (0.69)	.451	1.75 (0.86)	2.935
		반반 사용[b]	1.85 (0.97)		1.71 (0.90)		1.68 (0.86)	
		어머니 나라말[c]	1.86 (0.83)		1.61 (0.78)		1.42 (0.69)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1.74 (0.86)	.589	1.65 (0.77)	.761	1.61 (0.81)	.367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69 (0.82)		1.69 (0.86)		1.71 (0.83)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67 (0.78)		1.42 (0.69)		1.58 (0.88)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71 (0.84)	2.089	1.62 (0.89)	1.075	1.68 (0.85)	.176
		2분위[b]	1.67 (0.80)		1.81 (0.79)		1.63 (0.82)	
		3분위[c]	1.85 (0.90)		1.53 (0.68)		1.58 (0.83)	
		4-5분위[d]	1.87 (0.82)		1.36 (0.50)		1.57 (0.76)	
	직능 수준	1직능[a]	1.70 (0.80)	.154	1.88 (1.25)	.651	1.70 (0.97)	.405
		2직능[b]	1.73 (0.85)		1.58 (0.70)		1.60 (0.77)	
		3~4직능[c]	1.70 (0.83)		1.71 (0.84)		1.73 (0.91)	

*p<.05

부록 Ⅷ-4. 현재 걱정거리: 친구와의 문제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94 (0.90)		1.92 (0.85)		1.95 (0.93)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1.94 (0.95)	.733	1.67 (0.74)	4.563* a<b	1.92 (0.95)	.298
		중소도시[b]	1.96 (0.88)		2.10 (0.91)		1.97 (0.92)	
		읍·면지역[c]	1.88 (0.87)		2.13 (0.64)		1.71 (0.76)	
	학교밖 도움	있음	1.96 (0.93)	1.148	1.78 (0.78)	-2.200*	2.01 (0.93)	1.467
		없음	1.91 (0.86)		2.10 (0.91)		1.84 (0.92)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92 (0.88)	2.183	1.93 (0.89)	.123	2.08 (0.95)	4.384* c<a
		반반 사용[b]	2.03 (0.99)		1.85 (0.80)		1.98 (0.91)	
		어머니 나라말[c]	2.20 (0.91)		1.95 (0.80)		1.67 (0.86)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1.93 (0.91)	.064	1.93 (0.88)	.431	1.95 (0.92)	.325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94 (0.89)		1.95 (0.82)		1.99 (0.94)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96 (0.86)		1.75 (0.79)		1.82 (0.94)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90 (0.85)	1.064	1.97 (0.96)	.799	2.04 (0.94)	1.184
		2분위[b]	1.95 (0.94)		2.03 (0.74)		1.98 (0.98)	
		3분위[c]	2.02 (0.96)		1.76 (0.79)		1.77 (0.85)	
		4-5분위[d]	1.92 (0.81)		1.75 (0.62)		1.81 (0.75)	
	직능 수준	1직능[a]	1.87 (0.84)	.478	2.33 (0.98)	1.739	2.00 (0.94)	.056
		2직능[b]	1.95 (0.90)		1.86 (0.79)		1.94 (0.91)	
		3~4직능[c]	1.95 (0.91)		2.00 (0.90)		1.96 (1.00)	

*p<.05

부록 Ⅷ-5. 현재 걱정거리: 가정의 경제적 형편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13 (0.88)		2.07 (0.87)		2.02 (0.91)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2.08 (0.91)	1.118	1.91 (0.85)	1.553	1.88 (0.89)	1.821
		중소도시[b]	2.14 (0.85)		2.18 (0.89)		2.08 (0.92)	
		읍·면지역[c]	2.18 (0.89)		2.13 (0.64)		2.29 (0.49)	
	학교밖 도움	있음	2.13 (0.89)	.222	2.04 (0.90)	-.435	2.02 (0.91)	.124
		없음	2.12 (0.86)		2.10 (0.83)		2.01 (0.90)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14 (0.87)	1.698	2.00 (0.85)	.482	2.12 (0.93)	3.039* c<a
		반반 사용[b]	2.01 (0.89)		2.18 (0.95)		2.02 (0.80)	
		어머니 나라말[c]	2.04 (0.89)		2.05 (0.80)		1.79 (0.90)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2.14 (0.88)	.459	2.15 (0.90)	1.281	2.03 (0.92)	.066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09 (0.87)		2.05 (0.79)		2.01 (0.88)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14 (0.88)		1.80 (0.89)		1.96 (0.96)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26 (0.89)	11.612*** b,c,d<a	2.12 (0.83)	.604	2.23 (1.00)	3.267* c<a
		2분위[b]	2.02 (0.84)		2.09 (0.93)		1.96 (0.79)	
		3분위[c]	1.96 (0.82)		2.06 (0.93)		1.79 (0.82)	
		4-5분위[d]	1.83 (0.94)		1.75 (0.75)		1.94 (1.06)	
	직능 수준	1직능[a]	2.39 (0.88)	8.365*** b,c<a	2.42 (1.08)	3.143*	2.07 (0.90)	.104
		2직능[b]	2.12 (0.86)		2.14 (0.90)		2.03 (0.89)	
		3~4직능[c]	2.01 (0.89)		1.79 (0.74)		1.98 (0.99)	

*p<.05, ***p<.001

부록 Ⅷ-6. 현재 걱정거리: 부모님 사이의 불화(부부싸움 등)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87 (0.90)		1.72 (0.85)		1.62 (0.78)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1.79 (0.91)	2.384	1.55 (0.85)	1.814	1.58 (0.76)	.204
		중소도시[b]	1.89 (0.90)		1.83 (0.83)		1.64 (0.81)	
		읍·면지역[c]	1.93 (0.91)		1.88 (0.83)		1.71 (0.49)	
	학교밖 도움	있음	1.88 (0.92)	.698	1.62 (0.80)	-1.486	1.61 (0.76)	-.217
		없음	1.85 (0.89)		1.84 (0.90)		1.64 (0.84)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86 (0.90)	.298	1.78 (0.86)	.048	1.72 (0.83)	6.336** c<a,b
		반반 사용[b]	1.85 (0.94)		1.73 (0.94)		1.73 (0.76)	
		어머니 나라말[c]	2.00 (0.82)		1.76 (0.77)		1.33 (0.64)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1.89 (0.92)	1.814	1.79 (0.82)	.813	1.58 (0.76)	.752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83 (0.85)		1.65 (0.89)		1.72 (0.85)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76 (0.91)		1.55 (0.89)		1.58 (0.76)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90 (0.91)	1.303	1.75 (0.89)	.678	1.66 (0.87)	1.025
		2분위[b]	1.82 (0.87)		1.78 (0.79)		1.66 (0.77)	
		3분위[c]	1.86 (0.95)		1.53 (0.76)		1.46 (0.69)	
		4-5분위[d]	1.67 (0.89)		1.83 (1.03)		1.75 (0.68)	
	직능 수준	1직능[a]	1.96 (0.89)	1.129	1.64 (0.81)	.983	1.54 (0.71)	.941
		2직능[b]	1.87 (0.89)		1.82 (0.84)		1.67 (0.80)	
		3~4직능[c]	1.82 (0.96)		1.59 (0.90)		1.52 (0.79)	

**$p<.01$

부록 Ⅷ-7. 현재 걱정거리: 아버지와 나와의 갈등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72 (0.83)		1.68 (0.84)		1.59 (0.77)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1.66 (0.80)	1.664	1.50 (0.79)	2.492	1.59 (0.77)	.583
		중소도시[b]	1.75 (0.83)		1.79 (0.87)		1.61 (0.78)	
		읍·면지역[c]	1.72 (0.84)		2.00 (0.76)		1.29 (0.49)	
	학교밖 도움	있음	1.73 (0.86)	.790	1.62 (0.81)	-.895	1.59 (0.73)	-.153
		없음	1.70 (0.79)		1.75 (0.87)		1.60 (0.84)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71 (0.82)	.394	1.65 (0.80)	.639	1.66 (0.83)	2.644
		반반 사용[b]	1.77 (0.87)		1.85 (0.94)		1.66 (0.72)	
		어머니 나라말[c]	1.76 (0.72)		1.71 (0.78)		1.41 (0.70)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1.73 (0.83)	.267	1.75 (0.85)	.762	1.56 (0.74)	.781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71 (0.81)		1.65 (0.83)		1.69 (0.84)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68 (0.85)		1.50 (0.83)		1.54 (0.76)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72 (0.81)	.440	1.67 (0.83)	1.405	1.56 (0.84)	.627
		2분위[b]	1.69 (0.82)		1.88 (0.87)		1.68 (0.77)	
		3분위[c]	1.75 (0.87)		1.47 (0.67)		1.54 (0.74)	
		4-5분위[d]	1.61 (0.84)		1.83 (1.11)		1.50 (0.52)	
	직능 수준	1직능[a]	1.70 (0.84)	.801	1.64 (0.92)	.873	1.50 (0.65)	.879
		2직능[b]	1.74 (0.82)		1.78 (0.86)		1.64 (0.78)	
		3~4직능[c]	1.67 (0.84)		1.57 (0.80)		1.50 (0.81)	

부록 Ⅷ-8. 현재 걱정거리: 어머니와 나와의 갈등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72 (0.81)		1.71 (0.84)		1.68 (0.82)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1.68 (0.82)	1.368	1.51 (0.76)	2.813	1.68 (0.81)	.324
		중소도시[b]	1.75 (0.81)		1.85 (0.88)		1.68 (0.84)	
		읍·면지역[c]	1.67 (0.79)		1.88 (0.83)		1.43 (0.53)	
	학교밖 도움	있음	1.73 (0.85)	.986	1.67 (0.87)	-.601	1.68 (0.81)	.238
		없음	1.69 (0.76)		1.76 (0.80)		1.66 (0.84)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69 (0.79)	3.047*	1.72 (0.83)	.520	1.80 (0.84)	4.141* c<a
		반반 사용[b]	1.84 (0.89)		1.85 (0.94)		1.65 (0.74)	
		어머니 나라말[c]	1.88 (0.83)		1.62 (0.67)		1.45 (0.80)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1.72 (0.81)	.153	1.80 (0.86)	.889	1.61 (0.81)	1.340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70 (0.78)		1.64 (0.82)		1.76 (0.87)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74 (0.87)		1.55 (0.83)		1.82 (0.77)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74 (0.81)	1.078	1.75 (0.88)	.864	1.76 (0.90)	1.131
		2분위[b]	1.67 (0.80)		1.81 (0.82)		1.71 (0.84)	
		3분위[c]	1.74 (0.85)		1.52 (0.67)		1.54 (0.71)	
		4-5분위[d]	1.58 (0.81)		1.83 (1.11)		1.50 (0.52)	
	직능 수준	1직능[a]	1.72 (0.79)	.957	2.08 (1.08)	1.294	1.54 (0.64)	.495
		2직능[b]	1.73 (0.81)		1.73 (0.81)		1.70 (0.83)	
		3~4직능[c]	1.65 (0.81)		1.63 (0.85)		1.69 (0.88)	

*p<.05

부록 Ⅷ-9. 현재 걱정거리: 형제·자매와의 갈등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53 (0.74)		1.59 (0.80)		1.47 (0.74)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1.46 (0.73)	3.047* a<b	1.42 (0.66)	2.936	1.44 (0.79)	.193
		중소도시[b]	1.57 (0.73)		1.65 (0.83)		1.49 (0.73)	
		읍·면지역[c]	1.56 (0.75)		2.14 (1.07)		1.33 (0.52)	
	학교밖 도움	있음	1.55 (0.76)	1.105	1.47 (0.76)	-1.872	1.49 (0.74)	.508
		없음	1.51 (0.71)		1.76 (0.82)		1.43 (0.74)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53 (0.72)	.742	1.56 (0.70)	1.177	1.52 (0.78)	1.322
		반반 사용[b]	1.58 (0.80)		1.81 (1.02)		1.53 (0.71)	
		어머니 나라말[c]	1.67 (0.87)		1.47 (0.52)		1.33 (0.68)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1.52 (0.72)	.273	1.51 (0.72)	.637	1.42 (0.67)	.583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55 (0.77)		1.69 (0.86)		1.55 (0.84)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55 (0.76)		1.69 (0.95)		1.48 (0.81)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53 (0.73)	.743	1.69 (0.95)	.358	1.54 (0.85)	.586
		2분위[b]	1.50 (0.74)		1.52 (0.65)		1.47 (0.70)	
		3분위[c]	1.59 (0.76)		1.54 (0.58)		1.35 (0.68)	
		4-5분위[d]	1.56 (0.77)		1.50 (0.97)		1.40 (0.51)	
	직능 수준	1직능[a]	1.54 (0.73)	.054	2.11 (1.36)	2.292	1.29 (0.56)	1.252
		2직능[b]	1.54 (0.74)		1.51 (0.63)		1.47 (0.73)	
		3~4직능[c]	1.52 (0.76)		1.66 (0.87)		1.60 (0.87)	

*p<.05

부록 Ⅷ-10. 현재 걱정거리: 나의 성격 문제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98 (0.89)		1.93 (0.89)		1.96 (0.90)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1.89 (0.89)	3.839* a<c	1.84 (0.92)	.832	1.88 (0.91)	.624
		중소도시[b]	2.01 (0.89)		1.96 (0.88)		1.99 (0.90)	
		읍·면지역[c]	2.06 (0.90)		2.25 (0.71)		2.14 (0.69)	
	학교밖 도움	있음	1.99 (0.91)	.570	1.78 (0.83)	-2.218*	1.98 (0.89)	.402
		없음	1.97 (0.87)		2.12 (0.94)		1.93 (0.91)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96 (0.88)	2.294	1.90 (0.89)	.465	2.06 (0.87)	3.898* c<a
		반반 사용[b]	2.09 (0.97)		1.88 (0.82)		2.03 (0.90)	
		어머니 나라말[c]	2.20 (0.87)		2.10 (1.00)		1.70 (0.90)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1.96 (0.90)	.963	1.84 (0.92)	.684	1.96 (0.93)	.087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03 (0.88)		2.02 (0.72)		1.97 (0.87)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01 (0.90)		2.00 (1.08)		1.89 (0.83)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99 (0.87)	.297	1.98 (0.96)	.701	2.07 (0.92)	1.375
		2분위[b]	1.99 (0.92)		2.00 (0.76)		1.96 (0.89)	
		3분위[c]	1.94 (0.89)		1.73 (0.91)		1.77 (0.87)	
		4-5분위[d]	1.89 (0.92)		1.92 (0.79)		1.94 (0.85)	
	직능 수준	1직능[a]	1.96 (0.80)	.084	2.17 (1.11)	2.293	1.68 (0.86)	1.752
		2직능[b]	1.99 (0.90)		1.80 (0.72)		1.98 (0.90)	
		3~4직능[c]	1.97 (0.91)		2.13 (1.09)		2.06 (0.90)	

*p<.05

부록 Ⅷ-11. 현재 걱정거리: 나의 외모 문제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99 (0.88)		1.99 (0.89)		1.96 (0.95)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1.99 (0.93)	.035	1.88 (0.91)	.739	1.93 (0.96)	2.285
		중소도시[b]	1.98 (0.85)		2.07 (0.89)		1.95 (0.93)	
		읍·면지역[c]	2.00 (0.88)		2.00 (0.76)		2.71 (1.11)	
	학교밖 도움	있음	1.98 (0.90)	-.439	1.86 (0.86)	-1.930	2.00 (0.96)	.831
		없음	2.00 (0.86)		2.16 (0.91)		1.90 (0.93)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98 (0.88)	.535	1.91 (0.83)	.862	2.15 (0.98)	5.547** c<a
		반반 사용[b]	2.04 (0.93)		2.00 (0.90)		1.85 (0.85)	
		어머니 나라말[c]	2.08 (0.70)		2.19 (0.87)		1.72 (0.92)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1.97 (0.89)	.402	1.96 (0.93)	.130	1.92 (0.94)	.814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02 (0.88)		2.05 (0.82)		2.08 (0.97)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00 (0.88)		2.00 (0.92)		1.89 (0.96)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00 (0.87)	.206	2.02 (0.96)	.823	2.00 (0.96)	1.720
		2분위[b]	1.99 (0.89)		2.16 (0.77)		1.96 (0.90)	
		3분위[c]	1.95 (0.89)		1.82 (0.85)		1.79 (0.97)	
		4-5분위[d]	2.00 (0.89)		1.92 (1.00)		2.38 (1.02)	
	직능 수준	1직능[a]	2.01 (0.85)	.469	2.33 (1.07)	1.177	1.93 (0.98)	.246
		2직능[b]	2.00 (0.89)		1.93 (0.79)		2.00 (0.94)	
		3~4직능[c]	1.94 (0.88)		2.03 (0.97)		1.90 (0.98)	

**p<.01

부록 Ⅷ-12. 현재 걱정거리: 나의 건강 문제(신체적, 정신적)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88 (0.88)		1.89 (0.85)		1.86 (0.86)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1.80 (0.89)	3.053* a<b	1.68 (0.76)	3.220* -	1.77 (0.81)	1.086
		중소도시[b]	1.93 (0.86)		2.01 (0.90)		1.90 (0.88)	
		읍·면지역[c]	1.86 (0.89)		2.25 (0.89)		2.14 (0.69)	
	학교밖 도움	있음	1.89 (0.90)	.503	1.72 (0.78)	-2.766**	1.86 (0.85)	-.087
		없음	1.87 (0.85)		2.12 (0.90)		1.87 (0.86)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86 (0.86)	2.591	1.85 (0.82)	.688	1.87 (0.80)	4.103* c<b
		반반 사용[b]	2.02 (1.00)		1.88 (0.93)		2.06 (0.90)	
		어머니 나라말[c]	2.00 (0.96)		2.10 (0.77)		1.64 (0.87)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1.88 (0.88)	.063	1.92 (0.84)	.346	1.76 (0.82)	3.302* a<b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86 (0.86)		1.93 (0.87)		2.05 (0.88)	
		들어봤고, 제도를 앎[c]	1.88 (0.91)		1.75 (0.91)		1.96 (0.92)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90 (0.87)	.778	2.00 (0.93)	1.619	1.98 (0.88)	1.143
		2분위[b]	1.84 (0.87)		2.00 (0.84)		1.82 (0.85)	
		3분위[c]	1.90 (0.89)		1.76 (0.75)		1.73 (0.84)	
		4-5분위[d]	1.72 (0.85)		1.50 (0.67)		1.94 (0.77)	
	직능 수준	1직능[a]	1.95 (0.83)	2.569	2.17 (1.11)	1.040	1.82 (0.72)	1.386
		2직능[b]	1.89 (0.89)		1.83 (0.79)		1.84 (0.85)	
		3~4직능[c]	1.77 (0.82)		1.97 (0.88)		2.06 (0.93)	

*p<.05, **p<.01

부록 Ⅷ-13. 현재 걱정거리: 진학, 진로 문제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63 (0.94)		2.74 (0.93)		2.58 (0.96)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2.49 (1.02)	7.010** a<b,c	2.44 (0.98)	5.325** a<b	2.49 (0.99)	.898
		중소도시[b]	2.67 (0.88)		2.94 (0.87)		2.63 (0.94)	
		읍·면지역[c]	2.74 (0.97)		3.00 (0.53)		2.86 (0.90)	
	학교밖 도움	있음	2.68 (0.94)	2.414*	2.76 (0.92)	.325	2.57 (1.01)	-.345
		없음	2.56 (0.95)		2.71 (0.96)		2.61 (0.86)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61 (0.95)	2.013	2.78 (0.92)	1.883	2.66 (0.97)	1.420
		반반 사용[b]	2.74 (0.90)		2.45 (1.00)		2.58 (0.92)	
		어머니 나라말[c]	2.84 (0.85)		2.90 (0.83)		2.42 (0.96)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2.59 (0.96)	1.668	2.78 (0.97)	1.273	2.51 (0.95)	1.881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69 (0.89)		2.57 (0.94)		2.65 (0.95)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68 (0.95)		2.95 (0.76)		2.86 (1.01)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60 (0.95)	.759	2.51 (0.97)	2.400	2.70 (0.96)	1.930
		2분위[b]	2.67 (0.93)		2.88 (0.98)		2.55 (0.95)	
		3분위[c]	2.62 (0.95)		2.91 (0.84)		2.38 (0.98)	
		4-5분위[d]	2.50 (0.91)		3.08 (0.67)		2.88 (0.81)	
	직능 수준	1직능[a]	2.63 (0.90)	.027	2.83 (1.19)	.141	2.46 (0.96)	.376
		2직능[b]	2.63 (0.95)		2.71 (0.98)		2.62 (0.94)	
		3~4직능[c]	2.64 (0.94)		2.79 (0.78)		2.65 (0.96)	

*p<.05, **p<.01

부록 Ⅷ-14. 현재 걱정거리: 미래에 대한 불안감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26 (0.96)		2.32 (1.02)		2.20 (1.03)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2.13 (0.99)	5.723** a<b,c	1.98 (0.97)	5.916** a<b	2.11 (1.05)	.556
		중소도시[b]	2.29 (0.94)		2.54 (1.01)		2.25 (1.03)	
		읍·면지역[c]	2.36 (0.97)		2.75 (0.89)		2.29 (0.76)	
	학교밖 도움	있음	2.28 (1.00)	.929	2.27 (1.09)	-.759	2.24 (1.06)	.737
		없음	2.23 (0.92)		2.40 (0.92)		2.14 (0.98)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25 (0.96)	1.152	2.33 (0.99)	.880	2.28 (1.05)	1.314
		반반 사용[b]	2.37 (1.02)		2.09 (1.01)		2.20 (1.00)	
		어머니 나라말[c]	2.24 (0.97)		2.43 (1.08)		2.03 (1.01)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24 (0.97)	.411	2.36 (1.03)	1.124	2.16 (1.02)	.431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27 (0.95)		2.38 (0.99)		2.29 (1.05)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31 (0.97)		2.00 (1.08)		2.18 (1.06)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24 (0.96)	.231	2.22 (1.07)	.408	2.23 (1.01)	.379
		2분위[b]	2.28 (0.99)		2.47 (0.95)		2.24 (1.03)	
		3분위[c]	2.24 (0.96)		2.33 (1.02)		2.07 (1.06)	
		4-5분위[d]	2.33 (0.79)		2.33 (1.07)		2.19 (1.11)	
	직능 수준	1직능[a]	2.26 (1.00)	.434	2.58 (1.31)	.551	2.21 (1.07)	.065
		2직능[b]	2.27 (0.96)		2.28 (1.01)		2.22 (1.02)	
		3~4직능[c]	2.21 (0.97)		2.39 (0.97)		2.16 (1.08)	

**$p<.01$

부록 Ⅷ-15.. 현재 걱정거리: 비자/체류 문제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1.83 (0.79)		1.67 (0.78)	
지역	지역규모	대도시[a]			1.33 (0.58)	.707	1.59 (0.85)	.593
		중소도시[b]			1.93 (0.83)		1.72 (0.74)	
		읍·면지역[c]			2.00 -		1.75 (0.50)	
	학교밖 도움	있음			1.45 (0.52)	-3.175**	1.63 (0.76)	-.855
		없음			2.43 (0.79)		1.74 (0.80)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1.50 (0.55)	.641	1.69 (0.81)	2.019
		반반 사용[b]			2.00 (0.00)		1.48 (0.59)	
		어머니 나라말[c]			2.00 (1.07)		1.79 (0.84)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1.70 (0.67)	.848	1.65 (0.72)	.155
		들어봤지만, 잘 모름[b]			1.83 (0.41)		1.72 (0.88)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50 (2.12)		1.68 (0.84)	
사회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1.57 (0.53)	1.608	1.75 (0.89)	.784
		2분위[b]			1.67 (0.58)		1.69 (0.71)	
		3분위[c]			2.29 (0.95)		1.52 (0.66)	
		4-5분위[d]			1.00 -		1.75 (0.89)	
	직능 수준	1직능[a]			0 -	.299	1.42 (0.51)	1.176
		2직능[b]			1.77 (0.60)		1.71 (0.78)	
		3~4직능[c]			2.00 (1.22)		1.66 (0.90)	

**$p<.01$

부록 Ⅷ-16. 진로준비역량: 낙관성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3.09 (0.55)		3.06 (0.57)		3.04 (0.59)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3.06 (0.53)	2.864	3.11 (0.65)	.739	3.14 (0.60)	1.923
		중소도시[b]	3.09 (0.54)		3.03 (0.53)		3.00 (0.59)	
		읍·면지역[c]	3.16 (0.61)		2.88 (0.35)		2.86 (0.56)	
	학교밖 도움	있음	3.15 (0.54)	4.160***	3.12 (0.57)	1.483	3.16 (0.56)	4.386***
		없음	3.03 (0.56)		2.97 (0.57)		2.85 (0.59)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3.09 (0.55)	.004	3.01 (0.61)	.518	3.06 (0.61)	.134
		반반 사용[b]	3.09 (0.54)		3.14 (0.52)		3.04 (0.47)	
		어머니 나라말[c]	3.08 (0.51)		3.05 (0.65)		3.01 (0.66)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3.07 (0.54)	4.069* a<c	2.96 (0.57)	2.590	2.94 (0.57)	6.900** a<b
		들어봤지만, 잘 모름[b]	3.11 (0.58)		3.15 (0.49)		3.22 (0.63)	
		들어봤고, 제도를 앎[c]	3.20 (0.54)		3.23 (0.72)		3.18 (0.49)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3.08 (0.55)	1.222	3.02 (0.62)	1.169	3.00 (0.60)	.291
		2분위[b]	3.10 (0.55)		3.00 (0.70)		3.06 (0.63)	
		3분위[c]	3.13 (0.57)		3.09 (0.34)		3.08 (0.53)	
		4-5분위[d]	3.22 (0.58)		3.33 (0.49)		3.09 (0.55)	
	직능 수준	1직능[a]	3.12 (0.52)	.287	2.67 (0.49)	3.161* a<b	3.14 (0.51)	1.456
		2직능[b]	3.09 (0.55)		3.11 (0.51)		2.99 (0.57)	
		3~4직능[c]	3.10 (0.59)		3.07 (0.71)		3.12 (0.63)	

*p<.05, **p<.01, ***p<.001

부록 Ⅷ-17. 진로준비역량: 지속성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86 (0.65)		2.86 (0.65)		2.95 (0.65)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2.88 (0.63)	.269	2.90 (0.76)	.266	3.03 (0.65)	1.111
		중소도시[b]	2.85 (0.63)		2.82 (0.59)		2.92 (0.64)	
		읍·면지역[c]	2.86 (0.72)		2.88 (0.23)		2.79 (0.81)	
	학교밖 도움	있음	2.96 (0.61)	6.287***	2.93 (0.68)	1.536	3.04 (0.62)	2.996**
		없음	2.74 (0.67)		2.76 (0.59)		2.80 (0.67)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85 (0.64)	.947	2.83 (0.67)	.323	2.94 (0.66)	.061
		반반 사용[b]	2.92 (0.65)		2.92 (0.67)		2.98 (0.61)	
		어머니 나라말[c]	2.86 (0.74)		2.79 (0.73)		2.95 (0.68)	
	자유학기(년) 제 인지	모름[a]	2.84 (0.65)	1.818	2.78 (0.70)	1.237	2.86 (0.63)	4.718* a<c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89 (0.65)		2.96 (0.57)		3.07 (0.67)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93 (0.64)		2.93 (0.63)		3.18 (0.60)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86 (0.61)	1.734	2.83 (0.67)	1.159	2.92 (0.58)	.619
		2분위[b]	2.84 (0.67)		2.77 (0.80)		2.92 (0.68)	
		3분위[c]	2.87 (0.72)		2.88 (0.43)		3.05 (0.64)	
		4-5분위[d]	3.10 (0.44)		3.17 (0.62)		2.97 (0.81)	
	직능 수준	1직능[a]	2.91 (0.63)	.383	2.75 (0.69)	.184	2.98 (0.67)	1.831
		2직능[b]	2.85 (0.65)		2.88 (0.64)		2.90 (0.61)	
		3~4직능[c]	2.86 (0.66)		2.86 (0.72)		3.09 (0.72)	

*p<.05, **p<.01, ***p<.001

부록 Ⅷ-18. 진로준비역량: 호기심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83 (0.64)		2.73 (0.69)		2.87 (0.66)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2.82 (0.63)	.077	2.80 (0.73)	.751	3.06 (0.60)	6.350** b<a
		중소도시[b]	2.82 (0.64)		2.71 (0.68)		2.76 (0.68)	
		읍·면지역[c]	2.84 (0.66)		2.50 (0.46)		2.79 (0.49)	
	학교밖 도움	있음	2.90 (0.63)	4.867***	2.77 (0.75)	.636	3.02 (0.61)	4.940***
		없음	2.74 (0.64)		2.69 (0.61)		2.62 (0.67)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81 (0.64)	1.937	2.66 (0.78)	.372	2.86 (0.71)	.092
		반반 사용[b]	2.91 (0.63)		2.77 (0.61)		2.88 (0.56)	
		어머니 나라말[c]	2.90 (0.65)		2.79 (0.70)		2.84 (0.63)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82 (0.64)	.717	2.71 (0.70)	.623	2.72 (0.63)	10.689*** a<b,c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81 (0.65)		2.82 (0.65)		3.10 (0.67)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88 (0.63)		2.63 (0.78)		3.07 (0.60)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80 (0.64)	2.514	2.67 (0.68)	.328	2.82 (0.66)	1.650
		2분위[b]	2.81 (0.64)		2.78 (0.77)		2.83 (0.68)	
		3분위[c]	2.89 (0.64)		2.80 (0.65)		3.04 (0.62)	
		4-5분위[d]	3.04 (0.55)		2.71 (0.72)		2.75 (0.58)	
	직능 수준	1직능[a]	2.79 (0.66)	.253	2.79 (0.66)	.104	2.84 (0.51)	1.550
		2직능[b]	2.82 (0.64)		2.71 (0.63)		2.83 (0.67)	
		3~4직능[c]	2.84 (0.64)		2.75 (0.86)		3.01 (0.67)	

**p<.01, ***p<.001

부록 Ⅷ-19. 진로준비역량: 유연성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79 (0.64)		2.78 (0.68)		2.79 (0.65)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2.85 (0.65)	2.537	2.89 (0.77)	1.107	2.98 (0.65)	5.959** b<a
		중소도시[b]	2.77 (0.62)		2.71 (0.63)		2.70 (0.62)	
		읍·면지역[c]	2.77 (0.66)		2.75 (0.27)		2.64 (0.63)	
	학교밖 도움	있음	2.88 (0.61)	5.453***	2.86 (0.69)	1.542	2.89 (0.62)	3.181**
		없음	2.69 (0.66)		2.68 (0.65)		2.64 (0.65)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79 (0.63)	.687	2.79 (0.70)	1.446	2.80 (0.68)	.116
		반반 사용[b]	2.75 (0.69)		2.89 (0.60)		2.76 (0.63)	
		어머니 나라말[c]	2.90 (0.60)		2.57 (0.75)		2.81 (0.59)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79 (0.64)	2.223	2.72 (0.75)	.968	2.73 (0.66)	2.445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76 (0.64)		2.85 (0.58)		2.91 (0.60)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89 (0.64)		2.93 (0.61)		2.88 (0.66)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77 (0.63)	1.804	2.79 (0.74)	.076	2.76 (0.72)	.190
		2분위[b]	2.80 (0.63)		2.78 (0.75)		2.82 (0.60)	
		3분위[c]	2.81 (0.69)		2.82 (0.53)		2.81 (0.60)	
		4-5분위[d]	3.01 (0.65)		2.71 (0.58)		2.75 (0.66)	
	직능 수준	1직능[a]	2.82 (0.67)	.206	2.92 (0.60)	.369	2.80 (0.53)	.093
		2직능[b]	2.78 (0.63)		2.78 (0.61)		2.77 (0.64)	
		3~4직능[c]	2.80 (0.67)		2.72 (0.84)		2.81 (0.69)	

**p<.01, ***p<.001

부록 Ⅷ-20. 진로준비역량: 도전성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2.85 (0.66)		2.86 (0.60)		2.90 (0.66)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2.83 (0.67)	1.656	2.89 (0.65)	.090	3.04 (0.67)	3.461* b<a
		중소도시[b]	2.83 (0.64)		2.85 (0.59)		2.83 (0.66)	
		읍·면지역[c]	2.91 (0.72)		2.81 (0.26)		2.71 (0.57)	
	학교밖 도움	있음	2.90 (0.64)	3.137**	2.89 (0.61)	.707	3.00 (0.61)	2.989**
		없음	2.79 (0.69)		2.82 (0.59)		2.74 (0.72)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83 (0.67)	1.257	2.85 (0.63)	.433	2.92 (0.71)	.439
		반반 사용[b]	2.92 (0.68)		2.85 (0.52)		2.83 (0.53)	
		어머니 나라말[c]	2.90 (0.56)		2.71 (0.66)		2.90 (0.68)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83 (0.67)	1.869	2.74 (0.60)	3.200* –	2.81 (0.66)	4.919** a<c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83 (0.66)		2.99 (0.52)		3.01 (0.64)	
		들어봤고, 제도를 앎[c]	2.94 (0.65)		3.03 (0.68)		3.16 (0.65)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85 (0.65)	.743	2.89 (0.60)	.339	2.89 (0.68)	.222
		2분위[b]	2.83 (0.64)		2.91 (0.63)		2.89 (0.67)	
		3분위[c]	2.83 (0.74)		2.80 (0.56)		2.89 (0.59)	
		4-5분위[d]	3.00 (0.57)		2.75 (0.72)		3.03 (0.78)	
	직능 수준	1직능[a]	2.84 (0.66)	.085	2.92 (0.51)	.445	2.95 (0.58)	1.319
		2직능[b]	2.84 (0.66)		2.88 (0.53)		2.85 (0.66)	
		3~4직능[c]	2.86 (0.68)		2.78 (0.79)		3.01 (0.67)	

*p<.05, **p<.01

부록 Ⅷ-21. 진로준비역량: 의사소통

구분			국제결혼		중도입국		외국인	
			M(SD)	*t/F*	M(SD)	*t/F*	M(SD)	*t/F*
전체			3.00 (0.55)		2.97 (0.54)		3.04 (0.55)	
지역	지역 규모	대도시[a]	3.03 (0.54)	1.301	3.01 (0.55)	1.252	3.14 (0.57)	2.283
		중소도시[b]	2.98 (0.55)		2.98 (0.53)		2.99 (0.54)	
		읍·면지역[c]	3.01 (0.58)		2.69 (0.46)		3.14 (0.24)	
	학교밖 도움	있음	3.07 (0.52)	5.319***	3.08 (0.49)	2.622*	3.14 (0.55)	3.617***
		없음	2.91 (0.58)		2.84 (0.57)		2.89 (0.52)	
부모	외국인 어머니와 의사소통	한국어[a]	2.99 (0.55)	.694	3.01 (0.61)	.459	3.01 (0.55)	.522
		반반 사용[b]	3.02 (0.60)		2.97 (0.50)		3.08 (0.55)	
		어머니 나라말[c]	3.10 (0.48)		2.88 (0.50)		3.07 (0.56)	
	자유학기(년)제 인지	모름[a]	2.98 (0.54)	4.329* a<c	2.94 (0.58)	2.592	2.98 (0.53)	2.686
		들어봤지만, 잘 모름[b]	2.99 (0.58)		2.92 (0.45)		3.16 (0.59)	
		들어봤고, 제도를 앎[c]	3.12 (0.56)		3.23 (0.53)		3.07 (0.50)	
사회 경제	월평균 가구 소득	1분위[a]	2.97 (0.53)	2.771*	2.86 (0.58)	1.863	3.04 (0.57)	.264
		2분위[b]	3.01 (0.56)		3.09 (0.55)		3.02 (0.53)	
		3분위[c]	3.04 (0.61)		3.02 (0.42)		3.09 (0.54)	
		4-5분위[d]	3.21 (0.50)		3.13 (0.57)		3.09 (0.58)	
	직능 수준	1직능[a]	3.01 (0.58)	1.412	2.92 (0.51)	.088	3.14 (0.45)	4.018* a<c
		2직능[b]	2.99 (0.54)		2.99 (0.58)		2.98 (0.56)	
		3~4직능[c]	3.05 (0.61)		2.99 (0.51)		3.21 (0.49)	

*p<.05, **p<.01

▣ 다문화청소년 패널 활용논문 리스트[27)]

1) 학위논문

(1) 박사학위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강유선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궤적과 발달산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강해순	2023	잠재 혼합된 다문화 특성 유형에 따른 초국적 이주자 자녀의 진로 요소 차이와 가지 경로 분석	경상국립대학교
고경란	2023	부모의 양육태도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명대학원대학교
곽은정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에 따른 잠재집단분류: 영향요인 탐색 및 집단에 따른 진로결정성 차이	성결대학교
김관숙	2022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 사회적 위축과 다문화수용성 매개효과 및 생활환경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김서정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적응특성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김수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전북대학교
김영성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진로장벽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칼빈대학교
김정랑	2021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진로 장벽이 진로 준비성과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평택대학교
김평화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김효선	2020	어머니의 한국어능력 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박경미	2019	Child well-being in Korea	KDI 대학원
박길순	2024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신체적 ·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천대학교
박동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 우울의 종단적 분석: 성장혼합모형과 인과적 전이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순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27) 패널 활용 보고서 리스트는 이전 보고서(양계민 외, 2022 등)에서 2024년 8월 말 기준 결과물을 업데이트함.

이름	연도	제목	학교
박지나	2024	아시아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부모효능감 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녀교육관련활동의 구조관계연구 : 국적과 거주지의 다중집단분석을 활용한 조절효과	동아대학교
박지수	2020	Challenges and adjustment of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성균관대학교
박혜경	2022	다문화 청소년 부모의 진로 지지가 자녀의 진로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진로 활동과 진로 준비 행동의 매개효과 분석	명지대학교
서은경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종단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고신대학교
손은영	2024	다문화 아동의 부모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역할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손한결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오동균	2022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제주국제대학교
오세비	2019	어머니의 문화통합수준과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과의 관계 연구	중앙대학교
오혜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이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정책개선 연구	총신대학교
우안순	2020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세대학교
유경숙	2023	다문화 중학생의 학교적응 영향 요인 분석	충북대학교
유혜영	2023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한세대학교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공동운명모형(CFM)을 적용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분석	연세대학교
이덕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대한신학대학교
이은정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연세대학교
이주연	2024	부모진로지지와 진로장벽이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이현주	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한양대학교
장미영	2023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광주대학교
장선아	2021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장은애	2021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발달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계명대학교
장은지	2020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동아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장지현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부산대학교
전영화	202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울산대학교
전종순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조선대학교
정두수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정옥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 영향요인 탐색 및 집단에 따른 우울과 학교적응의 차이	성결대학교
정인숙	2022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지지가 진로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효과	신한대학교
조문교	2024	다문화청소년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이중언어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조윤영	2024	다문화 초기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의 관계에서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종단적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차한솔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및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최춘화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 변화 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연구	숭실대학교
최혜영	2024	다문화가정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호운운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및 언어적응 영향요인 연구	충북대학교
홍성원	202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심리사회적 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황희봉	2023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및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성취동기 사이의 종단적 관계	경기대학교

(2) 석사학위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강다영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을 통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강연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학교진로교육참여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니코	2023	부모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부산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구유빈	2024	결혼이주여성의 모국음식 하기와 정신건강	고려대학교
구자민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문화적응 요인의 영향 차이: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구효은	2024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사회적 위축의 순차매개효과	한양대학교
김도연	2024	다문화 가정 고등학생의 친구관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김령	2022	다문화어머니의 동화수준이 다문화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연구	중앙대학교
김민경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인식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이중문화수용성의 매개효과와 연령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서대학교
김민수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중다매개효과	경남대학교
김병욱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사이버대학교
김소희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숭실대학교
김슬기	2020	(The) Effect of Family Social Capital on the Academic Achievement of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서울대학교
김영현	2023	다문화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사회적 위축, 진로결정성 간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분석	부산교육대학교
김예은	2022	다문화 가정 부모의 언어능력이 자녀의 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자녀와의 의사소통 정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김유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김정란	2022	다문화여성의 문화적응과 진로지지행동과의 관계에서 심리적건강과 부모효능감의 이중매개효과	가야대학교
김주의	202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정책 수혜 여부의 조절효과	서울대학교
김한나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김현진	2021	Understanding the key factors associated with well-being and adaptation among children of immigrants in South Korea	이화여자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김혜령	2021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녀 우울의 매개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김효경	2023	'다문화' 시대의 정체성 형성: 이주배경청소년의 문화수용태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김효원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 수준에 따른 심리정서 발달 및 학교성적의 차이	전북대학교
남미선	2024	외국인가정 자녀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체류자격이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남상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외모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순천향대학교
문유진	202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중앙대학교
민예지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박경미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결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다문화적 변인과 비다문화적 변인 분석	한남대학교
박다은	2022	청소년의 다문화가정 지원서비스 이용에 관한 영향요인: 갤버그-앤더슨 모델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소연	2024	이주배경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사회적 역량을 매개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숙명여자대학교
박유강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박지원	2023	다문화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동아대학교
박지윤	202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의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을 매개변인으로	고려대학교
박진현	2023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배가령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동아대학교
번효범	202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개인, 부모, 학교요인을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보금로	2022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손무영	2024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창신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송현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광주여자대학교
신연주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신라대학교
신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사회적 지지와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왕예비	2020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신라대학교
우영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하는 정서요인, 부모진로지지, 자아존중감, 진로장벽과 진로태도결정성과의 구조적관계	가야대학교
우진영	202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 경험이 생활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부모갈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위예승	2024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부모양육태도를 중심으로	대구대학교
유가환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자본 잠재프로파일유형과 진로탐색	이화여자대학교
유승현	2022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육주홍	2019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경험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윤빛나	2019	또래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숭실대학교
윤수민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윤예린	2020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에 대한 다문화멘토링 사업 효과 분석	서울교육대학교
이기수	202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사회적역량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공주교육대학교
이마무 마이얼하바	2023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이미화	2020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 신체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동신대학교
이민지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기 한국어 능력과 사회적 지지가 학습 참여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이선민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매개 역할을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이아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림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이은화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간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양대학교
이지은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지지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이지혜	2021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심리적 변인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관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충북대학교
이창현	2024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사회계층, 진로지원 행동의 분류와 그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가 느끼는 진로장벽 요인	단국대학교
이청아	2024	특성화고 다문화 청소년의 교내 진로교육과 진로장벽 형성 간의 관계 : 부모 진로지지의 조절효과	한양대학교
이현녕	2022	다문화 가정 모(母)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녀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울산대학교
이현정	2020	다문화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계명대학교
이혜니	2022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종단적 매개효과 분석	중앙대학교
임미정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신라대학교
임정소	2019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임준	2022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 매개효과	성산효대학원 대학교
임지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정성준	2024	다문화청소년의 집단따돌림 피해경험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중앙대학교
정주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부산대학교
제렌람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전북대학교
조강현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조명훈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검증	동국대학교
조수빈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숭실대학교
조연	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충남대학교

이름	연도	제목	학교
조은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집단 괴롭힘 피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충북대학교
최은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유형에 따른 학업적응 차이	연세대학교
최은지	2021	고등학교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최점순	2022	부모의 진로지원행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최지예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외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남대학교
최지원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허은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정서요인, 성취동기와 학교생활 적응과의 구조적 관계	가야대학교
허차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Cui, Lina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GANBAATAR SANSARTUYA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친구지지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신대학원 대학교
Ghafary, Abdullatif	2022	Impact of parent's country on wellbeing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Using Korea National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HAY MAN HNIN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관련요인 연구	경희대학교
Kang, Lei	2021	Effect of Married Immigrant Women's Acculturative Stress on Adolescent's School Score	경희대학교
Li, Ling	2020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Ono, Rina	2024	다문화 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의 관계에서 부모의 지지에 의해 조절된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OTGON NARANGEREL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개신대학원대학교
Rui, Yuan	2024	다문화 청소년 한국어 능력이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매개로	이화여자대학교
SOR, SREYNICH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Zheng, Hongquan	2024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지지, 교사지지, 친구지지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2) 학술논문

(1) 국내 학술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강다영, 강현아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을 통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4(4)
강민구, 박상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에 따른 다문화요인 분석	인문사회21, 12(6)
강민구, 박상희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주 사용언어에 미치는 다문화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언어치료연구, 30(1)
강하라	2021	다문화 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부모 양육행동을 매개로 초기 청소년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강하라, 노충래	2021	중학생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외모 만족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강해순, 김현옥, 김소형	2022	다문화적 특성의 혼합분포군집 유형에 따른 초국적 이주자 자녀의 심리사회적 요소 분류예측 - 혼합분포군집분석과 CARET 중심 -	한국사회복지학, 74(1)
강효은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경험에 대한 연구동향	상담교육연구, 7(1)
강희경	2019	이주 여성의 문화적응 유형과 청소년기 자녀 진로 지원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9(12)
경예나, 박선영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 자녀진로태도 간의 관계:어머니의 양육효능감과 자녀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22(2)
고은선	2024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관계 분석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5)
고은선, 권효진, 김광주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인식한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국가정체성 간의 종단적 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적용	교육문화연구, 29(6)
고은선, 김성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72
고은선, 전한성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우울 간의 종단관계 연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하여	학부모연구, 8(1)
고진경	2024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사회적 지지와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미래사회, 15(2)
고한나, 호효정, 박용한	2023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자아존중감,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 교우관계 간의 종단적 상호 인과관계	교육심리연구, 37(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곽은정, 이수경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에 따른 잠재집단분류 및 계층별 영향요인과 집단별 진로결정성 차이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곽지영	2020	다문화가족 자녀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5
구자민, 윤희선, 이상록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가구 빈곤이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5)
구하라, 모경환, 성상환	2020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도 및 참여유형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6(5)
권민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체육특기적성활동 참가와 교우관계 및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관계	한국웰니스학회지, 15(1)
권성연, 김윤겸	202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가치 인식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과 국제사회, 7(4)
권성연, 신소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특성 변인, 학교적응,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분석	평생교육 · HRD 연구, 18(3)
권성연, 신소영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건강평가, 삶의 만족 간의 구조관계 분석	문화와 융합, 45(12)
권성연, 천지은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부모의 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학업적응과 진로결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0(8)
권오영, 양계민	2024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 변화유형 특성과 결정요인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21(1)
권오영, 양계민	2024	교사지지가 이주배경학생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30(2)
권혁준, 서종한	2022	청소년 문제행동의 유형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 다문화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1)
김경선, 오유경	2023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한 다문화학생의 교사 -학생 관계 인식 영향요인 탐색	교육과학연구, 25(1)
김관숙, 최치원	2024	부모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체성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9(9)
김기영, 고은선	2018	다문화교육지원정책에 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식과 요인분석	교육혁신연구, 28(1)
김담이	2023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관계와 성취동기의 관계	현대사회와 다문화, 13(4)
김도선	2024	다문화가정 중기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요인 검증 : 상호작용이론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8(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도원, 문인수	2022	다문화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영향요인	한국범죄심리연구, 18(3)
김동순, 박봉선, 이의빈, 손가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4
김동욱, 장근호, 조민효	2023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차별인식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33(3)
김미리, 김유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진로장벽 인식: 부모지지와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0)
김미진, 김경은	2021	중등 전환기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 군집유형에 관한 연구	다문화교육연구, 14(1)
김민경, 김윤정	2024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차별인식이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0(6)
김민경, 박공주	2023	다문화 학령기 아동의 자아존중감 모형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5(5)
김민선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 효능감 변화와 학교교육 참여에 대한 연구 : 초등학교 4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학부모를 중심으로	학부모연구, 7(1)
김민선	2019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 변화와 관련요인 분석: 한국어 능력, 성취동기, 진로장벽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연구, 8(4)
김민수	2023	다문화 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부모 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의 다중가산조절효과	현대사회와 다문화, 13(3)
김민수, 하수경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중다매개효과	복지상담교육연구 11(1)
김민주, 윤기봉	2018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김병욱, 김윤나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청소년시설환경, 21(4)
김상용	202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청소년자녀의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사회과학리뷰, 7(1)
김서정	2021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다문화청소년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변화와 영향요인	교육학연구, 59(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서정, 오인수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수용태도와 학교폭력 피해 경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매개효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교육과학연구, 54(2)
김서정, 오인수, 노은희, 이승은	2023	잠재프로파일 분석을 통한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과 자녀의 개인 심리적·대인 관계적 특성 차이	교육문화연구, 29(6)
김선미	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지역정책연구 33(1)
김성수, 안도희	2023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긍정적인 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3)
김소영, 윤기봉	2024	다문화 청소년과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한국가족복지학, 29(1)
김소영, 홍세희	2019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이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조사연구, 20(3)
김수미, 김현옥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의 순차적 다중 매개효과 -2016년 다문화 청소년패널조사 이용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3)
김수민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부모의 방임과 우울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3(2)
김순규	2024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성숙에 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73(2)
김아림, 김지혜	2023	외국계 어머니의 부모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학생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 부모지지의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3(4)
김영미	2024	학령기 다문화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궤적과 사회적 지지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31(2)
김영미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친구지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육아정책연구, 14(2)
김영미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맥락요인: 가족 소득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김영미, 현안나	2020	다문화청소년의 맥락적 요인과 진로장벽, 진로결정 수준의	학교사회복지,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구조적 관계 및 성별간 다집단분석	49
김영배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한국어 사용 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66
김예슬, 이경양, 전하람	2024	어머니의 출신국가와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포부 수준 간의 관계 분석	교육문화연구, 30(3)
김우진, 정지아, 심태은, 이송이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언어능력과 이중문화수용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4)
김원경, 최필선	2023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6(4)
김원영, 김경식	2020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2)
김원영, 정나은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적 탐색	교육연구논총, 41(4)
김원영, 정나은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 관련변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4)
김유미, 황예린	2021	다문화 학부모의 양육효능감과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 다문화 학부모의 진로지지와 자녀의 진로장벽 인식의 매개효과	초등상담연구, 20(4)
김윤이	2022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진로태도 성숙, 진로 장벽 인식 예측모형 탐색	진로교육연구, 35(4)
김윤정, 배화옥	2024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부모효능감이 자녀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다문화사회연구, 17(2)
김윤정, 이진향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다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 가족지지 및 한국어 능력과 학교적응의 종단적 발달경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6)
김윤희, 김현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종단적 교우관계 발달	청소년학연구, 27(9)
김은경, 조대연, 정윤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교사관계,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 유·무에 따른 다집단분석	교육문화연구, 28(4)
김은혜, Cui, Lina, 노충래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다집단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8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은혜, 정민아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인식, 이중문화수용태도, 사회적 위축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복지연구, 26(1)
김은혜, 최려나	202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진로장벽인식, 우울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	아동학회지, 45(1)
김은혜, 최려나, 노충래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신체만족도,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상호인과관계	한국아동복지학, 70(3)
김자경, 오혜정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진로결정성, 진로장벽 인식의 관계: 이주여성 어머니의 진로 관련 행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23(1)
김재남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국가정체성이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10)
김정은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과 학교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사회적 위축과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1(3)
김준범, 박성훈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41
김중곤	2022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및 발달의 성 차이	한국범죄학, 16(2)
김중곤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 영향요인 및 성별 차이	현대사회와 다문화, 14(2)
김중곤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차별피해인식이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사회 ·심리적 요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경찰연구, 20(4)
김중곤	2020	집단 괴롭힘 피해가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차별적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중심으로	피해자학연구 28(2)
김지형	2022	결혼이주여성들의 건강상태 변화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잠재계층성장분석을 활용하여	보건과 사회과학, -(61)
김지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17(3)
김진영	2022	학업중단위험요인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김진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요인과 진로결정성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3)
김진영, 이유진	2022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철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5)
김철희, 문선혜, 송진영	2023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1)
김철희, 송진영, 문선혜, 정선화	2023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방임적 부모양육태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 교우관계와 교사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4)
김춘경, 조민규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우울을 매개로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정서·행동장애연구, 34(4)
김태균	2021	부모의 진로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학교진로교육, 진로태도 매개효과 검증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7(3)
김태은, 함승환	2021	이주배경 청소년의 문화변용 전략에 따른 학업성취도 차이 종단분석	다문화와 평화,15(3)
김평화, 윤혜미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김한솔, 김규찬	2023	중도입국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 (63)
김한솔, 김아란, 송지은, 김지우, 홍유나, 김예지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변화유형과 영향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6(1)
김해란	2024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우관계의 매개효과와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시아태평양융합연구교류논문지, 10(6)
김해인, 최은영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주류사회의 영향 : Berry의 문화적응이론을 중심으로	지역정책연구, 34(1)
김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 관련 변인의 군집유형에 따른 내재화 문제행동과 신체 및 삶의 만족도 차이	현대사회와 다문화, 10(4)
김형희, 김용섭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자아존중감과 사회적위축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5)
김형희, 전종순	2022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4)
김혜경, 어윤경	2021	학업중단 위험요인과 진로장벽인식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진로활동, 성별, 지역의 개인차 효과: 다문화 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진로교육연구, 34(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김혜금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 만족도와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와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 종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9)
김혜금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서문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김혜금	2024	다문화가정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지지가 학습활동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수용성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6(3)
김혜미, 권태연	2021	다문화가족 이주여성의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8(2)
김혜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및 다문화수용성이 성취동기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2(1)
김효경, 서찬석	2022	집단괴롭힘 경험이 다문화 배경 청소년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에 대한 분석: 사회적 위축과 외로움을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3)
김희찬	2023	다문화청소년 무단결석과 비행경험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30(3)
김희찬, 전구훈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무단결석 경험 여부에 따른 사회정서 차이: 자아존중감, 우울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9(6)
김희찬, 최성헌	2023	다문화청소년의 무단결석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30(2)
나지훈, 정혜지	2024	다문화 중학생의 집단 괴롭힘 피해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을 통한 부모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6(1)
노보람	2024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유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감독적 양육,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구조관계 분석	열린부모교육연구, 16(1)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외모만족도와 한국어능력의 종단적 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노보람, 최나야	2020	성장혼합모형(GMM)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유형 및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31(4)
노성향	2024	다문화가정 외국인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간의 관계에서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열린부모교육연구, 16(3)
노필순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청소년기 자녀가 인지한 부모관심, 자아존중감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8)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딩징야, 진미정	2019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습활동 적응에 미치는 영향: 가정 내 교육참여, 공적 교육 지원, 사교육의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4(2)
따브카, 조혜정	2024	부모의 지지가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조절효과	산업융합연구, 22(7)
류도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 성취동기, 자아존중감과 진로결정성의 구조 분석	재활심리연구, 28(4)
류도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가족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과 자아존중감의 이중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29(3)
맹미숙, 천미정, 정영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감과 교우관계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4)
모상현	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4
목소리, 서보림, 정재경, 강민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태도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문유진, 박승곤, 문성호	2023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30(5)
문의정, 박정윤	2024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능력 변화와 영향 요인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9(2)
문희정, 김은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학교적응, 진로장벽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4(4)
민예지, 강현아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2)
민장배, 송진영	2023	다문화 청소년이 인지하는 방임적 부모양육태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친구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2)
민장배, 송진영	2024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방임적 부모양육태도가 다문화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 교사관계와 교우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1)
박경미	2019	다문화 정책이 다문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1(4)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융합정보논문지, 9(9)
박동진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분석	한국청소년활동연구, 5(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동진, 김송미	2023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여가활동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4(1)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이 교우관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8)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1(8)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우울의 매개효과	교육과학연구, 23(3)
박동진, 김송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우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7(3)
박동진, 김송미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인문사회과학연구, 21(3)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과 우울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보건과 복지, 23(1)
박동진, 김송미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교우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융복합지식학회논문지, 9(2)
박동진, 김송미, 박경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역량과 자아존중감의 연속다중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5)
박동진, 김송미, 이지연,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 학교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활동연구, 6(4)
박동진, 신택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그리고 우울로 이어지는 인과적 전이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9(7)
박동진, 이수진, 김송미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인문사회21, 13(4)
박동진, 이지연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교우관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분석	미래청소년학회지, 16(3)
박명희	2017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 구조적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10(4)
박미현, 김희숙, 김린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초기 자아 탄력성과 연도별 친구관계 지지가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3)
박민아, 한명희, 서지영	2021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데이터정보과학회지, 32(2)
박봉환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4(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선숙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부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정복지연구, 79
박선숙	2022	다문화 청소년 학업중단 위험 유형별 관련 변인 연구	미래사회, 13(1)
박선우, 정제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교육문화연구, 28(1)
박송주, 이보라	2021	다문화청소년 심리사회적 자원에 따른 군집과 고교진학 유형 차이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2(3)
박순진, 백진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과 진로태도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5)
박여주	2022	다문화가정 부모의 한국 생활 적응도가 자녀들의 비행과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탐구적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6(2)
박여주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폭력 피해와 다각적 요인 연구 : 성별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7(1)
박여주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에 관한 종단 연구: 부모/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2(1)
박영준, 박진현	2022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4)
박완경, 이수비	2024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성취동기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례관리연구, 15(1)
박용한, 이신동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박유강, 권선주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모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7(1)
박일태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 양육태도와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조절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2)
박재홍, 노성향	202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자아존중감, 사회적 위축 구조적 관계	다문화와 평화, 18(1)
박정심, 박수원, 이아람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 성취동기 및 진로결정성의 종단적 상호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19(1)
박정윤, 박현지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박정윤, 채지은, 조몽적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중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박준호, 성용은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변용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18(3)
박지나	2023	다문화가정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가 국가정체성에 미치는 구조적 관계: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경험 여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6(1)
박지나	2023	아시아계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유형과 부모효능감 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양육활동의 구조관계연구	아시아여성연구, 62(2)
박지수, 김하영, 한윤선	2021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유형별 예측요인: 긴장이론, 사회유대이론 및 사회학습이론의 적용	청소년복지연구, 23(1)
박현주, 양영자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8)
박혜숙	202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지각된 한국어 수준(한국어 효능감)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1)
박혜숙, 양상희	2017	한국의 다문화가정 아동의 삶에 대한 만족도 변화 양상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박혜숙, 전명남	2022	초등학교 고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 변화와 예측요인에 대한 종단연구	상담심리교육복지, 9(6)
박희서	2021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자아존중감과 가족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6(11)
박희서	2021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종단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6(12)
방성아	2024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경험, 사회적 지지, 다문화 지원정책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적 연구: 잠재성장모형과 다층모형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5(1)
배선희, 손은령	2022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진로장벽의 영향요인 분석	교육학연구, 60(6)
백성은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방임적 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직렬다중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4(3)
백성은, 조상현	20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문화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관한 연구: 학교 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논집, 19(2)
백승희, 박소영, 정혜원	2018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적 변화추정	교육학연구, 56(1)
백예은, 정혜원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태도 주요 설명 변인 탐색: 랜덤 포레스트와 SHAP을 적용하여	교육학연구, 61(5)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백종규, 염동문	2018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다문화사회 연구, 11(1)
범령옥, 임선아	2024	다문화아동들의 학교생활적응과 삶만족도의 양방향적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5(1)
보금로, 장영은	202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9)
보금로, 장영은	2024	다문화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양육효능감과 부모감독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
봉초운, 정윤화, 홍세희	2018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한국청소년 연구, 29(3)
서봉언	2019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비행 참여요인 탐색	현대사회와 다문화, 9(2)
서현석, 김태균	2020	가족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효학연구, 31
성윤희, 장은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진로장벽을 통한 자존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진로교육연구, 33(1)
손선옥, 민원홍	2022	다문화 가정 부모의 가정 기반과 학교 기반 교육 관여 행동이 자녀의 학교 적응에 미치는 경로: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11)
손신영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활용하여	다문화건강학회, 13(2)
손신영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한국학교지역보건교육학회지, 20(3)
손은영, 서호찬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3(4)
손은영, 오미경	2024	다문화 아동의 부모지지가 학교생활적응 미치는 영향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	Studies on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6(4)
손한결, 김은혜,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성취동기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8(4)
손한결, 신나나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 영향	청소년학연구, 27(1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송원일	2021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다문화수용성 간의 관계에서 삶의 만족도의 매개적 역할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6(3)
송은, 임동선	2020	중학교 2학년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능력과 모국어 사용 정도에 따른 군집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신소영, 권성연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 학교적응의 구조관계분석	평생학습사회, 18(1)
신소영, 권성연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 적응 간 구조관계 분석	인문사회 21, 14(3)
신연주, 이경순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성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평생학습사회, 15(3)
신예지, 전성은, 강영신	2023	다문화청소년의 우울 및 비행의 발달궤적: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6(2)
신택수, 강윤아	2023	의사결정나무 모형을 이용한 다문화 청소년 우울의 종단적 변화유형 탐색: MplusTrees 기법을 중심으로	미래청소년학회지, 20(2)
심령	2020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들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관련 요인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심은실, 조한익	2024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4(11)
안윤정, 김민아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역경경험과 사회적 역량과의 관계: 우울의 매개효과와 지역사회 지지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0(65)
안혜우, 엄명용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융합적 대응방안 모색	한국융합학회 논문지, 11(6)
안혜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암갈랑바타르 첸드, 윤수진, 김지연, 최찬호, 손애리	2023	외국인 어머니의 차별 경험, 자아존중감 및 부모효능감이 주관적 건강인식에 미치는 영향	에듀테인먼트 연구, 5(4)
양계민	2016	종단연구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3)
양영미, 이선영	2020	부모의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4)
양영미, 조성심, 이선영	2022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감독 및 지지와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관계: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연은모,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특성 잠재프로파일의 종단적 변화 및 영향 요인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3)
연은모, 최효식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 변화에 대한 개인, 부모, 학교 변인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연은모, 최효식	2022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상호작용 시간이 학교생활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0)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진로관련행동에 따른 잠재집단 탐색 및 잠재집단별 자녀의 진로, 심리, 학업 특성 차이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8)
연은모, 최효식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육효능감, 진로관련행동, 진로장벽인식 간 관계: 자녀의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연은모, 최효식	2020	분할함수 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성취 변화 추정 및 예측요인 탐색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7)
연은모, 최효식	2020	잠재계층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가정 자녀의 성취동기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탐색: 학업성취 수준의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2)
연은모,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에 미치는 동시효과와 지연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1(9)
염동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종단적 변화양상과 변화양상별 영향요인	복지상담교육연구, 8(2)
염동문, 임채영, 김한솔	2019	결혼이주여성 문화적응 유형에 관한 영향요인 연구 : 잠재프로파일분석 활용	사회과학연구, 35(3)
오동균	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방임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중등교육연구, 67(3)
오서진	2021	가족, 부모의 사회적 지지와 다문화수용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8차)를 중심으로	여가복지경영연구(여가복지), 2(1)
오성배, 이유정	2023	지역규모별 다문화학생의 학교진로교육경험이 진로역량에 미치는 영향 탐색	역량개발학습연구, 18(2)
오세현, 민예지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가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 외모만족도와 우울감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오정아, 이영주, 김평화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 예측모형 탐색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2(6)
오혜경, 고미숙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양육태도, 다문화 청소년과 교사와의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46(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오혜정, 손병덕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과 학교생활의 관계에서 사회정서와 사회적 지지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7(12)
우안순, 백진아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19(1)
우인경, 이창배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집단괴롭힘 피해 경험: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1(5)
유두호, 최정윤	2022	진로준비와 진로지원정책이 다문화가정 자녀의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지역규모별 분석을 중심으로	GRI 연구논총, 24(1)
유선미, 김정민, 이주연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 변화궤적과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발달지원연구, 13(2)
유수정, 송현주, 박다윤, 황연재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3(2)
유승현, 조성희	2022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양육태도가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6(1)
유승희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문화적응 스트레스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연구, 14(1)
유승희	2020	고등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관련 요인, 성취동기, 학업적응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5)
유승희	2020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로 구성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자아탄력성, 문화정체성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다문화와 평화, 14(1)
유승희, 최충	2020	중학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 변화궤적과 생태체계적 요인들의 관계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22(3)
유지애	2020	자녀 학교생활 중개인(broker)으로서의 다문화가정 어머니 역할에 대한 검토-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자녀 학교생활 참여가 자녀 학습활동, 어머니 한국어 능력, 어머니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67(2)
유지애	2023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3)
유지은, 추진희, 황은애	2024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갈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22(8)
유지후, 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융합정보논문지, 11(10)
유지희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양육효능감의 이중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5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유지희, 황숙연	2024	중도입국 자녀의 한국어 능력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또래 지지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교육, 66
유창민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 유형	다문화사회연구, 13(3)
유혜영, 백진아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20(10)
유혜영, 백진아	2023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지지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2(3)
유효은, 이원기,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피해 원인에 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28(1)
윤미리, 장유나, 홍세희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 수용성과 이중문화 수용태도의 직렬다중매개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9(3)
윤예린, 오범호	2020	다문화멘토링 사업 참여가 다문화학생의 학업성취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	한국초등교육, 31(4)
윤은영	2019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2)
윤지영, 허은정	2017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 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윤현희, 김나영	2021	다문화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변화 유형 및 영향요인 분석: 다문화교육의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7(6)
윤형덕, 임준, 김태균,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가족지지,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가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효학연구, 32
윤홍주	2023	다문화청소년의 최초 비행요인에 대한 비연속시간 생존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4)
윤홍주, 최효식	2021	다문화 가정 부모의 진로관련 지지 행동 변화 유형에 따른 청소년의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 진로장벽 차이	한국산학기술논문지, 22(11)
윤홍주, 최효식	2020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양육효능감 변화 양상에 따른 진로관련 행동 및 자녀의 심리사회적, 학업적 특성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2)
윤홍주, 최효식	2019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일상생활스트레스 변화 양상에 따른 방임 및 자녀의 학업성취 차이: 성장혼합모형 적용을 중심으로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12)
은선민, 이수현, 이강이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0(2)
이강욱, 이주연, 지명원	2023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한국문화수용태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아동교육, 32(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강훈	2019	다문화가정 부모의 부모효능감과 사회적지지, 아동의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아동교육, 28(4)
이경원	2021	문항반응이론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척도 타당화	한국가족복지학, 26(2)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공동운명모형(CFM)을 적용한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분석	한국가족복지학, 68(1)
이규범	2023	사회유대이론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에 관한 연구	한국민간경비학회보, 22(5)
이기수, 원성준	2023	다문화 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집단괴롭힘 피해경험 및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역량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9(3)
이나라, 조영일	2023	랜덤 포레스트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탐색	사회과학연구, 49(1)
이나라, 조은경	2023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예측 요인 탐색: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한국경찰학회보, 25(4)
이동욱	2022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이 인식하는 진로 장벽의 영향요인: Smart PLS-SEM 접근을 이용한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9)
이래혁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이 우울을 매개로 비행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감독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1
이래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진로교육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외국인 어머니의 진로지지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4(3)
이래혁	2022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스트레스硏究, 30(2)
이래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체험활동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60)
이래혁, 이재경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성취동기를 통한 성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55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양육효능감과 자아탄력성의 이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6
이래혁, 장혜림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학습태도의 관계 – 자아탄력성을 통한 친구지지의 매개된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7(3)
이래혁, 장혜림	2021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자녀의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일상생활 스트레스, 우울, 방임적 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래혁, 장혜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 괴롭힘 피해 경험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 교우관계와 사회적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문화포럼, 62
이래혁, 채황석, 김효경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여가활동이 사회적 역량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 비교를 중심으로	GRI연구논총, 26(1)
이래혁, 채황석, 오채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성취동기의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학교사회복지, 49
이래혁, 최홍일	2020	다문화가정 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일상생활 스트레스, 부모효능감, 방임적 양육태도를 통해 청소년 자녀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5(2)
이령, 강상경	2023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유형이 양육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 자녀 교육지원활동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3(4)
이미화, 최진아	2021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 경험, 신체적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한국부모놀이치료학회지, 11
이민솔, 문국경	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교사와의 관계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1(2)
이민솔, 박성철	202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만족이 진로태도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위축을 조절변수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이보람, 허청아	2024	다문화청소년의 중학교 전이기의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궤적에 따른 집단분류 및 집단별 학업 적응의 차이	가족정책연구, 4(1)
이보영	2021	어머니의 진로 관련 지지 행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진로 교육 및 활동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 태도를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8(6)
이상무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 중단 의도 영향 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9(10)
이상미	2022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ording to Gender: Self-Perception and Relational Aspects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7)
이상은, 최나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이중문화 경험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9(1)
이상진, 장인실	2023	다문화가정 학부모들의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인식 분석	다문화와 평화, 17(2)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이수경	2022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유형에 따른 잠재집단 분류: 영향요인 탐색및 집단에 따른 자녀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차이	인문사회 21, 13(6)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수경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와 국가정체성의 발달양상에 따른 잠재 계층 분류 및 계층별 예측요인과 문화적응스트레스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이수민, 문찬주	2022	다문화 학부모의 문화적응 유형이 중학생의 학교생활 및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8(4)
이승현, 황성현	2021	다문화청소년 비행에 대한 범죄이론의 상대적인 영향력 검증	한국공안행정학회보, 30(2), 187-210
이영신	2024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진로태도준비성 영향요인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42(1)
이영신	2023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수용성, 교우관계, 학교적응, 진로태도준비성 간 종단적 관계	미래청소년학회지, 20(4)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와 심리적 적응 및 학교적응	교육문화연구, 23(5)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발달궤적과 선정요인에 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33(1)
이원기, 유효은, 이창한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74
이원석	2019	다문화가정 학부모의 학교활동 참여가 자녀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4
이유리, 김춘경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지지와 친구지지의 병렬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5)
이윤영	2022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청소년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다문화 12(2)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일탈 친구의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43(1)
이윤영	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범죄학, 13(1)
이윤정	2019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교사·친구지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0(2)
이은경, 이선희	2019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에 의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조절된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6)
이은주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다문화 수용성 예측요인에 대한 데이터 마이닝 의사결정나무모형 분석: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에	Communication Sciences and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대한 4가지 언어 사용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중심으로	Disorders. 25(2)
이응택	2023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지속 피해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탐색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3)
이응택, 이은경	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14(4)
이응택, 장여옥	2023	초기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가족정책 지원 경험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20(2)
이정민, 정혜원	2024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잠재프로파일 분류 예측요인 및 결과변인 차이 검증	한국교육, 51(1)
이종훈	2024	다문화 부모의 양육태도, 청소년의 성취동기, 학교적응 간 구조 관계: 교사와의 관계 다중집단분석	비즈니스융복합연구, 9(4)
이종훈, 김주섭	2023	다문화가정 고교 3학년이 지각한 부모지지, 성취동기, 진로태도 결정성 간 구조 관계	한국진로창업경영학회지, 7(6)
이종훈, 김주섭	2022	다문화 부모의 양육태도, 진로장벽, 다문화 청소년의진로태도 준비성 간 구조관계	인문사회 21, 13(4)
이주실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언어 구사능력이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이민정책학회보, 4(2)
이주실	2022	균형적 이중언어구사능력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연구: 커밍스(J. Cummins)의 이중언어이론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2)
이준엽, 신형진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언어와 사회적 배제	한국청소년연구, 35(3)
이지선, 김정민	2021	다문화가정 부모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 자녀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국가정체성 및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2)
이지숙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과의 관계: 국가정체성, 자아탄력성, 사회적지지 유형에 따른 조절효과 분석	학교사회복지, 48
이지우, 노길희	2023	다문화청소년의 다문화수용성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 및 사회적 위축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4(3)
이지택, 유승현	2023	결혼이주여성의 신체·심리적 건강인식이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30(5)
이진경, 김혜미	2019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비교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11(2)
이진경, 이혜정	2019	이중언어요인과 이중문화요인이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30(4)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진석, 장대연, 최선아	2020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66
이진선, 강영숙, 오종철	2021	다문화정책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다문화정책프로그램 경험 유무에 따른 다문화청소년들의 우울과 사회적 위축이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를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치행정학보, 35(4)
이진선, 오종철, 강영숙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종단연구	보건사회연구, 41(4)
이창현, 최나연	2023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일상생활 스트레스, 심리적 건강에 대한 종단연구	문화와 융합, 45(3)
이창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와 진로결정성 간의 관계에서 성취동기와 사회적 위축의 이중매개효과	사회과학연구, 32(2)
이하림, 김도한	2024	다문화 정책 참여가 다문화 청소년의 정의적·인지적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현대사회와 행정, 34(2)
이현, 이경원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분류 예측요인 탐색 연구 – 잠재프로파일과 랜덤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이현주, 차윤경	2020	청소년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구조적 관계: 이주배경여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3(1)
이형하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진로 · 양육지원과 교사관계, 진로준비성, 진로결정성의 구조적 관계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5)
이형하	2020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5(4)
이형하	2023	다문화청소년 어머니의 정신건강 유형과 부모효능감에 관한 연구: 잠재프로파일분석(LPA)을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8(3)
이형하	2021	청소년 활동 참여 경험이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 성취동기와 사회관계의 다중매개효과 및 성별 다집단분석 적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2)
이형하	2021	부모의 스트레스와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적 부적응, 학업중단위험 간 종단적 인과관계: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적용	디지털융복합연구, 19(6)
이형하	2023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성취동기 간 종단적 상호효과: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과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활용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3(1)
이혜니, 조강원	2023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성취도와 진로결정성의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9)
이혜미, 김유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진로의식발달의 관계 : 성취동기와 진로관련 부모행동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0)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이희정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한국사회학, 52(1)
인효연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각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청소년학연구, 24(10)
임동선, 김선영, 김성진, 김소은, 양윤희	2021	다문화 가정 내 사용 언어에 따른 언어 능력 종단분석: 이중문화수용태도와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26(1)
임동선, 김지애, 오수진, 조수정, 박원정	2021	다문화 학생의 모국어 사용이 학생 및 부모요인에 미치는 영향	언어치료연구, 30(1)
임동선, 백수정, 김송이, 한지윤	2020	다문화 가정 내 모국어 사용에 따른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 능력 및 사회적지지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3(3)
임미정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이 진로결정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상담연구, 6(1)
임선아	2018	다문화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학교적응 : 자아탄력성과 도움을 주는 어른의 보호역할 검증	아동과 권리, 22(2)
임숙희, 이진경	2021	다문화 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이 청소년 자녀의 다문화 수용성에 미치는 영향: 가족지지의 조절 효과	인문사회21, 12(5)
임양미	2021	결혼이주여성의 양육효능감이 중학생 자녀의 진로장벽인식에 미치는 영향: 진로지원행동과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및 성별비교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1(3)
임양미	2020	결혼이주여성의 학교활동 참여와 부모효능감 및 중학생 자녀의 학교생활적응 간 종단적 상호 영향 분석	인간발달연구, 27(2)
임양미	2019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청소년기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참여와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한국생활과학회지, 28(6)
임예림, 홍세희	2024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직업능력개발연구, 27(2)
임유진	2022	결혼이주여성의 차별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4(1)
임은의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자존감과 자녀진로지원행동 관계에서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융합정보논문지, 10(11)
임은의, 박미현	2023	다문화청소년 유형에 따른 여가문화활동 및 사회적 역량이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복지와 문화다양성 연구, 5(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임은의, 박미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태도와 교육관여 관계에서 양육효능감의 매개효과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68(4)
임은의, 박미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유형과 자녀진로지원행동의 관계: 자존감의 조절효과	다문화와 평화, 15(2)
임정수	2021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연구, 14(3)
임준, 김태균	2022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진로지지가 진로장벽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 진로태도 매개효과	한국청소년활동연구, 8(2)
임혜빈, 황정윤, 주혜린	2024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행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친구의 비행 행위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을 중심으로	국정관리연구, 19(1)
임효진, 황매향, 최희철	2020	다문화 가정 자녀의 아동 · 청소년기 자기존중감의 다중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장매림, 송하나	2023	다문화 청소년의 또래 지지와 다문화 수용성 간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저소득 여부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30(6)
장선아, 고정훈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 -사회적 지지 매개 효과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1(1)
장수빈, 노충래	202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부모의 방임에 따른 진로결정성의 변화궤적	학교사회복지, 65
장아영, 이해경, 후이팡	2024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순차적 매개효과로	한대사회와 다문화, 14(3)
장유나, 오현정, 안소영, 홍세희	2020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 유형화 및 영향요인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6(4)
장유진	2019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	글로벌교육연구, 11(4)
장윤선, 양계민, 이정민	2024	벌점회귀모형을 통한 다문화청소년의 대학 진학 영향요인 탐색	교육과학연구, 55(1)
장은실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대한 종단분석 : 우울과 자아탄력성을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2)
장은애, 정현희	2022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발달유형과 예측요인 탐색	청소년학연구 29(2)
장은애, 정현희	2023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 잠재프로파일 전이양상과 영향요인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6(3)
장은애, 정현희	2022	다문화가정 초기 청소년의 문화정체성 잠재프로파일과 예측요인	청소년 문화포럼, -(7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장은지	2021	이주배경청소년 학업성취 관련 요인의 지역 간 구조적 모형 비교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0)
장은지	2021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적 자본, 한국어 능력, 진로인식 수준과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5)
장혜림, 이래혁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을 통한 가족 지지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0(1)
장혜림, 이래혁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
전대성	2021	이민의 역설에 대한 탐색적 연구: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전영화, 정민자	2023	결혼이주여성의 한국어 수준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와 차별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0)
전예빈, 정수경, 김순규	2024	이중문화수용태도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과의 관계에서 사회적위축의 매개효과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21(1)
전혜경	2024	다문화 부모의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다문화 자녀 특별지원 필요성 조절효과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5)
전혜숙, 김진영, 전종설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결정성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6(10)
전혜숙, 전종설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 교우관계 및 교사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7(8)
전혜원, 차유정, 장현석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 발달궤적과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범죄학, 17(2)
정경림, 김선미, 윤상용	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	GRI 연구논총, 24(4)
정나은, 김원영	2020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적 탐색 :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6(5)
정나은, 김원영	2020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준비성 결정요인에 관한 구조적 관계 분석: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위축을 중심으로	한국웰니스학회지 , 15(4)
정두수, 백진아	2023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이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21(6)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정두수, 백진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이중문화수용태도, 집단따돌림 및 부모양육태도가 학업중단의도에 미치는 영향	융합정보논문지, 10(10)
정상수, 김정미	2022	청소년의 휴대폰의존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정은아, 이소자	2021	어머니의 진로관련 행동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에 미치는 영향 : 학업적응의 매개효과	산업융합연구, 19(4)
정인숙	2023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부모 지지가 진로 태도 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 수용 태도의 매개효과	산업진흥연구, 8(4)
정재훈, 황성현, 박희균	2021	다문화청소년 비행 및 범죄와 범죄친구와의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중심으로	한국경찰학회보, 23(3)
정주미, 이동형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발달 궤적: 잠재계층 분류 및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와 친구지지의 영향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32(1)
정향미, 박공주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구조모형	사회융합연구, 7(1)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부모의 방임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4(3)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22(3)
조성희, 박소영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가족 정책지원 이용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15(2)
조성희, 박소영	2020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지역사회인식과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청소년시설환경, 18(2)
조수빈, 진재찬, 유서구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 –사회적 지지 요인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72(2)
조승연	2021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콘텐츠연구, 36
조안나	2023	성장배경이 상이한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적관계 요인의 영향 비교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3)
조연, 손은령	2021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의 관계 :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9)
조영미, 조강원, 임영식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방임이 학업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삶의 만족도의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4)
조영선, 조영일	2019	다문화청소년의 비행집단에 대한 종단적 변화 유형 및 심리사회적 특성	인문사회21, 10(5)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조영선, 조영일, 박수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우울의 매개효과	인문사회21, 11(3)
조옥선, 방해순	2018	융복합 시대에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정보 논문지, 8(4)
조옥선, 석말숙	2021	다문화청소년의 개인요인, 정서요인, 부모요인, 사회・환경 요인이 진로미결정에 미치는 영향	산업융합연구, 19(6)
조윤영	2023	다문화 청소년 국가정체성과 자아존중감 종단적 변화양상 및 영향요인 : 잠재전이분석을 적용하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2)
조윤영, 정현희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우울에 따른 잠재계층 전이 양상 및 영향 요인	청소년학연구, 28(1)
조은정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직업선택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진로 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12(2)
조정은	2022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 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 분석을 통한 음악교육의 방향	음악교육공학, -(51)
조헌하, 강정미, 정유진	2022	다문화 어머니의 자존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자녀가 지각한 양육태도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존감에 미치는 영향: 가족 스트레스 모형 적용	지역사회간호학회지, 33(1)
조현지, 김춘경	202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수용태도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1)
조현지, 허무녕	2023	중도입국 가정 아동의 이중문화경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학교생활 적응의 차이와 예측요인 탐색	다문화교육연구, 16(4)
조혜영, 오민아	2020	다문화 청소년의 교사관계가 우울 및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1)
주선영	2023	부모양육행동이 다문화청소년의 국가정체성과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국가정체성의 매개효과 -잠재성장모델의 적용-	인문사회 21, 14(2)
주소희, 오인근, 안세진	2021	다문화가정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성과 성취동기와의 관계 연구: 사회적위축의 매개효과	인문사회 21, 12(3)
지영섭	2022	다문화청소년의 최초 비행 발생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학교사회복지, -(60)
차한솔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스트레스, 사회적위축,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청소년학연구, 28(10)
천지은, 박지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내·외적 자원, 사회적 위축, 우울의 관련성	사회적질연구, 5(2)
최가희	202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응 스트레스, 부모효능감에 대한 종단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최려나, 노충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과 학교적응의 직렬다중매개효과	한국청소년연구, 33(4)
최미선, 김연옥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21세기 사회복지연구, 17(1)
최선엽	2021	Factors influencing positive subjective health awarenes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27(4)
최소연	2021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Achievement Motivation and Schoo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Focusing on Mediating Effect of Social Withdrawal	인문사회과학연구, 64(4)
최원미, 김우진	2022	여성결혼이민자의 지각된 한국어능력 발달에 자아존중감이 미치는 영향: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하여	현대사회와 다문화 12(2)
최인지, 신형진	2023	다문화청소년의 언어적응 유형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차이	한국인구학, 46(3)
최정석, 최석규	2020	다문화청소년의 부모의 양육태도와 진로결정태도에 관한 연구	인문사회21, 11(5)
최정윤, 유두호	2021	다문화가정 자녀의 국가정체성 형성: 주변환경과 정책적 지원을 중심으로	공공정책연구, 38(2)
최지예, Ui Jeong Moon	20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태도와 외국문화수용태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8(2)
최지원, 한윤선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언어긴장이 비행과 학교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계승어 능력, 자아존중감, 부모지지의 조절효과 탐구	청소년복지연구, 23(3)
최태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개인주의-집단주의 문화성향에 관한 연구 : 어머니 자신의 적응 및 자녀양육과 관련된 변인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문화와 융합, 43(8)
최태진	2019	다문화가정 아동 ·청소년의 연령 변화에 따른 사회적지지 요인의 변화 분석 및 사회적지지 잠재집단 유형과 심리 ·정서적 적응과의 관계	수산해양교육연구, 31(6)
최홍숙	2024	다문화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자녀의 희망교육수준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 학교 성적, & 부모 지지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3)
최효식	2022	성장혼합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화 및 영향 요인 검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최효식, 연은모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위축 변화에 대한 부모감독, 문화적응 스트레스, 또래관계의 동시 및 지연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8)
최희진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학업 적응을 매개로	다문화교육연구 15(1)
캉리, 최나야, 강소연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소수언어 구사수준: 이중문화 수용태도, 부모의 교육적 지원, 부모-자녀 간 소수언어 사용도의 영향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9(4)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의 진로태도와 진로장벽에 따른 잠재프로파일 분석과 영향요인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3(2)
하여진	2021	다문화청소년 지원정책 효과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4(3)
하여진	2021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스트레스 잠재계층 유형분류 및 자녀 특성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6)
하여진	2021	다문화 청소년 지지유형 분류 및 인지·정서발달 차이 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23(2)
하여진	2023	다문화 고등학생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성의 종단적 상호관계: 성취동기의 매개효과 분석	다문화교육연구, 16(3)
하여진	2022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 인식수준에 따른 잠재집단분류 및 진로태도 차이분석: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다문화교육연구, 15(3)
하영진	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문사회21, 10(6)
하영진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과학연구, 37(2)
한광현	2020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8(1)
한광현, 강상경	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수준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 스트레스 과정 모델 검증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7(1)
한광현, 강상경	2021	결혼이주여성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실천과 연구, 18(1)
한수연, 양미석, 박용한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성 발달양상에 따른 성취동기의 종단적 변화 탐색	교육문화연구, 26(3)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한지은, 최윤철	2022	이주 배경 아동의 회복력에 관한 연구: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인문사회 21, 13(2)
한지혜, 김경희	2020	부모 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에 미치는 영향	교정복지연구, 64(1)
함현진	2022	다문화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진로준비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융합연구, 6(5)
허나영, 김두섭	2021	Am I "Korean"? Effects of Social Support Network and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on National Identity and Dual Identity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한국인구학, 44(1)
허무녕, 김춘경	2022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사회적 적응 잠재프로파일 분류: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 검증	다문화교육연구, 15(2)
호효정, 박용한, 고한나	2022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 초등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시기 비교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8(2)
홍나미, 박현정	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미래사회복지연구, 8(2)
홍민주, 이주연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에 대한 종단 연구: 잠재성장모형의 적용	교육혁신연구, 33(2)
홍성원, 진재찬, 유서구	2024	사회적지지와 심리사회적 적응요인이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역량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88
홍성초, 조제성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행 유형별 범죄이론 영향요인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7(1)
홍성초, 조제성	2020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우울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성별에 따른 발달궤적의 차이 검증	한국치안행정논집, 17(4)
홍진승, 이영선	20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지지와 자아탄력성의 직렬이중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7(2)
홍현정, 안도희	2021	다문화 가정의 배경 특성과 다문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지지, 교우관계, 학교 적응 및 삶의 만족도 탐색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0(2)
홍혜경, 송진영	2024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3(4)
황보경옥	2024	다문화 청소년의 우울과 학교생활 적응의 관계에서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교양기초교육연구, 5(1)
황희봉, 주은선	2023	부모지지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 국가정체성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복지와 문화다양성연구, 5(1)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황희봉, 주은선	2022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부모지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61(2)
Choi, So-Yun	2021	Effects of Parental Support, Bicultural Acceptance, and Self-Esteem on Career Attitude Maturity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Culture Technology (IJACT), 9(4)
Jung, Byongsam	2024	Influence of Demographic Variables of the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ir Children's School Adaptation and Bullying	Journal of Public Value, 7
Jung, Hoyong	2020	An Examination of the Linkage between the National Identity of Parents and Children: Evidenc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OMNES, 10(2)
Kim Jae-Nam	2022	The Effects of Parental Support and Parenting Attitud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School Life and Social Competence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7(11)
Kim, Eun Hye, Nho, Choong Rai	2020	Longitudinal reciprocal relationships between self-esteem, family support, and life satisfaction in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4(3)
Lee, Hyoung-Ha	2019	A Longitudinal Study on the Parenting Effectiveness of Multicultural Families and Self-esteem and Achievement Motiv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of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24(11)
Park, Jisu	2022	Acculturation trajectories of South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immigrant mothers and its association with adolescent adjustments	Asian Social Work and Policy Review, 16(1)
WU YILE, 안도희	2022	다문화 청소년의 부모지지, 사회적 유능감, 문화적응 스트레스 및 삶의 만족도 간의 구조적 관계	문화교류와 다문화교육, 11(6)

(2) 해외 학술논문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Ahn, Hyun Seon, Lee, Jeesoo, Jin, Yuanying	2024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services on the longitudinal changes of acculturative stress, peer relations, and school adjustment	Front. Psychol, 1
Bae, Sung M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bicultural identity, acculturative stres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ling.	Stress and Health, 36(1)
Bae, Sung Man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cculturative stress and depressive symptom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Verification using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74
Cha, Hyo Sung, Kwon, Mi Young	2022	Changes in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Iran J Public Health, 51(11)
Cho, Yoon-Hee, Lee, Joohyun	2023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School-Aged Children with Vietnamese Immigrant Mothers in Korea	Healthcare, 11(17)
Choe, Chung, Yu, Seunghee	2022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n ecological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2(1)
Choe, Chung, Yu, Seunghee	2022	Depressive symptom trajectories and their gender differences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n ecological perspective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2(1)
Choe, Danbi	2021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st child neglect, social relationships, and school dropout risk for culturally and linguistically diverse adolescents	Child Abuse & Neglect, 112
Choi, Jaeyong, Kruis,Nathan, Lee,Julak	2021	Target Congruence as a Means of Understanding the Risk of Bullying Victimiz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y Youth in South Korea	Crime & Delinquency
Choi, Seokkyu, Kim, Woohyoung, Choi, Jungsuk	2024	Parenting attitudes, career adaptability, and bicultural acceptance perceived by multicultural youth	Journal of Community & Applied Social Psychology, 34(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Choi, Sunyeob	2023	Factors affecting the mental health status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descriptive analysis of data from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Child Health Nurs Res, 29(1)
Han, Seungwoo	2023	Factors affecting cultural adaptation stress by gender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Research in Community and Public Health Nursing, 34(4)
Jang, Hayun, Park, Hansol, Son, Hyewon, Kim, Jinho	2024	The Asymmetric Effects of the Transitions Into and out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Depressive Symptoms: The Protective Role of Parental Education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74(4)
Jang, Jun-Hyeok, Bae, Sung-Man	2024	The Effects of Acculturative Stress on Depression in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Moderated Mediating Effect of Ethnic Identity Through Body Dissatisfac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Jang, Sou Hyun, Kim, Juyeon	2023	Stress or Buffer: The Impact of Social Transnational Ties on Depressive Mood and Suicidal Ideation Among Female Marriage Migrants in South Korea	Journal of Immigrant and Minority Health, 25
Jeon, HyeSook	2022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career barri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 among South Korea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2(2)
Jeon, HyeSook	2022	The influence of acculturative stress on career barriers: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 among South Korea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2(2)
Joung, Kyoung Hwa, Chung, SungSuk	2022	Factors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38(2)
Joung, Kyoung Hwa, Chung, SungSuk	2022	Factors Related to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The Journal of school nursing : the official publication of the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Nurses, 38(2)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Jung, Hoyong	2020	I am a Real Korean: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on Multicultural Youth's National Identity	Asian Studies Review, 44(4)
Kang, Minkyung, Min, Ari, Min, Haeyoung	2022	Predict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in South Korea: Role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5
Kang, Minkyung, Min, Ari, Min, Haeyoung	2022	Predicting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in South Korea: Roles of ego-resilience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65
Kim, Eunjoo, Song, Min Kyung	2022	Profiles of Social Capital and the Association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A Latent Profile Analysi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Kim, Eunjoo, Song, Min Kyung	2022	Profiles of Social Capital and the Association With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A Latent Profile Analysis	Frontiers in Public Health, 10
Kim, Hyemee, Han, Kwanghyun, Won, Seojin	2023	Perceived Discrimination as a Critical Factor Affecting Self-Esteem, Satisfaction with Physical Appearance and Depression of Racial/Ethnic Minority Adolescents in Korea	Behavioral Sciences, 13(4)
Kim, Jinho	2024	The influence of bullying victimization on accultur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Journal of Ethnic and Migration Studies
Kim, Soo Mi, Kim, Hyeon Ok	2022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Multicultural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Sequential Multiple Mediating Effects of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Self-Esteem, and Social Withdrawal - Using the 2016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52(3)
Kwon, Hyuk-Jin	2024	The Relationships Between Negative Affect, Parent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51(1)
Lee, Eun Jee, Jeong,Sookyung	2021	Analyzing Gender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Depression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A Cross-Sectional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8(7)
Lee, Hyeyeon, Lee, Hyeonkyeong,	2022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 random 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el for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Kim, Youlim, Lee, Mikyung, Park, Chang Gi		3-wave panel data	17
Lee, Hyeyeon, Lee, Hyeonkyeong, Kim, Youlim, Lee, Mikyung, Park, Chang Gi,	2022	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dolescents'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 random intercept cross-lagged panel model for 3-wave panel data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17(4)
Lee, Tae Kyoung, Jiang, Zekai, Schwartz, J. Seth	2024	Cultural stressors, acculturation processes, and mental health among adolescents in Korean multicultural families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Lim, Jeongsu, Nam, Boyoung	2024	Bicultural identity and dropout risk among biethnic adolescents in Korea: A latent profile analysi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100
Lim, Yangmi	2023	School and Bicultural Factors as Mediators between Immigrant Mothers' Acculturative Stress and Adolescents' Depression in Korea	Children 10(6)
Lim, Yangmi	2024	Maternal Involvement in Education, Bicultural Acceptance, and School Adjustment: An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Study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ehavioral sciences, 14(5)
No, Boram, Kang, Sujeong, Lee,NamKyung, Choi, Naya	2020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rajectories of Ego-resilience, Neglectful Parenting, Bilingual Competency, and Acculturative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Sustainability, 12(5)
Noh, Wonjung, Lee, Anna	2024	Determinants of positive orientations of adolescents in Korean multicultural families based on the socio-ecological model	Heliyon, 10(2)
Oh, Hyejeong, Kim,Jinho	2021	Affective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children: The case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Korea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29
Park, Hansol, Son, Hyewon, Jang, Hayun, Kim, Jinho	2024	Chronic bullying victim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Heterogeneity by immigrant mothers' country of origin	Child Abuse & Neglect, 151
Park, HyunJee, Park, Gum-Ryeong, Kim, Jinho	2023	A longitudinal study of immigrant mothers' destination-language proficiency and their children's psychological well-being: Evidence and mechanisms from a study in South Korea	Social Science & Medicine, 337

이름	연도	제목	학술지
Park, Jisu, Han, Yoonsun	2023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Korean and heritage language proficiencies and their association with maladjustment among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94(3)
Park, Jong-Hye, Bae, Sung-Man	2024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as a Protective Factor Against the Effect of Acculturative Stress on Life Satisfaction Among Korean Multicultural Adolescents	Applied Research Quality Life
Park, Si-On, Bae, Sung-Man	2021	The verification of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bicultural acceptance attitude using autoregressive cross-lagged modeling	Current Psychology
Seo, Ji Yeong, Park, Min Ah, Han, Myeung Hee	2022	Factors Influencing Self-esteem Changes in Multicultural Adolescents: Using a Linear Mixed Model	J Korean Acad Community Health Nurs, 33(3)
Son, Hyewon, Ahn Eunhye, Kim, Jinho	2024	Children's bullying victimization and maternal suicidal ide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Heterogeneity by family socioeconomic status	Social Science & Medicine, 341
Son, Hyewon, Jang, Hayun, Park, Hansol, Kim, Jinho	2024	Children's bullying victimization and the acculturative stress of immigrant mothers in Korea: Exploring heterogeneity by mother's country of origin	Cultural Diversity & Ethnic Minority Psychology, 30(3)
Song, Min Kyung, Yoon, Ju Young Kim, Eunjoo	2020	Trajectorie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Longitudinal Analysis Using Latent Class Growth Model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17(21)
Song, Yaena, Jang, Sou Hyun	2024	Multilevel factors associated with depressive mood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South Korea	Asia Pacific Journal of Social Work and Development, 34(2)
Yoo, Changmin	2021	Acculturation strategies of multi-cultural family adolescents in South Korea: Marginalization, separation, assimilation, and integr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81

3) 학술대회

(1)「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MAPS 학술대회)」

이름	제목
김기영, 고은선	다문화 교육 지원 정책에 대한 대상·내용·방법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연구
김남희	다문화 수용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심리, 정서, 인지적 요소에 미치는 영향
김민주, 윤기봉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적 효과
김양희	다문화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김우진, 심태은, 정지아, 이송이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탄력성 변화 연구
김원영, 김경식	사회적 지지가 남녀 다문화청소년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우울과 사회적 위축을 매개로
김준범, 박성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부적응에 관한 연구: 자아탄력성의 종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지연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
박명희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학업성취 영향요인들 간의 구조적 관계
박애스더, 김두영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출신국별 부모효능감: 2011-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를 중심으로
박용한, 이신동	다문화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성취 변화 요인에 대한 탐색
박혜숙, 양상희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만족도 변화
백승희, 박소영	분할함수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 초·중학생들 삶의 만족도의 종단적 변화추정과 영향요인 검증
백종규, 염동문	이중문화특성의 잠재프로파일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봉초운, 정윤화	다문화가정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지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 모형(APIM)의 적용
서봉언	다문화청소년의 비행경험 실태 및 관련요인 탐색
오정아, 한애경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학업중단 의도 예측모형 탐색
유봉애, 옥경희	자아존중감, 가족지지, 부모 사회·경제적 지위가 전환기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성별에 따른 차이 연구
윤지영, 허은정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모형 검증
이소연	다문화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 청소년과 어머니의 이중문화요인 및 청소년의 심리정서적응의 구조관계
이영주, 박륜경, 이수경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이중문화 수용태도 및 심리적·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이름	제목
이응택, 이은경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연구
이희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이 한국사회 어울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인효연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 삶의 만족도 및 어머니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간의 종단적 관계
임선아	다문화청소년의 따돌림경험이 자아탄력성을 매개하여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 내·외 지지자의 존재 여부에 따른 차이 검증
장주리	MAPS를 활용한 다문화청소년의 탄력성(Resilience)이 결핍에 미치는 영향력
정민아, 김은혜	다문화가정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및 성차 비교
정호용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조옥선, 방해순	다문화 부모의 일상생활스트레스가 자녀의 학습 케어 형태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최현주, 하영진	다문화청소년의 심라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한애경, 김평화, 오정아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성취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탐색: 성별과 학령기를 중심으로
홍나미, 박현정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2) 외부학술대회

이름	연도	제목	학술대회
강란	2023	친구의 지지, 부모님과 활동 및 대화가 초등학교 4학년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2023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김미희, 최가희	2021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이 집단괴롭힘 피해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수용성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노보람, 정정화, 최나야, 이강이	2018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청소년의 또래지지 변화 유형 및 예측요인	2018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노보람	2024	다문화가정 외국인 어머니의 자녀 교육지원 유형과 예측요인	대한가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노보람	2024	결혼이민자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아동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부모효능감과 부모지지의 이중매개효과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4
두예슬	2022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 영향요인에 대한 종단분석	통계청 논문 공모전

이름	연도	제목	학술대회
신형진	2017	다문화청소년의 이중언어 사회화 유형: 2015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분석	전남대학교 세계한상문화연구단 국내학술회의
이은지, 정수경	2020	다문화 청소년의 성별에 따른 우울 영향요인 비교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이현정	2022	다문화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우울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상담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2(8)
이형하, 김지선, 김지원, 송현경, 최은	2019	다문화청소년의 진로장벽과 사회적위축이 진로결정성에 미치는 영향: 성취동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이형하, 라연희, 송현주, 용정이, 윤정희	2019	다문화청소년 부모의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2)
임양미	2019	부모의 지지 및 감독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 학술대회, 6
임예림	2023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 결정성 변화 궤적 유형 분석 및 영향요인 검증	제21회 통계청 논문공모 우수논문집
장은애, 정현희	2020	다문화가정 초기청소년의 문화정체성 잠재프로파일과 영향요인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장혜연, 송하나	2022	어머니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또래 지지가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22(11)
조정래	2021	다문화 청소년의 비가시적 소수자 특성은 학교적응에 유리하게 작용할까? : 다문화 청소년의 외모적 차이와 그 영향분석	한국교육사회학회, 12
한광현	2019	다문화청소년의 우울궤적 예측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정신보건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1
한도현, 안명인	2019	다문화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우울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다문화 수용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8
Eunjoo, Kim, Min Kyung, Song	2021	Social Capital and Depressive Symptom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Korea : A Latent Profile Analysis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21(10)
Minah, Park, Myeunghee, Han, Jiyeong, Seo	2021	A longitudinal study on affecting factors self-esteem of multicultural adolescent	한국간호과학회 학술대회, 2021(10)

4) 기타 연구보고서

이름	연도	제목	보고서명
김경근	2019	다문화가정 학생의 실태 및 발달 추이	한국의 사회동향 2019
정은별, 김지은, 김지현, 박수민	2021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장벽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과 보호요인 – 혼합연구방법론을 활용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21
조승연	2020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결정 요인 분석.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토의용 논문 W50

Abstract

국문초록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은 한국 사회의 사회적 변동을 주도하는 주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적 변동에 따라 다문화청소년의 발달과정을 이해하고 근거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기능할 수 있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이어서 수행하고, 성장실태를 분석하여 체계적인 다문화청소년 정책수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 진행되었다. 구체적으로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일환으로는 1기 패널(2011년 구축, 14차) 추적조사와 2기 패널(2019년 구축, 6차) 추적조사를 실시하였다. 더불어, 기존 축적한 패널자료에 대한 기초 및 심화분석과 다문화청소년 및 학부모와의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나아가 다문화청소년 관련 정책 운영담당자를 대상으로 정책사업의 진행내용과 성과, 애로사항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주제로 각각 초점집단면담을 실시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청소년은 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에서도 중도입국가정 자녀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가 낮은 데다 진로불안감과 사회적 고립도가 높아 더욱 취약한 특성을 보였다. 다문화청소년의 진로 발달에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분석되었으나, 실제로는 진로 탐색 과정의 개부분이 청소년에게 맡겨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피상적이고 막연한 접근으로 진로 탐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어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또한, 다문화청소년을 정책적 대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여러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드러났다. 특히 사업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진로발달” 비전을 바탕으로 4가지 원칙(① 보편성과 특수성 고려, ② 다양한 주체에 대한 지원, ③ 단계적 접근, ④ 다차원적 지원)을 설정하고 총 5개의 세부과제를 제안하였다. 세부과제는 다문화가족자녀 진로설계지원 체계화, 학생맞춤통합지원 확대, 진로 융합 콘텐츠 보급, 체계적 부모교육 지원, 학생정보 관리 방법 개선 등이다.

ABSTRACT

The transition to a multicultural society is one of the key drivers of social change in South Korea. In response to this societal shift,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NYPI) has been conducting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urvey(MAPS), which provides foundational data to understand the developmental processes of multicultural youth and to promote evidence-based policies.

This study continues MAPS and aims to contribute to the systematic establishment of policies through understanding the psychological, emotional, and career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 Specifically, as part of MAPS, we conducted follow-up surveys for the first panel (established in 2011, 14th round of surveys) and the second panel (established in 2019, 6th round of surveys). In addition, a basic and in-depth analysis of the accumulated panel data, as well as in-depth interviews with multicultural youth and their parents, were carried out to derive policy implications. Furthermore, focus group interviews with people involved in multicultural youth-related policies were conducted to present realistic policy implications, focusing on the progress, outcomes, challenges, and future directions of these initiatives.

The analysis revealed that multicultural youth face diverse challenges depending on their backgrounds. Among them, children

from late-entry immigrant families were found to have lower self-esteem and life satisfaction, as well as higher career anxiety and social isolation, making them more vulnerable. The study also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parental involvement in the career development of multicultural youth. However, in practice, much of the career exploration process tends to be left to the youth themselves, leading to superficial and vague approaches to career exploration, which indicates the need for more substantial policy support. Additionally, although several policies targeting multicultural youth have been implemented, certain aspects of these initiatives require improvement for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In particular, the analysis suggests that the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support frameworks tailored to the specific goals of these initiatives is essential.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a vision of "healthy growth and career development for multicultural youth" and outlines four guiding principles: ① consideration of both universality and specificity, ② support for diverse stakeholders, ③ a phased approach, and ④ multidimensional support. The study also suggests five specific tasks: 1) systematizing career planning support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2) expanding student-centered integrated support; 3) distributing career-related content; 4) providing systematic parent education; and 5) enhancing student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s.

2024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발간자료 목록

기관고유과제

연구보고24-기본01	인구감소지역 청소년정책 강화방안 연구 / 김지경·송현주·김일우·김윤희
연구보고24-기본02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 및 리터러시 증진방안 연구 / 이창호·모상현·배상률·이세영
연구보고24-기본03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국형 Erasmus+ 모형 구축방안 연구 / 이윤주·김형주·오해섭·박대승
연구보고24-기본04	청소년 근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이수정
연구보고24-기본05	청소년활동을 통한 환경 실천 지원방안 / 황세영·김정숙·최정원·이은주·손윤희
연구보고24-기본06	청소년은 어떻게 범죄의 길에 빠지게 되는가 : 청소년 범죄 경로와 예방 대책 / 이지연·김영지·박지수·한윤선·박선영
연구보고24-기본07	고립·은둔형 청소년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 서정아·강경균·최홍일·허창수
연구보고24-일반01	2024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 총괄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유성렬
연구보고24-일반01-01	2024 아동 · 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 연구 -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 기초분석보고서 / 유민상·이경상·서고운·유설희
연구보고24-일반05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 하형석·김기헌·최인재·한지형
연구보고24-일반05-01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김기헌·오병돈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장윤선
연구보고24-일반06-01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기초분석보고서(2기패널) / 신동훈·김희진·이정민·이용해

협동연구과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 청년종합연구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김성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4-02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2-01) 2024년 시설퇴소청년의 생활 실태 및 정책개발 / 김승경·김지연·백혜정·전현정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5-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3) 청년 친화적인 지역인재양성 및 일자리 창출 방안 I / 최용환·김영한·권오영·박윤수·오문준·이경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24-46-01 (자체번호 연구보고24-일반04)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청소년보호정책 개선방안 연구 I : 사이버도박 / 임지연·황진구·성윤숙·조제성

수 시 과 제

연구보고24-수시01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 개선방안 / 김정숙·조남억

연구보고24-수시02 일경험으로서 청년인턴 활성화 방안 연구 - 중앙행정기관 청년인턴을 중심으로 / 이윤주·황세영·하형석·서고운·최홍일·이용해

연구보고24-수시03 청소년기 인문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 강경균·최홍일

연구보고24-수시0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 성윤숙

연구개발적립금 과제

연구보고24-연적금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김희진·김경준·박지수·조혜영

연구보고24-연적금01-01 가정·학교 밖 이중 취약 청소년 실태연구 : 청소년 쉼터를 중심으로 - 기초분석보고서 / 김희진·박지수

연구보고24-연적금02 미래지향 정책연구 수행사업 / 김대웅·이진아·이유정·김정숙·권오영·변주영·조은혜·이윤주

수 탁 과 제

〈 일 반 〉

연구보고24-수탁01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장근영·김기헌·문호영·이용해·최홍일·구본호·이자경·서지형
연구보고24-수탁02	청년의 결혼 및 출산 의식과 세대지향적 저출생 정책지원망 구축 연구 / 김형주·정세정·박미선·김동훈·김지민
연구보고24-수탁03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대안교육기관 현황조사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1	202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 교원, 학생 및 학부모 실태조사 / 최인재·유설희·김소연·윤철경
연구보고24-수탁03-02	2024 대안교육기관 운영 사례집 / 최인재·오해섭·권오영·유설희·김소연·박진수
연구보고24-수탁04	제5차 청소년보호종합대책(2025~2027)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 이지연·하형석·박지수
연구보고24-수탁05	2024년 특수교육대상자 인권실태조사 사업보고서 / 서고운·김영지·김지연·이정민·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06	디지털기반 인성교육 플랫폼 운영지원 및 성과평가 / 임지연·하형석
연구보고24-수탁07	청소년 진로 및 디지털 활동 활성화 방안 연구 / 강경균
연구보고24-수탁08	2024년 학생 인성 함양 리더십새싹 캠프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동성·박윤수·장혜윤·임채홍·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09	2024년 인성교육프로그램 인증제 운영 결과보고서 / 최용환·이창호·임지영
연구보고24-수탁10	2024년 중앙부처와 시도교육청의 인성교육 이행점검 및 인성교육정책 분석평가/ 최용환 박윤수·장혜윤·김보경·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1	2024년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관리 보고서 / 최용환·임지영·이경아
연구보고24-수탁12	2024년 청소년수련시설 종합평가 / 황진구·김영지·모상현·이용해·김경준
연구보고24-수탁13	광역지역단위 청소년활동 진흥 및 협력강화 방안 연구 / 황세영·유민상·남화성
연구보고24-수탁14	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기초연구 / 조연수·하형석·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5-01	2024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부록: 기초통계결과표) / 황여정·임희진·정은주·유설희

연구보고24-수탁16 보호관찰 청소년 사이버도박 실태분석 및 지도감독 방안 / 박지수·이지연

연구보고24-수탁17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김지경·송현주·김균희·김일우

연구보고24-수탁18 학교안팎 지역사회 청소년 성장지원 사업 연구 / 유민상·이경상·황세영·최인재·최홍일

연구보고24-수탁19 취약청년 현황 및 지원방안 연구-1인가구 청년 및 경계선 지능 청년을 중심으로 / 유민상· 김기헌·신동훈·변민수·박미선·한지형

연구보고24-수탁20 2024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효과만족도 조사 연구 / 서정아·장여옥

〈 학교폭력예방교육지원센터 〉

연구보고24-학폭01 2024 학부모용 소식지 모음집 / 모상현·박재욱·전원지

연구보고24-학폭02 어울림 프로그램 개정 방향 모색을 위한 기초연구 / 모상현·김승혜·최희영·차민희·송채원

연구보고24-학폭03 2024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적용효과 분석 / 모상현·전원지·문은솔

연구보고24-학폭04 2023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결과보고서 / 모상현·박선영·김예지

연구보고24-학폭05 2024년 어울림 학생서포터즈단 운영안내서 / 모상현·박선영

연구보고24-학폭06 2023년 학교폭력 예방교육 어울림 프로그램 우수사례집 / 모상현·최지윤

연구보고24-학폭07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초등학교 1~2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8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중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09 개정 어울림 프로그램으로 일년나기(고등학교 1학년) / 모상현·정광훈·백성희·최인재·송채원 외

연구보고24-학폭10 2024 학교폭력예방 컨설팅 매뉴얼 / 모상현·최지윤·문은솔

〈학업중단예방 · 대안교육지원센터〉

연구보고24-대안01 학업중단 숙려제 공통운영기준 / 황세영

연구보고24-대안02 청소년부모·한부모 지원매뉴얼 / 황세영·이진아·김시경·김미혜

연구보고24-대안03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 실태조사 구축방안 / 김영지·임지연·유성렬·김강호·이종숙·정유경

〈위(WEE)프로젝트연구·지원센터〉

연구보고24-위센터01 2024년 위(Wee) 프로젝트 연구지원 사업 운영 결과보고서 / 김지연·김영지·백혜정·김승경·이정민·전현정·최홍일·양하나·김주영·문세진·나예인·이유진

자 료 집

〈 세 미 나 〉

세미나24-01 청소년의 생성형 AI 리터러시 증진방안 세미나 (24.5.24.)

〈 워 크 숍 〉

워크숍24-01 소년사건의 이해: 경찰 사랑의 교실, 법원 수강명령 이해하기 (24.8.29.)

워크숍24-02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4.8.7.)

〈 포 럼 〉

포럼24-01 청소년 금융활동 역량강화 방안 (24.3.18.)

포럼24-02 청소년-가족 시설간 정책 연계 협업 관련 다문화 청소년 진로지원 포럼 (24.4.29.)

포럼24-03 다문화청소년 심리·정서 및 진로·진학 지원 정책의 현안과 발전방안 (24.7.18.)

포럼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24.8.19.)

포럼24-05 청소년 디지털 역량 강화 방안 (24.12.10.)

〈 콜 로 키 움 〉

콜로키움24-01 가명정보 활용절차의 이해 - 청년종합연구 Ⅲ: 정책소외계층 청년 실태 및 정책 개발 (24.4.24.)

〈 기 타 자 료 집 〉

자료24-01 2024년 저경력 전문상담교사 연수

자료24-02 위(Wee) 센터 실장 역량강화 연수 자료집

자료24-03 가정형 위(Wee)센터 컨설팅

자료24-04 제1회 청소년 형사 법무 국제심포지엄 청소년 약물 남용과 도박문제

자료24-05 지역사회 환경교육 협력을 위한 청소년수련시설 학교 연계 프로그램 운영 안내서

자료24-06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1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7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2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8 2024년 대안교육기관 교직원 연수 - [제3차] 연수 강의자료

자료24-09 위(Wee) 이슈브리프

자료24-10 (초등학교) 위기사안별 개인상담 개입 지도서

자료24-11 위(Wee) 클래스 및 센터 운영 가이드

자료24-12 가정형 위(Wee)센터 매뉴얼
자료24-13 제13회 위(Wee) 희망대상 우수사례집
자료24-14 위(Wee) 뉴스레터
자료24-15 제13회 한국아동·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24-16 2024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매뉴얼
자료24-17 제11회 학업중단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수상작품집
자료24-18 2024 학업중단예방·대안교육지원센터 연간사업보고서
자료24-19 2024 꿈지락 운영 워크숍 2차

학 술 지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1호(통권 제112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2호(통권 제113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3호(통권 제114호)

「한국청소년연구」 제35권 제4호(통권 제115호)

기타 발간물

〈 NYPI Bluenote 이슈 & 정책 〉

151호 어울림 프로그램 현안 진단을 위한 탐색적 연구
152호 학교 밖 청소년의 취약성 분석 및 자립지원방안 연구
153호 가족환경 다변화에 따른 청소년 가족실태와 지원방안

〈 NYPI Bluenote 통계 〉

77호 청소년의 생성형 AI 이용실태조사
78호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Ⅲ: 시민권과 참여
79호 소년보호재판 준비메모(2013~2018) 데이터 구축 및 주요 결과
80호 청소년활동 실태
81호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정책 진단 및 제도보완 연구Ⅱ
82호 2023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주요 지표 결과
83호 청소년의 시민성 함양을 위한 정치참여 지원 방안 연구
84호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6차년도 패널데이터 구축 및 주요 조사 결과

연구보고 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총괄보고서

인 쇄 2024년 12월 24일
발 행 2024년 12월 31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발행인 백 일 현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사)대한민국공무원 공상유공자회 인쇄사업부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44) 415-2125(학술정보관)
ISBN 979-11-5654-439-5 94330
979-11-5654-438-8 (세트)

연구보고24-일반06

2024 다문화청소년 종단연구 : 총괄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D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7층
Social Policy Building, Sejong National Research Complex, 370, Sicheong-daero, Sejong-si, 30147, Korea
Tel. 82-44-415-2114 **Fax.** 82-44-415-2369

94330
9 791156 544395

ISBN 979-11-5654-439-5
ISBN 979-11-5654-438-8 (세트)